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립 50주년
1973 ~ 2023

50TH ANNIVERSARY

예술과 세상을 잇다

50년의 동행,
100년을 약속하는 믿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립 50주년
1973~2023

50TH ANNIVERSARY

예술과 세상을 잇다

50년의 동행,
100년을 약속하는 믿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립 50주년
1973 ~ 2023

50TH ANNIVERSARY

예술과 세상을 잇다

50년의 동행,
100년을 약속하는 믿음

일러두기

1. 해당 도표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명은 〈 〉로 표기했고, 그 상위 사업명과 하위 사업명은 ‘ ’로 표기했다.
   원칙적으로 〈단위사업명〉, ‘상위사업명’, ‘하위사업명’은 모두 붙여 썼다.
2. 〈단위사업명〉 뒤에 붙인 괄호 안의 기간 표시는 해당 단위사업명으로 사업이 존속한 기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단위사업명이 여러 번 변경된 경우, 설명의 편의상 통합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사업명만 변경되거나 통·폐합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기간 표시가 반드시 동일·유사사업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위원회 전환(2005. 8. 26.) 이전 시기를 다룰 경우 문예진흥원 혹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표기했고,
   전환 이후 시기는 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표기했다.
5. 각종 계획은 〈 〉, 법률이나 단행본은 「 」, 연속간행물은 『 』, 지원을 받은 행사나 사업은 ‘ ’로 표기했고,
   도표 내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수치 0이 들어가야 할 경우는 - 로 표기했다.
6. 도표 내용에 표기된 N.A.는 ‘Not Available’의 약자로,
   해당 통계 수치가 존재하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미상’의 의미로 사용했다.
7. 연도 표시는 네 자리 수(2023)를 기준으로 했으나, 당시 표기에 따라 두 자리 수(88서울올림픽) 표기를 병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연도 수치 뒤의 년 월 일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리는 예술이 세상을 바꾸며
삶들을 바꾼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그 진실이 바로 우리 삶의 끈이며
그 믿음이 우리 세계의 힘입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끈과 힘이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예술이 이 세계를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선언문 중



2023년 1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 병 국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3년 문예중흥선언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범하여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의 중추 기관으로서 문화진흥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1973년에 설립한 것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사에서 큰 획을 긋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00불 시대로 먹고 살기조차 힘든 시기였습니다. 만나면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시대에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기금 조성 그리고 문화진흥 시책을 추진할 기관을 설립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설립 당시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50년 간 약 4조 3,200억원 이상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투자하여 예술창작과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진흥 기반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여건을 개선해왔습니다. 반백 년의 시간 속에서 꾸준하게 이어온 기초예술에의 투자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떠받치며 함께 성장해 그 매력을 선보이게 했고, K-아트가 세계 중심에서 주목받게 되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격차는 여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AI 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더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지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창작지원의 예산규모는 국가재정 총지출의 0.008%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의 뿌리를 지탱해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700억 원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창립 50주년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앞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걸어온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예측해 보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의 가치 인식이 예술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년
PART 1

1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년 개관

1. 국가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012
2. 예술위원회 50년의 재원 조성과 사업 실적 030
3. 예술위원회 50년의 조직 변천 035
4. 문화예술 생태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039

한국문화예술진흥원史
PART 2

2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개원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의 배경과 의의 044
2. 주요 임무와 조직의 구성 048
3. 추진사업과 주요시설 055

3장
1970년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출범과 기금사업의 전개

1. 197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062
2.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065
3. 1970년대 예술창작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071
4. 1970년대 문화향수 진작사업의 추진과 성과 091
5. 197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094
6. 197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097
7. 1970년대 문화시설 운영 및 발간사업의 추진과 성과 100

4장
1980년대, 문화시설 확충과 예술창작 지원의 확대

1. 198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110
2.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115
3. 1980년대 예술창작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119
4. 1980년대 문화향수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145
5. 198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148
6. 198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158
7. 1980년대 문화시설 운영 및 발간사업의 추진과 성과 169

5장
1990년대, 문화향수 지원 확대와 우리문화의 세계화

1. 199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182
2. 199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186
3. 199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190
4. 199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216
5. 199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222
6. 199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228
7. 1990년대 문화시설 운영 및 발간사업의 추진과 성과 236

6장
2000년대, 문화의 세기 - 예술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1. 21세기 문화예술 환경과 정책 변화 246
2. 2000년대 위원회 전환 이전 기금사업 총괄 253
3. 200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256
4. 200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268
5. 200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275
6. 200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278
7. 2000년대 예술의 보존과 계승사업의 추진과 성과 283
8. 2000년대 문화시설 운영의 추진과 성과 290

한국문화예술위원회史 PART 3

7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1. 예술위원회 출범의 역사적 의미 298
2. 예술위원회 출범의 배경과 경과 300
3. 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의 구성과 활동 309
4. 예술위원회 출범 328

8장 2000년대 후반(2006~2010), 위원회 전환과 변화의 모색

1. 2000년대 후반 문화예술 정책환경 340
2. 2000년대 후반 위원회 활동과 기관운영의 성과 344
3. 2000년대 후반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365
4. 2000년대 후반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370
5. 2000년대 후반 문화향유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381
6. 2000년대 후반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388
7. 2000년대 후반 예술가치 확산사업의 추진과 성과 396
8. 2000년대 후반 문화시설 운영사업의 추진과 성과 404

9장 2010년대, 예술생태계를 위한 지원방식의 다각화

1. 2010년대 문화예술 정책환경 416
2. 2010년대 위원회 활동과 기관운영의 추진성과 422
3. 201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442
4. 201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447
5. 2010년대 문화향유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470
6. 201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479
7. 2010년대 예술가치 확산사업의 추진과 성과 492
8. 2010년대 문화시설 운영사업의 추진과 성과 503
9. 2010년대 국고·타 기금 수탁사업 추진과 성과 517

10장 2020~2022년 코로나19 시대, 위기극복을 위한 예술지원

1.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과 대응 526
2. 위원회 활동과 기관운영의 성과 534
3.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 총괄 5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史 PART 4

11장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한 새로운 시작

556

부록

1. 주요 연혁 574
2. 조직 및 인력의 주요 변천 580
3. 역대 임원 586
4.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606
5. 1974~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분야별 지원실적 총괄 608
6. 주요 연표 609
7. 사진으로 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38

PART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년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년 개관

1. 국가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2. 예술위원회 50년의 재원 조성과 사업 실적
3. 예술위원회 50년의 조직 변천
4. 문화예술 생태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1. 국가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ARKO, 이하 예술위원회)는 1973년 10월 1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KCAF, 이하 문예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실제로는 같은 해 3월 30일 설립 등기하고 4월 1일 업무를 개시했지만, 이날 현판식을 거행하고 공식 개원한 것이다. 당시 총무부, 진흥부, 업무부 등 3개의 부서로 출범한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은 그 후 수십 차례 직제 개편을 거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연간 사업비도 사업 첫해인 1974년 8억 6,200만 원에서 50년이 지난 2023년에는 3,845억 8,500만 원으로 약 446배 증가하였다.

개원 후 3년 동안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은 교육회관, 국악고등학교, 한국일보 사옥, 출판문화회관 등 여러 청사를 전전하였다. 그러다가 1976년 동숭동 옛 서울대 본관 건물(사적 제278호)에 자리 잡은 후 34년간 청사로 사용했다. 현재는 2014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 터전을 잡게 됨으로써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의 역사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설립 당시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 출범하여 50년 동안 문화

예술 진흥이라는 설립 목표를 줄기차게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조직의 '뿌리기관'이자, 예술위원회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公的) 지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위원회는 50년 전 출범할 당시나 현재나 문체부 산하의 지원정책 집행기구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비영리 특수법인이며, 현재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원장 독임제이던 문예진흥원이 2005년 8월 합의제인 예술위원회로 전환한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민간 자율기구라는 독특한 위상을 갖는 단체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산하단체인 만큼, 예술위원회는 역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는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매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과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를 집행해 오고 있다.

이하에서 예술위원회가 국가 문화정책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그 실적과 성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1970년대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는 소극적인 문화재 관리행정이 문화행정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즉 문화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제3공화국(1961. 5.~1972. 10.)이 들어서고 과업 지향적인 정치 지도 노선하에 경제개발에 성공하면서 민족문화예술의 재건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 「공연법」 등 문화 관련 법과 문화공보부 등 조직체계의 확립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체계도 갖추게 되었다. 이 당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기조(基調)는 국가 시정목표인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자주적 민족문화의 창달에 두고,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제4공화국,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출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현판식
1973년 10월 11일 국악고등학교(서울 장충동 소재)내에 마련된 청사에서 거행된 개원식.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 박종화 예술원장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 문화적 욕구와 수요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산업화가 가져온 폐해가 점차 두드러짐에 따라 사회통합과 가치관 순화를 위한 문화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도 유형문화재 관리 중심의 문화행정을 벗어나 정신문화의 영역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중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4공화국(1972. 10.~1981. 3.) 기간 동안 문화공보부의 문화 분야 예산의 규모와 비중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문예 진흥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조치인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과 〈문예중흥 5개년계획〉의 시행 역시 이러한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문예 진흥의 모법(母法)인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이 제정된 것은 제3공화국 말인 1972년 8월 14일이다. 이후 문예 진흥의 기틀이 된 각종 제도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다음 해인 1973년 7월부터 공연·전시장과 고적·사적지 등 입장료에 부가(附加)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시작되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식 개원하고 〈문예중흥 선언〉(1973. 10. 20.)이 채택되었다. 이어 1974년에는 〈문예중흥 5개년계획〉 첫해를 맞이하면서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당시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이었기 때문에 전국단위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행사까지 지원 대상이 되었다. 당시의 기금사업은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이 강조되고 있던 시대 상황에 따라 국학연구, 전통예술 및 문화재 보호, 예술창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문예중흥선언
1973년 10월 20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전국문화예술인대회에서 전국문화예술인 전체의 이름으로 채택된 문예중흥선언.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의 기조가 되는 선언으로 곽종원, 김형석, 박목월, 박종홍, 박종화, 조연현 등 6명이 기초했다.
(1973. 10. 20. 매일경제 7면)



문예중흥 5개년계획
1973년 10월 19일 윤주영 문공부장관이 발표한 〈문예중흥 5개년계획〉
(1973. 10. 19. 동아일보 1면)



1978. 5. 19. 종합문화예술회관
(현 아르코미술관과 아르코예술극장) 기공식



문예회관 개관
송지영 문예진흥원장, 이은상, 곽종원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개관기념 테이프를 끊고 있다.
(1981. 4. 2. 매일경제 12면)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계획인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이 구상되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 말경이다. 1971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안 작성을 완성하였고, 제4공화국이 출범한 지 1주년 되는 1973년 10월 19일에 발표했다. 동 계획은 문예중흥을 위한 정책기조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를 내세우고 있다. 계획기간 동안 총 485억 4,240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 중 정부예산이 78.3%,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21.7%였다. 부문별 집행내역 중 문화재·전통예능·국학 등 민족사관 정립이 70.2%를 차지하여 당시 문화정책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5공화국 시기인 80년대 이후 전국적인 문화시설 건립 붐이 일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문예진흥원은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산하에 3개의 문화시설을 설립하여 저렴한 대관료를 통해 예술계에 대한 간접지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과 예술자료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은 1979년 5월에, 그리고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은 1981년 4월에 개관했다.

2. 1980년대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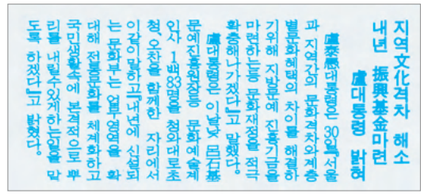
1980년대는 제5공화국(1981. 3.~1988. 2.)과 제6공화국 초기에 해당한다. 제5공화국 7년 동안에는 문화 분야 예산이 3.3배로 증가하고, 문화공보부 전체 예산 중 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공보 분야 예산을 역전하였다. 이는 문화향수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 힘입은 것이다. 제5공화국 당시의 계획들은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함께 문화시설의 확충을 강조하면서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動力化)'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존은 물론, 주요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국학진흥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제5공화국 문화정책의 가장 큰 업적으로 큰 폭의 문화투자 확대와 함께 전국적인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이 꼽히고 있다.[1]

제5공화국, 문화재정 확대와 문화시설의 조성

제5공화국은 지방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통해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추구하였다. 1980년대는 국고 예산과 문예진흥기금뿐 아니라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 기업의 기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 재원(財源)이 크게 확충된 시기이다. 공익자금이라 불린 방송발전기금의 대규모 편입 등으로 확충된 문예진흥기금은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과 지방문화 육성이라는 1980년대 문예정책의 방향에 따라 투자되었다. 즉 지역의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문화시설 개·보수에 문예진흥기금 850억여 원(1984~1996년, 1997년부터 국고지원으로 일원화)이 투입되었고, 지역문예진흥기금 창설을 위한 종자금으로 139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다.[2] 1980년대 제5공화국 당시 이루어진 문화투자의 확대와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 지방문화의 육성과 진흥은 이후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제5공화국 정권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성 제고를 내세우면서 이에 상응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즉 국가와 지방 문화기관의 수장(首長)을 상당 부분 문화예술계 인사로 대체 임명하고, 정부가 직접 주관하던 〈대한민국연극제〉 등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이관한 것이다. 이 당시

1. 대폭 확충된 문화재원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국립국악당 등의 대규모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각 시도에도 종합문예회관, 특장문화시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었다.
2.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각 9억 7,500만 원씩, 그리고 대전(1990)과 울산(1998)에 각 6억 2,500만 원씩 출연하였다.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예진흥기금 조성 총액은 4,178억 원에 이른다.



지역문예진흥기금 조성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예진흥기금 마련 기사
(1989. 10. 30. 경향신문 1면)



88문화올림픽 이태리 라스칼라 오페라단 초청공연 기사
문예진흥원이 주최한 1988년 올림픽 문화예술축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이태리 라스칼라 오페라단 초청공연(1988. 8. 16.~8. 22.)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로린 마젤의 지휘로 개최되었다. 이태리 라스칼라 오페라단 430여 명이 내한한 이 공연은 우리나라 음악공연사에 한 획을 긋는 대규모 행사였다.
(1988. 7. 22. 경향신문 16면)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국가적 문화행사를 총괄 기획·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문화행사 내용의 질적 수준과 행사 규모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또한 1980년 최초로 황순원 단편소설선 「별(The Stars)」의 출판 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20년 동안 15개 언어권에서 173종의 번역 출판을 주도했다. 진출 채널 등 구조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해외 진출이 어렵던 시기에 우리 문학의 해외 보급·선양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한국문학 번역 출판 지원사업은 2001년 3월 한국문학번역원 출범과 함께 이관되었다.

3. 1990년대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1990년대는 제6공화국(1988. 2.~1993. 2.) 후반기, 문민정부(1993. 2.~1998. 2.), 국민의정부(1998. 2.~2003. 2.) 전반기 등 3개 정부에 걸쳐 있어, 문예정책 역시 기조의 변화가 많았던 시기이다. 1994년에는 정부정책에서 '문화복지'를 공식 언급하며, 국민의 문화복지 자체가 정부의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문화활동이 고도의 창조적 역량을 축적, 재산출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문화생활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제6공화국, 생활문화와 통일문화의 강조


문학
한국문학 해외진출 청신호
문예진흥원·大山재단등 지원사업 펼쳐
Korean Poetry
한국문학번역상 및 한국문학 해외 번역출판 소개 기사
(1993. 2. 24. 동아일보 12면)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 산하 문화발전연구소가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1999)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국민의 문화 향수권과 참여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전문예술가 창작활동 진흥 중심의 정책에서 수용자인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의 후속 조치로 제6공화국은 출범 후 2년이 경과한 1990년 1월 문화부 신설과 함께 생활문화국을 독립 편제하여 생활문화를 새로운 문화정책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제6공화국은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문화적 감성을 심어주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문화가족운동' 등 문화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문화의 내용에 접근하는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국제문화교류의 양적인 확대와 다변화를 강조하는 한편, 새로운 통일문화 정책에 따라 공산권 문화예술에 대해 대폭적인 개방조치를 취했다.[3] 이러한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예술위원회는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북한 자료를 대량 수집하여 연구·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여의 작업을 거쳐 『통일문학전집』(남북 작가 1,004명, 작품 5,378편 수록)을 CD-ROM 형태로 발간한 바 있다.

3. 미(未)수교국 예술작품 국내 개방지침 발표(1988. 6.), 납북·월북작가 해방 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1988. 7.),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확대(1988. 9.), 납북·월북예술가의 음악·미술작품 해제(1988. 10.), 북한 미술품 및 서적 수입(1989. 1.) 등

1987년 2월에는 덕수궁 내에 문화발전연구소를 개관, 문화발전을 위한 연수교육 및 조사연구 기능을 점차 강화해 나갔다. 이후 문화발전연구소는 1992년 5월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독립 개관과 1994년 7월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독립 발족의 기틀이 되었다. 현재 예술위원회 인력개발원은 문화정책 및 예술행정 분야의 교육연수 기능은 폐지하고 무대예술인력 양성으로 기능을 특화한 상태이다.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교육연수 기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 분산되어 있다.

문민정부,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향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했다.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했고, 다음 해 5월에는 문화산업국을 신설한 후 10월에 생활문화국을 문화정책국에 통폐합시켰다. 또한 교통부로부터 관광업무가 문화체육부로 이관되어 옴에 따라 관광과 문화와의 접목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창달 5개년계획〉에 따라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창조력의 상승을 가져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한 창작 풍토의 조성과 창작에 도움을 주는 환경 및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김영삼 정부는 모든 계층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창출에도 역점을 두었다. 국민 스스로가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능동적 참여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예진흥원도 문화 향수와 참여 활동 신장을 위한 예산 비중을 꾸준히 높여 나갔다. 특히 정부의 문화정책에 따라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비중도 확대해 나갔다. 한편 문예진흥원은 1990년대 우리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맞춰 기존의 예술지원 행정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당시 예술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예술자료를 DB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예술지원 행정시스템의 지속적인 정보화는 1998년 IMF 재정위기로 문예진흥원이 인력의 35%를 감축(130명→85명)하고 기구를 축소했음에도 지원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바탕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기업의 지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 후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현 한국메세나협회)의 창립(1994. 4.)을 주도했다. 문예진흥원은 또한 영화 및 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대규모로 지원하였다.

4. 2000년대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2000년대는 국민의정부(1998. 2.~2003. 2.) 후반기, 노무현 정부(2003. 2.~2008. 2.),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전반기 등 3개 정부에 걸쳐 있으며 정부별 문예정책의 기조 변화와 함께 예술위원회에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조직의 혁신과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조로 문화행정 혁신, 문화복지 확산, 기초예술과 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이 추진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 기조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혁신 등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와 문화예술 지원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국민의정부, 문화 정보화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1998년 2월 IMF 구제금융과 함께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공공조직의 아웃소싱을 통한 구조조정, 정부 산하기관의 책임운영기관화, 평가제도의 도입 등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체육부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부를 신설하는 한편, 각종 검열제도 및 기구 등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였다. 국민의정부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이에 부응하는 상징적인 조치도 취했다. 2000년에 문화 부문 전체 세출예산이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넘어서고, 2001년에 절대액이 1조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4]

1990년대 이후 정부 문화정책은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화예술을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회정책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국민의정부는 이러한 1990년대 문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은 1999년부터 지역배분형 사업이라 하여 예술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오던 소규모 지역성 사업 9개를 묶어 해당 예산을 각 시도에 배분하였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지역협력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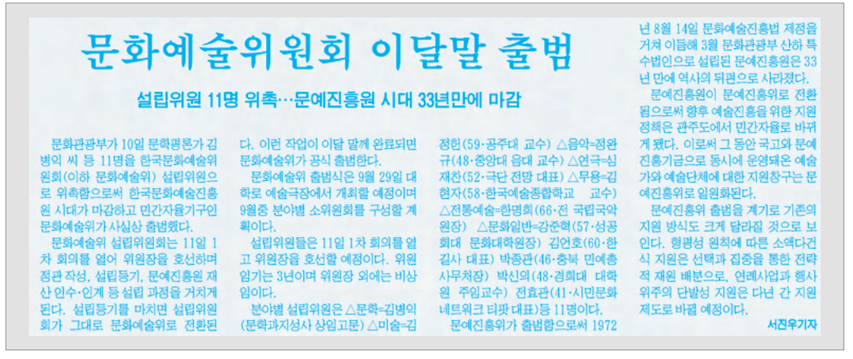
4. 이는 문화산업 부분과 관광 부분 예산의 폭발적인 증가에 의한 것으로, 2000년에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전체 예산이, 그리고 2001년에는 문화 부문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사업구조와 예산체제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장르별, 사업유형별 지원체계를 기금사업의 4대 성과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14개 핵심역량사업으로 사업의 구조와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 특징은 '예술 창조활동에 대한 집중형 지원의 확대', '문화향수층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보급확산형 지원 추진', '문화예술계 지원체감 효과의 제고', '창조자와 향수자 간 균형 발전 도모'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문예진흥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자체 심사평가(평가·감리)제도를 도입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하였다.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은 창작과 향수의 진흥,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문화정보화 기반 확충과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행정에 주력해 왔다. 이후 준정부기관에 대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며 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등 고객 만족도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합의제 전환과 대체재원 개발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자율', '참여', '분권'의 3대 가치를 국정원칙으로 내세웠다. 문화분야에서도 3대 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큰 방향은 "문화 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개인),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사회),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新)성장 동력화"(경제),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지역), "평화와 번영을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위원 11명 위촉…문예진흥원 시대 33년만에 마감

문화예술위원회 이달말 출범

문화관광부가 10일 문학평론가 김병익 씨 등 11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 설립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대가 마감하고 민간자율기구인 문화예술위가 사실상 출범했다.

문화예술위 설립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호선하며 정관 작성, 설립등기, 문예진흥원 재산 인수·인계 등 설립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설립등기를 마치면 설립위원회가 그대로 문화예술위로 전환된다. 이런 작업이 이달 말께 완료되면 문화예술위가 공식 출범한다.

문화예술위 출범식은 9월 29일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9월중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설립위원들은 11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 외에는 비상임이다.

분야별 설립위원은 △문학=김병익(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 △미술=김정헌(59·공주대 교수) △음악=정완규(48·중앙대 음대 교수) △연극=심재찬(52·극단 전망 대표) △무용=김현자(58·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통예술=한명희(66·전 국립국악원장) △문화일반=강준혁(57·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김언호(60·한길사 대표) 박종관(46·충북 민예총 사무처장) 박신의(48·경희대 대학원 주임교수) 전효관(41·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팜 대표)등 11명이다.

문예진흥위가 출범함으로써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거쳐 이듬해 3월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문예진흥원은 33년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문예진흥원이 분예진흥위로 전환됨으로써 향후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은 관주도에서 민간자율로 바뀌게 됐다. 이로써 그 동안 국고와 문예진흥기금으로 동시에 운영돼온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창구는 분예진흥위로 일원화된다.

분예진흥위 출범을 계기로 기존의 지원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원칙에 따른 소액다건식 지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연례사업과 행사위주의 단발성 지원은 다년 간 지원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서진우기자

문화예술위원회 이달말 출범(2005. 8. 11. 동아일보)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세계)의 다섯 가지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정치·경제·문화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분권 및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문화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문화행정의 혁신, 문화복지의 확산, 기초예술과 예술교육 진흥, 지역문화 창달과 균형 발전에서 성과를 보였고, 비록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문화적 가치를 개인의 삶과 국정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영향평가제〉를 추진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통해서 창출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생산력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2004년 발표한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이하 〈새 예술정책〉)에서 예술정책의 비전을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로 설정했다. 참여정부는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를 통해 창작·매개·향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다. 즉 문화예술의 활성화 기반을 예술교육 등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능력을 높여 새로운 문화수요의 창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2000년대 문화예술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참여정부 〈새 예술정책〉의 중점과제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합의제 기구로의 전환'으로 문예진흥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전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열린 예술행정체계와 문화분권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효과적인 배분과 함께 기금 지원의 현장 대응성과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기능별·장르별 불균형의 해소, 예술 창작환경 개선, 매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구조의 개편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예술위원회는 2006년도부터 8대 전략목표(24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사업전략과 4대 전략목표(8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경영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1973년 7월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영화관 등 점차 대상 범위를 넓히면서 2003년에 약 5,000억 원에 이르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3년 12월 말로 폐지되었다. 그 대체(代替) 재원으로 2004년부터 복권기금이, 그리고 2010년부터는 경륜경정수익금 중 일부가 전입되기 시작하였다. 복권기금은 재원조성 방식의 역진성(逆進性)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입금 전액을 〈문화나눔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예술위원회의 문화복지사업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지원방식의 혁신과 지역사업 확대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며, 생활 자체가 문화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정책이 아닌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향한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산을 1%로 유지하는 반면 경제위기로 문화향유 수준이 저하될 수 있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문화정책의 비전을 방방곡곡 모세혈관처럼 펼쳐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소통과 개방의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 6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방식의 혁신과 지역협력사업의 확대, 산하조직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부 예술국과 예술위원회 사무처가 TF 작업을 통해 예술위원회 운영 개선안과 지원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2008년 7월과 8월이었다. 지원방식 개선안의 내용은 지역협력형 사업의 확대와 함께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 이른바 4대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물론 선택과 집중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여 모든 지원프로그램을 바꾼 것은 아니고, 일부 소액다건 지원프로그램도 존속시켰다. 지원방식 중 하나로 간접지원이 강조되면서 예술전용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과 예술단체에 대한 공간 임차 보증금 지원이 강화되었다. 기존의 지역배분형 사업을 2009년에 확대 개편한 지역협력형 사업은 지역 매칭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문화재정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수도권에 대한 배분 비율을 점차 높였다. 2014년부터는 지역의 자율성 확대 요구를 대폭 수용한 〈지역문화 특화사업〉으로 사업 내용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예술기관의 독립을 위한 시작으로 법인화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따라 예술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0년 아르코예술정보관과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술극장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켰다. 또한 2014년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2010년 5월에는 동숭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구로구 구로동(현 새말로) 임시청사로 이전했다. 현재 대학로 구 청사는 예술가와 예술인단체, 그리고 예술을 후원하는 기업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예술가의집'으로 개방하고 있다.

5. 2010년대 이후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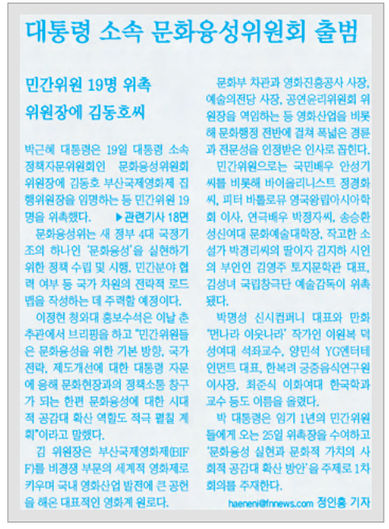
2010년대 이후는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후반기, 박근혜 정부(2013. 2.~2017. 3.), 문재인 정부(2017. 5.~2022. 5.), 윤석열 정부(2022. 5.~현재)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문화예술지원의 토대가 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술인의 복지와 권리, 국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국가 부문에서는 2010년대 초기 '문화융성'을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여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재정 2% 달성, 문화가 있는 삶 등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으나, 2010년대 후반에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추락한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예술 참여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전례 없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예술활동 및 예술인 생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2023년부터는 문화예술생태계 회복과 함께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재정과 법·제도 강화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가 발전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화융성'을 4대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정 2% 달성과 「문화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2013년 7월에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3개월 후 '인문가치의 정립과 확산', '전통문화의 생활화', '생활 속 문화 확산',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예술계의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문화융성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 등 〈문화가 있는 삶 정책〉 8대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적 관점의 확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과제들은 예술위원회가 추진해 왔던 정책 과제들이다.

문화융성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작품들이 자유롭게 창작·유통·향유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지원의 중심기관으로서 문화융성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단일 항목 위주로 운영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민간위원 19명 위촉
위원장에 김동호씨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에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관련기사 18면

문화융성위는 새 정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민간분야 협력 여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민간위원들은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 방향, 국가전략, 제도개선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해 문화현장과의 정책소통 창구가 되는 한편 문화융성에 대한 시대적 공감대 확산 역할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비경쟁 부문의 세계적 영화제로 키우며 국내 영화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대표적인 영화계 원로다.

문화부 차관과 영화진흥공사 사장, 예술의전당 사장,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영화산업을 비롯해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륜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로 꼽힌다.

민간위원으로는 국민배우 안성기씨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 피터 바틀로뮤 영국왕립아시아학회 이사, 연극배우 박정자씨, 송승환 성신여대 문화예술대학장, 작고한 소설가 박경리씨의 딸이자 김지하 시인의 부인인 김영주 토지문학관 대표,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위촉됐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와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작가인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 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임기 1년의 민간위원들에게 오는 25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문화융성 실현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방안'을 주제로 1차 회의를 주재한다.

haenen@fnnews.com 정인홍 기자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출범(2013. 7. 20. 파이낸셜뉴스)

되는 지원방식을 넘어 창작의 단계별 국면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입체적 지원방식을 확대하고자 〈창작산실〉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조직 체계도 기존의 한 부서에서 모든 장르를 지원하던 체계에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으로 부서 기능을 분화함으로써 장르별 사업에서 우수 작품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새로운 지원영역 개척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이버 공간을 창작과 향유·확산의 터전으로 삼는 〈공연예술 사이버 공간 개척 사업〉 및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예술위원회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2014년 건축전 황금사자상, 2015년 미술전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예술위원회는 생활·직장공동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등 〈문화나눔 사업〉을 다양화했다. 특히 별개로 운영되었던 문화·관광·스포츠 등 3개 이용권이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되고 지원 대상이 66만 명에서 14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4월 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서의 만 4년 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동년 5월에는 2010년에 분리되었던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국립예술자료원이 재통합되면서 서울과 나주를 함께 아우르는 기관 운영을 하게 되었다. 2014년 문화예술후원센터라는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범사회적 문화예술 후원캠페인을 확산하였고, 기업과 예술인(단체) 매칭결연 등 후원매개 활동을 강화하면서 예술후원 규모의 전국화를 위해 예술나무 후원회, 지역문화재단 파트너십 구축 등 기관 간 협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했다.


나주 청사

그러나 2016년 '블랙리스트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통제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의 지시로 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예술위원회는 정부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깊은 자성의 자세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코로나19 문화예술계 타격 대응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한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에 기반하여 문화정책을 실행했다. 새 예술정책은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예술 창작·향유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술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삶의 질 제고와 사회혁신에 기여함'을 4대 목표로 설정했는데, 무엇보다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2017년 연 6만 원에서 2022년 연 11만 원까지 인상하였다.

예술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예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아르코 혁신 TF'를 발족하고 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혁신의제와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등을 반영하여 예술위원회는 도전과 변화, 공감과 협력, 공공책무성을 핵심 가치로 한 〈아르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한 조직 및 사업 부문에서의 개선 과제들을 추진했다.

조직운영 부문에서는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예술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고, 소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아르코 대토론회〉를 운영하였다. 2021년에는 문체부와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지원의 기본 원칙과 독임제 진흥원을 합의제 위원회로 전환한 기본 정신을 되새기고자 했다.



아르코비전 2030 선포식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추천제, 심의위원 추첨제, 지원심의의 이의신청 제기 창구인 〈지원심의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술위원회는 예술활동의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체결, 성폭력 예방 서약 및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융자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자율성 보장과 예술가 권익 보호,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지원사업 부문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술단체를 다년간 집중 지원·육성하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청년예술가의 예술현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춰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예술계도 문화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대상 시설로 분류되면서 장기간 휴관 및 운영 중단, 공연과 전시, 축제 등이 중단·취소·연기되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민간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예술위원회는 예술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나갔다.

코로나19 발생 2개월 만에 선제적으로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완화하고 「공연장 안전 매뉴얼 감염병 부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또 2020년 추경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술계 피해 경감을 위한 긴급 사업을 시행하고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 비대면 환경에 발맞춘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 신설 등 약 159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예술계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작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보다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모색하는 소위원회 운영과 기관경영 개선을 추진하였다. 성평등 예술지원방안 모색, 예술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과 함께 예술지원 패러다임 전환과제 도출을 위해 예술의 현재성,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포럼 등을 통해 어젠다를 확산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ESG 중대성 평가에 기반을 둔 〈ESG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민간 문화재단들과 ESG 워킹그룹을 운영함으로써 예술지원기관에 ESG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윤석열 정부, K-Art의 세계진출 추진과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강화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 진행형으로, 집권 초기 국정목표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넣고, 문화예술 국정 비전과 목표로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과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을 포함하였다. 문화정책 구상에 있어서는 자유, 공정, 실용의 가치와 '문화매력국가'를 기조로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추진하기 위해 K-컬처의 차세대 주자 육성과 예술,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 발전,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을 초기 문화예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문체부는 문화예술 혁신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는데,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비전으로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2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10대 과제로 순수예술 지원 혁신, 예술 창작지원 방식 개선, 예술영재·청년예술인 양성,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지원, 잠재관객 발굴, 사각지대 없는 향유 지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사업·축제 대표 브랜드로 재구조화,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대부분 예술위원회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술위원회는 8기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예술지원과 향유, 지원체계, 심의제도 개편, 조직 혁신을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8기 위원회 출범 후 초기에 가장 큰 변화는 연초에 〈대국민 현장 업무보고〉를 실시한 것이다. 정책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연도 업무계획을 현장에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이후 위원회는 복잡한 예술지원구조, 소액다건·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의 한계를 지적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은 예술현장과 함께한 것으로, 개편의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야별·사업별 라운드테이블 등의 공청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예술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위원장과의 대화를 매주 월요일 오후로 정례화함으로써 현장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심의제도의 공정성,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위원회 직원이 참여하는 전담심의위원 제도를 운영하였다.

예술위원회는 기관 설립 5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림'이라는 기관의 미션을 다시금 해석하고 실현하기 위해 예술지원이 더 많은, 더 넓은 범위에 닿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소외계층뿐 아니라 혁신도시, 인구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기관 운영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지역상생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나주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재정악화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가치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매력국가'의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의 중추기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

2. 예술위원회 50년의 재원 조성과 사업 실적

1. 문예진흥기금 재원 조성 실적 및 적립 현황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1973년 공연·전시장·사적지 등의 입장료에 부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및 설치, 2004년부터 복권기금 전입, 2010년부터 경륜경정수익금 전입 등을 통해 지난 50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총액은 5조 947억 원, 적립액은 626억 원이다. 2004년 5,272억 원에 달하던 적립액은 그간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적자 편성을 계속한 결과 적립액이 2004년의 19.5%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2004년부터 복권기금과 경륜경정수익금, 그리고 민간출연금(기부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큰 폭의 사업비 증가와 더불어 적립금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다. 복권기금 등 매년 전입금 규모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비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대체재원 개발과 함께 후원 활성화 등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표 1-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연도별 조성 실적

(단위 : 백만 원, % / 2023년 12월 말 기준)

구분	1973-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비중
모금	418,596	-	-	-	-	-	-	-	-	418,596	8.2
이자	638,442	2,696	3,021	1,225	3,438	4,088	4,319	2,345	5,112	664,686	13.0
기부금	169,466	20,709	22,453	23,176	30,663	18,258	18,214	17,049	17,342	337,330	6.6
국고	215,222	-	-	50,000	50,000	21,000	20,370	30,000	30,000	416,592	8.2
복권기금	550,529	37,199	37,199	82,103	105,561	122,324	164,154	173,868	235,674	1,508,611	29.6
체육기금	-	5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97,000	97,000	100,000	644,000	12.6
관광기금	-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	-	250,000	4.9
경륜경정	126,365	20,655	21,717	16,775	10,693	8,670	-	-	-	204,875	4.0
토지매각	15,000	14,791	-	-	-	-	-	750	-	30,541	0.6
융자회수	-	-	-	-	-	-	1,405	13,917	12,635	27,957	0.5
기타	397,126	19,295	12,327	12,991	16,610	23,730	16,548	45,008	47,890	591,525	11.6
합계	2,530,746	215,345	196,717	286,270	366,965	348,070	322,010	379,937	448,653	5,094,713	100.0

기타 : 설립출연금, 올림픽잉여금(100억 원), 건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골프장수입금, 입장료수입, 잡수입, 융자금회수 등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표 1-2] 문화예술진흥기금 연도별 적립액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2004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적립액	5,272	2,395	1,546	1,110	813	545	920	1,604	1,672	1,153	753	626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2. 분야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실적과 성과

분야별 지원실적 총괄

예술위원회는 1974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하면서 예술진흥, 국제문화교류, 예술기반조성, 문화예술향유, 후원 및 영상문화산업 등에 총 4조 3,2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양한 형태로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해 왔다.

[표 1-3] 1974~2023년 예술위원회 분야별 지원실적 총괄

(단위 : 억 원, %)

분야	예술진흥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	문화예술향유	가치제고 등	계*
지원액	10,114	1,561	7,723	19,148	4,686	43,232
비율	23.4	3.6	17.9	44.3	10.8	100

* 국회확정금액 기준으로, 총 지출에서 기금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 예산에 해당함.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예술진흥 분야

예술진흥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문화일반 등 장르별 예술창작활동, 예술인력 육성 및 역량강화, 예술인 생활안정 등 창작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분야로 전체의 23.4%인 1조 114억 원을 지원했다. 예술위원회는 진흥원 설립 이후 40년간 3,687억 원에서 최근 10년간 6,427억 원으로 예술진흥 분야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술 창작의 의지를 꺾지 않고 꾸준히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예술가 및 단체의 창작과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우수한 문화예술 작품과 예술인을 지속 배출함으로써 문화강국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장르별 예술가와 지원작품들은 국내외 예술 부문에서 수상을 거두는 쾌거를 거두고 있으며 2010~2023년 연도별 베스트셀러 30 소설 분야 중 예술위원회 지원 작가 및 작품은 약 53%, 시 분야는 약 41%에 달한다.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세상에 선보인 연극과 뮤지컬은 영화로 재탄생하거나 상업화에도 성공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분야별로 국내외에서 수상과 초청을 받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기초예술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지원은 문화강국, K-컬처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교류 분야

국제교류 분야는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와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분야로 2023년 말까지 약 1,561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는 전체 사업의 약 3.6%에 해당한다. 예술위원회는 예술가와 단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레지던시와 민간 차원의 국제 문화예술교류 활동 지원, 해외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과의 교류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예술가와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분야의 괄목할 만한 실적은 세계 3대 국제 미술제 중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1995년 한국관을 건립한 이후 1995년 전수천, 1997년 강익중, 1999년 이불 등의 작가가 3회 연속 특별상을 수상하고 2014년 건축전에서 조민석이 한국관 황금사자상을, 2015년 미술전에서 임흥순이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보기 드문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3년에는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의 정회원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10th 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Seoul 2025)를 유치함으로써 예술위원회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술기반 조성 분야

예술기반 조성 분야는 전체의 17.9%인 7,723억 원이 투여되었는데, 문예진흥원 설립 이후 40년간 지원액은 약 5,184억 원(67.1%)이고 최근 10년의 지원액은 2,537억 원(32.9%)으로 최근 10년 지원금액이 증가한 타 분야에 비해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분야이다. 예술기반 조성 분야는 전국의 예술창작·향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실적은 전국 107개소의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지원한 것이다. 1984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정부의 문화예산 증액과 아울러 1997년부터는 국고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였다. 2008년 이전에도 각종 형태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지원방식 중 하나로 간접지원이 강조되면서 기반시설보다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문화재단 확대에 따라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문화예술향유 분야

문화예술향유 분야는 국민들이 문화예술에 보다 쉽게 접근함으로써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술위원회는 전체 사업예산의 44.3%인 1조 9,148억 원을 이 분야에 투자하였다. 초기 순회공연 및 전시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시작된 사업은 198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IMF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사업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문화누리카드'가 2014년 문화·관광·체육 분야로 통합되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전환되고 이후 1인당 지원금액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지원금액(1조 3,601억 원)이 총지원금액의 약 71%에 달하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 사업인 문화누리카드는 2006년 시범사업 당시 약 16만 명이었던 이용자 수가 2023년 현재 255만 명에 이르러 저소득층의 문화예술향유 장벽을 완화하였다. 이렇듯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경험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예술의 생활화 사업과 소외계층·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은 문화향유의 저변 확대와 문화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5]

5. 2014년부터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문화예술 향유율은 약 25%, 기초문화예술 향유율은 약 5.5%가 상승하였고, 고소득(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응답자와 저소득(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문화예술 향유 격차는 17%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기념 연구보고서, 내부자료)

가치 제고 등 분야

이 분야는 출판,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 사업(1974~2012)과 문화예술 후원 및 문화예술자료 아카이빙 관련 사업들을 포함한 지원 분야로 총사업비의 약 10.8%인 4,686억 원을 투자하였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영화 부문 투자(1,643억 원[6])는 문예진흥기금 모금액 중 영화관에서의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모금액의 일정 부분을 영화계에 환원하는 순환 지원형식으로 지원된 것이고, 출판 분야 200억 원은 1998년 IMF 구제금융 상황에서 서적도매상의 연쇄부도 등 어려움에 처한 출판계를 돕기 위해 은행을 통해 융자 형식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후 영화, 출판부문의 지원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문화산업 분야 투자는 중단되었고, 위원회 전환 이후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이 중요해짐에 따라 범국민 캠페인을 통한 예술나눔 가치 확산, 민간 기부 확대, 예술자료 아카이빙과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6. 1977년부터 2001년까지의 통계로, 2002~2004년(2004년도는 후불금인 〈전용 상영관 지원〉)까지 포함하면 28년간 영화계에 지원한 문예진흥기금 총액은 1,694억 5,463만 5천 원이다.

3. 예술위원회 50년의 조직 변천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범,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는 50년 동안 예술위원회는 기능, 조직, 재정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조직개편은 조직의 구조, 역할, 책임, 권한 등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경영 활동이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구조의 효율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업무의 등장에 따른 부서의 신설 또는 통폐합, 구조 조정과 인원 감축, 기능변천과 업무 이관에 따른 직제 개편과 조정 등 조직 변천의 원인이나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공통적인 것은 새롭게 변한, 또는 변했다고 생각하는 경영 조건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점이다.

1973년 3월 30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 1973년 4월 1일 시점의 직제 및 기구는 총무부, 진흥부, 업무부 등 총 3개 부서로 출발하여 매우 단출했다. 1970년대 우리 문화정책의 기반조성기를 지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올림픽 개최라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 개최를 앞두고 문화투자가 활발했던 1980년대를 맞아, 1979년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및 1981년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등 잇달아 공연과 전시 공간이 설립되면서 예술위원회는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의 부가 축적되고 개인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문화시설 건립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 문예진흥원이 설립되던 1970년대는 여러 차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리에 진행되며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었으나 여전히 경제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하드웨어 건설에 국가 예산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크지 않았다. 당시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문화공간의 실태는 21세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의 설계로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을 둘러싸고 건립된 미술회관(1979)과 문예회관(1981)의 개관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발전에 있어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창작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술인과 공연예술인의 창작·발표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였고, 시민에게는 수준 높은 전시·공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1992년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이 건립되면서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관련 연수 및 워크숍, 무대디자인·조명·음향 등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국내 유일한 무대기술·조명·음향 등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공연예술 발전과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9년 미술회관 3층에 개관한 예술자료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은 1993년에 예술의전당 자료관을 흡수 통합하면서 시설도 예술의전당 내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여 재개관하였고, 1995년에는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관을 건립·운영하면서 기관의 업무 영역이 해외로까지 확장되었다.

한편 1987년 연구실, 자료관, 연수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우리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문화정책의 개발, 예술행정에 대한 해외의 문화정책 자료 수집·발간 등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 및 문화통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문화발전연구소는 정부의 기관 분리 방침에 따라 1994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연구소의 분리 독립은 단순한 기능 이전을 넘어 예술위원회가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개발하고 우리 문화발전을 위한 중장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줄어들고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중심기관으로 역할이 축소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중심의 독임체제에서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구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조직의 구조와 위상에 있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사회나 위원회 모두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위원회는 이사회와 달리 실제 기구 구성방식이나 운영방법, 기능 및 역할, 권한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사)은 일방적인 임명이 아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후보자를 공모하고 2배수로 압축된 후보자를 장관이 최종결정한 후 위촉한다는 점, 위원장은 과거 독임제 시절에는 장관이 임명하였으나 위원회 체제하에서는 위원 간 호선으로 정한다는 점,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한다는 점 등에서 위원회는 이사회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임제에서는 원장 일인에게 집중되었던 의사결정 권한이 합의제에 기반한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등 위원 간 합의로 결정되고, 이사의 기능과 역할도 이사회 체제의 이사들이 수동적인 경영참여자였다면 위원회의 위원들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경영참여자로 그 역할이 확대·변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이전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책임의 분산으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며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소중한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기관 발전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원회와 이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조직으로서 사무처가 신설되고, 사무처장 휘하에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여러 부서들이 구성·운영되었다. 사무처의 조직은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 당시의 문화환경, 위원회별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계기에 따라 명칭 및 기능과 역할을 바꿔 왔다.

2010년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아르코예술자료관이 국립예술자료원으로, 또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이 통합되어 한국공연예술센터로 별도 법인으로 분리 독립되었으나, 2014년

재통합되었다. 그러나 두 시설의 분리 독립과 재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통합 문제, 기획·인사·총무 등 중복인력의 처리 문제, 재산의 귀속과 예산의 통합, 조직개편 등 후속조치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출범 당시 총무부, 진흥부, 사업부 등 3개 부서로 단출하게 출범하였던 예술위원회는 반세기가 지난 2023년 12월 현재 1처 4본부 1극장 1관 1실 19부로 엄청난 조직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조직 구성원도 20여 명 남짓한 인원에서 3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기구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4]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기구

기관 명칭	조직 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3~2005)	• 3개 부서(총무부, 진흥부, 업무부)로 업무 개시(1973) • 미술회관 개관(1979) ※현 아르코미술관 • 예술자료관 개관(1979) ※현 아르코예술기록원 • 문예회관 개관(1981) ※현 아르코예술극장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1992) ※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예술자료관,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으로 확장 이전(1993)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1995) • 인사미술공간 개관(20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2023 현재)	• 사무처 4실 4관 13팀으로 업무 개시(2005) • 대학로예술극장 개관(2009) • 서울 구로동으로 본관 이전에 따른 예술가의집 개관(2010) • 본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 이전(2014) ※아르코예술극장·미술관·예술기록원·예술인력개발원 등 문화기반시설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 • 2023년 12월 현재, 1처 4본부 1극장 1관 1실 19부

4. 문화예술 생태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지난 50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 시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의 한 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한국 문화는 더 이상 특정 지역과 장르에 국한된 콘텐츠를 배출하는 일시적 문화현상으로서의 한류를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K-콘텐츠의 성공의 기저에는 과거 50년을 이어온 문화예술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이를 넘어서는 기초예술의 성장이 자리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기초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이 2%에 달하지 못하며 예술향유는 일부 장르와 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로 예술창작과 향유 방식이 변화하고 예술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예술위원회는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미래에 대응하며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는 본연의 미션 달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선언의 그 포부를 담아 향후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예술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넘나들게 하고
예술은 갖가지 다름을 다듬어 하나로 화합하게 하고
예술은 밀려난 것들을 당겨 함께 어깨를 겯게 하고
예술은 모든 것들을 짝맞추어 한가지로 어울리게 하여
이 넘나들고 화답하여 어깨 겯고 어울림이 세상 사람들을 바꿉니다.

우리는 예술이 세상을 바꾸며, 삶들을 바꾼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그 진실이 바로 우리 삶의 끈이며 그 믿음이 우리 세계의 힘입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끈과 힘이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예술이 이 세계를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선언문 중

앞으로도 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활기차고 훌륭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지원체계를 혁신하고 예술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할 것이다. 예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국내외 어디서나 창의적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의제도 구현, 창작단가 현실화, 지원사업들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발현 등 예술지원 제도개선에 앞서야 한다. 또한 새로운 예술세계를 개척하고 예술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는 예술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장들을 만들고 더 많은 파트너를 개발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술위원회는 그동안 예술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는 데 이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왔으나, 이제 소외계층에 집중되었던 그리고 창작과 문화복지로 구분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어떤 경계도 없이 예술로 발길을 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가 예술로 행복하고 예술이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고 지역이 예술로 활기찰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힘과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 다름의 공감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높아진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술의 힘이다. 시민들에게 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의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사회가 예술을, 예술인을 존중하는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여전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자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2003년 약 5,000억 원에 이르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모금이 중단된 데다 기금사업비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현재 기금 고갈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복권기금 등의 대체 재원을 마련해왔으나 기금 전입의 불안정성과 사용처의 제한 등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 기초 문화예술의 뿌리를 50년 동안 지탱해 온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천억 원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위원회는 타 기금 전입 확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통한 민간 기부금 유치 확대, 자회사 경영개선을 통한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기금의 고갈을 막고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모두는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고 느껴왔다. 새로운 50년을 맞이하여 문화예술 생태계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공공의 역할을 보다 세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개원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의 배경과 의의
2. 주요 임무와 조직의 구성
3. 추진사업과 주요시설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의 배경과 의의

1. 설립의 배경

제4공화국 헌법(1972. 12. 27. 제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표방하면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제헌헌법에서부터 문화국가의 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문화국가란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문화적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육성·진흥을 지원하며 문화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문화국가의 원리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2337호로 제정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을 기점으로 궤도에 오르게 된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 수립 초기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문화환경의 창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힘든 것이었다. 또한 문화예술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정부 수립 이후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과 함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8년 7월 문화예술행정을 통합 관장하는 문화공보부가 발족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문화예술정책의 입지가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1971년에는 문예진흥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 시안이 작성되었는데, 이 시기에 각종 문화예술진흥 시책의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태동, 1972년에 제정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수행의 기반이 비로소 확립된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제1조에 목적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을 천명하면서, 제5조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제6조 제1항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문화예술 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무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6조 제2항에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문예진흥원의 성격을 명기하였고, 제6조 제3항에 ‘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진흥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예진흥원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설립과 과정

1972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같은 해 11월 13일 곽종원, 조성길, 이마동, 여석기, 임원식, 유치진, 김재연 등으로 문예진흥원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곽종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설립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관(안)을 작성하는 한편, 1973년 3월 15일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한교육회관 501호를 임대, 설립위원회 임시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설립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추진하였다.

1973년 3월 28일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이 인가되어 원장 곽종원, 부원장 조성길, 이사 이마동, 김성태, 차범석, 장상규(당연직), 이치순(당연직), 감사 노영서 등의 임원진을 구성, 3월 30일 법인설립 등기(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39호)를 완료함으로써 3월 31일 설립위원회를 해산하고, 4월 1일부터는 문예진흥원을 총무부, 진흥부, 업무부의 3개 부서로 조직,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같은 해 6월 22일에는 문화공보부 장관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을 승인함으로써 7월 11일부터 전국 영화상영관 627개소에서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개시되었고, 9월 22일에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 14-21에 소재한 국악고등학교(현 공연예술박물관) 내에 문예진흥원 청사를 마련해 10월 11일 개원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10월 18일 개최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문예중흥선언문이 채택되고,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 사업안이 통과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문화예술의 중흥을 위한 실천적 주체로서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구축되었다.

3. 설립의 의의

문예진흥원의 개원은 우리 문화예술사의 전환을 알리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이는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예술창조자를 위한 문화적 풍토를 조성하는 제도가 체계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예술창조자를 위한 체계적 문화예술 진흥의 제도적 탄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이전의 모든 문화예술진흥 시책은 새롭게 탄생한 문예진흥원의 기능으로 수렴되고 재정립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정책의 영역 기반 위에서 32년간 우리 문화에 대한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문예진흥원의 문화적 구심력에 모든 문화창조 역량이 하나로 응집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 발전의 역동성이 문화예술 전 분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문화예술사에서 문예진흥원이 지니고 있는 위상이다.

문예진흥원은 개원 당시부터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이를 운영목표로 삼아 32년간 줄곧 문화예술 진흥을 추구해 왔다. 법인의 성격은 특수법인으로 우리 문화정책

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존재이다. 나아가 창작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동기부여와 함께 실험적 도전을 가능하게 격려하는 한편, 국민적인 문화권 신장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은 문예진흥원이 우리 문화정책사에 끼친 큰 영향이라 하겠다.

문예진흥원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의 활동, 국민적 문화향수의 기회를 시종일관 지지하고 지원하여, 정책개발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목표 실현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2. 주요 임무와 조직의 구성

1. 임무와 기능

임무

1973년 10월 11일 개원한 문예진흥원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연구·창작·보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이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며, 국민 모두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예진흥원은 이와 같은 임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진흥의 재정적 바탕인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한편, 지원체제의 확립과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기능

문예진흥원은 1973년 10월 개원 이래 2005년 8월 위원회 전환 때까지 총 4차례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1982년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987년 무용, 연극, 영화 등 분야 세분화, 1995년 지방문예진흥기금의 출연 등 기능이 각각 추가되어 사업 및 활동의 범위와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기관의 임무와 기능이다.

1973. 10. 11.

1. 문학·미술·음악·연예 부문과 그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1982. 12. 28.

1. 문학·미술·음악·연예 부문과 그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4.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1987. 11. 28.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등의 창작과 그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4.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1995. 1. 5.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2005. 3. 24.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문화예술교류
   - 국제 문화예술교류
3.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문예진흥원의 기능은 시기마다 표현을 달리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향수지원, 국제문화교류활동지원, 조사연구 및 교육,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 공간운영 등으로 집약된다. 이 주요 기능에 맞춰 지난 32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강조 분야가 변해왔다.

2. 조직의 구성과 변천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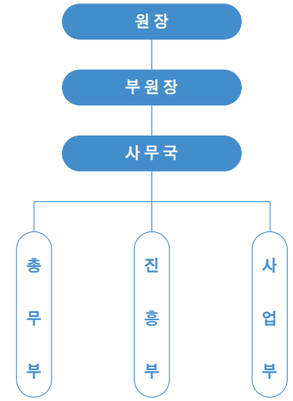
문예진흥원의 조직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문화정책의 역점 분야나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내용과 명칭이 변화해 왔다.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중심으로 보면, 1973년 초창기의 조직은 총무부, 진흥부, 사업부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2004년의 조직은 정책실, 기획조정실(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기금개발팀), 지원협력실, 주요 사업팀(지원컨설팅팀, 국제교류팀, 지역문화·관객개발팀, 출판·미디어팀), 시설 운영(예술극장, 마로니에미술관, 예술정보관, 문화예술연수원) 등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표 2-1] 주요 조직 변천표

시기	내용
1972. 8. 14.	문화예술진흥법 제정(법률 2337호)
1973. 3. 3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법인 설립
1973. 10. 1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1979. 6. 21.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개관
1981. 4. 1.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1986. 12. 30.	문화발전연구소 개설
1992. 5. 27.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
1998. 10. 2.	직제 개편 • 3본부 11부→4부 2관, 정원 45명(35%) 감축
2002. 2. 1.	직제 개편 • 4부 2관→6부, 기능별 재편
2002. 5. 24.	부속시설 명칭 변경 • 문예회관→예술극장 • 미술회관→마로니에미술관 • 무대예술연수회관→문화예술연수원
2004. 2. 17.	직제 개편 • 4부 2관→3실 4관 7팀 1검사역 • 예술자료관→예술정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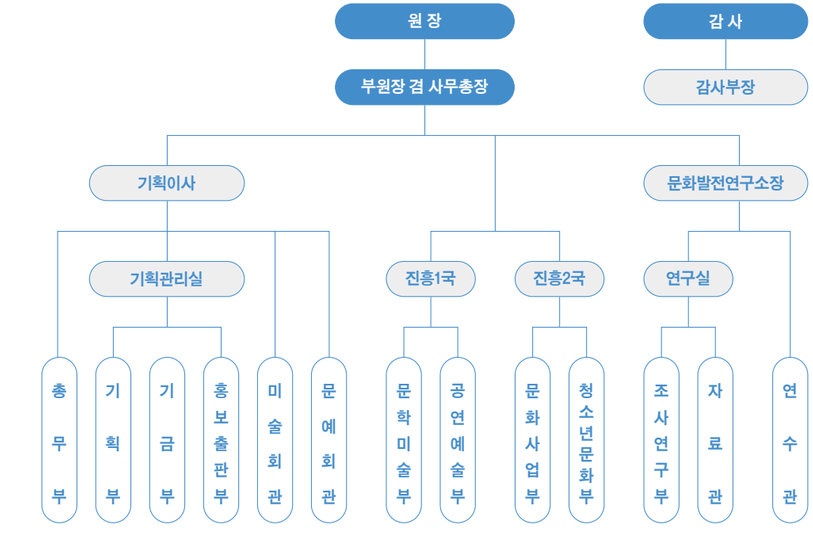
조직 변천 비교

[그림 2-1] 개원 당시 조직도(1973. 1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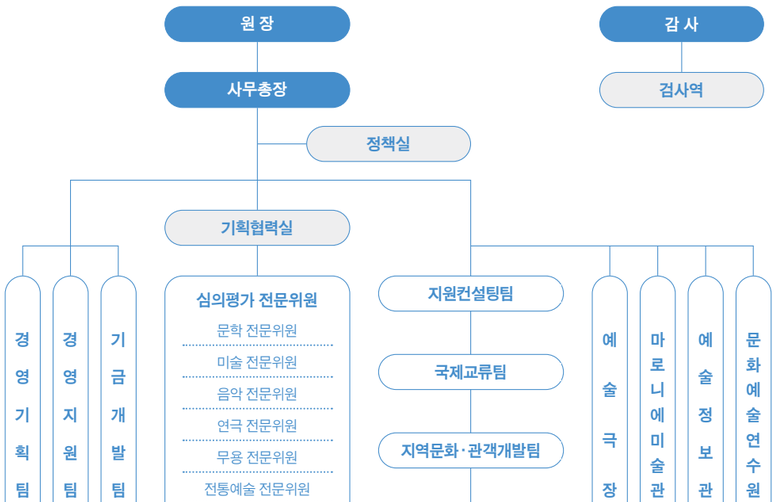
[그림 2-2] 개정 조직도(1986. 12. 30.)

* 1986년 10월 30일 원장 상임화 이후 첫 조직 개편



[그림 2-3] 개정 조직도(2004. 2. 17.)

* 2005년 8월 위원회 전환 전까지 유지된 조직 개편



3. 임원과 이사회

역대 임원의 명단(한국문화예술진흥원)

[표 2-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역대 임원 명단

직위	성명	재임기간	비고
원장	곽종원	1973. 3. 31.~1979. 3. 2.	비상임
	송지영	1979. 3. 3.~1984. 5. 1.	비상임
	정한모	1984. 5. 18.~1988. 2. 4.(1986. 10. 30.~상임)	비상임 / 상임
	서기원	1988. 4. 1~1988. 8. 31.	상임
	여석기	1988. 9. 5.~1991. 9. 4.	상임
	정한숙	1991. 9. 10.~1993. 4. 2.	상임
	이성재	1993. 4. 3.~1994. 12. 20.	상임
	문덕수	1995. 3. 1.~1998. 2. 28.	비상임
	차범석	1998. 3. 26.~2000. 1. 4.(1999. 9. 3.~상임)	비상임 / 상임
	김정옥	2000. 1. 24.~2003. 1. 23.	상임
	현기영	2003. 2. 17.~2005. 8. 25.	상임

직위	성명	재임기간	비고
사무총장	조성길	1973. 3. 28.~1976. 3. 2.	
	최창봉	1976. 3. 3.~1979. 3. 2.	
	김영권	1979. 3. 3.~1980. 8. 14.	
	손석주	1980. 8. 15.~1981. 8. 18.	
	윤치오	1981. 8. 19.~1986. 10. 30.	
	이용권	1986. 10. 31.~1992. 3. 2.	
	전영동	1992. 3. 3.~1994. 3. 11.	
	정희천	1994. 3. 14.~1995. 3. 17.	
	김광인	1995. 3. 18.~1998. 3. 17.	
	김용문	1998. 4. 1.~1999. 8. 6.	
	이진배	1999. 9. 4.~2003. 5. 2.	
	강형철	2003. 5. 6.~2005. 8. 25.	
상임감사	노영서	1973. 3. 22.~1976. 3. 1.	
	지삼환	1976. 3. 2.~1980. 3. 1.	
	윤태로	1980. 5. 26.~1980. 7. 19.	
	최학수	1980. 8. 11.~1982. 8. 10.	
	이영회	1982. 8. 11.~1986. 8. 10.	
	김덕영	1986. 10. 30.~1990. 10. 29.	
	김치곤	1990. 11. 27.~1992. 3. 31.	
	조옥래	1992. 4. 1.~1994. 3. 31.	
	남상호	1994. 4. 1.~1996. 3. 31.	
	김문무	1996. 4. 1.~1998. 3. 31.	
	최해조	1998. 4. 1.~2001. 3. 31.	
	최희준	2001. 4. 2.~2004. 3. 31.	
	박진홍	2004. 4. 1.~2008. 6. 20.	
상임이사	손석주	1979. 3. 12.~1980. 8. 14.	상임이사제 폐지 1994. 7. 1.
	윤문길	1981. 8. 18.~1983. 3. 14.	
	이종덕	1983. 3. 14.~1989. 3. 13.	
	김삼봉	1989. 3. 15.~1992. 2. 20.	
	남상호	1992. 2. 27.~1994. 3. 31.	
	이상용	1993. 11. 19.~1994. 3. 31.	
	이상열	1994. 4. 1.~1994. 6. 30.	
연구소장	이종인	1986. 12. 1.~1994. 6. 30.	
본부장	이상용	1994. 7. 1.~1996. 6. 11.	본부장 폐지 1998. 10. 2.
	이무철	1997. 7. 1.~1998. 10. 2.	
	김용진	1997. 7. 1.~1998. 10. 2.	
	최충선	1996. 6. 15.~1998. 10. 2.	

이사회와 기능별 위원회

문예진흥원은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운영해왔는데, 최고의결기구로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로서 문화부 주무국장 포함 총 9명)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이 늘 중요한 과제였다. 또한 기관의 핵심업무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 및 분야별 심의를 맡았던 심의위원회와 주요사업의 보다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능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주요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표 2-3]과 같다.

[표 2-3] 주요 기능별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구분	위원회 명칭	분야	위원수	활동 내용
기금사업	운영심의위원회	지원사업 전반	9인 내외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전반 심의 조정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국제교류	9인 내외	분야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심의위원회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9인 내외	창작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한국문학해외소개 사업 추진위원회	국제교류	7인 내외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의 조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
	원로문화예술인복지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문화일반	7인 내외	원로문화예술인복지지원사업 운영 전반 자문
	미술회관운영 자문위원회	문화시설 운영	7인 내외	미술회관 운영 전반 자문
	문예회관운영 자문위원회	문화시설 운영	7인 내외	문예회관 운영 전반 자문
	무대예술연수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문화시설 운영	7인 내외	무대예술연수회관 운영 전반 자문
	지방문화시설확충 자문위원회	지역문화	7인 내외	지방문화시설확충지원사업 종합적 자문
	시도미술대전수상작가 초대전 추진위원회	미술행사	5인 내외	초대전 운영 전반 자문
	연구자문위원회	조사연구	15인 내외	조사연구사업의 종합적 자문

3. 추진사업과 주요시설

1. 주요사업

문예진흥원은 법에 근거하여 기관에 주어진 임무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했고, 대표 사업으로 우선 예술창작활동지원을 들 수 있다. 예술창작활동지원은 바로 문예진흥원의 설립 목적이며 초창기부터 일관되게 강조된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 사업의 대상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공연예술, 전통예술, 음반, 영화, 출판 등 문화예술 각 분야에 걸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창작지원, 각종 시상제도 시행 및 발간사업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예술창작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예술의 공급을 통해 국민의 예술 향유가 증진되는 데 있다. 그러나 예술창작지원의 결과가 그대로 예술 향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향수지원은 문화촉매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문화복지지원을 비롯해 넓게는 지역문화지원까지도 포함되는 국민문화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국제문화교류지원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문화소개, 전문가교류, 예술교류 등 교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로 한국문학 번역출판, 전시행사, 공연교류활동지원, 국제회의 참가와 개최, 외국단체의 초청공연 및 강의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 이 사업들은 1974년 시작해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면서 공산권 미수교국과의 교류가 재개되는 등 2000년대 국제화시대를 맞아 더욱 활성화되었다.

조사연구 및 교육은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초창기에는 외부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직접 문화발전연구소를 개설해 운영했으나 1994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을 분리, 독립시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주로 정책연구, 자료발간, 문화통계조사, 토론회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다. 교육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 및 문화행정교육, 무대예술전문인, 예술경영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담당자의 전문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예술공간 운영은 문예회관, 미술회관, 예술자료관, 무대예술연수회관 등을 마련해 운영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미술 분야와 음악, 무용, 연극 등 각 공연예술 분야를 활성화시켰다. 예술자료관은 각종 문화예술자료를 수집해 열람케 함으로써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왔으며 자료의 전산화도 추진하였다.

이렇듯 문예진흥원은 우리나라 초창기 문화예술 정책에 긴요한 주요 지원정책 마련과 기금조성 활동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 창조와 국민문화향유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사업의 변천

개원 이후 문예진흥원의 임무와 기능이 문화예술진흥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집약된 것과 달리, 위원회 전환 이전인 약 32년간 수행된 각종 사업은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예술이 처한 환경과 장기적 전망, 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모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종결되거나 반대로 강화된 사업들도 있었다.

중도에 종결된 사업 중 한국학 지원의 경우, 사업 실시 첫해인 1974년에는 전체 사업예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나 1970년대 후반 들어 비중이 떨어지다가 1981년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중앙연구원) 개원과 함께 예술 분야의 지원사업에

한층 힘을 쏟기 위해 해당 기관으로 사업 자체를 이관했다. 한국문학 번역출판사업도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해 오다가 한국문학번역원으로 이관했다. 그 밖에도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다가 1999년 이후에 종결된 바 있다.

한편 사업추진과정에서 강화된 사업들도 있었다. 1979년에 시작된 문화예술강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문화향수 욕구의 증대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었다. 각 대학에 비슷한 강좌가 개설되고 다른 교육기관이 관련 커리큘럼을 개설해도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문화예술인력 전문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밖에도 점차 활성화된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지원, 공연예술 순회활동 및 미술전시지원, 문화의달 행사지원, 이달의 문화인물 행사지원, 장애인문화향수권 신장 등을 들 수 있다.

3. 주요시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민 확산을 위해 주요 문화시설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활동을 펼쳤다.

[표 2-4]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주요 운영시설 내역

명칭	규모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연면적 2,969.58m²(지하 1층, 지상 3층)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	연면적 5,365.44m²(지하 1층, 지상 3층) 대극장 709석, 소극장 200석
예술자료원(현 아르코예술기록원)	약 11,719m²(예술의전당 예술자료관 전 4층)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연면적 4,876.43m² 창조관(지하 1층, 지상 4층), 무대미술스튜디오(2층), 실험무대(3층)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미술회관은 미술 분야의 진흥과 미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시공간을 확보·대관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또한 미술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취지로 개원 초기에는 서울 관훈동에 미술인회관을 설치하고 저렴한 사용료로 전시장을 제공해 신진, 무명, 창작 환경이 어려운 미술가와 미술단체 등에 연중 작품발표의 문호를 열어주었다. 그 뒤 동숭동

청사부지에 건축가 김수근의 설계로 451평, 연건평 898평의 건물을 준공해 1979년 5월 21일 현재의 미술회관을 개관했다. 미술회관에는 2~5개의 공간을 조성하고 전시규모에 따라 전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미술인에게 대관하였다. 또한 미술회관은 특별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미술애호가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였다.

미술회관이 추진한 사업은 자체 기획전을 비롯한 대관, 미술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미술작품 소장·관리, 마로니에 조각공원 조성 등이다. 미술회관은 기본사업 외에 한국미술소개자료 해외배포 업무 등을 통해 창작 역량의 증진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 및 미술인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

문예회관은 공연예술의 진흥과 공연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공연공간을 확보·대관함으로써 무대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공연활동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문예진흥원은 1974년에 연극인회관을 중구 충무로5가(정음사 내)에 개설했고, 1977년에는 중구 정동(세실극장)으로 이전 운영하다가, 동숭동 청사 부지에 건축가 김수근의 설계로 대극장 709석, 소극장 200석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문예회관을 1981년 4월 1일 개관해 연극, 무용,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 발표 무대를 제공하고, 무대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크게 고취하며 공연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문예회관은 극장 메커니즘과 테크놀로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작품의 예술적인 승화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연예술 관객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예술자료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자료관은 1979년 동숭동 미술회관에 개관한 이후 문화예술과 연관된 국내외 전문도서 및 각종 문헌자료와 영상, 음향자료를 수집, 제작, 정리, 보존하며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설치해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과 조사, 연구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이후 예술의전당 자료관과 통합하여 예술의전당 내에 1993년 2월 15일 재개관하였다.

예술자료관에서는 문학, 미술, 전통예술을 비롯해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걸쳐 국내외 최신 전자문헌정보와 영상, 음악 등 시청각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수장자료의 멀티미디어화를 비롯한 기자재,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다. 예술자료관은 운영 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예술정보화 기반 확충,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하였다.

[표 2-5] 예술자료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주요 변천 사항

1979. 5. 2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실 개관(대학로)
1993. 2. 15.	예술의전당으로 이전, 예술자료관 개관
2005. 8.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으로 명칭 변경
2010. 3. 23.	재단법인 국립예술자료원 설립
2014. 5. 29.	국립예술자료원 해산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통합
2019. 2.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무대예술연수회관은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관련 연수 및 워크숍, 심포지엄, 세미나와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2년 5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개관하였다. 1987년 문화발전연구소 개소와 함께 연수 전담부서를 두고 문화예술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1992년 전용 연수시설을 개관하면서 장·단기 문화예술 연수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무대예술연수회관은 간접지원시설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서비스를 제공했고, 행정동이자 교육장·숙소인 창조관, 무대미술스튜디오, 블랙박스형 교육용 공연장인 실험무대를 운영하며 교육시설로 활용되었다.

PART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史

1970년대,

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출범과 기금사업의 전개

1. 197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2.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3. 1970년대 예술창작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4. 1970년대 문화향수 진작사업의 추진과 성과
5. 197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6. 197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7. 1970년대 문화시설 운영 및 발간사업의 추진과 성과

참고사항

문예진흥원 개원 이래 운영하던 문화시설은 시대 변화에 따라 명칭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이 백서는 해당 시대의 문예진흥원이 추진한 사업과 활동을 최대한 생생하게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시 시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되 괄호 안에 현재 시설 명칭을 병기하였다.

1. 197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무인 문화재 관리와 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이 시기는 문화정책의 부재기(미군정기) 혹은 문화정책의 무위방임기(제1, 2공화국)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은 민족문화의 보호와 전승 외에 출판등록제, 영화 검열 등 문화예술의 진흥에 앞서 국가 질서 유지 차원의 기본적인 통제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개발의 연속적인 성공으로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제3공화국(1961. 5.~1972. 10.)은 민족적 자각 기운과 주체의식, 그리고 과업 지향적인 정치 지도 노선하에 경제개발에 성공하면서 민족문화예술의 재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특히 법과 조직체계의 확립을 통해 기본적인 문화정책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공연법」(1961. 12.), 「문화재보호법」(1962. 1.), 「지방문화사업조성법」(1965. 7.), 「영화법」(1966. 8.), 「음반에관한법률」(1967. 3.) 등 많은 문화 관련 법들이 이 당시에 제정되었다. 이때 제정된 법들은 규제·통제에 치중한 절차법 위주였지만, 일단 문화행정의 법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조직 측면에서는 제3공화국 출범 초기에 문화재관리국이 외국(外局)으로 개편·신설(1961. 10.)되었고, 1968년 7월에는 이후 21년여 동안 중심적인 문화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출범했다.

1970년대는 제3공화국 말기로 시작했지만 주로 제4공화국(1972. 10.~1981. 3.)이 존속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한 결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 국민의 문화적 수요와 욕구가 서서히 증대하였다. 더불어 경제발전과 병행하는 문화 발전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국가 발전의 길이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전통 사회질서의 균열과 가치관 파괴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사회통합과 가치관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도 유형문화재 관리 중심의 문화행정을 벗어나 정신문화의 영역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제3공화국 말과 제4공화국 초에 걸쳐 우리나라 문예진흥의 모법(母法)인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 1972. 8. 14.) 제정,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예술위원회) 설립,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등 문예진흥의 기틀이 된 각종 제도가 전격 실시된다. 제4공화국의 문화정책은 '10월 유신(1972. 10. 17. 비상조치)' 1주년이 되는 날에 대국민 공표한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은 문예중흥을 위한 정책 기조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80年代 「새 文化韓國」의 起爆

「固有얼」繼承 개발

制度改善·古典정리·創作활동중점 지원

大衆藝術 창달·民族記錄畵제작

文藝中興선언문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
"80년대 새 문화한국의 기폭... 우리 것을 찾는 문예중흥"이라는 제목의,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을 소개한 기사 (1973. 10. 25. 경향신문)


9億원의 文藝中興金庫
文化主體性 크게다져
傳統예능 育成·개발
民俗樂체계 확립도

설립 첫해의 문예진흥사업 진단
설립 첫해인 1974년도 기금사업 실적을 소개한 기사
(1974. 12. 25. 경향신문)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주체적 민족사관 정립과 민족예술 창조', '예술의 생활화·대중화로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 '국제문화교류 적극화로 문화한국의 국위 선양'을 중점 목표로 삼았다.

계획기간 5년 동안 문예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과 함께 485억 4,240만 원의 자금(정부예산 78.3%, 민간자본 21.7%)을 투자하였다. 부문별 집행 내역 중 문화재·전통예능·국학 등 민족사관 정립이 70.2%를 차지하여 당시 문화정책의 경향을 보여준다. 나머지는 순수예술 진흥 12.2%, 영화·출판 등 대중문화 창달 8.9%, 기반 조성 6.0%, 기타 2.7% 순이다. 정작 '예술의 생활화·대중화로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중점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몇몇 지역 순회공연과 영화 및 출판 진흥을 통해 대중문화를 창달하고자 한 정도에 그쳤다. 이 기간에 문예진흥원은 진흥사업비로 총 42억 2,083만 8천 원을 투입하였다.[1]

요컨대, 1970년대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전통문화 보존관리, 예술 진흥, 대중문화 창달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당시의 문화정책은 자주적인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전통문화의 계발을 통한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초점을 두었다. 즉, 식민사관과 외국문화에 대한 종속 관념을 불식하고 민족문화의 재발견을 통해 국민적 자각과 긍지를 선양하는 기운을 조성하려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문예중흥계획이 수립·추진되고, 문예진흥원에 의한 기금조성과 기금사업이 시작된 사실은 문화예술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제2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 당시 시행된 각종 사업은 크게 법제·시설 등 문예진흥 기반 조성사업, 문화유산 전승·계발사업, 예술창작 지원사업, 국제문화교류사업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제2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9~1983)은 '문화전통의 계발 및 그 정신적 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민족문화의 창달'을 정책 기조로 하여, 1,351억 2,300만 원의 투자계획과 함께 1977년 대통령 연두순시 때 보고까지 했으나 1979년 10·26사태와 함께 무산되었다.

2.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문예진흥의 기틀이 된 각종 제도가 전격 실시되었다. 이 법에 의거, 1973년에 문예진흥지원 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 이하 문예진흥원)이 특수법인격으로 설립(3. 30.)되어 정식 출범(10. 11.)했다. 같은 해 4월에 주요 문예진흥정책 심의기관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구성되고, 7월부터 공연·전시장과 고적·사적지 입장료에 부가(附加)하여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시작되었다. 또한 문예활동 수입 및 문예진흥원에 대한 면세와 더불어 문예진흥 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로 민간 부문의 문화예술 투자를 유도하였고, 건축물 건축 시 미술장식제도 권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고무되어 문예진흥원 출범 직후인 제2회 문화의 날 기념 전국문화예술인대회(국립극장, 1973. 10. 20.)에서 '문예중흥선언'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인들은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임을 직시하고, 겨레의 유산을 개발함으로써 문예중흥을 이룰 것"임을 다짐했다. 1974년에는 〈문예중흥 5개년계획〉 시행 첫해를 맞이하면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문예진흥원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 전국 단위뿐 아니라 오늘날 시·도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역 내 문화예술행사까지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다.



文化展 하루아침에 안돼

郭鍾元박사

"分野별로 균한일부터"

當局설득, 創作基準 지킬터.



創作활동에 活力素

文化

「文藝振興基金」실시 1年성과 [현재전]

基金總額 9억7천만원

事業規模비해 金額적은게 흠

巨視的인면서 重點支援 요망

內容없는 會合등은 배제했으면…

곽종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초대 원장의 취임 인터뷰 기사
(1973. 4. 2. 동아일보)

문예진흥기금 1년 결산
문예진흥기금 모금 실시 1년을 맞아
문예진흥사업의 연간 지원 실적과 문예진흥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문예중흥사업의 기본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예진흥기금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1975. 2. 11. 매일경제)

제4공화국이 추진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계획인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의 추진 실적 중 문예진흥기금 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12. 인용, 요약)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년』에 따르면, 모금이 시작된 1973년부터 문예중흥 5개년계획이 종료된 1978년까지 문예진흥기금 모금 및 기타 수입 총액은 86억 8,704만 2천 원이었다. 모금 수입이 전체의 93.9%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중에서도 공연장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중 문예진흥기금 투자 총액은 67억 8,839만 7천 원으로, 진흥사업비 62.2%, 기금적립금 16.7%, 경상운영비 11.9%, 회관 운영·건립비 5.0%, 기금조성비 4.2%의 순이다.

문예중흥선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 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속에 꽃피우고 우리 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史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 10. 20.
제2회 문화의 날 기념 전국문화예술인대회에서

제1차 5개년계획 사업 실적

계획의 목표와 성과
1974년부터 1978년 기간에 추진된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문예중흥을 이룩하는 데 그 기조를 두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계획의 주요 목표를, 첫째,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여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조하며, 둘째, 예술의 생활화로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셋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화하여 문화한국의 참모습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두었다.
한편 이 계획을 추진하는 방침으로는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기초조사로 민족문화의 체계를 정립하고 민족의 위대성을 선양하는 예술창작을 중점 지원하며, 대중문화를 정화시켜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문예중흥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 정비 및 시설물 확충 등 기반 조성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국학·전통예술·문화재 등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재인식의 기운을 크게 조성하게 되었다. 셋째, 순수예술의 창작 여건 개선과 창작 및 발표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예술창작과 발표 활동이 활발하여졌다. 넷째, 대중예술의 자율적 정화와 출판 및 영화 진흥책으로 건전한 대중문화를 창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섯째, 우리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외국문화예술인의 방한이 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투자 실적 총괄
1973년 7월부터 모금을 개시한 문예진흥기금의 1978년 말까지의 모금 실적과 기타 각종 수입을 합산하면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총 8,687,042천 원의 자금이 조달되었다. 이 중 5개년계획 기간 중 투입된 총투자액은 6,788,397천 원으로, 투자액 중 4,220,838천 원(62.2%)이 진흥사업 지원금으로 투자되었고, 1,130,820천 원(16.7%)이 기금으로 적립되었다.

[표 3-1] 문예중흥 5개년계획 기간 중 기금 모금 및 기타 수입

(단위 : 천 원)

구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계
모금수입	263,520	786,339	1,105,132	1,218,656	1,823,375	2,961,350	8,158,372
- 공연장	263,520	786,339	1,070,408	1,164,517	1,730,220	2,850,798	7,865,802
- 고궁	-	-	34,724	47,315	86,115	102,969	271,123
- 박물관	-	-	-	6,824	7,040	7,583	21,447
이자수입	48	25,886	25,527	49,914	77,116	223,228	401,719
대관수입 *	-	7,060	14,015	17,143	31,147	33,746	103,111
잡수입	-	-	39	1,332	819	1,450	3,640
기부금	200	-	-	15,000	-	-	15,200
출연금	5,000	-	-	-	-	-	5,000
합계	268,768	819,285	1,144,713	1,302,045	1,932,457	3,219,774	8,687,042

* 미술인회관과 연극인회관 등의 대관료 수입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년』(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12.)

한편 5개년계획 기간(1974~1978) 중 진흥사업비 투자 실적은 총 42억 2,083만 8천 원이다.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이 강조되던 시대 상황에 따라 국학연구, 전통예술 및 문화재 보호가 전체의 20.6%를 차지했고, 문예 단체·행사·시설 지원에 투자되는 여건조성이 21.3%이다. 다음은 문학 14.3%, 출판 9.8%, 영화 9.5%의 순으로, 무용 장르에 대한 지원은 2.3%에 불과하다.

[표 3-2] 문예중흥 5개년계획 기간 중 기금 투자 실적 총괄

(단위 : 천 원)

구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계	%
진흥사업비	3,455	711,674	681,521	709,789	971,427	1,142,972	4,220,838	62.2
기금조성비	-	53,175	40,188	46,022	55,508	91,231	286,124	4.2
회관운영비	-	89,116	21,098	17,927	65,381	78,339	271,861	4.0
문예회관 건립비	-	-	-	-	5,157	65,667	70,824	1.0
경상운영비	27,433	86,487	136,222	226,749	118,168	212,871	807,930	11.9
기금적립금	-	50,000	248,616	200,000	546,642	85,562	1,130,820	16.7
합계	30,888	990,452	1,127,645	1,200,487	1,762,283	1,676,642	6,788,397	100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년』(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12.)

[표 3-3] 문예중흥 5개년계획 기간 중 분야별 진흥사업 투자 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계	%
국학개발	121,442	109,120	101,199	124,532	39,891	496,184	11.8
전통예술	60,336	47,514	38,705	24,878	66,725	238,158	5.6
문화재보호	2,000	27,003	45,000	17,600	43,089	134,692	3.2
문학지원	61,264	81,958	113,126	137,113	212,145	605,606	14.3
미술지원	120,113	47,881	60,183	38,864	82,695	349,736	8.3
음악지원	60,492	70,338	72,668	39,912	115,936	359,346	8.5
연극지원	53,142	43,838	52,915	28,121	47,528	225,544	5.4
무용지원	19,870	23,394	20,668	19,800	13,583	97,585	2.3
영화지원	-	-	-	200,000	200,000	400,000	9.5
출판지원	119,584	74,869	70,500	73,514	75,768	414,235	9.8
여건조성	96,886 *	155,607	134,825	267,093	245,342	899,752	21.3
합계	715,129	681,521	707,789	971,427	1,142,972	4,220,838	100.0

* 1974년도 여건조성 사업비 96,886천 원에는 1973년도 사업비 3,455천 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년』(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12.)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문예진흥원은 산하에 3개의 문화시설을 설립하여 당시 공연장·전시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저렴한 대관료를 통해 상당 기간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대해 간접지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과 예술자료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을 1979년 5월에 출범시켰고,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은 1981년 4월에 개관했다. 당시의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출 구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979년도 사업 내역을 [표 3-4]로 제시한다.

[표 3-4] 1979년도 문예진흥기금 주요 사업 내역

(단위 : 천 원)

대분류	세부 사업(예산액)	단위 사업
문예진흥을 위한 여건조성 (2,447,078)	문예단체활동지원 (216,700)	지방문화원및문화원연합회지원, 예총운영지원, 펜클럽한국본부지원,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지원
	문화예술행사지원 (25,000)	문화예술행사(세미나, 심포지엄 등)지원, 문화의날행사개최, 문예교양강좌실시
	문예중흥기반조성지원 (342,000)	문예인해외연수지원, 예술장학기금운영및장학금지급, 문예관계조사·연구·발간사업, 문화예술자료관 설치운영
	종합문예회관건립 (1,863,378)	전시장(미술회관, 현 아르코미술관) 완공, 공연장(문예회관, 현 아르코예술극장) 건립
전통문화계발 지원 (217,070)	국학지원 (132,800)	고전자료조사연구지원, 국학연구발간지원, 한술단체연구지원
	전통예능지원 (54,200)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지원, 향토문화제행사및전통예능보존단체지원, 인간문화재공예작품전시지원
	문화재보호지원 (30,070)	한국미술5천년사정립연구지원, 박물관특설강좌지원, 고고학술지발간지원
예술진흥지원 (607,100)	문학지원 (315,100)	문예지원고료지원및발간비지원, 우수문학작품집발간및구입지원, 민족문학대계(조선조시대편)발간, 어린이문학지원 아동용문예진흥문고발간, 문학상시상(반공·흙·아동문학상)
	미술지원 (68,200)	우수미술작품구입및각종전시지원, 민족기록화제작지원, 어린이미술지원, 미술전문지발간지원, 미술회관기획전개최
	음악지원 (99,000)	제4회대한민국음악제개최, 제3회대한민국작곡상시상, 창작및공연지원, 악보집발간지원, 국악연구지원
	연극지원 (77,000)	제3회대한민국연극제개최, 중앙극단지방순회공연및지방극단공연지원, 연극연구활동지원, 희곡집발간지원, 연극전문지발간지원
	무용지원 (47,800)	제1회대한민국무용제개최, 무용공연지원, 전통무용발굴기록보존, 무용지도자강습회지원, 무용전문지발간지원
대중문화창달 (329,900)	영화진흥공사영화현상시설현대화지원(300,000), 우수도서출판및구입지원(21,600), 건전가요보급지원(8,300)	
국제문화교류지원 (165,650)	해외한국학연구기간에대한자료지원, 국학(한국문학)번역보급사업추진, 해외예술인초청지도, 국제회의및예술행사참가지원, 국제도서박람회참가지원	
계	3,766,808	
이월사업 (982,341)	문예회관건립, 고전자료개발(현대문화사대계발간)지원, 민족기록화제작 및 우수미술작품구입지원, 건전가요제작보급지원, 악기구입융자지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년』(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12.)을 참고하여 재편집

3. 1970년대 예술창작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는 오랜 전통이 국가의 지원정책으로 체계화된 것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이듬해 문화예술의 공적 지원기구로서 문예진흥원이 설립되고부터이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통해 1974년부터 연극·무용 등 자생적 기반이 약한 순수문화예술의 창작 및 발표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초기 한국의 문예진흥사업이 다른 나라와 달리 작가의 원고료 지원사업과 같은 문학 지원을 중요시한 것은 문(文)을 숭상했던 오랜 전통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2]

기능별 분류와 영역별 분류가 혼합된 분류법이긴 하지만,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는 1970년대부터 창작진흥, 문화향수, 지역문화, 국제교류, 조사발간, 시설운영 등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중 창작진흥과 문화향수는 기금사업 50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기금사업은 문화향수보다는 창작진흥을 위한 장르별 사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 문예진흥원 초기(1974~1979) 문예 일반을 제외한 장르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문학(39.1%), 미술(3.4%), 공연예술(35.4%), 전통예술(22.1%)로 문학에 대한 지원이 다른 장르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2013. 12.)

국민의 문화향수 진작에 목표를 둔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비중이 증가하다가 복권기금이 전입된 2004년 이후 비중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다. 1970년대 예술창작 진흥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이 지원사업이지만 문예진흥원이 직접 추진한 자체 기획사업도 있다.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정부 문화정책의 큰 틀에 따라 자주적인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문예중흥 5개년계획〉 기간 중 전통문화 계발 분야에서, 국학개발 지원(위인선열 위훈선양, 난중일기 영역 발간, 한국가면극 영역 발간, 일본문화의 원류로서의 한국문화 연구 지원 등 68건), 전통예능 지원(민속악 체계정립사업, 국악기 개량보급, 전통예술 해외선양 활동지원 등 16건), 문화재 보호지원(무형문화재 기록보존,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예술진흥(창작진흥) 분야에도 『민족문학대계』 발간, 민족기록화 제작지원 및 구입 등의 사업이 있었다. 더욱이 지원 대상 창작작품의 선정에서도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주체성 확립이라는 기준이 중요시되었다.

1. 문학 분야

문예진흥원은 개원 첫해인 1974년 〈문예지 원고료 지원〉과 〈문학조사연구 지원〉, 〈『민족문학대계』 발간〉 등 3개 사업으로 문학 진흥사업을 시작했고, 매년 1~2개의 사업을 늘려서 1979년에는 8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6개가 지원사업으로 문예지 원고료, 문학조사연구, 문학작품집 발간, 문예지 발간비, 우수문학작품집 구입, 동인지 발간 등이었다. 문예진흥원이 직접 추진한 문학 장르 기획사업으로는 〈『민족문학대계』 발간〉 외에 〈대한민국문학상〉(1976~1992)이 있다.

[표 3-5] 1970년대 문학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건))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문예지 원고료지원	29,950 (11)	31,200 (8)	35,800 (9)	83,955 (7)	93,358 (6)	101,682 (7)
문학조사연구지원	15,716 (6)	4,637 (4)	5,277 (4)	4,031 (3)	4,987 (2)	7,720 (3)
민족문학대계 발간	9,400 (1)	23,000 (1)	15,326 (1)	4,667 (1)	10,000 (1)	37,734 (1)
문학작품집 발간지원	-	6,400 (28)	11,400 (54)	4,800 (16)	7,000 (23)	6,900 (17)
대한민국문학상	-	-	3,784 (1)	14,779 (1)	14,536 (1)	29,235 (1)
문예지 발간비 지원	-	-	-	10,800 (1)	19,200 (1)	30,000 (4)
우수문학작품집 구입지원	-	-	-	4,439 (52)	5,897 (20)	15,525 (31)
동인지 발간 지원	-	-	-	-	-	4,200 (14)
계	55,066 (18)	65,237 (41)	71,587 (69)	127,471 (81)	154,978 (54)	232,996 (78)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문학 장르 진흥에 투입한 총 기금사업비는 1974년도 3개 사업 18건, 5,506만 6천 원에서 5년 후인 1979년에는 8개 사업 78건, 2억 3,299만 6천 원으로 금액 대비 4.2배 증가했다. 1974년에만 실시된 사업도 있는데 〈작가기금융자지원〉이다. 1974년에 작가기금을 설치하여 문인에게 작품집 출판비(1인당 100만 원 이내) 35건, 원고료(50만 원 이내) 12건 등 총 2,690만 원을 융자하여 1980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연리 6% 이자, 5,350천 원)했다. 이 사업은 1975년부터 무상지원인 〈문학작품집 발간지원〉으로 전환했다.

문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1970년대 문학 분야 기금지원사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은 〈문예지 원고료 지원〉(1974~1989, 총 166건, 38억 4,374만 6천 원)이다. 이 사업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문인 대상의 창작진흥 지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1974년 당시 문인들은 시 1편당 2~5천 원을 받았고,


原稿料 引上움직임
文藝 振興院 創作文學 支援따라
四개 일반

문예지 원고료 지원
"문예진흥원 창작문학 지원 따라 원고료 인상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문예진흥원의 대규모 문학지원의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1974. 3. 8. 동아일보)


永社 說
原稿料·著作權·文化政策
—物質的條件에 못지않은 表現의 自由—

문예지 원고료 인상 지원
"원고료, 저작권, 문화정책-물질적 우대에 못지않는(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문예진흥원의 문예지 원고료 인상 지원을 문화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977. 1. 8. 동아일보)

산문은 원고지 1매당 200~500원을 받았다. 따라서 문인들은 고료만으로는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73년 1,400여 명의 문인 중 창작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한 전업 문인은 1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당시에는 작품 발표 매체인 문예지도 월간지, 계간지 모두 합해 10여 종이 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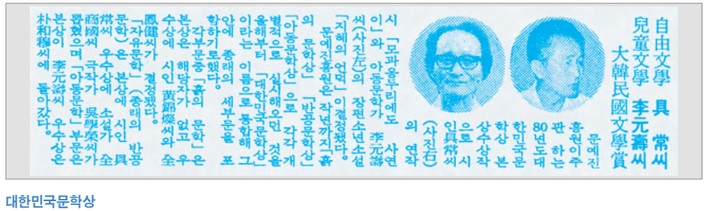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문예진흥원은 『문학사상』, 『현대문학』,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현대시학』, 『시문학』, 『심상』, 『수필문학』, 『아동문학』 등에 기금을 지원하여 문인들이 종전보다 50~70% 인상된 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문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문예지가 신인 발굴과 작품 발표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6년간 연 48개지에 3억 7,594만 5천 원,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연 118개지에 34억 6,780만 1천 원을 지원했다. 이후 문예지들이 고료 외에 발간비 등의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문예지 발간비 지원〉(1977~1988, 총 43건 3억 8,080만 원)도 병행 시행하게 된다.

〈문학조사연구 지원〉(1974)과 〈문학작품집 발간 지원〉(1975)은 문예진흥원의 대표적인 문학분야 지원사업이었다. 〈문학조사연구 지원〉 사업의 1974년 창설 당시 사업명은 〈문학단체활동지원〉이었다. 한국문인협회, 평론가협회, 소설가협회, 시인협회, 시조시인협회, 수필가협회 등 각 협회와 학회 등 문학단체의 정기적인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발표회 및 문집 발간(연간 작품집, 연구집) 등을 지원하여 연구·창작 활동을 진작해 왔다. 〈문학작품집 발간 지원〉은 1980~1990년대에 여러 번 사업 명칭이 바뀌었다. 심사를 통해 등단 문인의 미발간 신작 원고의 개인 창작집 발간비를 지원함으로써 문학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작품성은 우수하나 시장성이 약한 문학작품집을 구입, 배포하여 작가의 창작 의욕을 북돋기 위한 〈우수문학작품집 구입 지원〉(1977~1982, 총 185건 5,903만 3천 원)도 시행되었다. 당시 구입 지원한 문학작품집을 살펴보면, 1977년 안수길의 「망명시인」, 김우창의 「궁핍한 시대의 시인」, 박두진의 「야생대」, 김춘수의 「남천」, 정을병의 「일과 구원」, 이청준의 「자서전을 씁시다」, 그리고 1978년 조병화의 「딸의 파이프」, 황금찬의 「구름과 바위」, 허근욱의 「내가 설 땅은 어디냐」, 김소운의 「향충」, 모기윤의 「고독과 낭만의 세월」, 이영걸의 「드넓은 산야」 등이다. 이 사업은 부침을 계속하다가 이후 이 사업은 〈문학나눔(우수문학도서보급)〉으로 2023년까지 지속되었다.


제1회 反共文學賞 시상식
제1회 반공문학상 시상식이 29일하오 서울출판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국문예진흥원이 국민의 反共의식을 높이고 반공예술작품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이 상은 소설 시 희곡 시나리오등의 분야를대상으로 매통령상(상금 1백만원)을주어왔다.
올해는 상금을 50만원으로 문공부장관상을 비롯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대통령상에 소설가 裵龍俊(사진)분과 장관상에 金東賢(시나리오) 金龍熙(소설·시나리오) 楊明文(시) 許種旭(소설)씨이다.
金聖鎭문공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이문학상의 제정을 계기로 6·25동란의 정신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찾고 문단활동에 좋은 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반공문학상 시상식
(1976. 6. 30. 경향신문)


自由文學 兒童文學 大韓民國文學賞
具常씨 李元壽씨
시인 具常씨와 아동문학가 李元壽씨(사진)의 수상은 「지혜의 언덕」 「꽃과 우리에도 의 연작 문학작품」으로 각각 「아동문학상」 「문공부문학상」을 받게 됐다.
문예진흥원은 작년까지 「흙의 문학」 「아동문학」으로 별도의 심사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이를 「대한민국문학상」 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그 안에 종래의 세부분을 포함하기로했다.
각부문중 「흙의 문학」 본상은 해당자가 없고 우수상에 시인 西湖 徐씨와 「자유부인」 「정비석」 「자유부인가」 (춘추문고) 「한국문학」 (춘추문고)

2. 시각예술 분야

오늘날과는 달리 1970년대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사업 수도 단출하고 지원 규모 또한 작았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미술전시활동지원〉(1974) 외에 지원사업은 〈미술전문지 및 자료집 발간지원〉(1974~1982, 1985~1992)이 전부였고, 이 밖에 문예진흥원 기획사업으로 〈민족기록화 제작지원〉(1974~1980), 〈미술대전 수상작품 및 민족기록화 구입〉(1974~1987)이 있었다. 1979년에 가서야 현 대학로 동숭동 부지에 미술회관을 건립하여 한국미술 소개 작품집의 해외 배포를 비롯한 시각예술 분야 진흥사업을 펼쳐나갔다. 1980년부터 시각예술 분야 전국 규모 행사('대한민국' 명칭이 붙은 미술대전, 건축대전, 공예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및 미술대전 지방 전시)를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원사업을 점차 다양화해 나갔다.

[표 3-6] 1970년대 시각예술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미술전시활동지원	12,074 (12)	6,250 (21)	5,850 (1)	9,218 (1)	-	2,000 (4)
미술전문지 발간지원	1,500 (1)	4,300 (2)	3,600 (1)	3,600 (1)	5,400 (1)	7,200 (1)
미술자료집 발간지원	400 (1)	-	-	315 (1)	-	-
계	13,974 (14)	10,550 (23)	9,450 (2)	13,133 (3)	5,400 (1)	9,200 (5)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순수미술 창작단체의 단체전·그룹전 지원

〈미술전시활동지원〉(1974)은 시각예술 분야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주로 시각예술 분야 단체·그룹의 전시회 개최를 지원해 시각예술 각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미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순수미술 창작단체의 전시활동으로 한국화, 양화(판화), 조소, 공예(디자인), 서예(사군자), 사진 및 복합장르 전시회 등이다. 3년 이상의 전시 실적을 지원 자격으로 하며, 공모전과 신인 발굴 육성을 겸한 단체, 독창성이 강한 기획전시, 지방순회 전시 등을 우선 지원해 왔다. 《목우회전》, 《구상전》, 《백양회전》, 《앙가쥬망전》, 《한국조각가회전》, 《한국서예가공모전》, 《지방순회건축전》 등이 지원을 받았다.

두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했던 〈미술전문지 및 자료집 발간지원〉(1974~1982, 1985~1992, 총 29건 1억 3,716만 8천 원)은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고, 이론적 담론을



祖上의 叙事 畵幅이
民族 기록화作業 畵壇서 활발히
廣開土大王~青山里 20개 大戰闘를 그려

민족기록화 제작지원
미술 분야 기획사업으로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추진된 민족기록화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기사 (1974. 7. 27. 경향신문)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1970년대 시각예술 분야 전문잡지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대표적인 전문지는 월간 『공간』이며,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총 4,620만 원을 지원했다. 『현대미술』에도 1975년 100만 원 지원을 시작하여 1980년과 1981년에 각각 480만 원의 발간비를 지원했고, 『미술평단』에는 1989년을 제외하고 1987~1991년 사이에 총 2,100만 원과 1987년 『미술평론선집』 발간에 200만 원을 지원했다. 자료집 발간은 1974년 『원로작가초대전 화집』 구입 지원(40만 원)으로 시작하여 1980년 『현대한국미술사료집』 발간비 지원(230만 원), 1977년과 1985년에 『미술연감』 발간 및 구입 지원(총 531만 5천 원)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문예진흥원이 기획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했던 사업은 당시 강조되었던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민족기록화 제작지원〉(1974~1980)은 여러 차례 국난을 극복한 조상의 위업과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앞장섰던 산업시설, 새마을 현장 등을 기록화로 제작하여 공공시설에 대여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무료 〈미술은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문예진흥원 출범 전인 1973년 6월에 이미 민족기록화제작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7년간 총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전승편·경제편·구국 위업편·성군치적편·문화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십 편씩 대형 화폭에 제작되었다. 문예진흥원이 직접 추진한 〈미술대전 수상작품 및 민족기록화 구입〉(1973~1987)은 민족기록화 104점(동양화 6점, 서양화 98점) 구입에 총 1억 8,240만 원을 투입했고, 일반 작품 195점(동양화 36점, 서양화 63점, 서예 14점, 공예 21점, 조각 56점, 사진 5점) 구입에 총 2억 2,900만 5천 원을 투입했다.

3. 공연예술 분야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 각 장르를 묶어 하나의 단위 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제한 사업이 등장한 것은 1985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부터이다. 이후 1989년 〈우수공연지원〉, 1992년 〈관객개발지원〉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공연예술 지원사업은 음악, 연극, 무용 장르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다. 음악 부문에는 4개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음악공연 및 창작지원〉(1974)과 〈서울(창작)음악제〉(1975), 〈대한민국음악제〉(1976~1986), 〈대한민국작곡상〉(1977) 등 전국 규모 음악 행사에 대한 지정(指定) 지원 성격의 사업이었다. 〈음악공연 및 창작지원〉은 〈음악공연지원〉(1974)과 〈음악창작지원〉(1974~1982)의 두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었다.

연극 부문에는 3개의 지원사업이 있었다. 〈연극공연 및 창작지원〉(1974), 1977년 《대한민국연극제》로 창설되어 1988년에 《서울연극제》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1년 《서울무용제》와 통합하여 《서울공연예술제》로 명칭이 다시 바뀐 《서울연극제》(1977), 그리고 〈연극연구지원〉(1974) 등이다.

[표 3-7] 1970년대 공연예술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음악	음악공연 및 창작지원	96,000 (8)	14,000 (11)	82,000 (3)	-	4,831 (6)	12,587 (9)
	서울음악제	-	6,000 (1)	6,000 (1)	-	-	-
	대한민국음악제	-	-	20,000 (1)	11,553 (1)	20,000 (1)	88,919 (1)
	대한민국작곡상	-	-	-	1,873 (1)	13,000 (1)	12,148 (1)
	소계	96,000 (8)	20,000 (12)	108,000 (5)	13,426 (2)	37,831 (8)	113,654 (11)
연극	연극공연 및 창작지원	9,189 (9)	11,400 (12)	12,000 (8)	20,000 (1)	-	-
	연극연구지원	7,560 (11)	8,593 (11)	11,050 (11)	7,900 (7)	8,200 (3)	16,000 (4)
	대한민국[서울]연극제	-	-	-	11,752 (1)	22,728 (1)	24,256 (1)
	소계	16,749 (20)	19,993 (23)	23,050 (19)	39,652 (9)	30,928 (4)	40,256 (5)
무용	무용공연지원 *	5,000 (10)	5,000 (10)	5,450 (9)	7,500 (11)	4,000 (8)	3,540 (6)
	무용연구활동지원	2,325 (2)	4,000 (2)	3,500 (2)	3,600 (1)	5,352 (2)	9,800 (2)
	대한민국[서울]무용제	-	-	-	-	-	20,490 (1)
	소계	7,325 (12)	9,000 (12)	8,950 (11)	11,100 (12)	9,352 (10)	33,830 (9)
합계		120,074 (40)	48,993 (47)	140,000 (35)	64,178 (23)	78,111 (22)	187,740 (25)

* 〈무용창작지원〉(1974~1977, 총 1,900만 원) 별도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연극공연 및 창작지원〉은 1970년대 당시에는 〈창작공연지원〉(1974~1977)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지원되었다.

1970년대 무용 부문 역시 3개의 지원사업이 있었다. 〈무용공연지원〉(1974), 〈무용연구활동지원〉(1974), 그리고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로 창설되어 1990년에 《서울무용제》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1년 《서울공연예술제》로 통합된 《서울무용제》(1979) 등이다.

음악 : 순수음악과 창작음악의 활성화



정명훈 귀국기념 공연 지원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한 피아니스트 정명훈의 귀국 기사로, 김포공항에서 시청 앞에 이르는 카퍼레이드와 시청 앞 광장에서의 대규모 환영식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문예진흥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명훈 귀국기념 공연회를 지원하였다.
(1974. 7. 13. 매일경제)

〈음악공연지원〉(1974)은 음악 장르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순수음악의 창작·발표 기회를 증대시키고 단체의 연주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민간 전문연주단체를 대상으로 정기·비정기 연주회, 창작 작품 발표회, 신인 발굴을 위한 특별 공연 등을 중점 지원했다. 1974~1976, 1978~1979년에 24건에 대해 3,441만 8천 원을 지원하여 건당 지원액은 143만 4천 원이었다. 1970년대에는 《김자경 오페라 공연》, 《신작 기악곡 발표회》, 《정명훈 귀국기념 공연회》, 《바로크합주단 공연》, 《창악회 창작곡 발표회》, 《금관악회 연주회》, 《미래악회 발표회》, 《대구오페라단 공연》 등을 지원했다.

한편 〈음악창작지원〉(1974~1982)은 국내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1974~1976, 1979, 1982년에 오페라·교향곡·실내악·가곡 등 16편에 대해 총 2,100만 원(편당 131만 2,500원)을 지원했다. 당시 지원했던 작곡가로는 오페라 부문에 나운영, 홍연택, 교향곡 부문에 백병동, 이상근, 관현악 부문에 정회갑, 이영자, 뮤지컬 부문에 김대현, 장일남, 실내악 부문에 김용진, 정윤주, 가곡 부문에 김동진, 이흥렬, 김성태, 김순애, 이호섭, 김진균, 조두남, 합창곡 부문에 박재열, 최병철 등이다. 이 밖에 오페라 각색을 한 김의경, 작사를 한 서정주, 윤석중, 박목월에 대해서도 지원했다. 1982년 이후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었다.



第1回 大韓民國音樂祭

9月8日부터 13日동안——

國內外우리音樂徒參與

「韓國」素材의 交響曲도

대한민국음악제
1976년 제1회 대한민국음악제 개최 내용과 성과를 다룬 기사.
대한민국음악제는 1976년 문화공보부 주최,
문예진흥기금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1980년 제5회 행사부터 주최권을 이관받아 시행하였으며,
1986년 문화예술행사의 민간 이관 방침에 따라 KBS로 이관하였다.
(1976. 8. 6. 동아일보)



제1회 「대한민국作曲賞」 발표

大統領賞 해당작품없어

文公部長官賞 4편

대한민국작곡상
제1회 대한민국작곡상에 대한 당시 음악계의 기대와 사업운영에 대한
제안을 담은 기사와 제1회 수상작에 대한 결과 발표 기사.
대한민국작곡상은 창작음악의 발굴을 통하여 우리 음악계의 중흥을
이룩하고자 1977년 최초로 문화공보부에서 제정 시행하기 시작하여,
1979년 제3회부터는 문화공보부에서 사업을 이관받아 추진하였다.
(1977. 12. 7. 경향신문)

《서울음악제》(1975)는 1969년 한국음악협회 주최로 첫 회를 개최하고 2002년 《서울창작음악제》로 명칭을 변경한 행사이다. 1970년대에는 1976, 1977년 두 해만 지원됐으나, 이후 〈음악공연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전국 규모 예술행사지원〉을 통해 꾸준히 지원해 왔다. 신인 작품 공모 및 중견작곡가 위촉 방식을 유지해 온 국내 최대 창작음악 행사로, 우리나라 창작음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음악 분야 진흥과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1975년 문화공보부가 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음악제》(1976~1986, 총 13억 5,897만 6천 원 집행)는 1980년에 주최권이 문예진흥원으로 이관되고, 1987년에 다시 KBS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음악제》는 1986년 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문예진흥원과 KBS가 공동주최하면서 행사명을 《서울국제음악제》로 변경했다. 이 사업은 1980년대에 이르러 역대 대한민국작곡상 수상작품 연주와 해외 지휘자 및 연주자 초청을 통해 국내 창작음악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오늘날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음악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작곡상〉(1977)은 창작음악의 발굴을 통해 우리 음악의 중흥을 이룩하고자 1977년 문화공보부가 제정한 상이다. 제1회 행사 당시 대통령상 1편에 상금 200만 원, 장관상 국악 2편, 양악 2편은 상금 각 100만 원이었다. 응모는 기성과 신인을 불문하였고 음악계 추천작품도 심사 대상이 되었다. 수상작품들은 《대한민국음악제》와 《대한민국국악제》에서 연주되었고, 국공립 연주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70년대 수상자로는 양악에 백병동, 박중후, 강석희, 나인용, 국악에 이상규, 박일훈, 황의종, 김대석 등이다. 이 밖에 1970년대에는 〈합창활동지원〉(1974~1976)으로 전국가창지도자 강습, 시도별 합창경연대회 등 9건에 2,986만 5천 원, 〈악보집 발간지원〉(1974~1980)으로 정윤주의 악보집 『까치의 집』을 비롯한 기악곡집과 합창곡집, 가곡집 등 창작악보집 발간에 총 740만 3천 원을 지원했다.

연극 : 시대정신을 표출한 창작극 활성화

우리나라 연극공연에 대한 지원제도는 1974년 〈문예중흥 5개년계획〉에 의한 창작극 지원제도인 〈연극공연 및 창작지원〉(1974)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극사(新劇史) 이래 번역극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당시 연극계 상황에서 이 지원은 창작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창작공연의 완결은 무대라는 가시적인 공간에서 생동감 있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대정신이 능동적으로 표현된 창작극은 무대에 놀라운 생명력과 활력을 주게 된다. 창작극의 중요성은 무대와 연결되는 우리 삶의 다른 모티브를 한 편의 작품을 통해 활력소로 느끼게 해주는 데 있다. 당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한 극작가로는 김의경, 노경식, 박조열, 이근삼, 하유상, 차범석, 오태석, 윤대성, 이강백, 윤조병 등이 있다.

또 창작공연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지원한 단체로는 극단 가교, 산하, 광장, 실험, 민예, 자유, 동랑, 산울림, 신협, 민중, 여인, 실험, 고향 등이다. 지원한 작품으로는 〈태〉(오태석 작·안민수 연출), 〈무녀도〉(김동리 작·하유상 각색), 〈가위 바위 보〉(최인호 작·임영웅 연출), 〈맹진사댁 경사〉(오영진·김영일), 〈산불〉(차범석·문고헌), 〈위대한 실종〉(이근삼·허규), 〈마의 태자〉(유치진·유덕형), 〈이어도 이어도〉(이청준·이해랑),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최인훈·표재순), 〈기적을 파는 백화점〉(이어령·김현일), 〈쉬 쉬 쉬잇〉(이현화·김정옥), 〈꽃바람〉(차범석·강유정), 〈토끼와 포수〉(박조열·이효영) 등이 있다.

〈연극연구지원〉(1974)은 연극단체의 역량 강화와 연극인의 기량 함양을 위해 각종 연구 발표,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연수회, 토론회, 신인평론가 발굴 등 연극단체 평론행사와 평론도서 발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979년까지 47건 5,930만 3천 원(건당 126만 2천 원)을 지원



창작극 지원
1970년에 연극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은 문예진흥원의 창작극 지원사업에 대한 신문 기사
(1974. 1. 19. 경향신문(좌), 1974. 4. 4. 동아일보(우))



대한민국연극제(大韓民國 演劇祭)
1977년도에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개막 소식과 연극제 성과를 다룬 기사.
'대한민국연극제'는 문예진흥원이 주최하여 시행하다 1986년 연극협회로 이관, 1987년 '서울연극제'로 개칭하였다.
2001년에는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서울공연예술제'로 통합하였고
2004년 연극이 중심이 되는 '서울연극제'로 개편하여 서울연극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1977. 11. 16. 경향신문)

했는데, 주요 지원단체는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배우협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등이다. 1977년에는 창작극 진흥과 연극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가 개최되었다. 1970년대에는 단체상으로 대통령상(상금 200만 원)과 문화공보부 장관상(4개 부문, 상금 각 100만 원)이 수상되었고, 1980년부터는 초청 형식으로 바뀌면서 단체상이 폐지되었다. 1970년대 주요 수상단체는 극단 민예(대표 허규), 극단 현대(대표 김의경), 극단 자유(대표 이병복), 극단 여인(대표 강유정), 그리고 주요 수상자는 황석영(희곡상), 김상열(희곡상), 김정옥(연출상) 등이다. 주로 세실극장과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진행된 행사의 연도별 평균 입장객 수는 30,635명(1977~1979)에 이르렀다.

무용 : 무용단체 역량과 무용가 기량 향상

무용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육체로 표현하는 공연예술로, 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인간이 소망하는 상징적인 혼이 담긴다. 무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인 관심을 이끈 계기는 1979년 창설된 《대한민국무용제》(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였다. 우리나라 창작무용의 활성화와 우수 무용인 배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는 행사이다. 1979년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에서 우수상(상금 각 1,000만 원)은 최선영무용단(〈가잿골의 전설〉), 김상규무용단(〈회귀〉), 김복희·김화숙무용단(〈창살에 비친 세 개의 그림〉)에게 돌아갔고, 장려상(상금 각 500만 원)은 김진홍무용단, 조흥동무용단, 학림회가 수상했다.

〈무용공연지원〉(1974)은 한국무용협회 등 무용단체의 공연활동을 주로 지원했는데, 1970년대에는 전문무용단 육성과 신인 배출을 위해 서울과 지방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에게 더 많은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의욕을 북돋워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공연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음악·연극 장르와 마찬가지로 무용 장르에도 〈무용창작지원〉(1974~1977)을 〈창작공연활성화지원(음악·연극·무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대한민국무용제
1979년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 개막을 다룬 기사.
우리나라 창작무용의 활성화와 우수 무용인 배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1989년 제11회 행사부터 문예진흥원에서 무용협회로 이관 지원되었으며, 1990년 《서울무용제》로, 1995년 《서울국제무용제》로 개칭되었다.
(1979. 9. 28. 동아일보 / 1979. 10. 1. 매일경제)

하였다.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 장르 대표 창작품을 발굴하여 공연 지원하는 사업이다. 1974년에는 〈궁중무용〉, 〈서울의 행진〉, 〈처용의 죽음〉, 〈침향의 노래〉, 〈파리의 연인들〉등에 145~160만 원씩 총 480만 원, 1975년에 640만 원 등 1977년까지 총 1,900만 원을 지원했다. 당시 지원한 무용가로는 임백봉, 송범, 김진걸, 송수남, 김학자, 이매방, 김옥진, 문일지, 임성남, 배정혜 등이 있다.

〈무용연구지원〉(1974) 사업은 1974년 이래 단체의 활동 역량 강화와 무용가의 기량 향상을 위해 무용단체의 워크숍, 연수회, 공개토론회 및 무용평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용 장르는 연극과 함께 단체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술 분야이다. 따라서 지원도 한국무용협회를 비롯하여 한국현대춤협회,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춤평론가협회, 한국무용연구회 등 주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74년과 1976년 사이에 〈무용기법연구지원〉 사업이 있었다. 현대무용 재현 녹화(60만 원)를 비롯하여 풍물놀이 조사, 무용 용어해설집 발간, 무용 용어 제정, 봉산탈춤 채록 및 무보 발간 등을 지원한 사업이다. 건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991만 원을 지원했다.

4. 전통예술 분야

1970년대 전통예술 분야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예술공연지원〉(1974)과 〈전통예술연구지원 및 보존지원〉(1974)이 있다. 1958년에 처음 개최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99년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연이 아닌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974년부터 2001년까지 총 29억 5,000만 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했다. 이 밖에 〈전통예능 전승단체지원〉(1974~1980)과 〈민속악 체계정립지원〉(1974~1980)을 1980년까지 시행했고, 〈국악기 개량보급지원〉(1974~1976, 1988~1989)은 중간에 10여 년간의 터울을 두고 5년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전통문화예술지원〉(1974~1982)으로 17건에 대해 산발적으로 지원했다.

전통문화의 연구·보존과 계승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1970년대 정부 문화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타 장르 지원에 비해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고, 장르별 지원금 규모도 문학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한다. 문화 일반으로 분류한 국학과 문화재 보호까지 전통문화에 포함하면 그 규모는 압도적이다. 제4공화국을

[표 3-8] 1970년대 전통예술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전통예술 공연지원	국악공연지원	5,000 (3)	5,135 (7)	5,700 (8)	4,988 (8)	4,395 (6)	5,217 (6)
	전통연극지원	1,200 (3)	1,200 (3)	-	-	-	2,800 (7)
	전통무용지원	-	-	-	-	-	1,500 (3)
	소계	6,200 (6)	6,335 (10)	5,700 (8)	4,988 (8)	4,395 (6)	9,517 (16)
전통예술연구지원 및 보존지원		27,673 (20)	17,025 (17)	14,380 (16)	23,800 (17)	12,297 (12)	28,251 (11)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6,500 (1)	6,500 (1)	9,970 (1)	10,800 (1)	18,600 (1)	18,600 (1)
전통예능 전승단체지원		1,800 (9)	2,400 (8)	2,100 (7)	1,800 (6)	1,800 (6)	1,500 (5)
민속악 체계정립지원		3,200 (4)	4,700 (5)	5,000 (4)	5,000 (5)	4,997 (4)	5,035 (2)
국악기 개량보급지원		4,000 (1)	2,000 (1)	2,470 (1)	-	-	-
기타 전통문화예술지원		44,087 (8)	31,363 (6)	15,477 (6)	11,500 (4)	4,000 (1)	14,216 (2)
합계		93,460 (49)	70,323 (48)	55,097 (43)	57,888 (41)	46,089 (30)	77,119 (37)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이어받은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80년대 초반부터는 전통 분야에 대한 지원의 절대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된다. 특히 1970~1980년대 당시의 지원은 주로 연구·보존·계승에 초점이 있었다. 보존·계승 차원을 넘어 전통의 재창조 활동지원에 주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특히 〈전통공연예술지원〉(1974~현재)이 공연예술 분야 창작가와 공연단체의 지원 육성을 위한 〈공연예술활성화지원〉으로 시행되다가 별도 프로그램으로 분리된 것은 1993년이다. 1970년대에는 주로 국악 지원 위주였고, 전통무용은 1979년에 가서야 지원되기 시작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연구·보존에 대한 지원 총액(1억 2,342만 6천 원)이 공연에 대한 지원 총액(3,713만 5천 원)의 3.3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1970년대 당시의 지원 경향을 보여 준다.

〈전통예술 연구지원 및 보존지원〉(1974~현재)은 전통예술의 이론 정립과 전승 보존을 목적으로 전통예술 분야 조사·발간과 기록보존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업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초창기 기록보존사업은 민속악과 잡가 채록 및 악보집 발간, 판소리·인형극·무악 연구, 한국무속자료총서 발간 등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보존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민속예술축제》(1974~2001)는 1958년 정부 수립 10주년 기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개최된 후, 1961년 제2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가 단위 민속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1967년부터는 각 시도에서 순회 개최하고, 1994년부터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병행 개최해 오고 있다.



요늘에 되살린「옛 슬기와 얼」…民俗藝術경연

24일부터 水原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26일까지 사흘동안의 열띤 경연을 마치고 폐막되었다。農樂 民俗劇 16개 시도에서 22개팀임 총 8백20명이 출연한 이 본 경연대회는 사흘동안 연10여만명의 관중이 참관, 우리고유의 민속예술의 熱演때마다 드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두드러진 質的向上

民俗인「청도농요」가 첫선을 보였다。

새로 발굴된것만 10餘가지…考證과內容에서도 훌륭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4년도부터 지원한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예술 경연대회로 각 지역의 특색있는 전래민속예술이 발굴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1999년에는 대회명칭을 한국민속예술축제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77. 10. 27. 동아일보)

경연 종목은 농악·민속극·민요·민속놀이·민속무용 등으로, 경연으로 인한 과열 현상과 상품화가 문제됨에 따라 1999년 대회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많은 전래민속예술이 발굴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74년 기금 지원 이후 1970년대에 새로 발굴되어 대통령상을 받은 종목은 고성오광대, 영동설계리농요, 위도띠뱃놀이 등이다.

〈전통예능 전승단체지원〉(1974~1980)은 전통예능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1980년(5건, 250만 원)까지 수영고적민속보존회, 아산줄다리기보존회, 안동차전놀이보급회 등을 지원했다. 〈민속악 체계정립지원〉(1974~1980)은 서민의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는 민속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80년(2건, 491만 6천 원)까지 시조·판소리·농악·무악·민요잡가·꼭두각시극·탈춤·범패 등 8개 부문 전문단체에 조사연구를 맡겨 우리나라 민속악의 틀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악기 개량보급지원〉(1974~1976, 1988~1989)은 우리 국악기의 단점인 음역과 음량을 확대하고 현대적·서구적 연주법이 가능한 악기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1960년대부터 민족악기(국악기) 개량에 나선 북한에 비해 다소 늦어졌다. 국악기 개량, 시연회, 종합보고서 발간 등에 1974~1976년, 그리고 1988~1989년(1988년 3,394만 6천 원, 1989년 3,489만 원)에 걸쳐 총 7,733만 6천 원을 지원했다. 기타 〈전통문화예술지원〉(1974~1982)으로 국악교사 재교육, 무형문화재 연주단체지원 등 17건에 대해 총 1억 3,947만 5천 원(1980~1982, 6건, 1,883만 2천 원 포함)을 지원했다.

5. 문화예술 일반 분야

문화예술 일반에 대한 지원은 창조진흥 분야 중에서도 가장 지원 규모가 큰 데다 이른바 '정책성' 지원이라고 불렸던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다. 1970년대(1974~1979) 문화예술 일반에 대한 지원 총액은 23억 5천여만 원으로, 창조진흥지원 전체 규모의 56.5%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한국학지원(국학지원)〉(1974~1981), 〈출판사업지원〉(1974~1987), 〈대중예술지원〉(1974~1979, 1988~현재), 〈문화재보호재단지원〉(1975~1995), 〈영화진흥지원〉(1977~2004), 그리고 1979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예술장학금지원〉(1979~1995) 등이다.

전반적인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는 지원을 통한 진흥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1972. 8. 12.) 당시에는 '문화예술'을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으로만 규정했다. 국악을 음악의 범주 안에 두고, 연예 장르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정(1987. 11. 28.)에서 무용·연극·영화를 포함했으며, 미술에 '응용미술'을 포함(1995. 1. 5.)하고 국악·사진·건축·

[표 3-9] 1970년대 문화예술 일반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한국학지원(국학지원)	220,064 (48)	180,505 (80)	162,400 (32)	162,560 (36)	40,000 (14)	262,594 (43)
출판사업지원	105,010 (6)	59,498 (9)	67,130 (11)	73,130 (11)	77,766 (13)	30,979 (52)
대중예술지원	46,000 (10)	14,000 (8)	16,000 (6)	8,000 (3)	8,000 (1)	9,000 (2)
문화재보호재단지원	-	13,960 (1)	24,082 (1)	16,600 (1)	19,100 (1)	15,000 (1)
영화진흥지원	-	-	-	200,000 (1)	200,000 (1)	300,000 (1)
예술장학금지원	-	-	-	-	-	15,362 (71)
계	371,074 (64)	267,963 (98)	269,612 (50)	460,290 (52)	344,866 (30)	632,935 (170)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어문을 추가했다. 2023년 현재 문화예술의 범위에 문학, 미술(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이 포함되어 있다. 법 개정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의 개념에 대한 시대적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1970년대 이후 '문화예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성'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학지원〉(1974~1981)은 한국학 연구의 저변 확대와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1981년 사업 종료까지 312건, 총 15억 1,500만 원(1980~1981, 59건, 4억 8,678만 2천 원 포함)을 지원했다. 〈학술단체연구지원〉, 〈한국학 연구지발간지원〉, 〈한국학 연구 및 자료수집비 지원〉, 〈한국학 국제교류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연도마다 지원 방향을 달리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 지원을 도모했다. 1970년대 초반 출판계는 영세한 규모, 부실 덤핑, 저속한 도서 출판, 외판 행위 성행 등 도서 공급 체계가 몹시 낙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출판사업지원〉(1974~1987)을 통해 출판금고 기금 지원, 도서 구입지원 및 배포, 잡지 출판, 국제도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했다. 1980년대 후반 출판등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출판시장의 자유화·개방화가 가속화되었다. 1987년까지 14년간 1,090건에 11억 3,206만 6천 원을 지원했다. 특히 1997년 말 IMF 재정위기를 맞아 1998년에 한국출판금고에 200억 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출판유통 현대화·정보화 및 양서 출판을 지원하도록 했다.


활기띨 韓國學개발
文化
1억 250만원을 投入
民族史再整理중점

한국학지원
1975년도 한국학 지원사업 소개 기사(1975. 7. 22. 매일경제)


45種 85冊 圖書 출간
文化
1억 6천2백67만원 投入
4개分野 29만9천2백부

출판사업
1974년도 출판사업 실적을 소개한 기사(1974. 12. 10. 매일경제)



대중예술지원
1970년대 건전가요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전국 가창 지도자 강습회"(1975. 7. 28.~7. 30.)

1970년대 〈대중예술지원〉(1974~1979, 1988)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건전가요로 불린 새 노래 작사·작곡, 생활의 노래 제작 및 노래집 발간·보급, 각종 가요제 및 합창경연대회, 대중예술 관련 학술심포지엄과 평론활동 등에 지원했다. 1970년대(1974~1979) 지원 총액은 30건에 1억 1백만 원이다. 〈문화재보호재단지원〉(1975~1995)은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발족하여 1992년에 명칭을 변경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5년까지 21년간 총 24억 992만 5천 원을 지원했다. 〈영화진흥지원〉(1977~2004)은 28년간 총 1,694억 5,463만 5천 원으로 단위사업 중 가장 큰 지원 금액이다. 이는 문예진흥기금이 영화관 입장권 부가금을 통해 상당 부분 조달되던 현실을 반영한다. 한편, 2003년 12월 말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종료되면서 영화계 지원도 끊어졌는데, '전용상영관지원'은 후불금 형태이기 때문에 2004년도 〈기간문예단체지원〉에 포함시켜 6억 8,500만 원을 지급했다. 2002~2003년 지원액은 각각 21억 3,000만 원, 26억 3,000만 원이다. 이 밖에 1974년부터 예총 본부 및 지부에 대한 사업 지원이 있었고, 1979년부터는 〈예술장학금지원〉(1979~1995)이 시작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예술창작 진흥사업을 하나의 표로 총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0] 1970년대 예술창작 진흥사업 지원 총괄 *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계
문학	55,066 (18)	65,237 (41)	71,587 (69)	127,471 (81)	154,978 (54)	232,996 (78)	707,335 (341)
미술	13,794 (14)	10,550 (23)	9,450 (2)	13,133 (3)	5,400 (1)	9,200 (5)	61,527 (48)
공연	120,074 (40)	48,993 (47)	140,000 (35)	64,178 (23)	78,111 (22)	187,740 (25)	639,096 (192)
전통예술	93,460 (49)	70,323 (48)	55,097 (43)	57,888 (41)	46,089 (30)	77,119 (37)	399,976 (248)
문예일반	371,074 (64)	267,963 (98)	269,612 (50)	460,290 (52)	344,866 (30)	632,935 (170)	2,346,740 (464)
합계	653,468 (185)	463,066 (257)	545,746 (199)	722,960 (200)	629,444 (137)	1,139,990 (315)	4,154,674 (1,293)

* 〈문예중흥 5개년계획〉 분야별 통계와는 달리 1979년이 포함되는 대신, 지역문화, 국제교류가 빠져 있음.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4. 1970년대 문화향수 진작사업의 추진과 성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의 경우 대개는 해당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정책 위주로 문화정책이 시작된다. 이는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후에 나라의 재정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작하는 정책이 강화된다. 뒤이어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서 국민의 문화향수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강조된다. 이때에야 비로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인간다운 삶 내지는 삶의 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문화예산에서 문화재 예산이 문화예술 예산의 3~4배 규모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 8.),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 발표(1973. 10.), 문예진흥원 출범(1974. 10.) 등 일련의 문예진흥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때의 문화 관련 각종 법·제도 정비, 그리고 문화정책적 틀은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의 바탕이 된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1인당 GNP가 2,000 달러를 넘어선 1983년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과거 창작진흥에 중점을 두던 정책으로부터 향수 진작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복권기금이 전입된 2004년부터는 향수 진작사업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조 전환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고조라는 시대 조류의 변화와 문화재정의 대폭 증가를 가능하게 한 국력의 신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결과이다. 오늘날 복지적 문화정책인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활동의 진작은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세 개의 축인 창작진흥, 계승보존, 향수 진작(참여활동의 진작을 포함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2004년부터 전입되기 시작한 복권기금에 의한 문화사업은 모두 향수활동 진작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다. 문화향수정책은 지향 목표와 수행 방식에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전문예술가가 창조한 고급문화의 향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강화를 지향하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개념으로, 1980~1990년대 우리나라 문화향수정책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는 문화향수 정책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서 문화참여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있다. 문화적 생산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여 일반 대중이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창조적 소양을 통해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폭넓게 장려해야 한다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개념이다. 비전문가인 대중이 문화예술 창조 작업에 직접 참가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자신이 다시 즐긴다는 의미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의 활동 분야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후부터 그 비중이 늘어나다가 주 5일 근무제가 일상화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활동 패턴 자체가 자신이 직접 문화를 창조하여 이를 즐기려는 참여활동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참여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문화정책도 이에 대한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문화수용 패턴이 점차 선진국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작기반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1970년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한 사업 중에 국민의 문화향수 진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고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관객이 없는 공연·전시 창작활동이 없고, 독자가 없는 문학 창작활동이 없듯이 모든 창작 진흥정책은, 곧 향수 진흥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사업이 겨냥하는 목표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9개劇團 巡回公演 뜻밖의 盛況

滿員은 地方에서 꽃핀다

가는곳마다 觀客들 붐벼 「서울 푸대접」과 큰 對照

賣票收入 100萬원 넘는 곳도

觀覽태도 진지…水準 높아

서울 소재 극단의 지방 순회공연 지원
문예진흥원의 창작극 지원을 받은 9개 극단의 지방 순회공연 내용을 다룬 기사로, 몇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연극이라는 것이 공연된 곳"이었으며 "축제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내용이 있다.
(1974. 11. 27. 경향신문)

각종 문학작품집 구입 및 발간 지원, 미술전 개최 및 순회 지원, 음악·무용 공연 지원 등은 모두 감상과 향수를 전제로 한다. 특히 예술진흥 분야에서 서울 소재 극단의 지방순회는 대표적인 향수 진작사업의 사례이다. 문예진흥원은 1974년 9개 극단의 31개 지역순회, 1975년 11개 극단의 20개 지역순회, 1976년 8개 극단의 104개 지역순회에 대해 지원했다. 이때 극단 자유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극단 가교의 〈유랑극단〉, 극단 민예의 〈한네의 승천〉, 극단 동랑의 〈소〉, 극단 신협의 〈신바람〉, 극단 자유의 〈흐르지 않는 강의 전설〉, 극단 실험의 〈일요일의 불청객〉 등이 순회했다.

5. 197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지역문화의 진흥’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육성한다는 의미이다. 더 넓은 의미로는 앞의 의미를 포함하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창조와 계승, 향수활동을 진작하고 고도화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1960~1970년대 이후 지속된 고도성장기의 경제 우선, 공업화 우선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파괴와 경시 풍조가 심화되었다. 결국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문화적 정체성이 소멸의 위기에 놓이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의 지역문화정책은 이러한 지역 고유문화의 피폐화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표 3-11] 1970년대 지역문화 진흥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지역문화제 지원	3,700 (21)	15,950 (27)	15,550 (29)	12,500 (27)	14,500 (29)	14,200 (27)
지방문화원 지원	18,640 (116)	19,123 (117)	18,800 (89)	29,300 (105)	39,850 (111)	39,750 (111)
시도미술대전 지원	-	-	4,500 (9)	4,500 (9)	10,000 (10)	10,000 (10)
지역예술회관 건립 지원	-	-	20,000 (1)	30,000 (1)	-	200,000 (1)
계	22,340 (137)	35,073 (144)	58,850 (128)	76,300 (142)	64,350 (150)	263,950 (149)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1974년 출범 당시부터 문예진흥원은 전국의 주요 지역문화제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제지원〉(1974~1998)과 〈지방문화원지원〉(1974~1988) 사업을 시행했고, 1976년부터는 〈시·도 미술대전 지원〉(1976~1997)과 〈지역예술회관건립지원〉(1976~1982)을 시작했다.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과 계승


17개行事 지원
총 3백만원 규모
傳統 있는 行事 重點
保存가치등 감안
文化
韓國文化藝術振興院 육해 地方文化祭자금 配當

지역문화축제 지원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기 위한
지역문화제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기사(1974. 8. 27. 매일경제)

지역문화축제 지원은 지역의 전래 고유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역문화제 지원〉(1974~1998) 사업, 그리고 1983년에 시작한 〈대표 향토축제 지원〉과 1997년에 이를 이어받은 〈우수기획축제 지원〉이 있다. 지역문화제가 관 주도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로 서서히 바뀐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74년부터 1998년까지 25년간 지원한 지역문화제는 총 1,005개(연평균 40.2개), 17억 6,880만 원(연평균 7,075만 2천 원)으로 건당 지원액수는 176만 원이다.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한 지역문화제는 《여주 답교놀이》, 《영월 단종제》, 《영동 난계예술제》, 《부여 은산별신제》, 《고창 모양성제》, 《진도 영등제》, 《밀양 아랑제》 등 70개가 넘는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향토사 조사·연구, 지역 문화행사 개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문화교육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특수법인체이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1970~1980년대에는 150개가 넘지 않았다. 〈지방문화원지원〉(1974~1988)을 통해 15년간 지원한 문예진흥기금은 37억 7,660만 3천 원에 이른다. 1989년부터는 전국문화원연합회(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프로그램별로 지원했으며, 운영비 등은 국고 지원으로 전환했다. 지역별 고유문화를 계발,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도 미술대전지원〉(1976~1997)은 각 시도의 미술대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6년 9개 시도별 50만 원 지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에는 14개 시도 각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2년간 총 4억 6,05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1984년부터 1997년까지 시도 미술대전 수상작품에 대해 서울과 2개 지역 순회전을 개최했는데, 순회전 개최에 14년간 총 3억 2,080만 3천 원을 지원했다. 지역작가의 창작 의욕 고취와 신인작가 발굴을 통해 지역미술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순회전 지원을 통해 지역과 서울 간의 미술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방문화시설 건립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다. 1984년부터 종합문예회관 건립, 특장전문시설 건립, 기존 문화시설 개·보수,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개수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지원했다.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역예술회관 건립지원〉(1976~1982)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몇몇 예술회관을 지원했을 뿐이다. 1976년과 1977년 전북예술회관에 2,000만 원과 3,000만 원, 1979년 충북예술회관에 2억 원을 지원했고, 1980~1982년에는 남도예술회관 2억 원, 전북예술회관 1억 5,000만 원, 목포예술회관 1억 원을 지원했다. 1997년부터는 국고 지원으로 일원화되었다.

문예진흥원은 1974년부터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제, 전국민속경연대회 등의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러한 지원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 육성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사업에 배정할 여유가 많지 않았다. 1973년 시작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당시 문예진흥원의 수입 재원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1970년대는 모금이 시작된 초기라 조성된 재원을 당시 기관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지원사업에 사용하기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더군다나 1974년부터 1978년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문예중흥 5개년계획〉에 국고 이외에 민자로서 문예진흥기금이 68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총 투자금액 485억 원 중 14%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실제 지역문화진흥사업을 비롯해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업효과를 체감할 정도의 사업추진은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6. 197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오늘날 지식정보가 부(富)의 원천인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성에 기반을 둔 문화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문화 부문 국제교류는 국가 간 우호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효과적인 영역으로 중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까닭이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국가브랜드 가치의 불가결한 요소로서도 문화교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적인 교류 활성화 추세와 함께 우리 문화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오고 있다.

1970년대에는 문예진흥기금을 문화예술 국제교류에 배정할 여유가 많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사회적 흐름과 올림픽 등 국제행사 개최 및 그 준비과정에서 더욱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문예진흥원 출범 당시에는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1974)은 1995년까지 '국제회의 및 행사교류지원'으로 불리다가, 이후 '문화예술인사 및 단체교류', '국제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문화예술교류' 등 사업명이 자주 바뀌었다. 1970년대에 시행된 프로그램으로는 〈국제문화예술기구지원〉(1974)과 〈해외문예인 초청사업〉(1974~1995), 〈문예인 해외연수지원〉(1975~1999)이 있다. 뒤의 두 사업 역시 단위사업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관련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2] 1970년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7,963	14,752	17,959	18,445	21,354	47,176
국제문화예술기구지원	750	17,500	3,600	3,600	4,800	8,400
해외문예인 초청사업	883	-	-	-	-	32,615
계	9,596	32,252	21,559	22,045	26,154	88,191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시동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1974~현재)은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개최 지원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교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1970년대에 이 사업을 통해 국제펜대회 참가, 상파울루 비엔날레 및 파리 비엔날레 출품 지원, 국제현대음악가협의회, ITI(국제극예술협회) 총회 등 참가를 지원했다. 특히 지원사업 첫해인 1974년에는 당시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었던 정명훈의 중남미 및 유럽 순회 연주를 지원했다.

〈국제문화예술기구지원〉(1974~현재)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화예술관련 국제기구의 한국본부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명이 존속한 1999년까지 총 5억 9,576만 2천 원이 지원됐다. 1970년대에 주로 지원한 국제문화예술단체 한국본부는 PEN과 ITI이다. PEN 한국본부에는 5년간(1975~1979) 총 1,960만 원, ITI 한국본부에는 3년간(1974, 1975, 1979) 총 575만 원을 지원했다. 많지 않은 지원 금액이지만 PEN과 ITI 한국본부의 국내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해외문예인 초청사업〉(1974~1995)은 국내 문화예술인에게 전문지식과 최신 해외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주어 우리 문화예술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1974년 프랑스 문예평론가 르네 마릴 알베레스(R. M. Albérès) 초청 강연과 미국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Matha Graham Dance Company) 초청 공연을 지원했고, 1975년 독일 소설가 루이제 린저(Luise Rinser) 초청을 지원했다. 이 밖에 〈문예인 해외연수지원〉(1975~1999)을 통해 1970년대 무용, 연극, 음악, 의상 분야 예술인의 미국 및 유럽 연수를 지원했다.

한편 1970년대에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교류란 국가 간 문화·관광·공연

예술·정보·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류사업을 뜻한다.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국가적, 문화적 차이를 가진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외교적 상황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외국을 문화교류라는 목적으로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당시는 미·소 간 첨예한 냉전과 남북분단 대치 상황에서 소련, 중국, 동유럽 등 공산국가와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자유 진영 이외에 실제 국제교류 채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추천이 없으면 사실상 비자, 즉 사증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소련, 중국, 동유럽, 베트남 등 공산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 평화적 정권 이양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자신감을 얻은 정부가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국제교류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이 외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된 1990년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1970년대 문화시설 운영 및 발간사업의 추진과 성과

문예진흥원은 개원 이후 공연장·전시장·자료관·연수시설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해 왔다. 저렴한 대관료 책정과 자체 기획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해 온 공간들이다. 개원 초기에는 연극인회관과 미술인회관을 임차 사용했는데, 큰 인기를 끌면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더 규모가 큰 공간의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건축가 김수근(공간연구소 대표)의 설계로 동숭동 현 마로니에 공원을 둘러싸고 미술회관과 문예회관을 짓게 되었다.

1979년에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이 먼저 완공되어, 5월에 미술회관(1~2층)과 예술자료관(3층, 현 아르코예술기록원)을 개관했다. 이어서 1981년 4월에는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을 개관했고, 1992년 5월에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을 개관했다. 1985~1997년에는 공연예술종합연습실을 임대 운영했다. 1974년 월보 『문예진흥』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 분야 종합전문지가 창간되었고, 1976년에는 『문예연감』이 첫 호를 발간하여 2023년에 통권 47호를 출판했다.

1. 연극인회관 운영 : 임대건물에서 대관지원사업을 시작

1973년 10월 11일 문예진흥원이 출범할 당시 서울에는 20여 개의 기성 연극단체와 50여 개의 대학생 연극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전용 소극장을 갖고 있는 단체는 극단 신협과 자유극장 등 5~6개에 불과해 모든 극단과 연극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작활동과 공연활동에 활용할 기본시설이 필요했다. 문예진흥원은 정음사 건물(중구 충무로5가)을 임차하고, 1974년 7월 5일 '연극인회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이후 1976년 말까지 259건을 대관했다.

당시의 시설 규모를 보면 하층은 연건평 866m²(262평)로 대연습실 1개, 소연습실 3개, 회의실 겸 실습실 1개, 자료실 겸 창작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상층은 150석 규모의 객석과 66m²(20평)의 무대를 설치하고 분장실, 소품실 겸 의상실, 연극 기재 창고 등을 갖추었다. 1977년 1월 6일

[표 3-13] 1974~1980년 '연극인회관' 연도별 대관일 수, 공연 횟수, 관람객 수 (단위 : 일, 명)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대관일 수	136	273	263	304	334	316	343
공연 횟수	253	445	503	565	668	637	696
관람객 수	20,287	40,388	49,899	123,925	128,850	123,592	143,008

* 1981년 4월 동숭동 '문예회관' 개관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연극인회관 개관
(왼쪽) 1974년 7월 5일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정음사 건물을 임차하여 연극인회관으로 대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오른쪽) 1977년 1월 6일 연극인회관은 덕수궁 옆 세실극장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1981년 4월 1일 동숭동에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을 신축 개관하였다.

연극인회관은 덕수궁 옆 세실극장으로 이전하였다. 공연장 315m²(95.4평)에 분장실, 조명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1979년부터 문예회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동숭동 현 위치에 착공하여 1981년 4월 1일 개관했다. 대지 4,945.5m²(1,496평)에 연면적 5,365.44m²로 좌석 수 709석(현재 휠체어 6석 포함 600석) 규모의 대극장과 200석(2023년 현재 110석) 규모의 소극장, 그리고 271m²(82평)의 연습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2. 미술회관 운영 : 자체 기획전으로 미술계 발전에 기여

미술인회관은 미술인의 창작·발표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공간이다. 1974년 3월 22일 종로구 관훈동의 구 덕수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미술인회관을 개관했다. 미술인회관은 미술인들에게 대관하고, 제4실은 일반인들의 미술 감상을 위해 상설 화랑으로 개방했다. 부속시설로는 화구류 판매소, 표구소, 휴게실 등을 갖추었다.



미술회관 개관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의 첫해 사업으로 1974년 3월 22일 종로구 관훈동의 구 덕수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미술회관'을 개관하였다. 이후 1979년 5월 21일 동숭동에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을 신축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후 1976년 3월 본관 청사를 구 서울대학교 본부 건물로 이전하고, 1978년 5월 '미술회관'을 기공하여 1년 후인 1979년 5월 21일 대지 1,372m²(415평), 연면적 2,969.58m²(898평)의 건물을 준공, 개관했다. 미술회관은 전시 규모에 따라 2~5개로 공간을 조정·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형 대형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미술계에 대한 간접 지원의 취지에 따라 대관료가 저렴하고,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거나 미술인의 학술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미술회관이 추진한 사업은 자체 기획전을 비롯하여 대관, 미술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미술작품 소장·관리, 마로니에 조각공원 조성, 한국미술 소개자료 해외 배포 등이다. 미술인의 창작 역량의 증진과 연구활동 활성화, 그리고 미술인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미술 애호 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상당히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14] 1974~1980년 '미술회관' 연도별 대관일 수, 대관 건수, 관람객 수 (단위 : 일, 개, 명)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	1980
대관일 수		217	308	329	336	336	126	275
대관 건수	단체	39	54	43	51	51	29	60
	개인	15	42	61	52	53	12	29
관람객 수		166,290	496,918	211,697	246,001	222,416	47,897	71,522

* 1979년 5월 동숭동 '미술회관' 개관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3. 예술자료관(아르코예술기록원) 운영 :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전문아카이브

문예진흥원은 1973년 개원과 더불어 자료수집과 조사사업에 착수해 원내에 간이도서실을 설치·운영해 왔다. 동숭동 구 서울대 본부 건물로 청사를 이전(1976. 10.)하면서 도서실(59.5m², 18평)과 시청각자료실(52.9m², 16평)로 구성된 간이자료실을 확대 개설했고, 1979년 5월 21일 미술회관 준공과 함께 회관 3층에 자료관을 개관했다. 『문예진흥원 1979년』에 따르면 자료관 설치는 "문예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도서 및 각종 유인자료와 영상 및 음악자료를 수집, 제작, 정리, 보존하며, 각종 시청각 기재를 설치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가 조사·연구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서자료실 165.3m²(50평), 시청각자료실 152.1m²(46평) 규모로 개관한 당시(1979. 10.)의 보유자료 현황을 보면 단행본



초창기 예술자료관 모습
1979년 5월 미술회관 개관과 함께 2층에 마련된 초기 예술자료관의 모습.
이후 1987년 2월 25일 문화발전연구소 개소와 함께 덕수궁 석조전으로 자료관을 확대 이전하였으며,
1993년 2월 15일 예술의전당 자료관과 통합하여 예술의전당 내에 문예진흥원 예술자료관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6,000권, 연속간행물 300종(국내 200종, 해외 100종), 시청각 자료로 16mm Film 110종, Video Tape 74종, Audio Tape 134종, Record 1,461종, Slide 55종, 기타 국내외 문화예술인·단체·문예행사 자료 8,719점이었다.

이후 1987년 2월 25일에는 덕수궁에 산하 문화발전연구소를 개소하면서 자료관을 확대 이전했다. 문화발전연구소 내 자료관은 도서실, 시청각실, 전산실, 사진실, 영상·음악감상실로 구분돼 있었다. 1993년 2월 15일 문예진흥원 자료관과 예술의전당 자료관이 통합하여 예술의전당 자료관 전용공간이 문예진흥원 예술자료관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 단행본·연속간행물·논문 등의 도서 자료와 공연 팸플릿·포스터·대본·사진 및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비도서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해 왔다. 특히 다수의 연극 대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기록해 온 민속·연극·무용 공연과 원로 문화예술인 구술사 채록사업 결과물은 문예사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예술자료 DB 사업과 함께 일반인 대상의 영상·음악 감상회와 강좌사업 등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70년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공연장과 미술관 등 문예진흥 핵심시설을 건립, 운영한 것은 문화정책사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생국가나 경제후진국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의 부가 축적되고 개인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문화시설 건립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1966년부터 1968년 3개년계획으로 서울 용산구 응봉공원 20만 평 대지에 10개 시설로 구성된 2만 평 규모의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국립극장 등 일부 시설만 건립되고 끝난 이유도 당시 문화행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결국 사업 재원 부족에 기인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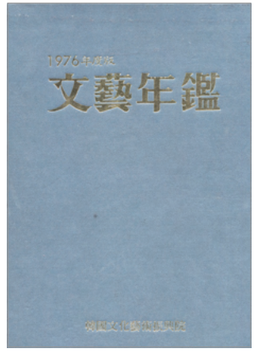
문예진흥원이 설립되던 1970년대는 여러 차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리에 진행되며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었으나 여전히 경제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하드웨어 건설에는 국가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았다. 당시의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문화공간의 실태는 21세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의 설계로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을 둘러싸고 건립된 미술회관(1979)과 문예회관(1981) 건립 및 개관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발전에 있어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창작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술인과 공연예술인의 창작·발표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였고, 일반시민에게는 수준 높은 전시·공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1992년 무대연수회관 건립 되면서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관련 연수 및 워크숍, 무대디자인·조명·음향 등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국내 유일한 무대 스태프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공연예술 발전과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조사발간 사업 : 『문예연감』과 『문화예술』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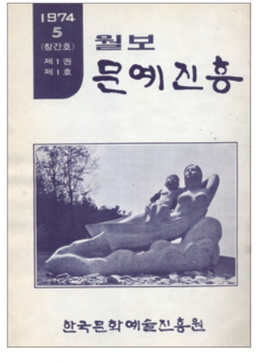
문예진흥원은 1973년 출범 이래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사업을 직접 기획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 장르별 연간 활동 실태조사·기록 및 분석은 가장 오래 지속해 온 작업이다.





문예총감(좌)
1976년 10월에 발간한 『문예총감』.
개화기부터 1975년까지 10개 분야별 문화예술 발전상을 종합 집대성하였다.

문예연감(우)
1976년 창간 이래 계속 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문화예술사료집.
매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문화예술 각 분야 활동 실태를 조사, 수록하고 있다.
사진은 1976년 창간호 표지.



문화예술지
1974년 5월 월보 『문예진흥』이라는 제호로 창간한
『문화예술』지는 문화예술 분야 최장수 종합전문지로,
통권 330호인 2008년 가을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했다.
사진은 창간호 『문예진흥』 표지.

장르별 연간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계 분석 자료가 합리적인 지원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조사·분석의 결과는 매년 『문예연감』에 수록해 왔는데, '국내 연극공연장 실태조사', '국내 연극공연 실태', '주요 전시회 실태', '국제교류 현황', '주요 박물관 실태' 등이 1970년대의 초창기 『문예연감』에 실렸던 내용이다. 1976년에 첫 호를 낸 『문예연감』은 2023년에 통권 47호를 발간하였다. 『문예연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국악, 양악) 및 북한문화에 대해 연간 활동 실태를 조사·기록하고 분석하는데,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문화예술 활동의 기록·보존이라는 기능 외에 다년간 추세 분석 시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문예연감』은 1976년 창간 이래 매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문화예술 각 분야 활동의 총량을 수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종합 문화예술사료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6년 10월에는 개화기부터 1975년까지 10개 분야별 문화예술 발전상을 종합 집대성한 『문예총감』을 발간한 데 이어, 1981년 1월에는 고대에서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의 역사를 종합 정리한 『문예연표』를 발간했다. 이 밖에도 1970~1980년대에 『각국의 문화정책』(14책), 『문화예술총서』(14권), 『공연예술총서』(8권), 『한국의 문화공간』(4권) 등 발간사업이 이어졌다.

문예진흥원 연속발간물로는 월간 『문화예술』이 있다. 1974년 월보 『문예진흥』이라는 제호로 창간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분야 최장수 종합전문지였다. 문화예술계 현안 쟁점을 비중 있게 다뤘고 문화예술계 인사 인터뷰, 해외 및 지역 문화예술계 소식과 리뷰, 각종 문화정책 기초자료, 통계 및 조사·분석 자료 등을 게재했다. 『문화예술』은 2006년 5월호 이후 계간지로 바뀌었고, 통권 330호인 2008년 가을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했다. 한편, 2006년 1월 격주간 온라인 소식지 《웹진 아르코》를 창간하여 『문화예술』의 역할을 온라인으로 이어오다 2022년 말부터는 웹진 《A Square(에이 스퀘어)》(www.arko.or.kr/asquare)로 전환해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1974년 창간 이후 각종 예술정보의 수록과 한국 예술사의 현안을 다루는 예술 리뷰, 문화정책 자료의 수록, 시의적절한 기획 기사, 해외문화정보의 신속한 소개 등을 통해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 전문지로서 문화예술인과 문화 관계 종사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PART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史

1980년대,

4. 문화시설 확충과 예술창작 지원의 확대

1. 198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2.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3. 1980년대 예술창작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4. 1980년대 문화향수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5. 198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6. 198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7. 1980년대 문화시설 운영 및 발간사업의 추진과 성과

1. 198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1980년대는 제4공화국 이후 과도정부와 제5공화국 7년, 그리고 제6공화국 전반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우리 현대사에서 정치적 격변이 극심했던 시기이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마지막 절정을 보이던 시기이다. 한편,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는 문화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문화정책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제5공화국에서는 '문화정책'을 국가 정책의 한 부분으로 구체화하였고, 특히 제6공화국에서는 정부 부처에 '문화부'를 신설(1990)하고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까지 수립하였다. 1980년대의 문화정책은 국가 발전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5공화국의 경우 국풍 '81이나 프로야구 출범(1982)과 같은 3S 정책으로 정권의 태생적 취약점을 벗어나 보고자 문화를 활용하였으나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결국 민주화의 흐름과 연계된 민중문화운동이 정부 문화정책과 궤를 달리하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 1980년대이기도 하다.

1.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

제5공화국(1981~1987)은 헌법 제8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



放送廣告公社 공익자금
25億 문예진흥基金출연 李文公

李振鎬문공부장관이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중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첫 출연되는 25억원을 宋志英문예진흥원장에게 전달하고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 출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대행 수수료로 조성된 공익자금이 1983년부터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되기 시작하였다. 공익자금은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수입내역 중 51.4%에 달하며, 문예진흥기금 조성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3. 12. 27. 경향신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문화창달 의무를 새로이 명기하고, 국정 지도 이념으로 '선진조국의 창조'를,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제시하여 정책 의지를 밝혔다. 제5공화국 출범 초기인 1981년 정부 차원에서 〈80년대 새 문화정책〉이라는 중기 문화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정부 계획으로 수용되지 못하였고, 1985년에 수립된 〈문화발전 장기 정책 구상(1986~2000)〉의 일부가 1986년에 수립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에 수용되면서 국가 문화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제5공화국 시기 문화정책의 특징은 문화 예산의 확대와 전국적인 문화시설 조성이다. 제5공화국 7년 동안 문화 분야 예산이 3.3배로 증가하였고, 문화공보부 전체 예산 중 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63.5%로 공보 분야 예산의 1.7배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정부 재정 및 문예진흥기금뿐 아니라 공익자금(1983~1992, 총 1,472억 700만 원 출연, 현 방송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지역문예진흥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했다.[1]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확대는 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 및 전국적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제5공화국에서는 1970년대에 이어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재 보수 정비 및 국학 진흥에도 큰 예산을 투입했다.

1. 1984년부터 1987년까지 4년 동안 13개 시도에 174억 8,458만 3천 원의 지역문예진흥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41.9%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액이다.

[표 4-1] 1981년도 및 1987년도 부문별 문화공보부 예산액 및 문화 부문 예산 비율 (단위 : 백만 원, %)

연도	정부 세출 예산	문화공보부 예산 합계(C+D)	문화 부문 예산			공보 부문 예산(D)
			문화예술(A)	문화재(B)	소계(C=A+B)	
1981	7,851,125	31,363	7,285	6,999	14,284 (0.18)	17,079
1987	16,059,629	68,838	27,155	20,268	47,423 (0.30)	21,415

( ) 안은 정부 세출예산에 대한 백분율
자료 : 「1981-88 예산개요」(경제기획원)에서 발췌

제5공화국 문화정책의 특징이자 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전국적인 문화시설 조성이다. 대폭 확충된 문화 재원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의 대규모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경복궁·경희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5대 궁(宮)이 개·보수되었다. 또한 각 시도에도 종합문예회관, 특장문화시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지역문화진흥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 공사가 단기간에 걸쳐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진행된 결과로 독립기념관 본관 화재,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고, 부실 공사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 또한 지방문화시설 조성에 뒤따라야 할 운영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의 지원이 결핍되어 문화계 내외로부터 '빈 깡통 문화행정'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폭압적인 정치와 관 주도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갔던 제5공화국 정권은 문화 분야에서는 자율성 제고를 내세우면서 이에 상응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주관하던 대한민국 연극제·무용제·


文化시설 建築바람
예술의 殿堂 건립 昌慶宮 복원
국립國樂堂·현대美術館 착공
文公部 올해 10개 工事계획

지역문화시설 확충 지원
1980년대부터 지역의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문화시설 개·보수에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 107개소의 종합문예회관 지원에 약 850억 원이 투자되었다.
(1983. 1. 25. 동아일보)

국악제 등 이른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전(前) 단계로 반관반민단체인 문예진흥원에 이관했고, 국가와 지방 문화기관의 장을 상당 부분 문화예술계 인사로 대체 임명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방의 문화 활동과 행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시도 종합예술제, 지방미술대전, 연극경연대회, 향토축제, 지방문화제 등이 중점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 창단과 서울공연이 적극 권장되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악제·연극제·무용제 등 전국 규모 행사의 지방개최 내지 지방순회와 국립예술단체의 지방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 제6공화국 전반기의 문화정책

1988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으로 출범한 제6공화국에서는 1990년 문화부 출범 전까지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을 큰 변화 없이 승계하여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제5공화국에서 수립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의 문화 부문 계획을 별다른 기조 변화 없이 추진해 나갔다.

제6공화국의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는 88서울올림픽 개최였다.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세계화 흐름을 가져오는 발판 기능을 하였다. 또한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대공산권 화해협력 정책인 '북방정책'이 적극 추진되어 문화 분야에서도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문화정책이 등장하였다.

제6공화국 전반기 문화정책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북방문화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의


'88文化祝典
헝가리 기차로 발레단 공연
세계 연극제 최우수 재작상 受賞 경력
이반 마르코 단장으로 갖추는 출 8명 수주
9월 17-18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하루만 머물

88올림픽 문화예술축전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50일간에 걸쳐 개최된 88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은 대공산권 화해정책에 부응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문화예술계의 대거 참여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사는 헝가리 기외르발레의 공연 소개로, 1988년 9월 17~18일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문예진흥원 주최로 공연을 개최하였다는 내용이다.(1988. 8. 6. 매일경제)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하여 민족의 통일을 위한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일문화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통일문화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통일문화 기반자료 조사연구 및 개방 조치가 이루어지고[2] 통일을 기원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서울과 평양·미국·일본·중국·소련(당시) 등지에서 민간 주도의 남북문화교류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문화교류사업을 기반으로 남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기본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체결 등이 성사되었다.

또한 제6공화국 전반기에는 국제문화교류의 양적인 확대와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미(未)수교국까지 참가한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행사(73개국 참여)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가 증대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 1990년대 본격적인 국제문화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2. 예를 들면, 미(未)수교국 예술 작품 국내 개방 지침 발표(1988. 6.), 납·월북작가 해방 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1988. 7.),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확대(1988. 9.), 납·월북예술가의 음악·미술작품 해제(1988. 10.), 북한 미술품 및 서적 수입(1989. 1.)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2.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文藝振興 企業참여時代
基金 첫기탁 藝術활동活性化 예고
演劇·舞踊祭상금 크게 인상
大賞500萬원·지원금 250萬원
"이젠 기업利潤 사회환원할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1980년대 중반부터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관심이 싹트고, 이것이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문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기사는 최초의 기업기부금 기탁에 관한 소식. (1983. 3. 24. 경향신문)

1970년대에 시작된 공적 지원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은 1980년대 들어 기금 조성액 증가와 함께 지원 분야가 체계화되는 등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기에는 국제 체육행사 개최와 민주화의 열기가 어우러지면서 문화 분야의 전반적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장르별 예술창작 지원제도 구축, 주요 국가 예술행사의 민간 자율화,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 문화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국적인 문화시설 확충, 지역문화 활성화, 국제문화교류의 발판 마련 등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정부 재정 및 문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공익자금, 기업의 지원금에 이르기까지 문화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문예진흥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는 등 재정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80년대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 현황을 보면, 총 조성액은 1,852억 원이며, 연평균 185.2억 원이었다. 연도별 조성액을 보면 1980년 47.5억 원에서 1989년 593.2억 원으로 12배가 넘는 증가가 이루어졌다. 재원별로는 출연금(공익자금이나 올림픽 잉여금 등)이 1,052.1억 원으로 전체 조성액의 56.8%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문예진흥기금 모금액이 610.2억 원으로 전체 조성액의 33.0%를 차지하였다. 그 외 이자수입이 140.6억 원으로 7.6%나 되었고, 기부금 11.8억 원, 임대수입 11억 원이었다. 모금수입의 세부 내역을 보면 공연장 모금액이 5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궁 12.6억 원, 사적지 10.6억 원, 박물관 3.9억 원 등이었다.

문예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1970년대 256억 원, 1980년대 1,852억 원으로 1989년까지의 누적 조성액은 2,108억 원이었다. 연평균 조성액을 보면 1970년대는 36.6억 원인데 비해 1980년대에는

[표 4-2]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모금수입	공연장	4,087,876	4,014,644	4,546,027	5,091,150	5,117,594	5,698,360	6,573,151	7,311,704	8,494,695	7,075,797	58,010,998
	고궁	111,826	162,944	196,726	152,143	82,109	96,177	127,823	119,116	121,176	93,046	1,263,086
	박물관	7,484	7,398	9,740	6,682	11,093	11,875	48,795	99,158	97,073	90,921	390,219
	능	-	-	-	9,274	20,721	28,006	30,149	28,267	28,329	25,920	170,666
	사적지	-	-	-	43,786	140,589	144,257	129,121	183,890	200,737	215,183	1,057,563
	미술관	-	-	-	10,612	17,060	12,678	20,375	22,309	22,142	20,680	125,856
	소계	4,207,186	4,184,986	4,752,493	5,313,647	5,389,166	5,991,353	6,929,414	7,764,444	8,964,152	7,521,547	61,018,388
이자수입		421,793	409,573	433,611	555,944	536,128	1,133,101	2,674,637	1,235,501	2,544,102	4,113,906	14,058,296
임대수입		45,292	73,599	89,326	99,851	102,536	123,132	131,094	141,221	148,508	149,200	1,103,759
잡수입		11,826	24,584	19,216	11,562	78,562	29,568	24,575	114,715	132,780	262,520	709,908
기부금		8,000	560,100	48,000	100,000	100,000	200,000	1,500	2,000	8,000	152,000	1,179,600
출연금	공익자금	-	-	-	2,500,000	6,600,000	9,300,000	9,607,000	12,385,000	17,825,000	36,990,000	95,207,000
	정부출연금	-	-	-	-	-	-	-	-	-	-	-
	올림픽잉여금	-	-	-	-	-	-	-	-	-	10,000,000	10,000,000
	소계	-	-	-	2,500,000	6,600,000	9,300,000	9,607,000	12,385,000	17,825,000	46,990,000	105,207,000
사업수입		52,884	84,393	84,878	93,759	110,039	129,082	90,467	63,952	683,466	33,416	1,426,336
융자금 회수		-	18,414	45,229	33,066	22,807	18,907	59,889	51,761	149,264	92,978	492,315
합계		4,746,981	5,355,649	5,472,753	8,707,829	12,939,238	16,925,143	19,518,576	21,758,594	30,455,272	59,315,567	185,195,60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185.2억 원으로 5배가 넘었다. 재원별로 보면 1980년대 들어 공익자금 등의 출연금이 대폭 증액되어 기금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고, 1989년에 올림픽 잉여금 100억 원이 문예진흥기금에 출연되었던 부분은 특기할 만하다.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문화예술진흥 지원 현황을 보면 예술창작, 문화향수,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등 네 개 분야에 총 707.1억 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문화시설 확충 관련 지원이 포함된 지역문화 지원이 402.5억 원(56.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영화진흥 지원이 포함된 예술창작 지원에 262.7억 원(37.2%), 문화향수에 22.7억 원(전체의 3.2%), 국제문화교류에 19.2억 원(전체의 2.7%)이 지원되었다. 1980년대에는 문화시설 건립과 예술창작 지원에 기금 지출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3]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문예진흥기금 조성 현황 비교 (단위 : 천 원)

구분		1973~1979	1980~1989	계(누적 조성액)
모금수입	공연장	12,340,860	58,010,998	70,351,858
	고궁	11,928,761	1,263,086	13,191,847
	박물관	388,292	390,219	778,511
	능	30,885	170,666	201,551
	사적지	-	1,057,563	1,057,563
	미술관	-	125,856	125,856
	소계	24,688,798	61,018,388	85,707,186
이자수입		730,655	14,058,296	13,523,974
임대수입		134,143	1,103,759	1,029,705
잡수입		6,444	709,908	660,726
기부금		20,200	1,179,600	583,700
출연금	공익자금	-	95,207,000	95,207,000
	정부출연금	5,000	0	5,000
	올림픽잉여금	-	10,000,000	10,000,000
	소계	5,000	105,207,000	105,212,000
사업수입		19,502	1,426,336	1,445,838
융자금 회수		-	492,315	492,315
합계		25,604,742	185,195,602	208,655,444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4-4]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예술창작 지원	금액	1,245,949	1,343,142	1,138,124	1,476,520	1,343,907	1,843,243	3,992,877	3,079,374	5,470,251	5,336,189	26,269,576
	건수	352	394	454	399	394	394	390	245	325	383	3,730
문화향수 지원	금액	-	-	-	150	333,795	446,364	384,052	401,276	347,782	358,667	2,272,086
	건수	-	-	-	-	-	-	-	-	-	-	-
지역문화 지원	금액	273,000	250,670	230,700	276,478	4,961,570	4,950,463	6,525,924	6,561,944	3,976,276	12,246,421	40,253,446
	건수	146	148	169	189	216	230	237	246	252	95	1,928
국제문화 교류 지원	금액	65,008	478,014	104,641	135,241	97,536	154,019	156,414	202,391	170,643	355,015	1,918,922
	건수	-	-	-	-	-	-	-	-	-	-	-
합계	금액	1,583,957	2,071,826	1,473,465	1,888,389	6,736,808	7,394,089	11,059,267	10,244,985	9,964,952	18,296,292	70,714,030
	건수	498	542	623	588	610	624	627	491	577	478	5,658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3. 1980년대 예술창작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198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1970년대에 이어 장르별 지원체계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문학, 미술,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예 일반(영화 포함) 등 5개 분야 지원체계가 정착되었으며, 지원금 규모에서도 1970년대 41.5억 원에서 1980년대 262.7억 원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루어져 예술창작 지원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역할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연평균 지원액으로 보면, 1970년대 6.9억 원에서 1980년대 26.3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원 건수는 1970년대 1,293건에서 1980년대 3,73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건당 지원액 규모도 1970년대 321.3만 원에서 1980년대 704.3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분야별로는 영화진흥 지원이 포함된 문화예술 일반 분야가 143.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음악·연극·무용이 포함된 공연예술 분야 51.1억 원, 문학 분야 46.7억 원, 미술 분야 12.9억 원, 전통예술 분야 8.5억 원의 순서였다.

지원액의 증가와 장르별 지원체계의 정착 외에 198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4-5] 198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문학	금액	207,162	214,130	245,574	276,306	329,298	545,789	640,659	758,582	762,914	686,184	4,666,598
	건수	102	123	129	77	96	101	103	97	161	182	1,171
미술	금액	92,859	111,001	101,819	112,787	125,601	151,459	150,603	134,142	148,421	157,616	1,286,308
	건수	12	11	14	12	15	18	17	19	28	46	192
공연예술	금액	164,233	190,191	268,420	300,784	349,710	621,536	1,124,099	415,017	1,198,074	475,791	5,107,855
	건수	28	29	40	38	36	43	45	50	61	70	440
전통예술	금액	48,694	108,420	117,943	69,783	63,532	59,528	124,561	59,800	93,646	104,589	850,496
	건수	36	45	56	31	11	14	16	21	20	23	273
문화예술 일반	금액	733,001	719,400	404,368	716,860	475,766	464,931	1,952,955	1,711,833	3,267,196	3,912,009	14,358,319
	건수	174	186	215	241	236	218	209	58	55	62	1,654
합계	금액	1,245,949	1,343,142	1,138,124	1,476,520	1,343,907	1,843,243	3,992,877	3,079,374	5,470,251	5,336,189	26,269,576
	건수	352	394	454	399	394	394	390	245	325	383	3,730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첫째, 지원액을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 행사지원이 1980년대 예술창작 지원의 주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건축대전, 대한민국사진전람회, 대한민국음악제, 서울음악제, 서울연극제, 대한민국무용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한민국국악제 등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장르별 행사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 자리를 잡아나간 시기이다.

둘째, 1960~70년대에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던 주요 행사가 1980년대에는 문예진흥원, 나아가 민간 단체로 이관되는 등 주요 행사의 민간 자율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관제 행사의 성격이 강했다면 1980년대 들어서는 순수 민간 행사로 전환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단 행사명이 '서울'이라는 지리적 명칭으로 바뀐다든지, 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 등 관직에 따른 시상제도를 대상·연기상·연출상 등으로 일반화된 시상제도로 전환되었다.

셋째, 1980년대 후반 영화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한국영화 르네상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문화산업 영역이 지원 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 이전 시기라는 점, 영화 입장료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이루어졌던 사정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관련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축전이 특별행사로 개최되어 문화예술 분야 국제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세계의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과의 교류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 세계화의 계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문학 분야

1980년대 문학 분야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문학상〉, 〈문예지 원고료 지원〉, 〈문예지 발간비 지원〉, 〈문학작품집 발간 지원〉, 〈동인지 발간 지원〉, 〈우수문학작품집 구입 지원〉, 〈문학 조사연구 지원〉 등이다. 대부분 1970년대에서 이어진 사업이며, 그 가운데 〈우수문학작품집 구입 지원〉은 1983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고 〈문예지 발간 지원〉은 1989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다. 1980년대 문학 분야 지원사업은 1970년대 사업을 지속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학 분야 지원사업의 규모를 보면, 10년 동안 7개 사업에 총 46억여 원이 지원되었다. 지원 건수는 1,171건으로 건당 지원액은 399만 원이었다. 1980년대 문학 분야 연평균 지원액 규모는 4.6억 원으로 8개 사업이 운영되던 1979년 2.3억 원의 2배에 이른다. 사업별로는 〈문예지 원고료 지원〉이



동인지 발간지원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사업 시작 연도인 1979년 14개지 지원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지원 대상이 100여 개로 증가하였다.
(1980. 5. 22. 경향신문)

[표 4-6] 1980년대 문학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대한민국 문학상	금액	13,129	17,377	22,305	23,182	24,463	23,413	25,647	29,698	37,977	40,193	257,384
	건수	1	1	1	1	1	1	1	1	1	1	10
문예지 원고료 지원	금액	109,524	109,293	128,725	186,924	218,635	422,276	520,912	634,384	599,937	537,191	3,467,801
	건수	7	7	9	9	10	12	14	14	15	21	118
문예지 발간비 지원	금액	36,000	36,000	36,000	29,200	19,200	31,200	44,400	44,400	44,400	-	320,800
	건수	7	7	7	7	1	2	2	2	2	-	37
문학작품집 발간 지원	금액	10,300	11,700	16,400	-	7,000	4,000	5,000	5,000	9,000	17,900	86,300
	건수	27	31	40	-	14	8	10	10	18	33	191
동인지 발간 지원	금액	9,500	19,500	20,000	22,500	21,500	24,500	23,500	24,500	48,000	69,300	282,800
	건수	19	39	40	45	43	49	47	49	96	100	527
우수문학작품집 구입 지원	금액	17,110	8,418	7,644	-	-	-	-	-	-	-	33,172
	건수	32	29	21	-	-	-	-	-	-	-	82
문학 조사연구 지원	금액	11,599	11,842	14,500	14,500	37,500	40,400	21,200	20,600	23,600	21,600	217,341
	건수	9	9	11	15	27	29	29	21	29	27	206
합계	금액	207,162	214,130	245,574	276,306	329,298	545,789	640,659	758,582	762,914	686,184	4,666,598
	건수	102	123	129	77	96	101	103	97	161	182	1,171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문예지 원고료 지원
문예지 원고료 지원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1989. 3. 14. 동아일보)

34.6억여 원으로 전체 문학 분야 지원액의 74.3%에 이르렀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의 건당 지원액도 2,900여만 원으로 평균 지원 규모의 7배를 넘었다.

1980년대 문학 분야 기금 지원사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문예지 원고료 지원〉(1974~1989, 총 166건, 38억 4,374만 6천 원)이다. 이 사업은 1980년대 문인 대상 창작진흥 지원사업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문예지 게재 작품에 대한 원고료 지원을 통해 열악한 문예지 출판을 돕고, 동시에 문인의 원고료 수입도 증대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의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원사업은 잡지사의 기금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자립 기반의 약화, 문예지 지원 형평성 문제, 지역문예지 소외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1990년부터 중단되었다. 또한 1980년대 문학 지원에서는 〈문예지 발간비 지원〉과 〈동인지 발간 지원〉 등 문예지 지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구체적 지원 내용을 보면 〈문예지 원고료 지원〉 대상이 된 문예지는 1980년 7종에서 1989년 21종으로 늘어났는데, 이 기간 한 번 이상 지원 받은 문예지는 『현대문학』, 『한국문학』, 『문학사상』, 『월간문학』, 『심상』, 『시문학』, 『현대시학』, 『아동문학』, 『시조문학』, 『소설문학』(1987년 폐간), 『동서문학』, 『문학정신』, 『예술계』, 『소설문예』, 『문학과 비평』, 『문학과 사회』, 『세계의 문화』, 『문예중앙』,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 『시와 의식』, 『현대시조』 등 22종이었다. 〈동인지 발간 지원〉은 1980년 19종에서 1989년 100종으로 5배 정도로 늘어났으며, 〈문예지 발간 지원〉은 1980년 7종에서 1988년 2종으로 축소되어 1989년에는 지원이 중단되었다. 〈동인지 발간 지원〉의 건당 지원 금액은 50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지만 지역 동인지 지원의 비중이 높아서 지역문화 진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문학작품집 발간 지원〉은 지원 규모는 작지만, 개인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1988년부터는 〈문인창작집 발간 지원〉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발간된 성과물이 주로 시집과 수필집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약점을 보였다.

〈문학 조사연구 지원〉은 1974년 〈문학단체 활동 지원〉이란 사업명으로 시작되어 문학단체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문학 발전의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한 지원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은 문학단체의 정기적인 세미나, 연구발표회 및 연간 작품집 발간, 시 낭독회, 기관지 발간 등 다양하다. 〈문학 조사연구 지원〉은 1980년 9건이던 지원 실적이 1984년 27건으로 늘어난 뒤, 1989년까지는 27~29건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한민국 문학상〉은 1970년대 시행되던 몇 개의 문학상을 통합하여 1980년부터 재출발한 시상제도이다. 1981년 신인 부문을 신설하였고, 1983년부터 흙, 자유, 아동, 신인 부문을 일반, 아동, 신인 부문으로 조정하며 번역 부문을 증설하였다. 1987년에는 평론 부문이 신설되어 이후 일반, 평론, 아동문학, 번역, 신진 5개 부문으로 정리된다. 1980년대의 본상 수상자는 일반 부문에서 구상(시, 1980)·한승원(소설, 1982)·황순원(소설, 1983)·서정주(시, 1984)·한무숙(소설, 1986)·

차범석(희곡, 1987)·김춘수(시, 1988)·이호철(소설, 1989), 아동 부문에서 이원수(1980)·윤석중(1982)·이주홍(1984)·이준연(1985)·어효선(1986)·김요섭(1987)·박경종(1988)·윤사섭(1989), 평론 부문에서 김윤식(1987)·유종호(1988), 번역 부문에서 조화선(1988)·Keven O'Rourke(1989) 등이었다.

2. 시각예술 분야

1970년대 〈미술 전시활동 지원〉, 〈미술 전문지 발간 지원〉, 〈미술 자료집 발간 지원〉에 제한되어 있던 미술 분야 지원사업은 1980년대 들어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한 대규모 전시회 개최 사업과 〈미술 조사연구 지원〉, 〈한국미술 소개 작품집 해외 배포〉 등으로 다양화된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시행된 미술 분야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미술대전 지방전시〉,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한민국 공예대전〉, 〈대한민국 서예대전〉,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미술 전시활동 지원〉, 〈미술 조사연구 지원〉, 〈한국미술 소개작품집 해외 배포〉, 〈미술 전문지 발간 지원〉, 〈미술 자료집 발간 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미술 전시활동 지원〉, 〈미술 전문지 발간 지원〉, 〈미술 자료집 발간 지원〉 등 3개 사업은 1970년대부터 계속되었고, 〈대한민국 공예대전〉, 〈대한민국 서예대전〉, 〈미술 조사연구 지원〉, 〈한국미술 소개작품집 해외 배포〉 등 4개 사업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사업이다.[3]

1980년대 미술 분야 지원사업의 규모는 12.9억 원으로 1970년대의 0.6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다. 지원액의 규모로 본다면 미술 분야 지원사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 분야 지원사업은 1980년 4개 사업, 0.9억 원에서 1989년에는 10개 사업, 1.6억 원으로 늘어났다. 사업별 지원액을 보면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7억여 원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였다. 〈미술대전 지방전시〉의 1.2억 원을 더하면 〈대한민국 미술대전〉 관련 지원액은 8.2억여 원으로 늘어나 전체의 63.6%를 차지한다. 1980년대 미술 분야 지원은 대규모 미술 행사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그 외 미술회관 운영도 미술 분야의 주요 사업이나 본 장 제7절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1980년대 미술 지원사업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1970년대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약칭 국전)가 1980년 제29회 행사부터 문예진흥원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고, 1982년부터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명칭까지 바뀌면서 민간 행사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1986년부터 순수 민간 단체인 한국미술협회로 이관하여 완전한 민간 행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민간 단체가 행사를 운영하고, 문예진흥원은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는 제5공화국 문화정책에서 강조되었던 민간 부문의 자율성 강화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4-7] 1980년대 미술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대한민국 미술대전	금액	73,659	74,801	62,063	82,986	92,400	106,194	51,800	59,000	53,000	46,000	701,903
	건수	2	2	2	2	2	2	1	1	1	1	16
미술대전 지방전시	금액	-	-	17,310	13,601	14,901	18,295	25,200	12,274	14,189	-	115,770
	건수	-	-	2	2	2	2	3	2	3	-	16
대한민국 건축대전	금액	-	-	5,523	6,000	6,000	6,000	6,000	9,000	12,000	9,000	59,523
	건수	-	-	1	1	1	1	1	1	1	1	8
대한민국 공예대전	금액	-	-	-	-	-	-	28,603	17,000	17,000	29,750	92,353
	건수	-	-	-	-	-	-	1	1	1	1	4
대한민국 서예대전	금액	-	-	-	-	-	-	-	-	-	3,000	3,000
	건수	-	-	-	-	-	-	-	-	-	1	1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금액	-	-	5,523	6,000	6,000	5,970	9,000	12,000	12,000	9,000	65,493
	건수	-	-	1	1	1	1	1	1	1	1	8
미술 전시활동 지원	금액	4,900	24,200	4,200	4,200	6,300	10,000	10,000	10,000	19,000	35,800	128,600
	건수	7	7	7	6	9	11	9	10	19	37	122
미술 조사연구 지원	금액	-	-	-	-	-	-	-	-	-	1,866	1,866
	건수	-	-	-	-	-	-	-	-	-	1	1
한국미술 소개 작품집 해외 배포	금액	-	-	-	-	-	-	10,000	4,934	7,616	7,600	30,150
	건수	-	-	-	-	-	-	-	-	-	-	-
미술 전문지 발간 지원	금액	7,200	7,200	7,200	-	-	-	-	5,000	6,000	8,000	40,600
	건수	1	1	1	-	-	-	-	2	1	2	8
미술 자료집 발간 지원	금액	7,100	4,800	-	-	-	5,000	10,000	4,934	7,616	7,600	47,050
	건수	2	1	-	-	-	1	1	1	1	1	8
합계	금액	92,859	111,001	101,819	112,787	125,601	151,459	150,603	134,142	148,421	157,616	1,286,308
	건수	12	11	14	12	15	18	17	19	28	46	19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1980년대 미술 분야 지원사업 가운데 주요 사업은 미술 분야 중 가장 오래된 〈미술 전시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지원액 규모가 가장 큰 〈대한민국 미술대전〉,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함께 건축·공예·사진·서예 등 4대 미술대전 등이다.

〈미술 전시활동 지원〉은 1974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는 미술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주로 미술 분야 단체 및 그룹의 전시회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르별·경향별 균형 발전과 미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1980년대에는 122건에 1억 2,860만 원이 지원되어 건당 지원액은 100만 원 정도였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 1949년 당시 문교부 창설·운영)의 후신이다. 1980년 제29회부터 문화공보부에서 문예진흥원으로 이관되어 1981년까지 국전으로 운영되다가 1982년 국전이 해체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란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80년 문예진흥원 이관 원년에는 정부 명칭의 상이 폐지되고 부문별 대상제가 도입되었다. 종래의 국전이 시상과 작품매입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에 비하여,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작품매입을 상금으로 설정하여 일원화하고 부문별로 대상 1명, 우수상 1명, 그리고 특선작과 입선작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운영 주체와 지원 방식의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1986년부터 운영 주체가 다시 순수 민간 단체인 한국미술협회로 이관되어 '민전'으로 탈바꿈되었다.

한편 1982년부터는 〈미술대전 지방전시〉가 계속되었다(1989년 제외). 1982년 전북·대구, 1983년 부산·남도, 1984년 춘천·광주, 1985년 대전·경주, 1986년 청주·대전·전주, 1987년 부산·대전, 1988년 춘천·광주·대구에서 순회전이 있었으며, 지원액은 1억 1,500여만 원이었다.

1982년 '국전'을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바꾸면서 행사의 부문도 세분되었다. 이 과정에서 따로 독립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 한국건축가협회 주최의 〈대한민국건축대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의 〈대한민국사진전람회〉다. 또한 1986년부터는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미술협회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운영권이 이관되었는데, 이때부터 공예 분야는 한국미술협회 주최 〈대한민국 공예대전〉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1989년부터 서예 분야가 한국미술협회 주최 〈대한민국 서예대전〉으로 개최되었다.

이리하여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한 5대 신인공모전 미술행사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으로 민간 단체에 의해 개최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1989년 한 해에 5대 행사에만 1억 원 가까이 지원되었다.

그 외 미술 분야 지원사업으로는 1974년에 시작되었던 〈미술 전문지 발간 지원〉에는 1984년에서 1986년까지 3년간을 제외한 7년 동안 8건에 4,000여만 원이 지원되었고, 〈미술 자료집 발간 지원〉에는 1982년에서 1984년까지 3년간을 제외한 7년 동안 8건에 4,700여만 원이 지원되었다. 1973년부터 계속되었던 〈민족기록화 제작 지원〉은 1980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미술 조사연구 지원〉은 1989년에 새로 시작되었다. 〈미술 조사연구 지원〉은 미술단체의 연구 발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미술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1989년에 186만여 원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미술 평론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다.

3. 공연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 지원은 음악, 연극, 무용 등 장르별 지원사업과 공연예술 분야 통합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연예술 장르를 묶어 하나의 단위 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제한 사업이 등장한 것은 1985년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사업부터이다. 따라서 1980년대 공연예술 분야 지원사업은 음악, 연극, 무용, (통합)공연예술 4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1980년대 공연예술 분야 지원사업에서는 4개 분야 440건에 51.1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6년간) 3개 분야 192건, 6.4억 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셈이다. 연평균 지원 규모는 1970년대가 1억 원 정도인 데 비해 1980년대는 5억 원 남짓으로 그 5배에 이른다. 전·후반기로 세분화해 보면, 1980년대 전반기(1980~1984)에는 연평균 지원액이 2.6억 원으로 상승하였다가, 후반기(1985~1989)에는 연평균 지원액이 7.7억 원으로 급상승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무용 15.8억 원, 음악 15.7억 원, 연극 15.6억 원으로 세 분야의 지원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다. 1985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통합 공연예술 분야는 4억 원으로 세 분야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았다.



대한민국음악제
1982년 제7회 〈대한민국 음악제〉에서는 '윤이상 작곡의 밤'이
1982년 9월 24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에서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다.
(1982. 9. 17. 동아일보)

음악 분야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어진 〈음악 공연 및 창작 지원〉, 〈대한민국 음악제〉(1987년부터 중단), 〈대한민국 작곡상〉 등 3개 사업과 1983년에 시작된 〈서울음악제〉, 1987년에 시작된 〈음악 연구활동 지원〉의 5개 사업에 총 15.7억여 원이 지원되었다. 사업별로는 〈대한민국 음악제〉가 12.2억 원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였고, 〈음악 공연 및 창작 지원〉은 2.3억 원, 그 외 사업은 5천만 원 내외의 소액 지원이 이루어졌다. 연극 분야에서는 〈서울연극제〉 13.6억 원, 〈연극 연구 지원〉 2.1억 원으로 〈서울연극제〉 지원액이 전체의 86.8%를 차지하였다. 무용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무용제〉에 11.8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무용 공연 지원〉에 1.3억 원, 〈무용 연구 지원〉에 2.7억 원이 지원되었다.

1980년대 공연예술 분야 지원의 특징으로는 대규모 공연행사에 지원액이 집중되었다는 점과 1980년대 후반에 장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통합형 '공연예술'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음악 분야

1980년대 공연예술 지원사업 중에서 음악 분야 지원은 주로 창작음악의 발전과 음악단체의 공연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요 사업은 크게 〈음악 공연 및 창작 지원〉, 〈대한민국 작곡상〉, 〈대한민국 음악제〉, 〈서울음악제〉, 〈음악 연구활동 지원〉 등이다.

〈음악 공연 및 창작 지원〉은 1974년 시작 이래 창작음악의 발표 기회를 증대시키고 단체의 연주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전문 연주단체의 정기·비정기 연주회, 작품 발표회, 오페라 공연, 음악행사 개최 등의 공연활동 경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는데,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39건에 2.3억여 원을 지원하여 건당 지원액은 166만 5천 원이었다(1970년대 건당 지원액 143만 4천 원).

[표 4-8] 1980년대 공연예술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음악 분야	음악공연 및 창작 지원	금액	10,100	11,000	26,100	19,100	14,300	19,000	21,000	28,000	38,000	44,950	231,550
		건수	8	8	17	15	14	14	12	15	18	18	139
	대한민국 음악제	금액	58,635	76,350	88,425	89,478	196,631	241,582	467,403	-	-	-	1,218,504
		건수	1	1	1	1	1	1	1	-	-	-	7
	대한민국 작곡상	금액	6,506	6,230	3,255	-	7,553	-	10,638	-	14,080	-	48,262
		건수	1	1	1	-	1	-	1	-	1	-	6
	서울 음악제	금액	-	-	-	5,000	5,000	5,000	7,000	7,000	10,000	12,650	51,650
		건수	-	-	-	1	1	1	1	1	1	1	7
	음악연구 활동 지원	금액	-	-	-	-	-	-	-	7,000	8,500	5,000	20,500
		건수	-	-	-	-	-	-	-	4	5	4	13
	소계	금액	75,241	93,580	117,780	113,578	223,484	265,582	506,041	42,000	70,580	62,600	1,570,466
		건수	10	10	19	17	17	16	15	20	25	23	172
연극 분야	서울 연극제	금액	25,282	31,510	60,548	80,707	78,761	129,314	165,050	174,212	489,107	121,516	1,356,007
		건수	1	1	1	1	1	1	1	1	1	1	10
	연극 연구 지원	금액	16,000	13,900	12,200	13,184	12,700	29,700	23,500	23,470	32,000	30,480	207,134
		건수	4	4	3	3	3	5	3	3	4	6	38
	소계	금액	41,282	45,410	72,748	93,891	91,461	159,014	188,550	197,682	521,107	151,996	1,563,141
		건수	5	5	4	4	4	6	4	4	5	7	48
무용 분야	무용공연 지원	금액	7,900	11,700	14,100	11,900	11,800	11,700	12,000	12,900	11,500	20,000	125,500
		건수	10	10	13	11	9	10	10	10	10	15	108
	대한민국 무용제	금액	29,610	28,301	52,592	68,215	12,765	115,740	164,908	125,235	454,487	130,695	1,182,548
		건수	1	1	1	1	1	1	1	1	1	1	10
	무용 연구 지원	금액	10,200	11,200	11,200	13,200	10,200	15,000	143,000	15,000	16,500	24,100	269,600
		건수	2	3	3	5	5	5	4	5	4	7	43
	소계	금액	47,710	51,201	77,892	93,315	34,765	142,440	319,908	153,135	482,487	174,795	1,577,648
		건수	13	14	17	17	15	16	15	16	15	23	161
통합 공연 예술 분야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금액	-	-	-	-	-	54,500	109,600	22,200	123,900	62,000	372,200
		건수	-	-	-	-	-	5	11	10	16	10	52
	소극장 우수 공연 지원	금액	-	-	-	-	-	-	-	-	-	24,400	24,400
		건수	-	-	-	-	-	-	-	-	-	7	7
	소계	금액	-	-	-	-	-	54,500	109,600	22,200	123,900	86,400	396,600
		건수	-	-	-	-	-	5	11	10	16	17	59
합계		금액	164,233	190,191	268,420	300,784	349,710	621,536	1,124,099	415,017	1,198,074	475,791	5,107,855
		건수	28	29	40	38	36	43	45	50	61	70	440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대한민국 음악제〉는 1980년 제5회 대회부터 문예진흥원으로 이관되어, 1986년까지 7년 동안 모두 12.2억 원이 지원되었다. 1986년에는 서울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KBS와 공동 주최하면서 〈서울국제음악제〉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서울국제음악제〉에는 단위사업으로는 최고액인 4.7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국제음악제로서의 행사 성격에 맞추어 동경교향악단(백건우), KBS교향악단(강동석, 정명화),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합창단, 홍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조트리오) 등이 연주자로 참가하였다. 1987년부터 〈대한민국 음악제〉는 문화예술행사의 민간 이관 방침에 따라 KBS로 이관되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었다.

1977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작곡상〉은 1981년까지는 매년 시행되었지만, 1982년부터 1991년까지는 격년제로 실시되었다. 1980년대에는 1980~1982년, 1984년, 1986년, 1988년 6회에 걸쳐 4,800여만 원이 지원되었다. 한국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서울음악제〉는 1975년부터 기금 지원을 받았으나 1977년부터 1982년까지는 지원이 중단되었고, 다시 1983년부터 매년 지원을 받아 1980년대에는 7년간 5,2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1987년에 시작된 〈음악 연구활동 지원〉은 음악단체의 각종 토론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평론도서 발간 등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음악단체의 활동 역량 강화, 음악인 상호 간의 교류나 음악향수 인구의 저변확대, 신인 음악평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단체는 한국음악협회를 비롯하여 음악펜클럽,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한국관악협회, 창우회, 한국여성작곡가협회, 20세기작곡연구회, 한국작곡가협회, 민족음악연구회, 우리가곡연구회, 한국음악사학회, 민족음악연구소, 한국전자음악협회 등이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음악 연구활동〉(세미나, 워크샵 등)과 〈음악 평론활동〉(발간사업, 평론집 등)으로 나누어 지원했는데, 3년간 13개 사업에 2,050만 원이 지원되었다.

연극 분야

1974년 창작극 지원정책으로 시작한 연극 분야 지원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1981년 12월 말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연극 자유화 붐의 영향 속에서 소극장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82년 한 해 동안 50여 개의 신생극단이 탄생하면서 기존 극단 30여 개와 합쳐 80여 개의 극단이 존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극계는 1985년 창작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모색하여, 이른바 86아시안게임과 88문화올림픽을 겨냥한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연기자 활동지원 우선해야'
공연예술의 활성화 방안 전문계주서 지의
〈최근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연기자에 활 부
동시 우선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크게 각. 〈사진은 국립극단의 「엣날엣적에 훠이훠이」
의 한장면〉

공연예술활성화 방안
1980년대 「공연법」 개정으로 신생극단이 증가함에 따라 연극계는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문예진흥원은 현장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5년부터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사업을 신설 추진하게 된다. (1985. 3. 22. 매일경제)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1985년에 신설된 사업이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사업〉이며, 이 사업은 통합 공연예술 분야에서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1980년대 연극 분야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연극 연구 지원〉과 〈서울연극제(대한민국 연극제)〉 지원을 들 수 있다.

1974년에 시작된 〈연극 연구 지원〉은 연극단체의 역량 강화와 연극인의 기량 함양을 위해 각종 연구 발표,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연수회, 토론회, 신인평론가 발굴 등 연극단체 평론행사, 평론도서 발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80년대 〈연극 연구 지원〉은 연간 2천만 원 규모로 지원되어 10년 동안 2억여 원이 지원되었다. 연간 지원액의 규모를 보면 1980년 1,600만 원에서 1989년 3,000여 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연극 연구 지원〉에서 가장 핵심 사업은 한국연극협회의 『한국연극』 발간 사업으로 1980년대 10년간 1억 3,2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연극 연구 지원〉의 63.7%에 이른다. 그 외 학술지 『한국연극학』, 서항석 전집 발간 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서울연극제〉는 1997년 〈대한민국 연극제〉로 시작되었던 행사로, 1987년 제11회 대회까지 행사명칭이 유지되었으나 1988년 〈서울연극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제적 연극제로 확대되었다. 〈서울연극제〉에 대한 지원 규모는 13.6억 원으로 전체 연극 분야 지원액 15.6억 원의 86.8%에 이른다. 연간 지원액을 보면 1980년 제4회 〈대한민국 연극제〉의 경우 2,5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점차 증액이 이루어져 1985년부터는 1억 대로 증액되었고, 1988년 〈서울연극제〉의 경우 4.9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단위 사업당 지원액으로는 1988년 〈서울연극제〉 지원액이 1980년대 예술 분야 지원액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던 1970년대와 달리 1980년부터 1982년까지 3년간은 초청 형식으로 바뀌면서 단체상이 폐지되었다. 1983년

[표 4-9] 1980년대 서울연극제 부문별 수상 내역

연도(횟수)	부문	수상자(단체 또는 대표자명 / 작품명)
1980 (4회)	연출상	이완호(제작극회 / 일어나 비추어라)
	미술상	송관우(극단 가교 / 산넘어 고개넘어)
	연기상	양재성(극단 현대 / 그대의 말일뿐), 홍여진(제작극회 / 일어나 비추어라)
	신인상	이희도(극단 민중 / 내가 말없는 방랑자), 김기섭(극단 가교 / 산넘어 고개넘어), 우상민(극단 민예 / 애오라지), 김경애(극단 원각사 / 나랑같이 먹고 살고)
1981 (5회)	작품상	극단 에저또(대표 방태수 / 농토),
	희곡상	차범석(극단 여인 / 학이여 사랑일레라)
	연출상	김기주(동랑레퍼토리 / 자 1122년)
	연기상	김종구(극단 에저또 / 농토), 황정아(극단 실험 / 들소)
	신인상	권병길(극단 자유 / 족보), 이한나(극단 사계 / 길몽)
1982 (6회)	희곡상	윤대성(극단 실험 / 신화 1900)
	연출상	임영웅(극단 산울림 / 쥬라기의 사람들)
	미술상	송관우(극단 대우 / 어떤 사람도 사라지지 않는다)
	연기상	전무송(극단 산울림 / 쥬라기의 사람들), 김복희(극단 에저또 / 농녀)
1983 (7회)	대상	극단성좌(권오일 / 적과 백)
	특별상	극단현대(김의경 / 까치교의 우화)
	희곡상	이재현(극단 성좌 / 적과 백)
	연출상	김우옥(동랑레퍼토리 / 자전거)
	미술상	신선희(동랑레퍼토리 / 자전거)
	연기상	유현목(극단 현대 / 까치교의 우화)
1984 (8회)	대상	극단 성좌(권오일 / 봄날)
	희곡상	윤조병(극단 여인 / 모닥불 아침이슬)
	연출상	권오일(극단 성좌 / 봄날)
	연기상	오승명(극단 민예 / 그 찬란하던 여름을 위하여), 심양홍(극단 여인 / 모닥불 아침이슬)
	미술상	최보경(극단 성좌 / 봄날)
1985 (9회)	대상	극단 산울림(김진찬 / 하늘만큼 먼나라)
	희곡상	윤조병(극단 여인 / 풍금소리)
	연출상	임영웅(극단 산울림 / 하늘만큼 먼나라)
	연기상	조명남(극단 산울림 / 하늘만큼 먼나라), 백성희(극단 산울림 / 하늘만큼 먼나라)
	미술상	송관우(극단 현대 /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986 (10회)	연출상	김정옥(극단 자유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연기상	조상건(극단 목화 / 태), 손숙(극단 성좌 / 초승에서 그믐까지)
	미술상	김학철(극단 목화 / 태), 홍원기(물도리동), 한명구(물도리동)
1987 (11회)	대상	극단 목화(오태석 / 부자유친)
	연출상	손진책(극단 미추 / 지킴이)
	희곡상	이현화(극단 쎄실 / 불가불가)
	음악상	정성조(극단 현대극장 / 로미오 20)
	연기상	주호성(극단 산울림 / 유토피아를 먹고 잠들다), 김민정(극단 여인 / 자유혼)
	신인상	한명구(극단 목화 / 부자유친)
1989 (13회)	대상	극단 실험(극단 실험 / 실비명)
	희곡상	이강백(극단 민중 / 칠산리)
	연출상	윤호진(극단 실험 / 실비명)
	연기상	최종원(극단 현대 / 아버지 바다), 이정희(극단 실험 / 실비명)
	특수부문상	박동우(극단 실험 / 실비명)
	신인연기상	송영창(극단 실험 / 실비명), 양금석(극단 민중 / 칠산리)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서울국제연극제로 확대 실시(비경연)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부터 '대상'이라는 이름의 단체상이 부활하며, 대상 수상작에 지방순회공연의 기회가 주어졌다. 1980년대 〈서울연극제〉의 주요 시상 분야는 대상, 연출상, 미술상, 희곡상, 연기상, 신인상 등이었다. 〈서울연극제〉는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을 주 무대로 매년 가을 시즌에 진행되었으며, 10년 동안 모두 83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한편 1982년부터는 주요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공연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무용 분야



86아시아경기대회 문화예술축전무용제
1986년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립극장 대극장을 주 공연장으로 개최되었는데, 문예진흥원은 이 행사에 대비하여 많은 창작무용을 위촉하여 공연무대에 선보였다.

1980년대 무용 분야 지원사업은 1970년대에 시작된 〈무용 공연 지원〉, 〈서울무용제(대한민국 무용제)〉, 〈무용 연구활동 지원〉이 10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10년 동안의 총지원액은 15.8억 원에 이르며, 연간 지원액은 1980년 4,700여만 원에서 1989년 1.8억 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되었다. 특히 서울아시안게임이 있었던 1986년에는 3.2억 원,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에는 4.8억 원이 지원되었다.

〈무용 공연 지원〉은 1974년에 시작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지원 대상은 전문 무용단체의 정기, 비정기 공연 및 신인 발굴을 위한 특별공연, 역량 있는 개인 공연 등이며, 선정 기준은 공연활동 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공연 내용의 예술성 및 전문성, 무용 발전에 대한 기여도, 자체자금 부담 능력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연간 지원 건수 10여 건에 1천만 원대로 지원금이 상향되었으며, 한국무용협회의 지방순회공연, 한국발레협회의 기념공연, 전국무용인 합동공연, 신인무용발표회, 창작발레경연대회 등에 지원되었다. 10년 동안 108건의 공연에 1.3억 원이 지원되어 공연당 지원액은 116만 원 정도였다.

1979년 시작된 〈대한민국 무용제〉는 1980년대 들어 제2회부터 제11회까지 지속되었으며, 1990년 〈서울무용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0년 제2회 대회에서는 단체상 대신 개인상(안무상, 연기상, 음악상, 미술상, 신인상)만 수여하였으나, 1981년 제3회 대회부터는 단체상과 개인상을

함께 수여하였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단체상인 대상의 경우, 1981년 100만 원에서 1982년 150만 원, 1984년 500만 원, 1988년 7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대한민국 무용제〉의 행사장으로는 국립극장과 문예회관이 주로 이용되었으며, 1982년부터 대상 수상 단체에게 지방순회공연의 기회가 주어졌다. 10년 동안 〈대한민국 무용제〉에 지원된 지원금은 11.8억 원으로 1980년대 무용 분야 지원액 15.8억 원의 75.0%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 무용제〉의 연간 지원액은 1980년 3,000만 원에서 1989년 1.3억 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특히 1988년 제10회에 대회에는 4.6억 원이 지원되었다. 국제무용제로 확대 시행된 1988년 행사에서는 5개 외국 무용단체와 국내 13개 단체가 공연하였다.

〈무용 연구 지원〉은 무용단체의 워크숍, 연수회, 공개토론회 및 무용 평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로 토론회,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무용단체, 무용평론가 단체이며, 지원받은 단체는 한국무용협회를 비롯하여 춤잡지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현대춤협회, 한국발레협회, 한국춤평론가협회, 한국무용연구회 등이었다. 〈무용 연구 지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월간 『춤』 발간 지원사업이 있는데, 1980년대 10년 동안 1억 원 가까이 지원되었다. 또한 〈무용 연구 지원〉을 통해 한국무용협회의 '무용연수회'에는 10년간 1,87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1981년에 시작된 한국발레협회의 '발레강습회'에는 950만 원, 1983년에 시작된 한국현대무용협회의 '현대무용 강습회'에는 580만 원, 1983년에 시작된 한국무용연구회의 '여름학교'에는 430만 원이 지원되었다.

통합 공연예술 분야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음악, 연극, 무용의 분야별 지원 외에 공연예술 분야로 통합된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과 〈소극장 우수 기획프로그램 지원〉 두 사업에 4억 원 가까이 지원되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은 음악·연극·무용·국악 등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창작품을 발굴하여, 무대에 오를 때까지 연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공연단체 및 개인 작가이며, 국공립 공연단체, 종교재단 및 방송사 소속 공연단체, 대학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은


연극 무용등 公演예술 지원
올 8개분야 3億6千萬원
文藝振興院, 작가·공연단체함께지급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공연예술 분야 창작품 발굴을 위해 1985년부터 집중형 지원사업인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였다.
(1985. 7. 18. 동아일보)

'창작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5년 동안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을 통해 52건의 단위사업에 3.7억 원이 지원되었다. 건당 지원액이 700여만 원으로 당시로서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은 무용, 창극, 관현악, 오페라, 연극 등 창작공연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창작진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소극장 우수 기획프로그램 지원〉은 1989년에 시작되어 199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우수 기획공연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업은 소극장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활성화를 위해 공연단체에서 기획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작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첫해인 1989년에는 실험극장의 〈마지막 한 잔을 위해〉, 공간사랑의 〈공간무용의 밤〉, 소극장 앙상블의 〈초코렛 데이트〉 등 7건에 대해 2,440만 원이 지원되었다.

그 밖의 공연예술 지원

1980년대에는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집중되었다. 기존 사업의 지원액이 증액되어 사업이 다채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사업도 추가되었다. 1986년에는 〈86, 88 공연예술 작품 안내 및 위촉〉(총예산액 약 4천만 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86, 88문화예술축전에 대비하여 희곡, 창극, 오페라, 한국무용, 발레 등 총 9개 부문의 창작 공연예술과 작품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공연예술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 1986년에는 86문화예술축전 종합평가 관련 심포지움 개최, 1987년에는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행사(연극제, 무용제, 라스카라극장 초청사업), 1988년 88문화예술축전 종합평가 심포지엄 개최 등에 특별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신년맞이 대공연 지원〉이 신년 연휴 기간에 문화예술인과 일반 시민에게 격조 높은 공연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에는 일반 시민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연극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전통예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다. 1987년에는 이 행사에서 공연된 민속놀이를 관람하는 가족단위 관객이 늘어나자 건전한 여가선용의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전년에 비해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기도 하였다.

또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중견작가 창작 생활금 및 공연예술 전문지 작품 게재 지원〉을 통해 무용·연극·음악·전통 분야 등 공연예술에 공로가 많은 중견작가에게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작가가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다.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음악 분야 5건에 1,200만 원, 연극 분야 10건에 1,100만 원, 무용 분야 5건에 1,200만 원, 전통예술 분야 3건에 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지원 건수는 23건이고, 총지원액은 약 4,3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1985년에는 무용 대본 〈대지의 춤〉을 쓴 국수호와 이 작품의 작곡가인 박범훈이 선정되어 6개월간 3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연극 분야의 〈전문지 작품게재 지원〉에는 『한국연극』 8월호에 실린 이재현의 「코메리칸의 아이들」과 동 잡지 11월호에 실린 차범석의 「김안드레아전」이 지원받았다. 그 밖에 중견작가 창작 생활금 지급 대상으로 희곡작가 노경식, 음악 분야에서는 김의경과 이영호 등에게 약 300만 원씩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87년까지만 시행되었고, 이후 공연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작가가 아닌 작품 개발과 단체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표 4-10] 중견작가 창작 생활금 및 공연예술 전문지 작품 게재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1985	1986	1987	계
연극	금액	5,090	6,263	-	11,353
	건수	4	6	-	10
무용	금액	6,720	6,000	-	12,720
	건수	3	2	-	5
전통	금액	3,000	3,000	1,300	7,300
	건수	1	1	1	3
음악	금액	6,262	6,000	-	12,262
	건수	3	2	-	5
합계	금액	21,072	21,263	1,300	43,635
	건수	11	11	1	23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4. 전통예술 분야


雅樂·民俗樂 원형대로 完璧한 再現
慕은른 제 1 회 大韓民國國樂祭
沈淸歌·龜山會相등도 첫 完唱시도
대한민국 국악제
당초 양악과 국악이 함께 편성되었던 〈대한민국 음악제〉에서 국악 부문을 독립하여 1981년 처음 시행한 〈대한민국 국악제〉는 우리나라 전통국악의 보존계승과 국악의 저변 인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예술행사의 민간 이관 방침에 따라 1986년에 KBS로 이관되었다가 1992년부터 국악협회로 주최권이 이관되었다. (1981. 8. 21. 경향신문)

1980년대 전통예술 분야 주요 지원사업은 1970년대 부터 시작되어 지속된 〈전통예술 공연 지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통예술 연구 지원 및 보존 지원〉, 1980년대에 새롭게 시작된 〈대한민국 국악제〉와 〈전통문화 보급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그 밖에 197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초에 폐지된 〈전통예능 전승단체 지원〉, 〈민속악 체계 정립 지원〉, 〈기타 전통문화예술 지원〉과 1980년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시행된 〈국악기 개량 보급 지원〉까지 4개 사업이 더 있었다.

1980년대 전통예술 분야 지원사업에는 총 8.5억 원이 지원되어, 1970년대 4억 원의 2배를 살짝 넘는 규모를 보였다. 연간 지원액 규모는 8,500여만 원으로 1970년대 6,600여만 원에 비해 28.8% 정도 확대되었다. 단위사업 건당 지원액은 300만 원 남짓이었다. 지원액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 국악제〉가 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1.7억 원, 〈전통예술 공연 지원〉이 1.6억 원이었다. 〈대한민국 국악제〉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대규모 행사 지원액이 4.4억 원으로 전체 전통예술 분야 지원액의 51.5%였다.

〈전통예술 공연 지원〉은 국악, 전통연극, 전통무용 분야의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악과 전통연극은 1974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고, 전통무용은 1979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원 규모는 1970년대에는 국악 지원이 절대적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국악과 전통연극이 각각 40%, 전통무용이 20% 정도의 비율로 지원되었다.

[표 4-11] 1980년대 전통예술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전통예술 공연지원	금액	8,100	30,200	40,000	20,500	4,900	6,800	8,200	11,400	9,600	15,500	155,200
	건수	11	40	44	26	6	9	9	13	11	13	182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금액	10,000	27,59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7,000	30,200	30,199	174,993
	건수	1	1	1	1	1	1	1	1	1	1	10
대한민국 국악제	금액	-	40,226	37,143	23,072	34,523	38,728	88,961	KBS로 이관			262,653
	건수	-	1	1	1	1	1	1				6
전통예술 연구지원 및 보존지원	금액	17,746	6,700	21,800	16,211	14109	4,000	3,000	5,000	2,500	4,000	95,066
	건수	10	2	8	3	3	3	3	5	2	2	41
전통문화 보급 활성화 지원	금액	-	-	-	-	-	-	14,400	16,400	17,400	20,000	68,200
	건수	-	-	-	-	-	-	2	2	2	1	7
전통예능 전승단체 지원	금액	1,800	-	-	-	-	-	-	-	-	-	1,800
	건수	9	-	-	-	-	-	-	-	-	-	9
민속악체계 정립 지원	금액	4,916	-	-	-	-	-	-	-	-	-	4,916
	건수	2	-	-	-	-	-	-	-	-	-	2
기타 전통문화 예술 지원	금액	6,132	3,700	9,000	-	-	-	-	-	-	-	18,832
	건수	3	1	2	-	-	-	-	-	-	-	6
국악기 개량 보급 지원	금액	-	-	-	-	-	-	-	-	33,946	34,890	68,836
	건수	-	-	-	-	-	-	-	-	4	6	10
합계	금액	48,694	108,420	117,943	69,783	63,532	59,528	124,561	59,800	93,646	104,589	850,496
	건수	36	45	56	31	11	14	16	21	20	23	273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9년 명칭 변경, 현재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958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1974년 제15회 대회부터 문화공보부와 문예진흥원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전통 민속예술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시도 경연대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경연 종목은 초기에 농악과 민속놀이 두 종류로 시작하여 뒤에 민요와 민속무용이 추가되었다. 경연 장소는 실외로 한정되어 왔으나, 1987년 제28회 대회 때부터 마당 종목은 실외, 무대 종목은 실내로 나누어서 경연하게 되었다. 개최 지역은 초기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1967년부터 지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하였고, 1983년부터는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대되었다. 경연대회인 만큼 수상 경쟁이 치열했는데, 시상에는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문화공보부 장관상·개인상·공로상·장려상 등이 있다. 1980년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액은 1.7억 원이었다. 연간 지원액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1,000만 원이 유지되다가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3,000만 원대로 급증하였다.

[표 4-12] 1980년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현황

대회 횟수	개최 기간	개최 장소	대통령상 수상	
			민속	지역
제21회	1980. 10. 29.~31.	제주(공설운동장)	방앗돌굴리는노래	제주
제22회	1981. 10. 22.~24.	인천(공설운동장)	현천소동패놀이	전남
제23회	1982. 10. 26.~28.	광주(공설운동장)	삼동굿놀이	전북
제24회	1983. 10. 18.~20.	안동(공설운동장)	의성가마싸움	경북
제25회	1984. 9. 21.~23.	충주(공설운동장)	횡성회다지소리	강원
제26회	1985. 9. 19.~20.	강릉(공설운동장)	이리농악	전북
제27회	1986. 10. 17.~18.	천안(공설운동장)	강화용두레질노래	경기
제28회	1987. 9. 29.~30.	안양(공설운동장) 수원(실내체육관)	여주쌍용거줄다리기	경기
제29회	1988. 10. 21.~23.	전주(공설운동장)	봉서사영산작법	전북
제30회	1989. 9. 28.~30.	마산(종합운동장)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경기

그 이유는 1970년대까지 시행되던 상금이 폐지되었다가 1987년부터 '전승보존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지원액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악제〉는 1981년 〈대한민국 음악제〉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사이다. 제1회 공연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막연주의 밤' 공연을 시작으로, 창극과 민속악, 산조와 판소리, 아악의 밤 행사가 각각 열렸으며, 소극장에서는 범패와 영산회상, 시조와 무용, 판소리, 가곡, 가야금 산조가 공연되었다.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가 성격상 국악의 정통성에 연연한 정악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다면, 제2회부터는 토속 민요 무대 마련 등 새로운 창작공연에 역점을 둔 행사로서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1981년 제1회부터 제3회까지는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개최되었으나, 1984년 제4회부터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방 문화교류 차원에서 지방순회 개최가 이루어졌다. 1986년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민간 이관 방침에 따라 〈대한민국 국악제〉는 KBS로 이관되었다. 1986년에는 서울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국악제 형태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9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호암아트홀에서 장기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국악제〉에는 1981년부터 1986년까지 2.6억 원이 지원되었다.

〈전통예술 연구 지원 및 보존 지원〉은 1974년에 시작되어 1980년대에도 지속된 전통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전통예술은 발굴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록화 작업을 통한

[표 4-13] 1980년대 대한민국 국악제 개최 현황

(단위 : 명, 천 원)

구분		1981(1회)	1982(2회)	1983(3회)	1984(4회)	1985(5회)	1986(6회)	합계
공연 기간		8. 20.~25.	6. 9.~15.	6. 17.~22.	5. 1.~4.	4. 22.~26.	9. 22.~10. 5.	-
공연 장소		문예회관 (대·소)	문예회관 (대·소)	문예회관 (대·소)	(전북 전주) 전북학생회관	부산시민회관 (대·소)	호암아트홀	-
관객	유료	1,823	1,125	2,133	5,447	3,941	-	14,469
	초대	3,504	3,222	1,657	2,196	3,798	-	14,377
	소계	5,327	4,347	3,790	7,943	7,739	6,803	35,949
지원 예산		40,226	37,143	23,072	34,523	38,728	88,961	262,653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발간사업이 중요한 분야이다. 1980년대 〈전통예술 연구 지원 및 보존 지원〉의 지원액은 9,506만 원으로 1970년대 1억 2,000여만 원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 시작된 주요 발간사업들이 1980년대 초반에 종료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원액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문화 보급 활성화 지원〉은 1986년 〈우수전통공예작품 보호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었다. 지원 목적은 전통예능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각종 전통예능 전시회 및 각종 전통예능을 개발·보급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전통예능의 계승·보존·전수를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의 작품 전시회 개최 사업, 전통예능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연구소·공방 등의 운영 사업, 보존 및 육성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능 개발 보급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우수한 전통공예작품의 제작·보급 및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전통예술의 보존·계승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문화 보급활성화 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1980년대 〈전통문화 보급 활성화 지원〉의 지원액은 4년간 6,800여만 원의 소규모 사업이었다. 1987년에는 한국다인연합회의 『다인회보』 발간과 전시회 등에 1,600여만 원이 지원되었다. 1988년에는 『공방육성』 발간과 전시회 등에 1,700여만 원, 1989년에는 고증자료 수집, 전수자 양성 등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다.[4]

4. 그 밖의 〈전통예능 전승단체 지원〉과 〈민속악 체계 정립 지원〉, 〈국악기 개량 보급 지원〉은 이 책의 제3장을 참조

5. 문화예술 일반 분야

문화예술 일반 분야는 문학, 미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분야별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영화·대중예술·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 지원사업, 한국문화재보호협회·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기간단체 지원사업, 예술 장르 전반과 관련된 예술평론 지원사업이나 비예술 영역인 한국학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대 문화예술 일반에 대한 지원에서는 〈영화 진흥 지원〉 등 지원 규모가 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예총)나 특수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현 한국문화보호재단)와 같은 단체 운영비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문화예술 일반 분야 지원사업에는 1970년대부터 지원이 시작된 〈영화 진흥 지원〉, 〈예술 장학금 지원〉,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지원〉, 〈출판사업 지원〉, 〈대중예술 지원〉, 〈한국학 지원〉 등 6개 사업과 1980년대에 새롭게 지원이 시작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원〉과 〈예술평론 지원〉 2개 사업이 있다.

1980년대 문화예술 일반 분야 지원액은 143.6억 원으로 다른 예술 분야 지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규모이다. 이는 1970년대 23.5억 원의 6.1배에 해당한다. 연평균 지원액 규모로 보아도 1970년대 3.9억 원의 3.7배에 해당하는 14.4억 원의 규모이다. 1980년 7.3억 원이던 지원액은 1989년 39.1억으로 5배 이상 증가되었다. 사업별로는 〈영화 진흥 지원〉 지원액이 81.6억 원으로 문화예술 일반 분야 전체 지원액의 56.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간단체 지원에 해당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원〉 26.3억 원,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지원〉 16.9억 원으로 두 사업을 합하면 43.2억 원으로 전체 30.1%를 차지한다. 그 밖에 〈출판사업 지원〉 7.2억 원, 〈예술 장학금 지원〉 5.2억 원, 〈한국학 지원〉 4.9억 원, 〈예술평론활동 지원〉 1.4억의 순서를 보인다.

문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던 1980년대에는 영화, 대중예술, 출판에 대한 지원도 문예진흥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 가운데 〈영화 진흥 지원〉은 10년 동안 81.6억 원을 지원하여 가장 규모가 큰 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1986~1987년에는 연간 지원액이 10억 원, 1988년 25억 원, 1989년 30억 원이 지원되는 등 다른 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1980년에는 〈편집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원, 1982년 〈우수시나리오

[표 4-14] 1980년대 문화예술 일반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영화 진흥 지원	200,000	100,000	100,000	224,040	-	-	1,000,000	1,000,000	2,500,000	3,035,980	8,160,020
예술 장학금 지원	39,435	45,298	58,683	59,013	44,883	47,571	49,300	53,983	55,746	64,715	518,627
	84	76	79	67	49	50	51	53	51	56	616
예총 지원	-	140,000	-	177,841	210,074	152,820	421,855	485,850	499,450	541,314	2,629,204
	-	-	-	-	-	-	-	-	-	-	-
문화재보호 협회 지원	160,655	142,700	150,000	135,000	75,000	100,000	350,000	150,000	180,000	250,000	1,693,355
	-	-	-	-	-	-	-	-	-	-	-
출판사업 지원	66,129	71,402	95,685	93,366	128,622	149,540	111,800	2,000	-	-	718,544
	55	86	136	172	187	164	155	1	-	-	956
한국학 지원	266,782	220,000	-	-	-	-	-	-	-	-	486,782
	35	24	-	-	-	-	-	-	-	-	59
예술평론 활동 지원	-	-	-	27,600	17,187	15,000	20,000	20,000	24,000	19,000	142,787
	-	-	-	2	-	4	3	4	4	6	23
대중예술 지원	-	-	-	-	-	-	-	-	8,000	1,000	9,000
	-	-	-	-	-	-	-	-	-	-	-
합계	733,001	719,400	404,368	716,860	475,766	464,931	1,952,955	1,711,833	3,267,196	3,912,009	14,358,319
	174	186	215	241	236	218	209	58	55	62	1,654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공모사업〉에 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시설 현대화, 영화제 개최, 해외 진출 지원, 영화단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영화아카데미 운영, 우수영화 제작 지원, 영화제 개최 지원 등이 추가로 이루어져 공적 지원에 의한 한국영화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건전가요 보급을 중심으로 한 〈대중예술 지원〉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1988년에 재개되었다. 1980년대에는 1988년과 1989년 2년 동안 9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출판사업 지원〉으로는 출판금고 기금 지원, 도서 구입 지원 및 배포, 잡지 출판, 국제도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했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7.2억 원이 출판 분야에 지원되었다. 출판금고 기금 지원에 4년간 1.7억 원, 도서구입 지원에 4.4억 원, 그 밖에 잡지 출판 지원 9,200만 원, 국제

도서박람회 참가 지원에 1,9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출판사업 지원〉의 대부분이 도서구입 지원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기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원〉과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지원〉 2개 사업이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원〉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본부사업, 지부사업, 예총본부 경상운영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대 예총에 대한 지원은 1981년 1.4억 원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5억 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져, 총액은 26.3억 원에 이르렀다.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지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협회는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위해 1980년에 설립된 특수법인(문화재보호법 제77조 2에 의거)으로서, 1992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호와 학술조사 연구, 문화재 선양자료의 제작 보급, 전통생활문화의 보급,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활동지원, 한국의집·민속극장·한국문화의집 운영,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관리, 공연장 운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이다. 1981년에 '한국의집'을 개관하였고, 1982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관리·운영하였다. 1980년대에는 10년 동안 16.9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4-15] 1980년대 출판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건)

사업명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
출판금고 기금지원	35,000	35,000	50,000	50,000	-	-	-	-	170,000
	1	1	1	1	-	-	-	-	4
도서구입지원	9,529	9,865	34,085	31,766	120,622	141,540	90,000	-	437,407
	47	77	133	169	186	163	153	-	928
잡지출판지원	11,600	17,500	11,600	11,600	8,000	8,000	21,800	2,000	92,100
	2	3	2	2	1	1	2	1	14
국제도서박람회 참가지원	10,000	9,037	-	-	-	-	-	-	19,037
	5	5	-	-	-	-	-	-	10
합계	66,129	71,402	95,685	93,366	128,622	149,540	111,800	2,000	718,544
	55	86	136	172	187	164	155	1	956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4-16] 1980년대 예술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 원)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합계
수혜 인원	국악	12	13	26	41	36	36	39	40	39	44	326
	미술	34	32	20	5	-	-	-	-	-	-	91
	음악	21	18	15	4	-	-	-	-	-	-	58
	무용	8	10	14	9	9	12	11	13	12	12	110
	연극	9	3	4	8	4	2	1	-	-	-	31
	소계	84	76	79	67	49	50	51	53	51	56	616
지원액		39,435	45,298	58,683	59,013	44,883	47,571	49,300	53,983	55,746	64,715	518,627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창작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1979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예술 장학금 지원〉은 신진예술가 양성이라는 취지 아래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나누어 국악·미술·음악·무용·연극 등 5개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 재능과 기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980년대에 지원된 총액은 5.2억 원이며, 수혜 인원은 616명이었다. 분야별로는 국악이 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무용 110명, 미술 91명, 음악 58명, 연극 31명의 순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연간 70명대의 규모였으나 후반기에는 50명대로 축소 운영되었다. 창작 여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예술 평론활동 지원〉에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8년 동안 『예술평론』 발간 지원을 중심으로 총 1.4억 원이 지원되었다.

4. 1980년대 문화향수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근로청소년 문예활동지원
1983년 9월 10일 유네스코 청년회관에서 열린 근로청소년 문화활동 수련회 수료식에서 제2대 송지영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궁극적 효과는 예술의 공급을 통해 국민의 예술 향유가 증진되는 데서 확인된다. 따라서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목적도 예술 향유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술창작 지원의 결과가 그대로 예술향유의 효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을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향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향수 지원사업이 공적 지원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게 된다. 문예진흥원의 문화향수 지원사업은 198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다.

198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에는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 개최〉, 〈공연예술 순회활동 및 순회전시 지원〉,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지원〉, 〈청소년문화 지원〉 등 4개 사업이 있다. 순회공연 및 전시 지원은 이후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전신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교육 및 청소년 문예강좌는 문화예술교육의 전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개 사업으로 구성된 1980년대 문화향수

[표 4-17] 198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구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개최		150	473	1,510	800	1,940	2,676	2,922	7,549
공연예술 순회활동 및 순회전시 지원		-	-	-	16,193	30,000	93,330	170,666	139,523
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 지원		-	-	-	-	40,000	18,976	19,259	58,976
청소년 문화 지원	문예강좌지원	-	52,320	52,407	104,634	107,588	109,239	94,820	521,008
	문예활동 및 공연 지원	-	168,150	196,656	125,515	156,217	105,000	52,000	803,538
	청소년 연구 지원	-	112,852	195,791	136,910	65,531	18,561	19,000	548,645
	소계	-	333,322	444,854	367,059	329,336	232,800	165,820	1,873,191
합계		150	333,795	446,364	384,052	401,276	347,782	358,667	2,272,086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지원사업의 지원액은 22.7억여 원이다. 그 가운데 82.4%에 해당하는 18.7억 원이 청소년 문화에 지원되었다.

문화향수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사업은 1983년에 시작된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개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하여 여성문학 인구의 저변을 넓히는 사업이다. 1983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 매년 참가자가 늘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어 왔으며, 755만 원을 지원하였다.

1986년에 시작된 〈공연예술 순회활동 및 순회전시 지원〉은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지역의 주민에게 찾아가 문화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 공연예술 순회활동, 소규모 공연단 지역순회공연, 미술작품 순회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규모 공연단 지역순회공연은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소도시를 소규모 작품으로 순회 공연하는 사업이며, 미술작품 순회전시는 우수 미술단체의 지역 순회전 및 상호교류전 등을 지원하여 문화소외지역에 우수한 미술작품을 순회 전시하여 지역미술인의 창작 의욕과 일반 미술 애호가의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수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1980년대 〈공연예술 순회활동 및 순회전시 지원〉에는 1.4억 원이 지원되었다.

1987년에 시작된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지원〉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회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교육활동 지원, 문예강좌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 동호인 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예강좌 및 활동 지원에는 문예강좌 지원, 문예활동 지원, 독서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전국의 여성 문학 지망생의 관심으로 해마다 참가자가 늘고 있는 이 행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백일장을 통해 문단 등용의 길이 열리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1988. 10. 20. 동아일보)



청소년문화 지원사업
1984년부터 청소년문화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근로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의 문예강좌, 문화예술제 개최 등 문예활동을 폭넓게 지원하였다.
(1983. 12. 15. 경향신문)

교양강좌 지원, 국민독서문화 조성 지원, 전국민 책읽기 운동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문화예술 동호인 활동 지원은 일반국민의 문화예술의식 확산과 생활화를 도모하고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동호인 활동을 비롯하여 일반 주민의 각종 문예활동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1980년대에 약 5,900만 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청소년 문화활동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84년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청소년문화 지원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 좀 더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다가 1997년도부터는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으로 흡수되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문예강좌 지원, 문예활동 및 공연지원, 청소년 도서보급 및 연구 지원, 기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문예강좌 지원(근로청소년 문예강좌 지원 포함)은 225건에 5.2억 원, 청소년 문예활동 및 공연 지원(근로청소년 문예활동 지원 포함)은 86건에 8억여 원 지원되었다. 그 밖에도 청소년 연구 지원은 약 5.5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86년과 1987년에 청소년 고전읽기 사업 지원이 있었다. 청소년이 우리 조상의 얼과 정신이 담긴 고전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추진한 이 사업에는 2년 동안 1,500여만 원이 지원되었다.

5. 198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지역문화진흥
1980년대 들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여러 문화정책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지방문예진흥기금조성과 지역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규모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 (1984. 2. 4. 경향신문)

1980년대 들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부분이 지역문화의 육성과 활성화 정책이다. 당시 우리나라 문화현상은 중앙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의 문화활동이 침체되고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는 한편, 지방문화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3년부터 문화공보부와 내무부가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지방문화 육성 방안은, ① 지방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 확대와 창작 의욕 고취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② 지방예술제의 시상 격상과 특전 확대 등을 통한 지방단위의 특성 있는 예술행사를 육성, 신인을 발굴 등용해 나가며, ③ 지방문화시설의 확충과 전문요원의 양성 등으로 지방예술인의 자질 향상과 중앙 수준의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④ 지역별 대표 향토축제, 지방문화제 등을 중점 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활동을 확대·지원하고 정착화시키며, ⑤ 전국적인 예술행사의 지방개최 확대와 중앙예술인 및 단체의 지방순회 확대를 통하여 지방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⑥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주민이 동참하는 자율적인 지방문화육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1984년부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 지역문화 분야 지원사업에는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지원〉, 〈지역문화시설 확충 지원〉,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 〈지역예술행사 지원〉, 〈지역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지원〉 등 5개 사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 지역문화 분야 지원액은 총 402.5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83년까지는 연간 2억 원대를 유지하다 1984년부터 50억 원 내외로 급증하였고, 1989년에는 122.5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사업별로는 〈지역문화시설 확충 지원〉이 245.1억 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지원〉이 109.3억 원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지원〉 31.9억 원, 〈지역예술행사 지원〉 10.4억 원,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 5.9억 원이 지원되었다.

1.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지원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지원〉은 지방문화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역시도 단위의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매년 문예진흥원이 지원하는 종자금을 적립하는 한편, 지방별로 자체 조성한 기금을 합산, 적립하여 지방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1984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12개 시도에 각각 2억 2,500만 원씩 총 27억 원을 지원하였고, 1985년부터는 시도별로 1억 2,500만 원씩 12개 시도에 총 15억 원을 지원하였다. 1987년에는 광주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13개 시도에 16억 2,500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1989년 광주광역시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 총 19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1980년대 6년 동안 총 109억 2,500만 원이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에 지원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원된 문예진흥원의 발판(일종의 종자금)으로 각 시도에서 자체 조성, 적립한 지역문예진흥기금이 확충됨으로써, 지역문예진흥사업의 독자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

[표 4-18] 1980년대 지역문화 진흥 지원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건, 개소)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지원		-	-	-	-	2,700,000	1,500,000	1,500,000	1,625,000	1,625,000	1,975,000	10,925,000
		-	-	-	-	12	12	12	13	13	13	75
지역문화시설확충지원	지역예술회관 건립	200,000	150,000	100,000	-	-	-	-	-	-	-	450,000
		1	1	1	-	-	-	-	-	-	-	3
	종합문예회관 건립	-	-	-	-	1,000,000	1,400,000	3,000,000	2,500,000	3,500	1,500,000	9,403,500
		-	-	-	-	2	3	5	5	4	3	22
	특장전문시설 건립	-	-	-	-	500,000	750,000	750,000	1,100,000	1,000,000	7,500,000	11,600,000
		-	-	-	-	1	3	3	5	4	3	19
	기존문화시설 개보수지원	-	-	-	-	400,000	350,000	300,000	300,000	340,000	1,000,000	2,690,000
		-	-	-	-	3	2	2	2	4	5	18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개 보수	-	-	-	-	100,000	100,000	100,000	62,000	-	-	362,000
		-	-	-	-	2	2	2	1	-	-	7
	소계	200,000	150,000	100,000	0	2,000,000	2,600,000	4,150,000	3,962,000	1,343,500	10,000,000	24,505,500
		1	1	1		8	10	12	13	12	11	69
지역문화예술축제지원	지역문화제	16,300	31,800	40,500	33,900	33,900	33,900	36,800	41,000	46,400	41,100	355,600
		27	32	37	30	30	30	35	36	39	33	329
	향토축제	-	-	-	36,000	36,000	36,000	36,000	33,000	30,000	30,000	237,000
		-	-	-	12	12	12	12	11	10	12	81
	소계	16,300	31,800	40,500	69,900	69,900	69,900	72,800	74,000	76,400	71,100	592,600
		27	32	37	42	42	42	47	47	49	45	410
지역예술행사지원	종합예술제 특장행사지원	-	-	-	29,800	17,100	28,150	40,000	58,600	32,700	17,200	223,550
		-	-	-	-	-	-	-	-	-	-	-
	시·도미술대전 지원	10,000	12,000	12,000	24,000	23,000	18,000	18,000	18,000	18,000	19,500	172,500
		1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18
	시·도미술대전 수상작품전	-	-	-	-	6,480	6,814	7,800	10,704	13,197	14,195	59,190
		-	-	-	-	-	-	-	-	-	-	-
	전국연극제	-	-	-	64,778	66,036	64,538	72,233	95,864	99,367	124,426	587,242
		-	-	-	12	12	12	12	13	13	14	88
	소계	10,000	12,000	12,000	118,578	112,616	117,502	138,033	183,168	163,264	175,321	1,042,482
		10	12	12	24	24	24	24	25	25	26	206
지역문화예술단체및기관지원	지역단체공연 (전통)	-	-	-	-	-	-	-	-	4,000	5,000	9,000
		-	-	-	-	-	-	-	-	-	-	-
	지역단체공연 (음악)	-	-	-	-	-	-	-	-	2,000	4,000	6,000
		-	-	-	-	-	-	-	-	-	-	-
	지역단체공연 (연극)	-	-	-	-	-	-	-	-	10,000	5,000	15,000
		-	-	-	-	-	-	-	-	-	-	-
	지역단체공연 (무용)	-	-	-	-	-	-	-	-	3,000	4,000	7,000
		-	-	-	-	-	-	-	-	-	-	-
	지방문화원 지원	46,700	56,870	78,200	88,000	79,054	663,061	665,091	687,776	746,388	-	3,111,140
		108	103	119	123	130	142	142	148	153	-	1,168
	지역문화코너 자료보급	-	-	-	-	-	-	-	30,000	2,724	7,000	39,724
		-	-	-	-	-	-	-	-	-	-	-
	소계	46,700	56,870	78,200	88,000	79,054	663,061	665,091	717,776	768,112	25,000	3,187,864
		108	103	119	123	130	142	142	148	153	-	1,168
합계		273,000	250,670	230,700	276,478	4,961,570	4,950,463	6,525,924	6,561,944	3,976,276	12,246,421	40,253,446
		146	148	169	189	216	230	237	246	252	95	1,928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지역문화시설 확충 지원



지역문화시설 등 기반조성 지원
1980년대 기금지원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부문이 지역문화시설확충 등 기반조성 지원 분야로 기사에 따르면 1980년 문예진흥 예산 52억 원 중 기반조성 부문이 약 18억 원으로 전체의 35%에 달하였다. (1980. 3. 31. 경향신문)

문예진흥원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지역예술회관 건립〉을 지원해 오다가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문화시설 확충 건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역문화시설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문화향수권 균점화를 통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역 특유의 문화예술을 보존·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예술회관 건립, 종합문예회관 건립, 특장전문시설 건립, 기존문화시설 개보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개보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 및 현대화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예술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1970년대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1980년대에는 전북예술회관 건립에 1.5억 원, 남도예술회관(광주) 건립에 2억 원, 목포향토문화회관 건립에 1억 원 등 총 4.5억 원이 지원되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 지원〉은 1980년대 문화시설 조성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국의 시도 단위에 대형공연 및 전시행사를 상시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립 사업에 20억 원 내외로, 1984년 전남종합문예회관과 경남종합문예회관부터 1985년 경기종합문예회관과 제주종합문예회관, 1986년 구미종합문예회관, 강원종합문예회관, 충남종합문예회관 등에 지원하였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총 94억 원이 지원되었다.

〈특장전문시설 건립 지원〉은 지역별 문화적 특징을 전승·보존시키기 위한 중·소규모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시설당 5억 원 내외로 지원되었다. 특장전문시설의 기준은 ① 음악당(국악당 포함): 건평 750평 내외, 무대 80평 이상, 객석 500석 내외, 연습실 등 구비, ② 미술관: 건평 600평 내외, 전시 면적 200평 내외, 전시실·강습실, 항온항습 설비 등, ③ 문학관:

건평 450평 내외, 장서 1만 권 이상 도서실, 시 낭송·세미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 등을 지원 대상으로 무대 및 전시 관련 각종 시설 및 특수기자재 설비 등에 우선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되었다. 1984년 전주대사습전수회관을 비롯하여 1985년 난계국악당, 고령대가야국악당, 홍성문화회관, 1986년 백제음악당, 세종국악당, 1987년 추사기념관, 진포문화회관, 속초문화회관, 용인문예회관 등이 지원을 받았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총 116억 원이 특장문화시설 건립에 지원되었다.

〈기존 문화시설 개·보수 지원〉은 기존의 문화공간을 개·보수하여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개·보수 내역은 객석 500석 이상, 무대 150평 내외로 확장하는 것이었고, 지원 내용은 조명·음향·무대기기 등 기자재 비용, 무대·전시실 확장·개수 비용, 방음·방벽·냉난방 설치 비용 등이었다. 시설당 1~2억 원 규모로 지원했으며, 1984년 춘천시립문화관(1억 원), 충북예술회관(1.5억 원), 경주서라벌문화회관(1.5억 원), 1985년 전북예술회관(2억 원), 대전시민회관(1.5억 원), 1986년 대구시민회관(1.5억 원), 성남시민회관(1.5억 원), 1987년 천안문예회관(1.5억 원), 이리시민회관(1.5억 원) 등에 지원되었다. 이 사업에는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총 26.9억 원이 지원되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개수 지원〉을 통해 1984년부터 1987년까지 7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개수 사업에 총 3억 6,200만 원이 지원되었다. 1984년 동래야류전수회관과 양주별산대놀이회관 각각 5,000만 원, 1985년 수영민속놀이회관과 충무무형문화재회관 각각 5,000만 원, 1986년 진도무형문화재회관과 고성무형문화재회관 각각 5,000만 원, 1987년 서울무형문화재회관에 6,200만 원이 지원되었다.

3.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은 '지역문화제', 지역 대표 '향토축제'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문화축제 지원〉은 지역의 전래 고유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지원으로 이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면서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4년부터 1998년까지 지역

[표 4-19] 지역별 지원 대상 지역문화제 현황

지역	문화제
경기	세종문화회큰잔치(여주), 서해안풍어제(인천), 화홍문화제(수원), 여주답교놀이(여주), 행주대첩기념제(행주), 다산문화제(남양주), 동구문화제(구리)
강원	영월단종제(영월), 대현이율곡선생제(강릉), 삼척죽서문화제(삼척), 정선아리랑제(정선), 현산문화제(양양), 양양문화제(양양), 강릉단오제(강릉), 치악문화제(원주), 양양민속원놀음(양양)
충남	백제문화제(부여), 은산별신제(부여), 상록문화제(당진), 매헌문화제(예산), 이충무공탄신 기념문화제(아산), 류관순열사 추모제(천안), 공주 장승제(공주), 면암 춘추대의제(청양), 기지시 줄다리기(당진), 서산주문화제(서산), 홍주문화제(홍성), 온양문화제(온양), 금산인삼제(금산)
충북	난계예술제(영동), 우륵문화제(충주), 속리축전(보은), 중봉충렬제(옥천), 강서농자놀이(청주), 충북예술제(충북 전역)
전남	진도 영등제(진도), 진남제(여수), 보림문화제(장흥), 지리산 약수제(구례), 남도문화제(전남 전역), 강강술래향토축제(해남), 광산 고싸움(광산), 다향제(보성), 다향제(진도), 금릉문화제(강진)
전북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전주), 전라예술제(전북 전역), 벽골문화제전(김제), 모양성제(고창), 춘향제(남원), 삼동굿놀이(남원), 풍남제(전주), 마한민속제(익산), 의암주 논개제전(장수)
경남	개천예술제(진주), 한산대첩기념제(충무), 3.1민속문화제(창녕), 천령문화제(함양), 가야문화제(고성), 밀양아랑제(밀양), 처용문화제(울산)
경북	신라문화제(경주), 대가야문화예술제(고령), 안동민속축제(안동), 한장군문화제(경산), 소가야문화제(고성)
제주	한라문화제, 영등굿
서울	한글기념제, 남이장군대제(용산)

[표 4-20] 지역별 중점지원 대상 향토축제 현황

지역별	축제명	축제 내용	근원지
경기	답교놀이	답교놀이, 여흥	송파
강원	강릉단오제	서낭당제, 무당굿, 관노가면극	강릉
충북	농자축제	농요, 농악	청원
충남	기지시줄다리기	당제, 농악, 줄다리기	당진
전북	삼동굿놀이	삼동굿, 지네밟기, 동제, 농악	남원
전남	강강술래	노래, 춤	해남
	고싸움놀이	당산제, 농악, 줄다리기	광산
경북	안동민속축제	농요, 춤(모심기·모내기)	안동
경남	밀양아랑제	제향, 백중놀이, 무안용호놀이	밀양
제주	영등굿	걸궁놀이, 영등굿, 민요, 약마회	제주
서울	남이장군당제	당굿, 걸립패, 여흥	서울
인천	서해안풍어제	배연신굿, 대동굿	황해도

문화제를 지원해 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지역문화제 가운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축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지역문화제에는 1980년 27개 행사에 1,6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1981년부터 1989년까지는 3~4천만 원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10년 동안 30여 개의 행사에 3.6억여 원이 지원되었다.

향토축제 지원은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향토축제로 중점 개발하기 위해 1983년부터 시도별로 1종씩을 선정하여 지역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제 지원 대상 축제 가운데 12개의 축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1980년대에는 1개 행사에 300만 원씩, 1983년부터 1989년까지 10여 개 대표 축제에는 2.4억 원이 지원되었다.

4. 지역예술행사 지원

1980년대에는 지역에서의 예술창작 및 향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개최되는 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지역예술행사 지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예술제 특장부문 경연대회 지원〉, 시도 미술대전 지원〉, 〈시도 미술대전 수상작품전〉, 〈전국연극제〉 등 4개 사업이 있다. 특히 종합예술제 특장부문 경연대회 지원은 1983년 수립된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종합계획〉에 부응하여


전국地方演劇祭 화려한 데뷔
市道대표 12개 劇團 참가
創作의욕 북돋운 地方演劇祭
제1回 全國地方演劇祭
公演마다 관중몰려 성황
5百餘 연극인 보람찾아

전국연극제
1983년 〈전국지방연극제〉란 명칭으로 시작된 〈전국연극제〉는 지방연극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창작극 공연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사는 제1회 연극제 개막과 그 성과를 다루고 있다.
(1983. 6. 22.(좌), 1983. 7. 8.(우) 동아일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예술행사를 전국 규모의 예술제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1980년대 〈지역예술행사 지원〉은 초기에는 1천만 원대의 소규모 지원사업이었으나 1983년부터 1억 원대 사업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 10년 동안 총 10.4억 원이 〈지역예술행사 지원〉에 소요되었다.

1983년에 시작된 〈종합예술제 특장부문 경연대회 지원〉은 지역별 특정 분야의 예술 발전과 해당 분야의 신인 발굴의 등용문을 지향하는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도별로 개최되는 종합예술제 행사 중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특장 부문을 지정, 그 경연대회를 지원하여 해당 부문의 예술 발전과 신인 발굴을 도모하고, 전국 규모의 예술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했다. 1983년부터 대구의 〈전국성악경연대회〉, 인천의 〈제물포사진전〉, 경기의 〈난파음악제〉, 강원의 〈전국합창경연대회〉, 전남의 〈전국국악경연대회〉, 경북의 〈전국국악대제전〉, 경남의 〈개천한국무용제〉, 제주의 〈전국민요경창대회〉가 지원을 받았고, 이어 1984년 부산의 〈부산음악콩쿠르〉, 1989년 광주의 〈한국화공모전〉이 추가되어 총 13개 행사에 2.2억 원이 지원되었다.

〈시도 미술대전 지원〉은 1970년대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1980년까지 10개 시도에 각각 100만 원씩, 1981년부터는 12개 시도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되었다. 1983년에는 시도별 지원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1985년부터는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1980년대 10년 동안 총 1.7억 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1984년부터는 시도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종합하여 서울과 그 밖의 2개 지역을 순회하는 시도 미술대전 수상작품전 지원도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총 5,900여만 원이 지원되었다.

〈전국연극제〉 지원은 침체되어 있는 지방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시작되었다. 제5회 대회인 1987년까지는 〈전국지방연극제〉라는 명칭으로 개최하다가 1988년부터 〈전국연극제〉로 개칭되었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전국연극제〉에 88개 단체가 참여하여 125,917명의 관객이 관람하였으며, 총 5.9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4-21] 1980년대 〈전국연극제〉 개최 현황

(단위 : 개, 명, 천 원)

구분	1983(1회)	1984(2회)	1985(3회)	1986(4회)	1987(5회)	1988(6회)	1989(7회)	계
주관	부산	전남	충북	대구	전북	충남	경북	-
참가단체	12	12	12	12	13	13	14	88
시상(7개 부문)	10	10	11	12	12	12	12	-
관객 현황	8,567	14,129	18,505	27,753	17,935	20,836	18,192	125,917
예선대회 개최지	3개 시도	7개 시도	9개 시도	9개 시도	11개 시도	-	14개 시도	-
지원액	64,778	66,036	64,538	72,233	95,864	99,367	124,426	587,24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5. 지역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지원

〈지역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지원〉은 지역문화 진흥의 주체인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지역공연단체 활동 지원〉, 〈지방문화원 지원〉, 〈지역문화코너 자료보급 지원〉 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공연단체 활동 지원〉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연극·무용·전통(국악)공연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네 개 분야에 걸쳐 3,7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지방문화원 지원〉은 1974년에 시작된 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문화원은 각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체이다. 1980년대 초에는 문화원 1개소당 9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나 1984년부터 평균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지방문화원 지원 총액은 31.1억 원이었다. 1989년부터는 전국문화연합회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문화코너 자료보급 지원〉은 각 지역에 문화거점을 확보하여 지역문화활동의 매개체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예술 관련 자료가 빈약한 지역에 자료를 지원, 다양한 문화자료를 보유하게 하여 문화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다. 1987년에는 해남·함양·여주문화원에, 1988년에는 고성·옥천·청양·김제문화원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지원액은 3,900여만 원이었다.

1970년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유례없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의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향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서 지역문화예술회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었다. 지역문화시설 건립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제5공화국 당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유독 문화분야에서는 즐겨 사용되었는데, 바로 '문화 민주화'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전두환 정부는 정책의 주요 대상을 창조계층인 문화예술인으로부터 향수계층인 국민 전체로 확대시킨다는 의미의 이른바 '문화 민주화'를 지방문화의 육성과 진흥을 통해 달성하려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을 통해 지방의 문화활동과 행사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시도 종합예술제, 지방미술대전, 연극경연대회, 향토축제, 지방문화제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 미술대전·연극제·무용제 등 전국 규모 행사의 지방 개최 및 지방순회와 국립예술단체의 지방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강조한 문화투자의 확대와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 지방문화의 육성과 진흥으로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

6. 198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한국문학 소개책자 해외 배포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 인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로 국내외 주요 도서관과 해외 한국학연구소, 관계 단체 및 번역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되며 번역출판과 연계하여 해외 저명 문예지에 한국 특집을 게재할 수 있도록 작품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1980년대는 1970년대에 비해 국제문화교류가 매우 활발한 시기였다. 특히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1980년대 후반기는 우리나라가 국제화의 물결을 타는 진입기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 자유화가 1989년부터 시행된 관계로 1988년까지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국제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국제문화교류 지원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가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졌다.

1980년대 국제문화교류 분야 지원사업은 1970년대에 비해 지원 금액도 증가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의 해외 소개 사업인 〈한국문학 번역 출판〉, 〈한국미술 소개작품집 해외 배포〉,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사업인 〈문예인 해외연수 지원〉, 〈문인 해외시찰 지원〉, 〈큐레이터 해외연수〉, 〈문화기관 종사자 해외연수〉, 〈해외 문예인 초청 사업〉,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사업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공연활동 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사업인 〈국제 문화예술기구 지원〉, 〈해외 문화행정 기획실태조사〉 등의 11개 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국제 문화예술기구 지원〉, 〈해외 문예인 초청 사업〉 등 3개 사업은 1970년대부터 지속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1980년대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다.

1980년대 국제문화교류 분야 지원액은 총 19.2억 원이다. 이는 1970년대 국제문화교류 분야 지원액 8,800여만 원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이 10.2억(5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사업이 3.6억 원, 한국문화 해외 소개 사업이 2.9억 원, 국제교류 기반조성 사업이 2.4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연간 지원액을 보면, 1980년에는 0.6억 원이었으나 1981년 4.8억 원으로 급증한 후 1982년부터는 1~2억 원대를

[표 4-22] 1980년대 국제문화교류 분야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한국문화 해외 소개	한국문학 번역출판	-	-	-	33,120	42,121	88,843	29,390	19,124	31,981	49,088	293,667
문화 예술인 국제교류	문예인 해외연수 지원	-	62,923	-	13,463	13,950	21,000	21,000	21,000	28,000	28,000	209,336
	큐레이터 해외연수	-	-	-	-	-	-	15,000	5,000	-	7,000	27,000
	문화기관종사자 해외연수	-	-	-	-	-	-	-	20,000	20,000	29,993	69,993
	해외문예인 초청사업	6,256	994	9,166	7,634	3,534	3,000	5,500	5,570	3,381	7,325	52,360
	소계	6,256	63,917	9,166	21,097	17,484	24,000	41,500	51,570	51,381	72,318	358,689
문화예술 국제교류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49,552	394,828	83,499	48,807	18,030	20,400	44,832	99,999	66,781	62,123	888,851
	공연 교류활동 지원	-	-	-	-	-	-	-	-	-	133,986	133,986
	소계	49,552	394,828	83,499	48,807	18,030	20,400	44,832	99,999	66,781	196,109	1,022,837
국제 문화교류 기반조성	국제문화예술기구 지원	9,200	19,269	11,976	32,217	19,901	20,776	40,692	31,698	20,500	17,500	223,729
	해외문화행정기획 실태조사	-	-	-	-	-	-	-	-	-	20,000	20,000
	소계	9,200	19,269	11,976	32,217	19,901	20,776	40,692	31,698	20,500	37,500	243,729
합계		65,008	478,014	104,641	135,241	97,536	154,019	156,414	202,391	170,643	355,015	1,918,92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유지하였다. 1981년에는 연극 분야의 국제교류 활동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 한국문학 해외 소개 사업

외국어판 한국문학 소개책자 발간배포 사업이 1978년에 시작되었고, 1980년부터는 한국문학 번역 출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한국미술 소개자료 해외 배포 사업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 한국문화 해외 소개의 대표 사업은 〈한국문학 번역 출판〉이다. 문학 분야의 국제교류를 대표하는 〈한국문학 번역 출판〉 사업은 우리 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 및 해외 현지 출판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이 출판사업은 1992년까지 총 63권의 책을 해외 출판사에서 현지 출판했다. 번역 언어는 영어·프랑스어·독일어를 비롯해 러시아어·폴란드어·중국어 등으로 확대되었다.


韓國文學 해외소개 활발

金東里씨

黃順元씨

濠선 「現代 短篇選集」 이달 發刊

황순원 黃順元단편 「별과…」出刊

한국文學「해외진출」활기

徐廷柱·黃順元의 대표적 詩·단편등

각국언어로 번역 출간 '우리것 소개'

한국문학 번역 출판

1980년대부터 활발히 추진된 한국문학 번역 출판사업은 우리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0. 10. 2. 경향신문(좌), 1989. 5. 30. 매일경제(우))

[표 4-23] 한국문학작품집 번역출판 언어권별 현황(1980~1992)

(단위 : 권)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어	중국어	말레이어	폴란드어	계
작품 수	25	22	8	3	1	1	1	1	1	63

[표 4-24] 외국어판 한국문학 소개 책자 발간 현황(1978~1992)

(단위 : 권)

연도	장르	발간 건수	언어	연도	장르	발간 건수	언어
1978	시, 소설, 종합	3	영어	1986	종합	1	영어
1980	종합	1	영어	1987	시가	1	영어
1981	고전시가, 종합, 소설	3	영어	1988	단편소설	1	영어
1982	종합	1	영어	1989	단편소설	1	프랑스어
1983	시, 소설	2	영어	1990	시	1	프랑스어
1984	시가	1	영어	1991	종합	1	영어
1985	소설	1	영어	1992	종합	1	영어

또한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외국어판 한국문학 소개 책자 발간 배포〉 사업은 외국어판으로 한국문학 소개 책자를 자체적으로 제작, 국내외에 배포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 인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로 국내외 주요 도서관과 해외 한국학연구소, 관계 단체 및 번역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되며 번역출판과 연계하여 해외 저명 문예지에 한국 특집을 게재할 수 있도록 작품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한편 미술 분야에서도 한국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사업이 1986년부터 시행되었다. 〈한국미술 소개자료 해외 배포 사업〉은 한국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의 인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미술전시회 작품집을 세계 각국의 주요 미술관 및 화랑, 해외 미술 유관기관,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하였다. 사업 진행 과정은 심의위원 위촉, 소개자료 선정, 자료 접수, 영문안내서 제작, 해외 배포 순이었다. 1986년에는 한국화, 양화, 조각 및 기타 분야 단체전, 개인전 분야의 이경수 개인전 외 25종을 배포하였고, 1987년에는 오수환 개인전 외 52종을 미국의 구겐하임 등 세계 150개 화랑 및 미술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1986년부터는 〈한국학 연구자료 해외 배포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 한국문화예술 해외 소개가 활성화되었다. 이 사업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실시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자료를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해외 유관기관에 배포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역사에 대한 관심 유발과 인식 기반의 확대는 물론 문화교류 촉진을 도모하였고, 한국학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국문학 세미나 해외 개최 지원〉은 한국문학을 널리 소개하고 관련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학을 주제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80년대에는 서독, 스페인,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10회의 해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국제문화교류에서 중요한 교류 분야의 하나는 인적 교류이다. 예술인을 비롯한 문화계 전문가 해외 연수나 시찰, 외국 문화예술인 국내 초청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970년대부터 계속된 〈해외 문예인 초청 사업〉에는 5,2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1981년에 시작된 〈문예인 해외연수 지원〉에는 2.1억 원이 지원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큐레이터 해외연수〉에 2,700만 원, 〈문화기관 종사자 해외연수〉에 약 7,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문예인 해외연수 지원〉은 문예인 및 무대기술인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및 문화예술 동향과 정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주요 대상은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 분야의 문예인 및 무대기술인 등 다양한 장르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심사 후 연수비용을 지원하였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연수 실적을 보면 연수 지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이었고, 인원은 연간 3~4명, 10년간 33명이 연수를 마쳤다.

〈큐레이터 해외연수〉는 미술전시행사를 기획·관리하는 전문행정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1986년에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1988년을 제외한 1989년까지 세 차례 지원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3년 동안 연수자는 5명이었으며, 연수지역은 일본과 미국이었고, 지원액은 2,700만 원(1인당 500~700만 원)이었다.

〈문화기관 종사자 해외연수〉는 문화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견문 확대를 위하여 해외 유관

기관의 문화행정을 직접 견학하고 문화시설 등을 시찰토록 하는 것이다.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추진된 이 사업은 직원들의 해외 문화예술계 동향 파악과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에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약 7,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문인 해외시찰 지원〉은 국내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하는 문인들이 직접 해외를 시찰함으로써, 창작의 폭을 넓히고 좋은 소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다. 1981년에는 문인 31명이 중동, 유럽, 아시아를 시찰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1982년에는 문인 50명의 대만, 인도, 리비아, 요르단, 이라크 시찰을 지원하였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4년 동안 문인 153명의 해외시찰에 총 4.2억 원이 지원되었다.

〈문인 해외방문 연구활동 지원〉은 1983년에 시작된 사업이며, 국내 문인이 세계문단의 조류와 최신 정보를 수집하거나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출판을 위한 섭외 등 한국문학 발전 및 해외 소개를 위한 해외 방문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점 지원된 사업 중의 하나인 국제창작프로그램 참가사업은 국제창작프로그램(IWP) 문학국제교류행사(세계 각국 문인이 상호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여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창작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아이오아 대학에서 연례적으로 개최)에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의욕적이며 우수한 작가를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총 18명의 작가가 이 사업을 통해 파견되었다.

〈신진 번역인력 연구 연수〉는 한국문학 번역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 거주 중인 기성 번역가와 차세대 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장래성 있는 해외 신진학도를 일정 기간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문학 번역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3년부터 외국인 국내유학연구 사업으로 1987년까지 총 12명이 지원된 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1994년도부터 한국문학 번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서 신진번역가 지원을 하였다.

〈해외 문예인 초청 사업〉은 해외의 우수 문예인을 초청하고, 워크숍,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 문화예술인에게 전문지식과 최신 해외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뚜렷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예인,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극, 무용,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사업하였는데, 연극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외국저명문인 초청 지원〉은 외국의 저명한 비평가나 우수한 번역가 혹은 세계 주요 문예지 및 출판계의 영향력 있는 문인이나 관계자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를 마련하여, 해외 현지에서도 한국문학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외국 인사의 우리 문화 및 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내 학계 및 문단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기반을 확충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 사업으로 1982년에서 1997년까지 총 17명이 초청되었다.

3. 문화예술 국제교류

1980년대 국제문화교류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이다. 이 사업은 예술 전 분야에서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4년부터 시작되었다. 1974년 문학, 음악, 전통예술, 1975년 미술, 연극, 1978년 무용 분야의 교류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총 8.9억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1981년에는 제19차 ITI 총회 참가, 국제연극학회 학술회의 참가, CIOFF 구주예술제 참가, ASIAD 예술제 참가, 세계연극제 및 집행위원회 참가, 한국인형극전시회, 제5차 제3세계연극제 및 회의 개최, 제22회 전국민속경연대회 해외예술단 초청공연 등 연극 분야 교류 사업이 많았다.

1989년에는 〈공연 교류활동 지원〉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각 분야 공연예술단의 수준 높은 해외 공연활동과 외국 공연예술단체들의 초청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활동을 대상으로 한 교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교류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국제문화교류의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으로는 〈국제 문화예술기구 지원〉과 〈해외 문화행정 기획 실태조사〉가 있다.

[표 4-25] 1980년대 국제문화예술기구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단체 /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ICOM	-	-	20,000	13,634	6,901	7,061	5,692	-	-	-	53,288
CIOFF	-	8,269	-	840	-	-	-	-	-	-	9,109
ITI	3,200	3,200	3,000	3,500	3,500	3,500	3,500	3,500	5,000	8,000	39,900
PEN	6,000	7,800	8,376	14,243	9,500	10,215	31,500	28,198	15,500	9,500	140,832
합계	9,200	19,269	31,376	32,217	19,901	20,776	40,692	31,698	20,500	17,500	243,129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국제 문화예술기구 지원〉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의 한국본부 운영과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197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1980년대에 2.2억 원이 지원되었다. ICOM(세계박물관협의회) 아시아지부 활동비 지원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박물관 분야 교류 및 민간 외교 부문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ITI 한국본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다.

〈해외 문화행정기획 실태조사〉는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정기획단을 구성, 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1989년에 처음 외국지역 문화공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1989년에는 일본, 프랑스, 1990년에는 미국지역 중·소도시의 대표적 문화시설 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화공간이 전국적으로 확산·조성되어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시급한 국내 문화공간 운영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1991년에는 1989~1990년에 걸쳐 실시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3개국의 지역문화공간 운영 실태조사(국별 개관 및 종합해설 포함)를 수록한 『외국지역문화공간 운영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5. 국제적 문화예술축전

1980년대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연이어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시기이다. 국제체육행사에 맞추어 대규모 국제적 문화예술축전을 개최하였다.

86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86아시아경기대회 문화예술축전 포스터

〈86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은 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을 포함하여 8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모두 53일간에 걸쳐 다양한 행사가 전개되었다. 이 문화예술축전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주최하게 된 역사적 의의와 공산권을 포함한 미수교 국가들이 참가함으로써 지구촌 모두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아시아의 정신과 문화를 한껏 펼쳐 보인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행사에 참가한 선수, 관계자 및 관광객을 포함한 세계인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과 역사적 전통, 유서 깊은 유적지 등을 알림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새롭게 하였다.

문화예술 공연 장소로는 개막제 및 음악은 세종문화회관, 연극은 문예회관, 무용 및 국제 민속축제는 국립극장 대극장, 국악은 국립극장 소극장과 호암아트홀, 민속놀이는 서울놀이마당 등이 활용되었다. 야외무대인 아시아 선수촌, 동대문운동장, 서울놀이마당, 대학로 풍류마당에서도 가로예술제, 경축전야 대축제 등이 이어졌으며, 지방에서도 시도별 22개 시에서 성화봉송맞이 민속축전이 개최되었다.

〈86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은 17개 공연행사, 14개 전시행사, 1개 문학행사로 이루어졌다. 공연행사의 참가단체는 국내 108개 단체와 외국 11개국 15개 단체로 민속무용 9개, 교향악단 2개, 연극 2개, 합창단 1개, 오페라 1개 등 총 123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참가인원은 국내 출연자 5,250명, 외국 출연자 860명으로 모두 6,110명이었다. 전시행사는 국내 작가 1,252명, 외국작가 17개국 243명 등 1,495명이 참가하였고, 문예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축전 개막제, 연극제, 무용제, 음악제의 공연행사와 아시아 현대채묵화전, 성화봉송맞이 민속축전의 행사를 주관하였다.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포스터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50일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은 서울올림픽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동서문화의 만남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긍지를 높인 계기가 되었다.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문화예술계의 대거 참여이다.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의 열기는 사실상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몰고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들에 대한 관객의 호응이 높았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차단되어 있던 공산권 예술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쏟아져 들어와 서구에 편중된 우리의 외래문화 수용 태도에 균형감각을 갖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소련과 동유럽 단체의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참여는 단위 공연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올림픽이 비단 스포츠 경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문화올림픽으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에는 공연 분야 39개 외국단체를 포함하여 경축행사에 4개 외국단체가 참여하는 등 총 359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의 참가인원은 공연행사 5,511명(외국 1,870명), 전시행사 1,531명(외국 422명), 경축행사 21,771명(외국 106명)이며, 488회 공연, 24개 전시행사와 21개 경축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행사는 대한민국국악제, 영산제 등 6개의 전통공연행사와 라 스칼라 오페라단 공연 등 11개 음악행사, 서울국제연극제, 서울국제무용제와 한국영화주간 등 2개의 영화행사, 그리고 동서현대도예전 등의 전시행사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문예진흥원은 개막기념음악회, 라 스칼라 오페라단 공연, 서울국제연극제, 서울국제무용제의 공연행사, 동서현



로린 마젤, 라스칼라 오페라 기자회견
88문화올림픽에 참가한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페라단의 기자회견이 1988년 8월 13일 세종문화회관 그릴에서 개최되었다. 마에스트로 로린 마젤의 지휘로 푸치니의 〈투란도트〉를 공연하였다.

대도예전 등 대규모 행사를 주관하였다.

개원 초기에 해외 문예인 초청 사업과 국제문화예술기구 지원으로 시작된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은 1980년대 유례없는 경제발전으로 증대되는 국력 신장과 함께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증진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문예진흥원이 추진한 한국문학 해외 소개 사업,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국제적 문화예술축전 등 각종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은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가 1989년부터 시행된 관계로 1988년까지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열악한 국제교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추진되었음에도 문화적 이해와 소통 증진,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와 국제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은 서울올림픽을 단순히 체육행사로서만이 아니라 올림픽 개막 1개월 전(8. 17.~10. 5.)부터 대규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올림픽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하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국가, 세계 최빈국 이미지에서 신흥 경제선진국·문화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공산권 미수교국까지 참가한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문화의 소개를 통해 문화적 자긍심이 고조되어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7. 1980년대 문화시설 운영 및 발간사업의 추진과 성과


文化發展硏 稼動에 力點
德壽宮에 연수관 설치
「舞臺제작소」 부대화공 88公演작품 집중개발
文振院 올 주요事業計劃 확정
문화발전연구소가 들어설 덕수궁 석조전. 이연구소는 문화지표조사를 문화예술에 필요한연구조사를 맡는다.

문화발전연구소 설치
1987년 2월 25일 덕수궁 석조전에 문화예술 분야 정책개발과 조사연구를 위해 문화발전연구소를 설치하였다. 문화발전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의 산실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1994년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1987. 1. 31. 경향신문)

1980년대에 문예진흥원은 공연장과 전시장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조사·연구 및 발간 사업을 진행하였다. 문예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던 문화시설에는 신축한 문예회관(1981년 개관, 현 아르코예술극장)과 미술회관(1979년 개관, 현 아르코미술관), 예술자료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발간물로는 월간 『문화예술』(개원 당시 『문예진흥』)과 연간 자료집 『문예연감』이 있으며, 1987년 산하에 '문화발전연구소(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를 설치하여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예술 현장 조사 보고서를 다량 발간하였다.

1. 문화시설의 운영

문예회관의 운영


문예진흥원 文藝會館 개관

<관계인사들이 개관 테이프를 잡고있다. <가운데가 문예진흥원장 宋志英씨, 박측이 朴內務씨, 우측이 李原植씨>

문예회관 개관
송지영 문예진흥원장, 이은상, 곽종원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개관기념 테이프를 끊고 있다.
(1981. 4. 2. 매일경제)

1970년대에 운영하던 '연극인회관(충무로 소재)'을 대신하여 1981년 4월 1일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옆에 '문예회관'을 신축 개관하였다. 문예회관에는 709석 규모의 대극장과 200석 규모의 소극장이 있었으며,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1980년대 '대학로 연극'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개관 첫해를 포함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대관일수를 보면, 대극장은 2,452일(연평균 272.4일), 소극장은 2,587일(연평균 287.4일)로 매우 높은 가동률을 보였다. 대극장에서의 공연 횟수는 3,927회(연평균 436.3회), 소극장은 4,640회(연평균 515.6회)였다. 총관객 수는 179만 4,621명이었으며, 대극장은 134만 8,372명, 소극장은 44만 6,249명이었다. 공연 1회당 관객 수는 대극장은 457명(객석 점유율 64.5%), 소극장은 96.2명(객석 점유율 48.1%)이었다.

[표 4-26] 1981~1989년 문예회관 운영 현황

(단위 : 일, 회, 명)

구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대관일수	대극장	241	214	276	264	293	304	296	292	272	2,452
	소극장	185	318	315	256	296	302	291	316	308	2,587
	소계	426	532	591	520	589	606	587	608	580	5,039
공연횟수	대극장	436	346	492	445	469	465	439	435	400	3,927
	소극장	327	549	460	477	548	575	556	592	556	4,640
	소계	763	895	952	922	1,017	1,040	995	1,027	956	8,567
관람객수	대극장	137,269	114,658	169,258	143,137	164,132	175,919	170,796	151,232	121,971	1,348,372
	소극장	28,339	47,000	30,905	46,095	53,809	51,105	66,846	70,291	51,859	446,249
	소계	165,608	161,658	200,163	189,232	217,941	227,024	237,642	221,523	173,830	1,794,621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4-27] 1981~1989년 문예회관 대관수입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대극장	소극장	연습실	잡수입	계
1981	40,580	7,399	1,542	536	50,057
1982	35,321	12,423	2,772	139	50,655
1983	48,176	10,595	3,618	380	62,769
1984	45,254	11,232	3,452	200	60,138
1985	47,278	13,020	3,528	661	64,487
1986	47,330	12,990	3,428	350	64,098
1987	49,592	13,704	4,534	410	68,240
1988	63,360	15,532	4,997	294	84,183
1989	57,520	16,081	3,699	-	77,300
합계	434,411	112,976	31,570	2,970	581,927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문예회관 대관수입은 총 5.8억 원이었으며, 대극장 4.3억 원, 소극장 1.1억 원, 연습실 0.3억 원이었다. 1대관일당으로 보면 대극장은 17.7만 원이었으며, 소극장은 4.4만 원이었다.

미술회관의 운영

문예회관에 앞서 1979년 5월 21일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옆에 928m²의 전시실 갖춘 미술회관이 개관되었다. 미술회관은 문예회관과 마찬가지로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 미술회관의


美術의 중심지 東崇洞으로


舊 서울文理大자리에 美術會館 新築… 21일부터 開館기념전

미술회관 개관
1974년부터 임차 운영하던 관훈동 미술회관이 1979년 5월 21일 동숭동에 새로운 미술회관이 신축 개관함에 따라 이전 운영하게 된다.
(1979. 1. 24. 경향신문(좌), 1979. 5. 18. 동아일보(우))

[표 4-28] 1980년대 미술회관 운영 현황

(단위 : 일, 건, 명, 천 원)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대관일 수		275	258	294	280	273	231	266	294	273	277	2,721
대관 건수	단체	60	59	53	38	50	44	40	40	45	38	467
	개인	29	25	21	25	25	16	22	31	18	28	240
관람객 수		71,522	111,964	124,722	132,883	128,265	170,353	220,694	255,007	230,674	191,758	1,637,842
대관 수입		21,399	21,252	28,148	26,409	27,518	31,570	36,977	40,180	52,136	54,292	339,881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대관일 수는 2,721일로, 연평균 272.1일이었다. 대관 건수는 단체 467건, 개인 240건으로 총 707건(연평균 70.7건)이었다. 전시 회당 대관일 수는 3.8일이었다. 10년간 전시 관람객 수는 163만 7,842명으로 연평균 16만 3,784.2명이었다. 1980년대 초 10만 명 내외에서 1980년대 20만 명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관 수입도 10년간 3.4억 원으로, 1980년 2,000만 원대에서 1989년 5,000만 원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문예진흥원에서는 1985년 '마로니에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문예회관, 미술회관을 찾는 문화예술인과 일반 관람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야외 문화공간으로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조각 작품을 선별 전시하고, 도시 기능의 현대화를 기한다는 목적하에 마로니에 조각공원을 조성했다. 마로니에 조각공원은 총 1,910평으로 조각공원 1,233평, 어린이 놀이터 464평, 기타 부지 213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로니에 조각공원에는 작가 29명의 작품(작가당 1개 작품), 총 29개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다.

'예술자료관'의 운영

1979년 5월 21일 개관한 미술회관 3층에는 도서자료실 165.3m²(50평), 시청각자료실 152.1m²(46평) 규모의 '자료관'이 설치되었다. 이후 1987년 2월 25일 덕수궁에 문화발전연구소를 개소하면서 자료관을 확대 이전했다. 문화발전연구소 내 자료관은 도서실, 시청각실, 전산실, 사진실, 영상·음악 감상실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1993년 2월 15일 '예술자료관'이 정식 출범하기까지 도서자료와 정보자료로 나누어 자료 수집 및 보존 사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새해特輯 무료 음악·영상 감상회

文藝振興院, 2월까지 두달간 開放宣言

문예진흥원은 신년특집 음악·영상감상회를 1·2월 여수 중문화발전연구소 자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감상회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및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소정기음악감상회=월~금요일 낮12시반~하오2시, 토요일 하오1시~3시, 일요일하오1~3시」.

고전음악중 장르별 베스트10을 선정, 클래트리스크로 소개한다. 월요일 교향곡, 화요일 협주곡, 수요일 관현악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기악독주, 토요일 성악·오페라로 매일프로그램이 바뀐다. 일요일은 애청곡및 소품등 친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소정기영상감상회=토요일하오 하오1~3시, 일요일 하오1~3시.

토요일은 세익스피어의 드라마를 영상으로 감상하게된다. 「베토나의 무신사」「말괄량이 길들이기」등 BBC가 제작한 7편이 방영된다. 9일 프로그램은 「헨리5세」.

일요일은「로미오와 줄리엣」「지젤」(발레),「토스카」「트로이인」(오페라),「미텔란젤로」(영상미술)등 총8편이 매주 한편씩 상영된다. 10일의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오페라「마술」.

(전화문의 762-5231~7 ·2380 ·378)

지젤(발레) 토스카(오페라)

예술자료관 예술감상회 개최

1987년 덕수궁 석조전에 문화발전연구소가 개소하면서 자리 잡은 예술자료관은 정기음악감상회, 정기영상감상회 등을 개최하며 일반인에게 평일과 주말에 무료 개방하여 호응을 얻었다.

(1988. 1. 8. 경향신문)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 공간 운영사업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시설 건립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예술 공간 운영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 행사나 사업 지원과 달리 문화예술시설 건립에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하여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 신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이 1980년대에 성공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면서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극장 등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주를 이루던 문화예술공간은 1979년 미술회관과 예술자료관 개관, 1981년 문예회관 개관, 1984년 마로니에공원 조각공원 조성 등이 잇달아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4월 개관한 문예회관은 대극장 709석, 소극장 200석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연극, 무용, 음악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발표무대를 제공해 공연예술인의 창작의욕을 크게 고취시키고 공연예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수한 극장 기자재 제공과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조명·음향 스태프 지원을 통해 작품의 예술적인 승화작업을 적극 지원하여 공연예술 작품 수준은 물론 감상 인구의 질적·양적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중심시설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미술회관은 자체 기획전 개최를 비롯해 조사연구사업, 한국미술 소개 자료 해외 배포사업, 미술작품 소장 및 관리, 마로니에 조각공원 조성 등을 통해 창작 역량 증진과 연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저렴한 사용료로 전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신진작가,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 등 창작 환경이 어려운 미술작가와 미술단체 등에 연중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 창작 증진 및 미술 애호 인구의 확대에 크게 공헌하였다.

예술자료원은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아카이브로서 1979년 5월 개원한 이래 국내외 전문도서, 문헌자료와 영상·음향자료의 수집·제작·정리·보존 및 열람 서비스, 문화예술 정보화 등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조사연구 및 발간 사업

1987년 문예진흥원 산하에 '문화발전연구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조사연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문화발전연구소의 개설과 함께 국민문화 통계조사사업이 착수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중·장기 문화정책의 개발, 예술행정에 대한 해외의 문화정책 자료 수집과 발간 등 각종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 연구소는 1994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독립될 때까지 문화정책 조사·연구의 본산으로서 기능하였다. 또한 1970년대부터 발간을 시작한 『문예연감』과 월보 『문예진흥』(월간 『문화예술』) 발간 사업을 지속하였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간 조사·연구 사업에 2.6억 원, 자료 발간 사업에 4.5억 원 등 총 7.1억 원이 지출되었다. 연도별 지출을 보면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간 1.2억 원 정도가 지출되다가 1989년 3.3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에 따른 〈북한문화예술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지출이 신규로 1.5억 원가량 발생했기 때문이다.

[표 4-29] 1980년대 조사·연구 및 발간 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구분		1986	1987	1988	1989	계
조사·연구 사업	문화정책 연구	-	18,858	-	56,210	75,068
	문화통계조사	19,757	12,453	-	-	32,210
	북한문화예술 연구	-	-	-	154,531	154,531
	소계	19,757	31,311	-	210,741	261,809
자료 발간 사업	문예연감 발간	25,514	39,800	43,421	31,464	140,199
	월간 문화예술 발간	38,517	49,051	57,791	66,835	212,194
	문화정책자료 발간	42,487	-	26,161	24,112	92,760
	소계	106,518	88,851	127,373	122,411	445,153
합계		126,275	120,162	127,373	333,152	706,96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조사·연구 사업

문화발전연구소 개설로 본격화된 조사·연구 사업은 〈문화정책 연구〉, 〈문화통계조사〉, 〈북한문화예술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정책 연구〉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8년간 총 51건을 기록했다. 연구활동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93년으로 10건이었고, 다음은 1988년 9건, 1990년과 1992년이 8건으로 집계되었다. 연구활동이 가장 적었던 해는 1989년으로, 이 해에는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연구로 인해 총 4건의 연구에 머물렀다.

〈문화통계조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실태조사와 인식조사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문화예술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된 이 사업은 1994년까지 총 11건의 조사연구가 착수되었고, 분야별로는 향수 실태 2건, 예술인 실태 2건, 단체조사 3건, 소집단 2건, 자료집 2건, 지표조사 1건이었다.

〈북한문화예술 연구〉는 1987년부터 진행되던 〈북한 및 동구권 국가 문화예술 연구〉로, 1989년부터 북한 문화정책과 문예이론 연구, 북한문화예술계 현상 진단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문화적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북한문화예술 자료집, 북한 및 공산권 문화예술 자료집, 북한문화 정책정보 자료집, 북한문화예술 실상 소개 책자, 연구보고서, 『북한문화연구』(1993년 창간) 등을 발간·배포하였고, 북한 및 구 공산권 관련 특수영상자료실을 관리·운영하였다. 1994년 문화정책개발원이 독립하면서 이 사업은 문화정책개발원에 이관되었다.

[표 4-30] 1980년대 문화통계조사 시행 내역

연도	보고서명	연구단체
1986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7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실태조사연구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1988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문화예술단체 현황조사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1989	문화예술 통계자료집	자체사업



藝術人70% '생활위해 職場다닌다'

文振院문화발전硏 각분야 1,873명대상 實態조사

순수예술활동 통한 收入 月30萬원 미만이 65%나

72%가 "職業만족"…大卒이상 學歷 85%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조사연구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현재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는 이 조사의 흥미로운 점은 1989년 초기 조사 결과로 알려진 문화예술인의 수입이나 지위 등이 35여 년이 지난 현재의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1989. 4. 20. 경향신문)



北韓문화예술叢書 펴낸다

이달부터 演劇·미술등 7개분야 9권

30代 젊은學者 집필- 同質性회복에 기여

북한문화예술 연구
북한 및 공산권자료 공개 확대, 납·월북작가 해방 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 등 통일문화 기반자료 조사연구 및 개방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를 주축으로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문예진흥원은 1973년 개원과 동시에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 및 승화시키기 위한 각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987년 문화발전연구소가 개소됨으로써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는 문화정책과 행정, 예술창작 및 보급, 문화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과제를 개발, 연구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소 개소와 함께 국민문화 통계조사 사업이 착수되어 한국문화 전 영역에 대한 잠재력과 문화 발전의 정책지표가 되는 기본통계조사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개발, 예술행정에 대한 해외의 문화정책 자료 수집 및 발간 등

각종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 특히 1988년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로 시작된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1991년 통계청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조사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자료 발간 사업

『문예연감』은 197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내용은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 등 1년 동안 각 분야의 활동량을 수집, 개관과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으로, 한국문화예술의 역량을 파악하고 문화예술 활동일지를 집약 정리함으로써 한 해 동안의 모든 문화 정보가 집대성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월간 『문화예술』은 1974년 월보 『문예진흥』으로 창간되어 이후 제호를 변경 발간하고 있다. 각종 예술 정보의 수록과 한국 예술사의 현안을 다루는 예술리뷰, 문화정책 자료의 수록,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역량의 점검, 해외 문예 정보의 신속한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월간 『문화예술』은 위원회 전환 이후에는 2006년 격주로 인터넷 DB 형식으로 〈아르코 웹진〉으로 발간하였고(2006~2017), 2022년 11월부터는 〈A SQUAR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격월간 웹진을 발간하고 있다.

〈문화정책자료 발간〉 사업은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한 『문화예술논총』 발간사업과 외국의 문화정책 사례 소개를 주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자료집』 발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논총』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총 5집이 발간되었고, 『문화예술자료집』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총 44건이 발간되었다. 『문화예술논총』과 『문화예술자료집』 발간 사업은 1994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독립에 따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으로 이관되었다.

[표 4-31] 1980년대 『문예연감』 게재 실태조사 목록

연도	제목	분야	비고
1980년 도판	국학 분야 학술활동 현황	국학·전통자료	
	주요 전시회 실태	미술자료	
	연극공연 실태	공연예술자료	
	국제교류 현황(1976년~1979년)	-	21면
1981년 도판	학술발표회 실태	국학·전통자료	
	주요 박물관 실태	국학·전통자료	
	주요 음악연주 실태	음악자료	
	연극공연 실태	공연예술자료	
1982년 도판	학술발표회 실태	국학·전통자료	
	주요 전시장 및 전시회 실태	미술자료	
	주요 음악연주 실태	음악자료	
	연극공연 실태	공연예술자료	
1983년 도판	학술발표회 실태	국학·전통자료	
	동인지운동의 현황과 전망	문학자료	
	시낭송회의 현황과 전망	문학자료	
	주요 전시장 및 전시회 실태	미술자료	
	주요음악연주회 실태	음악자료	
	연극공연 실태	공연예술자료	
1984년 도판	학술발표회 실태	국학·전통자료	
	한국지방지 발간현황과 그 성격	국학·전통자료	
	각 문학단체의 연간세미나	문학자료	
	'심포지엄' 활동 현황과 그 전개	-	
	전시회 현황	미술자료	
	교향악단 현황 및 연주실태	음악자료	
	연극공연 실태	공연예술자료	
1985년 도판	1980년대 한국 문학동인지 운동의 현황과 분석	문학자료	
	동인지 운동의 현황	문학자료	
	화랑·미술관 현황	미술자료	
	해방후 오페라 공연 실태	음악자료	
	연극공연 실태	공연예술자료	
	문화예술 분야 신간도서 발행 실태	문화일반자료	
1986년 도판	한국의 문화예술상 현황분석	-	
	1986 미술행사 현황분석	미술자료	
	1986 미술상 현황분석	미술자료	
	미술단체 현황분석	미술자료	
	1986 주요 음악행사 현황분석	음악자료	
	1986 음악상 현황분석	음악자료	
	음악단체 현황분석	음악자료	
	1986 연극공연 현황분석	공연예술자료	
	1986 무용공연 현황분석	공연예술자료	
	공연예술상 현황분석	공연예술자료	
	공연예술단체 현황분석	공연예술자료	
	문예회관 유료관람객 실태분석	-	5면
	1986 문화일반행사 현황분석	문화일반자료	

연도	제목	분야	비고
1986년 도판	문화일반 분야상 현황분석	문화일반자료	
	문화일반 분야 수상현황	문화일반자료	
	문화일반단체 현황분석	문화일반자료	
	1986 도서발행 실태분석	-	15면
	해외한국학연구 현황분석	-	15면
	문화예술단체 현황분석	-	3면
1987년 도판	1987 문학행사 현황분석	문학자료	
	1987 문학상 현황분석	문학자료	
	1987 미술행사 현황분석	미술자료	
	1987 미술상수상자 현황분석	미술자료	
	1987 주요 음악행사 현황분석	음악자료	
	1987 음악상 현황분석	음악자료	
	1987 공연예술행사 현황분석	공연예술자료	
	1987 공연예술상 현황분석	공연예술자료	
	1987 문화일반행사 현황분석	문화일반자료	
	문화일반 분야상 현황분석	문화일반자료	
	1987 도서출판 실태분석	-	25면
	1987 국제교류 현황분석	-	17면
1988년 도판	문학행사 현황분석	문학기획자료	
	문학동인지 실태조사	문학기획자료	
	미술행사 현황분석	미술기획자료	
	음악행사 현황분석	음악기획자료	
	공연예술행사 현황분석	공연예술기획자료	
	유료관람객 현황실태조사	공연예술기획자료	
	문화일반행사	문화일반기록자료	
	1988년 문화예술축전	문화일반기록자료	
	1988년 향토축제실태조사	문화일반기록자료	
	1988년 문화강좌실태조사	문화일반기록자료	
	1988년 도서발행 및 수상 선정도서 실태조사	문화일반기록자료	
1989년 도판	문학행사 현황분석	문학기획자료	
	국내문예지 발행현황 분석	문학기획자료	
	문학동인지 실태조사	문학기획자료	
	미술행사 현황분석	미술기획자료	
	국악행사 현황분석	음악기획자료	
	음악행사 현황분석	음악기획자료	
	연극행사 현황분석	공연예술기획자료	
	무용행사 현황분석	공연예술기획자료	
	국내 주요 예술공간 실태조사	공연예술기획자료	
	문화일반행사 현황분석	문화일반기획자료	
	향토축제 및 민속축제 실태조사	문화일반기획자료	
	영화 분야 현황조사	문화일반기획자료	
	일반도서 발행 실태조사	문화일반기획자료	
	1988학년도 예술 분야 학위논문 실태분석	문화일반기획자료	

[표 4-32] 1980년대 『문화예술자료집』 발간 사업 내역

연도(건)	자료명
1987 (9)	미국국립예술기금(NEA)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립예술기금의 지원실제(미국) 해외국제교류기관 스미소니언협회의 지원실제(미국) 대영제국 예술평의회 일본의 문화행정 미술관 큐레이터의 직능과 교과과정 문화촉매요원의 교육 I (EC 제국의 사례) 문화촉매요원의 교육 II (캐나다, 아시아제국 및 기타 사례)
1988 (12)	호주평의회(Australia Council) 프랑스의 문화홍보성 미 공공시설청(GSA)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미국인문기금의 지원 실제 캐나다 평의회 아시아의 문화기관 NEA의 음악 지원 그로그램과 문학 지원 프로그램 자선행위, 예술, 공공정책 예술과 그 경제적 영향 공연예술의 가격 경영 캐나다의 복권과 예술진흥 문화예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1989 (5)	각국의 예술지원제도 비교 사회발전과 문화 문화재원 확보정책 사례 미국의 지역예술기구(ROs) 문화정책과 예술의 재원개발 모델

PART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史

1990년대,

5. 문화향수 지원 확대와 우리문화의 세계화

1. 199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2. 199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3. 199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4. 199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5. 199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6. 199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7. 1990년대 문화시설 운영 및 발간사업의 추진과 성과

1. 199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1990년대는 제6공화국(1988. 2.~1993. 2.) 후반기와 문민정부(1993. 2.~1998. 2.), 국민의정부(1998. 2.~2003. 2.) 전반기에 걸쳐 있어 정책 기조의 변화가 많았던 시기이다. 제6공화국이 3년째를 맞이하면서 1990년 1월 문화 분야 전담 독립행정부처인 문화부가 탄생하고, 생활문화국이 독립부서로 신설되면서 생활문화를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제6공화국[1] 노태우 정부는 문화부의 신설과 함께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1999)을 수립하였다.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가 주도하여 수립한 이 계획은 국민의 문화 향수권과 참여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기존의 창조자 중심에서 수용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이념을 제시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문화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다섯 가지 문화적 비전을 '틀'이라는 용어로 제시했다.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 갈등 구조를 푸는

1. 정부를 구분할 때 제○공화국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통치 구조)의 변화다. 단순한 개헌만으로는 공화국이 바뀌지 않는다. 제6공화국은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8명의 대통령이 취임했고,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체제다. 그동안 통치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기에 여전히 제6공화국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6공화국에서는 정부의 명칭에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발전 10개년계획
1990년대의 문화발전 장기계획으로서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연구 내용이 토대가 되었다. 문화부 독립, 예술종합학교 설립, 국책문화정책 연구기관 설립, 문화예술 통계 개발, 문화예술의 해, 이달의 문화인물 현창 등 우리 문화정책에 큰 획을 긋는 과제들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문화의 바람개비
문화부 신설 이후 두 번째로 맞는 문화의 날 행사에서 문화의 바람개비로 상징되는 문화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캠페인이 발표되었다. 문예진흥원은 문화학교 운영, 생활문화 활성화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화합문화'의 틀,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민족문화'의 틀, 후기산업 시대에 적응하는 '개방문화'의 틀, 남북한 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통일문화'의 틀 등이다.

제6공화국은 88서울올림픽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갖게 된 나라 간 문화교류에 대한 자신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문화 향수권과 참여권의 신장을 문화정책 이념으로 추구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문화적 감성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문화 향수와 참여 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전개한 문화가족운동, 생활 속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등이다.

소외지역·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순회사업, 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했던 한국문화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이 이때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이후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정부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 균형이 강조되면서 문화 향수·참여 중심의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제6공화국은 민족통일을 위한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일문화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평양, 미국, 일본, 중국, 소련(당시) 등지에서 민간 주도의 남북 문화교류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北韓연구「시리즈物」출간 활기
出版
정치 경제 언어 예술등 各분야망라
原典충실 객관적 입장서 記述 노력

북한문화예술 소개 책자 발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기획으로 출간된 북한연구서 시리즈『북한문화예술의 이해』(1990. 7. 3. 동아일보)


「문화통장」을 만듭시다
한일은행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29일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한 「문화통장갖기 사인회」에서 시민들이 통장에 서명하고 있다. 문화통장에 가입하면 공연장 입장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명배기자>

문화사랑통장 갖기 캠페인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와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문예진흥원 주최로 대학로에서 일반 시민 대상 '문화사랑통장 갖기 운동'을 벌였다.
(1996. 5. 30. 경향신문)

'세계화를 향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했던 문민정부는 정권 발족 직후인 1993년 3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시켜 문화체육부를 신설하였다. 1994년 5월에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12월에는 생활문화국을 문화정책국에 통폐합시켰다. 또한 관광업무가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과 문화의 접목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민정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 내용은 〈문화창달 5개년계획〉(1993~1997)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은 "곁에 있고 함께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 나는 문화"라는 구호 아래, 문화창달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선진국 수준의 문화복지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문민정부는 문화 창조력 제고와 문화 환경 개선('규제에서 자율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중앙에서 지역으로'), 문화복지의 균점화('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문화산업 개발과 기업문화의 활성화, 민족정기의 확립, 한겨레 문화의 조성('분단에서 통일로'), 우리문화의 세계화('보다 넓은 세계로') 등을 중요한 실천 과제로 삼았다. 문민정부는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동시에, 창조와 향수의 두 측면에서 문화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창조력의 상승을 가져오고자 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이 싹트고, 이것이 새로운 홍보전략으로서 기업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문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지원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 4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현 한국메세나협회)의 창립을 통해 그 활동이 더 조직화되었는데, 문예진흥원은 이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한편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지에서 지역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1997년 7월 경기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 지역문화재단이 경쟁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예진흥원은 1999년부터 지역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문예활동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후 지역문화사업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1984~1998년에 걸친 지방문예진흥기금 종자금 지원과 1999년부터 시작된 문예진흥기금 일부 지원 예산의 지방 이관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각 정부에서 지역문화 진흥정책은 가장 중요한 문화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었다. 국민의정부 문화정책인 〈새 문화관광 정책〉(1998~2002)에서도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를 내세우고 있다.


大田
京畿
仁川
「문화 地自制시대」를 연다
地方化
中央종속 벗고「독특한 鄕薰」개척

지방자치제 시행과 지역문화진흥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전국지방문예회관 건립 지원,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 등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90. 1. 6. 경향신문)

2. 199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문학작품 연간선집 발간 배포
문예지와 동인지에 한 해 동안 수록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6권 1질로 총 3,000부를 제작, 전국 공공도서관 마을문고 등에 배포하는 문학작품 연간선집 발간 배포 사업을 벌였다.

제6공화국은 생활문화의 확산, 통일문화의 기반 조성, 지방문화의 균점화를, 문민정부는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족정기의 확립, 문화산업 육성을, 국민의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의 중흥과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각각의 핵심 문화정책으로 설정했다. 이와 같이 각 정부는 문화발전계획을 통해 많은 정책과 전략사업을 개발했고, 문예진흥원은 정부 문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시행했다. 특히 이 시기부터 기금지원 성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목표지향적인 기금관리를 펼쳐 나갔다.

한편, 지원제도 자체가 사업 수는 많으나 지원금 규모가 작아 지원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예술계의 여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문예진흥원은 음악, 연극, 무용 등 나열식 소액 다건사업을 정비하게 된다. 유사사업을 공연예술, 전시예술, 전통예술 등 장르별로 통폐합하고, 우수기획공연, 우수기획미술지원, 우수기획사업, 우수문화축제지원 등 집중 지원사업의 규모를 키워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문예진흥 기반 조성 사업이 강화되었다. 창작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 방향의 재정립 차원에서 문학작품 연간선집 편찬·배포, 내 고장 문학인 기념사업 지원, 문학창작 소재 발굴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했다. 1990년대(1990~1999)에 문학 분야에 투입한 기금사업비는 2,140건에 42억 8,741만 4,000원이다. 1990년대 시각예술 분야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전성기와 함께 미술관과 화랑이 급증하고 단체와 그룹 전시활동도 1980년대에 비해 건수 대비 3배가량 늘어났다. 또한, 1995년 '미술의 해'와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계기로 세계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이 유입되어 시각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도 확대되었다. 1990년대 시각예술 분야 지원 건수는 812건으로, 34억 9,032만 1,000원을 지원했다.

1990년대 공연예술 분야는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중심의 지원 체제로 추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우수공연 지원, 관객 개발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등 공연예술 통합 분야 사업에 53억 2,732만 9,000원(275건)을 지원하였다. 음악, 연극, 무용 등 장르별 사업 패턴은 비슷하다. 먼저 해당 분야 공연과 창작, 그리고 연구 지원은 일반적인 소액 다건사업이다. 이외에는 분야별 대표적인 행사, 대한민국작곡상, 서울음악제, 대한민국음악제,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젊은 춤꾼들의 무용잔치 등에 대한 지정형 내지 고착형 지원이 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1990년대에 음악 분야에 23억 3,135만 8,000원(519건), 연극 분야에 32억 8,125만 1,000원(336건), 무용 분야에 34억 8,236만 원(385건)을 지원했다.

1991년에는 '연극·영화의 해'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관객 지원제도인 '사랑티켓'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관객층 저변 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92년 '춤의 해'에는 이후 지역무용 활성화의 전진기지가 된 《전국무용제》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1990년대 초반 전통예술 분야 지원사업은 전통국악, 전통연극, 전통무용을 단순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다가, 1993년경부터 재창조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연주단체와 전통예술 공연단체의 창작공연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전통공연예술,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한민국국악제, 전통예술 연구 및 보존, 전통예술기능 보급활동 등 지원에 51억 1,505만 3,000원(571건)을 지원했다.


'91년 극영화의 해 演劇부문 예산
14억1천2백만원 책정
집행위원회 사업계획 확정
중장기·기초·91년 사업으로 구분
내달 27일 개막축전 거의 매월 행사 추진
창작 희곡 대표작 40편 선정 공연 권장도

연극인구 저변확대 이룩해
91년대 추경산
1991 연극영화의 해

문화예술의 해 지원사업
1991년 '연극영화의 해'를 시작으로, 매해 문화예술의 특정 장르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문화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문화예술의 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1년 '연극영화의 해'에는 연극 관객 저변 확대를 위해 신규로 추진된 관람료 할인제도인 '사랑티켓'(관객 개발 지원사업)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1991. 2. 18. 매일경제(좌), 1991. 12. 23. 동아일보(우))

1990년대 초반,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1991년 '연극영화의 해'를 시작으로, 1992년 '춤의 해', 1993년 '책의 해', 1994년 '국악의 해', 1995년 '미술의 해', 1996년 '문학의 해', 1997년 '문화유산의 해', 1998년 '사진영상의 해',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1990년대 예술 일반 분야에는 총 1,164억 5,325만 8,000원(529건)의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지원했다. 그중에서 모금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영화진흥지원 규모가 864억 8,501만 2,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원이 92억 500만 원, '문화예술의 해' 지원이 88억 2,544만 8,000원, 예총 지원이 61억 6,945만 7,000원 등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문화향수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이에 대한 지원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 규모는 물론 대상도 확대되었다. 1990년대 문화향수 분야에 총 153억 9,390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지역문화 육성 등 실질적인 문화향수 사업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한편 1990년대 지역문화 육성, 활성화 정책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지역문화시설(공간) 확충,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역예술행사,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활동 등에 364억 648만 6,000원을 지원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소규모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문예진흥 사업 지원금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은 한민족의 우수성과 독창적인 의식 세계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더불어 국제교류 환경에 진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양 문화권의 중심적 지위 확보와 한국문화의 세계적 광역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대 국제문화교류 지원에는 141억 4,150만 8,000원을 투입했다. 한편 1987년 2월에 설립한 문화발전연구소를 모태로 1994년 7월 한국문화정책연구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분리,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문화 통계조사, 기본통계조사작업 등의 조사와 문화정책연구과제, 조사연구사업운영, 외국문화정책연구, 문화통계조사, 북한문화예술연구 등 연구·발간 사업이 모두 이관되었다. 1990년대에 조사연구와 발간 사업에 자체 투입한 기금사업비는 총 39억 6,228만 8,000원이다.

3. 199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1. 문학 분야

1990년대는 국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소박한 수준에서나마 직접 문화 창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는 작가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창작 소재 개발을 통해 우리 문학을 세계화해 나가야 할 과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1990년대에 신설되었다. 〈문학작품 연간선집 편찬 배포 지원〉(1990~2001), 〈문학작품 창작지원〉(1990~1992), 〈내 고장 문학인 기념사업지원〉(1993~1995), 〈문학창작소재 발굴지원〉(1993~1999) 등이다. 이외에 기금사업 초창기부터 1990년대 이후까지 계속 시행해 온 사업에는 〈문학조사연구지원〉(1974~현재), 〈동인지 발간지원〉(1979~1999), 〈문학작품집 발간지원〉(1975~현재), 〈대한민국문학상〉(1976~1992) 등이 있다. 1990년대 문학 분야 진흥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42억 8,741만 4,000원으로 지원 건수는 2,140건이다.

문학인구 저변 확대와 창작 소재의 발굴

〈문학작품 연간선집 편찬 배포 지원〉(1990~2001)은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다섯 개 장르별로 작품선집을 발간하여 국공립도서관, 마을문고, 한국

[표 5-1] 1990년대 문학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대한민국문학상	34,693 (1)	33,657 (1)	38,150 (1)	-	-	-	-	-	-	-	106,500 (3)
문학작품집 발간지원	56,676 (45)	53,208 (51)	19,000 (19)	19,900 (20)	45,000 (30)	57,000 (38)	96,000 (29)	183,400 (60)	194,900 (62)	193,700 (60)	918,784 (414)
동인지 발간지원	101,500 (145)	103,600 (148)	67,200 (96)	69,300 (99)	100,000 (100)	95,000 (95)	100,000 (100)	127,200 (98)	147,000 (98)	45,000 (45)	955,800 (1,024)
문학조사연구지원	69,600 (31)	65,700 (28)	69,700 (25)	69,700 (27)	78,000 (30)	79,500 (28)	98,000 (27)	155,177 (27)	149,000 (24)	162,000 (25)	996,377 (272)
문학작품창작지원	188,387 (100)	153,681 (100)	96,436 (50)	-	-	-	-	-	-	-	438,504 (250)
문학작품 연간선집 편찬배포	56,676 (1)	17,731 (1)	41,658 (1)	69,181 (1)	94,352 (1)	84,119 (1)	91,447 (1)	59,756 (1)	-	103,720 (1)	618,640 (9)
문학창작소재 개발	-	22,000 (99)	-	-	-	-	-	-	-	-	22,000 (99)
내 고장 문학인기념	-	-	10,500 (4)	13,000 (7)	17,500 (10)	18,000 (11)	-	-	-	-	59,000 (32)
문학창작소재 발굴	-	-	19,000 (3)	22,831 (5)	29,000 (6)	28,400 (6)	15,978 (4)	36,600 (8)	-	20,000 (5)	171,809 (37)
합계	507,532 (323)	449,577 (428)	361,644 (199)	263,912 (159)	363,852 (177)	362,019 (179)	401,425 (161)	562,133 (194)	490,900 (184)	524,420 (136)	4,287,414 (2,140)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문화원 등에 무료 배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5년 차인 1994년에는 『한국문학선집』을 발간, 전국의 각급 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작가와 문학 애호가에게 1990년대 우리 문학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부터(1998년 제외) 1999년까지 6억 1,864만 원을 지원했다.

〈내 고장 문학인 기념사업지원〉(1992~1995)의 주요 사업 내용은 내 고장 문인에 대한 추모행사, 문집 발간, 생가 보존이나 기념관 조성, 생가·연고지 등에 표징 설치 등 다양하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지역주민의 관심과 추진단체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신설 4년 만에 중단하였다. 4년 동안 32건에 5,900만 원(건당 평균 184만 원)을 지원했다.

〈동인지 발간지원〉(1979~1999)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동인의 창작 활성화를 통해 향토문학의 발전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총 4집 이상의 동인지 발간 실적이 있는 전문 문학동인 단체를 대상으로, 연속 4회 지원으로 제한했다.


文學소재 해외동포에 눈돌린다
호름진흥원 「現地조사 지원사업」 제정
蘇聯 中國등 韓人거주지 답사
2달이상 체류 千萬원까지 보조

문학창작소재 발굴지원
문학인에게 해외조사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문학 소재 발굴과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문학창작소재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 민족의 이민·이주사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 해외지역을 우선하여 문인을 파견, 그들의 체험과 조사 내용을 작품에 반영하도록 체재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하였다.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총 1,565건, 12억 4,280만 원(평균 79만 원) 중 1990년대에만 1,024개 동인지에 9억 5,580만 원(평균 93만 원)을 지원했다. 1998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총 98건 중 서울 18건, 지방 80건으로, 신청 건수와 대비해 볼 때 지방 문인의 창작 활성화와 발표 기회 조성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종합 문예지, 문화센터, 창작교실 등 동인지 외의 발표 공간이 늘어나고 문학동인과 동인지 수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 자율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2000년부터 폐지했다.

〈문학창작소재 발굴지원〉(1992~1999)은 창작 소재발굴을 위한 작가들의 해외 기획 탐방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 사업이다. 등단 10년 이상, 3권 이상의 개인 창작집을 출판한 문인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주제가 분명하고 창작물로 완성될 경우, 우리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획 탐방을 선별·지원했다. 사업 초창기인 1994년과 1995년에는 구소련, 중국, 남미 지역 등 우리 민족의 이민·이주사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국내 문단에 재외동포를 소재로 한 대하소설과 장편소설 붐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이 취소된 1998년을 제외하고, 1992년부터 1999년까지 7년 동안 37건에 1억 7,180만 9,000원(평균 464만 원)을 지원했다.

문학 창작 여건의 개선과 창작 의욕 고취

〈문학작품 창작지원〉(1990~1992)은 1989년까지 시행되었던 〈문예지 원고료지원〉(1974~1989)의 대체 성격의 사업이다. 직접적인 창작 지원금을 통해 작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나, 3년간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1993년부터 폐지됐다. 이러한 결정에는 당시 기금 지원 대상을 개인 창작 지원에서 단체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방향도 영향을 미쳤다. 3년 동안 250건, 4억 3,850만 4,000원(평균 175만 원)을 지원했다. 〈문학조사연구지원〉(1974~현재)은 1997~1998년에 〈문학 보급 및 연구활동지원〉, 1999년에 〈문학연구활동지원〉등으로 그 명칭이 자주 변경됐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총 272건에 9억 9,637만 7,000원(평균 366만 원)을 지원했다.

〈문학작품집 발간지원〉(1975~2001)은 1990년대에 들어서 사업 성격에 따라 〈문인 창작집 발간지원〉(1988~1995), 〈문인창작기금지원〉(1996~1998), 〈문학작품집 발간지원〉(1999~2001) 등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2000년대 이후로도 세부 사업인 '문학창작지원'으로 문인의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고 있다. 1993년도까지는 이 사업의 건당 평균 지원액이 10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지원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후 1994~1995년에 평균 150만 원으로 증액했고, 1997년부터 〈문인창작기금지원〉으로 개칭하면서 지원 건수를 두 배 늘리고 평균 지원액도 300만 원대 이상으로 증액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414건에 대해 9억 1,878만 4,000원(평균 222만 원)을 지원했다.

〈대한민국문학상〉(1976~1992)은 예술적 수월성을 기준으로 문학성이 높은 작품을 시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 분야 종합 시상제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억 650만 원을 지원했다. 1996년에는 '문학의 해' 사업에 책정된 10억 원의 예산으로 17개국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1천여 명의 문인이 참가한 '한민족문학인대회'를 개최했다. 기타 단년도 지원사업으로는 〈문학연구기획지원〉(1990), 〈예술창작환경조성〉(1990), 5,000만 원을 지원한 〈545돌 한글날 계기 특별전 지원〉(1992), 〈한국문학작품 점자 발간지원〉(1996), 〈우수신진작가 발굴지원〉(1999)이 있었고, 이 밖에도 〈우수문학작품 보급〉(1999~2001), 〈통일문학전집 발간〉(1999~2002) 등의 기획사업이 있었다.

2. 시각예술 분야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미술관과 화랑이 급증하고 단체와 그룹 전시 활동도 활성화되면서 시각예술 분야 전시지원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1995년 '미술의 해'와 광주비엔날레 행사 개최를 계기로 세계 전위미술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설치와 영상, 사진 장르의 활성화는 물론, 시각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였다. 특히 1997년에

미술시장이 개방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었다.

한편 1998년이 '사진영상의 해'로 지정되면서 〈1998사진영상축전〉을 비롯, 〈전국민사진축제〉, 〈사진박물관건립〉 등 사진과 영상예술 발전을 위한 15개 사업에 약 10억 원이 지원됐다. 1990년대 시각예술 분야에서 다년간 추진된 사업은 13개인데, 이들 사업에 투입된 기금사업비는 812건, 총 34억 9,032만 1,000원이다. '대한민국' 명칭이 붙은 행사의 경우, 위원회 전환과 함께 2006년도부터 공모제(〈전국규모예술행사육성〉)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표 5-2] 1990년대 미술 분야 지원사업 총괄 (단위: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대한민국미술대전	37,000 (1)	57,200 (1)	21,000 (1)	55,000 (1)	85,000 (1)	85,000 (1)	85,000 (1)	60,000 (1)	70,000 (1)	80,000 (1)	635,200 (10)
미술대전 지방전시	15,200 (3)	26,590 (4)	16,792 (3)	15,000 (3)	15,000 (3)	15,000 (3)	15,000 (2)	15,000 (3)	15,000 (1)	15,000 (2)	163,582 (27)
대한민국건축대전	12,000 (1)	12,000 (1)	27,000 (1)	27,000 (1)	30,000 (1)	30,000 (1)	30,000 (1)	30,000 (1)	30,000 (1)	30,000 (1)	258,000 (10)
대한민국공예대전	24,000 (1)	21,000 (1)	19,000 (1)	25,000 (1)	25,000 (1)	25,000 (1)	25,000 (1)	25,000 (1)	25,000 (1)	25,000 (1)	239,000 (10)
대한민국서예대전	3,000 (1)	3,000 (1)	4,000 (1)	국전 포함 (1)	7,000 (1)	국전 포함 (1)	국전 포함 (1)	7,000 (1)	7,000 (1)	10,000 (1)	41,000 (10)
대한민국사진대전	12,000 (1)	12,000 (1)	17,000 (1)	17,000 (1)	20,000 (1)	20,000 (1)	19,000 (1)	20,000 (1)	20,000 (1)	20,000 (1)	177,000 (10)
미술전시활동지원	57,000 (57)	49,000 (49)	73,000 (50)	68,800 (63)	97,500 (60)	144,000 (98)	169,000 (67)	280,500 (77)	287,000 (83)	120,000 (33)	1,345,800 (637)
우수기획전시지원	-	-	-	-	-	-	-	30,000 (2)	100,000 (9)	130,000 (9)	260,000 (20)
한국미술단체 초대전	-	-	10,807 (2)	12,612 (2)	13,559 (1)	15,823 (2)	15,633 (1)	-	-	-	68,434 (8)
미술조사연구지원	-	11,970 (3)	13,000 (4)	6,016 (3)	18,500 (7)	22,000 (9)	22,500 (6)	37,000 (8)	16,000 (3)	50,000 (13)	196,986 (56)
한국미술 소개작품집 해외 배포	5,203 (1)	4,221 (1)	8,698 (1)	9,832 (1)	9,325 (1)	10,223 (1)	11,201 (1)	3,700 (1)	8,830 (1)	10,883 (1)	82,116 (10)
전문지 발간지원	6,000 (1)	6,000 (1)	6,000 (1)	-	-	-	-	-	-	-	18,000 (3)
자료집 발간지원	5,203 (1)	-	-	-	-	-	-	-	-	-	5,203 (1)
합계	176,606 (68)	202,981 (63)	216,297 (66)	236,260 (77)	320,884 (77)	367,046 (118)	392,334 (82)	508,200 (96)	578,830 (102)	490,883 (63)	3,490,321 (81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대한민국미술대전' 및 지방전시 지원

〈대한민국미술대전〉(1980~1981 국전 지원, 1982~1985 직접 운영, 1986~2005 미협 지원)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 공모제가 아닌 지정제로 한국미술협회에 지원했다. 1990년대 초에는 2,100~5,720만 원을 지원하다가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매년 8,500만 원을 지원했고, 1997년과 1998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1999년부터 2006년 공모제로 바뀌기 전까지 다시 8,000만 원대 이상을 지원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총 6억 3,520만 원을 지원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중앙 전시와 함께 행해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지방전시〉에는 1990년(서울, 부산, 광주)부터 1999년(원주, 수원)까지 27곳 순회, 총 1억 6,358만 2,000원을 지원했다.

[표 5-3] 1990년대 대한민국미술대전 지방전시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지역	지원액	연도	지역	지원액
1990	서울, 부산, 광주	15,200	1996	청주, 전주	15,000
1991	서울, 청주, 부산 ,대구	26,590	1997	부산, 춘천, 대전	15,000
1992	진주, 대전, 전주	16,792	1998	대전	15,000
1993	천안, 광주, 대구	15,000	1999	원주, 수원	15,000
1994	경기, 부산, 제주	15,000	-	-	-
1995	강릉, 울산, 인천	15,000	계	27곳	163,58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우수 기획전시와 미술 창작의 활성화

〈우수기획전시지원〉(1997~2001)은 우리 미술계의 흐름에 발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와 독창성이 뛰어난 우수 기획전시를 지원하여 우리 미술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1997년에 신설했다. 이 사업은 특히 기존의 소액 다건식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집중 지원 형식을 취했다. 우리 미술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실험성과 기획 능력이 뛰어난 기획전시가 많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7 〈군산 허수아비 미술제〉, 〈영상예술과 매스미디어의 교감전〉, 〈오옥진 각자, 철재소품전〉, 〈물성과 그 가늠전〉(목암미술관), 〈1999 여성미술제-팥쥐들의 행진〉 등 1997년부터 1999년까지 20건에 2억 6,000만 원(평균 1,300만 원)을 지원했다.

〈한국미술단체 초대전〉(1992~1996)은 장르별 그룹창작 활동을 진작하고 시각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1992년에 신설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1~2개 단체에 1,000~1,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5년 동안 8건, 6,843만 4,000원(평균 855만 원)을 지원했다. 한 해 동안 창작활동이 뚜렷한 미술단체를 초대해 연말연시에 초대전을 개최했다. 미술그룹운동의 의미와 새 좌표를 조감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고 실질적인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공간과 전시공간, 발표 기회의 제공

〈미술창작공간지원〉(1997~1999)은 국고에 의한 문예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폐교 공간을 임차해 이를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미술계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1997년도에는 논산미술창작실(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 강화미술창작실(신성초등학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1998년에는 논산미술창작실의 '오픈스튜디오 및 세미나', '논산미술창작실 순회전', 강화미술창작실의 '입주작가협의회전', '강화미술창작실 오픈스튜디오'를 지원했다. 지방문화 활성화와 창작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에 논산창작실은 논산시로, 강화창작실은 한국미술협회로 이관했다.

IMF 당시 심화하는 미술계의 불황으로 경제력이 약한 젊은 작가의 창작과 전시활동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험성이 강한 젊은 전업작가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의욕을 북돋웠던 사업이 〈유망미술작가 전시공간 제공〉(1999~2000)이다. 대규모 전시공간 마련이라는 사업 목적상 인사아트센터 3층 전시실을 전시공간으로 계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이 국고로 지원됐다. 이 공간이 바로 아르코미술관 산하 인사미술공간으로, 현재는 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수신진작가들의 제언전〉(1999~2000)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신진작가들에게 서울, 대전 등 대도시에서 전시할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미술의 특수성에 보편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2000년에 〈한국 현대미술 중심의 이동전〉으로 개칭하여 개최됐다.

한국작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한국미술 소개작품집 해외 배포〉(1986~2001)는 한국 현대미술의 조류를 대표할 수 있는 시각예술 분야 각 장르 작가의 도록을 해외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1996년부터는 시디롬(CD-ROM)을

[표 5-4] 1990년대 이후 한국미술 소개자료 해외 배포 현황 (단위: 곳, 천 원)

연도	배포자료 수	배포처 수	지원액	비고
1990	50종	127	5,203	한국화 11, 양화 18, 조각 7, 판화 3, 공예 9, 종합 2
1991	59종	118	4,221	한국화 8, 양화 20, 조각 13, 판화 5, 공예 9, 서예 4
1992	88종	250	8,698	N.A.
1993	82종	120	9,832	한국화 24, 양화 50, 판화 1, 조각 11, 공예 10, 사진 1, 종합 5
1994	82종	104	9,325	한국화 15, 양화 46, 판화 3, 조각 11, 공예 5, 종합 2
1995	82종	120	10,223	한국화 21, 양화 38, 판화 1, 조각 9, 공예 9, 사진 1, 종합 3
1996	2개씩 500세트	300	11,201	CD-ROM 형태로 제작, 배포
1997	1,500매	200	3,700	
1998	1,000매	87	8,830	
1999	1,000매	N.A.	10,883	
2000	800매	356	9,389	
2001	1,000매	N.A.	12,134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제작하여 배포했다. 특히 1991년에는 한국 화단의 주요 장르별 경향과 활동 사항 등을 수록한 영문책자 「한국미술 소개」를 별도로 제작하여 세계 17개국 100여 개처에 배포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배포처 수 1,426곳으로 총 8,211만 6,000원이 소요되었다. 장기적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나라 간 교류와 우리 작가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술단체의 연구 · 평론 활동 등 지원

〈미술조사연구지원〉(1989~현재)은 시각예술 분야의 연구발표,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간에 〈미술단체활동지원〉(1993~1996), 〈미술연구활동지원〉(1997~1999)으로 사업명이 바뀌었다가 2000년에 환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평론도서 발간 지원 등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오늘날에는 모든 장르가 통합되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전략목표로 하는 〈예술보존 조사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1989년에 1건, 186만 6,000원을 지원했고, 1990년을 건너뛰고 1991년부터 1999년까지 56건에 1억 9,698만 6,000원(평균 352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1990년대 시각예술 분야 지원사업으로는 1990년에 지원한 〈추사탄신 204주년 기념 학술강연회 지원〉, 1980년부터 지속해 온 〈국제교류지원 사업〉 등이 있다.

3. 공연예술 분야

음악 분야

1990년대 음악 분야 지원은 주로 창작음악의 발전과 음악단체의 공연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문예진흥원 설립 이래 계속 시행해 온 〈음악공연지원〉(1974~2001)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작곡상〉(1977~2005), 〈서울음악제〉(1975~2005), 〈음악연구지원〉(1987~2001) 등이 있다. 1990년대 음악 분야 지원 건수는 519건으로, 기금사업비 23억 3,135만 8,000원을 지원했다.

[표 5-5] 1990년대 음악 분야 주요 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음악공연지원	68,000 (20)	76,000 (21)	60,000 (21)	80,000 (23)	117,300 (29)	164,000 (41)	306,000 (75)	379,000 (83)	433,000 (88)	180,000 (33)	1,863,300 (434)
대한민국작곡상	20,550 (1)	-	16,000 (1)	5,221 (1)	5,363 (1)	1,085 (1)	11,920 (1)	4,996 (1)	13,748 (1)	14,219 (1)	93,102 (9)
서울음악제	13,000 (1)	13,000 (1)	13,000 (1)	13,000 (1)	13,000 (1)	13,000 (1)	13,000 (1)	30,000 (1)	30,000 (1)	30,000 (1)	181,000 (10)
음악연구활동지원	9,753 (6)	12,500 (5)	7,500 (3)	7,000 (3)	21,500 (8)	20,000 (7)	25,803 (10)	19,000 (7)	31,000 (5)	39,900 (12)	193,956 (66)
합계	111,303 (28)	101,500 (27)	96,500 (26)	105,221 (28)	157,163 (39)	198,085 (50)	356,723 (87)	432,996 (92)	507,748 (95)	264,119 (47)	2,331,358 (519)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음악 연주·연구 활동의 활성화

기금사업 출범과 함께 시행된 〈음악공연지원〉(1974~2001)은 창작음악의 발표 기회를 증대시키고 단체의 연주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민간음악단체의 정기연주회, 작품발표회, 음악행사 등의 공연활동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지원건수 434건에 18억 6,330만 원을 지원했다. 2002년에 전 예술 장르를 통합하여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으로, 오늘날에는 연극·무용·전통예술 분야와 함께 〈공연예술행사지원〉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음악연구활동지원〉(1987~2001)은 1990년대에 지원 건수 66건, 1억 9,395만 6,000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이후 전 예술장르를 묶어 〈예술보존조사연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창작매개활동지원〉 중 〈예술정간물 발간·조사연구지원〉으로 사업명이 바뀌었다. 1990년대에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음악평론집』 발간, 민족음악연구회 『민족음악』 발간, 한국작곡가협회 『작곡목록』 발간, 관악지도자 세미나, 유성기 음반 전시회 및 학술대회, 한국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한국가곡세미나음악회, 민족음악 겨울학교, 민족음악인대회, 작곡실기지도 심포지엄 등을 지원했다.

1990년대 창작음악 발전의 기반

〈대한민국작곡상〉(1977~2005)은 문예진흥원이 직접 주관하다가 1990년 제10회부터 주최권을 한국음악협회로 이관했다. 초창기에는 매년 개최했고 1982년부터 1992년까지는 격년제로 실시했다. 또한 1992년 제11회부터는 양악과 국악 부문을 번갈아 개최했고, 1998년부터는 국악, 양악 구분 없이 매년 개최했다. 1990년대 〈대한민국작곡상〉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작곡가 이병욱(1990), 이만방(1992), 이영자(1996), 이종구(1998), 임우상(1999) 등이다. 행사가 없었던 1991년을 제외하고, 1990년부터 1999년까지 9,310만 2,000원을 지원했다.

〈서울음악제〉(1975~2005)에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총 1억 8,100만 원을 지원했다. 1990년대에는 주로,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중견 작곡가에게 작품 창작을 위촉하는 한편, 신인 작곡가 대상의 창작 공모를 통해 예술적 수월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연주회 형식으로 발표했다. 창작음악작품에 대한 별다른 지원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 창작음악의 수준 향상과 사회적 인식의 계발에 상당히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작곡상〉과 〈서울음악제〉는 2005년까지 지정제를 통해 고정적으로 지원했으나, 위원회 전환 후인 2006년부터는 공모제에 의한 지원으로 바뀌었다.

연극 분야

다른 공연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연극 분야의 지원 목표는 창작과 향수의 진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창작극의 진흥, 연극인·단체의 공연 활성화, 연극 감상 기회의 확대, 관객층 저변 확대 등을 목표로 하였다. 1990년대 연극 분야에는 〈연극공연 및 창작극 지원〉(1993~2001), 〈서울연극제 지원〉(1977~2001), 〈연극연구지원〉(1987~2001) 등 3개의 지원사업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공연예술 사업으로 통합되어 있다. 〈대한민국연극제〉와 〈대한민국무용제〉는 1988년과 1995년에 각각 국제행사 성격의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로 변경됐으나, 2001년에 〈서울공연예술제〉로 통합되었다가 2004년에 〈서울공연예술제〉,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표 5-6] 1990년대 연극 분야 주요 사업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연극공연 및 창작극 지원	-	-	-	40,000 (9)	67,000 (9)	42,000 (7)	190,000 (44)	206,000 (42)	239,000 (45)	133,000 (21)	917,000 (177)
서울연극제 지원 *	141,699 (1)	182,864 (1)	187,129 (1)	164,500 (1)	164,388 (1)	164,500 (1)	161,500 (1)	164,416 (1)	164,500 (1)	180,000 (1)	1,675,496 (10)
연극연구지원	34,745 (8)	44,000 (11)	58,910 (13)	63,100 (12)	72,500 (12)	89,500 (15)	94,000 (16)	113,000 (22)	109,000 (22)	10,000 (18)	688,755 (149)
합계	176,444 (9)	226,864 (12)	246,039 (14)	267,600 (22)	303,888 (22)	296,000 (23)	445,500 (61)	483,416 (65)	512,500 (68)	323,000 (40)	3,281,251 (336)

* 〈서울연극제〉는 지방순회공연 지원 포함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등 세 개의 행사로 다시 분화됐다. 1990년대 연극 분야에 대한 지원 금액은 336건, 32억 8,125만 1,000원이다.

연극 공연·연구 활동의 활성화

〈연극공연 및 창작극 지원〉(1974~1977, 1993~2001)은 1970년대에는 〈창작공연지원〉(1974~1977), 1990년대에는 〈연극공연지원〉(1993~2001)이라는 사업명으로 지원했는데, 2002년에 다시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으로 다른 장르와 통합되었다. 1993년 신설한 〈연극공연지원〉은 사업 첫해에 1, 2차로 신청을 받아 9개 단체를 선정, 연극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96년부터 연극단체(극단)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건수도 40건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지원 금액도 2억 원대에 달했다. 제작비와 흥행성 문제로 기피하던 예술성 우선 작품의 제작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177건에 9억 1,700만 원(평균 518만 원)을, 1993년부터 2001년까지는 228건, 12억 4,400만 원(평균 546만 원)을 지원했다.

〈연극연구지원〉(1974~2001)은 1997년에 〈연구활동 및 발간사업지원〉으로, 1999년에 〈공연예술연구활동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됐다. 이 사업의 연간 지원 총액은 1992년에 5,000만 원대를 넘어섰고, 1997년에 1억 원대를 넘어섰다. 1990년대에는 『증언연극사』 발간, 『80년대 연극평론자료집』 발간, 각 년도 『대표희곡선집』 발간, 전국지역연극인대회, 연극 연기자 재교육, 한국연극학회 심포지엄, 창작극 워크숍, 민족극 겨울학교 등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연극사를 재정리하고 현재의 창작 역량을 높이며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다양한 출판사업과 단체

행사가 지원받았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지원 건수 149건, 6억 8,875만 5,000원(평균 462만 원)이다.

1990년대 창작연극 발전의 터전

〈서울연극제 지원〉(1977~2001)은 서울지역의 연극단체 간 경연(1999~2000년에는 축제화)을 통해 창작극의 제작과 공연을 진흥하고, 관객에게 수준 높은 연극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연극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3년 제17회 행사에는 23개 단체에 총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작품상에는 극단 미추의 〈남사당의 하늘〉이 선정됐다. 1996년에는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 외에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학전그린소극장 등 공식 참가작의 공연장을 다변화한 결과, 공연 기간과 극단 수입이 증가하고 관람 기회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1997년 제21회에는 조광화, 장진 등의 새로운 연극 흐름과 김도훈 등 기존의 연극 흐름이 부딪히고 공존하면서 젊은 연극인의 역량을 증명했다. 결국 제21회 서울연극제의 대상은 극단 뿌리의 〈남에서 오신 손님〉(박희준 작, 김도훈 연출)에 주어졌다. 이 사업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참가단체 243개, 입장객 44만 7,799명을 기록하며 16억 7,549만 6,000원이 지원됐고, 1977년부터 〈서울공연예술제〉로 통합된 2001년까지는 446개 단체, 152만 4,895명 입장, 32억 4,986만 8,000원 지원에 달했다.

무용 분야

무용 분야 지원은 무용단체의 정기·비정기 공연과 신인 발굴을 위한 특별 공연, 역량 있는 개인의 공연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무용 감상 인구가 유난히 적어 저변 확대도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어 왔다.

1990년대 무용 분야에는 4개의 지원사업이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지원프로그램인 〈무용공연지원〉(1974~2001), 1995년(제17회)부터 〈서울국제무용제〉로 승격되었고 2001년 통합되었다가 2004년 다시 분리된 〈서울무용제〉(1979~2001), 그리고 〈무용단체활동지원〉(1990), 〈연구활동 및 발간지원〉(1997), 〈공연예술 연구활동지원〉(1999)으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무용연구활동지원〉(1974~2001), 〈젊은 춤꾼들의 무용잔치〉(1993~1995) 등이다. 1990년대 무용 분야 지원사업에는 지원 건수 385건에 34억 8,236만 원의 기금이 투입되었다.

[표 5-7] 1990년대 무용 분야 주요 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무용공연지원	28,500 (19)	33,000 (14)	38,000 (13)	37,000 (13)	93,300 (15)	92,000 (19)	159,000 (27)	253,600 (53)	314,753 (54)	189,000 (29)	1,238,153 (256)
서울무용제 지원 *	130,936 (1)	174,611 (1)	181,110 (1)	159,000 (1)	161,886 (1)	159,960 (1)	157,821 (1)	161,060 (1)	155,140 (1)	180,000 (1)	1,621,524 (10)
무용연구활동지원 **	24,100 (7)	38,000 (11)	36,700 (10)	38,000 (10)	42,500 (12)	58,108 (13)	63,000 (14)	57,500 (12)	58,495 (14)	63,000 (13)	479,403 (116)
젊은 춤꾼들의 무용잔치	-	-	-	46,015 (1)	39,153 (1)	58,112 (1)	-	-	-	-	143,280 (3)
합계	183,536 (27)	245,611 (26)	255,810 (24)	280,015 (25)	336,839 (29)	368,180 (34)	379,821 (42)	472,160 (66)	528,388 (69)	432,000 (43)	3,482,360 (385)

* 〈서울무용제〉는 지방순회공연 지원 포함

** 1991년부터 〈무용평론활동지원〉을 흡수 통합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무용 공연·연구 활동의 활성화

〈무용공연지원〉(1974~2001)은 1989년부터 무용계의 중앙(서울)단체와 지역단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다가 1995년부터 지역공연지원으로 분류되면서 〈지역단체활동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공연예술행사지원〉과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으로 이원화되어 무용공연을 지원하였다. 1998년에는 특별히 지원 규모가 커져 54건에 3억 1,475만 3,000원(평균 583만 원)을 지원했고, 1990년부터 1999년까지 256건에 12억 3,815만 3,000원(평균 484만 원)을 지원했다.

〈무용연구활동지원〉(1974~2001)은 1990년에는 제17회 전국무용 연수회, 제11회 전국발레 연수회 등 7건에 2,410만 원(평균 344만 원)을 지원했는데, 1999년에는 13건, 6,300만 원(평균 485만 원)을 지원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16건, 4억 7,940만 3,000원(평균 413만 원)을 지원했다. 1980년대에 이어 1990년에도 월간 『춤』 발간을 꾸준히 지원했고, 무용평론가 김태원, 김영태의 무용평론집 발간, 전국무용 연수회·전국발레 연수회·현대무용 강습회·무용교사 강습회, 한국무용학회 심포지엄, 민족춤위원회의 민족춤 겨울학교 등을 지원했다.

1990년대 창작무용 발전의 요람

〈젊은 춤꾼들의 무용잔치〉(1993~1995)는 매년 각각의 행사 명칭이 있었는데, '춤 93신세대 가을신작무대'(1993), '춤 94신세대 가을신작무대'(1994), '신세대 가을신작무대'(1995) 등이 그것이다.

모두 11월에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1993년도 무용잔치에는 한국무용 16명, 현대무용 16명, 발레 7명이 오디션에 참가하여 최우수안무가로 김원(작품명 〈충격〉)이 선정됐고, 4,600여만 원으로 9개 작품을 공연했다. 1994년도 행사는 우수안무가로 박호빈이 선정되었고, 3,9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7개 작품을 공연했다. 한국무용협회와 공동주최한 1993년, 1994년 행사와는 달리 1995년도 '신세대 가을신작무대'는 문예진흥원 단독 주최로 거행되었다.

1995년 행사에 참가한 젊은 예술가는 국악 분야 구경모, 기만석, 민영치, 원일 등 4명, 무용 분야 김윤진, 이미영, 장선미(한국무용), 이광석, 홍성을, 홍순미(현대무용), 권경미, 이고은(발레) 등 8명으로, 작품 공연에 5,8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우수작곡자로 원일, 우수안무자로 이미영이 선정되었다. 비록 3년 동안 시행했으나, 이 행사는 젊은 예술가에게 문예회관 소극장 무대를 제공하여 젊고 패기 넘치는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계에 청신한 기풍을 불어 넣었다. 1996년 이후부터는 한국무용협회가 매년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이라는 행사명으로 단독 개최했으며, 문예진흥원은 〈우수기획공연지원〉 사업을 통해 해마다 4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무용제지원〉(1979~2001)은 우수한 창작무용 공연을 통해 축제 형식이 가미된 무용경연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0년 제12회 행사에는 컨템포러리무용단(작품명 〈만남〉)이 대상을 차지했고, 이 작품의 지방순회공연에 1,620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박명숙서울현대무용단(〈황조가〉), 춤타래무용단(〈회귀선〉), 이숙재밀물현대무용단(〈신용비어천가〉), 춤타래무용단(〈토템〉), 김민희 & 한양발레아카데미(〈또 다른 고향〉) 등이 대상을 받았고, 역시 지방을 순회했다. 1995년 제17회 행사부터 〈서울국제무용제〉로 승격돼 국제무용제로서의 위상 확보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1999년도에는 지원금액도 1억 8,000만 원에 달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총 16억 2,152만 4,000원을 지원했다.

공연예술 통합 분야

음악·연극·무용 분야 지원이 통합된 1990년대 공연예술 통합 분야에는 창작 활성화와 기획공연 중심의 집중형 지원사업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1990년대 공연예술 통합 분야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1980년대부터 시행된 집중형 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1985~2005), 〈우수공연지원〉(1989~2001)이 있다.

[표 5-8] 1990년대 공연예술 통합 분야 주요 사업 총괄

(단위: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공연예술창작 활성화지원	110,400 (14)	77,500 (9)	42,000 (6)	126,000 (6)	73,000 (7)	145,000 (10)	123,000 (9)	120,000 (2)	50,000 (2)	389,000 (10)	1,255,900 (75)
우수공연지원	41,000 (12)	30,500 (7)	41,000 (10)	67,000 (11)	98,000 (15)	118,000 (19)	277,338 (14)	411,311 (22)	269,973 (13)	514,000 (35)	1,868,122 (158)
관객 개발지원	-	-	95,566 (1)	97,387 (1)	96,433 (1)	90,946 (1)	277,352 (1)	411,333 (1)	305,720 (1)	533,370 (1)	1,908,107 (8)
신진예술가지원	-	-	-	-	-	-	-	-	-	189,200 (21)	189,200 (21)
우수기획프로그램 지원	-	-	-	-	12,000 (2)	33,000 (5)	-	61,000 (6)	-	-	106,000 (13)
합계	151,400 (26)	108,000 (16)	178,566 (17)	290,387 (18)	279,433 (25)	386,946 (35)	677,690 (24)	1,003,644 (31)	625,693 (16)	1,625,570 (67)	5,327,329 (275)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또 1991년 '연극영화의 해'에 시험 도입된 '사랑티켓' 제도가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이후 정식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부터 〈관객 개발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사랑티켓〉(1991년 시범사업)은 2006년 복권기금사업으로 전환되었다가 2017년 사업이 폐지되었다.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한 〈신진예술가지원〉(1999~현재) 역시 현재는 〈AYAF〉(Arko Young Art Frontier, 아르코 영 아트 프런티어)라는 사업명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0년대에 공연예술 통합 분야에 투입된 지원사업비는 총 53억 2,732만 9,000원으로, 지원 건수는 275건이다.

1990년대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와 우수공연 지원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지원〉(1985~2005)은 공연예술 분야 창작 초연작품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초기에는 열세였던 관현악 공연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1990년대에 들어 관현악 공연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관현악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 이 사업은 연도별로 전체 지원 규모의 부침이 매우 심한데, '선택과 집중'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작품은 창작 초연작품이라 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모두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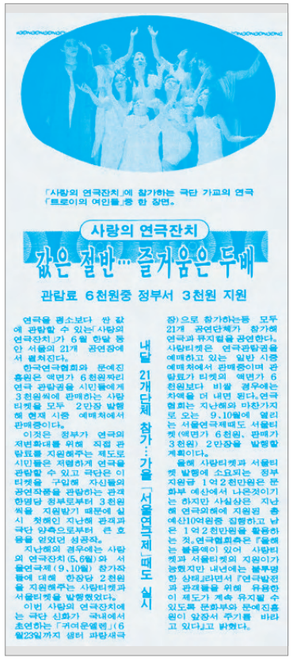
1990년대에는 김자경오페라단의 〈춘향전〉, 한국오페라단의 〈황진이〉, 한국음악극연구소의 가극 〈금강〉, 연희단거리패의 연극 〈느낌, 극락같은〉, 김은이무용단의 〈신 무녀도〉, 양정수현대무용단의 〈환상보행〉 등의 작품이 지원을 받았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75건에 총 12억 5,590만 원(평균 1,675만 원)을 지원했다.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지원〉은 1990년에 14건, 1억 1,040만 원으로 건당 평균 789만 원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10건, 3억 8,900만 원으로 건당 3,890만 원으로 증가하여 대표적인 집중형 지원사업의 면모를 보였다.

또 하나의 집중형 지원사업인 〈우수공연지원〉(1989~2001)은 〈소극장 우수기획프로그램지원〉(1989~1995), 〈우수기획공연지원〉(1996~2001), 〈우수공연 레퍼토리지원〉(1992~1995, 1999~2001)으로 구분된다. 〈소극장 우수기획프로그램지원〉은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물 중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작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7년 동안은 69건에 2억 9,990만 원을 지원, 건당 평균 지원액이 435만 원에 불과해 집중형 지원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업이 집중형으로 불리게 된 것은 1996년 〈우수기획공연지원〉(1996~2001)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한 후부터다. 일반적인 공연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주제의 개성 있는 우수 기획공연을 발굴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117건에 20억 7,991만 4,000원을 지원(건당 1,778만 원)했다. 〈우수기획공연지원〉을 통해 우리가곡 100년 축제, 노영심의 고전음악 이야기 '순회', 젊은 작곡자 창작공연(한국국악협회), 소극장 우수기획프로그램, 전국민족극 한마당, 무용과 의상의 만남 등의 행사가 지원을 받았다.

〈우수공연 레퍼토리지원〉은 이미 공연한 우수작품을 레퍼토리화한 경우, 재공연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992~1995년에는 〈우수레퍼토리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했는데, 목화레퍼토리컴퍼니의 〈부자유친〉, 밀물현대무용단의 〈홀소리 닿는 소리〉, 익산예술단의 〈서동요〉, 극단 학전의 〈모스키토〉, 댄스시어터 온의 〈뒤로 가는 산〉 등의 작품이 지원받았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1996~1998년 제외) 49건에 5억 7,200만 원(평균 1,167만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 〈우수기획프로그램지원〉이 있었는데, 기존사업 유형에 속하지는 않으나 독창성과 기획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우수 기획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한 사업이다. 계기성 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3개년(1994, 1995, 1997)에 걸쳐 13건, 1억 6,000만 원(평균 1,230만 원)을 지원했다.

'사랑티켓'을 통한 관객 개발


「사랑의 연극잔치」에 참가하는 극단 가교의 연극
「로미오의 여인들」중 한 장면.

사랑의 연극잔치

값은 절반…즐거움은 두배

관람료 6천원중 정부서 3천원 지원

연극을 평소보다 싼 값에 관람할 수 있는 사랑의 연극잔치」가 6월 한달 동안 서울의 21개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한국연극협회와 문예진흥원은 액면가 6천원짜리 연극 관람권을 시민들에게 3천원씩에 판매하는 사랑티켓을 모두 2만장 발행해 연내 내내 예매처에서 판매한다.

이것은 정부가 연극의 저변확대를 위해 직접 관람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민들은 저렴하게 연극을 관람할 수 있고 극단은 이 티켓을 구입해 자신들의 공연작품을 관람하는 관객 한명당 정부로부터 3천원씩을 지원받기 때문에 실시 첫해인 지난해 관객과 극단 양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성공작.

지난해의 경우에는 사랑의 연극잔치(5.6월)와 서울연극제(9.10월) 참가작들에 대해 한장당 2천원을 지원해주는 사랑티켓과 서울티켓을 발행했었다.

이번 사랑의 연극잔치에는 극단 신화가 국내에서 초연하는 「여의문예록」(6월29일까지 샘터 파랑새극장)으로 참가하는등 모두 21개 공연단체가 참가해 연극과 뮤지컬을 공연한다.

사랑티켓은 연극관람권을 예매하고 있는 일반 시중 예매처에서 판매중이며 관람료가 티켓의 액면가 6천원보다 비쌀 경우에는 차액을 더 내면 된다. 연극협회는 지난해의 마찬가지로 오는 9.10월에 열리는 서울연극제에도 서울티켓(액면가 6천원, 판매가 3천원) 2만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사랑티켓과 서울티켓 발행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 1억2천만원은 분화부 예산에서 나온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지난해 연극인들에 지원된 총 예산1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1억2천만원을 활용한는 것.연극협회관은 『올해는 불용액이 있어 사랑티켓과 서울티켓에 지원이가능했지만 내년에는 불무방한 상태』라면서 『연극발전과 관객들을 위해 유용한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문화부와 문예진흥원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티켓(관객 개발지원)
1991년 '연극영화의 해'에 시험 도입된 관람료 할인제도인 '사랑티켓' 제도가 1992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1992년에는 액면가 6천 원의 연극관람권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차액 3천 원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관객 개발지원〉은 관람료 할인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증대와 취향 형성을 돕고, 공연단체의 매표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객 개발지원〉은 1991년 '연극영화의 해'에 '사랑티켓'으로 시험 도입, 1992년부터 정규 사업화된 것이다. 〈사랑티켓〉 사업은 2006년 복권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혜자를 청소년층과 노년층으로 제한하는 대신 모든 유형의 공연예술 행사와 시각예술 전시행사에 적용하고 있으나, 초창기에는 현장 수요가 많은 일반인 연극관객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연극관객 개발지원〉의 경우 예컨대, 연극협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연극잔치', 서울연극제 등의 행사에서 참가극단이 발행하는 할인 관람권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연극인과 단체의 호응이 높아져 매년 참가극단이 늘어남에 따라 양적인 발전에 비해 질적인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제19회 서울연극제 '서울티켓'의 경우, 발행한 2만 매를 전량 판매하여 93.3%가 회수됨으로써 연극관객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관객 호응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객 개발지원〉은 1998년부터 연극뿐만 아니라 순수 공연예술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부터는 지역으로까지 확대 추진되었다.

초창기 5,000원 할인 지원으로 시작한 '사랑티켓'은 건당 할인 지원액이 12,000원까지 높아졌고, 2000년에는 세 종류(8,000원, 12,000원, 20,000원)로 다양화되었다. 1990년대 연극 분야에서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 동안 14억 829만 4,000원을 지원했다. 〈무용관객 개발지원〉(1996~1997)은 〈연극관객 개발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으나, 연극 분야와 달리 목표했던 사업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면, 1996년 당시 관람권 1만 매 발행에서 액면가 1만 원 중 7,000원에 대한 차액 3,000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실적이 저조해 144매 판매에 그치며 불과 39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에 따라 무용 분야 별도 추진 사업 방식을 폐지하고, 1998년부터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순수 공연예술 분야 통합사업으로 추진했다.

4. 전통예술 분야

1990년대는 1980년대에 비해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많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통예술인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나 전통예술단체의 활동 역량은 고조된 열기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었다.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통예술의 보존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재창조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지원 체제를 창작 활성화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중심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공연문화에 대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주로 〈전통공연예술지원〉과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1990년대에 전통예술 분야에 투입된 기금사업비는 51억 1,505만 3,000원으로 지원 건수는 571건이다.

[표 5-9] 1990년대 전통예술 분야 주요 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전통예술공연지원	24,000 (22)	31,000 (21)	46,000 (26)	35,500 (15)	92,000 (22)	57,000 (17)	185,000 (64)	314,000 (79)	322,000 (85)	245,000 (42)	1,351,500 (393)
한국민속예술축제	50,000 (1)	50,000 (1)	57,500 (1)	134,500 (1)	240,000 (1)	250,000 (1)	227,553 (1)	350,000 (1)	350,000 (1)	350,000 (1)	2,059,553 (10)
대한민국국악제	-	-	90,000 (1)	100,000 (1)	100,000 (1)	100,000 (1)	100,000 (1)	100,000 (1)	100,000 (1)	100,000 (1)	790,000 (8)
전통예술연구지원 및 보존지원	8,000 (4)	14,000 (5)	18,000 (6)	17,500 (6)	28,000 (11)	30,000 (10)	98,000 (18)	105,000 (19)	103,000 (20)	100,000 (21)	521,500 (120)
전통예술기능 보급 활동지원	28,500 (3)	30,000 (3)	30,000 (2)	30,000 (2)	30,000 (2)	27,000 (2)	30,000 (3)	51,000 (5)	50,000 (5)	86,000 (13)	392,500 (40)
합계	110,500 (30)	125,000 (30)	241,500 (36)	317,500 (25)	490,000 (37)	464,000 (31)	640,553 (87)	920,000 (105)	925,000 (112)	881,000 (78)	5,115,053 (571)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전통예술의 보존·계승과 재창조 지원

1970년대부터 전통예술 분야를 특정한 〈전통예술공연지원〉(1974~2001)이라는 단독사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중 전통예술 분야에서 주로 국악·전통연희·전통춤의 재현 공연을 지원해 왔다. 그러다가 1993년에 〈전통공연예술지원〉으로 독립되어 전통예술의 보존·계승뿐 아니라 재창조 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2년에는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2002~2006)으로 사업명이 바뀌었고, 2007~2009년에는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으로, 2010년부터는 〈공연예술행사지원〉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 포함하여 지원했던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69건,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연평균 23건, 건당 평균 지원액은 146만 원이었다. 1993년 단독사업으로 바뀌면서 국악, 전통연희, 전통춤, 무속 등 전통예술의 재창조 활동과 관련된 공연 경비를 중점 지원했다. 국악 연주단체 등 전통예술 공연단체의 창작곡 발표회와 우수레퍼토리 공연이 주 대상이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7년간 324건, 12억 5,050만 원을 지원하여 연평균 46건에 건당 평균 지원액도 386만 원으로 증가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393건, 13억 5,150만 원(평균 344만 원)을 지원했다.

전통예술 연구와 전통예능 보급 활성화

〈전통예술연구지원 및 보존지원〉(1974~2001)은 〈전통예술단체활동지원〉(1993~1996), 〈전통예술연구활동지원〉(1999~2001)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왔다. 1993년에는 6건에 1,750만 원을 지원했는데, 강릉농악보존회의 '강릉농악이론과 실기전수', 한국국악협회의 악학궤범 출간 500주년 기념 '악학궤범의 음악적 측면에 관한 연구', 판소리학회의 '판소리자료 연구' 등이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20건에 5억 2,150만 원(평균 437만 원)을 지원했다.

〈전통예술 기능보급활동지원〉(1986~2001)은 1990년 이전에도 자주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1993년에 다시 〈전통공예보급지원〉으로 변경됐다. 각종 전통예능을 개발·전시·보급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명칭이 바뀐 1993년의 경우, 제13회 전통공예대전, 제4회 대한민국 옻칠공예작품공모전 등 2개 행사에 총 3,000만 원을 지원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40건의 사업에 3억 9,250만 원(평균 981만 원)을 지원했다. 2002년 예산편제 개편과 더불어 두 사업은 〈전통예술 발표전승보급지원〉(2002~2006)으로 통폐합됐다.

지역 민속예술의 발굴과 육성

〈한국민속예술축제지원〉(1974~2005)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9년 이후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는 도(道) 행사비, 시연 종목 출연경비, 입상 종목의 전승보존금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문화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1990년 문화부 출범과 더불어 기금지원액이 전년도 3,000만 원대에서 5,000만 원으로 상승했고, 이후에도 매해 증액되어 1999년에는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한국민속예술축제)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예술행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지만, 기금지원 규모도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가장 컸다.

1991년(제31회)부터 1999년(제40회)까지 대통령상을 받은 민속예술을 보면 제주 서우젯소리, 전남 여수영당풍어굿, 경북 예천공처농요, 충남 홍성경성농요, 대전 부사칠석놀이, 충남 부여단잡기놀이, 대전 목상동들말두레놀이, 경기 통진두레놀이, 경북 계정들소리, 강원 상노리지경다지기 등이다. 1994년(제35회)부터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병행 개최하기 시작했고, 1999년부터 행사 명칭이 바뀌면서 경연 형식보다는 축제 성격으로 탈바꿈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20억 5,955만 3,000원(전승보존금 2억 140만 원 포함)을 지원했다.

전통 국악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인

1981년 〈대한민국음악제〉에서 떨어져 나온 〈대한민국국악제〉는 1986년에 문예진흥원에서 KBS로 주최권이 이관됐다.[2] 그러나 1992년에 다시 KBS에서 한국국악협회로 이관됐고, 1994년 '국악의 해'를 맞아 부산, 대구 연계공연을 추진해 지역 관객의 호응도가 높았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정악과 민속악, 기성곡과 창작곡 간의 갈등은 계속됐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는 이러한 갈등을 뒤로 하고 국악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한다는 취지 아래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뿐 아니라, 서양음악과의 만남을 무대화하였다. 〈대한민국국악제지원〉(1981~2005)을 통해 1992년은 9,000만 원, 그리고 1993년부터 1999년까지 7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했다.

2. 이관 첫해인 1986년은 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국악제 형태로 행사가 치러져 지원금(약 8,896만 1,000원)이 지급됐으나, 1987~1991년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1992년 국악협회 재이관과 함께 지원금 지급도 재개됐다.

5. 문화예술 일반 분야

1990년대 문화예술 일반 분야에는 15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지원하게 된, 이른바 '정책성'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어 지원 규모가 큰 편이다. 1990년대에 예술 일반 분야에 투입된 기금사업비는 529건, 1,164억 5,325만 8,000원이다.

[표 5-10] 1990년대 문화예술 일반 분야 주요 지원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영화진흥지원	5,000,000 (1)	5,000,000 (1)	4,950,000 (1)	5,600,000 (1)	8,000,000 (1)	8,500,000 (1)	8,500,000 (1)	9,900,000 (1)	10,085,168 (1)	20,949,844 (1)	86,485,012 (10)
문화산업지원	-	-	-	-	-	150,000 (4)	150,000 (5)	100,000 (4)	200,000 (9)	294,000 (10)	894,000 (32)
예술평론활동지원	17,000 (6)	7,500 (3)	4,000 (2)	4,000 (3)	15,880 (6)	25,000 (6)	17,500 (9)	21,000 (7)	24,000 (7)	33,000 (12)	168,880 (61)
저작권 보호활동지원	-	-	81,435 (N.A.)	85,936 (12)	29,900 (4)	30,000 (4)	30,000 (4)	30,000 (1)	30,000 (3)	50,000 (1)	367,271 (29)
'문화예술의 해' 지원	-	879,122 (1)	898,139 (1)	997,755 (1)	991,124 (1)	1,000,000 (1)	1,065,360 (1)	1,000,000 (1)	993,949 (1)	999,999 (1)	8,825,448 (9)
대중예술지원	5,500 (3)	4,000 (3)	70,000 (4)	10,000 (4)	17,500 (5)	19,000 (6)	27,000 (9)	50,000 (13)	153,000 (11)	197,000 (14)	553,000 (72)
예술진흥기획지원	-	-	-	-	-	-	-	-	-	70,000 (N.A.)	70,000 (N.A.)
예술장학금지원	74,994 (51)	88,121 (52)	89,647 (45)	41,898 (40)	20,063 (8)	4,430 (2)	-	-	-	-	319,153 (198)
예총 지원	661,826 (1)	680,000 (1)	688,500 (1)	724,562 (1)	667,704 (1)	506,865 (1)	500,000 (1)	580,000 (1)	580,000 (1)	580,000 (1)	6,169,457 (10)
민예총 지원	-	-	-	-	50,000 (2)	50,000 (2)	46,500 (2)	50,000 (2)	50,000 (3)	247,830 (10)	494,330 (21)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지원	-	-	-	-	510,000 (1)	1,730,000 (1)	1,770,000 (1)	1,795,000 (1)	1,600,000 (1)	1,800,000 (1)	9,205,000 (6)
전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60,000 (3)	60,000 (3)	60,000 (4)	60,000 (3)	60,000 (2)	170,800 (3)	100,000 (3)	100,000 (3)	148,775 (5)	819,575 (29)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198,000 (1)	159,942 (1)	160,000 (1)	160,000 (1)	99,413 (1)	99,870 (1)	-	-	-	-	877,225 (6)
도서관·박물관 지원	-	-	-	-	-	-	-	-	-	100,000 (N.A.)	100,000 (N.A.)
어문단체활동 지원	-	-	41,766 (5)	56,643 (4)	64,551 (3)	61,732 (3)	58,000 (4)	292,215 (6)	230,000 (10)	300,000 (11)	1,104,907 (46)
합계	5,957,320 (63)	6,878,685 (65)	7,043,487 (63)	7,740,794 (71)	10,526,135 (36)	12,236,897 (34)	12,335,160 (40)	13,918,215 (40)	14,046,117 (50)	25,770,448 (67)	116,453,258 (529)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문화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영화진흥지원〉(1977~2004)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는 시설 현대화, 국산영화 진흥자금 등에 집중 지원하여 영화계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후반에는 영화진흥공사(약칭 영진공, 1999년 5월 영화진흥위원회로 전환)가 추진하는 수많은 영화진흥사업을 지원했다. 예컨대 '전용상영관 지원'은 전용상영관에게 입장권 발매를 통해 모금한 문예진흥기금 전액을 되돌려 주는 프로그램이다. 1999년에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씨제이(CJ) 골든빌리지, 동숭아트센터 2개 영화관에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이후로도 매년 3~4개 전용관을 지원하다 2005년에 사업을 종료했다. 이외에도 서울영상벤처센터(1999), 영화진흥금고(1999~2000) 등 많은 영화진흥사업을 지원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총 864억 8,501만 2,000원을 지원했다. 개별 지원이 아니라 영화진흥공사에 통으로 지원하고, 영진공이 심의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멀티미디어의 등장, 국가 간 문화적 경쟁 격화 등의 상황 속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1994년 5월 문화체육부 내 문화산업국 신설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했고, 문예진흥원도 〈문화산업지원〉(1995~1999)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주로 만화와 패션, 게임, 음반과 영상사업을 지원했다.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ICAF), 대한민국 만화캐릭터 공모전, 의상협회의 '퉁구스계 의상 복원전', 패션문화협회의 '예술의상전', 『게임백서』 발간,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의 '미국 E3쇼 참가', 『한국음반·비디오연감』 발간, 노래방용 영상물(VCD) 제작 등이 지원받았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영상문화산업진흥지원〉으로 통합하여 지원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36개 사업에 9억 9,400만 원(평균 2,761만 원)을 지원했다.


위기의 출판계 SOS '긴급타전'

IMF 출판계 위기 타개를 위한 문예진흥기금 지원
IMF로 인한 유통사 및 출판사의 연쇄부도 등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문예진흥기금에서 출판계에 대한 200억 원의 융자지원을 추진하였다. (1993. 2. 13. 경향신문)

〈저작권 보호활동지원〉(1987, 1992~2000)은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지원〉(1987, 1992~1993)과 〈저작권 보호활동지원〉(1992~2000)의 사업명으로 추진되었다. 주로 저작권에 대한 심의와 분쟁 조정,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제고 사업을 지원했다. 『저작권 상담조정사례집』 발간, 저작권 법률상담, 저작권 실태조사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인의 권익 옹호에 기여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 동안

29건에 3억 6,727만 1,000원(평균 1,266만 원)을 지원했고, 2000년에는 1건에 대해 2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1998년에는 IMF 구제금융 상황에서 서적 도매상의 연쇄부도 등 출판계가 어려움에 처하자 은행을 통한 융자 형식으로 200억 원을 출판계에 지원했다.

'문화예술의 해', 특정 예술 분야 집중 육성

〈문화예술의 해 지원〉(1991~2001)은 문예진흥원 산하 문화발전연구소가 주도하여 1990년에 수립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구상에 의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특정 예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홍보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해당 분야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됐다. 1991년 '연극영화의 해'로부터 1999년 '건축문화의 해'까지 9년 동안 88억 2,544억 8,000원, 그리고 2001년 '지역문화의 해'까지는 11년 동안 119억 7,638만 원(한 해 평균 10억 8,876만 원)을 지원했다.

〈문화예술의 해〉 시행 첫해인 1991년 〈연극영화의 해〉 사업은 연극 분야는 문예진흥원이, 영화 분야는 영화진흥공사가 주관했다. 연극행사의 경우, 개막축전행사와 개막공연행사가 있었고, 아·태연극제(서울연극제)에 2억 7,642만 6,000원, '사랑티켓' 시범 운영에 1억 9,116만 7,000원을 투입했다. 제3회 전국소극장축제, 제9회 전국연극제, 부산해변연극제, 어린이 연극경연대회 등이

[표 5-11] 1990년대 〈문화예술의 해〉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사업명	지원액
1991	연극영화의 해*	879,122
1992	춤의 해	898,139
1993	책의 해	997,755
1994	국악의 해	991,124
1995	미술의 해	1,000,000
1996	문학의 해	1,065,360
1997	문화유산의 해	1,000,000
1998	사진영상의 해	993,949
1999	건축문화의 해	999,999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1,950,933
2001	지역문화의 해	1,199,999
계	11건	11,976,380

* 영화 분야는 영화진흥공사가 주관

개최되고, 연극 관련 각종 심포지엄과 워크숍이 열렸다. 1992년에는 〈춤의 해〉를 맞이하여 각종 무용행사가 매우 다양하게 개최됐다. 개막제와 '무용인의 밤'을 시작으로 기존에 시행해 온 무용행사 외에 봄맞이 춤제전, 상설야외무대, 여름 야외 이벤트, 국제무용제 및 기록사진전, 춤 공모전, 한겨레 춤제전, 무용자료집 발간, 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1993년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도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각종 기념 출판사업, 도서 전시, 기념이벤트 및 연구 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나날이 디지털 영상매체에 경도되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 대응하여 전국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22개 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순회도서전시회를 비롯해 '도서관에 책을 채우자' 운동, 저자와의 대화 대규모 이벤트화, 재외동포에게 '사랑의 책' 보내기, 범국민독서생활화운동, 독서새물결운동 등이 있다. 1994년에는 〈국악의 해〉를 맞아 국악진흥의 기반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20개 사업을 지원했다. 새봄맞이 국악대축제, 국악관현악축제, 총체극《영고》공연, 종교음악제, 일요명인명창 상설공연, 전국 22개 지역 'Live Stage Car' 순회, 전국 17개 지역문화축제, 7개 지역 민요대공연 외에도 국제교류, 교육연수, 학술연구 행사가 개최됐다.

1995년 〈미술의 해〉에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30개 사업을 추진했다. '생활 속의 미술' 주제의 세미나 등 각종 학술대회, 한국현대미술 파리 초대전, 오늘의 한국미술전, 서울판화미술제, 현대미술표현매체전, 전국화랑미술제, 한국현대미술 50인 초대전 등의 전시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한집한 그림 걸기 작은 그림전' 행사에는 1백여 개가 넘는 화랑이 참여, 100만 원 이하의 소품을 내놓아 미술품 대중화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1996년 〈문학의 해〉는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공유하고 우리 문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문학지도 제작 발간, 문학인명록 발간, 문학유적지 지정 추진, 한민족문학인대회, 시화전 개최, 문인모습 및 육필전시회, 전국 시낭송대회 등 23개 사업이 추진되거나 개최됐다. 6개월간 펼쳐진 '찾아가는 문학'은 윤후명, 강연자 등 37명의 작가들이 전국 14개 시도에서 문학강연회를 개최하여 지역문인과 문학애호인의 큰 호응을 받았다.

1997년 〈문화유산의 해〉는 1995년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등 3건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문화유산알기 15건, 문화유산가꾸기 9건, 문화유산찾기 4건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운영했다. 1998년 〈사진영상의 해〉에는 15개 사업을 추진·운영했다. 우리사진 찾기운동, 한국사진 역사전, 사진영상축전, 전국민 사진축제, 격동의 한국현대기록사전, 남북산하 사진전, 사진의 시각적 확장전 등 전시와 '21세기 사진영상 학술대회'가 열렸다. 1999년 〈건축문화의 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새로운 천년을 위한 건축 비전 모색', 한국건축 100년전, 동서양의 건축문화비교 국제심포지엄, 지역문화공간모델개발, 건축문화자산 정보화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운영했다.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와 2001년 〈지역문화의 해〉에 대해서는 제6장 제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기간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문예진흥원이 기간(基幹) 문화예술단체(본부)의 사업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은 이들 단체의 수입구조가 열악하여 외부 지원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예총 지원〉(1981, 1983~2009)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본부·지부의 사업 지원을 통해 중앙과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예총 지원〉(1994~2009)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의 본부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 문화예술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2002년 이후 〈기간문예단체 지원〉으로 계속 지원되다가 2010년에 공모를 통한 심사제로 전환되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원〉(1994~2003)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과 전략 연구 및 각종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4년 중반부터 분리 독립(1994. 7.)에 대비하여 문예진흥원 예산 중 문화발전연구소 해당 예산을 분리 편성했다. 1994년에는 기관 설립에 필요한 잔여 예산을 산출해 5억 1,000만 원의 지원 규모를 확정했고,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92억 500만 원을, 지원이 종료된 2003년까지 8년 동안 총 133억 500만 원을 지원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지원〉(1991~2002)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향토문화 발굴·보존 활동을 지원한 사업이다. 1994년에는 월간 『우리문화』 발간, '향토문화연구 발표회',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등에 6,000만 원을 지원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29건, 8억 1,957만 5,000원을 지원했고, 사업이 종료된 2002년까지 39건에 9억 9,807만 원을 지원하다 2003년 이후 국고로 전환했다. 〈문화재보호재단 지원〉(1975~1995)은 1993년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작품전 등 9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1990년부터 지원을 종료한 1995년까지 8억 7,722만 5,000원을 지원했다.

기타 문화예술 일반 지원사업

〈예술평론활동지원〉(1983~2001)은 1993년에 『예술평론』 21, 22호와 『공평』 16호 발간 등 3개 사업에 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규모가 커졌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61건에 1억 6,888만 원을 지원하여 건당 평균 지원액은 177만 원이다. 2002년 이후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에 통합됐다. 〈예술장학금지원〉(1979~1995)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사정 호전과 각종 장학제도 정착, 정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1995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국악과 무용 분야에서 198명이 3억 1,915만 3,000원(평균 161만 원)의 예술장학금을 받았다.

〈대중예술지원〉(1974~2001)은 국민 정서 순화, 음악 인구의 저변 확대, 보다 밝은 사회 조성 등을 목표로 출범한 사업이다. 1993년,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제20회 정기연주회》, 《야누스재즈음악회》, 《대중 경음악 편곡연주회》 등 4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72건에 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건당 평균 지원액은 768만 원이다. 2002년 이후 〈다원적예술지원〉에 통합됐다. 〈예술진흥기획지원〉(1999~2000)은 급변하는 문화예술계의 흐름에 따라 시급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원사업을 쉽게 수용하기 위한, 이른바 계기성 프로그램이다. 1999년, 《제1회 공장미술제》와 KBS 〈문화사랑발굴 이사람〉에 7,000만 원, 그리고 2000년에 1억 원을 지원했다.

〈도서관·박물관지원〉(1999, 2001)은 1999년에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독서서지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한국박물관협회를 통해 『박물관학총서』 발간, 『박물관 설립운영 관리지침서』 출판·보급 등에 1억 원을 지원했고, 2001년에는 30건 1억 8,400만 원을 지원했다. 〈어문단체활동지원〉(1992~2001)은 국어 및 국어 문자의 올바른 연구 정립과 국민 언어생활의 순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어 언어문화 향상이나 어문연구 활성화를 꾀하는 각종 학술 발표회, 연구 활동, 책자 발간 및 한글날 계기 특별전시회 등을 지원했다. 1997년에는 국어의 발전 및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연구, 독서의 생활화 정착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독서새물결운동' 등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1992년부터 사업이 종료된 2001년까지 72건에 대해 16억 6,018만 5,000원을 지원했다.

4. 199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1990년대는 문화향수사업의 규모와 대상이 크게 확대된 시기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제6공화국 정부에 의해 문화부가 단독부처로 출범(1990. 1.)하면서 생활문화국을 신설하고 '일상생활 속의 문화'를 목표로 한 각종 정책을 펴 나갔다. 1990년대 후반 우리 사회에 '문화복지'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문화예술 복지를 지향하는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설된 각종 문화향수사업과 국민의 문화향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1990년대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었다. 이들 사업은 2002년 이후에도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이나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등의 사업으로 시행되었고, 2004년 이후에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전액 조건부기부금으로 개최하고 있는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1983~현재)에 대한 문학 애호 여성들의 열망도 여전했다.[3] 1990년대에 문화향수 분야에 투입된 기금사업비는 총 153억 9,390만 6,000원이다.

3. 1990년(8회)부터 1999년(17회)까지 10년 동안 기부금을 제외한 순수 기금사용액은 3,850만 원으로, 총 3,875명이 참가하여 296명이 수상했다.

[표 5-12] 1990년대 문화향수 주요 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지원 *	16,758 (-)	14,936 (-)	32,500 (21)	38,697 (20)	49,427 (19)	14,500 (39)	45,000 (39)	658,450 (238)	762,900 (265)	264,500 (79)	1,897,668 (720)
공연예술순회활동 및 순회전시지원 **	275,900 (-)	183,802 (-)	201,469 (-)	222,000 (-)	268,500 (-)	335,271 (-)	371,000 (-)	648,223 (-)	448,000 (-)	505,000 (-)	3,459,165 (-)
문화의달, 이달의문화인물행사지원	130,492 (-)	268,053 (-)	293,910 (-)	289,824 (-)	350,631 (-)	366,709 (-)	479,150 (-)	424,512 (-)	508,661 (-)	438,936 (-)	3,550,878 (-)
생활문화활성화사업	19,864 (1)	62,140 (3)	70,000 (3)	30,000 (3)	30,000 (2)	30,000 (3)	30,000 (3)	30,000 (3)	30,000 (3)	30,000 (3)	362,004 (27)
문화학교 및 국제문화학교 운영지원	-	-	194,142 (-)	214,995 (-)	287,136 (-)	310,541 (-)	341,900 (-)	400,750 (-)	507,756 (-)	420,191 (-)	2,677,411 (-)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개최	3,008 (1)	3,108 (1)	3,382 (1)	2,979 (1)	2,896 (1)	4,200 (1)	4,625 (1)	6,159 (1)	3,755 (1)	4,429 (1)	38,541 (10)
장애인 문화향수권 신장	-	-	-	-	-	-	95,000 (32)	145,000 (47)	148,000 (45)	185,000 (62)	573,000 (186)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사업	152,000 (39)	165,000 (42)	216,000 (45)	238,800 (50)	237,600 (50)	204,000 (44)	214,790 (44)	217,600 (48)	276,000 (46)	327,600 (47)	2,249,390 (455)
문화복지지원	-	-	-	-	-	-	-	123,000 (-)	369,554 (-)	20,000 (-)	512,554 (-)
기업메세나운동	-	-	-	-	73,295 (-)	-	-	-	-	-	73,295 (-)
합계	598,022 (41)	697,039 (46)	1,011,403 (70)	1,037,295 (74)	1,299,485 (72)	1,265,221 (87)	1,581,465 (119)	2,653,694 (337)	3,054,626 (360)	2,195,656 (192)	15,393,906 (1,398)

* 소규모공연단 지역순회공연지원(1986~1994), 신년음악회(1986~1997), 공연예술순회활동지원(1988~2001), 미술작품순회전시지원(1989~2001)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음.

** 사회교육활동지원(1987~2001), 문예강좌 및 활동지원(1987~2001), 문화예술 동호인활동지원(1988~1998)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음.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일상생활 속의 문화향수 증진

1990년대 초 제6공화국 시기에 생활 속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신설한 사업은 〈생활문화활성화사업〉, 〈문화의 달·이달의 문화인물 행사지원〉, 〈문화학교 및 국제문화학교 운영지원〉 등이 있다. 이중 〈생활문화활성화사업〉은 도시환경문화상 지원(1991~1999), 생활음악제 지원(1990~1999), 생활미술제 지원(1991~1999)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환경문화상 지원〉은 환경문화 공간 가운데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과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문화 공간의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3년에 〈대한민국환경문화상〉으로 개칭됐다. 〈생활음악제 지원〉과 〈생활미술제 지원〉은 여러


첫 「이달의 文化인물」 秋史선정

7월한달간 강연회등 行事

秋史 金正喜

(1990. 7. 12. 경향신문)

이달의 문화인물
역사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인물을 월별로 선정하여
소개 책자와 포스터 제작, 그리고 학술행사 등을 개최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0년 7월부터 문화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첫 번째 문화인물로는 추사 김정희를 선정하였다.

종교 간 음악·미술 분야의 창작·교류 축제를 지원하여 종교예술을 통한 종교 간 화합에 기여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세 개 행사에 대해 총 3억 6,200만 4,000원을 지원했다.

〈문화의 달·이달의 문화인물 행사지원〉은 '문화의 달' 행사지원(1990~2008)과 '이달의 문화인물' 행사지원(1990~2002)으로 구분 시행됐다. 문화부로부터 이관된 〈문화의 달 행사지원〉은 매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의 문화인물 행사지원〉은 매달 우리 문화와 역사를 빛낸 문화인물을 선정·발표하고, 소책자와 포스터 제작·배포 및 관련 문화·학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에게 이달의 문화인물을 새롭게 인식시켜 오늘날 이달의 문화인물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 두 사업에 총 35억 5,087만 8,000원을 지원했으며, 그중 〈문화의 달 행사지원〉은 16억 1,653만 2,000원, 〈이달의 문화인물 행사지원〉은 2002년 2억 7,715만 6,000원 지원을 끝으로 종료됐다.

〈문화학교 및 국제문화학교 운영지원〉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문화학교지원(1992~2001)은 문화부가 지정한 한국문화학교(23개 장기 문화강좌, 문예진흥원 내 별도 사무국이 전담 운영)와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비지정 장기 문화강좌(일반문화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2년부터 2001년 사업종료 시까지 10년 동안 23억 2,016만 2,000원을 지원했다. 국제문화학교 운영(1992~2001)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다. 문예진흥원이 직접 운영했고, 전통공연예술(사물놀이, 판소리, 탈춤) 강의 및 실습, 전통음식 만들기 실습, 전통도예 견학 및 실습, 민속촌 견학 등을 내용으로 한다. 1992년부터 2001년 사업종료 시까지 9,300만 5,000원을 투입했다.

문화예술 복지의 증진


원로 文化예술인 복지지원

공적 뚜렷한 50人에 400만원씩

첫 시행-創作여건 조성 큰도움

원로문예인복지지원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하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원로문예인 50명을 선정하여 1인당 연간 4백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을 1990년부터 추진하였다.
(1990. 4. 18. 매일경제)

〈문화복지지원〉(1996~현재)은 1990년대 후반 '문화복지'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세 개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됐다. 가족 단위 문화활동 등 문화의 생활화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가정문화운동지원(1996~1998)은 가정문화소식지 발간, 가정문화운동 심포지엄, 문화교육인 음악회 지원, 가정문화운동 열린 문화제 등이 주 내용이다. 3년 동안 1억 3,300만 원을 지원했고, 1999년 이후 〈사회교육지원〉으로 흡수됐다. 사랑의 문화봉사단 지원(1996~2001)은 전국의 문화소외지역·계층을 순회하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2001년까지 6년 동안 2억 250만 원을 지원했다. 문화복지정보지 발간지원(1996~2002)은 전국 시·군·구 대상 '문화도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창간한 문화정보지 『문화도시·문화복지』의 발간·배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4] 2002년까지 7년 동안 11억 6,005만 4,000원을 지원했다.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사업〉(1990~현재)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크고 생활이 어려운 원로 문화예술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초창기에는 50명에게 연간 400만 원씩 지급했으나, 1990년대에는 30여 명에게 연간 720만 원(월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일몰제(日沒制) 사업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455건에 22억 4,939만 원을 지급했다. 〈장애인 문화향수권 신장〉(1996~현재)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328건에 10억 2,450만 원을 지원했고, 2002년 이후에도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로, 이후 국고 이관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문예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감상할 기회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고 더불어 즐기는 문화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했다.

4. 4×6배판의 격주간지로, 발행면수 60면 내외, 발행부수 각 3,000부이다.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창립


기업메세나協 현판식

지난달 18일 창립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2일 오전 서울 동숭동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구내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崔元碩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장(사진 ㉡에서 두번째)을 비롯, 李坡錦대림그룹회장, 朴晟容금호그룹회장, 李敏雄문화체육부장관,李誠載문예진흥원장(사진 ㉦로부터)등 기업인과 문화예술인 40여명이 참석했다。(02)760-4556,4553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설립
기업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현판식. 1995년 5월 2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건물 내에 임시 사무실을 열었다. (1995. 5. 3. 동아일보)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도덕적 의무가 강조되고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높이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 메세나협회가 창립되었다. 〈기업메세나운동〉(1994)은 문예진흥원 주도로 1994년 4월 사단법인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현 한국메세나협회)를 조직·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한 사업이다. 1994년 한 해에 7,329만 5,000원이 소요됐으며, 이후 필요 경비는 회원기업의 출연으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했다.

청소년 정서 함양과 미래의 예술인구 확대

문예진흥원은 1984년 청소년문화 전담 부서(청소년문화부)를 설치하고 청소년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문화적 방식으로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려 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취향을 조기에 계발하여 전문예술인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의 문화예술 감상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1984년부터 1997년 〈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으로 흡수·통합되기 전인 1996년까지 13년 동안 주요 청소년문화사업에 지원한 문예진흥기금은 1,161건, 41억 1,115만 원이다. 1980년대 6년 동안 368건, 18억 6,477만 1,000원(평균 507만 원)이고, 1990년대 7년 동안 793건, 22억 4,637만 9,000원(283만 원)이다.

청소년문화사업은 크게 4개의 사업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문예강좌지원〉은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소양강좌와 전문강좌를 지원했다. 주로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문예강좌지원(1984~1996)과 공단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청소년 문예강좌지원(1985~1991)이 있었다. 〈청소년 문예활동 및 공연지원〉은 청소년의 예술적 소질을 계발하고 기량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예술 경연대회와 실기대회를 지원했다. 이 사업 역시 청소년 문예활동지원(1984~1996)과 근로청소년 문예활동지원(1985~1996)이 있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공연예술제, 청소년단오제 등을 지원했고, 근로청소년 문예활동 유공자 포상 및 동인지 지원, 공단지역 문예활동 및 공단순회 문예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다.

〈청소년 도서 및 연구지원〉(1984~1990)은 1980년대에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 및 보급사업, 청소년 문예프로그램 지침서 발간, 청소년 문예창작 공모위촉 및 작품집 발간, 청소년 애송시집 발간, 도서목록 해제집 발간 등 많은 사업을 펼쳤고, 1990년에는 청소년 문예워크숍 지원(1988~1990)에 1,750만 원(1988~1990년 총 5,150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표 5-13]에 포함하지 않은 1990년대 〈기타 청소년문화사업〉으로는 청소년 고전읽기 사업 지원(1986~1996), 인형극 및 아동극 지원(1989~1996), 문화제 시행학교지원(1992~1996),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1992~1996), 고교순회공연지원(1992~1996), 동요보급지원(1996)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 406~410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5-13] 1990년대 주요 청소년문화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문예강좌지원	95,895 (53)	67,988 (36)	59,000 (33)	81,400 (46)	75,200 (42)	72,600 (48)	76,000 (48)	528,083 (306)
청소년 문예활동 및 공연지원	62,000 (31)	114,455 (50)	576,464 (64)	125,000 (82)	201,000 (67)	292,103 (98)	329,774 (94)	1,700,796 (486)
청소년 도서 및 연구지원	17,500 (1)	-	-	-	-	-	-	17,500 (1)
합계	175,395 (85)	182,443 (86)	635,464 (97)	206,400 (128)	276,200 (109)	364,703 (146)	405,774 (142)	2,246,379 (793)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5. 199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1990년대 지역문화 분야 지원사업은 크게 〈지방문예진흥기금조성지원〉,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역문화시설확충지원〉, 〈지역문화예술축제지원〉, 〈지역예술행사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지원〉 등 6개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중 1999년에 시작한 〈지역문예진흥사업〉의 경우만 1990년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이다. 1980년대부터 시행된 5개 사업 내 세부 사업 중 〈지역예술회관건립〉(1976~1977, 1979~1982)은 〈지역문화시설확충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82년에 폐지되었고, 〈지방문화원〉(1974~1988) 지원은 1989년부터 국고로 전환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신설된 세부 사업은 〈우수기획문화축제〉(1997~2001), 〈전국무용제〉(1992~현재), 〈문화의 집 지원〉(1997~2001, 복권기금 2004~2006) 등 3개 사업이다.

〈지방문예진흥기금조성지원〉을 먼저 살펴보면, 지역문예진흥기금 창설을 위한 종자금으로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각각 9억 7,500만 원씩, 그리고 광역시로 승격한 대전과 울산에는 1990년과 1998년에 6억 2,500만 원씩 추가 출연했다. 1980년대 전체 지역문화진흥지원사업 투자액이 402억 5,344만 6,000원인 데 비해, 1990년대에는 364억 648만 6,000원으로 9.6%가 줄었다. 1980년대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주요 내용을 제4장 제5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1990년대에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표 5-14] 1990년대 지역문화진흥 지원 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건))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지방문예진흥기금조성지원			2,375,000 (14)	-	-	-	-	-	-	-	625,000 (1)	-	3,000,000 (15)
지역문예진흥사업			-	-	-	-	-	-	-	-	-	3,500,000 (15)	3,500,000 (15)
지역문화시설확충지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1,500,000 (3)	3,000,000 (6)	3,400,000 (11)	2,250,000 (10)	2,000,000 (9)	1,031,500 (12)	2,150,000 (8)	-	-	-	15,331,500 (59)
	특장전문시설 건립		250,000 (1)	150,000 (1)	-	-	-	-	-	-	-	-	400,000 (2)
	기존문화시설 개보수지원		280,000 (3)	-	150,000 (1)	-	250,000 (2)	200,000 (1)	150,000 (2)	690,000 (7)	415,000 (7)	-	2,135,000 (23)
지역문화예술축제지원	지역문화제		43,800 (36)	61,000 (40)	62,000 (38)	59,500 (36)	85,000 (34)	167,000 (75)	116,500 (61)	357,000 (101)	382,000 (95)	-	1,333,800 (516)
	향토축제		33,000 (11)	33,000 (11)	33,000 (11)	36,000 (12)	60,000 (12)	60,000 (12)	60,000 (12)	-	-	-	315,000 (81)
	우수기획 문화축제		-	-	-	-	-	-	-	190,000 (8)	200,000 (8)	215,000 (15)	605,000 (31)
지역예술행사지원	종합예술제 특장행사지원		14,800 (-)	20,200 (-)	43,500 (-)	25,500 (-)	28,900 (-)	28,200 (-)	34,400 (-)	91,000 (-)	94,000 (-)	107,000 (-)	487,500 (-)
	시도 미술대전 지원		21,000 (14)	21,000 (14)	21,000 (14)	28,000 (14)	42,000 (14)	42,000 (14)	42,000 (14)	42,000 (14)	-	-	259,000 (112)
	시도 미술대전 수상작품전		29,172 (-)	26,590 (-)	33,194 (-)	30,864 (-)	30,847 (-)	35,375 (-)	36,991 (-)	38,580 (-)	-	-	261,613 (-)
	전국연극제		127,516 (14)	133,063 (14)	143,108 (14)	132,176 (14)	162,603 (14)	165,931 (14)	176,665 (14)	169,142 (14)	183,027 (15)	198,981 (15)	1,592,212 (142)
	전국무용제		-	-	125,329 (14)	127,171 (14)	142,419 (14)	143,345 (14)	149,894 (14)	148,793 (14)	168,963 (15)	181,486 (15)	1,187,400 (114)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지원	지역단체 공연	전통	5,000 (-)	11,500 (-)	22,500 (-)	47,500 (-)	107,000 (-)	104,000 (-)	-	-	-	-	297,500 (-)
		음악	6,000 (-)	12,500 (-)	51,000 (-)	57,600 (-)	127,700 (-)	129,500 (-)	-	-	-	-	384,300 (-)
		연극	5,000 (-)	11,000 (-)	23,000 (-)	26,000 (-)	86,000 (-)	93,000 (-)	-	-	-	-	244,000 (-)
		무용	6,000 (-)	10,000 (-)	12,500 (-)	16,000 (-)	70,000 (-)	69,000 (-)	-	-	-	-	183,500 (-)
	지역문화코너 자료보급		15,000 (-)	15,000 (-)	20,000 (-)	20,000 (-)	16,000 (-)	16,000 (-)	-	-	-	-	102,000 (-)
	문화의집 지원		-	-	-	-	-	-	-	1,400,000 (7)	1,396,000 (14)	1,990,000 (30)	4,786,000 (51)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재량권 부여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예진흥사업〉은 소규모 지역성 사업인 〈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지원〉 등 9개 사업을 통합한 사업이다. 1999년 이전에 문예진흥원이 직접 지원 대상을 심의 결정하던 사업을 묶어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에 예산을 통째로 배분, 지역에 지원심의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공모 지원신청 기간에 전국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역의 행사나 사업까지도 문예진흥원이 직접 심의해 왔다. 그러나 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지원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소소한 문화예술 활동까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지원신청 행사나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지원신청서만 그럴듯하게 잘 작성하면 지원금을 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가 구성·설립되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 소규모 지역성 사업에 대해 지역에 재량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지역문예진흥사업〉은 2005년 국고로부터 이관되어 지역 매칭으로 추진했던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과 함께 '지역배분형' 사업으로 불렸고,[5] 이후 '지역협력형' 사업의 주요 부분이 되었다.

지역문화시설 확충과 지역문화축제 지원

〈지역문화시설확충지원〉에는 이른바 4대 사업이라 하여 〈종합문예회관 건립〉(1984~1996), 〈특장전문시설 건립〉(1984~1991), 〈기존문화시설 개보수지원〉(1984~1998),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개보수〉(1984~1987) 등의 세부 사업이 있었다. 이중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개보수〉 지원이 1987년에 종료되면서, 1990년대에는 〈종합문예회관 건립〉(59건, 153억 3,150만 원), 〈특장전문시설 건립〉(2건, 40억 원), 〈기존문화시설 개보수지원〉(23건, 21억 3,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지원한 〈지역예술회관건립〉(6건, 7억 원) 외에 제5공화국 당시 시작한 〈지역문화시설확충지원〉(1984~1998) 4대 사업으로 지원한 총액은 136건, 841억 9,700만 원(건당 6억 1,910만 원)에 이른다. 국고·기금 간 역할분담론에 따라 〈종합문예회관 건립〉 지원은 1997년부터 국고 전담 지원으로 전환했다.

〈지역문화예술축제지원〉은 1970~1980년대부터 지원하던 〈지역문화제〉(1974~1998)와 〈향토축제〉(1983~1996), 그리고 〈우수기획문화축제〉(1997~2001)가 있다. 〈향토축제〉는 지역문화제 가운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성 짙은 축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지역문화제 건당 평균 지원액이 258만 원이고 향토축제는 389만 원으로, 겨우 50% 정도의 증액에 그쳤다. 〈우수기획문화축제〉는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하였다. 1997~1999년 사이 지원은 건당 1,952만 원(31건, 6억 500만 원), 1997년부터 사업이 종료된 2001년까지 1,763만 원(61건, 10억 7,500만 원)으로, 건당 평균 지원액이 크게 늘었다. 장보고축제, 무주반딧불이축제, 고싸움대축제, 개천예술제, 매헌문화제, 함평나비축제, 과천마당극제, 우륵문화제 등을 지원했다.

지역예술행사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예술행사지원〉에 속한 5개 세부 사업 중 4개는 1980년대부터 시행하던 사업이고, 1990년대 신규사업으로는 문예진흥원이 한국무용협회와 1992년부터 공동주최하기 시작한 〈전국무용제〉가 있다. 1992년 〈춤의 해〉를 맞아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대표무용단이 참여하는 〈전국무용제〉를 창설하고, 지역별 예선대회와 본선대회를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다.[6] 1992년 제1회부터 1999년 제8회까지 8개 시도에서 순회 개최하여 114개 무용단체와 7만 3,496명의 관객이 참가했고, 총 11억 8,740만 원을 지원했다. 〈전국무용제〉는 지역무용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무용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행사로, 지역무용인의 화합과 참여, 춤 인구의 저변 확대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연극제〉는 지방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1990년대에 1990년(제8회)부터 1999년(제17회)까지 142개 연극단체와 20만 3,893명의 관객이 참가했고, 총 15억 9,221만 2,000원을 지원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지원〉의 6개 세부 사업 중 5개는 1980년대부터 시행하던 사업이고, 1990년대 신규사업은 〈'문화의 집' 지원〉(1997~2001, 복권기금 2004~2006)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마을 단위의 '문화의 집'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5.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1999년 IMF 위기 상황에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20억 원을 긴급 반영하여 지역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예술위원회로 이관되었고, 2009년 '지역협력형'으로 전환 시 예산 규모는 50억 원(매칭액 별도)이었다.

6.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대회(1992. 9. 23.~10. 1.)부터 1997년 제6회 대회까지는 14개 시도가 참가했으며, 제7회(1998)부터는 울산시가 추가되어 15개 시도가 참가했다.

문화 체험을 확대하고 문화의 생활화를 도모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86개의 '문화의 집' 조성에 85억 8,600만 원을 지원했다. 2004년부터 3년간 〈'문화의 집' 계층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복권기금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했다. 〈지역문화코너자료보급〉(1987~1995)은 각 지역문화원에 문화코너를 설치하고 각종 문화기자재를 보급한 사업이다.

1990년대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지원〉,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역문화시설 확충지원〉, 〈지역문화예술축제지원〉, 〈지역예술행사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지원〉 등 6개 지역문화진흥사업은 1980년대 지역문화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지역문화진흥사업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지방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를 육성하는 것은 바로 전통문화를 개발하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지방문화의 육성을 통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고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그 뜻이 있었다. 지방문화의 육성과 진흥은 문화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민 의식의 지방분권화를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분야에서 균형발전의 이상을 추구하려는 것이며, 지금까지 서울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온 문화시설과 문화활동을 지방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중앙과 동일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크게 신장시켜 주는 역할을 기대한 것이었다.

이중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사업〉은 기금 이자를 활용해 지역별로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였고, 기금조성에 지방 재원 투입, 기업과의 협력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방문화시설 확충 건립지원〉은 지역문화가 낙후되고 중앙과의 격차가 심해진 원인 중 하나로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다.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위한 공간을 확충하여 문화예술 창작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규로 건립된 지역문화시설은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지방문화원, 예총 지부 등이 지역문화예술의 산실이며 중심이라는 인식하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역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전국연극제, 대한민국연극제 지방순회공연, 대한민국무용제 지방순회공연, 전국무용제, 대한민국미술대전 지방순회전시, 시도 미술대전 및 수상작품전, 지방종합예술제 특장 부문 경연대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써 중앙과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문예진흥원은 1998년부터 지역지원제도를 개선해 소액 다건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직접 심의·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자율성 신장을 신장시키고 지역문화의 활성화 및 분권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 199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1990년대 국제문화교류 분야 지원사업을 크게 분류하면,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한국문학해외소개〉, 〈문화예술인국제교류〉, 〈문화예술국제교류〉, 〈국제문화교류기반조성〉 등 4개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1980년대가 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1990년대는 18개로 구성돼 있다. 1989년에 종료된 큐레이터해외연수(1986~1989) 외에 8개 세부사업(그중 2개 사업은 1989년에 시작)이 존속하고, 10개의 세부 사업이 1990년대에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것이다. 특히 1990년대에 국제문화교류지원 분야에 투입된 기금사업비는 141억 4,150만 8,000원으로, 1980년대 19억 1,892억 2,000원에 비해 7.4배로 증가했다. 이는 제6공화국의 국제화, 문민정부의 세계화 패러다임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국제문화교류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4장 제6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1990년대에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표 5-15] 1990년대 주요 국제문화교류 분야 지원 총괄

(단위 : 천 원)

사업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한국문학 해외소개	한국문학번역출판	25,787	62,697	65,772	148,328	110,300	181,987	308,811	297,852	354,911	301,376	1,857,821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지원	-	-	-	22,979	-	95,268	-	90,419	-	83,180	291,846
	신진번역인력 연구연수	-	-	-	-	17,948	24,174	12,745	43,116	40,599	34,717	173,299
문화 예술인 국제교류	문예인해외연수지원	42,000	42,000	42,000	48,000	48,000	32,000	48,000	48,000	-	36,000	386,000
	문화기관종사자 해외연수	26,820	29,686	17,712	28,576	25,576	56,414	-	-	-	-	254,777
	해외문예인 초청사업	10,310	24,801	2,2492	2,8334	7,162	14,000	-	-	-	-	107,099
	문인해외방문연구활동지원	-	-	-	-	-	-	-	3,159	9,155	-	12,314
	재외동포문화예술교류지원	-	30,000	26,117	83,269	96,179	96,680	126,000	180,474	167,705	184,645	991,069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 한국작가 참가지원	-	-	20,350	20,921	21,084	19,921	22,512	31,255	8,212	24,727	168,982
문화예술 국제교류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91,964	67,324	124,344	101,178	102,771	107,553	263,669	652,577	156,500	157,500	1,825,380
	공연교류활동지원	240,455	257,620	238,103	157,122	243,527	249,972	220,000	304,032	192,000	449,000	2,551,831
	전시교류활동지원	-	24,995	8,000	119,269	146,000	68,000	38,000	294,032	132,282	76,000	906,578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	-	-	-	-	428,763	1,115,840	260,846	278,093	17,570	403,479	2,504,591
	주요계기문화예술교류지원	-	-	-	-	-	-	460,000	426,887	297,633	150,685	1,335,205
국제문화 교류기반 조성	국제문화예술기구지원	17,045	40,971	35,767	40,000	40,000	36,000	25,000	35,000	37,000	-	306,783
	해외문화행정기획실태조사	18,471	7,996	29,778	-	-	-	-	-	-	-	56,245
	외국소장한국도서조사 및 영인	-	48,086	49,009	39,534	48,708	48,928	49,596	24,965	-	-	308,826
	해외주요문화기관교류 및 기획조사활동	-	-	-	-	26,057	19,634	3,458	12,978	14,064	26,671	102,86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박경리 「토지」 영국에서 출간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가 홍콩의 영어으로 영국의 키건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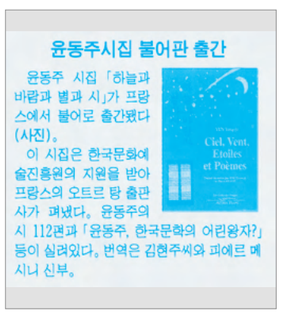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문덕수)의 번역출판 지원을 받아 출간된 이번 영역본의 제목은 「Land」.

유네스코가 제정 시행하는 유네스코 대표 문학선집에 선정된 「토지」의 해외 번역은 日語, 佛語에 이어 이번이 세번 째. 한편 조정래씨의 장편 「불놀이」도 전경자씨의 번역으로 미국에서 출간됐다.


具常시집 '영원한 삶'스웨덴서 출판

원로시인 구상(具常)씨의 시집 「영원한 삶」이 최근 스웨덴 교포 화가이자 소설가인 최병은씨에 의해 스웨덴어로 번역, 출판됐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구상시집 스웨덴 현지 출판은 지난 93년 조병화(趙炳華)시인의 시선집 발간에 이어 두번째. 이문열(李文烈)씨의 소설 「젊은 날의 초상」과 「최인훈 소설선」도 현재 스웨덴어로 번역중에 있다.

한편 구상시집은 지난해 11월말 선보인 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1일에는 스웨덴 문화성과 스웨덴 문화진흥회의 후원으로 스톡홀름에서 구상 시낭송회와 출판기념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중식기자


윤동주시집 불어판 출간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프랑스에서 불어로 출간됐다(사진).

이 시집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의 오트르 탕 출판사가 펴냈다. 윤동주의 시 112편과 「윤동주, 한국문학의 어린왕자?」 등이 실려있다. 번역은 김현주씨와 피에르 메시니 신부.

한국문학 번역 출판

문학 분야의 국제교류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우리 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및 해외 현지 출판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번역 출판이 증가하였다.
(왼쪽부터 1997. 3. 12. 매일경제, 1998. 2. 9. 경향신문, 1998. 3. 2. 경향신문)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와 번역 기반 강화


"한국소설 진한감동 세계에 알릴래요"

문예진흥원 제정 「한국문학번역상」 수상
브루스 풀턴-윤주찬씨 부부

잠깐...

브루스 풀턴(오른쪽) 윤주찬씨부부

분예진흥원에서 제정한 제1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 브루스 풀턴, 윤주찬씨 부부가 시상식 참석차 내한한다. 두 사람은 80년 미국 실프레스사에서 나온 오정희 김지원 강석경씨의 중단편선집「Words of Farewell」(별빛)의 공동번역자로 20일 오후 열린 시상식에서 3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큰 상을 받아 부담 기쁩니다. 한국문학을 미국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재단사에도 감사한구요」(윤 한)「저희에게는 두려 의미있는 상입니다. 남편이 당분간 번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도 상아 그동안 쌓일지 못했던 책 두권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윤)

78년 펜클럽 사단으로 한국에 처음 온 풀턴씨와 이화여대를 졸업한뒤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던 윤씨는 한 모임에서 우연히만나 사귀게 되고 이듬해 결혼, 미국에서가정을 꾸몄다. 최근 한국에 대해 관심이 깊어진 남편

중단편「別辭」로 영광…번역일 더욱 전념

은 83년 워싱턴대에서 한국학 석사학위를 따기도 했다.

「번역은 한국문학작품을 영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작품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힘든 번역일이 쉽었지만 한국문학에 매료된 남편의 결심을 따르게됐지요」(윤 한)「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한 책벌레였습니다. 한국의 좋은 소설을 읽을때면 다른 미국 독자들에게도 그 느낌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번역을 시작했지요」(풀턴)

미국에서 한국문학소개는 앞과 접촉년에서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전한 이들은 이번 수상작「別辭」가 미국인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인 2,3세에게 좋은 교재가 될 수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로의 성격이 달라 번역에 있어서도 남편은「정확한 느낌」을 중시하는데 부인은「뛰어난 문장」을 주장하는 데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각자 모르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번역을 한뒤 다시 그 내용을 맞추어보는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

풀턴씨는『한국소설은 이곳에 처음있어도 주인공이 선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소외된 사람들도 자기삶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점이 감동적』이라며「앞으로도 번역작업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경주에서 열리는 한국펜클럽주최 세미나에 참가한 뒤 27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조동성)

한국문학번역상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를 위해 제정된 한국문학번역상.
제1회 수상자는 브루스 풀턴·윤주찬 부부로 오정희, 김지원, 강석경의 중단편선집 『별사』를 공동 번역하여 미국 실프레스에서 『Words of Farewell』로 출간하였다.

〈한국문학 번역 출판〉(1983~2001)은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1년 3월 출범한 한국문학번역원에 사업을 이관했다. 우리 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 현지 출판을 문예진흥원이 직접 추진했던 사업이다. 1990년대에는 1990년부터 『한국문학소설총서』를 펴낸 프랑스 악트쉬드 출판사, 필리프 피키에 출판사, 미국 컬럼비아대 번역센터 등 해외 저명 출판사가 우리 문학을 기획·출판했다. 매년 10종 이상 번역·출판하는 가운데, 1997년에는 6개 언어권 15종의 번역서가 출간됐다. 특히 박경리의 장편소설 『토지』가 프랑스와 일본 출간 이후 10여 년 만에 영국에서 출간됐고, 독일어로도 번역되었다. 스웨덴어로 번역한 「조병화시선」과 「구상시선」 등 1980년부터 이관 전까지 20여 년 동안 15개 언어권에서 173종의 작품이 번역, 출판되었다. 1990년대에 18억 5,782만 1,000원을 집행했고, 2000년 예산은 1억 7,359만 6,000원, 2001년 예산은 2억 6,740만 원이었다.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지원〉(1993~2001)은 한국문학 번역 종사자의 번역 의욕 고취를 위해 제정한 격년 시상제이다. 1993년 제1회 한국문학번역상은 브루스 앤 주찬 풀턴(Bruse & Ju-chan Fulton) 부부가 번역하여 출판한 「Words of Farewell」(『別辭』)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별사」는 한국여성 3인 소설선집이다. 1997년 제3회에 대상을 받은 「한중록」(김자현)은 18년 동안 번역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1년 제5회는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하게 됨에 따라 1억 원을 지원하여, 1993년 이래 총시상 지원금은 3억 9,184만 6,000원이다.

〈신진번역인력 연구연수〉(1983~1987, 1994~2000)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1994년에 재개된 사업으로, 1997년도부터는 기성 번역가의 단기간 연수도 병행 지원했다.[7] 해외의 한국문학 전공자나 번역 활동 가능자의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브루스 풀턴 역시 1983년에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7]

국제교류를 통한 예술인 역량 강화

〈문화예술인국제교류지원〉중 문예인 해외연수지원(1981~1999), 문화기관종사자 해외연수(1987~1995), 해외문예인 초청사업(1974, 1979~1995), 문인 해외방문 연구활동지원(1983~1998, 2000)은 1970~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이다. 〈문인 해외방문 연구활동지원〉으로 1990년대에 14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초창기에는 다양한 나라를 방문했으나 중반 이후에는 주로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국제창작프로그램(IWP)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1990년대에 〈외국저명문인 초청지원〉(1982~1997)을 통해 러시아, 영국, 인도의 문인들을 초청했다. 〈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지원〉(1991~2001)은 우리 동포가 집중 거주하는 외국 지역에 국내 예술인을 파견,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의 보존·창달을 돕고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 동안 12억 6,973만 원을 지원했다.

〈국제스튜디오 프로그램 한국작가 참가지원〉(1992~2000)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한국 미술작가를 뉴욕 현대미술연구소의 P.S.I. 프로그램에 1년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작가 개인의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계발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9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해 2000년까지 미국 체재에 따른 비용과 귀국 보고전 개최를 지원했다. 9년 동안 2억 293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받은 작가는 김수자, 하용석, 김영진, 박화영, 오상길, 신현중, 김승영, 윤영석 등이다. 이 사업은 2002~2005년 〈문화예술 해외교류지원〉으로 계속됐고, 위원회 전환 후에는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사업으로 확대됐다.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확대

〈문화예술국제교류〉 중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은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회의 및 행사교류지원〉(1975~1995), 〈문화예술인사 및 단체교류〉(1996), 〈국제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1997~1999) 등의 사업명을 썼다. 1990년부터 1999년

7. 한국문학번역양성 연구지원(1994), 한국문학신진번역가 연수지원(1995, 1996), 한국문학번역 연구연수지원(1997~1999) 등 사업명이 계속 바뀌었다.

까지 유고슬라비아 '세계 시(詩)의 축제', '국제펜대회' 참가 등에 3억 996만 8,000원(문학), 카셀 도큐멘타 국제미술제 참가 등에 1억 1,176만 4,000원(시각), 국제음악협의회 총회 참가 등에 3억 6,219만 5,000원(음악), ITI·OISTAT 총회 참가 등에 5억 8,950만 1,000원(연극), 세계무용연맹 창립총회 참가 등에 1억 7,030만 원(무용), 전통예술 부문에 2억 8,165만 2,000원을 지원하여 총 18억 2,538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1992년에는 한국전통예술보존연구회(김덕수 외 4인)가 베를린·빈·하와이·시애틀·뉴욕 등지를 순회 공연했다.

〈공연교류활동지원〉(1989~현재)은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해외공연과 외국 공연예술단체의 초청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0년대에는 25억 5,183만 1,000원을 지원했고,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3년 동안 40억 5,252만 원을 지원했다. 1990년대에는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바이로이트 음악제》 초청연주, 서울바로크합주단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공연》 등 63건(음악), 극단 산울림 《더블린연극제》 참가, 연희단거리패·극단 쎄실 《세계연극제》 참가, ITI 한국본부 《프랑스연극제》 개최 등 72건(연극),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바그레놀 국제안무페스티벌》 참가, 한국무용협회 《프랑스 몽탈보무용단 초청공연》 등 70건(무용), 봉산탈춤보존회 《뉴욕 국제예술제》 참가,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영국 런던 및 더햄 순회공연》, 진도민속놀이진흥회 《진도씻김굿》 덴마크 오딘 페스티벌 참가 및 순회공연 등 32건(전통예술)이 〈공연교류활동지원〉의 지원을 받았다.

〈전시교류활동지원〉(1991~1999, 현재)은 국내 단체·작가의 해외전시회 개최, 국제교류전 참가, 국제기획전의 국내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9년 동안 9억 657만 8,000원을 지원하여, 해외의 한국미술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해외 미술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에도 바뀐 사업명으로 전시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김흥수 조형주의작품전 러시아 순회전시, 상파울루 비엔날레 참가,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 프랑스 카뉴국제회화제 참가, 한국현대공예 12인 미국 순회전, 프랑스 청년작가전 국내 개최, 한국국제사진전 개최, 국제난정필회 서법전 개최, 한일 섬유예술교류전 등 65개 행사를 지원했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사업〉은 우리 미술의 해외 소개를 위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하고, 국내 미술인이 세계미술 조류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1994년 9월에 베니스시 당국으로부터 한국관 건립 허가를 취득하고, 1995년 6월 7일 세계에서 26번째이자 마지막 독립국가관인 한국관을 개관했다. 1995년 개관은 베니스 비엔날레 100주년 기념관으로서의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전 수 천식 인터뷰

"예술세계 인정 무엇보다 기뻐"

'전통에 뿌리둔 세계화 추구'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작가 3회연속 수상 쾌거

설치작가 이불씨 올 특별상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우리 미술의 해외 소개를 위한 교두보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1995년 개관하였다.
개관 첫해 전수천 작가(1995)의 특별상 수상 이래
강익중(1997), 이불(1999) 작가까지
3회 연속 수상하여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렸다.
(왼쪽 위 1995. 6. 13., 왼쪽 아래 1997. 6. 16.,
오른쪽 1999. 6. 14. 동아일보)

의미를 가지며, 한국미술의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을 뜻한다. 1996년 제6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행사 참여는 한국건축 세계화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특히 개관 첫해인 1995년에 전수천 작가가 특별상을 수상한 이래 1997년 강익중 작가, 1999년 이불 작가가 연속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1994~현재)은 문예진흥원이 직접 운영해 온 사업으로 1990년대(1994~1999년)에 6년 동안 25억 459만 1,000원을 투입했다.

[표 5-16]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수상내역

연도	행사명	주관	기간	커미셔너	참가 작가
1995	미술전 (제46회)	문예진흥원	1995. 6. 11.~10. 15. (6. 7.~10. 시사회)	이일	• 김인겸, 전수천, 곽훈(이상 설치), 윤형근(회화) 전수천 특별상(설치) 수상
1997	미술전 (제47회)	문예진흥원	1997. 6. 15.~11. 9. (6. 11.~13. 시사회)	오광수	• 강익중(회화), 이형우(조각) 강익중 특별상(회화) 수상
1999	미술전 (제48회)	문예진흥원	1999. 6. 12.~11. 7. (6. 9.~11. 시사회)	송미숙	• 이불(설치), 노상균(회화) 이불 특별상(설치) 수상
2014	건축전 (제14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6. 7.~11. 23. (6. 5.~6. 시사회)	조민석	• 안세권, 알레산드로 벨지오조소, 닉 보너, 마크 브로사 등 30명 한국관 황금사자상 수상
2015	국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5. 9.~11. 22. (5. 6.~8. 시사회)	오쿠이엔위저 (총감독)	• 임흥순 국제전 은사자상 수상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은 문예진흥원의 업무 영역이 외국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의미도 크지만,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적 성과 창출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제교류지원을 통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국제 문화예술 축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세계 3대 국제미술제 중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1995년 한국관 건립 이후 3년 연속 특별상 수상, 건축전 최고상인 한국관 황금사자상 수상, 국제전 은사자상 수상 등은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다.

국제문화교류 기반의 조성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중 〈국제문화예술기구지원〉(1974~1998)은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의 한국본부와 각종 사업을 지원해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PEN 한국본부, 국제극예술협회(ITI)와 국제연극평론가협회, 국제인형극협회(UNIMA),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 국제무대미술협회(OISTAT) 등 공연예술NGO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무실 개설을 지원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동안 3억 678만 3,000원을 지원했다.

〈해외문화행정기획 실태조사〉(1989~1992)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이다. 미국 중·소도시 문화시설 실태조사(1990), 「외국(미·일·프)의 지역문화공간운영 실태조사보고서」 발간(1991), 독일 베를린 등 3개 지역과 중국의 북경 등 2개 지역 조사(1992)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 동안 5,624만 5,000원을 지원했다.

〈외국소장 한국도서 조사 및 영인〉(1991~1997)은 해외 유출 도서자료의 영인을 통해 한국학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본, 미국, 중국의 대학도서관에 유출되어 있는 한국 고도서의 유출 경위 조사와 영인에 주력했다. 1991년에서 1997년까지 7년 동안 지원 금액은 3억 882만 6,000원이다.

〈해외 주요 문화기관교류 및 기획조사활동〉(1994~2001)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1억 286만 2,000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1990년대에는 한국문화통신사 일본 파견 지원(1992. 1억 8,119만 원), 바르셀로나올림픽 계기 문화사절단 유럽공연 지원(1992. 2억 2,700만 원), 파리 한국

종합예술제 지원(1993. 2건 3억 648만 원), 주요지역 대상 기획교류전 지원(1996. 2건 2억 6,445만 원), 뮤지컬 《명성황후》 뉴욕 링컨센터 공연(1997. 8. 15.~21.) 지원(1억 원), 한국문학 소개 전문계간지 『Korean Literature Today』 지원(1997. 9,600만 원)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계기성 사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국제문화교류지원 사업은 1970, 1980년대와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 기저에는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작용했다. 즉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소련, 중국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이었다. 평화적 정권 이양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했다. 병역 등 일부 제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이 외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해외 경험 확대, 관광 산업 발전, 국제교류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다. 특히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고 외국인이 한국을 찾음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교류할 기회가 확대되었고, 문화적 이해와 소통이 증진되었다.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인적교류 확대를 발판 삼아 각종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이해와 소통 증진, 문화적 다양성 증진, 문화적 교류 활성화, 국가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였다.

또한 북방외교를 통해 1988년 1월 공산국가인 헝가리 상공회의소와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가 시작되었고, 10월 4일 유고 무역사무소가 개설되었다. 1989년 2월 1일 공산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국교가 수립되었으며, 1990년 10월 1일 소련, 1992년 8월 22일 중국과의 국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적대관계에 있던 사회주의 체제 국가와 잇따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이후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폭증하기 시작한 국제문화교류는 4년간의 교류량이 정부 수립 이후 40여 년간의 교류량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으며, 그 내용이나 규모 등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특히 미수교국이었던 동유럽 국가와의 문화교류는 이념의 벽을 넘어 신선한 문화적 충격으로 우리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

7. 1990년대 문화시설 운영 및 발간사업의 추진과 성과

1. 문화시설의 운영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의 운영

문예회관의 운영실적을 보면, 10년간 대관일 수는 대극장 2,979일(연평균 297.9일), 소극장은 3,043일(연평균 304.3일)로 높은 가동률을 보였다. 1980년대 연평균 대관일 수(각각 272.4일, 287.4일)와 비교하면 대극장은 9.4%, 소극장은 5.9% 증가했다. 대극장에서의 공연 횟수는 4,135회(연평균 413.5회), 소극장에서의 공연 횟수는 4,889회(연평균 488.9회)였다. 1980년대 연평균 공연 횟수(각각 436.3회, 515.6회)와 비교해 보면 대극장과 소극장 모두 5.2% 감소했다.

총관객 수는 168만 4,615명이었으며, 대극장은 126만 3,222명, 소극장은 42만 1,393명이었다. 공연 1회당 관객 수는 대극장(709석) 305.5명(객석 점유율 43.1%), 소극장(200석) 86.2명(객석 점유율 43.1%)이었다. 대·소극장 객석 점유율 각 43.1%는 1980년대 객석 점유율(각각 64.5%, 48.1%)에 비해 각각 21.4%, 5.0% 감소한 것이다. 1980년대에 비해 연평균 대관일 수가 증가했지만 공연 횟수가 감소한 것은 한 작품당 공연일자가 늘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극장의 객석 점유율이 1980년대에 비해 21.4%나 감소한 것은 문예회관이 과거 1980년대에 누렸던 독보적 위치를 급속히 상실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17] 1990년대 문예회관 연도별 대관일 수, 공연 횟수, 관람객 수 현황

(단위 : 일, 회, 명)

연도	대관일 수			공연 횟수			관람객 수		
	대극장	소극장	계	대극장	소극장	계	대극장	소극장	계
1990	287	301	588	418	535	953	113,988	54,928	168,916
1991	300	309	609	456	556	1,012	152,733	46,901	199,634
1992	302	314	616	448	546	994	113,704	41,222	154,926
1993	325	317	642	491	535	1,026	149,589	37,945	187,534
1994	314	321	635	464	567	1,031	138,149	49,451	187,600
1995	282	278	560	397	456	853	105,444	33,627	139,071
1996	271	270	541	369	391	760	135,221	30,201	165,422
1997	315	321	636	384	447	831	124,067	41,812	165,879
1998	321	317	638	385	438	823	129,067	40,773	169,840
1999	262	295	557	323	418	741	101,260	44,533	145,793
합계	2,979	3,043	6,022	4,135	4,889	9,024	1,263,222	421,393	1,684,615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표 5-18] 1990년대 문예회관 대관수입 현황

(단위 : 원)

연도	대극장	소극장	연습실	잡수입	계
1990	62,917,420	15,498,500	5,486,580	-	83,902,500
1991	64,435,640	15,861,600	7,207,540	-	87,504,780
1992	84,974,700	21,362,950	7,780,880	-	114,118,530
1993	83,646,320	17,978,300	1,056,960	-	102,681,580
1994	84,780,320	19,625,840	7,945,920	-	112,352,080
1995	66,988,830	15,123,640	4,649,760	-	86,762,230
1996	88,496,330	19,396,520	7,590,840	-	115,483,690
1997	116,165,400	28,081,600	9,821,200	960,100	155,028,300
1998	118,757,200	30,313,200	14,939,400	715,000	164,724,800
1999	165,073,500	37,183,000	20,431,000	-	222,687,500
합계	936,235,660	220,425,150	86,910,080	1,675,100	1,245,245,990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1990년대 대관료 총수입은 12억 4,524만 5,990원으로, 연평균 1억 2,452만 4,599원이다. 시설별로는 대극장이 9억 3,623만 5,660원으로 대관료 총수입의 75.2%를 차지했다. 소극장은 2억 2,042만 5,150원으로 17.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연습실은 8,691만 80원으로 7.0%, 기타 잡수입은 167만 5,100원으로 0.1%이다.

1999년부터 기획공연을 추진

문예회관은 1981년 개관 이래 대관 위주로 운영해 오다가 1999년부터 자체 기획공연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국민의정부'의 공공극장 수익구조 개선, 즉 경영 효율화 방침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문예회관 기획공연 개최〉는 1990년대 이후 문예회관 관객의 감소에 대응하여 기획공연을 통한 운영 활성화와 관객 확대, 시민에게 우수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도 함께 갖고 출발했다. 시행 첫해인 1999년에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동물의 사육제》, 극단 신시뮤지컬컴퍼니의 《갬블러》, 극단 자유의 《페드라》, 국립극단의 《무의도기행》 등 4건의 공연(공연일 수 58일)에 1만 8,451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특히 첫 공연인 《동물의 사육제》는 객석 점유율 96.7%, 유료 객석 점유율 86.3%로 8,156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의 운영

미술회관은 시설 면에서 전시장 총면적이 928㎡로, 전시 규모에 따라 2~5개 공간으로 조정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미술회관의 대관일 수는 총 2,572일로 연평균 257.2일 동안 전시회가 열렸다. 관람객 수는 142만 8,100명, 대관수입은 6억 4,542만 2,000원으로 연평균 6,454만 2,200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대관수입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98년으로 9,130만 6,000원이다. 미술회관은 대관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기획전도 활발히 개최해 왔다. 1992년부터 매년 주제를 정해 《현대미술신세대흐름전》을 기획 개최하여, 실험적 탐구에 전념하는 미래의 한국미술 주역을 육성 지원했다. 또한 1997년에는 중견작가 1인을 집중 조명하는 《한국미술기획초대전》을, 1998년에는 《지역작가초대전》을 신설했다. 1999년 이후에는 기획공모전과 국제교류전도 활발히 개최했다.

[표 5-19] 1990년대 미술회관 대관일 수, 대관 건수, 관람객 수, 대관수입 현황

연도	대관일 수	대관 건수		관람객 수	대관수입
	일	단체	개인	명	천 원
1990	259	42	19	175,075	50,078
1991	263	35	23	228,605	58,912
1992	259	33	20	217,788	58,016
1993	340	N.A.	N.A.	195,793	67,032
1994	60	N.A.	N.A.	69,192	14,182
1995	245	N.A.	N.A.	151,030	60,368
1996	351	N.A.	N.A.	201,000	82,320
1997	294	N.A.	N.A.	7,200	83,878
1998	287	30	26	43,050	91,306
1999	214	25	26	139,367	79,330
계	2,572	N.A.	N.A.	1,428,100	645,42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예술정보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운영

예술정보관은 문화예술과 연관된 국내외 전문도서, 각종 문헌자료, 영상·음향자료를 수집·제작·정리·보존하며,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설치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문화예술인에게 무료로 개방한 산하 문화시설 중 하나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술의전당 자료관을 흡수·통합하면서 전당 내 기존 자료관 건물(4층, 3,500여 평)로 이전하게 되었다. 시설과 기자재를 정비하고 예술자료 담당 부서와 예술정보화 담당 부서로 조직을 편제한 후, 정식 개관(1993. 2. 15.)했다.

예술정보관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동인지 등의 도서 자료 및 팸플릿과 포스터, 사진, CD, 필름, VCD, DVD, 카세트 등의 각종 문화예술 자료를 수집, 보존, 정리하여,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영상 및 음악자료실이 있어 영화감상은 물론 영상자료 이용이 가능하고, 기획프로그램으로 '토요명작 감상회', '고전음악 강좌'를 개최했다. 예술정보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문예정보 인터넷 네트워크 활성화, 원내 인트라넷 구축 및 통합업무 시스템 구축, 국가 지식정보 DB 구축 등이다.

무대예술연수회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운영

무대예술연수회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구 사리현동)에 있다.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관련 연수 및 워크숍, 심포지엄, 세미나와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1987년 문화발전연구소 개소와 함께 연수 전담 부서를 두고 문화예술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1992년 무대예술연수회관이 준공(5. 27.)되었다. 이후 무대예술연수회관은 교육연수시설로서 장·단기의 다양한 문화예술 연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한편으로는 간접지원시설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정동이자 교육장·숙소인 창조관, 무대미술스튜디오, 블랙박스형 교육용 공연장인 실험무대로 구성돼 있다.

1990년대에 시행된 단기연수는 9개 프로그램이다. 지역문화 종사자 연수(1987~1997), 청소년 지도자 연수(1987~1999),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1987~현재), 문화행정 연수(1989~2003), 무대예술

전문인 해외연수(1997~2005), 박물관·미술관 큐레이터 연수(1998~1999), 문화학교 관계자 연수(1998~1999), 문화자원봉사자 연수(1998~2000), 공연기획 연수(1998~2004) 등이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2개의 장기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1996년부터는 2년 4학기 과정으로 운영했다. 공연예술아카데미(1993~2000)와 무대예술아카데미(1993~2000)이다.

2001년에는 무대예술연수회관의 증·개축이 추진됨에 따라 연중 운영이 필요한 아카데미 속성상 더 이상의 신입생 선발과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무대예술아카데미〉는 무대미술,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의상 분야 등 무대예술 전문인 배출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카데미 출신 무대예술 전문인이 오늘날 전국 문화시설에 종사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기연수 프로그램인 〈지역무대 종사자 현장 연수〉(1985~1999)는 지역 문화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연수프로그램이었다.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시설 운영은 각종 전시나 공연예술의 무대공연 장소를 제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개원 초기에는 연극인회관 및 미술인회관을 임차로 사용하다가 1976년 3월 본관 청사를 구 서울대학교 본부 건물로 이전하면서 1979년 미술회관 건물을 준공하였고, 1981년에는 문예회관 건물을 연이어 준공함으로써 당시 국립시설에 주로 의존하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공간이 민간으로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술자료관은 1992년 서초동 예술의전당 내 예술자료관으로 이전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었다.

특히 1992년에는 공연예술계의 숙원이었던 무대예술연수회관이 경기도 고양시에 건립되었다. 무대예술연수회관은 공연장, 연습실, 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창작 활성화는 물론 무대기술·무대디자인·조명·음향 등 무대예술 분야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되어 무대예술에 크게 기여하였다. 무대예술연수회관은 이후 한국 무대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표 5-20] 연도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단기교육실적

(단위 : 명 (회))

	지역문화종사자연수	청소년지도자연수	무대예술전문인연수	문화행정연수	무대예술전문인해외연수	박물관·미술관큐레이터연수	문화학교관계자연수	문화자원봉사자연수	공연기획연수	문화예술지원워크숍	문화교육프로그램기획연수	축제기획연수	예술경영연수/문화예술마케팅	위탁교육/찾아가는교육	중앙문화행정연수	지역문화행정연수	예술경영연수/문화예술재원관리	예술경영연수/문화예술조직관리	예술경영연수/문화예술시설운영	예술경영연수/경영역량향상과정	예술경영연수/기획역량향상과정	예술워크숍	지역문화활성화예술체험워크숍	문예진흥기금사업협력교육	계
1987	247 (3)	114 (1)	103 (1)	-	-	-	-	-	-	-	-	-	-	-	-	-	-	-	-	-	-	-	-	-	464 (5)
1988	327 (3)	107 (1)	105 (1)	-	-	-	-	-	-	-	-	-	-	-	-	-	-	-	-	-	-	-	-	-	539 (5)
1989	283 (3)	199 (2)	130 (1)	119 (4)	-	-	-	-	-	-	-	-	-	-	-	-	-	-	-	-	-	-	-	-	731 (10)
1990	219 (3)	208 (2)	109 (1)	175 (5)	-	-	-	-	-	-	-	-	-	-	-	-	-	-	-	-	-	-	-	-	711 (11)
1991	231 (3)	173 (2)	91 (1)	100 (3)	-	-	-	-	-	-	-	-	-	-	-	-	-	-	-	-	-	-	-	-	595 (9)
1992	142 (3)	151 (2)	52 (1)	63 (3)	-	-	-	-	-	-	-	-	-	-	-	-	-	-	-	-	-	-	-	-	408 (9)
1993	116 (3)	125 (2)	50 (1)	70 (2)	-	-	-	-	-	-	-	-	-	-	-	-	-	-	-	-	-	-	-	-	361 (8)
1994	116 (3)	133 (2)	43 (1)	58 (2)	-	-	-	-	-	-	-	-	-	-	-	-	-	-	-	-	-	-	-	-	350 (8)
1995	86 (3)	109 (2)	38 (1)	73 (2)	-	-	-	-	-	-	-	-	-	-	-	-	-	-	-	-	-	-	-	-	306 (8)
1996	109 (3)	74 (2)	42 (1)	76 (2)	-	-	-	-	-	-	-	-	-	-	-	-	-	-	-	-	-	-	-	- -	301 (8)
1997	107 (3)	57 (2)	83 (2)	112 (3)	10 (1)	-	-	-	-	-	-	-	-	-	-	-	-	-	-	-	-	-	-		369 (11)
1998	-	39 (1)	102 (2)	99 (4)	15 (1)	48 (1)	28 (1)	31 (1)	30 (1)	-	-	-	-	-	-	-	-	-	-	-	-	-	-	-	392 (12)
1999	-	24 (1)	90 (2)	71 (3)	14 (1)	17 (1)	34 (1)	31 (1)	26 (1)	-	-	-	-	-	-	-	-	-	-	-	-	-	-	-	307 (11)
2000	-	-	199 (4)	110 (3)	13 (1)	-	-	35 (2)	36 (1)	24 (1)	87 (2)	26 (1)	-	-	-	-	-	-	-	-	-	-	-	-	530 (15)
2001	-	-	137 (4)	125 (5)	15 (1)	-	-	-	34 (1)	-	56 (2)	39 (1)	-	-	-	-	-	-	-	-	-	-	-	-	406 (14)
2002	-	-	108 (4)	78 (4)	12 (1)	-	-	-	35 (2)	-	79 (3)	150 (3)	-	-	-	-	-	-	-	-	-	-	-	-	462 (17)
2003	-	-	306 (10)	154 (6)	11 (1)	-	-	-	62 (2)	-	35 (1)	65 (2)	153 (5)	51 (1)	-	-	-	-	-	-	-	-	-	-	837 (28)
2004	-	-	218 (7)	-	16 (1)	-	-	-	62 (2)	-	-	62 (2)	30 (1)	43 (1)	227 (10)	41 (2)	29 (1)	22 (1)	28 (1)	-	-	-	-	-	778 (29)
2005	-	-	269 (9)	-	12 (1)	-	-	-	-	-	-	-	-	62 (2)	314 (10)	-	-	-	-	47 (2)	63 (2)	-	-	-	767 (26)
2006	-	-	272 (9)	-	-	-	-	-	-	-	-	-	-	57 (2)	73 (4)	-	-	-	-	-	-	65 (2)	57 (4)	-	524 (21)
2007	-	-	225 (9)	-	-	-	-	-	-	-	-	-	-	163 (7)	-	-	-	-	-	-	-	30 (2)	174 (5)	233 (8)	825 (31)
2008	-	-	201 (6)	-	-	-	-	-	-	-	-	-	-	193 (8)	-	-	-	-	-	-	-	-	71 (2)	-	465 (16)
2009	-	-	212 (7)	-	-	-	-	-	-	-	-	-	-	131 (5)	-	-	-	-	-	-	-	-	61 (2)	-	404 (14)
합계	1,983 (33)	1,513 (22)	3,185 (85)	1,483 (51)	118 (9)	65 (2)	62 (2)	97 (4)	285 (10)	24 (1)	257 (8)	342 (9)	183 (6)	700 (26)	614 (24)	41 (2)	29 (1)	22 (1)	28 (1)	47 (2)	63 (2)	95 (4)	363 (13)	233 (8)	11,832 (326)

자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재편집

2. 조사연구 및 발간 사업

1987년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는 덕수궁 석조전 내 개소(2. 25.)와 함께 국민문화 통계조사 사업에 착수하였다. 한국문화의 전 영역에 대한 잠재력과 문화 발전의 정책지표가 되는 기초통계 조사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중장기 문화정책의 개발, 예술행정에 대한 해외의 문화정책 자료의 수집·발간 등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1994년 문화발전연구소가 발전적으로 해체(7. 1.)하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출범함에 따라 문화정책연구과제, 조사연구사업 운영, 외국문화정책연구, 문화통계조사, 북한문화예술연구 등의 사업을 이관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문화발전연구소의 조사·연구 및 발간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 577~611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관 운영에서 조사연구 기능은 기관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기능과 역할을 개척하며 기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기관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문예진흥원의 정책조사연구 기능은 1987년 문화발전연구소 개소와 함께 추진돼 오다가 1994년 연구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분리 독립됨으로써 연구소의 모든 조사연구 업무가 이관되었다.

연구소의 분리 독립은 단순한 기능 이전을 넘어 문예진흥원이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개발하고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줄어들고,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단순 지원 중심 기관으로 축소됨을 의미한다. 이후 문예진흥원의 조사연구 기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10여 년간 침체를 거듭하게 된다.

[표 5-21] 1990년대 조사연구 및 발간 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조사·연구	문화통계조사	32,250	23,880	16,236	11,020	24,760	-	-	-	-	-	108,146
	문화정책연구과제	53,657	77,707	57,254	73,994	18,677	-	-	-	-	-	281,289
	외국문화정책연구	860	8,697	30,419	3,984	385	-	-	-	-	-	44,345
	북한문화예술연구	50,154	34,207	18,481	23,420	3,760	-	-	-	-	-	130,022
	조사연구사업운영	75,997	7,661	16,295	70,338	44,182	-	-	-	-	-	214,473
발간	문예연감 발간	39,745	42,480	42,312	50,556	61,323	90,306	79,122	102,914	93,881	92,813	695,452
	월간 문화예술 발간	100,646	128,608	171,441	143,546	189,371	219,131	299,882	241,973	167,623	133,937	1,796,158
	문화정책자료 발간	20,089	-	17,402	18,366	-	-	-	-	-	-	55,857
	예술행정집 발간	-	-	-	-	-	-	7,233	6,668	7,382	8,449	29,732
기타	문화비전 2000	-	-	-	-	-	-	-	-	112,173	175,000	287,173
	종합홍보	20,515	17,556	-	-	11,780	14,912	12,486	7,104	16,241	26,249	126,843
	이미지통일사업	-	-		82,958	54,584	30,516	11,450	1,377	8,410	3,503	192,798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편집

PART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史

2000년대,

6. 문화의 세기 - 예술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1. 21세기 문화예술 환경과 정책 변화
2. 2000년대 위원회 전환 이전 기금사업 총괄
3. 200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4. 200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5. 200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6. 200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7. 2000년대 예술의 보존과 계승사업의 추진과 성과
8. 2000년대 문화시설 운영의 추진과 성과

1. 21세기 문화예술 환경과 정책 변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상황 요건과 외적인 환경 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 주체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타협함으로써 환경 요건을 정책에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책에 불리해 보이는 환경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아래는 21세기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 환경의 주요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1. 정책환경의 변화

정치행정적 환경의 변화

지난 세기에 이룩한 압축적 근대화와 수도권 중심의 개발로 인해 초래된 도농 간, 지역 간 불균형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지역문화 혁신체계와 중앙정부 지원체계의 구축, 민간 전문가의 정책 과정 참여,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의 회복이 21세기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하면서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관점을 경제와 행정에 도입하였다. 전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 예산 시스템도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와 국회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성과평가 기능이 대폭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기금 지원구조의 전면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이에 따른 세계 질서의 재편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정치와 문화 분야의 통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에서 자민족 중심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동시에 세계화에 대항하여 블록을 중심으로 인접국가와의 친선 교류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기술적 환경의 변화

오늘날 예술 창작활동은 경제적 보상 수준이 낮아 수입이 영세할 뿐 아니라 작품 발표의 기회마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인으로서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위신마저 낮아 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별도의 생계 수단을 유지하며, 창작활동은 위축되고 수준 높은 작품의 탄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예술인 복지예산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예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예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문화향수층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문화산업이 본격화된 이래 기초예술(순수예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게 된 것은 창작물이 지니는 독창적인 콘텐츠 때문이다. 근래에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달 수단과 매체가 발달하여 이른바 창구효과(Window Effects)가 극대화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 예술의 수단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추세이다. 예술의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넷, 모바일 등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문화와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무형의 지식 자산과 혁신 능력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핵심 역량으로 등장하면서 창의성이 노동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즉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 등 무형적 요소가 국가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여 생산과정의 질적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2006년 7월을 기해 모든 기업에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나라 모든 부문에 걸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고 있다.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렬해지고, 창조적인 역량 함양을 위한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개인 중심의 여가 문화가 발달하고 참여와 체험 위주의 적극적인 여가 행태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의 참여 욕구가 전면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와 물신숭배 풍조 만연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둔화와 국가 경제성장률 저하, 노인 소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이혼율 급증으로 기존의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학원 폭력, '왕따', 학교 이탈, 원조 교제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청소년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의 급증으로 외국인 비율이 2012년 말로 2.8%에 이르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적(性的) 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자생적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정당한 하위문화로 자리매김되어 가는 추세이다.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문화적 환경의 변화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이 본격화된 이래 순수예술의 범주가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순수예술이 문화 일반과 연계를 시도하면서 기존 장르의 해체와 장르 간 혼합, 새로운 장르 및 감상 방법의 출현, 순수·대중예술 간 경계 허물기, 복합·퓨전 형식의 다양한 예술 출현 등 새로운 예술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 형식의 출현은 기존 지원정책의 영역과 대상 설정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뉴미디어와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기술이 예술작품 제작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 파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및 뉴미디어 등 사이버를 통한 예술의 감상이 일상화되고 예술작품 창작과 감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는 기존 예술 장르의 해체와 더불어 기존 예술공간과 제도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삶과 혼합하려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2. 200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

2000년대는 국민의정부(1998. 2.~2003. 2.) 후반기에 이어 참여정부(2003. 2.~2008. 2.), 이후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박근혜 정부(2013. 2.~2017. 5.)와 문재인 정부(2017. 5.~2022. 5.)까지 포함된다. 5년마다 성격이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상의 기조 변화도 심했다. 1998년 2월 IMF 구제금융과 함께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문화체육부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부를 신설했다. 또한 공공조직의 아웃소싱을 통한 구조조정, 정부 산하기관의 책임운영기관화, 평가제도의 도입(2000년에 첫 기금운용평가제 도입) 등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했다. 더불어 정치적 민주화의 결실이 문화예술정책에 속속 반영되면서 각종 검열제도와 기구 등이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었다.

국민의정부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새 시대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국민에게 알렸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국민의정부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다. 2000년에 문화 부문 전체 세출예산이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넘어서고, 2001년에 절대액이 1조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1998년에 발표한 국민의정부 〈새문화관광정책〉은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는 비전 제시', '문화를 국가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활용', '주요 분야 중심의 거점적(據點的) 사업 추진'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정부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화예술을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복지 수단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념 지향을 보여 왔다. 국민의정부는 이러한 1990년대 문화예술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새천년을 앞두고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문화한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준비 작업이 추진되었다.
사진은 동숭동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본관 입구에 설치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는 캐치프레이즈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전광판이다.


"문화예술 진흥 토대 마련한 셈"

문화예산, 정부예산의 1.0%인 1조 원 돌파
문화의 세기를 맞는 2000년 문화 부문
세출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넘어선 1조 원을 돌파하였다.
(1999. 9. 28. 동아일보)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자율', '참여', '분권'의 3대 가치를 국정 원칙으로 내세웠다. 개방적 민간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율적 행정구조로의 혁신, 고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최우선에 두는 서비스 행정, 성장과 분배의 균형,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켰다. 문화 분야에서도 3대 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문화행정의 혁신, 문화복지의 확산, 기초예술과 예술교육 진흥, 지역문화 창달과 균형 발전 그리고 비록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문화적 가치를 개인의 삶과 국정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영향평가제 등을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문화정책의 영역과 대상을 확장했다.[1]

참여정부 주요 문화정책 방향은 문화 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개인),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사회), 문화를 국가 발전의 신(新)성장 동력화(경제),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세계)의 다섯 가지다.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21세기 지식기반경제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통해서 창출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생산력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예술정책의 비전을 '예술의 힘,

1. 문화영향평가제는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항에 도입되었다. 4항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요구
문예진흥원의 예술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범문화예술계 공동기자회견이
2004년 2월 2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미래를 창조합니다'로 설정했다. 창의적인 예술진흥을 위해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예술의 창조성 증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등 4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참여정부 최대의 성과로 꼽히는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을 필두로 14대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새 예술정책》)

참여정부는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를 통해 창작·매개·향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다. 즉 문화예술의 활성화 기반을 예술교육 등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능력을 높여 새로운 문화 수요로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문화적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으로는 문예진흥원의 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열린 예술행정체계와 문화분권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 배분, 기금 지원의 현장 대응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별·장르별 불균형의 해소, 예술창작 환경 개선, 매개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구조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건국 이후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민주화도 이루어 냈으며,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도 많이 극복하였다.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며, 생활 자체가 문화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문화가 높은 품격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문화정책의 비전을 방방곡곡 모세혈관처럼 펼쳐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소통과 개방의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 6개 전략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방식의 혁신과 지역협력사업의 확대, 그리고 산하 조직의 독립 및 청사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 방식 개선안의 내용은 지역협력형 사업의 확대와 함께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 이른바 4대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한편 예술위원회는 2010년 3월과 7월에 예술정보관과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술극장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켰다. 같은 해 5월에는 2014년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34년간의 동숭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구로구 구로동(새말로) 임시청사로 이전했다. 대학로 구 청사는 예술가와 예술인단체, 그리고 예술을 후원하는 기업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예술가의집'으로 개방하고 있다.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가 발전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화융성'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정 2% 달성과 「문화기본법」의 제정을 국정 핵심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적 관점의 확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2013년 7월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위원회는 출범 3개월 후 '문화가 있는 삶' 정책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인문가치'의 정립·확산, 문화융합 모델 발굴·육성,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화 등 새로운 관점의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었다.

2. 2000년대 위원회 전환 이전 기금사업 총괄

2002년 문예진흥사업의 전략 목표가 '지원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 혁신'으로 설정되면서 목표지향적 전략지원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장르별 사업체제에서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서 ① 예술적 창조 역량 강화, ② 예술 접촉 기회 확대, ③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 ④ 문화적 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증진 등 4대 성과 목표를 토대로 한 사업단위별 지원체제로 전면 개편하였다. 즉,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지향적인 전략지원체제에 따른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지원 체감 효과를 제고하고, 창조자와 향수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표지향적 전략지원체계로 전환

문예진흥사업의 전략적인 4대 지원정책으로 설정된 첫 번째 성과 목표는 〈예술창작진흥〉 사업부문이다. 이 목표는 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예술작품의 창작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안적 예술활동과 젊은 예술가의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예술활동의 기반과 그 창조적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창의적 예술활동지원, 창작공연활성화, 다원예술활동지원(새로운 형식의 도전적, 실험적, 복합적인 예술활동), 신진예술가 지원 등이다.

두 번째 목표는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로, 모든 국민이 예술인과 문화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더 쉽게 접촉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것은 문화복지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맞물려 기금사업의 핵심적 사업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관객개발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예술체험 참여활동,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지역문화 활성화지원 등이다.

세 번째 목표는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부문으로, 주로 남북 간 및 재외동포와의 민족문화예술교류사업,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와 해외 우수문화예술의 상호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 통합,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남북 간 및 재외동포와의 문화통합목적 활동),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해외문화예술 교류, 초청사업) 등이다.

네 번째 목표는 '예술의 보존과 계승'이다.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존·조사·연구사업과 예술 정보화사업,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해석과 전승·발표·보급 등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고유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예술 보존·조사·연구 지원,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존·보급지원, 전통예술의 발표·전승 보급 지원(전통예술의 보존·계승 발전과 보급 확산, 원형보존활동, 전시, 공연, 전문인 육성사업) 등이다.

문예진흥기금 세입 현황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 현황을 보면,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약 2조 4,7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재원의 조성을 시계열별로 보면 1990년대에 연 500~800억 원대에서 1999년 1천억 원대로 진입하여 2003년까지는 1,300억 원대까지 성장했고, 2004년 복권기금이 전입되면서 4,800억 원대, 2005년 5,400억 원대에 진입하였다. 주요 세입원이었던 모금 수입은 2000년 287.9억 원에서 2001년 382.7억 원, 2002년 484.3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2003년 535.8억 원까지 늘어났으나 2004년부터는 모금 폐지에 따라 79.4억 원, 2005년 2.6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세입 항목별 내용을 보면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은 4,712억 원이었고, 다음으로 모금 수입 4,184.6억 원이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문예진흥

[표 6-1] 문예진흥기금 세입 현황(2000~2005)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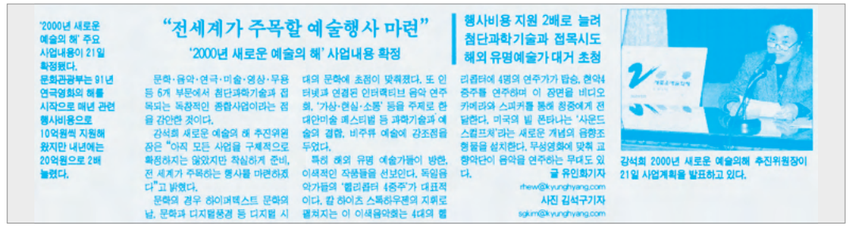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모금수입	28,792	38,272	48,434	53,582	7,943	267	177,290
- 공연장	25,996	35,767	46,231	-	-	-	107,994
- 박물관	723	447	344	-	-	-	1,514
- 미술관	295	235	110	-	-	-	640
- 문화재	1,778	1,823	1,749	-	-	-	5,350
이자수입	54,864	37,559	29,721	26,570	28,376	28,909	205,999
기부금(민간출연금)	30	109	252	5,546	4,709	6,509	17,155
사업수입	5,835	5,168	5,635	6,377	7,124	8,324	38,463
정부출연	50,000	0	0	0	0	0	50,000
공공기금(방발+복권)	3,000	2,000	1,583	0	44,584	50,406	101,573
임대수입	513	497	468	542	289	461	2,770
기타경상이전수입	732	1,057	860	370	290	64	3,373
융자금 회수	446	2,375	11,311	1,536	1,336	0	17,004
이월사업비	825	1,837	1,130	0	745	632	5,169
전기 전입액	0	10,500	0	0	0	0	10,500
여유자금 회수	-	-	-	-	388,709	450,380	839,089
잉여금 이월 전입	-	485	22,747	44,231			67,463
합계	145,037	99,859	122,141	138,754	484,105	545,952	1,535,848

기금 세입 현황은 이자 수입이 2,0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모금 수입 1,772.9억 원, 공공기금(복권기금 포함) 1,015.7억 원의 순서를 보였다.

3. 200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예술창작 진흥지원 총괄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를 맞이하면서 예술창작 진흥사업의 기본방향은 문학·공연예술 등 예술 전 장르의 신진예술가를 육성하는 지원사업으로 설정되었다. 무엇보다 〈신진문학가 및 신진공연예술가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통일문학전집 발간〉 기획을 통한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근대문학관' 건립 추진사업과 우수기획 문화예술활동의 연중 수시 발굴·지원체제 구축 등 문화의 세기를 여는 각종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주요 사업내용이 21일 확정됐다.
문화관광부는 91년 연극협회의 해를 시작으로 매년 관련 행사비용으로 10억원씩 지원해 왔지만 내년에는 20억원으로 2배 늘렸다.

"전세계가 주목할 예술행사 마련"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사업내용 확정

문학·음악·연극·미술·영상·무용 등 6개 부문에서 첨단과학기술과 접목되는 복합적인 종합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강석희 새로운 예술의 해 추진위원장은 "아직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착실하게 준비,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학의 경우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날, 문학과 디지털융합 등 디지털 시대의 문학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인터넷과 연결된 인터랙티브 음악 연주회, '가상·현실·소통' 등을 주제로 한 대안미술 페스티벌 등 과학기술과 예술의 결합, 비주류 예술에 강조점을 두었다.
특히 해외 유명 예술가들이 방한, 이색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독일작가들의 '랠리캠더 4중주'가 대표적이다. 칼 하이츠 스톡하우젠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 이색음악회는 4대의 캠리캠더에 4명의 연주가가 탑승, 현악 증주를 연주하며 이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해 청중에게 전달한다. 미국의 빌 몬타나는 '사운드 스컬프처'라는 새로운 개념의 음향조형물을 설치한다. 무성영화에 맞춰 교향악단이 음악을 연주하는 무대도 있다.

행사비용 지원 2배로 늘려
첨단과학기술과 접목시도
해외 유명예술가 대거 초청

글 유인희기자 rhew@kyunghyang.com
사진 김석구기자 sgkim@kyunghyang.com

강석희 2000년 새로운 예술의해 추진위원장이 21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예술의 해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새로운 예술의 해'로 지정하고 장르를 불문하고 전통과 미래를 포괄하는 실험적인 예술작업을 지원하였다.
약 20억 원의 문예진흥기금이 투자되었다.
(1999. 12. 22. 경향신문)

2002년에는 기존의 장르별 사업체제에서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서 4대 성과목표를 토대로 사업단위별 지원체제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이에 부응하는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장르별, 유형별 지원에서 기금사업의 4대 성과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14개 핵심역량사업으로 사업의 구조와 지원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요컨대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지향적인 전략지원체제에 따른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으로 전환한 것이다.

위원회 전환 이전 예술창작 진흥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예술 지원〉,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예술창작 기반 조성〉 등이 있다. 〈창의적 예술 지원〉은 총지원 건수 1,785건에 389.5억 원 지원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예술창작 기반 조성〉 58.5억 원,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182건, 54.8억 원, 〈다원적 예술 지원〉 226건 27억 원, 〈신진예술가 지원〉 277건, 21.8억 원이 지원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0~2001년에는 40~50억 원대이던 지원액이 2002~2004년 90~100억 원대로 2배 이상 증액되었고, 2005년에는 170억 원 가까이로 증액되었다.

[표 6-2] 예술창작 진흥 주요 사업 총괄(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창의적 예술 지원	지원액	3,687,013	4,571,834	7,322,186	8,567,818	7,034,128	7,772,502	38,955,481
	건수	203	186	233	331	396	436	1,785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지원액	472,000	510,000	828,000	976,000	1,062,000	1,631,200	5,479,200
	건수	14	18	30	31	44	45	182
다원적 예술 지원	지원액	-	179,500	494,000	552,000	620,000	849,000	2,694,500
	건수	-	33	48	48	47	50	226
신진예술가 지원	지원액	82,000	71,000	278,500	495,000	480,000	777,000	2,183,500
	건수	19	17	34	60	57	90	277
예술창작 기반 조성	지원액	-	-	-	-	-	5,854,151	5,854,151
	건수	-	-	-	-	-	-	-
합계	지원액	4,241,013	5,332,334	8,922,686	10,590,818	9,196,128	16,883,853	55,166,832
	건수	236	254	345	470	544	621	2,470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창의적 예술 지원

창의적 예술 지원에는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 〈전국규모 예술행사 지원〉, 〈기간 문예단체 지원〉, 〈계기성 우수기획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이 있다.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은 2001년까지 장르별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추진된 '창작 지원' 사업이다. 공모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예술단체나 개인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 전시, 공연예술의 다양한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문학·미술·연극·무용·음악 분야 총 1,585건에 163.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건당 지원액은 1,031.5만 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서 2001년까지는 10억 원대의 규모에서 2003~2004년에 30억 원대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43.6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문학이 588건, 51.5억 원(전체의 31.5%)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미술 359건, 36억 원, 무용 201건, 28억 원, 연극 201건, 26.6억 원, 음악 229건, 20.4억 원 순이었다.

[표 6-3] 창의적 예술 활동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문학	지원액	605,529	684,300	333,300	746,900	1,274,500	1,500,000	5,144,529
	건수	55	47	60	113	149	164	588
미술	지원액	456,954	545,134	500,000	661,000	689,000	738,500	3,590,588
	건수	62	70	38	46	70	73	359
연극	지원액	190,000	137,000	356,000	595,000	496,500	880,000	2,654,500
	건수	32	19	27	36	51	36	201
무용	지원액	160,400	150,000	445,000	717,000	686,000	639,000	2,797,400
	건수	22	18	39	49	40	33	201
음악	지원액	190,000	150,000	300,000	438,000	481,000	477,000	2,036,000
	건수	32	32	40	42	42	41	229
기금심의	지원액	-	-	-	-	-	125,500	125,500
	건수	-	-	-	-	-	7	7
합계	지원액	1,602,883	1,666,434	1,934,300	3,157,900	3,627,000	4,360,000	16,348,517
	건수	203	186	204	286	352	354	1,585

2000~2001년 지원액은 해당 연도 장르별 지원액 가운데 전국규모 예술행사 및 조사연구 지원액을 제외한 지원액임.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건당 지원액 규모로 보면 무용이 1,391.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연극 1,320.6만 원, 미술 1,000.2만 원, 음악 889.1만 원, 문학 874.9만 원이었다.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은 단순히 장르별 지원사업이 아닌 예술창작에서 창의성 증진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창작 지원 사업이었다.

대규모 행사 지원을 통한 창작활성화

〈전국규모 예술행사지원〉은 2001년까지 장르별 지원사업에 배치되어 있던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울창작음악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예술행사와 지역문화진흥 분야에 편제되어 있던 전국연극제와 전국무용제를 2002년부터 〈전국규모 예술행사 지원〉이라는 사업단위별 지원체제로 지원한 것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10개의 전국규모 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액은 총 69.8억 원 규모였다. 사업별로는 전국연극제가 1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15.6억 원, 전국무용제 15.5억 원, 대한민국미술대전 14.3억 원 순이었다. 그러나 연간 지원액 규모로 보면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3.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연극제·전국무용제·대한민국미술대전이 2억 원대의 규모를 보였다.

[표 6-4] 전국규모 예술행사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대한민국미술대전	100,000	950,000	95,000	95,000	95,000	95,000	1,430,000
대한민국공예대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50,000
대한민국건축대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80,000
대한민국사진전람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20,000
대한민국서예대전	15,000	15,000	-	-	-	-	30,000
서울창작음악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80,000
대한민국작곡상	18,441	18,200	20,000	20,000	20,000	20,000	116,641
전국연극제	288,000	290,883	328,167	-	381,429	381,938	1,670,417
전국무용제	272,871	81,000	272,252	344,182	273,699	305,564	1,549,568
서울국제공연예술제	196,987	360,000	500,000	500,000	-	-	1,556,987
합계	996,299	1,820,083	1,320,419	1,064,182	875,128	907,502	6,983,613

2000~2001 대한민국미술대전 지원에는 미술대전 지방전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음.
2000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지원액은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 지원액의 합산 금액임.
2003년 전국무용제 지원액은 전국연극제 지원액과의 통합 금액임.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서울공연예술제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가 '21세기를 맞아 한국을 상징하는 세계적 공연예술축제로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설립하였고, 시작은 공연예술계의 대표적인 행사인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통합하여 시행되었다. 사진은 메인포스터(좌)와 공식참가작 이윤택작 《시골선비 조남명》(우). 그해 최고의 연극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미술대전〉은 미술 분야를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예술행사로서 참신한 신인 발굴 육성과 미술계의 건전한 창작 풍토 고취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문제 제기 속에 지속적인 심사 제도의 개선으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건축대전, 대한민국사진전람회, 대한민국서예대전(2002년부터 대한민국미술대전에 편입) 등은 해당 분야 신인 등용 및 창작 발전의 기회로 기능하였다.

〈서울창작음악제〉는 1969년 시작된 〈서울음악제〉를 창작음악 활성화 및 신인 작곡가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작곡가의 창작 의욕 진작과 창작예술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창작음악제〉는 세계 초연의 작품을 공모·위촉하여 연주하는 행사로서 우리나라 창작음악계의 발전과 활성화, 특히 신인작곡가 발굴 및 기성세대의 활발한 창작 의욕 고취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민국작곡상〉은 한국음악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규모의 예술행사로서 우리나라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독창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음악인의 사기 진작과 창작음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행사는 2002년부터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부문을 격년제로 시행하였다. 〈대한민국작곡상〉은 국호를 사용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는 작곡 콩쿠르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작곡가뿐만 아니라 국내 작곡활동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많은 작곡가를 배출하였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2001년까지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통합하여 〈서울공연예술제〉로 추진되었고, 축제추진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최했다. 2004년부터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한국공연예술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사무국에서 주관하고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세계 10대 도시이며 한국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연예술 종합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전국연극제〉와 〈전국무용제〉는 2001년까지는 '지역문화 진흥 분야'에 편제되어 있던 지원사업이었으나 2002년부터 '전국규모 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편제되어 지원되고 있다. 〈전국연극제〉는 문예진흥원 주최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순회 주관하는 연극축제로서 지역연극의 균형발전을 통한 한국연극의 발전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 단체가 참가, 공연하며 대상(대통령상) 등을 시상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지방 소도시인 공주시 공주문예회관에서 대회가 치러져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전국무용제〉도 〈전국연극제〉와 유사하게 광역 지자체별로 순회하며 개최되었다.

〈기간 문예단체 지원〉은 대표적인 예술인 조직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 본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영화진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예술영화전용상영관' 사업도 2004년부터 〈기간 문예단체 지원〉 사업에 편제되어 지원되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지원 총액은 100억 원으로, 연평균 16.7억 원 규모이다. '예술영화전용상영관'에 57억 원이 지원되어 〈기간 문예단체 지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57%)을 차지하였다. 예총은 매년 5.8억 원씩 6년 동안 23.2억 원을 지원받았고, 민예총은 매년 3.1억 원씩 18.6억 원을 지원받았다. 2004년부터는 예총과

[표 6-5] 기간 문예단체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580,000	580,000	580,000	580,000	580,000	580,000	2,320,00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250,000	300,000	350,000	350,000	580,000	580,000	1,860,000
전국문화원연합회	149,157	149,388	120,000	-	-	-	120,000
예술영화 전용상영관	108,674	55,929	2,130,000	2,715,736	685,000	-	5,695,339
합계	1,087,831	1,085,317	3,180,000	3,645,736	1,845,000	1,160,000	9,995,339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민예총의 연간 지원액을 5.8억 원으로, 같은 규모를 유지하였다. 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의 경상운영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의 요구를 받았다. 한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2002년까지만 기금 지원을 받았다.

〈계기성 우수기획사업 지원〉은 연도 중반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기획되는 사업 중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우수기획성 사업이나 범국가적 또는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원 분야는 정기공모 사업과 동일하였지만, ① 국가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계기를 맞이하여 기획되는 문화행사, ② 연도 중반에 기획되고 예술성과 문화적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특히 우수성이 인정되는 사업, ③ 기타 문화예술정책의 수행상 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거나 문예진흥원이 우수 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36.2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2002년 29건에 8.8억 원, 2003년 45건에 7억 원, 2004년 44건에 6.9억 원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2005년 82건에 13.5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추모음악회추진위원회(신형원)의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 음악회〉(4,000만 원), 새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양기환)의 〈WTO 시대의 문화-교역인가 교류인가〉 연구 자료집 발간(500만 원), 2005년 한국시인협회의 〈독도사랑 시낭송예술제〉(2,000만 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 2005년부터 〈기획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통합되었다.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은 1985년부터 시작되어, 음악·연극·무용·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창작품을 발굴, 공연까지 연계 지원하여 레퍼토리화할 수 있는 집중 지원 방식의 사업이다. 대상 작품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2000년부터 실제 공연을 현장 평가하는 사후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2]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선택과 집중',

2.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르별로 우선 음악 분야의 경우, 오페라는 공연시간 90분 이상으로서 대극장 공연에 한하며, 최소 3회 이상 공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창극은 공연시간 60분 이상의 장막으로서 대극장 공연에 한하며, 최소 3회 이상 공연을 원칙으로(단, 사후 지원은 소극장 공연작품으로서 공연시간 60분 이상, 최소 3회 이상 공연작품 신청 가능) 하며, 관현악·실내악·교성곡은 15분 이상의 연주곡에 한하며, 선정된 곡을 포함 1시간 이상 및 1회 이상 연주를 원칙으로 하였다. 무용 분야는 공연시간 30분 이상으로 대소극장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고 2회 이상 공연과 사후 지원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극 분야의 경우 뮤지컬은 공연시간 60분 이상으로서 대극장 공연에 한하며, 최고 5회 공연을 원칙으로 하며, 창작극은 공연시간 60분 이상의 장막으로서 대소극장 모두 신청 가능하고, 최소 5회 이상 공연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6-6]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음악	지원액	62,000	80,000	113,000	346,000	332,000	493,000	1,426,000
	건수	5	6	9	11	19	10	60
연극	지원액	340,000	220,000	530,000	470,000	510,000	780,000	2,850,000
	건수	8	7	17	14	18	25	89
무용	지원액	70,000	210,000	185,000	160,000	220,000	358,200	1,203,200
	건수	1	5	4	6	7	10	33
합계	지원액	472,000	510,000	828,000	976,000	1,062,000	1,631,200	5,479,200
	건수	14	18	30	31	44	45	18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사후 지원' 방식을 동시에 시험한 지원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총 182건에 54.8억 원이 지원되었다. 건당 지원액은 3,010.5만 원이었는데, 이는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 1,031.5만 원의 3배 가까이 되는 대규모 지원에 해당한다. 대규모 행사 지원이나 단체운영 지원이 아닌 개별 작품에 대한 지원액으로서는 '집중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14건, 4.7억 원에서, 2005년 45건, 16.3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다.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연극 《이(爾)》(2000), 뮤지컬 《최승희》(2003) 등이 제작되었다.

다원적 예술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 장르의 탈장르화 경향에 따라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강화되었다.

〈다원적 예술 지원〉 사업은 정형화된 기존 예술 장르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independent), 실험, 대안(alternative)적 경향의 비주류 예술활동을 장려하여 새로운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추진되었다. 2002년 대중 분야 지원과 독립, 인디, 대안예술 분야 지원이 〈다원적 예술 지원〉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지원 예산이 약 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다원적 예술 지원〉을 통해 226건에 27억 원이 지원되었다. 1건당 지원액은 1,192.3만 원으로 〈창의적

[표 6-7] 다원적 예술 지원 현황(2001~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지원액	179,500	494,000	552,000	620,000	849,000	2,694,500
건수	33	48	48	47	50	226

2001년 지원액 및 건수에는 〈대중예술지원〉 10건, 9,300만 원이 합산된 것임.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예술활동 지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다원적 예술 지원〉과 〈대중예술 지원〉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던 지원액이, 2002년부터 5억 원대로 증액된 후, 2005년에는 8.5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2003년 라이브클럽연대의 《라이브클럽페스티벌》, 2004년 《인터넷 인디라이브 음악공개방송》, 2005년 《상상도서관》,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05》, 《제6회 퀴어문화축제》, 《예술포장마차 - 오아시스》 등이 〈다원적 예술 지원〉을 통해 지원받았다.

신진예술가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은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등 공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진공연예술가 지원〉과 〈신진문학가 지원〉, 〈유망미술작가 전시공간 지원〉 등 장르별로 진행되던 것을 2002년부터 통합하여 문학·미술·연극·무용·음악·전통의 6개 분야에서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신진예술가 지원〉을 통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277건에 21.8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건당 지원액은 788.3만 원으로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다. '신진예술가'의 기준은 연령과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표 6-8] 신진예술가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합계	지원액	82,000	71,000	278,500	495,000	480,000	777,000	2,183,500
	지원건수	19	17	34	60	57	90	277

2002~2004년 지원액 및 건수는 6개 분야를 합산한 것임.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예술창작기반 조성 지원

이 사업은 극도로 침체된 순수 문화예술계 활동과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 문화적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문화적 역량을 가진 유망작가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과 공연예술 창작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지원 실적은 문학활동 지원 18.7억 원, 유망미술작가 작품발표장 운영 및 전시 지원 9.9억 원, 공연예술 지원 30억 원 등 총 58.5억 원이다.

문학활동 지원 가운데 〈전국 문학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34건에 5.5억 원이 지원되었다. 전국의 문학동인과 문학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과 이벤트성 문학사업을 지원한 〈우수문학행사 공모 지원〉은 128건에 4억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학의 기본 토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푸른 작가』 등 8종의 청소년 종합 문예지를 대상으로 지원된 〈청소년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의 경우, 8건에 1억 원이 지원되었다. 그밖에 〈북한문학사전 발간 지원〉 5,000만 원, 〈해외동포문학 편찬 사업〉 5,000만 원, 〈탄생 100주년 문인 기념 사업〉 1.5억 원, 〈문학 프로젝트 - 문학예술강좌 프로그램〉에 2.2억 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문화예술의해 사업

1991년 '연극영화의 해'를 시작으로 춤의 해(1992), 책의 해(1993), 국악의 해(1994), 미술의 해(1995), 문학의 해(1996), 문화유산의 해(1997), 사진영상의 해(1998), 건축문화의 해(1999) 등 매년 문화예술 각 분야를 정하여 추진한 〈문화예술의 해〉 사업은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2000년의 〈새로운 예술의 해〉 사업은 새천년을 여는 첫해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주로 예술 장르 간 새로운 형식이나 개성적인 작가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체 지원 실적은 총 72개 사업에 약 19.5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퓨전콘서트 2000 총출동》을 비롯하여, 멀티아트페스티벌, 새천년 풍경 〈월인천강지곡〉, 메트로폴리스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사업 지원은 급속히 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발맞추고, 개성 있는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향후 지속될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6-9]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작가 / 기획자	일시	장소
개막제 〈새로운 예술의 해가 열린다〉		이돈용	1. 22.	국립극장
퓨전콘서트 2000		이기택	5. 21.	국립극장
멀티아트 페스티벌	사운드 브릿지	빌 폰타나	8. 1.~31.	통영 통영대교
	메종 바로크	소정희 외	8. 7.~24.	갤러리퓨전
	음악과 퍼포먼스	MW2 폴란드앙상블	10. 5.~6.	아트선재센터
	하이퍼비틀즈	아키 다카하시	10. 7.	아트선재센터
	보이스아트-EXTENSION	이자벨라 보이머	10. 12.	아트선재센터
새천년풍경 〈월인천강지곡〉		추계총괄사업기획 추진소위원회	9. 15.~10. 31.	덕수궁,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국립극장, 남산3호터널
메트로폴리스		추진위원회	10. 1.~3.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평화와 생명의 땅 DMZ		추계총괄사업기획 추진소위원회	11. 12.~12. 11.	파주오두산통일전망대, 광화문동아일보전광판
폐막제 〈열며, 닫으며…〉		추진위원회	12. 22.	문예회관대극장
계		11건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은 '사람·삶터·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지역문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부터" 그리고 "함께 창조하는 지역문화, 함께 누리는 공동체 문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① 지역문화 창조력 제고, ②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 ③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확대, ④ 젊은 세대의 지역문화 창조 계기 마련이라는 4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에는 총괄사업 4개, 기획사업 12개 등 총 16개 사업에 약 12억 원이 지원되었다. 총괄사업으로 추진된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부터! 대토론회(백가쟁명)'는 2001년 1월 18일과 19일 대전 유성에서, 전국의 지역문화활동가(예술인·문화활동가·관련 학계인사·문화행정요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12월에는 '2001 지역문화의 해 대토론회(백화제방)'(12월 20~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200여 명 참가)를 개최하여 일 년 동안 진행된 성과를 마무리하며 〈지역문화의 시대 새로운 출발〉이라는 선언문도 채택하였다.

기타 예술창작 진흥 사업

21세기를 맞이하여 20세기 한국문학 관련 문학 사료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문학 분야 사회교육 활성화를 담당할 '한국근대문학관' 건립(2000~2001)이 추진되었으나 정부 차원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되었다.

[표 6-10] 2001 지역문화의 해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일정	지원액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부터' 대토론회	1. 18.~19.	45,000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식	2. 3.~4.	43,000
지역문화 컨설팅	1.~12.	100,000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가는 탐방 및 현장대화	3.~11.	90,000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2.~12.	272,000
지역문화예술 단체활동 활성화	2.~11.	155,000
사이버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1.~12.	140,000
청소년 중심 지역문화 영상물 공모	2.~11.	50,000
홍보 및 발간 사업	1.~12.	78,584
'2001 지역문화의 해' 폐막식	12. 21.	42,867
경상 운영비	-	183,548
계	-	1,199,999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2001년에는 〈문학 분야 특별지원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국고를 위탁받아 운영한 사업이었으며, ① 우수 문학작품집 구입배포 사업, ② 문학창작실 지원사업, ③ 문학소재 멀티미디어 개발, ④ 전국순회 문학강좌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2004년부터 추진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참여정부 새예술정책 '대학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학로에서 민간이 추진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8년 아르코시티극장으로 준공식을 마치고 2009년 대학로예술극장으로 개관하여 예술위원회에서 운영 중이다.

연극인 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무대예술인 재교육 지원〉은 무대예술인을 대상으로 성악, 연기실습, 악기, 춤 등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배우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연극 예술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05년 상반기 6개월에 걸쳐 (사)한국연극배우협회 회원 60명을 대상으로 연극배우협회 교육관에서 시행되었으며, 5억 원이 지원되었다.

4. 200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문화향수 지원사업 총괄

문화향수의 기회 확대 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예술인과 문화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더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적·예술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일반인의 예술접촉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원된 이 사업은 멀게만 느껴지는 공연예술을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공감하도록 하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목표는 비영리 순수예술의 문예수용자에 대한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문예향수 지원이라는 '수용자 우선'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있다.

'문화향수의 기회 확대'라는 큰 목표 아래 지원된 주요 사업으로는 〈관객 개발 지원〉(공연관람 보조금 사랑티켓 제도), 〈찾아가는 예술활동〉(접근하기 쉬운 장소나 소외지역에서 벌이는 문화예술사업), 〈예술체험 참여활동〉(아동, 청소년, 일반인에게 직접적 예술 참여기회 제공),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저변 확대) 등이 있다.

[표 6-11] 문화향수의 기회 확대 주요 사업 총괄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관객 개발 지원	955,094	1,148,131	2,019,328	3,175,408	3,332,016	2,135,449	12,765,426
찾아가는 예술 지원	-	-	696,000	1,225,000	5,244,000	4,750,000	11,915,000
예술 참여체험 지원	1,285,979	1,321,474	1,934,425	1,297,870	1,690,539	7,388,718	14,919,005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733,500	726,600	697,200	714,000	13,311,200	5,628,600	21,811,100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3,810,000	3,810,000	3,810,000	3,810,000	26,679,788	22,489,588	64,409,376
합계	6,784,573	7,006,205	9,156,953	10,222,278	50,257,543	42,392,355	125,819,907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개괄적인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1,258.2억 원으로 연평균 209.7억 원이었다. 분야별로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644.1억 원(전체의 51.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218.1억 원, 〈예술 참여체험 지원〉 149.2억 원, 〈관객개발 지원〉 127.7억 원, 〈찾아가는 예술 지원〉에 119.2억 원이 지원되었다.

관객 개발 지원

〈관객 개발 지원〉은 일반인의 공연예술(연극, 국악, 무용, 음악 등) 관람을 유도하여 주로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 증대와 향수자의 확대 및 다양화를 꾀하고, 공연단체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 핵심사업은 '사랑티켓' 제도 운영이다. 1990년대 초에 처음 서울을 중심으로 도입된 사랑티켓제도는 2000년부터 전국연극제 행사로 대상을 넓혔고, 2001년 지역사랑티켓 시범 실시를 거쳐 2002년 6개 시도로 확대되었다.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2002년부터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6-12] 관객 개발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서울사랑티켓 지원	-	-	1,636,400	2,517,799	2,509,729	2,135,449	8,799,377
지역사랑티켓 사업	-	-	308,292	466,036	524,539	1,470,060	2,768,927
관객 개발 기반 조성	-	-	74,636	191,573	297,748	24,087	588,044
합계	955,094	1,148,131	2,019,328	3,175,408	3,332,016	3,629,596	14,259,573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관객 개발 지원〉에는 총 142.6억 원이 지원되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 4년 동안의 지원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사랑티켓 지원〉에 가장 많은 88억 원이 지원되었고, 〈지역사랑티켓 사업〉 27.7억 원, 〈관객개발 기반 조성〉 사업에 약 5.9억 원이 지원되었다.

〈관객개발 기반 조성〉은 사랑티켓 운영 활성화 및 합리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주 사업이며, 2002년부터 '인터넷 사랑티켓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사랑티켓을 사기 위해 대학로까지 나와야만 했던 관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랑티켓 인터넷 예매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연예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객의 편의를 크게 증대시켰다. 또한 국민카드사와의 제휴로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제를 운영하여, 회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하며 문예진흥기금 확충에도 기여하였다. 2002년 사랑티켓 홍보 브로셔 제작 및 보급, 2003년부터 진행된 연말 이웃초청 관극 행사 등도 추진되었다.

그 밖의 문화향수 지원사업으로는 〈대학로 공연관객 개발 사업 지원〉(2002)과 〈사랑티켓 문화사랑카드 운영기금 적립〉(2003~2005) 등이 추진된 바 있다.

찾아가는 예술 지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2001년부터 문화향수 기회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어, 기존의 고정된 예술발표 공간이나 수도권에서 벗어나 진행된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전국 각지의 박물관·미술관·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 일반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특히 대부분 사업이 문화예술 향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방 등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으며, 지역 주민 중 특정 목표집단(청소년,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연 등이 호응을 받았다. 2002년 7억 원이던 지원액은 2003년 12.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 52.4억 원, 2005년에는 47.5억 원이 지원되었다. 일반 공모에 의한 사업 외 2004년부터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원액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예술체험 참여 지원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참여하는 예술 지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주로 아동, 청소년의 직접적인 예술체험과 참여를 통해 문화감수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예술애호가를 육성함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고양하여 생활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문화향수층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전국 읍·면 소재 초·중·고교(단, 동 단위 소재 학교는 제외)가 추진하는 행사로서, ① 아동, 청소년, 일반인의 예술체험 및 참여 사업, ② 문화예술 강좌 및 창작교실 운영 사업, ③ 예술가, 단체의 학교 방문 예술활동, ④ 예술담당 교사와 학생, 예술단체의 공동작업, ⑤ 문화예술교육 지도자 연수 및 교육사업, ⑥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⑦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초·중·고교의 축제행사 등이다.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와 부합되는 모든 사업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2003년 사업명이 〈예술체험 참여활동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2004년부터 〈문화예술 체험 지원〉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총 149.3억 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체험 지원〉 40.4억 원, 〈문화예술 참여 지원〉 54.3억 원, 〈문화예술 참여·체험 지원 복권기금사업〉에 54.5억 원이 지원되었다. 앞의 두 사업이 연간 10억 원 내외의 규모로 지원된 데 비해 〈문화예술 참여·체험 지원 복권기금사업〉은 2005년 한 해에만 54.5억 원이 지원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은 복권기금의 유입 이후, 문화향수 부문의 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흐름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체험 지원〉은 문화예술 사회교육 활동과 아동·청소년의 예술체험활동, 초중등학교의 예술축제 등을 주로 지원하여 일반 국민의 예술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문화의 생활화에 기여

[표 6-13] 문화예술 체험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문화예술 체험 지원	-	-	989,163	999,352	990,000	1,065,000	4,043,515
문화예술 참여 지원	1,285,979	1,321,474	945,262	304,518	700,539	873,718	5,431,490
문화예술 참여·체험 지원 '복권기금사업'	-	-	-	-	-	5,450,000	5,450,000
합계	1,285,979	1,321,474	1,934,425	1,303,870	1,690,539	7,388,718	14,925,005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6-14] 문화예술 참여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문화의 달 행사 지원	299,952	300,000	300,000	300,000	320,000	320,000	1,839,952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개최	4,089	4,214	4,700	4,518	4,256	7,014	28,791
문화예술 사회교육 프로그램	275,978	432,900	-	-	376,283	496,704	1,581,865
이달의 문화인물 지원	269,663	284,901	277,156	-	-	-	831,720
문화학교 및 국제문화학교 운영 지원	436,297	299,459	-	-	-	-	735,756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	-	287,311	-	-	-	287,311
수요연극강좌	-	-	14,953	-	-	-	14,953
금요상설예술강좌	-	-	61,142	-	-	-	61,142
온라인문화예술교육실태	-	-	-	-	-	50,000	50,000
합계	1,285,979	1,321,474	945,262	304,518	700,539	873,718	5,431,490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하였다. 그러나 〈찾아가는 예술 지원〉, 〈참여하는 예술 지원〉, 〈함께 하는 문화복지〉 사업 유형의 내용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구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예술 참여 지원〉에는 1983년에 시작된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개최를 비롯하여 1990년에 시작된 〈문화의 달 행사 지원〉과 〈이달의 문화인물 행사 지원〉, 1987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지원〉, 1992년부터 시작된 〈문화학교 및 국제문화학교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문화학교 및 국제문화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2001년에 종료되었고, 〈이달의 문화인물 행사 지원〉은 2002년에 종료되었다. 중단된 사업을 포함하여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년 동안 〈문화예술 참여 지원〉에는 총 54.3억 원이 지원되었다. 연도별로는 2000년과 2001년 10억 원대 지원 규모였던 것이, 2002년 이후 10억 원 이하로 축소되었다. 세부사업별 지원 내역은 [표 6-14]과 같다.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은 2003년 「20주년 기념 수상작 모음집」을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등 역사를 자랑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문화의 달' 행사는 매년 10월,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기념식, 문화축제 행사를 펼쳐 국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2003년 '문화 분권'의 맥락 속에서 처음으로 지역에서 개최되었고, 전국 순회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예술 전문소극장 지원〉은 작품 수에 비해 부족한 발표 공간난을 해소하고,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무용작품 발표 공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무용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학로에 편중된 작품 발표 공간의 분산을 유도하여 대관 단체와 공연장 운영 주체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2003년에 사업명이 〈무용 전문소극장 지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년 〈예술전용공간 지원〉으로 다시 변경되었는데, 무용전용 소극장만이 아니라 〈공연예술종합연습실 지원〉과 같이 연습공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2008년 이후 적극 추진된 간접지원의 맹아적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은 주민 친화형 문화환경의 지속적인 창출로 생활과 문화를 접목한 '선진 문화환경' 조성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정책자문기구인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었다. 주요 지원 실적으로는 ① 문화환경가꾸기 전문가 워크숍, ② 문화환경진단위원회 운영, ③ 문화환경 홍보 프로젝트, ④ 문화환경 정보 및 컨설팅 체계 구축, ⑤ 문화유산 보존 관련 국제 워크숍 등이다. 이 사업은 종료 후에도 문화공간 및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예술 참여·체험 지원 복권기금사업〉에는 총지원금 54.5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문화예술 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이달의 우수문학도서 보급'이 추진되었다.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사업은 세대·계층 간 문화적 화합과 조화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총 217.9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에 22.2억 원, 〈원로문예인 복지 지원〉에 24.7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된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85억 원,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민 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에 86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문별 세부 지원 실적은 [표 6-15]과 같다.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은 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 또는 소외계층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의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궁극적으로 문화복지와 문화향수층을

[표 6-15]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349,500	303,000	294,000	300,000	387,000	585,000	2,218,500
원로문예인 복지 지원	384,000	423,600	403,200	414,000	424,200	423,600	2,472,600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	-	-	-	5,000,000	3,500,000	8,500,000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민 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	-	-	-	7,500,000	1,100,000	8,600,000
합계	733,500	726,600	697,200	714,000	13,311,200	5,608,600	21,791,100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 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은 '함께하는 문화복지 복권기금사업'임.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원 대상은 소외계층(장애인, 교도소, 청소년보호시설, 보육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예술 보급 및 참여활동이나 소외계층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은 계층이나 연령에 따른 소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예술창작활동이나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큰 원로 문화예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되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문화예술인으로서 30년 이상 해당 분야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한 분으로, 한번 선정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만 55세 이상 문화예술인 중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공적이 크고 장기투병으로 생계가 극히 어려운 경우는 특별 접수를 통해 지원하되, 예술원·학술원 회원,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각종 연금 혜택을 받으면 제외되었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월 60만 원이며, 연간 6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 단계에서 시행된 예술인 복지프로그램으로서 의의가 있다.

〈함께하는 문화복지 복권기금사업〉은 2004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민 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2개 사업이 추진되어 계층 간·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5. 200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전국 각 지역의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은 2001년까지 예술창작 진흥, 문화향수 활성화와 함께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2002년부터는 문화향수 기회 확대의 일부 사업에 편제되었다. 2000년대 전반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은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과 〈지역문화 활성화 복권기금사업〉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644.1억 원이 지원되었다. 기존의 전국연극제와 전국무용제 등은 '예술창작 진흥'의 〈전국규모 예술행사 지원〉으로 옮겨지고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만 유지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415.4억 원의 복권기금이 전입되어 지원되었다.

[표 6-16]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총괄(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지역문예진흥 사업 지원	3,810,000	3,810,000	3,810,000	3,810,000	3,815,788	3,817,588	22,873,376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복권기금사업	-	-	-	-	22,864,000	18,672,000	41,536,000
합계	3,810,000	3,810,000	3,810,000	3,810,000	26,679,788	22,489,588	64,409,376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6-17] 지역문예 진흥 사업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지역문예 진흥 사업 지원	지원액	3,810,000	3,810,000	3,810,000	3,810,000	3,815,788	3,817,588	22,873,376
	건수	15	15	15	15	15	15	90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6-18]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복권기금사업 현황(2004~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4	2005	계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개발 지원	14,600,000	9,400,000	24,000,000
문화의집 계층별특별공연 개발 지원	1,000,000	1,000,000	2,000,000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3,664,000	3,432,000	7,096,000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시 프로그램 지원	3,600,000	3,340,000	6,940,000
다중밀집지역 작은 문화장터 사업	-	1,500,000	1,500,000
합계	22,864,000	18,672,000	41,536,000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은 중앙문예진흥기금을 15개 광역시도 또는 광역시도 문화재단에 직접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부터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을 신장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자치단체(또는 일부 광역시도 산하 문화재단)를 대상으로 하며, 등급 기준별로 A급 지역 3억 원(경기, 인천), B급 지역 2.7억 원(부산, 광주, 제주), C급 지역 2.4억 원(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각각 지원되었다. 2005년도에는 전국문화예술지원협의회(가칭) 설립 추진을 통해 지역문예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액 약 38.2억 원이 지원되었다.[3]

3. 지역문예진흥사업 관련 시도 간 협의체는 2002년부터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 왔다. 2002년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과 관련한 시도의 의견 청취,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역 간 협조 체제 강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시도 관계자회의'가 출범한 이후, 2003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004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의회, 2005년 전국문화예술지원협의회(가칭) 설립이 추진되었다. 현재는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약칭 한지협)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복권기금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문화의 집' 계층별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사립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다중밀집지역 작은 문화장터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04년 228.6억 원, 2005년 186.7억 원 등 2년간 총 415.4억 원이 지원되었다.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발 지원〉은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한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계발 및 중장기적인 문화예술의 수요 기반을 확대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국 지방문예회관(121개소)을 대상으로 전국문예회관연합회(문화관광부 사업추진 총괄 및 사업수행과정 관리감독)의 주관 아래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문예회관 시설의 특성을 활용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지방문예회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문화의 집 계층별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은 각 '문화의 집'별로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대상 계층별 문화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시행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문화활동 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의집협회의 주관 아래 '문화의 집' 100개소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1백만 원씩 지원되었다.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은 전국 220개소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표준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지역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회 제공 및 민간단체의 지역문화진흥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었다.

〈사립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은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아래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중 재정 형편이 열악한 120개관을 대상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 특별기획전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6. 2000년대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추진과 성과

2000년대 전반기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지원사업으로는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이 있고, 그 외 〈한·아세안 예술인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한일문화교류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통일민족문화교류'를 문화예술교류의 한 부문으로 편제한 것이 특징이다.

[표 6-19]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지원 총괄(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통일민족문화 교류 지원	-	-	250,000	240,000	250,000	476,000	1,216,000
통일문학전집 발간사업	-	-	408,129	-	-	-	408,129
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	865,018	905,821	1,064,500	1,039,000	1,456,504	2,433,281	7,764,124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지원	387,896	375,862	324,689	365,560	376,959	353,407	2,184,373
해외문화기관교류 및 해외정보서비스	16,264	52,029	131,703	87,519	48,884	29,741	366,140
한국문화체험학교 운영	-	-	16,865	12,867	-	-	29,732
합계	1,269,178	1,333,712	2,195,886	1,744,946	2,132,347	3,292,429	11,968,498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지원〉에는 총 119.7억 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은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에 12.2억 원, 〈통일문학전집 발간 사업〉에 4.1억 원이 지원되었다.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 지원〉은 〈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 77.6억 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지원〉 21.8억 원, 〈해외문화기관 교류 및 해외정보서비스〉 3.7억 원, 〈한국문화체험학교 운영〉 0.3억 원이 지원되었다. 2002년 통일민족문화교류와 국제문화교류가 통합되면서 연간 20~30억 원대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였다.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은 남북 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 활동과 재외동포 대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한 신청 대상은 국내·재외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남북 간 민족문화예술 교류사업〉(전통예술 분야 포함)과 〈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사업〉(전통예술 분야 포함) 등이다. 2005년 추진 실적을 보면 문학은 12건에 1억 200만 원, 미술 6건에 6,800만 원, 연극 4건에 7,100만 원, 무용 2건에 1,800만 원, 음악 2건에 3,600만 원, 전통예술 10건에 1억 원, 문화 일반 9건에 9,300만 원 등 총지원 건수 45건에 전체 4억 7,600만 원이 지원되었다.

〈통일문학전집 발간 사업〉은 남북한의 대립적 구도를 해소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문화교류 기반 마련, 문학을 통한 남북 상호 문화적 토양의 이해 및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문학 연구 기초자료 및 역량 축적과 함께 문학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2년에 4억 8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발간하는 대상 작품의 발표 기간은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 각각에서 발간(발표)된 문학작품이다. 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최종 발간·편집 목록 확정 및 제작을 추진한 가운데, 수록작가 1,004명(남한 746명, 북한 258명), 수록 편수 5,382편(남한 4,406편, 북한 976편)을 수록하여 시디롬(CD-ROM) 형태로 발간했다. 비매품으로서 학술연구용으로 배포 활용토록 했다.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 지원〉은 우리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해외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교류 및 우리 문화예술인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지원〉, 〈해외문화기관 교류 및 해외정보 서비스〉, 〈한국미술 소개자료 해외 배포〉, 〈한국문화체험학교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은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분야의 국제회의 행사의 국내 개최, 해외 참가나 순회전시·공연, 외국의 우수한 공연예술단체 초청 등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 및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주로 국제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회, 워크숍, 연수 및 페스티벌 등의 국내 개최 및 해외 참가, 국제교류전시·공연행사 및 해외 저명작가초청 등 인적교류사업, 문학·미술 분야 국제스튜디오 프로그램(Artist in Residence Program) 참가사업, 해외 유수의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현지 체류(1개월 이상) 문학·미술창작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2005년 주요 지원 실적을 보면, 문학 6건에 7,300만 원, 미술 47건에 5억 7,100만 원, 연극 27건에 3억 6,300만 원, 무용 23건에 2억 9,900만 원, 음악 21건에 3억 100만 원, 전통예술 19건에 2억 7,600만 원, 문화 일반 18건에 2억 2,300만 원 등 총 161건에 24억 3,3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지원〉은 한국문화 해외 소개의 장으로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고, 세계 3대 비엔날레의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과 건축전에 한국작가 참가를 지원하여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표 6-20]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연도	전시명	참가 단체 및 작가	기간	지원액
2000	제7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최민, 조건영, 이상해, 안건혁, 김동건	2000. 6. 18.~10. 29.	387,896
2001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서도호, 마이클주	2001. 6. 10.~11. 4.	375,862
2002	제8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김영준, 김종규, 김준성 외 6인	2002. 9. 8.~11. 3.	324,689
2003	제50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황인기, 박이소	2003. 6. 14.~11. 2.	365,560
2004	제9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김광수, 송재호, 유석연	2004. 9. 12.~11. 2.	376,959
2005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박기원, 최정화, 박이소 외 12인	2005. 6. 12.~11. 6.	353,407
계				2,184,373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해외문화기관 교류 및 해외정보 서비스〉는 세계 주요 문화기관과의 정기적인 인사교류 및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해외교류 거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사업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약 3억 5,600만 원이 지원되었다. 〈해외문화기관 교류 사업〉에서는 2002년 중국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중국 상해예술제, 몽골 예술위원회,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관계자 교류를 추진했고,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문화인 초빙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였다. 〈해외정보 서비스〉 사업은 주로 해외 예술기관의 연감 및 최근 정보물을 수집하는 사업으로, 미국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영국 Arts Council, 독일 세계문화의 집(Haus Der Kulturen der Welt),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 등에서 예술 지원 관련 주요 정보를 수집하였다.

〈한국미술 소개 자료 해외 배포〉는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자료를 시디롬(CD-ROM)으로 제작하여 해외미술 유관단체 및 미술관에 배포함으로써 한국미술의 해외 인식 기반 확충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문화 체험학교 운영〉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교포에게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한 사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전통문화 교양강좌, 한지공예, 가야금병창, 북장단, 김치담그기 체험, 전통도예 강의 및 실습, 사찰체험 등이었다.

기타 문화예술 교류사업

〈한일문화교류 지원〉은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를 계기로 활발하게 추진된 한일문화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일 양국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 정착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양국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한일문화교류회(대표 지명관) 운영과 사무국 운영, 한국전통예능 일본방문단, 한국청소년 예술방문단, 한일문화교류현황 전국실태조사 등이다.

〈한·아세안 예술인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 각국에서 추천한 예술가 9명을 국내에 초청, 국내 공공 예술단체에 위탁 연수를 통해 한국의 공연예술 현장과 아세안 예술가의 접목을 도모하였다. 이 사업은 국고 이관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01년 11월 ASEAN+3(한·중·일) 정상회의(브루나이)에서 이 프로그램 추진을 협의, 2002년 1월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에서 프로그램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수행기관으로 문예진흥원이 지정되었다.

연수 대상과 인원은 아세안 회원국의 음악, 무용, 연극 분야 예술인 9명이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관으로 참가자에게 왕복항공권 제공 및 국내 체재비(숙박, 일비 등 체류비용)로 월 170만 원 지급, 분야별 위탁기관 교육비 및 한국문화체험 등 연수비용 전액을 제공하였다.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작가 파견 지원〉은 현대 시각예술 작가에게 1년간 독일 베를린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국제문학포럼 개최〉는 세계 주요 문학인을 초청하여 국내 문인과 함께하는 대규모 문학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오늘날 문학의 위상과 책임을 살펴보고 21세기의 문화비전을 창출하려는 것이었다. 2005년 제2회 세계국제문학포럼은 문예진흥원, 대산문화재단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메인포럼행사로 '평화를 위한 글쓰기'란 주제와 13개 세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참가작가 기자회견 및 독자와의 대화, 특별강연회와 문학의 밤, 논문집 발간, 판문점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울평화선언'을 발표하였다.

7. 2000년대 예술의 보존과 계승사업의 추진과 성과

예술의 보존과 계승 총괄

예술의 보존과 계승 분야는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지키고, 올바르게 보존 및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보존 및 조사·연구 지원〉,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전통예술의 계승 및 보급과 현대 예술자료의 정보화를 하나의 범주로 엮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표 6-21] 예술의 보존과 계승 총괄(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예술 보존·조사연구지원	2,956,823	3,030,947	2,829,265	3,072,263	930,181	932,548	13,752,027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존·보급지원	-	-	559,240	298,722	342,997	335,259	1,536,218
전통예술발표·전승보급지원	1,336,000	1,248,150	1,383,000	1,378,000	4,636,000	6,462,000	16,443,150
합계	4,292,823	4,279,097	4,771,505	4,748,985	5,909,178	7,729,807	31,731,395

〈예술보존 조사연구 지원〉(2000~2003년)에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운영 지원액 83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업에는 총 317.3억 원이 지원되었다. 〈예술 보존 및 조사·연구 지원〉에 137.5억 원,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에 15.4억 원,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에 164.4억 원이 지원되었다.

예술 보존과 조사·연구 지원

〈예술 보존과 조사·연구 지원〉은 소중한 예술과 가공예술자료의 구축 및 기록보존,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활동,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원 대상으로는 ① 공연예술 분야 단체의 기관지 발간, ② 예술 관련 문헌·시청각 자료의 신규 집필·개발 및 연구·평론 자료 발간, ③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연수사업 등이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연간 지원 규모는 약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되었다.

〈예술 보존과 조사·연구 지원〉은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문화 일반 등 분야별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문학 분야에서는 문학단체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 행사에 대한 지원과 중요 문학자료 간행에 대해 지원되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문학인 관련 행사 지원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무용

[표 6-22] 예술 보존과 조사·연구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문학	210,000	225,000	91,000	70,000	113,000	106,000	815,000
	25	30	14	12	17	23	121
미술	79,500	90,000	73,000	75,000	121,000	109,000	547,500
	14	15	9	7	16	15	76
연극	125,000	123,629	116,000	94,000	88,000	74,000	620,629
	21	22	13	9	8	5	78
무용	68,415	63,162	71,000	54,000	56,000	61,000	373,577
	17	15	12	5	7	6	62
음악	50,000	47,000	60,000	65,000	78,000	95,000	395,000
	15	13	14	9	12	15	78
문화일반	30,000	44,000	86,000	135,000	126,000	128,000	549,000
	9	11	15	19	18	19	91
합계	562,915	592,791	497,000	493,000	582,000	573,000	3,300,706
	101	106	77	61	78	83	506

2000~2001년 문화 일반은 '예술평론활동' 지원액임.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분야에서는 『춤』, 『몸』, 『춤과 사람들』 등 무용 관련 주요 월간지 발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부산미술포럼, 대학미술포럼 등 학술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이나 특수한 영역에 제한된 성격의 미술포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문화 일반 분야는 도서 발간 및 세미나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창작에 밑거름이 되고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총 506건에 33억 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문학 121건, 8.2억 원, 미술 76건, 5.5억 원, 연극 78건, 6.2억 원, 무용 62건, 3.7억 원, 음악 78건, 4억 원, 문화 일반 91건, 5.5억 원이 지원되었다.

〈월간 『문화예술』 발간〉은 1974년 5월 『문예진흥』이라는 제호로 창간한 이래 2000년대 전반기에는 월간 『문화예술』이라는 제호로 발간되었다. 월 1회, 2,500부를 발간한 〈월간 『문화예술』 발간 사업〉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14.9억 원이 지출되었다. 이 잡지는 문화예술인에게 문화예술계 활동상과 문화정책 분야별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한편, 문화예술 향수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문예연감』은 1976년 창간되었으며,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집으로서 매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문화예술 각 분야 활동의 총량을 수록하여 해마다 700부를 발간하였다. 분야별 총론을 편성하여 한 분야에 대한 1년 동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권말 부록으로 문화예술 단체 및 공연, 전시장의 주소록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동시에 시디롬(CD-ROM)도 발간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7.1억 원이 지출되었다.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지원〉은 주요 예술인의 구술 생애사에 대한 영상채록, 녹음 및 녹취문 발간 등으로 이루어졌다.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에는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과 〈우수예술도서 보급 지원〉 2개 사업이 편제되어 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15.4억 원이 지원되었다. 사업별로는 〈우수예술도서 보급 지원〉에 10.5억 원,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에 4.9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6-23]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2002~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계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	문학	40,000	24,000	24,000	22,000	110,000
	미술	20,000	27,000	43,000	39,000	129,000
	연극	-	5,000	6,000	-	11,000
	무용	-	-	-	10,000	10,000
	음악	-	7,000	18,000	14,000	39,000
	전통예술	-	15,000	15,000	10,000	40,000
	문화 일반	40,000	22,000	44,000	41,000	147,000
	소계	100,000	100,000	150,000	136,000	486,000
우수예술도서 보급 지원		459,240	198,722	192,997	199,259	1,050,218
합계		559,240	298,722	342,997	335,259	1,536,218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은 예술창작 여건 개선 및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정보화·보급, 이미 개발(발간)된 문화예술 콘텐츠(문헌, 시청각 자료 등)의 확산 활동 등을 수행하는 데 지원되었다. 지원 대상은 웹·IT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규 추진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문화예술 정보화사업(전통예술 분야 포함, 단, 웹·IT 및 인터넷을 활용하였어도 이미 완성되어 있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결과물의 보급 확산사업은 〈예술 보존과 조사·연구 지원〉에 포함)으로 연간 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500~5,000만 원 선이다.

2004년도 주요 지원 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지원 건수 24건에 1.5억 원이 지원된 가운데, 문학 분야에서는 총 4개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및 웹진 발간사업에 2,4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미술 분야는 시각예술 표현매체 확장 및 매체의 유비쿼터스화 등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실험적 활동에 대한 지원 확충이 요구되었다. 음악 분야는 2건의 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 문화향수권 신장과 기반 조성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내용상 문화예술인과 공유하기 어려운 과제인 한편, 해당 단체만의 자료로 한정되어 사업효과가 미지수로 평가되었다. 연극 분야는 공연 정보, 해외 소식과 이론 소개 등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잡지 『한국연극』을 CD로 영구 보존·활용할 수 있게 제작하는 데 6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우수예술도서 보급 지원〉은 199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01년까지 문학 분야에 포함되어 지원되었고, 2002년부터는 문화예술도서 중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공공도서관 등 전국의 문화거점 공간에 배포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 아울러 작가-출판사-문화공간-향수자를 연계하며 창작과 문화향수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었다. 2002년도의 지원 대상은 문학도서로 시, 시조, 소설, 문학평론, 희곡, 아동문학, 수필 등이며, 예술도서는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예술 일반 등이다. 지원 대상 도서는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단행본 문학·예술 도서로서 보급 종수가 230종(문학도서 190종, 예술도서 40종)에 달했다. 2003년에는 국고사업인 우수문학작품집 구입·배포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였다.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

2000년대를 맞이하자, 2001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①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 ② 예술 전 장르에 걸친 기록·보존 사업지원, ③ 전통예술의 발표·원형보존 사업지원, ④ 전통예술공연, 기록·발굴·조사사업, ⑤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해석·대중화 사업지원, ⑥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한 타 장르와의 교류활동, ⑦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예술 양식의 발굴·보급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은 전통예술의 보존·계승 발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전통예술의 원형 보존, 전시, 공연, 전문인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부터 2005년

[표 6-24]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 현황(2000~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	886,000	848,150	983,000	978,000	1,085,000	1,091,000	5,871,150
대한민국 국악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한국민속예술축제	350,000	300,000	300,000	300,000	-	-	1,250,000
전통예술 활성화 지원	-	-	-	-	-	1,273,000	1,273,000
전통예술 대중화, 세계화 지원	-	-	-	-	2,498,000	2,998,000	5,496,000
민속마을 전통축제 지원	-	-	-	-	953,000	1,000,000	1,953,000
합계	1,336,000	1,248,150	1,383,000	1,378,000	4,636,000	6,462,000	16,443,150

〈전통예술 대중화, 세계화 지원〉, 〈민속마을 전통축제 지원〉은 복권기금사업임.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까지 6년 동안 총 164.4억 원이 지원되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10억 원대 규모를 유지하다가 2004년과 2005년 복권기금이 유입되면서 40~60억 원대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은 주로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전시, 공연, 전문인 육성 등을 지원하는 공모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의 경우, 전통 분야는 장르의 특성상 지역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위주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우수한 사업을 다시 흡수해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지원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지원 규모는 연간 10억 원 내외로 유지되었으며, 고악기연구회 〈공후복원연주회〉(2004),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누비전시회〉(2005) 등 전시 부문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국악제〉는 1981년 시작된 국악계 최대의 전국 규모의 예술행사로 전 장르에 대한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객에게 격조 있는 국악 감상 기회를 넓혀주고,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였다. 이 행사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인 대상의 전통예술 소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외국인에게 국악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05년 〈대한민국 국악제〉에서는 3년 기획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인 30명을 초대하는 무대를 마련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승무의 명인 이매방을 비롯한 10명의 초청공연을 올려 호평을 받았다.

〈전통예술 활성화 지원〉은 200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던 전통예술 분야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어 지원된 사업이다. 2005년 주요 지원 실적은 18건에, 지원금 12.7억 원이었다.

〈전통예술 발표·전승보급 지원 복권기금사업〉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사업 전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 〈전통예술 대중화, 세계화 지원〉은 주로 소외되고 있는 전통예술의 대중적 붐을 조성하는 국악축전 및 문화의 동질성을 지닌 아시아의 전통예술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전통예술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04년도부터 국내 및 국제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되었는데, 국내 전통예술 현대화·대중화 국악축전(행사명: 2004 국악축전-종횡무진 우리음악), 국제아시아 전통예술페스티벌(행사명: 아시아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로 나뉘어졌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04년 25억 원, 2005년 30억 원이었다.

〈민속마을 전통축제 지원〉은 유·무형의 전통이 간직된 민속마을에 내재된 전통 계승 및 민속마을 보존 활용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여 전통이 살아있는 대국민 문화체험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별 전통민속과 관련된 축제 또는 행사 운영비, 장비 및 재료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4년에는 6개 민속마을을 대상으로 총 9.5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의 추진기관은 문화재청이며, 지원 대상이 된 6개 민속마을은 안동 하회, 제주 성읍, 경주 월성양동, 고성 왕곡, 아산 외암, 순천 낙안읍성 등이었다.

〈기타 보존·계승 사업〉에서는 〈문화복지 정보지 발간 지원〉(당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발간하던 『문화도시 문화복지』 발간 지원)과 〈해외 소장 한국 전적자료 조사 지원〉이 추진되었다.

8. 2000년대 문화시설 운영의 추진과 성과

시설 운영 총괄

2000년대 전반기 문예진흥원은 예술극장을 비롯하여, 마로니에미술관, 예술정보관, 문화예술연수원 등 지원 시설을 직접 운영하였다. 이들 지원 시설에 대한 전체 지출 규모는 2002년 43.1억 원, 2003년 35.3억 원, 2004년 25.3억 원, 2005년 42.4억 원 등 4년간 총 146.1억 원이었다. 시설별로는 예술극장 운영이 62.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예술자료관 40.3억 원, 마로니에미술관 27.9억 원, 문화예술연수원 15.2원이었다.

[표 6-25] 시설 운영 총괄(2002~2005)

(단위 : 천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계
예술극장	1,907,174	1,592,282	937,113	1,837,379	6,273,948
마로니에미술관	1,308,113	540,898	456,768	481,894	2,787,673
예술자료관	785,673	1,069,958	736,760	1,438,523	4,030,914
문화예술연수원	307,007	330,209	396,981	485,915	1,520,112
합계	4,307,967	3,533,347	2,527,622	4,243,711	14,612,647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예술극장(현 아르코예술극장) 운영



예술극장(현 아르코예술극장)

예술극장은 무대예술 전용공연장이 없던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예회관'이라는 명칭으로 공연장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전국 각지에 건설된 수많은 공연장이 문예회관을 이름으로 사용하여, '예술극장'의 차별적인 이미지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2002년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관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순수 무대예술작품을 공연하고자 하는 전문(프로)단체 또는 개인으로, ① 공연예정작품의 예술성, 우수성, 완성도, ② 공연계획의 충실성(공연 목적, 연습·홍보 등의 추진 일정, 예산계획 및 소요 재원 조달계획, 홍보, 관객 유치 계획 등), ③ 국민의 예술향유에 대한 예상 기여도, ④ 제작 참여자(작가, 연출, 안무, 주요 출연진, 주요 스태프 등), ⑤ 단체, 개인의 공연 실적(특히 우수작품으로 평가된 실적) 등을 대관 기준으로 삼았다. 이 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는 2002년 19.1억 원, 2003년 15.9억 원, 2004년 9.4억 원, 2005년 18.4억 원 등 4년간 총 62.7억 원이었다.

[표 6-26] 예술극장 운영 현황(2000~2005)

(단위 : 일, 회,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대관일 수	대극장	214	174	172	262	185	259	1,266
	소극장	235	187	226	289	151	251	1,339
	소계	449	361	398	551	336	510	2,605
공연 횟수	대극장	286	235	152	267	180	205	1,325
	소극장	374	303	284	385	179	243	1,768
	소계	660	538	436	652	359	448	3,093
관람객 수	대극장	93,815	71,910	92,567	102,964	58,117	68,399	487,772
	소극장	33,427	24,761	33,392	36,439	14,407	23,064	165,490
	소계	127,242	96,671	125,959	139,403	72,524	91,463	653,262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예술극장의 운영 현황을 보면, 총 대관일 수는 2,605일(연평균 434.2일), 총 공연 횟수는 3,093회(연평균 515.5회), 총 관람객 수는 653,262명(연평균 108,877명)이었다.

예술극장에서는 극장 자체 기획공연과 기획 대관공연의 극장 사용 비율을 20%까지 확대하여 더 양질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전문공연장 이미지를 확립하고, 예술극장 고정관객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사회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예술극장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관객 리포터제' 등을 운영하여 관객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였다.

마로니에미술관(현 아르코미술관) 운영


마로니에미술관(현 아르코미술관)

마로니에미술관은 주로 개인이나 미술단체의 창작·발표 활동에 대한 간접지원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시실을 대관하고, 아울러 수준 높은 전시 및 미술 작가와 기획자의 발굴을 위하여 기획자와의 공동전시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미술관 운영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27.9억 원이 지출되었다.

대관 구분은 일반대관(소정의 대관료 납부, 1주 또는 2주 대관)과 공동기획전(문예진흥원과 공동으로 전시 추진, 소정의 전시 제작지원금 지급, 전시실 2주 무료 대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지원 신청 자격은 일반대관의 경우, 3년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작가이며 창립전은 구성 회원별 활동 실적이 3년 이상, 공동기획전은 분명한 전시주제와 기획의도를 가진 우수 전시(개인전 및 단체전)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로니에미술관의 2002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지역작가초대전 등 5개 사업 중 자체 기획전으로 〈지역작가 초대전〉, 〈중진작가 초대전〉, 〈대표작가 초대전〉 등 3개 사업과 〈지역작가 초대전〉 등의 지역순회전(울산, 전주)이 병행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이미지 정립을 목적으로 마로니에미술관 국·영문 소개자료

발간(1,000부, 2003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미술계 인사에 배포 활용), 학예연구 기능 확충-학예연구 인력 운영 기반 마련(4명), 전시기획의 집중력 강화 및 전시운영의 관람객 서비스 제고, 도슨트 회원제 도입 및 시범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미지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 수립(2003. 9.),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의 추진 결과, 〈지역작가 초대전〉, 〈중진작가 초대전〉 및 〈대표작가 초대전〉 등 주요 3개 자체 기획전시와 공동기획전('기획공모'형 5건, '공동기획'형 3건 등 총 8건)이 추진되었다.

2004년에는 미술관 운영의 중점 추진과제로 '미술관 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6개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의 별도 지정을 통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미술관 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일반대관전 폐지, 자체 기획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 및 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5년 미술관 운영의 중점 추진과제로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심화 지속 추진' 등 3개 운영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별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이며 목표지향적인 미술관 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2005년 전체 관람객은 60,752명, 운영일 수는 249일, 1일 평균 관람객 규모 266명으로 2004년도 283명 대비 94%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는 관람 유료화에 따른 감소와 함께 관람객 산정 방법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후 미술관 프로그램 다각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예술자료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 운영


예술자료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 문헌정보실

예술자료관은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문헌정보자료 수집, 제작 및 보존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멀티미디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예술자료관 운영에는 2002년 7.9억 원, 2003년 10.7억 원, 2004년 7.4억 원, 2005년 14.4억 원 등 6년간 총 40.3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6-27] 예술자료관 소장자료 현황

(기준 : 2005. 12. 31.)

분류			단위	보유량	비고
도서자료	대본		권	53,447	
	연속간행물		권(합본)	11,907	368종
	동인지		권	5,027	774종
	소계		권	70,381	
비도서자료	공연 대본	대본	편	5,862	줄거리 432, 음악대본 64
		마이크로필름	편	4,553	
		풀텍스트 DB	편	4,407	줄거리 432편 포함
	공연팜플렛·프로그램		건	10,693	
	전시팜플렛·도록		건	39,328	
	포스터	원본	점	3,267	
		사진본	점	4,547	
	사진자료		장	47,645	
	마이크로 필름 악보		편	783	
	소계		점	121,085	
영상자료	레이저디스크		개	754	
	VHS 비디오		개	11,421	Betamax, Umatic 자료 VHS 전환분 포함
	U-Matic 비디오		개	1,030	
	Betamax 비디오		개	72	
	슬라이드		개	168	
	16mm 필름		개	281	
	VCD 및 DVD		장	2,109	
	소계		개	15,835	
음악자료	컴팩트디스크		개	15,614	
	카세트 및 릴테이프		개	3,703	
	LP		개	4,137	
	SP		개	2,798	
	소계		개	26,252	
뉴미디어	CD-ROM		-	802	학술 DB 73종 포함
합계	234,355점				

자료 :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를 참고하여 재구성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서비스 제공, 고전음악강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이용자 서비스 개선, 회원관외대출 서비스 개선(대출 기간 연장 및 대출 건수 확대), 열람 환경 개선(노후 기자재 교체 및 DVD 열람석 증설, 문헌정보실 및 공동감상실 의자 교체, 영상음악실 내 소음 방지용 카펫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② 자료 수집 및 정리, 보존, ③ 자체 운영사업(고전음악강좌, 청소년 하계음악강좌 등)을 운영하였다.

한편, 예술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① 예술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차원에서 문예진흥원 기관 사이트와 문화예술정보 종합사이트(www.kcaf.or.kr)를 분리·특화 운영,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를 전산적으로 관리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② 지식경영체제에 부응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인터넷 지원신청 접수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지원신청등록 업무 개발, 행정전산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신규프로그램 지속 개발, ③ 국가지식정보 DB 구축사업 추진, 문화예술인 홈페이지 구축, 한국동인지 문학관 및 기초입문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 VOD 동영상(430편) 서비스 등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으로 홈페이지와 문화예술정보 종합사이트를 분리하여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문화예술정보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예술연수원(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운영



문화예술연수원(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문화예술연수원은 1992년 5월 개관 이후, 2002년 4월 대대적인 증·개축과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거듭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국가공인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이다. 문화예술연수원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단기프로그램과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연에 사용할 음악·음향을 제작할 수 있는 음향녹음실을 구비하고 있다. 연수원에서는 첫째, 무대예술 전문연수로 공연예술 워크숍(연기자 현장창조과정)과 무대예술아카데미(무대미술 최고전문가 양성과정)가 운영되었고, 둘째, 무대예술 단기연수로 문화행정 연수과정, 예술(공연)기획 연수과정, 축제기획 연수과정, 문화교육프로그램 기획 연수과정, 무대예술전문인 연수과정(무대, 조명, 음향) 등이 운영되었다.

이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02년 3.1억 원, 2003년 3.3억 원, 2004년 4억 원, 2005년 4.9억 원 등으로 4년간 총 15.2억 원이 지원되었다.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1. 예술위원회 출범의 역사적 의미
2. 예술위원회 출범의 배경과 경과
3. 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의 구성과 활동
4. 예술위원회 출범

1. 예술위원회 출범의 역사적 의미

2005년 8월 26일 문화예술계와 정부는 오랜 논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약칭 예술위원회/영문 ARKO, Arts Council Korea[1])로 전환하는 등기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2년여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에 개원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기금으로부터 창출된 재원을 토대로 우리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지원 정책의 대상이었던 현장 문화예술인이 스스로 지원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독임제인 진흥원 체제를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것은 예술지원정책에 있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율성'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와 존중을 의미한다. '전문성'은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이 위원회라는 합의제 체제로 전환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예술가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행정조직체제의 등장이며,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문화 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지원정책의 방향과 능력이 사회적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자율기구에 맡기고 전문화하는 일은 당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정책적 대응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예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시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며,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의 가치 확장이 어떻게 사회의 발전과 연관을 맺도록 할 것인지 등 많은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체계의 변화를 넘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진흥원 체제에서 위원회로의 전환은 첫째, 예술정책의 민주화, 전문화 과정이며, 둘째, 기금과 사업의 합리적 배분을 넘어 예술지원 자원을 발굴, 연계하고 자율적 지원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발점이다. 셋째, 문화예술의 창조성, 공공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예술정책의 변화와 확장의 근거지를 마련한 것이다.

제1기 위원회는 출범 즉시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민의 문화권 향상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토대로 문화와 예술이 사회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각을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는 노력의 하나였다. 제1기 위원회의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된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Arts Change the World)'라는 정책 슬로건은 예술이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위원회의 경영 목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2]

1. 설립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영문 명칭을 Arts Council Korea(예술위원회)로 선정하였고, 약칭은 Arts에서 Ar을, Korea에서 Ko를 취하여 ARKO(아르코)로 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아츠코(Artsko), ACK, KAC 등이 거론되었으나 아츠코는 일본 여성 이름을 연상한다는 점에서 제외되었고, ACK, KAC 등보다는 아르코(ARKO)가 부르기 쉽고 예술위를 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낙점되었다.

2. 제1기 예술위원회의 정책 슬로건은 "함께해요 예술"과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등 2개의 구호가 최종 후보로 올랐는데, 치열한 논의와 표결을 거쳐 번혁의 이미지가 강한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로 최종 결정된다. "함께해요 예술"은 이후 예술위원회 비전으로 채택된 "예술로 행복한 세상" "모두를 위한 예술" 등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의 접근성 확대와 연계된 구호로써 의미를 이어간다.

2. 예술위원회 출범의 배경과 경과

1. 문화정책의 자율화 요구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는 1990년 사회의 민주화 추세를 반영하여 문화와 공보 기능을 분리하고, 문화를 관장하는 독립부처로 문화부의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였다.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어령 교수는 〈문화발전 10개년계획〉[3]을 수립, 새로 출범하는 문화부 향후 정책의 기본 골격을 발표한다.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 중 문화 부문 계획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 운영에 치우쳐 있었다는 인식하에 복지문화, 화합문화,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라는 5가지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무렵 문화정책의 개혁을 목표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제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예술계와 진흥원 내부로부터

3.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은 1990~1999년(실제는 2001년까지 포함)의 10년 단위 문화 부문 중장기계획이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문화부 독립을 준비하면서 수립한 이 계획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산하 문화발전연구소(소장 이종인)가 맡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종인 소장의 회고에 의하면 "1990년 1월 3일, 문화부 독립과 함께 초대 장관으로 부임한 이어령 씨가 한번은 10개년계획 만든 것을 보러 덕수궁 연구소에 찾아왔다. 이때는 10개년 계획 마무리 작업이 한창 이루어질 때였다. 마무리 단계에서, 그때는 컴퓨터 쓸 때가 아니니까 사업 명칭과 내용을 전부 카드 한 장, 한 장에다 기록했다. 이걸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블로킹하는 거다. 예를 들면, 10개년계획이 내세운 기본방향이 복지문화, 조화문화,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 등의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 표현은 이어령 장관의 스타일에 맞추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문화', 이런 식으로 말은 바꿨는데, 여하간, 계획에 나오는 각 사업을 어느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야 하느냐 하는 분류작업을 하는 건데, 저녁만 되면 장관실 옆방에서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이중한(서울신문 논설위원), 김문환(서울대 미학과 교수), 정기영(부여전통예술학교) 그리고 나, 이렇게 다섯이 이 카드를 매일 저녁 한 번씩 바꾸면서 한 일주일 동안 블로킹 작업을 해서 만들어 냈다."

거론되기 시작했다.

문화정책의 자율성 차원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문화 영역에서도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문화예술계와 국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요구의 일환으로 문예진흥원 내부에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예술가인 원장이 상임의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는 원장 상임화 운동을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정부 초반까지 이어져 1999년 2월에 당시 차범석 문예진흥원장의 상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2. 현장의 위기의식 심화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피할 수 없는 구조개혁을 감당해야 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국가 발전 동력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이해하고 '문화입국'을 표방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문화부'를 '문화관광부'로 재편하고, 21세기형 산업의 주역으로 예술과 관광에 주목한 것은 이전의 문화정책과는 다른 관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문화의 산업화 육성에 치우쳤고 그 결과, 뿌리는 병든 채로 방치하고 가지에 열매만 많이 맺기를 바라는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4]

한편, 문화행정체계의 개혁과제로 국민의 정부는 예술진흥 관련 정책구성의 민주화, 직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분야별 협업화, 예술진흥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때 구상한 예술진흥위원회는 '전문민간인이 주도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서 문화부 장관 직속의 특별위원회'의 형태로서 문화예술 지원 업무와 더불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업무와 같은 창작물에 대한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관장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4.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새로운 성과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2002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문화의 시대, 창의력의 바탕이 되는 순수예술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며 핵심전략사업인 문화산업의 뿌리'라는 인식이 확립되고 '순수예술지원 강화' 시책이 결정되어 2002년 10월 〈순수예술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된다.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공공부문의 효율성 강화라는 범정부적인 시책에 따라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당시 기획예산위원회[5]가 마련한 문화예술진흥원 구조조정 방안에는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 문예진흥기금의 공공기금화, 문예회관과 미술관의 민간 위탁, 조직 및 인력의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공공기금화 및 모금 중단과 조직 인력의 감축이 추진되었다.

한편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예술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모금마저 폐지된다면 문예지원 재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기감이 더욱 확산되었다. 당시 정부는 준조세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는데, 문예진흥기금 모금도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2002년도부터 모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문화예술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유예하다가 결국 2004년 1월 1일을 기해 모금이 폐지되기에 이른다. 정부는 모금 중단에 따른 대체 재원으로서 복권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4년도부터 신규 제정된 「통합복권법」에 의거하여 문예진흥사업에 복권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6]

5. 국민의 정부 때 공공 부분 개혁 총괄기구로서 199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국가의 예산편성지침 작성 및 이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기획·조정과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6. 「통합복권법」 제정안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삽입된 것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당시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로또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예술 분야에 배분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또 복권 수익금 예술지원 예정"(...) "로또 복권 수익금 중 일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지난달 28일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 현재 논의 중인 통합복권법 제정시 로또 복권 수익금의 일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배분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고건 국무총리는 올해 말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화계의 의견에 공감하고 통합복권법 제정안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포함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또 복권은 공적인 자금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수익금이 국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차원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현재 호주가 문화예술 분야에 복권 수입의 25%를 배분하고 영국도 16.7%를 배분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이러한 양상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 황석영 민족문학작가회의 자문위원, 신세훈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정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허현호 한국배우협회 회장, 문석봉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건 국무총리가 취임 후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경제, 2003. 6. 1., 최윤석 기자)

3. 새로운 문화행정 체계 모색

2001년 6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최용규, 정병국, 남경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공동주최하면서 문화예술진흥원의 발전 모델로 '책임운영기관'을 제시했다. 이때 문화예술계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재원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재원 안정화 대책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술교육, 문화기반시설, 창작활동지원, 재원개발, 통일문화 등 정책 분야별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 그리고 정부로부터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자기 혁신을 이뤄내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 등이 제기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진흥원을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원 노동조합은 '문화예술진흥원 발전방향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과 제안'을 내어 원장제의 내실화, 즉 기관장의 권한 보장과 책임 및 의무 강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권한 행사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문예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4. 대통령 선거 공약과 위원회 전환 방안의 확정

위와 같은 문예진흥원의 조직 발전에 대한 국회 주도의 토론은 2002년 12월에 치러진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으로도 연결되었다. 당시 문화예술계 주요 17개 단체는 2002년 10월 15일 〈우리는 문화대통령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공동정책공약제안집을 발표했는데, '청와대를 문화의 상징으로', '문화예산의 확충과 문화 향유권 제고', '문화예술의 자율성 확대 및 다양성 확대', '지방문화 육성과 문화 분권화의 정착',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등 25개 세부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가 문화 부문 공약에 이러한 공약제안서의 내용 대부분을 수용하였고, 공약 제안의 하나였던 '순수문화예술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문화예술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의 세부 실천 과제로서 여러 후보의 문화 부문 정책 공약으로 채택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나중에

문예진흥원을 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된다.

참여정부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인 〈창의한국〉과 예술정책인 〈한국의 새로운 예술정책〉을 2004년 6월에 발표하였는데, 현장 중심 민간자율의 지원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이에 포함시켰다. 그 계획은 문화관광부가 맡았던 예술지원행정의 권한을 예술위원회에 이양하고, 예술위원회의 고유 임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중복하여 수행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독자성을 부여하자는 방안이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가 취급할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 전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고유성을 보장한다는 정신을 담았다. 정부와 문화예술계는 그렇게 된다면, 예술위원회는 독자성과 고유성의 토대 위에서 '예술지원사업 대상의 명료화', '문화향수권의 신장',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균형 발전' 등 〈한국의 새로운 예술정책〉이 담고 있는 주요 목표를 수행하는 자율기구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한편,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기에 예술 현장에 새롭게 등장한 '기초예술'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예술을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던 인식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된 개념으로서 연극, 음악, 미술, 무용, 오페라 등 오랜 전통을 가진 예술이 문화산업과 사회발전의 기초이자 뿌리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예술위원회 전환과정에서 '기초예술연대'의 결성, 문체부 기초예술진흥과 신설 등 많은 관심을 불러왔다. 그동안 순수예술이란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에 대해 '저급하고 상업적인 예술'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순수예술을 대신하여 등장한 기초예술이라는 개념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서 뿌리로서 기초예술이 바로 설 때 문화산업의 발전과 관광의 활성화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발전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5. 법률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 과정은 16대와 17대 국회로 이어지며 전개되었다. 2003년에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율·참여·분권의 기조 아래 다양한 국정 의제를 제시했는데, 문예진흥원을 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예술위원회의 전환이 기정

사실로 되어 정부의 입법 준비와 예술계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03년 2월, 문예진흥원 노동조합은 〈현장 중심 순수문화예술 지원기구로서 문예진흥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전환 논의에 대한 예술계 현장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3년 4월, 문화관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율·참여·분권'이라는 3대 가치를 문화예술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예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뒤이어 같은 달 14일에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민간자율추진 TF'를 구성하였고, 민간자율추진 TF는 위원회 전환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올바른 위상 확립과 역할 분담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2003년 7월부터는 문화예술계의 여러 단체와 예술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2003년 8월, 문화부는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후 11월까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하였다.

당시 제도권 안과 밖, 예술계 그리고 문예진흥원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검토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문예진흥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심포지엄 〈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 전환과 예술진흥정책의 발전 방향〉이 개최되었다.

같은 시기에 문화예술계는 16대 국회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의견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는 바람직한 지원기구의 위상을 확보하여 위원회 제도의 정착을 내실 있게 하려는 예술계가 내놓은 노력의 산물이었다. 2003년 10월 〈진정한 문화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연극과 교수연대〉 44인의 연극과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예술위의 조속한 설립과 종합문화 계획의 수립, 예술계 화합의 방안 마련 등을 주장하였으며, 한극연극협회와 지역 각 지회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 전환에 대한 문화예술계 합의는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전국예술인 연대〉는 예술단체장들과 예술인 3,000명의 연대 성명을 통하여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범문화예술계의 대동적인 합의라는 큰 틀을 끌어안는 구실을 하였다.

6. 예총, 민예총 등 범문화예술계의 예술위 전환 지지

위원회 전환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혼란은 2003년 11월 25일, 이념과 장르, 사조와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문화예술계가 공통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종결된다. 예총과 민예총, 문화연대, 대학로포럼 등을 포함한 장르별 29개의 단체가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전환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히 이들의 공동 기자회견은 예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냉전적 대결 의식을 벗고,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미래를 열었다는 점에서 위원회 전환의 미래를 밝게 했다.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환영한다.”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은 ‘예술가와 지원기관의 상호 신뢰 속에서 새로운 예술진흥 정책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필연이다.

물론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우리의 견해는 대다수 국민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으리라 확신한다.

첫째, 문예진흥원은 다양하고 복잡해진 예술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제 독임제 구조의 문예진흥원 틀 아래서 급변하는 문화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둘째, 그동안 문예진흥원이 단순분배식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한 기구였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예술지원 정책에 의한 적극적이고 선택적인 기획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문예진흥원은 나눠먹기식 기금 배분기구가 아닌 예술진흥 중추기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그 근원적인 처방이 바로 현장 문화예술 전문인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인 것이다.

셋째,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문화예술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원정책을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위원회 제도야말로 예술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 주도의 문예진흥원이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을 넘어 새로운 예술정책을 정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넷째,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치·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어느 나라나 이를 위해 예술지원 기구를 정부 조직과 독립하여 존재토록 하고, 정부는 지원정책 결정 및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견지하고 있다.

새로 출범할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러한 ‘팔 길이 원칙’에 충실한 기구로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구가 될 것이다.

2003. 11. 25.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대학로포럼 등 문화예술계 29개 단체 일동

이들이 발표한 〈문화예술계 연합성명서〉는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환영한다.”, “국회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한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며 논지를 이어갔다. 이들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은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 신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 마련과 열악한 문예 환경의 개선,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이 원한 위원회의 상은 다음과 같다.

이 밖에도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침체의 늪에 빠진 예술계를 위해 새로운 예술정책을 창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원 선임 등 여러 문제를 대국적인 입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문화예술계의 통일된 의견이 전달되면서 위원회 전환과 관련된 국회 법안 개정 절차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4년 3월로 끝나는 16대 국회 회기 내 통과는 점점 불투명해졌다.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개월을 논의하고도 합의를 얻지 못하다가 해를 넘겨 이듬해인 2004년 2월, 가까스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6대 국회 임기 2개월을 남긴 3월에는 40개 단체, 3,500명의 예술인이 국회의장 긴급면담 탄원서를 통하여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16대 회기 내에 의결하도록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예술계 전반에서는 전례가 없는 범문화예술인, 범문화단체 차원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속한 전환을 요구하는 강한 결속력을 보였으며, 근 1년 가까이 정부와 민간은 다각적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개정안은 2004년 2월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로 이송되었으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3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는 정쟁에 휘말리며 본회의에 상정도 해보지 못하고 5월, 16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의결

이러한 상황은 애초 계획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논의와 참여도 매우 활발해졌다. 2004년 4월, 정부는 다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미 진행된 부처 간 협의와 입법 예고 절차는 생략되었으며, 16대 국회에 제출된 안과 동일한 안이 국무회의의 재의결을 거쳐 6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같은 시기에 〈기초예술살리기범예술인연대(약칭 기초예술연대)〉의 결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3월에 발표된 기초예술연대 결성 제안서를 보면, 기초예술연대 결성 배경으로 '예술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 전환과 안정적 예술 재원 확보를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 대정부 및 국회의 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 전개'를 주요 활동 목표로 천명했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아닌 기초와 응용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기반으로 범예술계 조직을 지향한 기초예술연대는 2004년 4월, 창립된 이후 연속토론회를 여섯 차례 진행하였다. 법안이 제정된 2005년 이후에도 다시 여섯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총 12회에 이르는 연속토론회를 장장 15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술계의 의지를 모으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여 예술위원회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대정부 및 국회의 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4년 9월, 다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법안 발의 형태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아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으며, 12월에 문화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를 경유, 정기국회에 상정되었고, 회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완결되게 되었다. 이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2005년 1월 14일 정부로 이송되어 27일 공표되고, 여기에 따른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은 2005년 6월 13일 공표되었다.

3. 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의 구성과 활동[7]

1. 설립준비단의 구성

2004년 12월 7일 국회 문광위 의결로 문화예술진흥법안 개정이 예상권에 들어오게 되자, 12월 8일 위원회 전환을 대비한 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준비단이 구성되었다. 설립준비단은 2005년 8월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세우고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TF)에 참여한 구성원은 외부위원 7명, 문화관광부 및 내부위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제발표와 심층 토론을 거쳐 예술위원회의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2. 설립준비단 활동의 주요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T/F)은 2005년 2월 3일에 제1차 설립준비단 회의를 시작으로 2005년 6월 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7.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립준비단(2005), 『설립준비단 활동보고서』를 참조

예술위원회 4대 운영시설 혁신 방안, 소위원회 운영 방안,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체계, 예술위원회 사무처 운영 전문화 방안, 예술위원회 정관 제정(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 외에도 예술위원회 출범에 이르기까지 예술위원회의 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준비업무를 총괄하였다. 설립준비단의 10회에 걸친 회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 구성 방안

설립준비단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는 1, 2차 회의의 시행령 개정안 검토와 맞물려 위원선임 절차와 방법에 한정되어 논의되었다. 그러나 위원회 전환 추진의 출발에서부터 위원 구성의 자율성, 민주성, 전문성 등은 늘 논란거리로 제기되었다.

자율성과 관련된 쟁점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명권이 이른바 '코드인사'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문예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 불거졌던 반대 논리의 하나였다. 장관의 위원 임명에 대한 견제 장치로 '위원추천위원회'가 검토되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발의되어 개정법 제23조의4에 포함되었다.

민주성은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애초 추진배경이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데 있으므로 이들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시행령 속에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리하여 장르와 문화 일반 각 영역의 안배, 자천과 타천을 포함한 공개모집 등이 채택되었다.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촉 위원 숫자는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였다. 원활한 추천위원회 운영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분야별 안배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위원 자격은 기존 안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서 '기획 또는 행정 활동'으로 범위를 넓혔고, 각호의 10년 경력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시행령 제43조의7에 규정된 위원 추천기간 20일에 대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기존 안대로 20일 이내에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원후보자 공개모집을 후보자 추천의 원칙으로 삼을 것인지, 인재 발굴을 위한 하나의 창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전문성은 각 분야의 대표성만으로 안배하였을 때 "급변하는 문화정세의 변화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의 수립"이라는 위원회 전환의 기본목표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시행령 제43조의5에 "위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문장이 삽입되었다.

위원 구성의 문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되어 공포되기까지 2년 가까운 기간의 논의에서 위원회 전환의 핵심 사안으로 "누가 위원이 될 것이냐"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와 경험적으로 초기 영화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업 운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사업 대상, 우선순위, 집행 방식의 결정 등 실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념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최근의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념적 인식에 따라 입장이 민감하게 교차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방식의 기구구성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도권 장악을 위한 치열한 각축의 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였다.

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장관의 위촉 권한을 한정하고, 절차적 규정을 법률상 명문화한 것은 문화예술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행령의 위원과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이런 맥락을 전제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위원 책임성의 문제

위원회가 집행하는 사업 대부분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각각의 위원들은 해당 사안의 결정에 참여하여 찬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일단 다수결에 의해 확정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주체는 법인인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 각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라면 위원으로서 일하는 기간이 지나 돌아가야 할 자신의 존재 기반을 의식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고, 결국 정부가 아닌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며 일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많았다.

위원 상호간 갈등의 문제

위원회 내부의 과제로 운영 과정에서 위원 상호 간의 갈등과 봉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전환 자체에 대한 불신 또는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고방식의 전환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합의제인 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신뢰와 열린 자세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견이 있으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출범 초기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직 운영의 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공유된 목표 설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동안 이러한 갈등은 점차로 완화될 것이라 보았다.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문제

상호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위원회 형태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그에 따라 운영의 비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구일수록 단선적 조직의 장점으로 꼽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최우선의 운영 방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는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원회의 장점으로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히려 신속한 결정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생략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당연시함으로써'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감안할 때, 의사결정의 합의결과 못지않게 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진지한 토론이 가져올 성과도 매우 높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문예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화 방안만이 목표가 아니라, 문화예술 진흥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지원기구가 지닌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 강화를 의미한다. 한국 사회발전에 있어 문화예술이 갖는 견인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문화적 저발전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관건이라는 인식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설립준비단에서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검토는 2005년 3월 16일 5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운영방안과 함께 논의되었고, 3월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제로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일은 위원회 구성이 되고 난 후의 과제로 인식되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위원 선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여서 위원 선임의 절차와 방식에 해당하는 시행령의 개정 등이 더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예술위원회의 비전과 사업목표의 공유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설립준비단은 사전에 고민하고 담아야 할 다음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역할

예술진흥정책을 향한 시대적 요구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빨리 흡수하고, 민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으로 예술 현장을 최대한 살리고, 경쟁력 있는 예술가 혹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은 예술 현장이 '정책 대상'에서 '동시적 주체'로 승격되는 것으로 앞으로 위원회는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에 대한 관리처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화예술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예술은 상업예술과 구별되는 관점에서의 '비(非)상업적 예술'이 아니라 당대 문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예술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문예진흥원 사업의 반성

앞으로 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구체적 과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흥원의 사업형식에서 일정 정도 개선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과 예술진흥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얽혀 있었다. 이러한 논쟁은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에 기반한다.

- 패권주의의 문제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상호견제와 편 가르기에 익숙하고 장르별 이기주의와 분파주의에 매우 잘 길들어 있었으며, 장르별 패권주의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전부터 굳어져 내려온 예술단체의 장르 구분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이러한 구분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과목 단위로 나누어지면서 예술을 전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장르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에 더욱 익숙해지게 되었다. 서로 다른 장르 간의 통합적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장르를 초월한 문화공간이 생겨나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장르별 범주화적 접근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였다.

- 소액 다건식 지원의 문제

문예진흥원이 지원신청 단체/개인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설득, 조정하기보다는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산술적 균형감각에 치중함으로써 '소액 다건' 중심의 지원방식을 선호해 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정단체에 재원 배분이 독점되어 온 것은 형평성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우수 창작사업이나 실험적인 새로운 창작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택, 집중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였다.

- 공공성 부재의 문제

문화적 공공성이란 결국 시민이 각자의 생활 원리와 삶의 보람, 정체성 모색을 통해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려는 문화적 생존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문예진흥원 지원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작업-나이별, 계층별, 성별, 직업별 시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적 작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었다.

종합해 보면 문예진흥원이 지원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없었고,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내부적 지원 기술의 축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지원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없었다. 문화부-문예진흥원-문화예술계 간의 상호협력적 구조는 더 장기적으로 탄탄히 세워질 수 없었으며, 문화예술 지원이 지니는 의미와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제한적이었다고 하겠다.

예술위원회 사업의 방향

기존 문예진흥원 지원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위원회의 출범 자체로 당장에 해소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단체와 장르별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면 이제는 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자체의 불신이 증폭될 수 있고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가 출범하는 이때, 지원정책의 변화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이 논의되었다.

- 지원영역과 대상의 확대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전제에 "창작자·생산자와 수용자·소비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문화적 공공성과 자율성의 철학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시혜적 차원이 아닌 "예술적 가치의 사회적 공공성·자율성 강화" 또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자율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문화권리의 확대"라는 정책 방향 설정을 고려해야 하고, 적극적인 개념의 문화정책, 지원정책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배주의에 근거한 재정 지원정책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형 문화권리 확대 정책으로 나가야 하고, 문화민주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문화적 정체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과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 외에도 순수고급예술, 수도권, 주류문화, 생산자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지역, 비주류(대안)문화, 소비자를 포괄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공모의 한계 극복

문예진흥원의 대표적인 지원방식인 공모지원사업은 장르별·기능별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지원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며, 지금까지도 중요한 지원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식이 공정하고 모든 예술인에게 열린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는 성공하였을지는 몰라도 역설적으로 예술계로부터 가장 비판을 받는 제도이기도 했다. 과연 공모에 의한 지원방식으로만 지금 위기에 처한 예술 현장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관점이었다.

문예진흥원은 「예술과 비전 2004(시안)」에서 '발굴추천 지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었는데,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신청이 없으면 지원은 없다"라는 지금까지의 지원방식과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생각했었다. 발굴추천 지원제도는 예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요 현상을 전문적인 안목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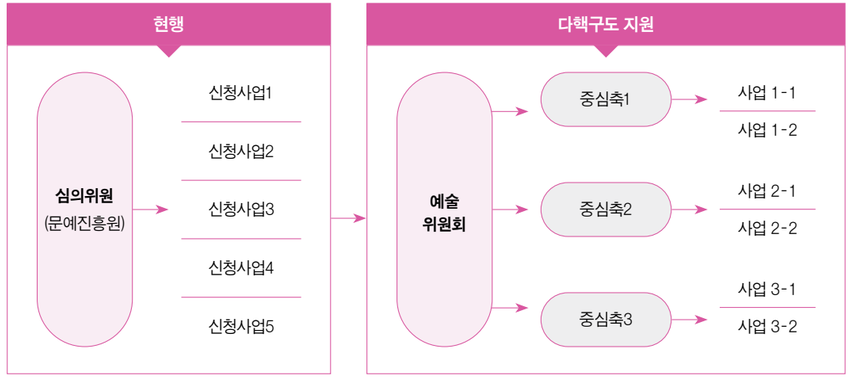
지원프로그램 유형을 발굴, 선택하여 집중지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예술계에서 많이 거론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또는 '다년간 지원제도' 등이 결합될 수 있을 것이며, 극장, 미술관 등 지원시설의 운영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 다핵적(多核的) 거점을 통한 지원

공모형 지원제도는 심의방식을 전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당시 지원심의제도는 지원 대상에 대한 심의위원의 결정 권한은 막대하며, 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장르별로 수백 건의 신청서 내용은 다양한 예술활동에 관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10인 내외의 심의위원이 지원 유형이나 신청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백 건의 사업을 심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술 현장의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중심축이 되어 활동하는 창작전문단체나 공간, 매체 등을 지원하고, 이러한 다양한 중심축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술적 도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핵적 거점 중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개별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생태계를 파악하여 다양한 중심축을 발굴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 중심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림 7-1] 다핵적 거점 지원정책



- 예술지원기구의 네트워크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의17)은 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문화예술위원회, 재단법인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각 지역의 예술지원기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입법 예고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각종 문화예술 관련 지원기구가 등장하게 되었고,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기구가 등장하게 될 전망이었다. 앞으로 이들 기구 간 상호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며, 또한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별법에 따라 각 기구의 역할이 정해져 있겠지만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 기구 간 조정·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예술위원회 지원구조 개선 방안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원칙과 새로운 지원 유형의 시도 등에 대한 논의를 모아 지원사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은 이후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 정책목표와 장르, 창작과 향수의 문제

사업의 범주 구분이 기관의 중장기적 목표와 예술의 장르 간 매트릭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그동안 진흥원 사업 범주 구분은 목표를 우선시함으로써 예술 장르의 차이에서 오는 지원사업의 특성화, 장르별 발전단계의 차이 등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후 문화예술위원회가 장르별 소위원회 중심으로 갈 경우, 장르별 최적의 지원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칫 장르 이기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창작·매개·향수의 선순환구조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간의 창작활동지원과 향수 기회 확대 사업이 서로 순환구조를 이루지 못해 지원 예산의 공급에 비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양자 간의 역동적인 선순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논의의 영향은 그대로 진흥원 지원사업에도 반영되어 2000년도부터는 창작활동 지원 예산보다 향수 기회 확대 사업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 중장기 목표 설정의 방향

개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적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예술가는 관객과 시장을 찾지 못하고, 국민은 자신의 취향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불균형을 상생적인 순환구조로 재편할 계기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1) 작품의 질적 수준 제고, (2) 작품의 종 다양성 확대, (3) 시민의 참여 확대 및 심화 등 크게 세 가지의 중장기적 목표가 제시되었다.

작품의 질적 수준 제고는 지역 수준을 전국 수준으로, 전국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러한 높이는 넓은 저변의 힘이 받쳐주어야 하며 이는 작품의 종 다양성 확대에 의해서 달성된다. 전통과 현대, 기존 장르와 새로운 장르, 기초예술과 대중예술, 한국예술과 외국예술 등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적 수준 제고와 다른 별도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민의 참여 확대 및 심화는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잠재 인구를 문화예술 향수 계층으로, 단순 향수자를 애호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애호가를 직접 표현하고 창작하는 아마추어 수준으로, 아마추어에서 마니아 수준으로, 마니아를 준전문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등 더욱 세부적인 하위 목표로 나누어질 수 있고, 참여의 수준을 인지, 감상, 학습, 표현, 창조의 단계로 심화할 것이 요청된다. 이처럼 시민의 참여가 심화될수록 문화예술계의 고정관객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관객이 많아지게 된다. 그동안 향수정책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은 향수자층을 평면적으로, 정태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구조 설계에서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부분은 사회적 계층이 아니라 향수 및 표현 능력의 수준 차이이다. 그리고 향수 및 표현 능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할 때, 창작자와 향수자는 양분되고 대립되는 항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원사업은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 (1) 미참여·잠재 인구를 참여하게 하는 사업, (2) 취미·아마추어·동호회를 활성화하는 사업, (3) 예술가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 (4) 신진 예술가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사업, (5) 기성 예술가가 역작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사업 등이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위원회 전환 논의 초기부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방대한 문예진흥원 사업을 11인 위원이, 그것도 위원장만이 상임이고, 나머지 위원은 명예직 비상임인 문화예술위원회가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르별 소위원회 구성과 그에 따른 장르 지원정책의 수립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준비단은 세 차례의 회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소위원회에 대한 주제를 별도로 다루었다.

소위원회 성격

설립준비단에서 논의된 소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냐, 아니면 해당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위원회를 '견제'하는 역할이냐에서 출발했다. 위원회 운영체계는 예술위원회가 홀로 지원정책의 전문성을 구현하기보다는 소위원회와 함께 공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므로 법제상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있지만, 소위원회를 상시 운영체제로 가동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애로 및 정책연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소위원회에는 분야(장르)별 지원정책 계획 수립(또는 자문), 현장 의견 수렴, 지원프로그램 개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사 기준, 사업평가와 개선 방안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원심의의 역할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 출범 후 '기금지원심의회'의 성격에 대해, 문예진흥원 시기에는 법정기구였으나 이제 심의권한이 법적으로 예술위원회에 있으므로 기금지원심의회는 자문회의적 성격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목하면서 소위원회에 지원심의기능을 포함시킬지 논의하였다. 지원심의는 별도의 지원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으면서 중요한 정책 수립과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와 함께 각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위원회 자문은 물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시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적극적 역할도 고려하였다. 또한 위원의 독선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며, 위원이 독단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사무처와 연계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설립준비단에서는 법에서 위원회의 하위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보조기구고, 더 세분화된 전문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문기구이며, 현장에 밀착된 예술인으로 소위원회 위원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기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문예진흥원을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회의체의 바람직한 운영형태라고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소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의 권한과 역할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르별 소위원회 구성에서는 소장르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대장르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대장르별로 구성한다면 대장르 구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많은 사람이 소위원회 운영 방식을 장르별 소위원회로만 생각함으로써 지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구성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능별 소위원회도 정책 방향, 재원의 확보와 배분, 심의평가 기준 설정, 당면 주제별 지원 등의 필수 기능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두 가지 성격의 소위원회 간의 관계 설정과 운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7차 회의에서 종합된 의견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5개 대장르로 구성하고, 공연예술 소위원회에는 연극·무용·음악의 세부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기능별 소위원회로는 지역문화, 예술교육, 남북교류 등이 대체로 많이 나오는 소위원회였고, 여타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논의되었다.

소위원회 위원 임기와 자격 기준

소위원회 구성 인력은 상시 추천제를 통한 소위원회 인력풀을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누구나 소정의 양식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항상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자격 기준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강한 민간 예술가 및 동종 업종의 5년 이상의 경력자 위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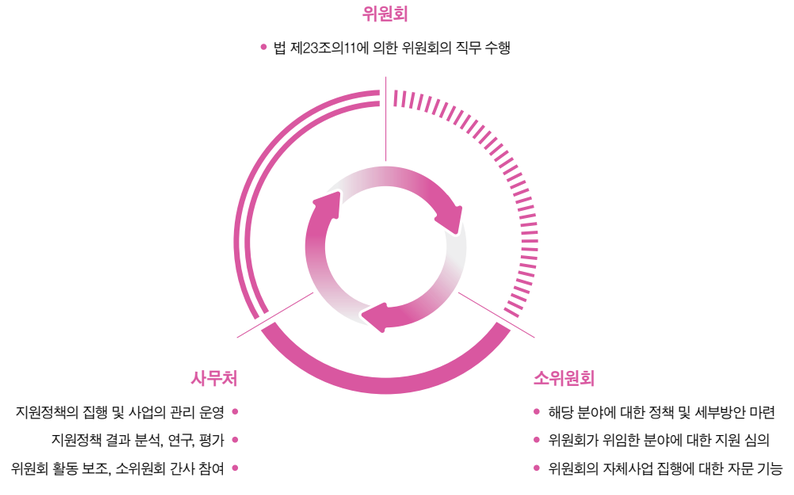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하고, 사무처 직원이 소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으로 정하며, 기능별 위원회는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이 아니므로 겸직할 수 있고, 위원 결격사유는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본인 및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기금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하면 공개하지 않도록 논의가 되었다.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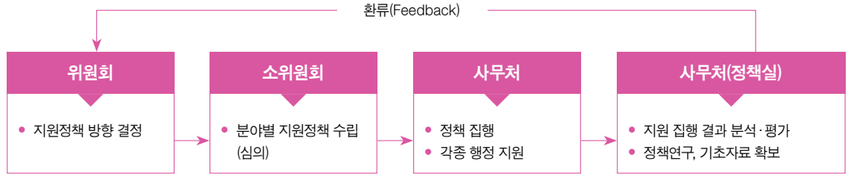
소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사무처-소위원회 간 연계 기능 강화와 함께 각각의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림 7-2] 위원회-사무처-소위원회의 기능



사무처는 예술진흥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중심적 지향점, 위원회 운영 방침 등 예술진흥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는 정책 자료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이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확정된 정책 방향과 방침이 소위원회에서 구체화되며, 사무처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각종 결정이 충분한 사전 연구, 자료조사, 평가·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예술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7-3] 위원회의 일반적 의사 결정 과정



또한 소위원회와 예술 현장과의 소통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연례적인 정책포럼 개최, 예술 현장의 장르·분야별 정책 형성 그룹 육성 지원, 소위원회 위원의 문화예술, 뉴스레터 등 정책 발표 기회 확대, 미래지향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소위원회 의견 수렴 및 참여 기능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성과평가 방안

성과평가 방안은 세 분야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사안은 시행령 개정시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평가 방안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었다(개정 문예진흥법 시행령 43조의9, 10, 11 참조). 두 번째는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받게 될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평가체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될 각 단위사업의 평가제도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 문예진흥원의 각종 성과평가제도는 나름대로 상당한 진보와 체계화를 거두었고, 각종 성과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개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평가위원 간의 결과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컸고, 명확한 성과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으며, 평가 결과의 환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성과지표 역시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는 정책결과가 아닌 몇 개의 단체에 지원했는가 하는 정책 산출 기준의 지표가 많았다는 것도 평가의 한계였다.

법 개정안에 반영된 성과평가는 예술위원회 전환에 따라 자율성을 대폭 신장하면서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률에는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일차적 평가기관 역할을, 문화관광부는 평가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상위의 평가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문체부의 상위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또는 정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와 협의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별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의 직접적인 반영은 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고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평가제도와의 연계는 「문예진흥법」에 의한 평가가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운용평가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경영실적평가 등 대외평가보다 먼저 완료되므로 평가결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타 법정평가 간에도 가급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성과 위주의 사업을 통하여 책임성과 함께 향후 위원회의 정책 방향, 예산 배분 및 지원대상 선정(방향)에 환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개별지원 대상사업 등 3단계로 구성하고 층위별로 각기 다른 관점의 평가지표 체계와 지표를 설계하여 평가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평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영국식의 'funding agreement'를 체결하는 방식 도입도 제안되었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도 제안되었다. 평가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의 조사분석체계 정비, 위원회에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담 전문인력 확대, 정성적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 평가지표의 오류 및 왜곡 문제 등이었다. 결과(outcome)지표의 경우에는 집행 후 일정 시점이 지나야 측정 가능하므로 집행 도중 또는 완료 후 곧바로 측정하면 정책집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측정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최종평가 환류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관광부의 전체, 특히 예술 분야 성과목표와 지표가 명확히 설계되어야 하는데, 아직 명확한 체계가 성립되지 않아 혼선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유형별로 성과목표 합의를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설립준비단에서는 기금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위원회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지원프로그램, 단위지원사업 간의 전략목표와 수단의 체계화, 평가제도 운영 및 결과의 환류에 대한 기준과 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조직과 사업 운영에서의 정책 수립 기능과 평가 기능의 연계성 강화, 기금사업에 대한 전문평가담당제(평가전문위원제) 실시 검토, 국민 참여 강화를 위해 국민모니터링제도(공모에 의한 전문모니터링제와 일반모니터링제) 운영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새로 구성되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등을 재정립하면 성과평가체제의 항목 또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나름대로 정교하게 짜인 심의·평가의 기준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

문예시설 운영혁신 방안

문예시설 운영 혁신 방안은 현재 문예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극장', '마로니에미술관', '문화예술연수원', '예술정보관'을 앞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속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하여 운영할 것인가, 직접 운영한다면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이제까지 이 4대 시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 속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혁신 방안은 현재의 4대 시설을 위원회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앞으로 위원회가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고,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현장 중심의 폭넓은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4대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예술극장과 미술관에 외부기관장 또는 예술감독을 영입하여 운영을 전문화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내에서 독립체제로 운영하자는 방식에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연수원과 정보관의 분리·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았는데, 당시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집행기구보다는 지원기구의 성격을 강화"해야 하고, "단독 기관 운영보다는 민간·타 기관과의

파트너십 역할로 관계 설정이 중요"하므로 연수원과 정보관은 위원회와 독립된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정보관은 예술도서관 및 아카이브 기능으로서 문예진흥원 사업과 연계된 자료의 DB화를 통해 일반에 유통되지 못한 자료의 축적·제공이 매우 중요하므로 위원회와 분리하여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등 각 기관 담당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결국 논의는 평행선을 그어 그 상태에서 종결되었다.

사무처 운영 방안

사무처 업무는 개정 「문예진흥법」 제23조의14에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또한, 부칙 제3조에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고 하여 기존 사무처 직원의 고용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무처를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에 적절한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 내에서는 '조직 운영의 전문화'라는 슬로건으로 개편 방향을 내어놓았다. 사무처 조직의 전문화를 위한 단기방안으로 정규직 직종 통합, 직급·호봉체계 대폭 축소 등이 제시되었고, 중기방안으로 직무 중심으로 인사분류체계 개편,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예술극장, 마로니에미술관), 인적자원 개발·평가 강화(임용 방식의 다양화, 인적 자원 활용, 경력개발제도 도입, 성과 능력 중심의 직원평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한편, 설립준비단에서는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어떤 위상으로 할 것인지, 직원 인사 평정이 전문직종 성과측정에 적절한지, 업무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극장·미술관의 기관장·감독 이원화 체제의 적절성, 조직 전문화 방안, 경력개발제도 직군 재검토, 정책실 기능 확대, 국민 홍보 기능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처의 조직개편 방안 역시 세세한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위원의 의견 개진 정도로 하여 이후의 과제로 남겨졌다.

정관

위원회 정관 제정은 설립위원회가 첫 한 달 동안에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이다. 지원정책의 방향 등에 비하면 실무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의 운영에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9차 회의에서는 정관제정(안)과 정관(안)을 검토하였고, 10차 회의에서는 제2조 '설립목적'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정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3(정관)이다. 동조 제1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위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7가지의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정관 작성 또는 변경 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제3항은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사항이었다. 정관(안) 작성은 진흥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9차 회의에서 대략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7-1] 정관 필수기재사항 등 주요 구성

1. 총칙	2. 임원
• 설립근거 및 명칭 • 목적 • 소재지 • 사업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임원의 선임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직무 • 위원장의 직무대행

3. 위원회		4. 재산과 회계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위원의 결격사유 • 관여 금지 •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 위원회의 직무 • 위원회의 회의 등 • 위원회의 의사 등 • 소위원회 • 회의록	• 재산 • 재산의 관리 • 수입금 • 회계연도 • 예산편성	• 결산 • 회계감사

5. 사무기구	6. 보칙	7. 부칙
• 기구 등 • 사무처	• 해산 및 청산 • 정관의 변경 • 규정 제정	• 시행일 • 경과조치 • 설립위원의 기명날인

조항 검토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은 위원회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할지, 소위원회 기능과 기본적인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절차,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의 관계 설정, 서면 의결사항 기준, 직원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권한, 기관 영어명칭 등이었다.

설립목적 조항 검토 시 주요 쟁점은 문화의 다양성, 다원·다층성, 역동성 등과 같은 문화지평의 변화와 장르 간 접목 등 예술의 개념 확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였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정의도 1972년 제정 시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서 법 개정 이후에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장르'로 규정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사회 환경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21세기 장르 통합적인 현상을 고려한 장르 구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논의를 통해 예술위원회의 영역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및 발전과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 민족문화의 창달이 포함되고, 예술진흥의 가치 구현 영역은 예술인 창작 역량과 기반 및 환경, 다양한 향유 방식 확보, 예술의 사회 통합적 기능, 국제적 역량 확보를 통한 문화국가적 면모 획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관 검토안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족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다.

4. 예술위원회 출범

1. 설립위원 활동과 제1기 위원회 구성

당시 개정 법률에서 위원회 위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과 절차는 2004년 12월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자세히 제도화되어 있다. 2005년 6월 13일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고, 2005년 6월 27일 문화관광부 장관은 총 21명의 추천위원회(위원장 이상만)를 구성했으며, 이후 7월 13일까지 일간지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기 위원후보자 공개모집을 진행하였다. 민간 자율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예술지원기구의 탄생은 예술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총 199명에 이르는 많은 후보자가 추천(자천 포함)되었다.

추천위원회는 최종 선임 위원 11인 위원의 2배수인 22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하여 장관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밟았다. 후보 선정 과정은 정부 출연 위원회의 구성 방식 가운데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진행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며, 이전의 방송위원회 구성이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초기 구성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치적 안배에 따른 물타기식 구성' 논란에서 최대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특정 문화예술단체 출신의 과반수 점유가 제한되어 있으며, 여성위원 30% 이상의 선임 권고안도 설계되어 있다. 후보자 추천에는 장르별, 기능별 안배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안배는 위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타 장르와 분야의 지지 획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위원회의 합의 정신이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을 넘어 운영 전반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7월 22일, 최종 22명의 후보자가 선임되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추천되었으며 7월 28일,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후보자 검증을 거쳐 8월 10일, 11명의 제1기 위원 명단이 발표되었고 이들은 출범을 앞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위원 및 1기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촉된 인사는 문학평론가 김병익, 국악인 한명희, 출판인 김언호,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헌, 무용인 김현자, 문화기획자 강준혁, 연극연출가 심재찬, 미술평론가 박신의,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정완규, 지역문화활동가 박종관, 하자센터장 전효관 등 11인으로 2005년 8월 10일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준비단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활동 보고서(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하였다. 2005년 8월 10일, 설립위원으로 위촉된 11인의 1기 위원은 2005년 설립준비단이 마련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호선을 통한 위원장 선출, 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정, 위원회 현판식 및 위원장 취임식, 위원회 출범식 등 위원회 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였다.[8]

8. 공모 절차를 거쳐 설립위원 및 제1기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문예진흥법」에 규정된 대로 초대 위원장을 위원의 호선을 거쳐 선출하게 되는데, 강준혁 위원은 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위원장 출마를 희망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의 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결과의 발표는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형식을 제안하였다.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인 만큼, 위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였다. 이에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 투표가 진행되었다. 후보로 나선 두 명의 위원 중 과반수 표 (11표 중 7표)를 확보한 김병익 위원장은 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초대위원장에 추대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금)에 법인 등기 신청을 완료하였고, 8월 29일(월)에 대학로 본관(현 예술가의 집)에서 현판식과 위원장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취임식 후 한 달이 지난 9월 29일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갖게 된다.

2. 예술위원회 운영모델

새로운 운영 모델의 필요성

위원회 전환으로 새 체제에 맞는 조직체계 즉, 위원회-소위원회-사무처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마련은 1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였다. 위원회 설립 정신을 위원회의 조직 모델로 반영하고 각 단위의 역할 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제는 1기 위원회의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조직 구성과 기능의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이고 형식적인 권한 분화가 아니라 위원회 출범의 의의인 민주적 운영, 사회적 소통,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을 일의 체계로 구체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위원회라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파트너십이 구현되어야 한다. '참여와 분권'이라는 민주적 운영의 가치, '의견 수렴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회적 소통의 과제, '현장성 및 의제 발굴을 통한 예술 전문성의 심화'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위원회 자체가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기구로 재창조되어야 했다. 따라서 1기 위원회는 예술 현장과의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시도된 것이 장르별, 기능별 소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 목표 달성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운영은 새로운 환경과 구체적 목표 설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목표와 운영 방향을 조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예술지원정책이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성격을 획득하고, 예술지원을 통해 달성한 목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통합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적 조직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즉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각 단위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계하는 조직적 기능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회-소위원회 중심의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 정착은 1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었다. 위원회-소위원회 구조를 실체화하는 조직적 과제 안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 위원회와 사무처 사이에 공유된 목표를 설정하고 사무처의 활동력을 보장하여 전문성을 심화하는 것, 위원회와 대 사회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등의 과제가 포함된다. 1기 위원회는 위원회다운 조직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관계 재구조화의 노력을 전개했다.

위상 확보를 위한 과제

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가의 참여에 기반을 둔 합의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와 예술의 가치와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위상의 확보는 예술의 가치를 끊임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알리고, 문화정책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때 가능하다. 위원회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장하는 주체로서 문화예술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분석과 홍보, 사회의 변화 및 현안에 대한 해석과 전략 모색,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화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조직적 대안을 가져야 했다. 특히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기관, 사회의 제반 단위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1기 위원회는 '기초예술의 가치확산 소위원회',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3. 예술위원회 제도 마련

예술위원회는 출범(2005. 8.) 당시 다음과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하였다. 첫째, 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은 등기이사의 신분을 보유하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금운용심의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행사한다. 셋째, 소위원회는 분야별 정책개발 및 자문, 필요시 지원 심의 참여 등의 역할을 한다. 넷째, 분야별 기금지원심의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는 심의 또는 별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로써 설치하는 심의기구다. 다섯째, 자산운용위원회는 기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 자문기구다. 여섯째, 사무처는 위원회를 보좌하여 실질적인 사업 집행기능을 맡는다.

위원회(위원장과 위원)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 절차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4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위촉하는 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모집한다. 모집된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5(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3조의4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후보자 중 위원추천위원회가 분야별 위원 후보자 2배수를 추천하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그중에서 1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이 선정된다. 2005년 8월 24일에 제정된 예술위원회 정관에서 위원은 11인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11인 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위원은 자동적으로 비상임 이사가 되는 것이다.

위원회 직무

위원회 직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1과 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5조에 기술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위원 3인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3조의1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재산의 증감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해산의 의결 및 구체적 방법
5.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0(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관에서는 법에서 정한 직무 외에도 연간 사업계획, 예·결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재산증감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해산의 의결 및 구체적 방법, 기타 법령 등 직무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은 법에 의해 직무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소위원회

설치 근거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제18조)과 소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였다.

소위원회의 구성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3(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3조의1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의1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통지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소속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의 의결사항은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6조 및 제17조의 절차에 의한다.
⑦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3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3조의11 제1항 각호와 정관 제15조 제1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 등 예술 장르별 소위원회와 지역문화 등 위원회가 정하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소위원장)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회의, 연구, 조사 등 임무를 수행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6조(소위위원의 자격)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분야 또는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회가 해당 소위원회 역할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② 소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위원의 경험과 학식, 전문성을 고려하되, 남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직무)

① 소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및 심의와 이에 따른 조치의 건의
   2. 위원회가 위임한 분야 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단,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한다.
   3. 위원장이 요청한 사업의 집행에 대한 자문
   4. 기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평가
②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지원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부담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지원정책 및 심의방향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 출범 직후인 2005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소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 자격·대우, 소위위원의 의무와 관여 금지, 소위원회의 직무와 회의 개최,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설립준비단에서 논의된 소위원회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는데,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능별 소위원회와 장르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1기 위원회는 장르별 7개 위원회와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 지역문화 등 2개 기능별 위원회로 시작했고, 이후 활동 기간에는 기능별 소위원회가 확대 운영되었다.

운영규정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원칙적으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주요 직무는 예술 현장 및 위원회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 연구, 집중논의,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자문 등이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소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소위원회의 직무)에 준하여 활동하되, 임기 초에 소위원회별 중점 추진과제(미션)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소위원회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임기 종료 시점에 소위원회별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과 위원회 보고를 하기로 하였다.

소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위원의 대우는 비상임으로 하되, 소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및 심사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동 규정 제7조). 소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동 규정 제8조). 소위원회 개최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고,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동 규정 제10조).

사무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무처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4에 근거하며, 사무처의 직무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무처 운영규정을 따른다. 2005년 8월에 제정된 정관 제28조에서는 사무처

구성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사무처 운영규정은 2008년 1월에 제정되었다. 다만, 2005년 8월 25일에 정관 27조(기구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직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직 및 정원, 업무분장이 마련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당시의 사무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기존의 문예진흥원 조직편제를 어느 정도 반영·유지한 것으로 실제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4(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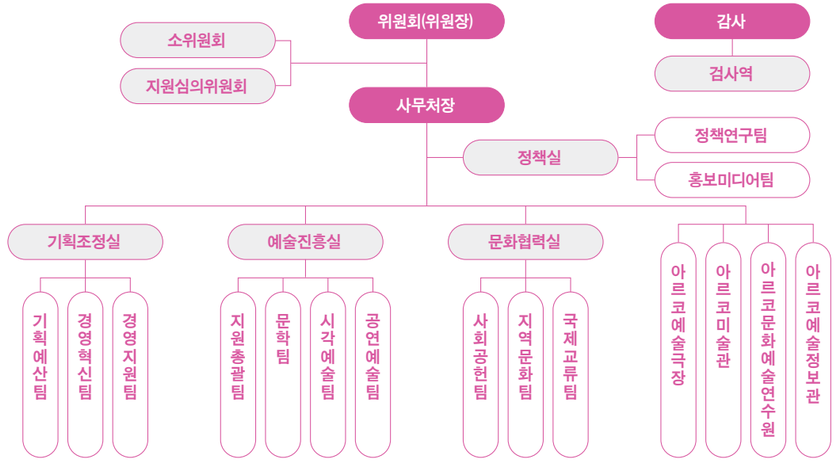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28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관장사무를 총괄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림 7-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당시 사무처 조직도



PART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史

2000년대 후반(2006 ~ 2010),

8. 위원회 전환과 변화의 모색*

1. 2000년대 후반 문화예술 정책환경
2. 2000년대 후반 위원회 활동과 기관운영의 성과
3. 2000년대 후반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4. 2000년대 후반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5. 2000년대 후반 문화향유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6. 2000년대 후반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7. 2000년대 후반 예술가치 확산사업의 추진과 성과
8. 2000년대 후반 문화시설 운영사업의 추진과 성과

*
2000년대 후반(2006~2009) 시기에 제1기 위원회(2005. 8.~2008. 8.)와 제2기 위원회(2008. 9.~2010. 11.)가 포함됨에 따라 제8장의 주요 기술 범위를 2006~2010년으로 설정하였다.

1. 2000년대 후반 문화예술 정책환경

2000년대 후반기(2006~2009)는 노무현 참여정부(2003. 2.~2008. 2.) 후반기,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전반기에 걸친 기간이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문화관광부 명칭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2004년에는 21세기 문화비전 실현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예술국에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하고 공연예술과를 기초예술진흥과로 개편하고, 예술국 소속이던 국제문화협력과를 문화협력과로 전환하면서 문화정책국으로 소속국을 변경했다. 한편, 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참여정부는 문화향유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고, 그 해 복권기금을 설치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추진하였다.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리게 함으로써 문화향유 격차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표적인 문화복지사업이다. 문화복지정책의 중요성과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04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복지사업이 시작되었고, '모두를 위한 예술'을 지향하며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초점을 맞춰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사업 등 각종 문화나눔사업이 추진되었다.

문화나눔사업은 복권기금 사업 중 대국민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은 대표 사업으로 복권기금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특히 여러 사정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동안 문화정책의 비중 확대와 문화재정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의 문화향수는 정체되고 문화시설의 이용률은 계속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민의 문화향유 능력 신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을 중시한 참여정부는 문화예술교육과를 예술국에 신설하였고, 2005년 12월 29일 문화예술교육의 모법으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시행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6. 8.) 설립과 더불어 국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참여정부는 지역·계층 간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이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문화의 중앙 집중은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전시·공연 및 문화 기반시설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향수를 즐기려는 지역시민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의 문화 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예술창작 및 향수를 위한 기본 역량과 환경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의 문화적 역량과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였는데,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비롯하여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 경주의 역사문화중심도시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지역문화 환경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는 제도 개선과 정책이 추진되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의 명칭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체육 행정 기능을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정부 부처의 기능 재편에 따라 타 부처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어 이전 정부보다 조직규모가 확대되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정부 발표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고, 홍보, 체육, 종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을 아우르는 제2차관실이 신설되었다. 또한, 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기획·집행하기 위해 세분된 행정조직을 통합 재편하였다. 2006년 참여정부 때는 전면적인 팀제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본부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팀제 조직을 과(課) 편제로 원상회복하는 한편, 2009년에는 대국대과제(大局大課制)를 적용하여 본부에 10개 과를 축소하였다. 기존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은 2009년 4월 문화예술국으로 통합되어 하부에 문화정책관과 예술정책관을 두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2008년 12월 발표한 〈문화비전 2012〉(부제 :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의 비전으로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설정하였다. 이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②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③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④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⑤ 소통과 개방의 전략, ⑥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을 추진 전략으로 채택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는 소액다건식의 획일적 지원, 과정이나 결과의 평가 없이 답습되는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문화정책 전반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고 제대로 된 창작물이 지원을 받아 상품화되는 성과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정착도록 함으로써,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국 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었는데, 출범 첫해에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을 신호탄으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문화여가비 감소로 문화예술 참여도 감소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고자 2009년, 기존의 문화나눔사업 확대 실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공감형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였다. 국민희망프로젝트로 불린 국민공감형 프로젝트로는 예술인이 농·산·어촌이나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결손가정 등 문화소외지역이나 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문화를 체험하는 사업이나 문화바우처, 소외지역에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총 157개에 이르는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주민 등 약 1,600여만 명이 공연, 전시 관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위기의 여파로 국민 문화향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조치를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무료 관람은 명절 또는 기념일에 다른 정책의 진작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다가 2008년 5월 1일부터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상설전 무료 관람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람객 수가 증가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이 대표적인 문화예술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입장료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원이 없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난과 존립 위기를 호소하며 무료 관람 시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2. 2000년대 후반 위원회 활동과 기관운영의 성과

1. 제1기 예술위원회의 운영 성과(2005. 8.~2008. 8.)

2005년 8월 10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명을 받은 제1기 위원회 11명의 위원이 예술위원회 설립준비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이후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1항에 명시한 특수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문예진흥원 재산 인수·인계 등 일련의 설립 과정을 진행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 작성은 법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선언문

예술은 자유로운 감수성에서 태어난 것이기에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합니다.
예술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자라는 것이기에 낡은 삶을 새로이 만듭니다.
예술은 인간주의적 가치를 꽃피우기에 누추한 세계를 아름다움으로 채웁니다.
예술은 풍요한 정신 속에서 영그는 것이기에 미래를 향한 밝은 꿈을 키웁니다.
이 자유, 이 창조, 이 가치, 이 정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후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 위원장 김병익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을 정리해 놓은 근본 규칙의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 정관은 2005년 8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목적,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재산과 회계 관리, 사무처 구성 운영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 위원회의 목적에 해당하는 정관 2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1]"고 명시하고 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일련의 설립 과정을 거쳐서 8월 26일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날이 예술위원회의 창립기념일이 되었다.

예술위원회 미션과 비전의 재설정

위원장 선출과 변화의 모색

제1기 위원회의 주요 활동 기간은 초대 김병익 위원장 시기(2005. 8. 26.~2007. 7. 26.)와 제2대 김정헌 위원장 시기(2007. 9. 7.~2008. 12. 4.)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술위원회의 설립준비위원 위촉 후, 제1차 설립준비단 회의(2005. 8. 11.)에서 위원들은 초대 위원장으로 김병익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을 만장일치로 호선하였다. 제1기 예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초대 위원장을 추대하게 된 배경에는 대내외적인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원들 사이에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전원 합의로써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병익 위원장은 위원회 설립준비단 시절로부터 2007년 6월까지 대략 2년여의 기간을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초기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기초예술의 근본 가치 확산과 사회적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이 기간은 전략체계 〈아르코 비전 2010 계획〉을 수립, 조직체계 마련 및 예술지원정책 재수립 등 예술위원회 전환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한 변화 모색의 시기였다.

1. 예술위원회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관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훌륭한 예술'이라는 문구였다. 그 이유는 '예술 중 훌륭한 예술이라는 가치 판단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한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여러 위원이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이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은 '훌륭한'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이 한 단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위원회가 지향하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답을 한 작지만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 문구는 이후 위원회의 비전 체계가 수차례 바뀌어도 위원회의 변하지 않는 미션(임무)으로서 인용되고 있다.

[그림 8-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징 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징 로고
제1기 위원회가 마련한 예술위원회의 로고는 크고 작은 다섯 개의 둥근 돌 모양으로 다양한 예술을 형상화하여, 일정한 형태가 없이 사용자가 다섯 개의 돌 모양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활기찬 예술현장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 활동의 목표와 〈아르코 비전 2010〉의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선포식
2006년 4월 5일, 동숭동 위원회 본관 후원(後園)에서 개최된 비전 선포식. "예술을 통한 창의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 열린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12대 전략목표 32개 핵심과제를 수립 발표하였다.

예술위원회의 출범은 IMF 이후 기초예술의 위기를 극복하는 예술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예술 현상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예술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가의 창작 의지를 돕고 예술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예술작품의 향유와 창작 경험의 공유를 통해 지역과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전반적인 예술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현장예술계뿐 아니라 국민과 깊이 있는 연계성을 확보하여 '모두가 신뢰하는 예술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제1기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위원회 전환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문화예술 진흥의 목표체계를 수정하여 달라진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초예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창작 기반을 되살리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고, 지원사업의 효과가 예술 영역에 머물지 않도록 지원사업 체계의 개편을 통해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재설계한 〈아르코 비전 2010〉의 수립(2006. 4.)이었다.

[그림 8-2] 〈아르코 비전 2010〉의 비전 체계



〈아르코 비전 2010〉은 예술위원회의 임무를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으로 규정했다.[2] '모든 이에 의한 문화'를 지향하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목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르코 비전 2010〉은 제1기 위원회가 내세운 구호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를 반영하고 있는데,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비전 2010〉에서는 문화와 예술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핵심가치를 '활기찬 예술 현장', '삶을 채우는 예술', '미래를 여는 예술'로 설정했는데, 이는 예술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 예술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술과 문화야말로 경제·정치·사회·과학 모두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근본가치라는 점을 힘주어 밝힌 것이며, 국가와 사회를 더 훌륭한 곳으로 밀어 올려주고 더 높이 끌어올리는 창의와 진보의 원천이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 예술인과 함께하며 모두에게 신뢰받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되고자 소망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2. 〈아르코 비전 2010〉 수립 이전에는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연구, 창작, 보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이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표 8-1] 〈아르코 비전 2010〉의 전략목표체계

부문	비전 영역	전략 목표 〈2005~2006 비교〉	핵심 과제
사업 부문	창의사회 구현 ↓ 활기찬 예술현장 'Creativity'	1.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 창조역량 강화 1〉	• 창의적 예술활동 증진 • 예술가의 창작 역량강화 • 전문예술단체 육성(다년간프로젝트)
		2.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1〉	• 기초예술 창작 및 매개공간 활성화 • 예술시장 구조 개선
		3.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 국제 예술교류 프로젝트 다각화 • 국제 예술 교류기반의 선진화 •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 교류기반 구축
		4.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경쟁력 강화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역량 강화기반 구축
	복지사회 구현 ↓ 삶을 채우는 예술 'Enrichment'	5. 예술의 생활화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1〉	• 어린이 청소년 예술참여·교육 강화 •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누기 활성화 • 풀뿌리(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진작 • 생활환경의 예술적 조성
		6.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2〉	• 소외지역 예술순회사업 내실화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술프로그램 확대 • 소외지역·계층 공동체 문화환경 조성
	열린사회 구현 ↓ 미래를 여는 예술 'Diversity'	7. 새로운 예술 세계의 개척 〈예술 창조역량 강화 2〉	• 새로운 예술 주체 발굴과 육성 • 예술의 다양성 확보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8.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2〉	•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 조사·연구 및 비평 활성화 • 예술자원의 보전과 활용
경영 부문	모두에게 신뢰받는 예술위원회 ↓ 신뢰경영	9. 문화예술 지원체계 혁신	• 지원구조 및 평가체계 혁신 • 문화예술 지원기구 간 협력 강화
		10. 문화예술시설 운영 혁신	• 극장·미술관 책임경영제 도입 • 연수원·자료관 기능 전문화
		11.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경영체제 구축	• 예술행정의 단계적 전문화(조직·인사) • 문화예술 종합 지원서비스센터 구축
		12. 문화예술 재원개발	• 민간기부금 확대 및 자체 수익사업 개발 •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4대 목표		12개 전략 목표	32개 핵심 과제

〈아르코 비전 2010〉은 12개(경영 부문 4개, 사업 부문 8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경영 부문 4개 전략목표는 지원체계 혁신, 시설 운영 혁신, 서비스 경영체제 구축, 재원 개발 등이다. 사업 부문 8대 전략목표는 2005~2006년도의 5대 성과목표를 재강조하거나 분리·설정하고 전략목표별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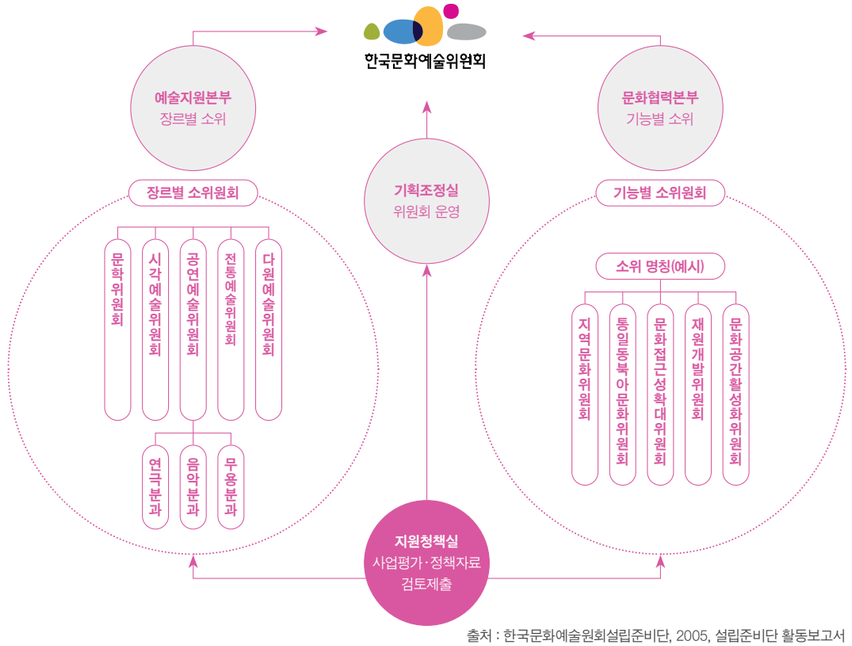
위원회의 운영모델 구체화

새로운 운영모델의 시도

위원회 설립 정신을 위원회의 조직 모델로 반영하고 위원회-소위원회-사무처 각 단위의 역할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제1기 위원회의 중요과제였다.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마련하는 것은 위원회 출범의 의의인 민주적 운영, 사회적 소통,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을 일의 체계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라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와 분권이라는 민주적 운영의 가치와 의견수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다. 사회적 소통의 과제, 현장성 및 의제 발굴을 통한 예술 전문성의 심화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자체가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기구로 재창조되어야 했다. 제1기 위원회는 예술 현장과의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구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시도된 것이 장르별, 기능별 소위원회의 구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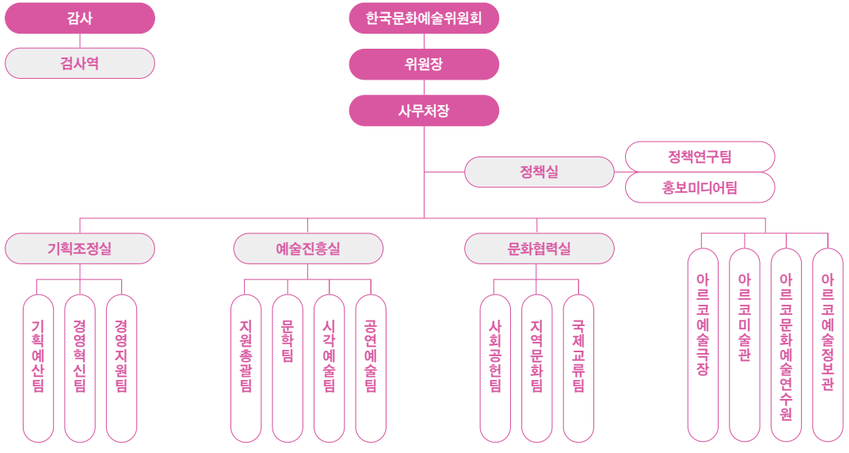
[그림 8-3] 제1기 위원회 사무처와 소위원회 연계체계 및 조직기구표

제1기 위원회 사무처와 소위원회 연계체계(안)



출처 : 한국문화예술원회설립준비단, 2005, 설립준비단 활동보고서

2005년 8월 26일 개정 조직기구표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기 위원회 백서

[표 8-2] 제1기 위원회 기간 중 소위원회 구성 현황(2005. 11.~2008. 9.)

구분	소위원회명	제1기(2005. 11.~2006. 10.)			제2기(2007. 3.~2008. 2.)			제3기(2008. 2.~2008. 9.)		
		위원 수	정기회의	공론화	위원 수	정기회의	공론화	위원 수	정기회의	공론화
장르 (7)	문학 소위원회	10	12	-	6	9	4	5	5	-
	시각예술 소위원회	10	12	-	7	11	5	7	4	-
	연극 소위원회	8	9	-	5	7	-	5	2	-
	무용 소위원회	10	13	2	5	8	2	5	2	1
	음악 소위원회	10	12	-	7	8	-	7	2	-
	전통예술 소위원회	12	10	-	7	5	1	6	2	-
	다원예술 소위원회	7	16	6	7	10	9	7	6	3
기능 (5)	남북및국제문화교류 소위원회	10	8	-	7	9	1	7	4	-
	지역문화 소위원회	11	8	-	7	8	4	7	3	-
	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 소위원회	-	-	-	6	7	-	7	2	-
	기초예술의가치확산 소위원회	-	-	-	7	2	-	7	1	-
	정책 소위원회	-	-	-	6	2	-	5	5	-
계		88	100	8	77	86	26	75	38	4

제1기 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 및 보조기구로 위원회와 예술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장르별 소위원회와 기능별 소위원회를 각 1년씩, 3개 기수로 운영하였다. 특히 장르별 소위원회는 예술현장의 의견수렴 및 정책개발을 위해 정기회의 외에도 포럼, 워크숍, 간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장르별 중점과제를 도출·제안하고, 공모사업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외부환경 변화와 위원회 운영모델의 조정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로 예술위원회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됨에 따라[3] 위원선임 절차 및 임기, 직무, 기관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간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하였으나, 이 법의 시행 이후에는 위원장과 비상임 위원의 임명 절차가 분리되었다.

[표 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입 전·후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07. 4. 1.~)	비고
위상	정부산하기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운영법)	기관유형 지정 통보(2007. 4. 2.)
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 중 호선(임기 3년)	문화관광부장관 임명(임기 3년)	
위원 선임	문화관광부장관 위촉(임기 3년)	선임 절차는 좌동(임기 2년)	
감사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면(임기 3년)	기획예산처장관 임명(임기 2년)	
기금운용 심의회	국가재정법에 따라 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회의 역할과 기능 수행	이사회(위원회)와 분리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기금운용심의회 별도 구성 2008년부터 적용
기관장 성과계약	별도 규정 없음	문화관광체육부장관과 위원장 간 경영평가계약 체결	
경영실적 보고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일부 제시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의무화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에 진흥원에서 위원회로 전환되었고,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예술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9년에는 예술위원회에 대한 정부(기재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위원장 선출 방식이 다시 호선제로 바뀌게 된다.

[표 8-4] 위원회 구성 절차 변경



이 법의 시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에서 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심의·의결 권한과 문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금운용심의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등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가 권한의 중복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제1기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위원 일부의 겸임)하고 기금운영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장 선임 절차의 변경(위원회 호선 →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위원 임기의 단축(3년 → 2년), 기관장 성과계약제, 직무평가 등 경영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둔 여러 제도가 준수됨에 따라 예술현장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상했던 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제도 및 조직체계 개선

제1기 예술위원회의 출범으로 현장 예술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의 의견이 지원정책의 수립·집행 등 예술위원회 업무 전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제1기 위원회는 분야별로 7개 소위원회와 기능별로 2~5개 소위원회 등 많은 수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했는데, 지원정책의 수립과 신규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 지원 공모·심의·평가 방안 개선, 사업 집행에 관한 자문 등 현장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규정 마련

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운영규정」을 제정(2006. 10.), 시행했다. 분야별 심의위원 인력풀 확충을 위해 상시 추천제를 활용하고, 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 기타 전문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분야별 2인을 심의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4] 또한, 심의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를 기피하도록 하는 '심의기피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06년도에는 42명의 위원이 77건, 2007년도에는 25명의 위원이 87건의 심의를 스스로 기피했다.

내외부 평가체계 운영

제1기 위원회 존속 당시 예술위원회 평가체계는 크게 기획재정부 평가, 문화부 평가, 자체평가 등 3가지 유형의 평가체계로 정립되었다. 먼저 기획재정부 평가는 리더십과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영실적평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 사업운영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사업별 계획, 집행, 성과 단계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3조)가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하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가 있고, 예술위원회 자체평가로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사무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평가와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운영평가가 있다.

4. 문예진흥원 체제에서는 실무진이 심의위원 풀을 활용하여 후보안을 작성하고 원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안을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이 검토 후 확정하는 절차를 취했다.

수요자 맞춤형 사업개발과 지원 컨설팅제도 도입

제1기 예술위원회는 연간 1회, 일괄 공모에 의해 심의를 진행하는 전통적인 공모방식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시 신청, 수시 지원의 상담형 지원사업인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더불어 현장 예술계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역량의 강화를 위해 '지원 컨설팅' 기능을 도입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는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예술창작 기반 및 유통 환경에 대한 정보, 컨설팅 서비스, 협력체계 등 비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예술지원컨설팅센터'를 운영했다. 2008년에는 한걸음 더 나가 사무처 예술진흥실을 아예 예술지원컨설팅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센터를 중심으로 예술창작활동 및 유통 환경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존 제도 및 기반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비재정적 문화예술 종합지원서비스체계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국제예술지원기관 간 교류 활성화

2005년 8월,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에서 예술위원회의 공식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 소위원회와 제1기 예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2006년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IFACCA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예술위원회는 정회원 가입을 통해 우리 위원회 홍보, 국제 활동 참여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국제 예술위원회 정보 수집과 공동지식 강화, 세계 각국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예술위원회와 국가예술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가입 초기 사무처 직원들이 제3차 문화예술 세계총회(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영국 뉴캐슬, 2006)에 참여하고, 국제교류 부문 소위원회 위원이 지역회의(몽골, 2007)에 참여하여 싱가포르 예술위원회와의 MOU 등을 추진하였다.

아르코예술극장·미술관 등 시설 운영 혁신

제1기 예술위원회는 아르코예술극장·미술관 등 산하 시설에 대한 운영 개념을 '경영'에서 '지원'으로 환원시켰다. 이를 위해 민간 및 기타 공공부문과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기능 특화에 나서게 되었다. 예술극장은 브랜드 가치 구축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갔고, 미술관은 동시대 예술창작의 생산 거점, 실험성과 국제성을 지닌 시각예술 문화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아르코 비전 2010〉의 시설 운영 혁신 방안에 따라 예술극장과 미술관의 장을 공모로 임용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였다(2007. 4.). 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큰 틀 속에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술감독이 실질적인 권한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역할을 설정한 것이다. 공모는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전문 경력자 모두가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외부 경쟁체제가 정착되었다.

사무처 조직개편 및 운영규정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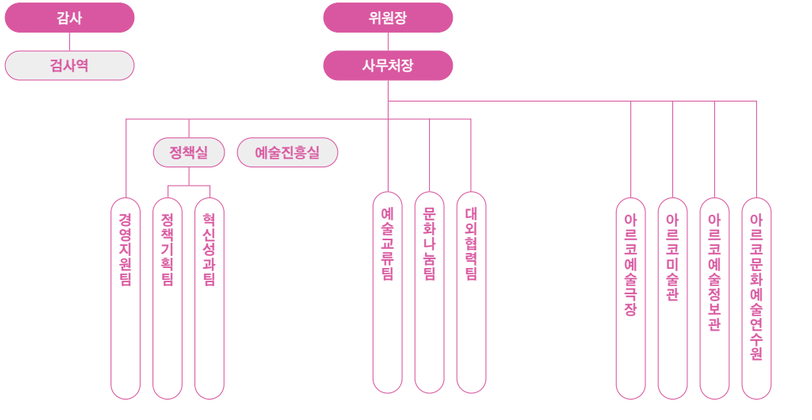
예술위원회로의 전환 이후 제1기 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잦은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출범 초기 새로운 예술환경 변화와 예술현장의 현안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무처 조직의 탄력적 개편이 필요했다. 위원회 출범 당시 조직은 4실, 4관, 12팀, 1검사역으로 기존의 문예진흥원 조직 편제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제1차 조직개편(2006. 2. 24.)은 진흥원 조직에서 7개 실과 팀을 축소 개편하고 대부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을 새로운 정책 수요 대응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제2차 조직개편(2007. 2. 23.)은 제1기 예술위원회에서는 〈아르코 비전 2010〉를 수립함에 따라 새로운 전략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원 컨설팅 기능 확충 및 상담제 지원심의방식 도입을 조직구조에 반영(지원컨설팅센터)하고 국제교류 분야와 지역문화 진흥 분야의 역할 확대를 위해 예술교류팀을 국제교류와 지역문화로 분리하였다(3실 4관 7팀 1검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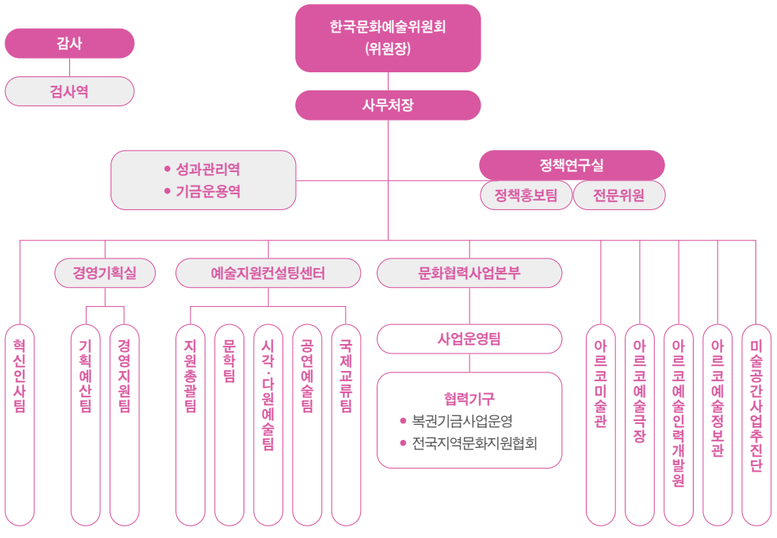
제3차 조직개편(2008. 1. 11.)은 사무처의 직무와 구조를 체계화하고 내외부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2실 1센터 1본부 4관 10팀 3역 1추진단). 위원회에 대한 사무처의 보조 개념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직무 지원 기능으로 확대·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정책 연구개발, 조사분석, 평가 업무를 전담할 정책연구실과 전문위원제를 신설하였다. 둘째, 전사적 특성화 직무영역에 대한 집중관리 체제 구축 및 인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성과관리역과 기금운용역을 신설했다. 셋째, 공모사업 운영 시스템 개선 및 '기획 발굴', '컨설팅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예술진흥실을 지원컨설팅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센터 내부 구조는 분야별 팀제로 전환했다. 넷째, 복권기금 등 타 재원(기금) 활용 및 연계로 지자체, 민간 협력형 사업의 개발과 적극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나눔팀과 지역문화팀을 협력사업본부로 통합 개편했다.

[그림 8-4] 제1차 및 제3차 조직기구표

제1차 조직개편(2006. 2. 24.) 조직기구표



제3차 조직개편(2008. 1. 11.) 조직기구표



혁신경영을 위한 노력

김병익 초대 위원장은 '톡톡 튀는' 혁신 경영이라는 의미에서 '팝콘경영'(Perspective of Prosperous & Creative organization)을 주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팝콘경영은 관심과 참여(CONcern), 일치와 소통(CONcord), 실행과 환류(CONduct), 신뢰와 포상(CONfidence)이라는 네 가지 경영 방침이 핵심이다. 팝콘경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직원들이 제작하고 출연한 연극 〈나비눈〉 공연(관심·참여), CEO와의 팝콘 미팅과 주니어보드 운영(일치·소통),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BSC제도 도입 운영(실행·환류), 적절하고 투명한 보상체계 수립 시행(신뢰·포상) 등이 있다.

사무처 성과관리(BSC) 시스템 구축

제1기 위원회는 사무처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운영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2006년에는 위원회 기능 구조상의 문제점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조직의 비전 달성이 가능하며 핵심역량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능과 구조를 설계하였다. 또한, 혁신 홍보지를 통한 혁신 마인드 고취 및 홍보,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이벤트 진행, 워크숍 실시, 혁신사례집 발간을 추진하였으며, 직급체계의 타파와 결재 단계의 간소화, 권한의 체계적인 위임을 통하여 자율책임 경영을 지향하고, 비효율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특히 성과관리스템(BSC)을 구축(2006. 7.~12.)하여 BSC 성과관리체계와 인사제도를 연계하고, BSC 관점에서 부서 및 개인별 평가체계를 도입하였다. 2007년에는 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장을 대상으로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도입, 실시하였으며(2007. 3.) 사무처장을 공개모집하였다. 아울러 통합행정정보시스템 1차 개편 작업을 완료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BSC 성과관리매뉴얼을 개발(2007. 8.)하여 사무처의 경영효율을 극대화하였다.

직원들이 무대에 올린 창작연극 〈나비눈〉

사무처 직원들의 창의력 계발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니어 보드와 각종 경영개선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였다. 2007년 1월, 예술진흥실을 중심으로 만든 연극 〈나비눈〉(신용목 작, 심재찬 연출)은 전문 예술가가 아닌 순수한 예술행정 집단인 예술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대본을 쓰고 배우로 출연하여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무대에 올린 작품으로, 예술위원회 전환의 의미를 예술계에 잘 알린 신선한 기획이었다. 이 연극의 전체 출연진은 사무처 임직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연극연출가협회장 출신의 심재찬 사무처장이 연출을 맡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김병익 제1기 위원장,

당시 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만든 연극 〈나비눈〉에 대해 취재한 경향신문 기사(2006. 12. 21.)

연극 나비눈 만드는 문화예술위 직원들



2007년 1월 4일~6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공연될 연극 '나비눈' 에 출연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 (경향신문, 문주영기자 mooni@kyunghyang.com)

서울 대학로 한 극장의 연습실. 여느 연습실의 정겨운 풍경처럼 배우 10여 명은 허공을 향해 대사를 외치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있자니 뭔가 달랐다. 대사를 읽는 품새가 어딘가 모르게 영 어색하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내년 1월 4~6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 올릴 창작극 '나비눈'을 위해 난생처음 배우로 분하고 있었다. (중략)

연극 '나비눈'은 예술인들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직원들이 예술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 향후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인 것. (...) 연극 연출가 출신의 심재찬 사무처장은 "과거 진흥원 시절에는 관 주도의 행정이 펼쳐졌다면 위원회는 더욱 본질적이고 자율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설립 취지를 살리고 지원기관으로서의 서비스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이번 연극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출은 심재찬 사무처장이 직접 맡았고 극본은 전 《아르코 웹진》 편집장이자 시인인 신용목 씨가 집필했다. (...) "노숙자 취재를 할 때 눈이 내리는 모습이 '나비'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지하도에서 질병 등으로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노숙자들이 눈이 돼 돌아올 것 같았죠. 땅에 내린 눈이 녹는 것처럼 노숙자도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부재하는 건 아닙니다."(작가 신 씨) 이처럼 연극 '나비눈'은 예술인들에 대한 이해를 넘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관람료는 무료다.

박양우 문화부 차관, 오광록, 최정원 배우가 행인, 자장면 배달부 등으로 매회 돌아가며 깜짝 출연하여 극의 의미와 재미를 더해주었다는 점이다. 이 한 편의 연극은 예술현장 중심 민간기구의 위상을 지닌 예술위원회 설립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한 기획으로 총 6회 공연을 진행하여 대학로 연극계의 긍정적인 평가와 호응을 얻었다.

2. 제2기 예술위원회의 운영 성과(2008. 9.~2010. 11.)

제2대 김정헌 위원장은 제1기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07년 10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임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이후 제2기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던 오광수 위원이 제3대 위원장으로 2009년 2월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지역 문화예술 지원기구(문화재단) 증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역할과 지원 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 전환 2주년 기념 〈예술위원회의 역할 재설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2007. 11.)하여, 위원회 전환 2년을 점검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8년 6월과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7회에 걸쳐 예술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제1기 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2기 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기 위원회의 출범과 비전 재설정

아르코 비전 2012

2008년 9월 19일 임기 2년으로 출범한 제2기 예술위원회는 출범 5개월 후인 2009년 1월 말 〈아르코 비전 2012〉 재설정을 의결했다. 2012년까지의 비전을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주도하는 세계

[그림 8-5] 〈아르코 비전 2012〉의 비전과 핵심가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Grand Vision] 세계 10대 기초예술 강국	
전략방향[Sub Vision]	전략목표
1. 예술가의 성공적인 창작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예술컨설팅 전문기관	• 예술 컨설팅 인프라 구축 • 예술현장 지원시스템 혁신
2. 문화예술 기구 및 단체와 협력하는 문화예술행정 대표기관	• 문화예술 기구 및 단체와의 전략적 제휴 확대 • 지역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3. 우리 문화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예술 국제네트워크 중추기관	• 문화예술 국제교류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4. 예술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고루 높이는 문화 확산 선도기관	• 예술의 생활화 • 문화양극화 해소
5.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내외부 고객가치에 기여하는 혁신기관	• 인적역량 강화 • 경영관리역량 강화 • 재무 건전성 강화 • 예술지원정책 연구 활성화

핵심가치(Core Value)		
Challenge & Change	Share	Responsibility
새로운 환경변화에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대처하고,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소통을 통한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정보의 획득, 창출, 공유 문화를 만들어간다.	강한 책임의식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10대 지원기구'로 설정하고, 핵심가치로 '도전과 변화(Challenge & Change)', '나눔과 소통(Sharing)', '책임(Responsibility)'의 세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어서 2월에는 2실 1센터 1본부 4관 10팀 3역 1추진단(22개 부서)의 복잡한 조직체계를 3실 8부 4관 1추진단(16개 부서)의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2. 23.)했고, 4월에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126명→111명)을 단행(4. 17.)했다. 2009년 8월에는 'ARKO 창조경영 DO & BE CEO'를 선포(8. 25.)하고, "새로운 예술의 발신지로!", "본관을 예술인의 품으로!", "튼튼한 기금으로!", "탄탄한 역량으로!", "사랑받는 ARKO로!"를 5대 돌파과제로 제시했다.

아르코 비전 2015

〈아르코 비전 2012〉 재설정 1년 후인 2010년 1월에는 제2기 위원회의 공식 비전-전략체계인 〈아르코 비전 2015〉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가 문화정책 방향 및 지원 패러다임을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및 사후지원 확대, 예술의 생활화, 지역협력사업 확대로 발표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는 비전전략개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위원회의 비전 조정과 핵심전략의 재설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아르코 비전 2012〉의 핵심 내용인 "세계 10대 지원기구"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새롭게 변화된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비전 키워드와 4대 전략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림 8-6] 〈아르코 비전 2015〉의 비전과 핵심가치



제2기 위원회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해 예술가의 창조 역량 강화,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 육성,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신성장 동력사업 개발을 6대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환경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제1기 예술위원회에서 장르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본 결과,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었으나 장르 이기주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2기 예술위원회는 장르별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재원 확충, 지원심의제도 개선, 지방 이전 대책 등 정책 의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3개월에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제1기의 장르별 소위원회를 대신하여 예술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9년 6월부터 '예술인 사랑방 릴레이토크'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방안, 공공미술장식제도 개선 방안, 예술위원회 본관 활용 방안,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 정책 현안별로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이밖에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현안과제 중심으로 추진했다.

[표 8-5] 제2기 위원회 기간 중 소위원회 구성 현황(2008. 12.~2010. 9.)

연도	소위원회명	위원 수	정기회의
2009	정기공모사업개선	3	2
	별도공모사업개선	5	2
	자체기획사업개선	3	2
	지역협력형사업개선	4	3
	복권기금사업개선	3	2
	자체시설운영개선	3	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3	9
	지원심의제도개선	6	6
	2012 전략개발	6	4
2009~2010	재원확충	12	3
	지방이전대책	0	4
201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3	3
	제2기 위원회 성과평가	4	1
	예술전용공간지원소위원회	4	-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

2003년 말로 기금 모금이 종료되면서 재원의 확보가 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모금에 대한 대체 재원으로 2004년부터 복권기금이 전입되기는 했지만 매년 전입금 규모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기금의 성격상 문화향수사업 외에는 사용이 제한되었다. 기금 적립액이 2007년 4,336억 원, 2008년 4,091억 원, 2009년 3,739억 원 등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복권기금 외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태였기에 제2기 위원회는 예술위원회가 단일주주인 뉴서울골프장(관리주체: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의 매각, 경륜경정수익금 배분,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익금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 전입 등을 추진했다. 문화부와 예술위원회의 노력으로 2009년 4월 「경륜·경정법」이 개정되고, 2010년부터 경륜경정수익금의 24.5%(250억 원 대)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되기 시작했다. 한편, 제2기 예술위원회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온라인 문화나눔 포털 구축, 문화예술 온라인 거래소 구축 등 민간 영역의 기부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2009년에 3억 1천만 원을 조성한 바 있는 〈예술인사랑나눔행사〉를 2010년에는 문학 분야 도서 바자회, 공연예술 분야 객석기부, 미술 분야 미술품경매 등 전 장르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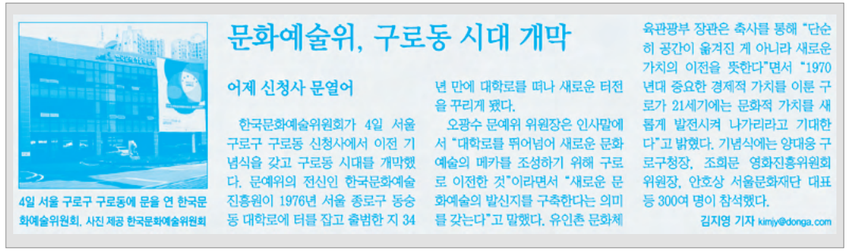
운영시설의 분리와 예술위원회 임시청사 이전

예술위원회 출범 당시만 해도 국고사업과 기금사업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국고사업과 기금사업 간 명확한 역할 재설정을 통한 예술진흥사업의 효율화가 예술위원회의 현안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문화부는 국가 차원의 예술 인프라 조성 및 제도 개선, 평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국고와 기금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차별화가 시도되었다. 국고사업 중 예술지원 성격의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속속 이관되는 한편, 2010년 3월에 예술정보관(현 국립예술자료원)이, 7월에는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현 한국공연예술센터)이 별도 법인화되었다. 같은 해 5월 예술위원회는 구로구 구로동(새말로) 임시청사로 이전했으며, 동숭동(대학로) 구 청사는 예술가와 예술인단체, 예술후원 기업인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예술가의집'으로 개방했다.

국가 예술정책을 반영한 지원체계 개편

4대 지원 방식 도입

변화한 지원 방식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다년간 지속지원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 제도를 강화하고, 사후적 평가에 의한 성과주의적 지원체계 내지 사전·



문화예술위, 구로동 시대 개막

어제 신청사 문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4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청사에서 이전 기념식을 갖고 구로동 시대를 개막했다. 문예위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1976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터를 잡고 출범한 지 34년 만에 대학로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꾸리게 됐다.

오광수 문예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학로를 뒤어넘어 새로운 문화예술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 구로로 이전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발신지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단순히 공간이 옮겨진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이전을 뜻한다"면서 "1970년대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이룬 구로가 21세기에는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양대승 구로구청장,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4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문을 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로동 임시청사 이전

2010년 5월 4일 예술위원회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2014년 4월)을 앞두고 구로동 임시청사로 이전하였다.



서울 대학로에 '예술가의 집' 열어

서울 대학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舊)본관이 예술가의 교류 및 창작 지원 공간인 '예술가의 집'으로 탈바꿈해 9일 개관했다. 1930년 건축가 박길룡이 설계한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제대, 1946~75년엔 서울대 본부로 사용됐으며, 이후 올해 초까지 예술위 사무공간으로 쓰였다.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태어난 '예술가의 집'은 연면적 1634㎡의 3층 건물이다. 1층에는 예술창작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위한 창작지원센터, 기업과 예술의 만남 장소인 A&B센터, 전시공간, 커뮤니티룸, 예술인카페 등이 마련됐다. 2층에는 문예 발전에 업적을 남긴 인사들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과 공연예술 자료를 모은 국립예술자료원 대학로분원이, 3층에는 세미나실과 다목적홀이 들어섰다. '예술가의 집'은 개관 기념으로 2월 말까지 '한국현대문학 100년-추억의 문인 사진전'을 연다.

박돈규 기자 coeur@chosun.co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9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 개관식에서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원장, 신일수 국립예술자료원 이사장,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강수 대전문화재단 대표,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최치림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이성림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 박일훈 국립국악원장.

예술가의집 개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예술위원회는 2010년 12월 9일 동숭동 본관 건물을 예술가의집으로 개방하였다.
(2010. 12. 10. 조선일보)

사후 분할지원 방식을 통해 단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방식의 직접지원 외에 간접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예술현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예술전용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과 예술단체에 대한 공간 임차 보증금 지원을 강화했다. 예술의 생활화는 복권기금의 문화적 활용을 강조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책임심의위원제 및 상시 심의제 도입

정부의 주요 문화정책 방향 및 지원 패러다임이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되면서 우수한 예술적 기량을 갖춘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심의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예술위원회는 2009년 지원심의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2010년 2월 지원심의와 평가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임기 1년의 책임심의위원(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하였으며, 3월에는 연중 상시 신청·심의제도를 도입했다. 책임심의위원으로는 분야별 5인(외부인사 4인, 내부직원 1인)을 위촉하여 지원심의,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신청 상담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010년도에는 우선 국제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시범 추진(연 3회)한 후, 2011년도부터 전체 기금사업으로 확대 실시했다. 또한 예술가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관객이 심의에 참여하는 국민평가단을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국내외 문화예술네트워크 강화

정부는 중앙 중심의 문화예술행정에서 분권화된 문화예술지원 구조로 개편하고자 지역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포된 시도별 재단과의 협력으로 효과성을 높이는 지역협력형 사업을 2009년 신설하고,[5] 시도 지역문화재단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했다. 2010년 4월에는 지역문화협력관 제도를 도입, 중부·호남·영남권 3개 권역에 예술위원회 사무처 소속 중견 이상의 직원 각 1명씩을 파견하였다. 해외 문화예술행정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김정헌 위원장 시기에 IFACCA 아시아권역 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2008년 아시아회의를 유치·개최하였으며, 제2기 위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제4차 문화예술 세계총회에 참여하는 등 문화예술지원 기관들과의 국제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하였다.

5. 2009년에 처음으로, 지역배분형 사업 2개 98억 원 외에 새로이 3개 사업 92억 원을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직접 추진 사업인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7억 원)을 제외한 4개 사업에 183억 원을 지역과 매칭 펀드로 추진했다.

3. 2000년대 후반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1. 위원회 전환 이후 문예진흥기금 세입 현황

2000년대 중반 이후 2010년까지 문예진흥원(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변화는 2004년 모금제도의 폐지로 안정적인 재원 조성이 어려워지고 적립금을 헐어 쓰기 시작한 것이다.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으로 복권기금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위원회 전환 이후 사업 규모의 확대로 예산 편성액이 대폭 늘어나고 복권기금의 사용처가 초기 예술창작지원에서 문화나눔사업으로 제한됨에 따라 예술위원회는 민간 기부금 확대 및 자체 수익개발 등의 대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의 잠식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서 모금제도는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기금의 수익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금제도는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 22일부터 고궁, 능,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 문화시설과 문화유적의 입장료의 2~8.5%를 부가하여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국 627개소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2003년도에는 535억 8,200만 원을 모금했고, 모금은 그해 전체 기금 조성액(965억 2,300만 원)의 5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제정한

[표 8-6] 1973~2010년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및 운용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1973~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A)	1,279,08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모금수입	410,252	7,943	268	70	27	-	-	31
이자수입	413,914	28,376	28,909	25,972	34,201	25,922	17,306	20,069
기부금	9,906	4,709	6,509	9,057	7,854	10,542	10,403	13,497
전입금	184,722	44,584	50,406	53,770	48,527	19,800	21,800	23,700
- 일반회계	184,722	-	-	-	-	-	-	-
- 복권기금	-	44,584	50,406	53,770	48,527	19,800	21,800	23,700
경륜경정전입	-	-	-	-	-	-	-	24,264
기타	260,289	10,739	9,948	9,540	7,959	8,642	8,315	6,554
지출(B)	775,807	94,753	129,516	128,211	120,389	96,840	85,524	142,593
사업비	643,301	84,822	119,552	117,074	108,005	85,169	73,806	112,966
- 문예기금사업	643,301	40,331	69,762	63,330	59,452	65,369	52,006	89,266
- 복권기금사업	-	44,491	49,790	53,774	48,553	19,800	21,800	23,700
기금운영비	131,952	9,931	9,964	11,137	11,527	11,017	10,902	9,477
정부내부지출	554	-	-	-	857	654	816	20,150
평가손익(C)	2,549	19,832	-865	-8,325	647	7,402	-7,444	-20,661
수지차(D=A-B+C)	505,825	21,430	-34,341	-38,127	-21,174	-24,532	-35,144	-75,139
적립금 잔액	505,825	527,255	492,914	454,787	433,613	409,081	373,937	298,798

모금수입 : 2004년 이후 모금수입금은 모금 폐지 전(2003년도 말)까지 기 발생된 미납 모금을 추징한 금액임.
기타 : 설립출연금, 올림픽 잉여금(100억 원), 건물대여료, 기타 경상 이전수입, 골프장 수입금, 입장료 수입, 잡수입 등
수지차 : 결산 시 금융자산평가 등 반영 금액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2년부터 시행되었고,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는 200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 모금제도 폐지 후 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연간 예산 지출액이 늘어나고 적립금 이자가 턱없이 낮아지는 등의 상황 변화로 기금 적립금이 매년 사업비로 인출되면서 기금의 원금(적립금) 잠식이 계속되었다.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은 2004년 말 5,272억 원을 정점으로 이후 적립금 인출이 일반화되었고,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더불어 각종 기금의 적립금 잔액을 인출하여 국고와 동일하게 차년도 정부 예산에 적극 편성하면서, 적립금 이자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문예진흥기금의 적립금은 [표 8-6]과 같이 2010년 말 기준 2,988억 원으로, 적립금이 가장 많았던 2004년 말 5,272억 원의 70.9% 수준으로 5년 만에 약 1/3 이상이 감소하였다.

대체 재원 확보 노력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되어 재원의 고갈이 우려되던 때에 정부와 국회는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04년 4월 1일부로 기존의 여러 기관이 발행하던 복권제도를 통합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여 복권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진흥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복권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조처로, 첫해인 2004년에 446억 원이 문예진흥기금 사업비로 전입된 것을 시작으로 연평균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연평균 400억 원 수준에서 복권기금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되었다.

다만, 복권수익금의 문화예술 지원은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받은 돈을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전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 반납해야 한다.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복권기금은 기금 고갈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연도별로 전입 규모의 편차가 심한 데다 초기 예술창작 역량 지원사업에도 사용하던 용도를 문화나눔사업으로 제한하게 되었다.[6] 이에 따라 예술위원회는 비전 전략체계에 문화예술 재원개발을 설정하고 위원회별로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추진함에 따라 [표 8-6]과 같이 위원회 전환 이후 기부금 수입이 증가하고 2010년부터 경륜경정수익금이 전입되었다.

2. 위원회의 기금사업 구성 체계와 예산

예술위원회는 기존의 장르별 사업체계를 4대 혹은 5대 성과목표를 토대로 한 사업단위별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통상 4대 성과목표는 '예술창조역량 강화(예술창작 진흥)',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이다. 그리고 5대 성과목표는 '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로 변경하고,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의 세부목표 중 하나였던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을 성과목표인 '지역문화 활성화'로 독립시킨 것이다. 그러나 예술위원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사업 체계, 예산 편성체계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6. 이는 복권기금 수익 창출의 대상이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재원 조성 방식의 역진성에 기인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08~2016년 5,000여 가구의 소득과 복권 지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일수록 소득 대비 복권 구입액의 비율이 높았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복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쓴다는 뜻으로 역진세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았다.(아시아경제 2017. 10. 25., 조은일 기자)

[표 8-7] 2006~2010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체계 및 예산편제의 변화

2006	2007	2008	2009	2010~2012
예술창조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지원시설 운영)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문화예술 공간 운영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	예술의 생활화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매개활동 지원 및 기반조성)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기금사업의 구성체계 변화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고 8개월 후인 2006년 4월, 예술위원회는 〈아르코 비전 2010〉을 공표했다. 〈비전 2010〉에서는 진흥원 체제의 5대 성과(전략)목표를 8개로 구체화하였는데, 2006년 기금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이 발표되어 사업체계 개편을 반영한 예산체계는 2007년도 기금사업부터 적용되었다. 이후 〈비전 2012〉, 〈비전 2015〉 등 예술위원회의 전략과 예산체계는 창작, 기반시설, 향유, 지역, 예술의 사회가치로 명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기금사업 구성체계에서 이전보다 강화되는 특징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시대적 추세에 맞춰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 전환 이후 사업 예산 추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예산 추이를 〈아르코 비전 2010〉의 전략목표 기준(2007~2009년)으로 살펴보면 [표 8-8]와 같다. 사업 예산의 추이는 2006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에 다시 확대되는데, 창작·국제교류·공간지원을 포함하는 창작지원과 지역문화예술진흥 부문의 예산이 2006년 이후 감소하다 2010년에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작 부문 예산은 2006년 435억 원 규모에서 2009년 340억 원까지 축소되었다가 2010년 54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은 2006년 121억 원에서 2010년 22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사업 중 2010년 전략체계의 전략목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에

[표 8-8] 2006~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07년 사업체계 기준	2010년 사업체계 기준					
1. 예술 창조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21,021 (18.9)	16,322 (15.8)	18,544 (22.3)	14,900 (19.6)	24,200 (20.8)
2.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5,250 (4.7)	5,657 (5.5)	5,557 (6.7)	3,157 (4.2)	1,200 (1.0)
3.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5,407 (4.9)	5,137 (5.0)	5,135 (6.2)	5,190 (6.8)	6,377 (5.5)
4.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문화예술 공간 운영	11,816 (10.6)	8,443 (8.1)	9,355 (11.2)	10,763 (14.2)	22,301 (19.1)
5. 예술의 생활화***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51,505 (46.3)	9,290 (9.0)	5,000 (6.0)	21,800 (28.7)	23,700 (20.3)
6.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39,337 (38.0)	19,800 (23.8)		
7. 지역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예술 진흥	12,097 (10.9)	11,090 (10.7)	11,148 (13.4)	11,598 (15.3)	22,650 (19.4)
8.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존****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4,140 (3.7)	8,346 (8.1)	8,712 (10.5)	8,599 (11.3)	16,180 (13.9)
계		111,236 (100.0)	103,622 (100.0)	83,251 (100.0)	76,007 (100.0)	116,608 (100.0)

* 2006년도분은 2007년도 편제에 맞춰 재분류한 것임.
** 2006년도 사업명은 '문화예술(시설) 운영'
*** 2006년도 사업명은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
**** 2006년도 사업명은 '문화예술매개활동 확대'
( )는 해당연도 전략목표별 예산점유율(단위 : %)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투입된 예산은 평균 29.5%이며, '문화예술 공간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평균 12.7%이다. '문화예술 공간 운영'의 예산 규모가 확대된 것은 단위사업('예술현장의 기반조성') 변경에 따른 것이다. 복권기금의 출연에 의한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예산은 평균 34.4%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7~2008년에는 약 47%까지 예산 비중이 증가했다가 2008~2010년 복권기금의 출연 규모가 크게 삭감되면서 3년간 점유율도 낮아졌다.

한편, 예술위원회로의 전환 후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부의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기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은 증가 추세에 있다. 〈아르코 비전 2010〉은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존'(2009년 이후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을 독립된 하나의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강조했는데, 〈비전 2010〉 설정 이전인 2006년 3.7%의 예산 점유율은 설정 이후인 2007년 8.1%로 증가했고, 2010년까지 평균 10% 정도의 예산 점유율을 보인다.

4. 2000년대 후반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2000년 후반 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사업은 위원회 전환 당시 예술현장의 의견, 제1기와 제2기 위원회·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그리고 국가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반영한 전략체계에 따라 추진되었다. 그간 문예진흥기금의 단순 관리·배분에서 다각적인 예술자원을 활용한 종합지원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창작지원 부문을 위원회의 핵심역량 집중 분야로 설정하고 예술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아르코 비전 2010〉의 가치 1. Creativity)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분야를 다양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5~2006년도 예산편제에서는 '예술창조역량 강화'와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2개로 구성돼 있던 전략목표를 2007~2009년도에는 〈아르코 비전 2010〉 체제에 의해 3개의 전략목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사업의 유지·개선과 함께 신규사업을 개발하였다. 2010~2012년도에는 3개의 전략목표를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로 통합하면서 선택과 집중지원의 정부 기조를 반영하였다.

1.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단위사업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전 장르의

[표 8-9] 2006~2010년도 〈예술가의 창조 역량 강화〉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술창조활동지원 -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 수요자 맞춤형 지원	10,685 (5,685) (5,000)	9,444 (8,244) (1,200)	9,444 (8,244) (1,200)	7,700 (6,300) (1,400)	2009년 중반에 지역협력형 사업인 〈시·도기획지원〉(50억 원)으로 전환
예술행사지원 - 공연예술행사지원 - 시각예술행사지원	-	-	-	-	5,850 (3,800) (2,050)
예술창조역량 강화 특화사업 - 문학 특성화사업 - 시각예술 특성화사업(기획발굴지원) - 공연예술프로그램 특성화사업* - 올해의 예술작품 시상 및 축제	6,899 (1,500) (1,000) (2,000) (2,399)	3,878 (1,300) (1,378) (1,200) (-)	4,600 (1,900) (1,500) (1,200) (-)	3,700 (1,500) (1,000) (1,200) (-)	(2010 예산편제 개편)
예술창작지원 - 문학창작(기금)지원 - 공연창작기금지원 -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지원 - 창작매개활동지원	-	-	-	-	6,600 (800) (2,000) (800) (3,000)
다원예술지원**	-	1,200	1,400	1,600	(위 '예술창작지원'에 포함)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 문학창작 집필실 지원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 - 공연예술 전용공간 지원 - 다원예술 매체공간 지원 - 예술가 소통공간 지원(예술가의집)	-	-	-	-	9,440 (1,600) (1,900) (4,940) - 1,000
스토리 창작 및 유통지원	-	-	-	-	2,310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	1,500	3,000	4,500	3,500	16개 시·도로 이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시행
전통예술 활성화지원 -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지원 - 국악 원형탐구 및 창작물 개발지원	1,937 (1,837) (100)	-	-	-	-
계	21,021	16,322	18,544	14,900	24,200

* 창작극 활성화 프로젝트, 무용안무가 집중육성, 창작곡 연주지원, 전통예술무대 양식화사업 등

** 2007~2009년에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하위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었기에, 〈예술가의 창조 역량 강화〉 사업의 예산 총계(액)에서는 제외함.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기반 구축을 위한 예술단체(인) 활동 수준 제고 및 창작활동의 기회 확대를 추구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술가(단체)가 행하는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술창조활동 지원', 예술계 현장 수요에 따라 분야별 취약 부문에 대한 특성화 사업으로 기획된 '예술창조역량 강화 특화사업', 자생력을 갖춘 전문 공연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다년간 집중지원 사업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 사업', 창작활동의 매개·거점 인프라 육성을 위한 '예술전용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전략체계, 단위사업 및 백서체계에 따라 [표 8-9]에서 〈예술전용

공간 활성화 지원〉은 제8절 문화시설 운영에서,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한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과 〈예술행사지원〉은 제6절 지역문화예술 진흥에서 설명한다.

예술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예술창조활동지원' 중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은 공모를 통해 창작·발표 활동을 선정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초기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예술지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다.[7] 장르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주로 작품 창작, 전시·공연기획 등이다. 문학 분야는 각 부문의 개인 창작집 발간에 건당 1,200만 원씩 정액 지원했는데, 2008년에는 137건을 지원했고 13개 문학단체 기관지에도 600~3,600만 원씩 발간비를 지원했다. 시각예술 분야는 149건에 14억 원(건당 평균 940만 원), 공연예술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는 329건에 50억 원(건당 평균 1,520만 원)을 지원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은 연 1회 일괄 공모로 심의를 진행하는 전통적인 공모 방식의 경직성을 탈피한 수시 신청, 수시 지원의 상담형 지원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활동지원', '예술 지원컨설팅 서비스', '국민 제안 예술프로젝트사업', '문화예술 분야 청년인턴 채용' 등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됐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활동지원'(계기성사업지원)은 당해 연도에 기획·확정된 사업에 공모 지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 제안 프로젝트사업'(2009)은 국민이 제안한 우수한 예술프로젝트 5건 내외를 선정하여 포상금과 함께 사업당 5,000만 원~1억 원의 사업수행 실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위원회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처에 '지원컨설팅' 기능을 도입하고 2007년에는 '예술지원컨설팅센터'를 설치하는 등 의욕을 갖고 추진했으나, 2010년 폐지되었다.

단년·소액다건 지원의 한계 극복 :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

위원회 전환 이후 1년 단위 소액다건 중심의 지원 방식에 대한 반성과 한계 극복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제1기 예술위원회는 2006년 공연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중장기 집중지원을 신설하고 창조진흥 부문을 선택과 집중으로 특화하고자 하였다. 2006년에 〈공연예술창작 전문단체 집중육성〉 사업을 신설했는데, 이는 문예진흥기금 사상 최초의 다년간 지원프로젝트로 '선택과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007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종합보고서』.



문학특성화사업
우수문예지를 선정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보급하는 우수문예지 구입배포사업과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고 문인 선집 발간 사업을 추진하여 문학 분야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도모하였다.

집중' 전략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 제작시스템의 전문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지원 첫해에는 연극, 무용 등 총 18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2008년까지 3년간 단체별로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였다.

이후 제2기 예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선택과 집중' 지원 기조에 따라 2009년 중반에 대표적 소액다건 사업으로 지적된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의 개편을 시도하였다. 예산 중 50억 원을 집중지원형 사업인 〈시도 기획지원〉(지역협력형 사업)을 신설하여 전환하고, 나머지 예산을 문학창작지원, 전국 규모 예술행사지원에 투입하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하였다. '문학창작지원'은 3년 이내 작품집 발간을 조건으로 장편소설 3,000만 원, 중편소설 1,500만 원, 시·시조·평론·아동 1,200만 원을 건당 사전 50%, 사후 50%(사후 평가 후 차등 지원) 지원하기로 했다. 박섭의 「백악기의 추억」(소설), 권덕하의 「그리운 뒤란」(시), 김선희의 「김일처럼 되고 싶어」(아동) 등 31건에 4억 800만 원을 지원했다. '전국 규모 예술행사지원'으로는 기획행사 및 예술축제 15건에 대해 2,000~5,000만 원(건당 지원한도 1억 원)씩 5억 원을 지원하여, 2009년에 〈윤동주 문학상 및 예술제〉, 〈한국평화미술제〉(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젊은 연극제〉,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등이 지원을 받았다.

〈예술창조역량강화 특화사업〉은 예술현장 수요에 따른 특성화 사업으로 발굴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예술계의 성장 동력 구축을 목표로, 장르별 창작 패턴과 환경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집중 지원했다. 2009년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문학특성화사업〉은 '우수문예지 구입배포' 사업이라 하여 우수 문예지(40종, 10억 원)를 1년 구독 형식으로 전국에 배포하고, 별도로 문학단체 기관지(12종, 2억 원) 발간비도 지원했다. 또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제대로 복원 정리되지 않은 작고 문인의 작품선집을 발간하여 문학 유산을 보존 계승하는 '작고 문인 선집 발간'(3억 원, 15종) 사업을 2008년 이래 (사)현대



아르코창작음악제
2007년 《창작관현악축제》로 시작한 이 행사는 한국 현대음악(양악, 국악) 창작곡 발굴을 통한 작곡가의 창작 의욕 고취와 연주발표회 개최, 악보 ·CD 발간 등으로 음악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문학과 함께 추진하였다. 〈시각예술특성화사업〉(2008년 이전 〈시각예술 기획사업 발굴지원〉)은 10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그 사적·미학적 위치가 인정되는 주요 중견 작가의 작가론 출판을 통해 이론적 비평 담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문 번역 작업을 통해 작가의 해외 소개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2009년 〈공연예술 프로그램 특성화사업〉은 공연예술 장르별 세부사업 5개로 구성돼 있으며, 건당 지원액은 분야별로 최대 1억 5,000만 원(연극 분야)에서 3억 원(무용·양악·국악 분야)이다. 연극 분야에서는 〈창작 희곡(장막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창작 희곡을 선정하고, 이를 작품화하여 극장공연까지 연계 지원했다. 또한 '차세대 연극예술가 융합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연극예술가를 대상으로 융합교육 프로그램 진행, 작품 제작 워크숍, 쇼케이스 발표까지 통합 지원했다. 무용 분야에서는 〈안무가 집중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장래성 있는 차세대 우수 안무가를 공모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향의 안무 창작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워크숍 우수공연 발표자에 대해서는 무대공연 발표까지 연계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음악 분야는 《창작관현악축제》를 개최하여 작곡가의 초연, 재연곡 연주 및 연주단체 매개지원을 추진하였다. 《창작관현악축제》는 2012년부터 행사 명칭을 《ARKO 한국 창작음악제》(약칭 아창제)로 개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악 분야에서는 《국악실내악축제》를 시행하여 명품국악공연 개최, 국악실내악 단체 경연대회 및 무대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공연예술 장르별로 특화된 사업을 펼쳤다.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예술창조역량강화 특화사업〉은 2010년부터 사업의 내용을 조정·개선하여 '예술창작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묶어 시행했다. 작가의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인한 생계에 대한 걱정이 창작활동에의 몰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예술위원회는 작가 경력을 기준으로 10년 이상인 중견작가에게는 〈문학창작(기금)지원〉으로, 10년 미만이면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육성〉으로 지원하여 창작활동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학창작(기금)지원〉은 2009년 한 해 장르별

차등지원하다가 이후 장르별 균등지원으로 바뀌었다. 2010~2011년에는 1인당 2,000만 원을 2년 분할 지원했고, 2012년 이후에는 다시 1인당 1,000만 원, 정액지원으로 환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60~80명의 소설가, 시인·시조작가, 문학평론가, 동화·동시작가 등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문학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은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을 발표한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의 차기 창작 초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수 창작물 개발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업이다. 상·하반기 두 차례 심의·지원하는데 2010년부터 3년간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163개 단체가 57억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창작 작품을 공연했다. 신시컴퍼니, YJK댄스프로젝트, 고려오페라단, 해금플러스, 극단민들레, 김옥련발레단, 광주여성필하모닉, 구미오페라단, 풍악광대놀이예술단 등이 많게는 8,000만 원까지 지원받았다.

새로운 예술활동과 실험예술 지원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은 2009년 이전 〈다원예술 지원〉을 이어받은 사업이다. 21세기 새로운 예술환경에서 탄생한 탈장르예술, 융·복합장르예술, 대안예술, 그리고 매체실험예술, 독립예술 등의 다원예술을 지원한다. 이러한 예술 장르는 기성의 장르 구분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2010년부터 3년간 125건에 총 14억 8,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인터섹팅 라인》, 《가슴네트워크축제》, 《할아텍+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서울변방연극제》, 《한국실험예술제》, 《2012 JAM있는공연》, 《설치공연 유진규의 까만방》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했다. 2010년 이후 〈창작매개활동지원〉은 앞서 언급한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작고 문인 선집 발간' 외에도 '예술 정간물 발간·조사연구지원', '예술지원정보서비스 운영', '공연예술 인큐베이션',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등 많은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 신진예술가 지원

단위사업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은 새로운 예술 및 예술인력의 발굴 육성을 통해 역량 있는 신진 예술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예술위원회 전환 후 예술인력 육성 지원은 차세대 예술인력

[표 8-10] 2006~2010년도 〈예술인력 육성 지원〉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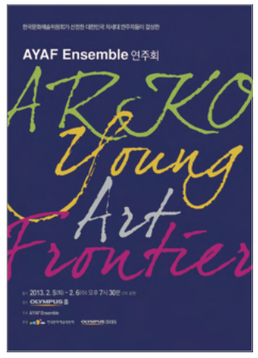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신진예술지원) - AYAF(구 신진예술가뉴스타트지원) - 차세대발굴(청소년문예지), 사이버문학광장	1,850 (1,300) (550)	1,757 (1,235) (522)	1,757 (1,257) (500)	1,557 (1,005) (552)	1,200 (1,200) 창작매개활동지원
예술전문인력육성(예술인력재교육) - 예술인력개발원운영관리 - 예술인력개발원기획프로그램운영 - 무대예술인재교육지원 - 청년인턴채용지원 - 문예아카데미운영활성화지원	3,400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500) (1,300) (600)	2,700 (1,500) (900) (300)	2,400 (1,500) (900) (-)	(문화예술공간운영 중 예술인력개발원운영)	
계	5,250	5,657	5,557*	3,157*	1,200

* 예산편제 개편에 따라 합계 금액이 상이함.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육성사업과 전문인력 재교육사업이 큰 틀을 이루고 있다. [표 8-10]에서 인력 육성 지원 예산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산 편제의 개편으로 기존 사업이 다른 전략목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신진인력 육성과 기존인력 재교육사업은 예술위원회가 가장 중요시해 온 사업 중 하나이다. 편의상 이곳에서는 〈AYAF〉, 〈사이버문학광장〉, 〈청년인턴채용지원〉만 설명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략목표 '문화예술 공간 운영'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신진예술가 육성



신진예술가지원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프로그램인 AYAF (Arko Young Arts Frontier) 출신 예술가들의 연주회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육성〉 사업은 신진예술인을 발굴하여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위원회는 창립 초기부터 신진예술가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 왔다. 위원회 초기 신진예술 지원은 2009년까지 〈신진예술가 뉴스타트 지원〉, 〈차세대작가 발굴 육성-청소년문예지 발간지원 프로그램〉, 〈사이버문학 광장 활성화〉로 분리 운영되다가, 2010년 〈사이버문학 광장〉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시키면서 〈AYAF〉(Arko Young Arts Frontier)로 개편되었다. AYAF는 문학 분야부터 다원예술에 이르기까지 전 장르에 걸쳐 차세대 예술인력을 육성하는 대표사업으로 젊은 예술가와 기획·행정 인력의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1인당 1,000~1,500만 원을

2년간 연속 지원하고 있다. 제1기(2009~2010년) 97명(문학 분야 18명 추가 선정자 별도), 제2기(2011~2012년) 85명을 지원했다. 신진 예술계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중견 예술가·기획자·행정가 양성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인터넷상의 문학창작 공간 : 예비 작가의 발굴

사이버 공간에서 창작·소통·향수하는 문학포털 사이트 〈사이버 문학광장〉을 2005년 개통했다. 예비작가·문학애호가를 위한 '창작공간', 청소년문학관 '글틴', 인터넷 월간 문예지인 '문장웹진', 주 2회 문학을 배달하는 '문학집배원', 개인 창작·소통 공간인 '문장블로그', 주 1회 인터넷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한국문학사의 주요 작가와 작품 세계에 관한 정보와 원문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도서관'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2005~2011년 동안 온라인 창작 응모 작품 수가 누계 56,601편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중 청소년이 45.8%이다. 〈사이버 문학광장〉 활동을 바탕으로 신인문학상 등 문단에 정식 등단한 작가만 해도 17명에 이른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인의 문학적 창의력을 계발하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문학 애호인과 청소년에게 문학 창작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술현장 체험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청년인턴 채용지원〉은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첫해에는 1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인력이 부족한 문화 관련 기관·단체 217개소에 300명을 파견했다. 이 사업은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 차원의 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현장 체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문화예술단체들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인력난 해소에 다소 기여했다. 18~29세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 및 전공·이수자,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공모, 지원했다. 이 사업은 2005~2006년에는 성과목표 '예술 창조역량 강화'에 속해 있다가 〈아르코 비전 2010〉에 의해 전략목표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으로 바뀌었고, 2009년에 다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로 복귀했다. 예산액은 2006년 12억 6,000만 원, 2007~2008년 각 9억 원, 2009년 8억 1,000만 원이었다. 2009년의 경우 77개 민간 예술단체에 청년인턴 147명을 6개월간 파견했다.

3.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단위사업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은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 및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 통합과 세계 문화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을 통해 세계 미술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해외 주요 문화기관과의 인적·행사 교류를 통해 우리 예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현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과 전시 주관

휘트니, 상파울루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인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통상 세계 60~70여 국 200여 명의 작가가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1986년 이탈리아관의 작은 공간을 배정받아 참가하기 시작했다. 예술위원회는 1994년 예산 7억 원을 책정하고, 1995년 세계에서 26번째이자 마지막 독립국가관인 한국관을 건립한 이래 매해 미술전(홀수년)과 건축전(짝수년, 1998년 제외) 전시를 주관해 오고 있다. 1993년에 독일관 대표로 참가한 백남준이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

[표 8-11] 2006~2010년도 〈국제 예술교류 지원〉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 해외레지던 스프로그램 참가지원 - 베타니엔 한국작가 파견지원	3,892 (3,597) (295) (-) (-)	3,577 (3,297) (280) (-) (-)	3,576 (3,100) (260) (150) (66)	3,577 (3,100) (260) (150) (67)	(2010, 2011~2012, 2013 예산 편제 개편)
국제교류 활성화지원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 국제예술특집행사지원	-	-	-	-	3,017 (2,717) (300)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기반 구축	500	500	500	500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에 통합)
국제예술교류 기반 조성 - 베니스 비엔날레한국관 운영 및 전시 - 해외문화기관(단체) 교류 및 해외 정보서비스	1,015 (513) (502)	1,060 (513) (547)	1,059 (512) (547)	1,113 (513) (600)	(2010 예산편제 개편)
국제교류 협력체계구축 - 해외창작(국제교류)거점운영지원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베타니엔 포함) 해외거점개발 운영지원(베니스 포함) - 국제문화기관 협력지원	-	-	-	-	1,460 886 (372) (514) 574
공연예술 국제행사지원(국고이관사업)	-	-	-	-	1,900
계	5,407	5,137	5,135	5,190	6,377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1995년(전수천), 1997년(강익중), 1999년(이불) 연속 3회 특별상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수상자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2007~2013년 제52~55회 미술전 커미셔너는 안소연, 주은지, 윤재갑, 김승덕, 참가작가는 이형구, 양혜규, 이용백, 김수자이다. 또한 2006~2012년 제10~13회 건축전 커미셔너는 조성룡, 승효상, 권문성, 김병윤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은 한국미술을 가장 권위 있는 국제무대에 소개하여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

전 예술 장르를 대상으로 한 예술위원회의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 사업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해외 예술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이다. 2년 연속 지원이었던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시행한 후, 2012년에 단기체류 지원인 〈해외 예술인 초청 기획프로그램지원〉으로 대체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지원 형태인 〈해외 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이다. 이 사업은 비록 장기체류 지원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1983년 〈문인 해외 방문연구 활동지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해외 레지던스 장소는 뉴욕, 파리에서부터 탄자니아, 북극해('The Arctic Circle 2012')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으로 기회를 얻은 우리의 젊은 작가와 예술가들은 지구 곳곳, 생소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창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고된 체험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노마딕(normadic/이동)과 레지던스(residence/정주)라는 철학적, 예술적 개념이 결합된 이 사업은
해외 창작거점 발굴을 통해 예술가를 파견 혹은 초청하여 새로운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였다.
그간 몽골, 이란, 남극, 중국, 쿠바, 바이칼, 인도 등으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사진은 쇄빙선 아라온호 승선 창작 레지던스(좌), 바이칼호수 레지던스(우)

세 번째 유형은 예술위원회가 기획·발굴한 해외 창작 거점과 약정을 맺고 파견하는 형식인 〈해외 창작거점 예술가 파견사업〉이다. 수십 년 전부터 지원해 온 미국 아이오와대학 국제창작프로그램(IWP), 2005년에 시작한 '네델란드 라익스아카데미 참가지원', 2008년에 시작한 〈베타니엔 한국작가 파견지원〉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나날이 그 수가 늘어 2012년에는 아시아 권역 5곳, 유럽 권역 9곳, 미주·중남미·기타 권역 6곳 등 20곳으로 확장되었다. 〈베타니엔 한국작가 파견지원〉은 독일 베를린 Kunstlerhaus Bethanien 측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예술위원회가 시각예술 신진작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독일 측이 최종 1명을 선발, 1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10년에 김윤철, 2011년에 김아영, 2012년에 이혜인을 선정, 파견했다.

일상적 삶에서 벗어난 창작활동의 기회

〈노마딕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2010년 몽골예술위원회가 개최한 '제3회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2010. 9. 8.~18., 몽골 울란바타르시 및 남고비 달란자드가드시) 참가를 계기로 점차 거점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정착한 프로그램이다. 예술위원회가 해외의 창작거점을 발굴하여 약정을 통해 2주 내외 기간에 외국 작가·예술가들과 공동 창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 매너리즘에 빠진 작가·예술가에게는 새로운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예술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 예술기관으로서, 해외의 국가 예술지원기관, 국제문화기구, 그리고 국내 국제교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술위원회는 또한 〈국제문화기관 협력지원〉을 통해 IFACCA(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연합), ISPA(국제공연예술협회), Res Artis(국제레지던스 운영·지원기관연합) 등 대표적인 국제문화기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미 있는 국제문화사업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계의 중심인물(Keyman)을 초청하여 상호 예술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인과 창작과 교류, 예술경영과 무대기술의 경험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 중에는 한국예술을 외국에 집중 소개하거나 외국예술을 한국에 집중 소개하는 〈국제예술특집행사지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위탁사업인 〈재외동포 거점지역 예술강사 파견지원〉(2010년 12건, 2011년 7건 지원)이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간, 그리고 재외동포와의 민족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하는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기반구축〉은 2010년부터 폐지되어 〈민간 국제예술교류지원〉에 통합됐다.

5. 2000년대 후반 문화향유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예술위원회는 기관의 새로운 임무를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 향유 부문을 중요 지원 영역으로 설정하였다(〈아르코 비전 2010〉의 가치 2. Enrichment). 위원회 전환 이후 향유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소외지역(계층)의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관점에서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예술의 생활화'를 주요 전략체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을 창작과 향유의 연계로 보고, 이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향유사업의 특성상 소외계층(지역) 대상 사업이 지속 확대하는 반면, 일반인 대상의 향유사업이 유관기관으로 이관되거나 폐지됨에 따라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향유 사업의 범위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향유 부문 사업은 〈아르코 비전 2010〉에 따라 전략목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핵심과제를 체계화하였다. 2007년 기준 단위사업 '예술의 생활화'는 작은도서관,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경험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 사업이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소외계층(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다. 2009년도부터는 '예술의 생활화'와 '예술의

[표 8-12] 2006~2010년도 〈문화예술향유〉 부문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문화소외지역·계층 대상 문화나눔	25,655	21,200	14,100	17,200	18,300
-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2,000)	(2,000)	(2,700)	(4,000)	(5,000)
- 사랑티켓(관객개발지원)	(6,000)	(5,200)	(3,020)	(2,000)	(2,400)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7,500)	(7,500)	(4,630)	(6,200)	(5,800)
- 문학나눔(우수문학도서보급)	(5,220)	(4,000)	(2,310)	(2,300)	(2,000)
- 전통나눔(전통문화체험)	(3,000)	(2,500)	(1,440)	(1,500)	(1,500)
- 창작나눔					
생활문화공동체(서민풀뿌리문화나눔)	(-)	(-)	(-)	(1,200)	(1,200)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	(-)	(-)	(-)	(400)
- 문화예술교육영상콘텐츠제작	(550)	(-)	(-)	(-)	(-)
- 교정시설·군부대 문화순회지원 등	(1,385)	(-)	(-)	(-)	(-)
지역문예 기반시설 활용프로그램	22,625	18,137	5,700	4,600	5,400
- 지방문예회관 공연지원(공연)	(9,400)	(7,000)	(3,100)	(4,000)	(4,800)
-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지원(전시)	(3,000)	(1,737)	(1,100)	(600)	(600)
- 문화의집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1,000)	(-)	(-)	(-)	(-)
-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향토문화체험	(3,000)	(2,000)	(-)	(-)	(-)
-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방문	(6,225)	(7,400)	(-)	(-)	(-)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지원	(-)	(-)	(1,500)	국고 이관	국고 이관
소외지역 공동체문화 환경조성	3,225	9,290	5,000		
- 공공미술활용 생활문화 환경가꾸기	(1,225)	(1,500)	(-)		
-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1,000)	(2,000)	(-)		
- 컬처팩토리 설립운영	(1,000)	(-)	(-)	-	-
- 작은도서관 조성	(-)	(5,000)	(5,000)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	(790)	(-)		
계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51,505	9,290	5,000**(문진기금)	21,800	23,700
계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2,265)*	39,337	19,800		

* 일부 자료에는 '작은도서관 조성'(3,650백만 원)으로 돼 있어, '교정시설·군부대 문화순회지원 등'(1,385백만 원)과의 차액임.

** 2008년도 '작은도서관 조성'(5,000백만 원)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함.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표 8-13] 2004~2010년도 복권기금에 의한 문화나눔사업 추진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부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진 사업	1	소외계층 문화순회*		4,000	4,750	7,500	7,500	4,630	6,200	5,800
	2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		소외계층 문화순회에 포함 추진						400
	3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문학나눔	-	5,220	5,220	4,000	2,310	2,300	2,000
	4		전통나눔	2,500	3,000	3,000	2,500	1,440	1,500	1,500
	5		문화바우처*	-	-	2,000	2,000	2,700	4,000	5,000
	6		사랑티켓*	-	-	6,000	5,200	3,020	2,000	2,400
	7	지역문예 기반시설 활용 문화나눔	지방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지원*	14,600	9,400	9,400	7,000	3,100	4,000	4,800
	8		공공 박물관·미술관 전시 지원	3,600	3,340	3,000	1,737	1,100	600	600
	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서민풀뿌리 문화나눔)		-	-	-	-	-	1,200	1,200
		소계		24,700	25,710	36,120	29,937	18,300	21,800	23,700

구분		세부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폐지 사업	10	실버문화학교	-	-	-	-	1,500	국고이관	
	11	지방문화원중심 지역향토문화 체험	3,664	3,432	3,000	2,000			
	12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5,000	1,100	1,000	2,000			
	13	노인,장애인,아동복지 시설 예술교육	5,000	3,500	6,225	7,400			
	14-1	작은 도서관 조성	2,500	-	3,650	5,000			
	14-2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	-	-	790			
	15	공공예술 - 소외계층 생활환경 가꾸기	-	-	1,225	1,500			
	16	문화의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1,000	1,000	1,000	-	-	-	-
	17	문화예술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	550	550	-			
	18	컬처팩토리 설립운영	-	-	1,000	-			
	19	올해의 예술작품 축제·시상	1,205	3,000	-	-			
	20	다중밀집지역 작은 문화장터	-	1,500	-	-			
	21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	10,000	-	-			
	23	민속마을 전통축제	1,000	-	-	-			
	23	무대예술인 재교육	500	-	-	-			
		소계	19,869	24,082	17,650	18,690	-	-	-
합계			44,569	49,792	53,770	48,627	19,800	21,800	23,700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등과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표시

자료 : 「각 연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실적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회적 역할 확대'를 전략목표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로 통합하여, 전입된 복권기금 전액을 투입하였다.

1. 문화소외계층·지역 대상 문화나눔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

IMF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였고,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이 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복지 사업인 '문화나눔사업'을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예술위원회 문화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바우처(culture voucher)' 시범사업으로 2005년도에 시작되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당시 문체부는 문화바우처를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물질적 생존 이외에 정신적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복지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5년 복권기금 5억 원으로 5개 주관처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2006~2010년까지 인터넷 포인트제(3만 원 상당)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문화바우처 사업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빠르게 늘려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로 발표하면서 2010년 50억 원에서 2011년 24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2011년부터는 문화이용권 카드제를 도입하며 예술위원회가 문화바우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저소득층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를 대폭 확대,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문화바우처 지원 예산은 100억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 2010. 8. 23. 대통령 라디오 연설 중에서

아동·청소년층을 미래 잠재고객으로 개발

'사티'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사랑티켓〉은 1991년 관객개발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문예진흥기금으로 시행해 오다 2006년, 재원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08년부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을 제한하여 시행하였다.[8] 개인에게는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의 관람 비용 일부를 연 10회 지원하며, 단체(10명 이상)에게도 연 1회 지원했다.

8. 〈사랑티켓〉은 1991년 '연극영화의 해'에 서울지역에서 연극 분야에 국한하여 5월과 10월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였는데, 매우 인기가 높고 성과가 좋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왔다.

장르별 이용 실적을 보면 아동극 49.0%, 뮤지컬 28.5%, 연극 11.0%, 음악 5.3%, 무용 2.1%, 전통 1.5%, 전시 2.6%로, 대부분 공연(98.4%), 그리고 아동극·뮤지컬(77.5%)에 몰려 있다. 연령별 이용 현황을 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미취학 아동이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 37.9%, 청년층 5.7%, 노인층 0.8%로, 고등학생 이하 연령층이 전체의 93.5%에 이른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은 매번 시간 부족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용 부담은 10대와 20대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랑티켓〉은 청소년층의 문화예술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서 함양과 미래의 잠재 관객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소외계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순회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대상을 찾아가 문화 향유·참여 프로그램을 서로 나눔으로써 사회 소외계층을 문화로 아우르고 보듬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다문화, 교정시설, 군부대, 북한 이탈주민,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 소외지역, 소외계층이라면 전국 어디든 순회한다. 이러한 순회사업은 1980년대 문화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1990년대에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하면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복권기금이 전입된 이후부터이다. 오늘날 이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 외에도 문학, 시각·전통·다원예술, 예술 일반까지 공연과 교육, 참여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순회하고 있다.

문학 감상의 진작과 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

〈우수문학도서 보급〉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한 가지는 오지나 벽지에 소재하는 각급 시설에 매 분기 우수문학도서를 보급하여 문학 보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문학이 전국에 스며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동시대 인문 교양을 반영하는 신간 문학도서를 보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문화적 교양을 높이는 동시에 순수문학을 창작하고 출판하는 작가, 출판사를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다. 예산이 줄었던 2010년에는 97종, 19만 권을 9,900곳에, 그리고 2011년에는 241종, 47만 8,800권을 2,814곳에 보급했다. 〈우수문학도서 보급〉 사업 주관팀은 각 출판사로부터 도서·현물·후원금을 얻어 '우수문학도서 독서감상문대회', '전국청소년시낭송축제', '문화멘토사업', '문학집배원사업' 등 각종 부대행사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장애예술가의 발표 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0년 2월 기준 약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였다.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창작·표현 활동 여건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장애예술가(단체)의 예술 창작과 표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예술가(단체)의 창작 및 표현 활동, 장애인 내지 장애예술가의 예술적인 창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이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조사연구 활동과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지,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저작물 발간도 지원 대상이다. 이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위탁받아 국고로 추진하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과는 달리 창작활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2012년에는 창작활동 지원에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의 음반 제작 및 무료 보급'을 비롯한 34건(5억 원), 조사연구·발간 지원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촉각 사진책' 제작·보급 등 7건(1억 8,500만 원), 역량 강화 지원에 소울음아트센터의 '장애인 전문미술인 교육' 등 14건(3억 원) 등 총 55건을 지원했다. 2010년 46건, 2011년 49건을 지원했다.

서민 문화공동체 형성과 자긍심 고양

〈생활문화공동체지원〉은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 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공동체 문화 회복과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제공, 그리고 주민의 자긍심 고양을 통한 지역 분위기 쇄신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15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 지원하고, 2년 차에 7개 내외, 3년 차에 3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년 차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2012년 신규(1년 차)로 울산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농사와 예술이 만나는 홈골 텃밭가든' 등 15건(6억 5,500만 원), 2년 차 보성문화원의 '가마실 사람들 이야기' 등 5건(1억 9,500만 원), 3년 차 (사)문화도시네트워크의 '구포장 선창가에 춤추는 갈매기' 등 4건(1억 3,500만 원)을 선정, 지원했다.

2. 지역 문예기반시설을 활용한 향유지원

지역주민 문화 향수와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1980년대 이후 시도 및 시·군·구에 경쟁적으로 지방문예회관이 건립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작품의 제작이나 공연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지방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공연프로그램지원'으로 우수공연작품을 초청한 문예회관에 초청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기획프로그램지원'으로 지역기반 공연예술단체가 제작·운영하는 기획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126개 문예회관에 242건, 2011년 139개 문예회관에 275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전통나눔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체험〉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소외계층을 위한 시각문화 체험프로그램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지원〉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법정 등록 국·공·사립, 대학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행하는 공동전시와 개별전시를 공모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은 5개관 이상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특별전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사업은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전시 기간 무료입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지원하는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공동전시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다. 2012년에는 광주 의재미술관 등 공립·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연합기획전인 《희망을 향해 함께 가요!-꿈꾸는 문화나눔》 등 7개 공동사업(총 4억 1,000만 원), 경기대학교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단오부채 만들기와 병풍 꾸미기》, 전남 대담미술관의 《타일에 담는 향교리 이야기》 등 61개 개별사업(총 2억 8,740만 원)을 지원했다. 2010년에는 11개 공동전시를 지원하여 82개관이 참여했고, 2011년에는 공동전시 7개와 신설한 개별전시 42개 사업을 지원했다.

6. 2000년대 후반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단위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은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및 전국 규모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원회 전환 이전에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의 별도 사업이었던 것이 '문화향수기회 확대' 사업의 일부로 편재되는 등 변화를 겪어오다, 위원회 전환 이후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전략목표 아래 '지역문화예술지원'과 '지역문화예술 기반조성' 영역의 세부 사업이 확대되었다.

예술위원회는 이 시기에 지역문화재단(시도)과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그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007년에는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발족하여 예술위원회 관내에 사무국을 두었고, 2010년에는 예술위원회 사무처 소속 중견급 직원을 지역문화재단에 파견하는 지역문화협력관 제도를 운영하였다.

'지역문화예술지원'의 주요 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은 1999년부터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에 배분하였던 '지역배분형' 성격의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지역문화예술지원 확대정책에 따라 2010년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개편되고 단위사업 〈예술창작역량강화〉에 있던 지역 대상 사업도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편제되면서 예산이 급증하였다. 또한, 1999년 IMF 위기 상황에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국고 20억 원을

[표 8-14] 2006~2010년도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문화예술지원	10,907	9,800	9,800	9,800	22,450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4,907)	(4,800)	(4,800)	(4,800)	(11,051)
-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	(-)	(-)	(-)	(-)	(1,393)
-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	(-)	(-)	(-)	(1,268)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	(-)	(-)	(5,588)
-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지원	(-)	(-)	(-)	(-)	(3,150)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6,000)	(5,000)	(5,000)	(5,000)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 기반조성	1,190	1,290	1,348	1,798	200
- 전국연극제 개최	(500)	(500)	(506)	(506)	예술창작역량강화 중
- 전국무용제 개최	(370)	(370)	(392)	(392)	공연예술행사지원으로 이관
- 지역문화예술 특화지원***	(320)	(320)	(320)	(700)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	(100)	(130)	(200)	(200)
계	12,097	11,090	11,148	11,598	22,650

* 2009년 이전 사업명 〈지역문화예술지원〉
** 〈시도기획지원〉과 같은 사업임
*** 2008년 이전의 〈문화의달 행사지원〉 예산을 대체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긴급 반영하여 지역 매칭으로 2004년까지 추진했고, 이 지역배분형 사업을 2005년부터 예술위원회가 이관받아 2009년까지 추진했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균형 추구

지역배분형 사업의 추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은 2010년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추진된 지역배분형 사업으로서 1984년부터 1998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1999년부터 당해연도 지역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비를 서울 외 시도에 지원함으로써 중앙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 총괄·협력 및 기금지원은 예술위원회가 맡고 시도 혹은 시도 문화재단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맡아 진행하였다.

시도별 지원금 배분 평가 기준은 다소 복잡한데, 2006년까지는 문화예술진흥 의지, 지원목표에 따른 선별지원 의지, 사업운영체제의 적정성(사업운영 및 심의), 지원사업의 평가체계와 성과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2007년에는 문예진흥 의지와 성과에 따라 배분 등급을 5개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투자 의지와 바람직한 지원 체계 및 성과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 기금배분 방식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

[표 8-15] 시도별 문예진흥기금 배분 방식의 변화

(단위 : 백만 원)

2006년도		2007년~2009년	
등급 및 금액	격차비율	등급 및 금액	격차비율
2개처 : 400백만 원 5개처 : 347백만 원(87%) 8개처 : 295백만 원(74%)	등급 간 13% 차등	1개처 : 400백만 원 2개처 : 360백만 원(90%) 4개처 : 330백만 원(83%) 4개처 : 310백만 원(78%) 4개처 : 280백만 원(70%)	등급 간 5~10% 차등

[표 8-16]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시도별 문예진흥기금 배분 내역(2006~2009)

(단위 : 백만 원)

시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서울	-	-	-	-	2,000	1,500	1,500	1,500
부산	295	330	330	310	400	349	349	349
대구	295	310	330	330	200	175	201	201
인천	400	400	400	360	250	219	219	219
광주	295	280	310	310	140	123	123	123
대전	347	330	310	330	140	123	123	123
울산	295	310	310	310	140	123	117	117
경기	400	360	360	400	527	460	460	460
강원	347	330	330	330	306	268	268	268
충북	295	310	280	280	187	164	156	156
충남	295	280	280	280	255	223	223	223
전북	347	330	360	330	238	208	235	235
전남	295	280	280	280	357	327	327	327
경북	295	280	280	280	391	341	307	307
경남	347	310	310	310	340	297	297	297
제주	347	360	330	360	112	100	95	95
기타	12	-	-	-	17	-	-	-
계	4,907	4,800	4,800	4,800	6,000	5,000	5,000	5,000

본 사업의 지역별 지원심의는 사업 주관처(광역시도 또는 문화재단)에 일임되어 시도별 세부적인 추진 성과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별도의 전문 심의기구를 두지 않고 단체장의 자문기구인 지방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으로써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예술위원회는 시도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지역 무대예술단체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장 육성을 통해 지역 무대예술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무대예술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고 및 지역과 매칭펀드로 긴급지원을 하되, 사업 주관자를 문예진흥원으로 지정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2004년 국고와 기금의 역할 분담 원칙에 따라 2005년부터 기금사업으로 전환 추진되었다. 기금 및 지방비 예산의 1:1 매칭으로 연동하여 예술위원회가 사업을 총괄하되 사업 주관 및 운영은 시도 또는 시도 문화재단이 맡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집중지원으로 시작되었으나, 지역 정서와 문화 마인드의 특성에 따라 소액다건지원으로 흐르는 시도도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액다건지원보다 창작활동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무대공연작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배분 평가 기준 등을 새로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기금 배분 원칙을 대폭 개선하여 신청 대비 선정률이 70% 이상인 곳은 페널티를 부여하여 감액(5%씩 감액 반영, 2008년 4개, 2007년 1개 지역 해당)하고, 매칭률이 높은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증액(예산 범위 내, 2개 지역 해당)하였다.

지역배분형 사업에서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 발굴·육성과 시도 간 균형 발전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09년 중반, 예술위원회는 2개의 지역배분형 사업(98억 원: 〈지역문화예술지원〉 48억 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50억 원) 외에 새로이 3개 사업(92억 원)을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했다. 지역협력형 사업은 지자체가 매칭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중 문예진흥기금의 시도별 배분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을 말한다. 이 중에서 자체 기획사업(〈지역문화예술특화지원〉 7억 원)을 제외한 지역협력형 4개 사업(183억 원)은 지역 매칭액(255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8억 2,400만

원의 사업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2009년 중반에 새로이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한 3개 사업(92억 원)은 ① 1974년부터 추진한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50억 원, 〈시도기획지원〉으로 명칭 변경), ② 2006년부터 추진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35억 원, 수도권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시범 실시 일부 포함), ③ 시도 추천을 거쳐 심의·결정하고 예술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7억 원, 구 〈문화의달 행사지원〉 대체) 등이다.

2009년 지역협력형 사업에 대해 예술위원회는 각 시도, 지역문화재단 관계자와의 포럼 및 자문회의를 거쳐 2010년 이후의 사업 틀을 결정하였다. 먼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을 신설하고, 〈지역문화예술지원〉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으로, 〈시도기획지원〉과 〈지역문화예술 특화지원〉을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으로, 그리고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과 시범사업이었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으로 통합하였다.

지역협력형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은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한 사업이다. 소액다건과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이 혼재해 있는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 추진한 〈지역문화예술지원〉(소액다건 방식)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폐합한 사업으로, 통폐합 이전의 두 사업의 지원 방식이 남아 있는 셈이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은 문화예술 전 분야의 창작, 매개 및 향유활동, 전문예술단체와 동호인회 활동, 조사연구·컨설팅 사업 등 거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278억 1,300만 원(예술위원회 110억 5,100만 원, 시도 매칭)으로 6,216건을 지원하였다.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은 지역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지방문화를 육성하고자 각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사업을 선별, 지원하였다. 지역의 작가·예술가 집중 육성, 지역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의 창작과 발표, 지역 향토성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소재를 특화한 행사·페스티벌, 지원 대상과 방식이 혁신적인 기획형 사업, 지역 내 교류·지역 간 공동문화사업, 공공미술 등 문화환경과 연계된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되었다. 서울은 자체예산(2010년 34억 7,950만 원)으로 추진하고 기타 시도는 매칭 추진하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은 지역 예술활동의 토대가 되는 창작공간을 매개로 하여 예술창작과 지역 간 예술교류를 증진하며,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에 신설한 이 프로그램은 시도와의 매칭을 통해 1개소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레지던스는 일상 생활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가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나, 입주작가 간 선의의 경쟁과 교류를 통한 창작 의욕의 자극, 외부 평론가로부터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정확한 자기 인식, 지역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얻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예술위원회의 대표적 '선택과 집중' 프로그램으로 단년도,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6년에 도입한 〈공연예술(창작) 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3년 연속 지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업 실시 4년 차인 2009년에는 사업을 16개 시도에 이관하고 서울·인천 소재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을 시범 실시하게 된다. 이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 이른바 예술지원 4대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0년에 들어와서는 결국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을 폐지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을 신설하면서, 예산 규모를 60% 증액(106억 4,100만 원: 예술위원회 54억 3,800만 원, 시도 매칭)하여 170개 단체·시설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예술단체에 공연장·사무실·연습실을 제공하여 안정적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가동률과 이용률이 낮은 지역 문화시설에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각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문화시설 간에 시너지를 창출, 우리나라 공연예술 전반의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전국연극제 개최

〈전국연극제〉는 지역 연극의 균형 발전을 통한 한국연극의 발전을 위해 예술위원회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순회 주관하는 연극축제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 단체가 참가, 공연하며 대상(대통령상) 등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예술위원회와 한국연극

[표 8-17] 전국연극제 개최 지역(2006~2009)

2006	2007	2008	2009
경기도 (문화의전당 /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경상남도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인천광역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경상북도 (구미문화예술회관 등)

협회가 주최하고 매년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극협회 지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참가 단체는 15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극단이며, 비경연 참가로 해외교포 극단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전국무용제 개최

〈전국무용제〉는 지역 무용의 균형 발전을 통한 한국무용의 발전을 위해 예술위원회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순회 주관하는 무용축제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 단체가 참가, 공연하며 대상(대통령상) 등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예술위원회와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하고 매년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무용협회 지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참가 단체는 15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무용단이었다.

〈전국연극제〉와 〈전국무용제〉는 지역별로 예선을 거쳐, 시도의 대표단체가 모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서울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며 지역의 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이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 역량 제고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연극인·무용인의 창작 의욕 고취, 지역 연극·무용 활동의 활성화, 지역 연극·무용의 균형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된 전국연극제·무용제는 2009년 기준 각각 27회와 18회에 이르는 동안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역량 있는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하였다. 지역예술인과 개최 자치단체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06년부터 점차 업무를 두 협회에 이관함으로써 공동주최자로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연차적으로

[표 8-18] 전국무용제 개최 지역(2006~2009)

2006	2007	2008	2009
경상북도 (포항문화예술회관)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전당)	전라남도 (목포시민문화체육회관)	경상남도 (김해문화의전당)

이를 확대하여, 두 행사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두 사업을 지역 중심 시대에 맞추어 재평가하고 아울러 새로운 발전 기회로 만들기도 하였다.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지역문화지원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정책, 실행에 대한 공유 및 사업 개선 거점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협의체로서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2007년 10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표 8-19]와 같다.

2007년 12월 협의회 설립 이후 사무국 운영은 별도 법인 발족 전까지 예술위원회 내부에서 운영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회 의장을 맡고, 실무위원회는 시도 실무대표자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및 평가 등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정기총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지역문화정책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운영 등을 협의회 사업으로 정하였다. 또한 지역문화기금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 중개 등을 위하여 각 지역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설립 이후 협의회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지역협력형 사업 개발 및 평가 편람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 등 실시하고 지역협력형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활발하게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고, 문화예술 지원기관 협의체로서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및 사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표 8-19]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설립 과정

일정	내용
1999.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지역 이관 :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지방에서 기획, 집행되는 지역성 사업으로 중앙 심의보다 지역단위 시도에서 심의가 유리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관(지역문화축제지원 등 8개 단위 사업 약 800여 건), 이후 매년 38억 원씩 지원
2002. 12. 16.	전국문예진흥기금 관계자 회의
2003~2005	매년 전국문예진흥기금 관계자 회의를 통해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 활성화
2006. 12. 20.	16개 시도 문화예술과 관계자 및 문화재단 관계자 회의를 통해 협의회 회칙, 자료 등 검토 및 2007년 발족 협의 ※ 회의 결과 :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 내에 문화예술 지원 업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조직을 설치하여, 더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
2007. 4. 13.	2007년도 지역문화소위원회 개최, 운영 방안 검토
2007. 5. 4.	제32차 위원회 회의에 동 내용을 보고 및 논의 ※ 주요 논의 결과 : 협의회 명칭 '전국' 혹은 '한국'에 대해 좀 더 숙고토록 하며, 출발은 임의단체로 하되, 법인화를 지향함. 또한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장은 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맡을 것을 권함.
2007. 10. 24.~25.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제주, 그랜드호텔 아메티스트홀)

7. 2000년대 후반 예술가치 확산사업의 추진과 성과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지난 60여 년간 국민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국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되는 행복 관련 조사통계에서는 우리 국민은 항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예술은 손꼽아 세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미키 마우스 손가락이 몇 개인지 모르고, 한강 다리의 교각이 몇 개인지 모르듯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엔 성공했지만 이제는 '생명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
> -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움직임(movement)이 필요한 이유이다. 예술은 대중의 느낌과 사상, 가치를 일깨우게 함으로써 사회를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식기반사회의 성장 동력은 창의성이며, 창의성의 핵심이 예술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가치 증진 및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하며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이미지 제고 프로젝트 추진,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부심하였다.

[표 8-20] 2006~2010년도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1,434	6,548	6,914	7,314	15,443
- 문화예술 이미지 제고 / 문화예술 홍보	(297)	(297)	(386)	(877)	(386)
- 문예연감 등 문화예술서적 발간	(393)	(468)	(492)	(위 통합)	(486)
- 기부금 사업	(N.A.)	(5,380)	(5,647)	(6,048)	(14,245)
-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432)	(403)	(389)	(389)	(324)
- 1사1예술단체운동 / 기업과 예술의 만남	(300)	(-)	(-)	(-)	(-)
- 예술나눔 기부활성화 / 예술나무운동	(-)	(-)	(-)	(-)	(-)
-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12)	(9)	(5)	(22)	(24)
예술조사연구 및 보전활용	2,706	1,798	1,798	1,285	737
-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997)	(598)	(598)	(598)	(737)
- 예술보존조사연구사업	(1,709)	(1,200)	(1,200)	(687)	〈창작매개활동지원으로 이관〉
계	4,140	8,346	8,712	8,599	16,180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1.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문화예술 이미지 제고 프로젝트

〈문화예술 이미지 제고 프로젝트〉는 생활 속에 예술이 스며들어 삶의 질이 높아진 다양한 사례를 국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술을 통한 삶의 풍요를 부각시켜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공익 캠페인 성격의 사업이다.

2007년 10월 KBS(한국방송공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예술에 대한 고정적 관념을 벗어나 시대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예술의 저력을 발견해 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였고, MBC(문화방송)를 통해서도 같은 주제로 예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창의적이고 성숙하고 열린사회로 향하는 키워드로서 "예술"의 가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전문방송 아르떼TV를 통해서도 예술위원회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매거진, 위원회사업 집중 소개, 기부캠페인), 〈예술위원회 Special Zone〉을 편성 제작 방송하였다.

2008년에는 아르떼TV와 포괄적인 협력관계(MOU 체결)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기부캠페인, 〈Arko Special 문화충전ing〉 등을 방송하였고 EBS(한국교육방송공사)와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2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였다. 또한, 2009년에도 MBC 《예술산책 줌인》에 매주 금요일(첫 방송일 2009. 6. 12. 17:20~17:35, 24주간) 문화예술 이미지 제고 프로그램을 방송한 바 있다.

이들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와 평가원으로부터 "열린 형식과 구조로 다양한 문화 환경을 이야기하는 기획과 구성은 특히 신선하게 느껴진다. 유명인사가 추천하는 문화정보를 따라가는 것도 이색적이고, 그 문화 이벤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양한 문화 아이템을 함께 돌아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시도이다. 문화라고 하면 무언가 어렵고 지루하다거나 무겁다는 선입견을 먼저 떠올리는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정말 문화 속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처럼 편하게 다가서는 재미를 잃지 않고 있어서 반갑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하기도 했다.

문화예술서적 발간 : 『문화예술』 폐간 및 《아르코 웹진》 발간

1974년 문화예술 분야 종합전문지로 창간된 『문화예술』지는 문화예술 분야의 이론·학술적 영역의 학제 간 연구개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특성화 매체로서 기획기사 위주의 전문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월간으로 발행하던 『문화예술』은 2006년 5월호부터 계간으로 발행주기를 변경했다가 통권 330호인 2008년 가을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고, 《아르코 웹진》과 통합하여 예술위 사업, 예술정책 현안, 국내외 문화예술계 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DB형으로 격주 발간하였다.

『문화예술』지의 폐간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총발행 부수 2,500부 중 1,300부를 유관기관 및 공동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그 외 보관 및 내부 활용본을 제외한 책자를 판매함에 따라 유가지(有價紙)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익은 미미했다. 또한 계간 전환 이후 책값 인상(4천 원→1만 2천 원)과 기획기사 위주의 개편에 따른 대중성 약화, 지역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기관의 무가 기관지 등 발간물과 대부분 기관이 발간하는 뉴스레터 또는 웹진의 증가 등에 따라 판매실적 부진이 지속되었다. 판매 부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문화예술』지의 정보 가치에 대한

독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폐간하고 그 기능을 《아르코 웹진》에 흡수 통합하여 기관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

『문예연감』 발간

1976년부터 발간한 『문예연감』은 국내 유일의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종합 통계 및 분석서로, 문화부가 2001년부터 발간해 온 『문화예술정책백서』와 함께 우리나라 문화예술사의 주요한 기초자료이다. 『문예연감』은 지난 1년간의 우리나라 문화예술 활동의 총량을 수집·정리·분석하고, 해당연도 예술장르별 동향과 북한 문학예술계 동향을 분석 제공한다. 매년 700부를 발간하며 편람 부분은 시디롬(CD-ROM)으로 별도 제작하였다.

문화예술기획 시리즈 발간

사회문화적 이슈 등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기록과 진단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예술 환경 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2개년간 〈문화예술기획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표 8-21] 문화예술기획 시리즈 발간 내역(2008~2009)

서적명	발간연도	저자명
지역예술운동	2008	잰 코언-크루즈(권영진 역)
공공성	2008	김세훈, 김정수, 양현미, 이기호, 이준형, 현진권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2009	이영범
한국의 예술 지원사	2009	류주희, 박남수, 송지원, 우인수, 조규희, 박홍갑

예술위원회는 예술활동의 지식기반 구축 및 예술지원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간 『문화예술』, 『문예연감』, 문화예술기획 시리즈 등 문화예술 서적 발간을 통해 예술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당대 예술 현상을 전달·분석함으로써 예술의 성취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예술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문화예술서적을 발간하여 위원회 지원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원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기관 이미지 제고와 위상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추진

기부 프로그램 운영 개선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1973년부터 문화예술 기부금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화예술 분야 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원 재원 다각화 및 기업과 개인의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기부금 사업은 〈아르코 비전 2010〉에서도 주요하게 언급된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적인 문화예술 지원 플랫폼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예술위원회는 기부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부제도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기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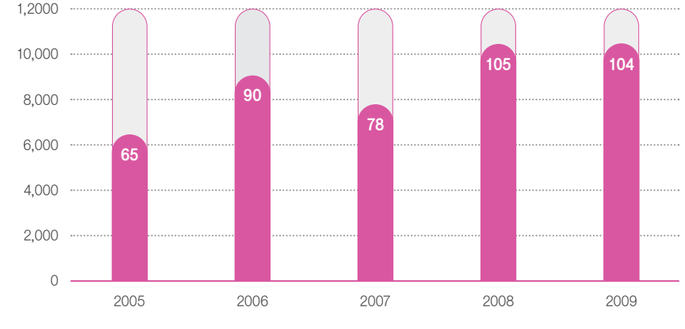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사업은 타 기부금 단체와 달리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된 기부금으로 수수료 및 관리·운영비용 없이 전액 수혜자에게 전달된다. 둘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 기부금 손비 처리/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인정). 셋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표 8-22] 기부 프로그램 운영 개선

구분	내용
기부제도 프로세스 개선	•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기부금의 사용에 관해 기부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 •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기부자 네트워크 커뮤니티 형성 • 기부제도 매뉴얼 등 편의성 제공 • 운영 절차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기업과 수혜자를 연결 • 펀드레이징 교육과정 개발 • 기부 관련 조직의 구축 • 기부 관련 법제 개정 노력
기부제도 홍보 강화	• 사회 공공성 측면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통한 인식의 전환과 기부문화 확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기부 사례 홍보
기부 프로그램 발굴	• 기부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비전의 제시 • 예술단체 예술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 미션에 부합하는 기부금 개발 • 기부자 간 경쟁적인 시상제도 도입 • 소액부터 다액까지 다양한 기부제도 개발 •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 개발 • 생명보험 상품을 통한 사회 환원 유도 • 촉망받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예술장학금) • 예술나눔사랑 기부 운동 등

[그림 8-7] 기부금 유치 현황(2005~2009)

(단위 : 억 원)



장점인데, 예술위원회는 1973년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특례기부금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림 8-7]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부금 유치실적이며 해당 기부금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지원되어 문화예술진흥, 지역 문화예술 발전,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예술인 창작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되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협력이나 결연 등에 의한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예술단체 간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을 유지·발전하게 함으로써 예술단체의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994년 4월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의회 주관으로 2006년 시행된 사업이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기업의 결연 예술단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및 지원, 기업 및 예술단체 협력사업 추진, 기업·예술단체 간 매칭시스템 등이며 사업비로 3억 원이 지원되었다. 2006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된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2012년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운동인 〈예술나무운동〉이 시작되면서 2013년 문화예술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부활하게 된다.

3. 예술조사연구 및 보전 활용

기초예술정책 연구조사

기초예술정책 조사·연구를 통해 예술위원회 정책형성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사회·문화적 이슈에 관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냄으로써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관 운영에서 조사연구 기능은 기관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기능과 역할을 개척하며, 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기관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예술위원회의 정책조사연구 기능은 1987년 2월 25일 문화발전연구소를 통해 추진돼 오다가 1994년 7월 1일 연구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분리 독립됨으로써, 연구소가 추진하던 문화정책연구, 조사연구사업, 외국 문화정책 연구, 문화통계조사, 북한문화예술연구 등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다.

연구소의 분리 독립은 단순한 기능 이전을 넘어 예술위원회가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개발하고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줄어들고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단순 지원 중심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이후 예술위원회 조사연구 기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10여 년간 침체를 거듭하던 정책연구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는데, 2008년 1월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연구실을 신설하고, 이 부서에 석사급 이상 전문위원 4명을 신규 배치하여 조사연구 기능을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과제는 외부 연구단체를 선정하여 연구의뢰를 하는 용역연구와 내부 직원(전문위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자체연구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용역연구와 자체연구를 합해 2008년 13건, 2009년 11건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연구 성과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정책포럼,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1994년 문화발전연구소 분리 독립 이후 침체되었던 예술위원회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예술보존조사연구 사업

〈예술보존조사연구사업〉은 소중한 예술 유산과 자료의 구축, 기록 보존 등 예술의 유·무형적 토대 강화 및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 등 현장 비평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이며, 발간사업,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연수 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다.

[표 8-23] 예술보존조사연구 사업 세부 내역

구분	내용
발간사업	• 문화예술 관련 문헌, 시청각 자료의 신규 집필·개발 및 연구·평론 자료 발간 • 문학 분야 주요 기간단체 기관지, 사화집 발간 • 시각예술 전문저널 특집 기획 프로젝트 • 공연예술 분야 단체 기관지발간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연수 사업	• 문화예술 전문 학술단체 세미나, 워크숍 및 학술지 발간 등 연구 활동 • 기획 워크숍 프로젝트 및 전문 인력 육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정보화 사업	• 웹, IT 및 인터넷 활용 온라인 문화예술 정보화 사업

[표 8-24] 예술보존조사연구 분야별 지원 내역(2006~2009)

(단위 : 백만 원)

분야	2006	2007	2008	2009
문학	380	250	100	47
시각예술	280	190	190	88
연극	138	130	130	78
무용	120	120	120	64
음악	170	140	140	64
전통예술	400	220	220	93
문화일반	220	150	150	66
계	1,708	1,200	1,050	500

8. 2000년대 후반 문화시설 운영사업의 추진과 성과

문화예술시설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초예술의 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거점 공간을 확충하고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4개 공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르코 비전 2010〉에 의해 2007~2009년에는 성과목표를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라고 표현했으나, 2010년에 '문화예술 공간 운영'으로 바뀌었다. 2006년 예산 편제에서는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중 '지원시설 운영'에 해당한다. 2010년 기준 전략목표 '문화예술 공간 운영'이 불규칙한 비율을 보이는 것은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 및 운영〉의 불규칙한 예산 편성, 2010년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정보관, 대학로 복합공연장(대학로예술극장)의 분리 독립, 1974년부터 지원한 예총, 1988년부터 지원한 민예총 등 이른바 기간문예단체에 대한 고착형 지원사업(〈기간문예단체지원〉)을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1. 〈예술전용공간지원〉으로 간접지원 확대·강화

〈예술전용공간지원〉은 예술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장르별 전용공간과 연습공간 확보 및 운영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기초 인프라의 거점 확충 및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작가를 위한 창작집필 공간, 전문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학관, 연극·무용·음악 분야의

[표 8-25] 2006~2010년도 〈문화예술공간 운영〉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술현장의 기반조성 - 기간문예단체(예총·민예총) 지원 - 예술전용공간(문학관·소공연장및기타) 지원	2,000 (1,160) (840)	2,542 (1,102) (1,440)	2,842 (1,102) (1,740)	2,897 (990) (1,907)	(폐지)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개편
예술극장 운영 - 예술극장 운영 - 예술극장 기획프로그램 운영	2,424 (2,118) (306)	2,214 (1,909) (305)	2,218 (1,621) (597)	2,148 (N.A.) (N.A.)	분리독립 (2010. 7.)
미술관 운영 - 미술관 운영 - 미술관 기획프로그램 운영	1,586* (725) (861)	1,138 (477) (661)	1,280 (551) (729)	1,155 (N.A.) (N.A.)	1,049 (361) (688)
예술정보관 운영 - 예술정보관 운영 - 예술정보관 기획프로그램 운영	1,388 (428) (960)	1,279 (349) (930)	1,415 (438) (977)	1,415 (N.A.) (N.A.)	분리독립 (2010. 3.)
예술인력개발원(문화예술연수원) 운영 -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 예술인력개발원 기획프로그램 운영	1,347 (525) (822)	1,270 (418) (852)	1,600 (510) (1,090)	1,600 (N.A.) (N.A.)	1,201 (502) (699)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 및 운영	3,071	(-)	(-)	1,548	20,051
계	11,816	8,443	9,355	10,763	22,301

* 인사미술공간 운영비 178백만 원, 프로그램비 200백만 원 포함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표 8-26] 2010~2013년도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	9,440	2,830	3,180	3,814
- 문학창작집필실지원	(1,600)	(400)	(400)	(300)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1,900)	(1,000)	(1,200)	(1,764)
-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4,940)	(1,000)	(1,000)	(1,100)
- 다원예술매체공간지원	-	(230)	(230)	(300)
- 예술가소통공간지원(예술가의집)	(1,000)	(200)	(350)	(350)

자료 : 2006~2013년도 〈예술 창작역량 강화〉 사업 총괄에서 일부를 옮겨 붙임.

전용 소공연장, 기타 연습실, 스튜디오, 창작 및 공연(연주) 복합공간 등 공연예술 전용공간 등이며, 민간 예술전용공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예술전용공간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다.

〈예술전용공간지원〉은 이명박 정부의 '간접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2010년 사업부터 예산 편성 위치를 바꿔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2010년 지원액 94억 4,000만 원)을 신설하게 되었다. 기존의 〈예술전용공간지원〉(2004~2009)은 〈예술전문소극장지원〉(2002), 〈무용전문소극장지원〉

(2003)을 이어받은 사업이다. 문학관과 소공연장 및 기타 공연예술 전용공간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단년도 사업이었는데, 〈예술전용공간 활성화지원〉은 지원 분야가 넓어지고, 1차년도 지원 결과를 평가하여 2년 연속 지원한다.

집필공간 제공과 문인들 간의 네트워킹

전략목표 '예술 창작역량 강화'에 속해 있는 이 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분야 공간지원과 함께 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건물을 '예술가의집'으로 리모델링하여 예술가 소통공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문학창작집필실지원〉은 작가에게 집필공간을 제공하고 국내외 작가·평론가와의 상호 교류, 네트워킹, 외국작가 초빙 레지던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문학창작(집필)공간을 운영하는 단체나 개인을 통해 지원한다. 2010년에는 문학 분야 예산 중 11억 6천만 원이 이·전용되어 이 중 10억 원이 공연 분야 임차료 지원에 추가됐으며, (재)토지문화재단(원주시), (재)백담사만해마을(인제군), 글을낳는집(담양군), 부악문학관(이천시) 등 6곳에 3억 원을 지원했다.

시각예술·공연예술 창작공간 지원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지원〉은 창작 및 전시 공간과 각 공간의 우수 기획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등 31곳에 9억 원, 2011년에 '사비나미술관' 등 37곳에 10억 2,000만 원, 2012년에 '스톤 앤 워터' 등 36곳에 10억 2,100만 원을 지원했다. 〈공연예술 전용공간지원〉은 공연예술 활동의 거점을 확충하고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민간 연극전용 소극장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무용·음악·전통예술 전용공간의 운영을 지원하고, 복수의 예술단체가 창작·발표 공간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를 지원한다. 2010~2012년 운영지원은 '더 하우스 콘서트' 등 80곳에 30억 8,180만 원, 임차지원은 2010년 '김달진미술연구소' 등 13곳에 51억 2,500만 원을 지원했다.

예술 실험공간과 예술 소통공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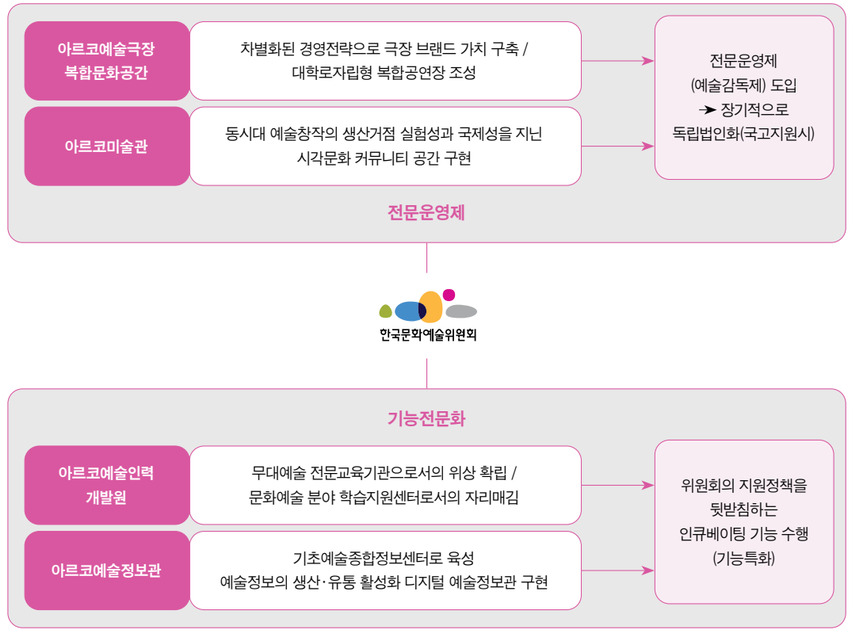
〈예술가 소통공간지원〉은 예술가와 예술인단체, 예술후원 기업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소통공간인 '예술가의집' 운영 사업이다. 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예술가의집'은 예술위원회가 2010년 5월 구로구 새말로(구로동)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대학로 구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에게 개방한 것이다. 1층은 창작지원실, A&B(Art&Business)센터, 예술인 카페,

전시공간인 열린공간 통(通), 쉼터 겸 야외공연장인 맞이공원(뒤뜰, 478m²), 2층은 국립예술자료원 분관인 영상감상실·예술자료실, 명예의 전당, 3층은 다목적홀(110석, 189m², 통역실 구비), 20석·16석·8석 규모의 세미나실 1·2·3으로 구성돼 있다. '예술가의집'은 예술인 간접지원 차원에서 다목적홀과 세미나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하는 한편, 활발히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공간 운영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은 모두 4곳이 있는데, 2005년 8월 위원회 전환 이후 어떤 조직보다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오랜 기간 익숙하게 불리던 시설 명칭이 모두 바뀐다. 예술극장은 아르코예술극장, 마로니에미술관은 아르코미술관, 예술정보관은 아르코예술정보관, 문화예술연수원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림 8-8] 예술위원회 운영시설 혁신 방안



이어 제1기 예술위원회 출범 이듬해인 2006년에 선포된 전략계획 〈아르코 비전 2010〉에서는 경영 부문 4개 전략목표 중 하나로 '문화예술시설 혁신'을 설정했는데, 핵심과제로 극장과 미술관은 전문운영제를 도입하고, 연수원과 정보관은 기능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9]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의 사업은 크게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예술교육 프로그램, 무대전문인 교육, 극장 운영서비스, 시설관 등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아르코예술극장의 핵심사업은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이다. 기획공연은 극장 고유의 미션을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극장의 특징적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극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준다.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대중 취향적인 연극이 비중을 더해가고 있는 대학로 연극 공간에서, 아르코예술극장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통 연극의 새로운 경향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술극장이 지향하는 미션에 부합하는 컨셉의 브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르코예술극장의 인지도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활성화하여 극장의 본 기능인 좋은 공연과 관객의 자발적 만남이 강화되어 극장의 인지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하여 극장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개별공연에 대한 기획공연을 추진하기보다는 명확한 컨셉에 따른 여러 공연을 묶는 '기획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여 기획의도의 참신성을 명확히 알리고 극장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의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우수공연 유치를 통한 극장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대관 중심 극장에서 기획 대관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기획공연의 경우, 공연예술계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또는 선도할 작품(공동제작 Arko Presents), 우수한 공연작품, 극장의 브랜드가치 상승을 유도할 작품(공동기획 Arko Partner), 젊고 신선한 예술가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 공연 예술현장의 활력소가 될 작품(새로운 도전 Arko Challenge), 공연예술계의 활로 제공 및 가능성 있는 공연작품에 대한 공간 지원(기획대관Ⅰ, Ⅱ Arko Choice) 등으로 분류하여 극장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유형별 기획공연 추진을 통한 우수공연, 신진육성 등 다양한 공연계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했다.

9.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산하시설을 독립 법인화하게 되었는데, 먼저 예술정보관이 2010년 3월에 국립예술자료원으로 독립 재단화하고, 7월에는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대학로 복합공연장)이 독립 재단화하여 한국공연예술센터로 통합됐다. 관련 내용은 9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는 2007년 연극적 상상력에 기초한 〈연극놀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의 창조적 표현력 향상과 예술과의 교감을 통해 예술적 잠재력의 조기 개발 및 미래 관객 개발에 기여하였고, 〈상·하반기 어린이연극놀이교실〉과 〈예술극장·미술관 공동기획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8년 〈어린이연극교실〉에는 겨울특강, 봄, 가을 프로그램 등 3회에 140명이 참가하였다.

무대전문인 교육으로는 문화예술 관련학과를 졸업한 미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신진무대예술인(인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연장에서 현장도제식 교육과 실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턴 7명(무대기술 5명, 공연장 운영 2명)을 채용하고 공연계에 필요한 무대기술 스태프 및 공연기획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관객리포터제〉를 운영하여 리포터 14명로부터 총 123건의 리포트를 제출받아 극장 홈페이지 제작과 관객 대상 공연관람예절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였다. 다중이용 문화시설임을 감안하여 2007년 휴관기간을 활용해 대·소극장 조명 기자재, 음향 콘솔 및 대·소극장 내외부 방수공사 및 무대 덧마루 교체, 무대 흑막 보수공사 등으로 공연장 시설을 개선하여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옥상 다목적 공간 신설 등 주요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였다.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 : 대학로예술극장 개관



대학로예술극장
2009년 6월 11일 대학로예술극장이 개관되었다.
이 극장은 2010년 7월 아르코예술극장과 함께 한국공연예술센터로 분리 독립하게 된다.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사업〉은 공연예술의 메카 대학로에 부족한 중·소규모 공공공연장의 신축 운영으로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접근 기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정부의 새 예술정책 '대학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4년 5월 시작되었으며, 대학로에 민간이 추진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중·소 공연장 2개 및 상가를 조성·운영하는 내용이다. 대학로예술극장의 시설 규모는 부지 2,243m²(678.51평), 연면적

8,585.08m²(2,596.9평)에 객석 수는 중극장 504석, 소극장 254석에 이른다. 주요시설로는 소극장(지하 3층~지하 2층, 252석, 332.2평), 중극장(지상 2층~지상 4층, 504석, 474.8평), 상가(39개소) 등이며, 상가 임대면적은 627.9평(전용면적 기준)이다.

대학로예술극장의 개관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예산 부족은 물론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타당성 재검증, 우기와 관련한 현장 안전성 문제, 착공 지연에 따른 기분양계약자 및 주변 상가의 민원 증대 등이 있었으나, 착공 4년 8개월만인 2008년 12월 29일 준공식, 2009년 6월 11일 개관식을 각각 거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완료할 수 있었다.

대학로 일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소극장과 곳곳에 새로이 지어지고 있는 상업성 공연장 틈에서 대학로예술극장의 개관으로 인해 작은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2005년 5월,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소수의 극장을 제외한 중규모 이상의 공연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중·소 공연장이 고르게 공존하면 소극장에서 훈련된 연기·연출·제작기획 등이 중극장으로 발전하고, 또한 대극장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학로예술극장의 개관을 계기로 기존의 대학로 공연 지형도에도 반가운 변화가 예상되었다. 2004년 문예진흥원(예술위원회)과 문화관광부가 인수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건축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거쳐 설립된 대학로예술극장은 그간 공연예술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대관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대관료 및 지원 대관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공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다양한 아티스트와 참여 예술기관과의 교류를 형성하여 활발한 창작 및 작품을 발표하고(Presenting), 이를 통해 유통과 관객 참여를 이끌어내며(Connecting), 예술단체·공연장·제작자 등을 조직화(Networking)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또한 예술사회 교육프로그램 및 공연예술 워크숍 등을 통하여 아티스트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은 물론 적극적인 관객 개발에도 힘썼다.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미술관은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 35개 중 유일하게 당대의 새로운 시각예술을 다루는 전시 중심형 공공미술관이다. 국제적이고 실험적인 분야로 특화한 전시와 교육·연구 기능을 통해



아르코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아르코미술관이 개최하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회교육프로그램은 놀면서 배우는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 어린이가 미술이라는 분야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 대상 건축학교 수업 장면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관객에게는 새로운 관점의 시각예술을 감상할 기회를 부여해 왔다. 아르코미술관 사업은 크게 전시, 전문교육, 사회교육, 관객 개발 프로그램, 대관, 아카이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7년에는 전시감독제 시행에 따른 미술관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조직 시스템 정착에 주력하였고, 기획전시 참여예술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미술관 전시강화 및 고객만족경영을 추구하였으며, 다양한 교육과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한 미술관의 공공·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중이용 문화시설이므로 지속적인 시설 보수 및 편의 공간 확충을 통한 미술관 관람객 편의시설 제공으로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미술관의 핵심사업인 기획전시의 방향을 점검하고 객관화할 효율적인 시스템(외부 공동 기획, 외부 자문기구)을 구축하여 아르코미술관의 일관된 전시 개념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교류전, 중진작가초대전, 주제기획전, 대표작가전, 임대프로젝트, 국제스튜디오 프로그램 귀국보고전, 독립·신진큐레이터 육성프로그램 결과보고전 등 다수의 전시를 개최하여 57,525명이 관람했다. 2008년에도 《트랜스 POP: 한국·베트남 리믹스》, 《이미지연대기》, 《고우영 만화전》, 《윤석남: 사람과 사람없이》, 《피클 속 핸드백 두 개(욘복)》 등 기획전시에 56,922명의 전시관람객이 미술관을 다녀갔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미술교실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과 외부 위탁 공동교육 프로그램, 큐레이터 교육프로그램(C.T.P), 기획전시 연계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미술관 전시를 통해 교육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는 인사미술공간을 “2000년도에 개관하여 창의적 미술 언어의 생산자들을 위한 대안적 성격의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인사미술공간은 여러 차례 운영 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 동시대 미술 현장의 역량 있는 신진 작가와 기획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시를 기획해왔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르코미술관이 통합 관리하는 인사미술공간은 다학제적(多學際的)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인미공 창작소’와 신진 기획자·작가를 위한 워크숍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사미술공간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유일한 대안공간으로서, 상업 갤러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실험적 성격의 전시를 지원하였다.

아르코예술정보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

국내 최초의 예술자료 종합 아카이브인 아르코예술정보관은 예술 분야의 기록 및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예술기록유산의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예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예술사적, 학술적으로 가치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예술 창작과 교육, 연구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아르코예술정보관 사업은 크게 예술콘텐츠 수집 및 제공, 예술콘텐츠 정보화,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술콘텐츠 수집 및 제공은 자료구입과 자료수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료구입은 단행본, 영상자료, 음향자료, 전자정보, 전자책 등을 구입하고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국내, 일본/중국, 서양) 체결 및 학술정보 DB를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구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지가로부터 자료를 기증받는데 2007년 창악회 기증 자료 400종 4,800건, 고 김영태 유품 자료 5,831점, 공연대본 및 영상자료 634편, 공연포스터 및 팜플렛 수집 146점 등을 기증받아 자료화 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술콘텐츠 정보화는 사이버 예술정보관 시스템 기능 개선, 예술정보관 소장 비도서 자료 메타데이터 D/B 구축, 희곡 온라인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또한,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굴곡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자료와 단절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원로예술인의 삶과 예술관을 생생하게 담아낸 구술기록은 당대 예술계의 풍경, 예술사조, 인적교류, 작품세계 등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은 고전음악강좌와 같은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강좌 이용자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구 사리현동)에 소재하고 있다. 행정동이자 교육장·숙소인 창조관, 무대미술스튜디오, 블랙박스형 교육용 공연장인 실험무대로 구성돼 있다.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사업은 크게 무대예술전문 장단기 연수, 문화예술특화교육, 찾아가는 교육, 위탁협력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공연예술아카데미〉는 무대·공연예술 분야의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대·공연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기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는 2년 4학기제, 학기당 15주 강의, 학년별 정원 65명으로 운영된다. 교육 분야는 무대미술,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의상, 연기·춤, 비평·극작, 연출·안무 등 총 7개 분야이다.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교육 장소는 예술인력개발원(고양시)과 대학로 강의실에서 병행한다. 2008년에는 1학기 79명, 2학기 69명으로 총 148명이 수강하였고, 2009년에는 1·3학기 52명, 2·4학기 43명으로 총 95명이 수강하였다.

단기프로그램인 〈문화예술특화교육〉은 무대예술인, 문화예술기획자(활동가), 문화예술행정 관련 실무 종사자 등 무대 현장인력의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재교육으로 특화, 전문화된 예술현장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위탁협력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행정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과정이다. 〈위탁협력교육〉은 비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교육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위탁기관에서 부담하고 예술인력개발원은 교육기획과 진행을 맡는다. 문화예술 행정 능력 배양과 예술 체험, 현장 방문 등의 구성으로 연간 4회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80명, 2009년에는 4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찾아가는 교육〉은 전국을 대상으로 무대예술 전문(무대미술,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및 문화예술 소양(문화정책, 예술행정·예술경영, 예술현장체험 등) 과정의 교육 수요자를 방문하여 현장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문화예술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09년에는 구미, 김해 지역 무대예술인과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 대상으로 3회 운영하여 총 85명이 참여하였다.

PART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史

2010년대,

9. 예술생태계를 위한 지원방식의 다각화

1. 2010년대 문화예술 정책환경
2. 2010년대 위원회 활동과 기관운영의 추진성과
3. 201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4. 201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5. 2010년대 문화향유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6. 201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7. 2010년대 예술가치 확산사업의 추진과 성과
8. 2010년대 문화시설 운영사업의 추진과 성과
9. 2010년대 국고·타 기금 수탁사업 추진과 성과

1. 2010년대 문화예술 정책환경

2010년대는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후반기, 박근혜 정부(2013. 2.~2017. 3.), 문재인 정부(2017. 5.~2022. 5.) 전반기에 걸친 기간이다.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류 선진국가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로 채택되어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정책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을 신호탄으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간신히 기력을 차릴 즈음인 2011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2차 충격을 받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제적 위기의 여파로 국민 문화향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조치를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공감형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는 등 위기 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와 계층 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문화향유와 소비에 있어서 계층 간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 실제로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문화예술 활동 참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감소 경향은 문화예술 관람, 체험, 교육 등 제반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에 따른 문화향수와 소비의 양극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 소외계층의 상대적 소외감이 사회갈등으로 확대되어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충하여 문화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득과 지역에 따른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문화향유 취약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저소득 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누리카드)〉은 이명박 정부 때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67억 원에서 2011년 347억 원으로 예산이 5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증가 추세는 이어져 1인당 연 5만 원이었던 지원액이 2023년 12월 현재 연 11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었다.

한편 2010년 11월 원맨 밴드 '달빛요정만루홈런'의 이진원과 2011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죽음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복지사업은 대부분 지원예산이 소액일 뿐더러 복지대상의 범위가 극히 일부 분야의 예술인과 연령대에 국한됨으로써 사실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 여건에 맞춘 복지모델을 도입하고, 예술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을 확립하는 등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예술인복지법」은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 시행에 따라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2년 11월 19일 특수법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방식의 혁신과 지역협력사업의 확대, 그리고 산하조직의 독립 및 청사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방식 개선안의 내용은 지역협력형 사업의 확대와 함께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 이른바 4대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한편 예술위원회는 2010년 3월과 7월에 예술정보관과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학로예술극장을 (재)국립예술자료원과 (재)한국공연예술센터 등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켰다. 같은 해 5월에는 2014년 나주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34년간의 대학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구로구 구로동(새말로) 임시청사로 이전하였다. 대학로 구 청사는 예술가와 예술인단체, 그리고 예술을 후원하는 기업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예술가의집'으로 리모델링하여 개방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로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년여간 지속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 모델에서 벗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하며,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문화를 국정기조로 명시한 최초의 정부가 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정책은 여러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 여러 정책을 포섭하는 메타 정책으로 그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역대 정부들이 국정철학의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 등 거시조직을 강조한 데 반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은 그 대상이 개인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을 조정하게 되는데 문화정책과 예술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국을 개편하여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으로 분리하고, 디지털콘텐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산업과 폐지,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정책실 신설,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새 정부 4대 국정운영 기조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정책자문 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를 2013년 7월 25일에 출범시켰다.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문화예술계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 19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20인으로 출범하였으나, 참여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참여하여 위원 정수를 35명 이내로 확대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 문화예술·전통문화·문화산업·문화가치확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한다는 설치 목적에 따라 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전략과 정책 수립, 범정부적 협력,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에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위원회는 출범 후 2013년 8월 13일부터 전국 9대 권역 지역문화현장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문화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13년 10월 25일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융성정책 〈'문화가 있는 삶' 8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이 추진되었다.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학진흥법」 등이 제정되고, 또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공연법」 등 주요 법률이 개정되었다. 특히 「문화기본법」 제정은 문화예술 관련 법률이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범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을 구현하고, 문화의 개념을 국민의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참여정부 때 법률 제정을 추진하다 중단되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1월에 제정됨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29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문화기본법」에 시행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써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민의 문화 참여 비율이 높은 영화를 비롯하여 박물관·미술관·고궁·문화재 등 국·공립 문화시설, 연극·뮤지컬 등 공연프로그램 및 프로 스포츠까지 대폭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강연·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도서관은 도서 대출 권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혜택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들이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각종 정부 지원사업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정권 차원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이자 비민주적인 적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예술계의 올바른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여간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관련 사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술정책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규명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 3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2018년 7월 공개심의제·심의참관제를 도입하여, 예술 지원사업의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2020년 5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호선제도를 도입하였고, 위원 선임에 있어 현장예술인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등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술위원회 내 현장소통 소위원회(외부 민간위원 8인 위촉)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예술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16일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고 문화비전을 구체화한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도 함께 발표했다. 2017년 12월 7일에 발표된 문화비전 기조에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토론회, 포럼, 지역인 집담회 등 8,000여 명이 참여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거쳐 9가지 정책의 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 등을 담아 〈문화비전 2030〉이 만들어졌다. 문화비전을 구체화한 새 예술정책에서는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3대 가치인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예술 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예술정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향후 예술정책 기본방향으로 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②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③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④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을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복지를 강화하였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확대하였고, 새롭게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예술인을 위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민간 공연단체 공연연습공간 조성, 시각예술 전시공간 지원 등 다양한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예술인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전격적으로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앞서 예술인의 생활안정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도입하여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도 다양하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2017년 연 6만 원에서 2022년 연 1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자도 크게 증가하였고 자동 재충전 제도 및 모바일 앱 운영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8년 5월에는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제1차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9년 4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되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었다. 특히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 '예술인의 미래', '예술인 권리보장의 심화' 등 3가지를 기본 축으로 하여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2010년대 위원회 활동과 기관운영의 추진성과

1. 제3기 예술위원회의 운영성과(2010. 11.~2012. 12.)

예술위원회는 2010년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과 경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은 2011년 1월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공개 발표했다. 강도 높은 경영혁신과 사업개편, 그리고 전 직원의 동참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 점수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전년 대비 5단계가 상승하고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에서도 1단계가 상승한 것이다. 이후 제3기 예술위원회가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추진한 일들과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 심의 및 관리 시스템 개선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2011년 2월 「문예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보조사업 운용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2월과 3월에는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보조금 운용지침, 보조금 교부 및 정산절차를 안내했다. 동시에 보조사업 정산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보조사업자 1:1 상시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8월에는 지원 및 심의제도에 관한 각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지원공모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공모설명회〉를 전국 5대 광역시에서 개최하였다. 2기 책임심의위원(책임심의관, 2011. 3.~2012. 2.)으로 8개 분야 38명을 임명하면서 심의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무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심의기피 이행 및 공정심의서약서'를 받았다. 계약 위반 시에는 10년간 심의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 재원 발굴

2011년 5월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개정이 이루어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건축주가 원할 경우,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됐다. 〈선택적 기금제〉는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당시 미술장식제도)는 리베이트 관행, 중개업자의 횡포, 신규 건축물 준공 지연, 사후관리 부실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관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택적 기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1] 도입은 미술작품이 건축물에 설치됨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선택적 기금을 선택할 경우, 개별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면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고 선택적 기금제에 의해 납부되는 기금은 문예진흥기금으로 별도 적립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도시 미관과 잘 어울리는 광장 및 공원 등에 '랜드마크'형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 조성을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과 기금재원 발굴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2]

이와 함께 제3기 예술위원회는-비록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방송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등 타 기금(재원)으로부터의 전입 노력을 계속했다. 한편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정착되면서 2010년을 〈문화예술 분야 기부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정하고 이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예술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은 2009년 102억 3,582만 원, 2010년 134억 3,509만 원, 2011년 149억 319만 원, 2012년 147억 2,548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지원 대상을 지정하여 기부하거나 지역

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연면적 1만m^2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용(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선택적 기금제〉)하도록 한 제도이다.
2. 〈선택적 기금제〉는 도입 첫해 2건, 1억 4천만 원에 그쳤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76건, 81억 3천만 원이 출연되는 등 2019년 말 현재 총 313건에 313억 6천2백만 원이 적립되었다.

축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기부하는 조건부 기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3]

SNS를 활용한 문화예술의 소액기부제 〈크라우드 펀딩〉

순수 기부금이나 개인의 소액기부, 그리고 전문 예술단체·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3기 예술위원회는 2011년 3월 전담부서(예술나눔부)를 설치하고 4월에는 〈문화예술 나눔의 밤〉(2011. 4. 14.)을 통해 〈예술기부 활성화 비전〉을 선포한 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출범식을 거행했다.[4] 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한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 2011년 11월 한 달 동안 《아리랑》 홍보 영상을 상영한 〈아리랑 프로젝트〉(2011년 10월 한 달간 모금),[5] 노숙인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들레 예술문학상〉(2012. 12. 26. 제1회 시상), 소록도병원 옹벽에 높이 3m, 길이 110m 규모의 대형벽화를 설치한 〈아름다운 동행 - 소록도 사람들〉(2013. 4. 30. 준공) 등이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성공



소록도 주민 500여명, 벽화로 다시 태어난다

한센인이 거주하는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마을 주민 500명의 얼굴을 새기는 대형 벽화가 제작된다.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최현수)은 지난해 4. 기획한 '소록도 행원 올벽 벽화 제작 프로젝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2년도 대국민 참여 크라우드 펀딩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프로젝트에 익명의 다수 후원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모금

방식이다. 주로 온라인과 스냅샷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뤄지며, 아날로그식 제작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절반가량이 모금된다.

벽화는 연간 50만명가량이 찾는 국립 소록도병원 뒤편 길이 110m, 폭 1~3m의 시멘트 옹벽에 만들 계획이다. 곽 관장은 "전체 비탕에 사슴과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소록도 모형을 그려넣고, 그 주변에 주민 얼굴을 '밀각반식'을 통해 새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품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소록도 사람들'로 정했다. 벽화 제작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곽 관장은 "사변 기획은 부병생활

한국예술위, 크라우드 펀딩 사업

소록도병원 옹벽에 얼굴 새겨

소외 한센인들 '삶 예술로 승화'

예술가 10여명 '재능 기부' 참여

높여주는 동시에 소록도의 대표적 상징물이 될 대형벽화 제작이라는 기념비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재료비 3000만원가량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고, 사진 초대전은 전국 10여명의 공공미술가들이 '예능 기부'를 통해 주간한다. 주민 가운데 상징수가 사진촬영을 실어

해 500여명의 참여하고, 여하게는 이들과 희망예배일을 함께해 온 귀빈 소록도병원 관계자들의 일부 얼굴도 새길 예정이다.

벽화는 5일부터 작업을 시작해 내년 1월 말쯤 완성될 계획이다. 관광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 "소록도 올벽 벽화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격려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소록도가 예술가들의 재능기부와 일반 국민들의 후원으로 아름다운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록도 올벽 벽화프로젝트는 한국예술위원회 문화나눔 포털 (funding.arko.or.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60-4564)와 고흥 남포미술관 (061-832-6000)에서 안내하고 있다.

나명석 기자 yon@kyunghyang.com

아름다운 동행 - 소록도 사람들
개인 소액기부운동인 크라우드펀딩으로 결실을 맺은 소록도 대형벽화 제작기사.
예술가들의 재능기부와 일반국민들의 후원 그리고 소록도 주민들의 참여로 높이 3m, 총길이 110m의 대형 벽화가 완성되었다.
(2012. 11. 2. 경향신문)

3. 기부금 유형은 순수 기부금(용도나 조건 지정 없이 기부), 조건부 기부금(사업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실명제 기부금(기부자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기부)의 세 가지가 있다.

4. 201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도입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1997년 영국의 록그룹인 마릴리온(Marillion)이 미국 투어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6만 달러를 인터넷상에서 모금한 것이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제안된 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이를 지지하는 익명의 다수 후원자들로부터 액수에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목표액에 미달 시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돌려주는 "all or nothing"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5. 당시는 《아리랑》 등이 곧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등록(2011. 11. 28. 등록)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던 때로, 이후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아리랑》은 2012. 12. 5. 유네스코 7차 위원회(파리)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례이다. 기부 확산을 위한 노력은 특히 권영빈 제4대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여 2012년 10월 이후에는 〈예술나무 운동〉이라는 기부 확산 종합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책임 강조와 문화바우처 확대

예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제3기 예술위원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이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이다.[6] 2011년 4월에는 저소득층 가구당 문화누리카드(연간 5만 원 한도) 1매씩을 발급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했다(2012년 12월 말 카드 발급매수 657,053매). 같은 해 9월에는 저소득층 청소년과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1인당 5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여 청소년 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했다. 또 지역 매칭을 포함하여 2011년에는 347억 원의 예산으로 122만 명(수혜율 37.3%)에게 혜택을 주었고 2012년에는 487억 원의 예산으로 160만 명(수혜율 50.5%)으로 혜택 범위를 넓혔다. 이밖에도 〈문학나눔〉, 〈전시나눔〉, 〈공연나눔〉, 〈창작나눔〉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 양극화 해소 등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융복합형 예술창작 지원 및 'K-ARTS' 한류 확산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사회가 보다 진화한 형태인 융합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제3기 예술위원회는 2012년 기술 편재(遍在)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인 융복합 현상을 예술창작계에 수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7월에 동숭동 '예술가의집'에서 외부 책임심의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후 3차례 타 기관(단체)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2013년도 〈융복합형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개편 내용을 확정하여 지원 공고했다. 특히 대학로 예술가의집 및 아르코미술관을 융·복합예술 창작매개공간으로 특화하여 '예술-예술', '예술-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제3기 위원회는 또한 우리나라 순수예술의 해외 진출, 즉 'K-ARTS' 한류의 해외 확산을 위해 예술가 해외파견 거점 등 국제교류 채널을 2012년에 26개소로 확대했다.[7] 한편으로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6.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와 CD·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7. 베타니엔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 지원, 극지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 작가 파견 등 예술가의 국외 파견, 바이칼·몽골·이란·호주 등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 추진, 〈한국예술 특집 행사〉 개최 등이다.

것이다'라는 목적 지향하에 〈1 시·도 1 문화브랜드〉육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자율형 지역 문예진흥사업〉을 2012년 36.9%에서 2014년 50%, 2017년 70% 수준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 제4기 예술위원회의 운영성과(2012. 12.~2015. 2.)

2014년 4월 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서의 만 4년 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동년 5월에는 2010년에 분리되었던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국립예술자료원이 재통합되면서 서울과 나주를 함께 아우르는 기관 운영을 하게 되었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2014년 6월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서 한국관이 65개 국가관 전시 중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기존에 별개로 운영되었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이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되면서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문화예술후원센터라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범사회적 문화예술 후원캠페인을 확산하였고, 기업과 예술인(단체) 매칭결연 등 후원매개 활동을 강화하면서 예술후원 규모의 전국화를 위해 예술나무 후원회, 지역문화재단 파트너십 구축 등 기관 간 협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했다. 제4기 위원회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아르코 비전 2020〉의 수립

제4기 예술위원회는 2012년 12월 5일 2년의 임기로 출범했다. 〈아르코 비전 2020〉은 제3기 위원회 기간에 수립하기 시작하여 완성과 공표는 제4기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대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지방 이전과 문화융성의 시대 도래 등 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한 〈아르코 비전 2020〉이 2012년 12월 탄생하게 되었다. 〈아르코 비전 2020〉은 2020년까지의 비전을 '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가치로 '창의(Creativity)', '나눔(Sharing)', '책임(Responsibility)'을 제시했다. 3대 전략목표와 11대 전략과제도 제시했는데, 문화예술 글로벌 역량 강화(K-Culture 세계화), 국민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후원 확산,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강화 등 새로운 전략과제 설정을 통해 문화융성 실천체계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 9-1] 〈아르코 비전 2020〉의 비전과 핵심가치



사업 개선과 확장을 위한 추진 성과

제4기 예술위원회는 2013년 예술지원소위원회와 지역협력소위원회 등 사업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양 위원회는 예술현장과 지역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도 순수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큰 폭의 지원강화 대책과 지역협력사업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문화예술 글로벌 역량 및 기반 강화라는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한영문학출판기획자교류〉 등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고, 차세대 예술인들에 대해 해외콩쿠르 참가·교육비 지원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더불어 문화예술 및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2013. 7. 19.)했다. 기부문화 부문에서는 성주

재단(MCM)이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지원 협약을 체결(2013. 9. 13.)하는 등 민간기업의 예술 영재 후원모델 확산에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융성 시대를 향한 사업 규모 확대



문화융성컨퍼런스
2013년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문화융성컨퍼런스.
문화융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사진은 예술 - 기술 - 산업 융복합을 주제로 토론하는
전준호, 문경원 미술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사진 왼쪽부터)

박근혜 정부는 국가 발전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문화융성'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임기 내 문화재정 2% 달성과 「문화기본법」 제정(2013. 12. 10., 국회 본회의 통과)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4기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지원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통해 문화융성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문화융성 시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예술 대토론회〉(2013. 4. 23.~24., 예술가의집)와 콘퍼런스(〈문화융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 2013. 5. 24., 대한상공회의소)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메세나협회 등과 공동 개최했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인식 확산 운동, 기업의 예술분야 사회공헌 활동 지원 강화, 예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모두 문화융성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4기 위원회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중 가장 핵심은 2014년도 기금사업비를 전년 대비 59.0% 증액하는 가운데 문화융성의 근간인 '창의예술' 분야를 전년보다 무려 3.7배 증액한 사실이다.[8] 문화융성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예술위원회는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맞이했다.

8. 예술위원회의 2013년도와 2014년도 사업비를 대비해 보면, 예술창작지원·예술인력육성 162→603억 원, 국제예술교류지원 47→86억 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581→613억 원, 지역문화예술 진흥 206→248억 원, 사회적 인식 제고 98→190억 원으로 증액하여, 사업비 총액을 59.0% 증액(1,094→1,740억 원)했다.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 전개


"예술로 세상을 바꾼다" 1000人의 약속

범국민 '예술나무 운동' 닻 올려…문예위·예총·민예총 등 참여

19일 가난한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는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무대 위에 '예술나무'가 세워졌다. 대나무 기둥 20여 개가 떠받치는 사각 영상에는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글귀가 떠 있었다. 문화예술을 나무처럼 키워 숲을 이루자는 '예술나무 운동' 의미를 나타내는 문구다. 문화예술을 통해함께 만들어 행복한 세상을 여는 계 목표다.

이날 행사는 시원 각계 대표 인사 1000명이 예술나무를 심고 가꾸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른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1천인 선언'. 1000명이 다 오지는 못했지만 7000여 명이 참가해 열기한 뜻을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고건 전 국무총리와 박범훈 전 국민한림원회장, 소프라노 조수미, 국악인 안숙선, 연극 연출가 임영웅, 김명곤 서울대 미래융합대학 교수 등도 1000인 선언에 동참했다.

'예술나무 운동'은 예술의 가치와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는 범국민 운동. 문화예술을 만들고, 누리고, 나누는 권리가 목신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문화예술계만의 이니라 기업과 시민 각계에서 문화예술 창조와 나눔 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 한국메세나협회가 공동 국내 문화예술대표 기관이 공동 진행하여 각계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예술나무 포럼'도 결성했다. 예술나무 브랜드는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가 재능기부했다.

19일 선언문 발표는 김희근 백신엔지니어링 회장과 배우 박원자 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이들은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중추이며 예술은 그 원천이다. 문화예술은 인간적인 삶의 가치이자 즐거움과 보람, 소통과 통합, 발전과 변영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모두에게서 태어나야 하며 예술은 모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했다.

375석 객석 시원은 스대한민국 문화예술계는 문화 기본권 신장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예술나무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가치 활동을 참여적으로 전개한다 스기업과 사회 각계는

문화예술의 창의성이 산업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공감하고 문화예술의 장르와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스국회와 정부는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 복지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적정 문화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이다.

촉구 무대는 권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피리 연주로 열었다. 예술나무가 세워진 최전 무대에서는 활동기 신년 기아급 연주, 김동택 시인 가장시 낭송, 무용가 안은미의 춤이 차례로 펼쳐졌다. 여러분 가정 행복을 극복하고 독일 어울림연 국제 청소년 레이노 콩무르에 우승한 문지영 양도 연주했다.

이날 행사를 여은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소에 대중 모금 운동인 '크라우드 펀딩' 확대, 기업 1여술나무 키우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지홍 기자

예술나무운동 발족식
2012년 10월 19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된
〈예술나무운동 발족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고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범국민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술나무 운동〉은 권영빈 위원장을 중심으로 4기 예술위원회가 강력히 추진한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운동이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자구(自救) 노력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예술위원회가 예술원, 예총, 민예총, 메세나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운동은 2012년 10월 19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 인사 1천여 명의 뜻이 모여 〈문화예술의 가치와 나눔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발족했다. 이 운동은 '뿌리 내리기', '나무 키우기', '열매 맺기'의 세 가지 운동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뿌리 내리기' 사업을 통해 예술 가치의 확산을 위한 브랜드 확립, '예술나무 포럼' 발족과 공동선언 등 범국민 운동, '예술나무 아트 앰버서더(홍보대사단)' 활동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예술나무 키우기' 사업을 통해 '1인 1예술나무 키우기'와 크라우드 펀딩 등 개인 소액기부 활성화 운동, '1기업 1예술나무 키우기' 운동, 예술가 재능 나눔 운동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 사업을 통해서는 '예술로 우리동네 가꾸기' 등 공공미술 확대, '꿈꾸는 예술나무' 등 신진예술인력 육성 운동을 전개했다.

제4기 예술위원회는 〈예술나무 운동〉을 통해 문화융성, 나아가 문화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2012년에는 〈예술나무 운동 발족식〉(2012. 10. 19., 공동선언 행사)과 '예술나무 포럼' 첫 번째 행사인 〈세상을 바꾸는 예술(Change with the Arts)〉(2012. 11. 27., 한남동 일신홀)을 개최했고, 2013년에는 〈2013 문화예술 후원의 날〉(2012. 10. 18., 아르코예술극장)에 이어 〈예술나무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기 위한 〈예술이 빛나는 밤에〉(2012. 12. 4., 여의도 콘래드 서울)를 개최했다. 특히 〈2013 문화예술 후원의 날〉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문화예술의 가치와 나눔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품격이며 예술은 그 원천이다. 문화 예술은 인간적인 삶의 기초이자 즐거움과 보람, 소통과 통합,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모두에게서 태어나야 하며 예술은 모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문화 예술을 만들고 누리고 나누는 권리는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예술 표현의 자유,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문화가 주는 창조와 향유의 기쁨을 누려야 마땅하며, 예술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지닌다.

문화 예술이 발휘하는 창의력은 산업과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량이다. 문화 예술의 창의력은, 추격의 시대가 아닌 추월의 시대에서 발전의 동력이며 산업의 원천이다. 문화 예술이 경제생활과 무관한 사치이거나 소수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무지와 편견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시대는 바야흐로 산업화, 지식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창의 창조의 시대로 들어섰다. 창의 창조의 동력이며 원천인 문화 예술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2012년을 문화 예술 가치 확산 원년으로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문화 예술계는 문화 기본권 신장과 문화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예술나무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기여 활동을 창의적으로 전개한다.
2. 기업과 사회 각계는 문화 예술의 창의성이 산업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공감하고 문화 예술의 창조와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3. 국회와 정부는 문화 예술 창달과 문화 복지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특히 문화 예산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2. 10. 19.
문화를 사랑하는 1천인 일동

백건우가 참여하여 재능기부(Pro Bono)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평소 재능기부를 통해 산간 도서 벽지를 순회 연주해 온 그는 음악 영재들과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Op.24 바단조(1·2악장)를 연주하여 더욱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예술이 빛나는 밤에〉 행사에서는 포스코가 '올해의 예술나무상'(2013)을 수상하는 등 15개 기업이 상을 받았다. 예술위원회는 2017년까지 10만 그루의 예술나무를 조성할 계획으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문화예술 후원 장려를 위한 세제 개선도 추진했다. 또한 2013년에는 기부금 유치 목표액을 170억 원(2012년 14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예술인 재능기부 사업인 '예술재능 나눔버스'를 운영하였다. 2012년에 25회를 운영한 데 이어 2013년에는 84회의 나눔버스를 운영했다.

기업의 예술분야 사회공헌 활동 지원 강화

〈기업과 예술의 만남〉(매칭펀드)은 2010년까지 국고로 수행해 온 사업으로, 2011년 이후 문예진흥기금사업(2011년 7억 9,800만 원, 2012년 및 2013년 각 10억 원)으로 이관되었다. 예술분야에 대한 기업의 후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한국메세나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9]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창의성 증진과 문화경영 설계를 지원하는 〈Arts & Business 컨설팅〉,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예술단체(인)의 재능기부를 연결해 주는 〈중기-문화계 사회적기부대장정〉이 있고, 〈기업예술교육사업〉, 〈중소기업문화대상〉, 〈중소벤처기업문화경영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모두 〈예술나무 운동〉과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다. 대기업의 예술 후원사업은 주로 조건부 기부금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1983년부터 동아쏘시오(동아제약)그룹과 산하 수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1996년 창단 지원으로 시작된 (주)CJ의 〈화음챔버오케스트라 후원〉, 1999년 시작된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의 〈제일화재세실극장 임차료 지원〉[10]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대표적 문화복지사업으로 성장

예술위원회는 문화복지 사업의 핵심인 문화이용권 사업에서 점차 그 역할을 강화해 왔다. 2011년 7월 문화이용권 사업 총괄운영기관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2012년 8월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1항에 의거 법 제15조의4 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2013년 2월에는 이용상의 편의와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문화 분야 3개 이용권(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총괄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맞춤형 지역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 규모를 2012년 75명에서 2013년 100명(전국 8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제4기 예술위원회는 생활·직장공동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등 문화나눔 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특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협력형 사업의 예산을 2013년 205억 6,000만 원에서 2014년 248억 2,000만 원으로 20.7% 증액하는 등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9. 2007년에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형식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예컨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예술단체에 2,000만 원을 후원하면 2,000만 원의 기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기업과 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관계가 구축된다.
10. 우리나라 창작연극의 요람인 소극장 세실극장(1976년 개관)이 1999년 폐관 위기에 처하자 당시 창립 50주년을 맞은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이 문화 후원사업으로 세실극장의 임차료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극장 운영자인 극단 로뎀 측은 영세극단을 위해 대관비를 낮추고 극장 이름을 스스로 '제일화재세실극장'으로 바꾸었다.

3. 제5기 예술위원회의 운영성과(2015. 2.~2017. 11.)

제5기 위원회는 대관료 지원, 공연창작 전문단체 소속 스태프 지원,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등 기초공연 활성화와 창작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침체된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추경예산으로 공연티켓 1+1(30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105억 원), 문화순회사업(200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연예술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반면에 위원회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불거진 시기이기도 하다.

지원사업 체계 개편

〈창작산실〉은 창작물이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되고 나아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체계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지원사업 브랜드이다. 제5기 위원회는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요-공급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 장르 사업을 창작산실 체계로 개편하였다. 창작산실은 기존에 공연예술 분야 사업으로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의 특성을 살린 단계별 지원으로 우수한 작품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제5기 위원회는 〈창작산실〉이라는 브랜드를 문학, 시각예술 등 전 장르로 확대하여 모든 장르에서 창작에서 확산까지 연계될 수 있는 단계별·맞춤형 지원사업 설계를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한 부서(창작지원부)에서 모든 장르를 지원하던 체계에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으로 부서의 기능을 분화했고, 각 장르별 사업에서 우수 작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제작될 작품의 시장 안착 가능성을 반영한 제작자, 공연장 기획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 구성방식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시범공연(쇼케이스)을 통해 작품을 발굴하여 제작지원하고, 이후 유통을 위한 〈재공연 지원〉, 〈크라우드 펀딩〉,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신진예술가 집중 육성을 위해 만 35세 미만의 신진 예술인들이 융합형 창의예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기초예술 통합 과정〉(융복합적 연구조사→창작·기획주제설정→중간발표(평가)→창작화·최종발표의 단계로 추진)을 추진했다. 6개 장르의 창작, 기획, 무대예술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활동성과에 따라 해외진출, 작품제작 지원, 지역 순회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창작과 유통, 확산에서 탈피하여 대형포털 생중계 등 새로운 확산 채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이버 공간을 창작과 향유·확산 터전으로 삼는 '공연예술 사이버 공간 개척 사업'으로 이어졌고, 네이버, 벅스뮤직, 구글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연실황 및 관련 영상 57편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예술위원회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를 가지며, 현재의 〈예술과 기술 융합 사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노력

제5기 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 위기는 지속됐다. 2015년 말 적립금은 1,110억 원으로, 당시 사업규모를 고려해 볼 때, 2018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제5기 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벌였다.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문화세 신설, 타 기금 전입 방안,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방안, 모바일 문화세 조성, 담배세 전입 등)을 연구했으며, 2016년 8월 미래전략 TF를 가동시켜 실효성 있는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예술의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는 등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실과 연계하여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속 개최하기도 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에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방안을 보고하는 활동도 이어지면서 2016년에는 관광, 체육기금에서 각각 500억 원씩을 전입받으며 기금 고갈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2018년 말에는 더불어 민주당 김영주 위원 대표 발의로 「관광진흥법」, 「복권및복권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한국문화예술 세계적 위상 제고

제5기 위원회 출범 이후 시행된 사무처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교류부가 사무처장 직속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기획 사업을 추진했고,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다각화하는 데 힘썼다. 2016년 3월에는 영국예술위원회(ACE)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기금 25억을 조성(1:1 매칭 방식)함으로써 양국 간의 예술가(단체)의 협업 작품 창작 및 발표 등을 지원했다.

4~5기 위원회 기간 동안 국제교류의 가장 큰 성과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2014년 건축전 황금사자상, 2015년 미술전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것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국제미술전 행사 중 세계

미술계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국제 비엔날레로 2014년 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내 주요 기관 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리움미술관 등) 협의체를 구성했다. 최종 선정 작가 현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전시 소개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국내외 기자단 초청, 네트워킹 파티, 전시 브리핑(위원장 주재) 추진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임흥순 작가가 〈위로공단〉으로 미술전 최초 은사자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뉴욕 현대미술관(MoMA), 영국 테이트모던, 신일본미술관 등 세계 정상급 미술관 초청 전시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 작가로 성장했다.

감염병 확산(메르스)에 따라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공연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었던 해였다. 공연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예상되자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추진했다. 당시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은 공연티켓 1+1 사업(30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지원(105억 원), 문화순회사업(200억 원) 등이다. 〈공연티켓 1+1〉 사업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 TF를 통해 진행했으며, 11개 공연예술계 협회·단체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술현장과의 소통 및 협조를 이어나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548건의 공연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연인원 156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공연예술계 침체 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다.

잊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1]

2015년,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관련 정부의 외압과 부당배제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 2016년 10월, 블랙리스트 사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통제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됐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인 예술위의 블랙리스트 사태 개입 사실이 드러나며 책임 규명을 위해 기관장 사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쳤다. 2017년 2월 23일 예술위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한 지원배제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예술계와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깊은 자성의 자세로

11. 이 글은 《A SQUARE》 제6호에 게재된 '40년의 명과 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대 장면'(양경학)의 글을 재인용하였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문」 참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으며, 정부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반성과 각성을 다짐하고 확인했다. 이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중도 사퇴했다. 2017년 5월 제19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해 7월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구성됐다. 이후 약 10개월 동안 문화예술 진흥기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깊은 반성과 이런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동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어느 기관보다 성실히 이행했다. 진상조사위 징계권고안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를 시행하고 이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 문체부와의 〈자율운영보장공동선언〉 추진,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호선제를 부활하고 제8기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 정부 및 예술위 차원의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4. 제6기 예술위원회의 운영성과(2017. 11.~2020. 5.)

제6기 위원회는 2016년에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태' 후속조치 활동으로 예술위원회 사업 개선과 현장 소통에 주력하였다. 기관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심의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8년 공모사업 일정을 연기하면서 2018년 1월에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월부터 장기간 기관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동년 11월에 새로운 위원장이 부임하고, 이듬해 5월에 사무처장이 취임함으로써 기관 경영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현장 예술인과 정책 전문가, 예술행정 담당자들의 협치 모임으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 새예술정책수립 TF를 발족시켰고, 2018년 5월에 〈문화비전 2030〉과 〈새예술정책〉을 공식발표하게 된다. 2019년에 예술위원회는 그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임원 임면, 기관장 계약,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감사원 감사, 감독 관련 사안에서 이전보다 어느 정도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실행

제6기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로 신뢰 회복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책임규명 관련 권고안이 시달된 후 공정 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하고 2018년 11월 대상자에게 전원 징계 처분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관 기관 중 최초로 최대 수준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예술

위원회 자체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했지만, 블랙리스트 실행을 강요한 문체부 관계자가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사무처 내부에 불만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의 관계에서 예술위원회의 정체성, 간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기관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 그래도 책임을 져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 등 의견이 분분했고, 이는 이후 사무처 조직문화 개선에 큰 과제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예술현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예술위원회의 납득할 수 있는 사후 조치였다. 제6기 위원회는 '팝업씨어터' 등 블랙리스트 관련 사과문 발표와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후속조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또한 예술현장에 필요한 〈문예지발간지원〉, 〈작가창작지원〉, 〈공연장대관료지원〉,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등 블랙리스트 사태로 축소·폐지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복원이 추진되었다.

아르코 혁신 TF 활동과 예술위원회 혁신의제 도출

2018년 1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향후 예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아르코 혁신 TF가 발족되었다. 예술계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내실 있는 예술지원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예술인 중심에서 바라본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혁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함이었다. 사업영역과 조직운영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분석으로 예술현장의 요구를 담은 예술위원회 추진과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외부위원 6명, 예술위원회 위원 4명, 사무처 4명, 간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문체부의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 수립 TF의 내용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 혁신과제를 수립해 나갔고, 현장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여적 정책수립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조직분야 10개, 사업분야 13개 혁신의제를 수립하였다.

사무처는 기관의 사업과 조직 혁신안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사무처장 직속에 소통혁신팀을 운영하였다. 직위, 직급, 직종에 무관하게 혁신업무 추진 적합도를 고려하여 사무처 내 자천과 타천을 통해 인원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소통혁신팀은 전임 4명과 겸임 5명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르코혁신 TF에서 논의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직문화, 중장기전략, 조직체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직원 개별 면담을 67회(87명)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9개 영역에 142개 혁신과제를 도출하였다. 소통혁신팀은 약 9개월간 부재중에 2018년 11월에 새로 부임한 신임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 이후의 위원회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 현장의 경영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대폭 확대 운영하였다. 기존에 내부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소위원회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5개 소위원회에서 10개 소위원회로 확대하고 외부 참여도 기존의 21명에서 65명으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소통, 재원확충, 미래전략, 예술정책, 예술가치확산, 남북·국제교류, 사업평가, 성평등예술지원, 한국예술 공론화, 지역협력 등의 소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그중에서 예술현장과 소통하고 다양한 이슈 공론화를 위한 '현장소통소위원회'의 경우, 장르별 소위원회 대신 장르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현장 흐름에 변동가능한 유연한 소통구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정 장르별 의견이나 이슈에 대해 현장공론화가 필요할 경우 장르 분과, 공론화 분과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는 공정보상체계, 청년예술가지원 의견 청취, 다원예술 지원방안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였으며,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사무처가 진행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공유하는 '아르코현장소통페이지'를 운영하였다.

심의제도 운영 체계 변화

2017년에 위원회는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추천제도와 심의위원 추첨제를 도입하고, 지원심의의 이의신청 제기 창구인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였다. 심의위원 풀 제도를 분야별 협·단체 대상에서 예술현장 전반으로 추천을 확대(공개추천)하여 후보군을 정비하였고. 공개심의제도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지원외압신고제〉를 도입하였다. 〈심의자료 심층검토제〉, 〈예비 지원대상자 선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2019년 4월 심의제도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에 〈전담심의위원제〉, 비수도권의 지원을 위한 〈지역최소보장제〉, 〈공정심의평가관제〉, 지역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심의〉, 관객평가 확대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참여성, 투명성을 고려한 심의위원 모집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으며, 심의전문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의위원 현황관리와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원심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규정 개정 컨설팅,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안, 연중 실시한 내·외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원심의 제규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지원신청서에 대한 〈전수 심의의견 명시제〉를 도입하고, 〈공개참관 심의제〉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의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정심의 설문조사를 추진

하여 의견수렴을 강화했고, 심의위원 메타 평가를 고도화하였으며, 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광역문화재단, 유관기관 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문화예술 분야 각계각층의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심의위원 후보단 모집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르코 비전 2030〉 전략 수립

〈아르코 비전 2030〉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과 〈새예술정책〉이 2018년 5월 16일에 발표되고 그다음 해인 2019년 10월 22일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선포되었다. 〈아르코 비전 2030〉은 2019년 7월~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비전 2030 TF 활동을 통해 현장예술인 간담회, 비전 수립 워크숍 등 100여 차례 현장 소통을 통해 새 비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를 도출하였다. 〈아르코 비전 2030〉(안)은 제255차 예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및 수정의결 후, 향후 수정 권한은 사무처에 위임키로 하였다. 예술위는 새 비전 달성을 위해 '도전과 변화', '공감과 협력', '공공책무성'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3대 전략목표로는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으로 수립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도 구성했다.



아르코 비전 2030 선포식(2019. 10. 22.)

[그림 9-2] 〈아르코 비전 2030〉 전략체계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강화

제6기 예술위원회는 예술활동의 자율성과 예술가 권익 보호,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 증액 활동을 통해 2019년 예산안 수립 시 신규사업 15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전년 대비 23.6%의 창작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예술계 비인권, 비민주적 관행 등 불공정 개선을 위한 엄중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보조사업 추진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서면계약 체결을 도입하였고, 지원자들에게 성폭력 예방서약과 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유죄판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문화예술계 미투(Me Too) 운동 이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화정책 수립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위해 2019년 1월에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창작지원사업 중 서면계약 체결 사업이 78%(전년 대비 41% 증가)가 되었고, 성폭력 관련 조항에 따라 3건을 선정 취소하였으며, 1명의 심의위원을 배제하기도 하였다.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융자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생활자금 소액 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였다.

다년간 집중 지원사업과 청년 예술가 지원 확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술단체를 다년간 집중 지원·육성하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창작기반을 마련하였다. 예술단체의 신규 프로젝트, 작품 유통, 인력운영 지원 등을 통해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능력 제고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9년에 55억 원의 예산으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되었다.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이 단년도 일회성, 작품 공급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체감이 부족하고 예술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청년예술가의 예술현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춰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10억 원)을 신규 추진하였다.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전통예술, 공연예술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들 중 문예진흥기금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106명을 지원하였고, 특히 지역 청년예술가 41명(38.7%)을 지원함으로써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예술가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29팀)과 역량강화(15팀) 등 과정 중심 지원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심의와 토론형, 전수발표형 등 혁신적 심의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심의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노력

지속적인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고갈 위기로 인해 국고 및 타 기금이 전입되어 편성되고 있었다. 2018년에는 2,321억 원, 2019년에는 3,056억 원이 전입되었으나, 임시방편으로 재원 구조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2018년 11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로

복권사업 수익금 법정사업 배분 및 카지노 사업자 매출액의 문예진흥기금 납부를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으나 아쉽게도 해당 법률안들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3. 201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 총괄

1. 비전전략체계 수립에 따른 기금사업 예산체계 변화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고 2019년 제6기 위원회의 시기까지 위원회의 중장기 비전전략체계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되었다. 예술위원회의 현재와 같은 비전 전략체계는 2004년 2월에 예술위원회 전환업무를 수행한 문화행정혁신 TF가 수립했던 〈예술과 비전 2004〉를 거쳐 2006년 4월 발표된 〈아르코 비전 2010〉[12]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기금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코 비전 2010〉이 나왔기 때문에 이는 2007년도부터 기금사업에 반영되었다. 이후 2019년까지 〈아르코 비전 2012〉와 〈아르코 비전 2015〉, 〈아르코 비전 2020〉, 〈아르코 비전 2030〉이 연이어 발표되어 위원회 운영 조직 및 각종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중점 과제와 예산체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12. 〈예술과 비전 2004〉는 문예진흥원의 예술위원회 전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예진흥원 내에 구성된 문화행정혁신 TF에서 내·외부 전문가 및 예술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비전전략 보고서로 2004년 2월 발표되었다. 이후 문예진흥원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10대 돌파과제와 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보고서에 포함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복권기금 사업(올해의 예술상, 전통예술의 대중화, 세계화 사업 등)을 신청하고 〈공연예술전문단체 육성지원〉 등 다년간 집중 지원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무처 운영 전문화로서 행정 혁신을 위한 수행조직으로서 사무처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었다.

위원회의 비전전략체계는 '예술의 창의성과 예술창작역량 강화' 부문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국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분야와 나눔 확대'가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특히 지원기구가 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전략목표 가운데 이전보다 강화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시대적 추세에 맞춰 "예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예술지원정책을 일찍부터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문화예술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지원대상이 되면서 예술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3]

[표 9-1] 위원회 중장기 비전 전략체계 현황(2004~2019)

구분	비전(Vision)	전략목표	전략과제
예술과 비전 2004 (2004. 2.)	문화의 가치를 창조 확산하는 기초예술의 발원지	1. 예술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가 권익 옹호 2. 예술의 보급·확산을 통해 국민의 향수권리 신장 3. 예술가 단체 시설 향수자 간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 매개기능 강화	문예진흥사업 혁신 10대 과제
비전 2010 (2006. 4.)	예술을 통해 창의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 열린 사회 구현	〈8개 전략목표〉 1.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2.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3.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4.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5. 예술의 생활화 6.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7.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8.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문예진흥사업 혁신 24개 핵심과제 (경영목표, 핵심과제 별도)
비전 2012 (2009. 1.)	세계 10대 기초예술 강국	〈12대 전략목표〉 1. 예술컨설팅 인프라 구축 2. 예술현장 지원시스템 혁신 3. 문화예술기구 및 단체와의 전략적 제휴 확대 4. 지역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5. 문화예술 국제교류 인프라 확충 6.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7. 예술의 생활화 8. 문화양극화 해소 9. 인적역량 강화 10. 경영관리역량 강화 11. 재무건전성 강화 12. 예술지원정책 연구 활성화	전략목표 상위에 4대 전략방향 설정

13. 미국의 전미예술연합(Americans for the Arts: AFTA)은 연방지원기구인 NEA의 도움을 받아 매년 예술을 후원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발표하여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은 창조성과 아름다움을 키워주는 인간성의 원천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와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의 정체성 형성,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구분	비전(Vision)	전략목표	전략과제
비전 2015 (2009. 12. 4.)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현장의 동반자	〈4대 중장기 방향〉 1. 예술창작역량 강화 2. 문화예술네트워크 강화 3. 예술을 통한 문화나눔 확대 4.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구축	〈7대 전략〉 1.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2. 지역협력 파트너십 강화 3. 국제교류 기반 확충 4. 국민문화향유 활동 확대 5. 미래성장동력 확보 6. 고객중심의 경영기반 확립 7. 경영선진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비전 2020 (2013. 1. 25.)	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	〈3대 전략목표〉 1.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 2. 문화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3.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구축	〈10대 전략과제〉 1. 예술창작활동 활성화 2.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3.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4. 문화예술 글로벌 강화 5. 문화예술복지 확대 6. 국민 생활문화 활성화 7. 문화예술 후원 확산 8. 문화예술정보서비스 강화 9. 고객감동열린 경영 10. 조직역량 제고
비전 2030 (2019. 8. 30.)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3대 전략목표〉 1.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2.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3.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	〈6대 전략과제〉 1. 예술의 지평 확대 2. 예술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3.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5. 기관운영체계 혁신 6.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

예술위원회의 예산체계는 2007년에 8대 전략목표에 맞춰 전면 개편한 후, 2010년 4대, 2013년 3대 전략목표 체계 등 점차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9-1]은 예술위원회의 중장기 비전전략에 의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 비전전략은 예산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2010년대의 주요 기금사업의 추진내역과 그 성과를 5대 전략목표 체계에 맞춰 문예진흥기금사업 전체 예산 추이를 정리하면 [표9-2]와 같다.

기금사업 예산 분포비율 - '문화복지' 급증, '예술진흥' 감소

2010년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사업예산에서 점유율의 변화 추이가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위원회 기금 지원사업의 양대 분야인 예술진흥과 문화향유 및 복지 부분이 역시 꾸준하게 예산 점유율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2010년의 경우 예술진흥 분야가 32.2%로

[표 9-2] 2010~2019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예산 추이

(단위 : 억 원)

분야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비율)
예술진흥 (예술창작역량강화)	287 (32.2)	185	168	156	603	398 (26.1)	400	389	421	528 (21.0)	3,535 (21.4%)
국제문화교류	64 (7.2)	55	50	47	86	66 (4.3)	58	65	57	63 (3.7)	611 (3.7%)
문화향유 및 복지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237 (26.6)	480	574	581	613	631 (41.5)	925	1,071	1,181	1,325 (52.8)	7,618 (46.2%)
지역문화진흥	226 (25.4)	202	203	206	248	248 (16.3)	505	319	321	280 (11.2)	2,758 (16.7%)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기부활성화 등)	77 (8.6)	83	104	104	190	178 (11.7)	308	316	299	314 (12.5)	1,973 (12.0%)
합계	891 (100%)	1,005	1,099	1,094	1,740	1,521 (100%)	2,196	2,160	2,279	2,510 (100%)	16,495 (100%)

자료 : 「2010~201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예술위원회 연도별 예산 통계 내부자료 참조

문화향유 및 복지분야의 26.6%보다 5.6% 포인트 높아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전통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2015년에는 예술진흥 분야가 26.1%로 점유율이 줄어든 반면 문화향유 및 복지 분야는 전체 점유율이 41.5%로 2010년에 비하여 예산액 237억 원에서 631억 원으로 2.6배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2019년에는 예술진흥 분야는 전체 예산의 21.0%로 문화향유 및 복지 분야의 52.8%에 비하여 하향세를 나타냈다.

'지역문화진흥' 점유율 지속 감소, '예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추세

둘째로 지역문화진흥 분야가 2010년 226억 원의 예산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16.3%, 2019년에는 11.2%로 완만하게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분야는 〈문화예술 기부활성화〉와 〈예술나무운동〉 등 문화예술의 후원활동이 미약하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2010년대의 예산체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통합문화이용권〉과 〈소외계층 문화순회(신나는 예술여행)〉 등 '생활 속의 예술활성화' 분야가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점과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사업인 예술진흥 분야가 예산액은 늘어났음에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진흥 분야의 경우, 예술위원회 본관이

광주전남혁신도시인 나주로 이전하면서 지역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역 이관 등 정책적 지향점으로 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문화 관련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분야는 2010년에는 예산 분야 중 점유율이 8.6%였으나 2015년에는 178억 원으로 11.7%, 2019년에는 314억 원으로 전체의 12.5%로 증가하였으며 예산액으로는 2010년 77억 원에서 2019년 314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분야는 여전히 다른 전략목표보다는 점유율이 가장 작았음에도 예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되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4. 2010년대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1. 예술창작 역량강화 지원사업 총괄

전략목표와 연계된 예산편제 조정

2005~2006년도 예산편제에서는 '예술창조역량 강화'와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의 2개로 구성돼 있던 성과목표는, 2007~2009년도에는 〈아르코 비전 2010〉 체제에 의해 3개의 전략목표로 나뉘었다. 즉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의 3개 전략목표로 나뉘었는데, 2010~2012년도에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하나로 통합됐다. 2013년도에는 다시 전략목표 '문화예술 공간운영'을 흡수·통합했다.

2019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서의 기관 운영방향에 기술된 예술위원회 비전 전략체계는 사업부문에 ① 예술창작 역량강화, ② 지역문화예술 진흥, ③ 예술향유 기회 확대 등 3개의 전략목표 아래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 국제교류,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일상생활속 문화향유 기반 강화, 문화예술후원문화 확산,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 등 7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는 2019년 업무현황에 서술된 예술위원회의 예산 편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서술되거나 그 하위 항목에서 전략과제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예술위원회가 설정했던 중장기 비전전략 체계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금사업

[표 9-3] 2010년대 기금사업 예산 편제의 변화과정

2010	2016	2018	2019
1.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 예술창작지원 - 예술전용공간지원 - 예술활성화 지원 - 스토리창작및유통지원 2.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지원 - 영아트프론티어 지원 - 공연나눔/창작나눔 3. 국제예술교류지원 - 해외개최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 국내개최문화예술예술교류 지원 - 공연예술국제행사지원	1. 예술창작역량강화 - 예술창작지원 - 예술인력육성 - 국제예술교류지원 2. 생활속예술활성화 -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 공연나눔/창작나눔 3. 지역문화예술진흥 - 지역문화예술지원 -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4. 예술가치의사회적 확산 -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1. 예술창작지원 2. 예술인력육성 3. 국제예술교류지원 4. 지역문화예술지원 5. 공연예술관광자원화 6.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7.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1. 예술창작역량강화 - 예술창작지원 - 예술인력육성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 지역문화예술진흥 - 지역문화예술지원 - 예술의관광자원화 3. 예술향유기회확대 - 문화예술향유지원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표 9-4]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 총괄 현황(2010년대)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예술창작지원	26,249	16,314	14,899	13,214	52,162	31,702	27,390	24,659	28,431	38,740	273,760
- 문학창작육성	4,400	3,080	3,270	2,550	3,200	3,200	3,080	2,570	3,275	2,986	31,611
- 시각예술창작육성	2,949	2,070	1,521	1,550	4,633	3,632	3,200	2,980	2,801	2,560	27,896
- 공연예술창작육성	18,100	8,750	7,800	7,000	42,099	22,640	21,110	18,109	22,085	26,404	194,097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800	2,414	2,308	2,114	2,230	2,230	-	-	-	-	12,096
- 기초예술사이버공간개척	-	-	-	-	-	-	-	1,000	270	-	1,270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	-	-	-	-	-	-	-	5,490	5,490
-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	-	-	-	-	-	-	-	-	300	300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	-	-	-	-	-	-	-	1,000	1,000
예술인력육성	2,401	2,161	1,945	2,044	8,118	8,118	12,593	14,234	13,641	14,082	79,337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1,200	1,080	972	1,278	1,500	1,500	-	2,400	2,941	2,992	15,863
- 현장예술인력지원	-	1,081	973	766	6,618	6,618	12,593	9,408	10,700	11,090	59,847
- 창작뮤지컬아카데미	-	-	-	-	-	-	-	1,000	-	-	1,000
- 무대예술전문교육	-	-	-	-	-	-	-	600	-	-	600
- 창의예술인력센터운영	1,201	-	-	-	-	-	-	496	-	-	1,697
- 예술가의집운영	-	-	-	-	-	-	-	330	-	-	330
합계	28,650	18,475	16,844	15,258	60,280	39,820	39,983	38,893	42,072	52,822	353,097

예산 편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위원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010년대 예술창조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시기별로 예산 편제 개편에 따라 세부 지원사업 내용이 변화되었으나 주요하게 예술창작지원과 예술인력육성을 중심으로 예술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하는 데 힘썼다. 예술창작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및 기타 실험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술창조역량강화 부문 전체 지원액의 77.5%인 2,737억 원의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되었다. 예술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차세대예술인력 육성과 예술현장의 인력을 지원사업 사업 등에 793억 원을 지원하였다. 예술위원회가 출범하고 5년 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예술가의 다양한 창작활동과 그 기반을 만들어가는 예술창조역량강화 지원사업에 3,53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은 예술위원회의 전신인 문예진흥원 시절부터 가장 중요한 기관의 미션(임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공적 기관들이 등장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140여 개에 달하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국민의 문화향유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술가의 수월성을 중요시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예술가의 출현을 돕는 역할은 여전히 예술위원회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창작지원 공모사업 다각화

2010년대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융복합 창작지원 등 기초예술 분야의 공모사업을 다각화한 시기였다. 2019년의 공모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문학 분야에 〈문학창작활동〉, 〈사이버문학광장〉, 〈문학집필공간〉, 〈문학행사 및 연구〉 등 4개 분야 32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책정되었고, 시각예술 분야는 〈창작 및 전시공간지원〉, 〈비평연구활성화〉, 〈공공미술〉, 〈사립미술관 활성화〉, 〈미술관 전문인력〉 등 5개 분야에 총 363억 원을 공모를 통해 지원했다. 사업규모가 다양한 공연예술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에 창작활동, 창작발표공간, 공연예술행사, 기초공연예술활성화, 공연연습장 조성, 창작 뮤지컬, 창작산실, 기반조성, 전통공연예술활동, 시민참여형프로젝트 등 11개 분야에 총 126억 원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였고 그 외 융복합예술창작공간, 창작매개 등 융복합 분야에 2개 사업 2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예술창작지원에 총 4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전국규모 및 국제 예술행사 통합, 집중 지원

전국규모 예술행사지원은 2010년도부터 〈예술행사 지원〉으로 별도 편제되고, 2011년에는 국고·기금 간 역할분담 방침에 따라 국고로 지원해 오던 예술행사 지원사업까지 이관되어 왔다. 이후 대폭 증가한 예산으로 공연예술 분야와 시각예술 분야의 전국규모 및 국제 예술행사에 대해

집중지원해 왔다. 2012년도의 경우 〈공연예술 행사지원〉을 통해 대표적인 전국규모 예술행사인 〈전국연극제〉와 〈전국무용제〉를 포함,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제주국제관악제〉,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아시테지여름축제〉, 〈서울국제발레페스티벌〉 등 전국의 공연예술 행사 35건에 대해 38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위탁(2억 5,000만 원)하여 지원을 받는 행사들을 모두 평가하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를 차년도 지원심의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각예술행사지원〉은 세 차례에 걸친 공모와 심의를 통해 〈양평환경미술제〉, 〈전주포토페스티벌〉, 〈국제보자기포럼〉, 〈공장미술제〉 등 12개 행사에 총 5억 원을 지원했다. 이로써 전적으로 민간에 맡길 경우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여 행사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었던 전국규모 및 국제 시각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예술위원회의 지원이 전시회 참여작가에게는 창작·발표의 기회를, 그리고 국민에게 전시회 관람을 통해 미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겠다.

2. 장르별 지원사업의 성과

문학창작 육성사업

문학창작 육성사업은 2010년대 〈문학창작산실〉(구 문학창작활동지원)과 〈문학광장〉 운영(구 사이버문학광장운영)을 중심으로 〈문학주간〉 운영(2019~), 〈우수문예지발간 지원〉, 〈작고 문인선집발간 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 지원〉,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인문문예소통공간 운영(2016)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에 316억 원의 기금이 투입되어 다양한 형태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문학 분야의 대내외 환경을 살펴보면, 문학창작활동 연평균 수입이 549.9만 원에 불과하여 타 장르에 비해서도 창작활동의 대가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19년 문학실태조사」에 의하면 작가 1인당 연간 발표작품 수는 평균 6.9회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문단권력, 성폭력 미투에 이어 원고료 미투까지 등장하는 등 기존 위계에 대한 강한 반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14] 특히 여전히 낮은

14. 봉건적 계약 '이상문학상' 거부한 김금희에 잇단 지지 목소리(경향신문, 2020. 1. 6.)

[표 9-5] 예술창작역량강화 문학창작육성 사업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학창작육성	4,400	3,080	3,270	2,550	3,200	3,200	3,080	2,570	3,275	2,986
- 문학창작산실 (구 문학창작활동지원)	800	900	800	800	1,000	1,000	2,000	1,720	2,425	2,050
- 문학광장운영 (구 사이버문학광장운영)	500	500	650	500	500	500	500	600	600	600
- 문학주간운영	-	-	-	-	-	-	-	-	-	336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700	700	700	700	1,000	1,000	-	-	-	-
-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	300	200	200	200	-	-	-	-	-	-
-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1,600	280	400	300	500	500	250	250	250	-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500	500	520	50	200	200	-	-		
- 인문문예소통공간운영	-	-	-	-	-	-	330	-	-	-

수준의 원고료 단가로 턱없이 낮은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작가가 전체의 34.4%에 이를 정도로 작가와 출판사 간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이책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전자 미디어,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낵-컬처형 콘텐츠 소비의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누구나 읽고 쓰고 출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여 문학 창작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소극적 의미의 독서행위가 아닌, 작품 생산에 영향력을 미치는 적극적 의미의 독자 주체(프로슈머)로 탈바꿈하고 있다.[15]

원고료 등 공정보상체계 가동을 위한 기반 조성

예술위원회는 문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우선 위원회 중점 사업인 〈문학창작산실 사업〉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문학창작산실사업〉의 외부 연계와 성과 확산을 모색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창작산실 사업의 연중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보상체계 가동을 위한 노력으로 '원고료 장르별 평균단가' 고시를 정례화했고(2019) 〈청년예술가지원사업〉에 의무적용을 시범 추진하였다. 〈문예지발간지원〉의 경우 서면계약에 준하는 원고청탁서 의무 사용에 대한 고시를 했고, 〈문학나눔도서 보급사업〉의 선정 출판사 계약시 저작자 인세지급 조항을 마련하는 등 공정보상체계 가동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다.

15. 온라인 공공 플랫폼 관련 2차 좌담(문장웹진 2020. 1월호)

기존의 문예진흥기금 사업 외에 국고·체육기금 수탁사업인 〈도서관상주작가지원 사업〉의 경우,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문학나눔도서보급 사업〉에 대한 공모 및 심의를 연간 2회(2018)에서 4회(2019)로 늘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보급처 신청 및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문인에게 창작의 기회 제공

2009년 이전의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은 2010년부터 사업 내용을 조정·개선하여 〈예술창작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묶어 시행했다.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학인이 문학활동을 통해 얻는 월평균 수입은 '없다'가 32.5%, '10만 원 이하'가 28.5%였고, '100만 원 이상'은 8.5%에 불과했다. 문학활동을 포함한 전체 월평균 수입 역시 '100만 원 이하' 19.0%, '101~200만 원' 24.5%, '201~300만 원' 42.5%, '301만 원 이상'은 14.0%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 여건은 작가들로 하여금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창작활동에의 몰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창작 환경하에서 예술위원회는 작가 경력을 기준으로 10년 이상인 중견작가에게는 〈문학창작(기금)지원〉으로, 그리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으로 지원하여 창작활동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주었다. 〈문학창작(기금)지원〉은 2009년 한 해 장르별 차등지원으로 바뀌었다가 이후 다시 장르별 균등지원으로 바뀌었다. 2010~2011년에는 선정된 작가 1인당 2,000만 원을 2년 분할 지원했고, 2012년 이후에는 다시 1인당 1,000만 원, 정액지원으로 환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60~80명의 소설가, 시인·시조작가, 문학평론가, 동화·동시작가들이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문학 창작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집필공간 제공과 문인들 간의 네트워킹

〈문학창작집필실지원〉은 작가들에게 집필공간을 제공하고 국내외 작가·평론가들과의 상호 교류, 네트워킹, 외국작가 초빙 레지던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문학창작(집필)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통해 지원한다. 2010년에는 문학분야 예산 중 11억 6천만 원이 이·전용되어, 이 중 10억 원이 공연분야의 임차료 지원에 추가됐다. 2010년도에 (재)토지문화재(원주), (재)백담사만해마을(인제), 글을낳는집(담양), 부악문원(이천) 등 6곳에 3억 원이 지원됐고, 2011~2012년도에는 위 4곳에 2억 8,000만 원, 2억 8,500만 원이 지원됐다.

시각예술 창작 육성사업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의 장르 중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영역에서 '미술'보다는 '시각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50년대 이후 새로 생긴 미술적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써는 미술이 너무 협소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각예술·공간 예술, 조형 미술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병행하여 사용되게 되었다. 특히 공공지원의 영역에서 미술보다는 시각예술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미디어의 발전과 영상 및 이미지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미술영역의 영향력이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파급되고 있음에 따라 사진, 영상, 디자인, 건축 등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각예술 진흥정책은 문학 진흥정책과는 달리 작가나 단체를 중심으로 한 창작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보다는 〈미술관 건립 및 운영〉, 〈창작스튜디오 조성〉,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운영〉,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사업〉 등 시각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에 보다 많은 정책 역량이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각예술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과 예술위원회 전신인 문예진흥원이 설립(1973)되기 이전에는 미술전람회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모전 개최를 통한 창작활동 지원 이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었으며, 이후 법 제정과 함께 대형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물미술장식제도, 개인 및 단체의 전시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신설되고 세미나 개최, 비평 활동, 조사연구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표 9-6] 예술창작역량강화 시각예술창작육성 사업 총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각예술창작육성	2,949	2,070	1,521	1,550	4,633	3,632	3,200	2,980	2,801	2,560
- 시각예술창작산실	1,900	1,020	1,021	1,000	1,250	1,250	2,000	1,800	1,800	1,615
- 시각예술행사지원	-	1,050	500	400	500	500	-	-	-	-
- 시각예술비평, 연구활성화지원	-	-	-	150	150	150	-	-	-	-
- 공공미술사업운영	-	-	-	-	1,000	-	-	-	-	-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운영지원	-	-	-	-	1,412	1,412	-	-	-	-
- 코리안아티스트프로젝트	-	-	-	-	200	200	200	180	61	-
- 사립미술관 네트워크활성화	-	-	-	-	121	120	-	-	-	-
-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구 시각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1,049	-	-	-	-	-	1,000	1,000	940	945

시각예술 창작산실, 10년간 147억 원 지원

2010년대의 시각예술분야의 창작육성사업을 살펴보면, 시각예술 활성화 사업인 〈시각예술창작산실〉을 비롯하여 〈시각예술행사지원〉, 〈시각예술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 〈공공미술사업 운영〉,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운영지원〉,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 〈사립미술관 운영지원(구 시각예술 창작지원공간 운영)〉 등 8개 사업에 10년간 총 279억 원의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각예술 창작육성사업〉은 〈시각예술 창작산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각예술 창작산실〉은 〈시각예술 전시지원〉, 〈시각예술 공간지원〉, 〈시각예술 비평지원〉 등을 모두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형'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0~2019년까지 총 147억 원이 지원되어 전체 시각예술 사업의 5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각예술분야 신진 및 중견작가의 창작과정을 연구, 창작, 전시의 각 층위별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수작품 창작 실현 및 작가 육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15억 원 내외의 문예진흥기금을 집중 편성하여 미술작가 및 미술단체 등을 지원해 왔다.

공공미술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ARKO 기획,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미술프로젝트

2010년대 후반, 예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과거 압축적 경제 발전시대에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비어있는 산업시설[16]들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등 정부의 문화도시 활성화 정책과 함께 공공미술 사업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2017년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추진된 〈아트 인 시티(Art in City)〉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특히 문체부에서 지원하여 추진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공모사업을 통해

16. 경제발전시대 중심역할을 했던 산업시설들이 현재 그 기능을 잃고 구도심의 퇴락한 시설로써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 문화시설로 거듭나고 새로운 문화명소로 자리잡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당인리화력발전소(서울 마포구), 철도 역사(서울역284, 경춘선의 경강역 등), 연초제조창(대구 예술발전소, 청주 문화제조창), 산업공단(전주 팔복예술공장) 등이 문화시설로 탈바꿈되어 지역재생에 공공미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공공미술의 붐을 주도하여 부산 감천마을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2015년에는 문체부가 지원해오던 〈공공미술사업(마을미술프로젝트)〉과 예술위원회가 진행하던 〈아르코 공공미술사업〉을 통합, 공공미술 포털사이트를 개편하고 온라인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였다. 예술위원회는 2014년 전남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나주 이전 기관인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약하여 예술감독, 작가 등 2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기관 협력형 공공미술〉을 추진하였다.

[표 9-7] 예술창작역량강화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 총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연예술창작육성	18,100	8,750	7,800	7,000	42,099	22,640	21,110	18,109	22,085	26,404*
- 공연예술창작활동지원	2,000	2,750	2,700	2,350	-	-	-	-	-	-
- 공연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5,360	1,100	-	1,100	-	-	-	-	-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구 공연예술행사지원)	3,800	4,900	4,100	3,250	6,100	-	7,260	8,345	8,895	7,665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	-	300	340	340	-	-	-	-
- 대관공연장운영 (구 기초공연예술활성화지원)	-	-	-	-	10,800	10,000	500	144	-	-
- 공연연습공간조성및운영지원	-	-	1,000	-	10,000	-	-	-	-	-
- 시민참여형프로젝트	-	-	-	-	500	-	-	-	-	-
- 창작뮤지컬육성	-	-	-	-	5,000	6,000	5,750	4,750	-	-
- 공연예술창작산실	-	-	-	-	5,000	5,200	6,000	4,670	8,640	9,277
- 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 (구 기초예술사이버공간개척)	-	-	-	-	-	-	-	-	-	2,500
- 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	-	-	-	-	1,580	1,100	-	-	-	-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	-	-	2,779	-	-	-	-	-
-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	-	-	-	-	-	1,000	-	-	-
- 원로연극제	-	-	-	-	-	-	300	-	-	-
- 원로금빛제전	-	-	-	-	-	-	300	-	-	-
- 융복합무대기술매칭지원	-	-	-	-	-	-	-	200	200	-
- 공연장대관료지원	-	-	-	-	-	-	-	-	3,300	2,952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	-	-	-	-	-	-	1,050	950
- 공연예술공간운영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	2,000	-	-	-	-	-	-	-	-	3,060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	-	-	-	-	-	-	-	5,490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도입 당시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2021년부터 공연예술창작육성의 하위 사업으로 편성됨. 이에 따라 2019년 예산 총계에서는 제외함.

공연예술창작 육성사업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중 〈공연예술창작 육성사업〉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여러 장르를 망라하여 창작 및 무대 발표, 평론 및 연구활동, 대관료 지원, 연습실 운영 지원 등 20여 개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대 〈공연예술창작육성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많은 문예기금이 지원된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543억 원)과 우수한 공연을 단계별로 집중 육성하는 〈공연예술창작산실〉(388억 원) 등 2개 사업이고, 그다음으로 〈창작뮤지컬 육성〉 215억 원, 〈대관공연장 운영(구 기초공연예술활성화 지원)〉 214억 원 등이 있다. 2014년부터 〈공연예술창작산실〉로 통합된 〈공연예술창작활동 지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8억 원이 지원되었고, 그 외 〈공연예술창작 및 발표공간 지원〉 역시 〈공연예술창작산실〉과 통합되기 전인 2013년까지 76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공연장 대관료 지원〉(2018~2019년)이 63억 원, 〈공연예술공간운영(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운영)〉에 51억 원이 지원되는 등 〈공연예술창작 육성사업〉에 총 1,941억 원의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공연예술분야에 약 194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은 전국규모의 공연예술행사들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 예술가의 창작과 시민이 만나는 대규모 공연예술축제 58건에 89억 원을 지원하여 총 8,087,559명의 관객과 53,686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등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 543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예술 수요를 이끄는 우수 예술 창조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최근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우수한 예술창작의 결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예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창작 지원이 국민의 향유를 높이고 예술시장을 활성화하여 타 분야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체계화한 것이다. 〈공연예술창작산실〉은 기초 공연예술 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의 특성을 살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장르별 우수 창작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형 지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동시대성·다양성을 갖춘 작품과 창작자 발굴을 위한 〈대본공모〉, 공연창작의 사전연구·사전제작 단계를 지원하는 〈창작의과정#공연예술〉, 단계별 과정 지원으로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올해의신작〉, 국내 창작 관현악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연주지원〉, 공연예술 분야 비평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사업을 연계 운영하고 있다.

창작뮤지컬 해외공동제작 및 유통 플랫폼 지원

창작뮤지컬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창작뮤지컬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고 선도적인 기획, 제작, 해외 진출 유통 시스템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제작사(법인)가 초연, 재연 등 계획한 작품을 해외 현지 제작사, 공연장, 문화예술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고일 전후로 공동제작 계약 및 협정이 체결된 사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창작뮤지컬 유통 플랫폼 지원사업은 국내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및 유통 활로 개척을 위해 공공단위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뮤지컬 해외유망시장 발굴 및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유망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창작뮤지컬이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현지화가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자 마련된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단체는 현지 전문가의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지원사업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여 해외에서 개최 예정인 K-뮤지컬 로드쇼에서 창작뮤지컬 쇼케이스 공연(4편 내외)을 희망하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2019년의 경우 중국 〈베이징 공연예술박람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공연예술 페어〉 등에 참가하며, 한국창작뮤지컬의 대표작, 대표 연출가, 관련 행사 및 기관을 소개하는 국영문 책자 발간 및 온라인 아카이빙 등 종합홍보물과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융복합 무대기술매칭 지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동시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무대기술 개발지원 및 공연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 주관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수시 전문 기술 컨설팅을 통해 단체의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컨퍼런스 및 성과 공유회를 통해 사업 환류 및 관련 분야 참가자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관료 지원과 연습공간 조성 등 간접지원 확대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사업〉과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원사업〉 등은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원 4대 원칙 중 예술가의 창작 작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공연장 대관료, 연습공간 이용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대관료 지원사업〉은 공연단체들이 선호하는 우수 공연장 대부분이 대관료가 비싼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원하는 공연장을 대관할 수 있도록 전국의 360여 개 공연장을 대상으로 단체당 대관료의 80% 수준,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였다. 대학로의 동숭홀, 아트원씨어터 등 일부 공연장을 선 대관으로 확보하여 시중 대관료의 25~30% 수준에서 대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연단체의 창작활동을 간접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표 9-8] 융복합 예술창작지원 사업 총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융복합예술창작지원	800	2,414	2,308	2,114	2,230	2,230	-	-	-	-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800	730	909	800	1,000	1,000	-	-	-	-
① 다원예술창작지원	800	500	709	500	600	600	-	-	-	-
② 융복합예술창작지원	-	230	200	300	400	400	-	-	-	-
- 창작매개활동지원 (예술가의집)	-	400	550	550	330	330	-	-	-	-
- 융복합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미술관)	-	1,284	849	764	900	900	-	-	-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사진은 예술+건축+과학 새로운 융합의 모델을 모색한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 프로젝트(2013). 제주도 김녕마을에 설치된 작품 좌측 《사랑당(푸른 빛의 전설)》, 우측 《풍루(風樓)》(사진제공: 스케일)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사업〉 또한 지역별로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연연습장을 조성하여 공연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공연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간접지원의 효과도 거두게 된다. 공연연습장은 2014년 서울, 춘천, 대구, 부산, 청주 등 5개 지역에 조성되었고 이어 2015년에 부천, 인천, 전주 등 3개 지역, 2016년에 광주, 울산, 창원 등 3개 지역, 2017년에는 강진, 원주, 포항 등 3개 지역에 조성을 마쳐 총 14개 지역에 조성을 마쳤으며 지역 기반의 민간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예술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국에 조성된 공연연습공간은 지자체, 공익재단 등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하여 조성되었고 문체부-예술위-지자체(시·도)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공연예술창작활동지원〉은 2014년 이후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2017년부터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으로 복원되었는데, 과거 사후지원 사업과 차별점으로써, 기존 작품을 평가 후 차기 작품의 재공연 제작비(70%)를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미 추진된 공연의 제작비를 일부 보전(30%)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기획·제작 역량이 있는 단체를 발굴 육성하고 여건상 재공연이 어려운 우수 공연작품에 대해 사후평가를 통해 제작비 일부를 사후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는 예술과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접근과 방법을 모색하며 새 융합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취지로 시도되었다. 다양한 확장이 가능한, 무엇보다도 과정을 중시하는 열린 프로젝트로 진행된 동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등과 MOU를 체결하고 예술과 타분야와의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자연과 미디어 에뉴알레' 등 3건의 프로젝트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공연예술인큐베이션〉은 2011년부터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과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공연예술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합한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신진 희곡·연출·안무가를 선정하여 기금, 시설, 교육, 인적 자원 등의 종합적 지원과 우수작품 선정 후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사후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1~2012년 예산은 각 5억 7,000만 원이 배정됐다. 2012년도의 경우 차세대 연출가 김제민의 《R.U.R》 등 5개 창작작품에 대해 쇼케이스 1회, 공연 3회씩을 지원했고, 희곡작가 김성배의 《지옥의 문》 등 5개 작품에 공연 1회, 창작희곡집

발간을 지원했다. 안무가 권령은의 《꽃, 미영이란 이름의 편지들》을 비롯한 13개 작품에 대해서도 오픈스튜디오 1회, 쇼케이스 1회를 지원했다. 예술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 차세대 성장 동력인 예술창작인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술 실험공간과 예술 소통공간 지원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을 통해 실험적인 예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2011~2012년에 '대안문화행동재미난복수', '그룹스폰치', '문지문화원 사이' 등 7곳에 2년 연속 2억 1,000만 원과 2억 1,300만 원을 결정, 지원했다. 예술 실험공간 운영의 격을 높이기 위해 선정공간을 대상으로 워크숍, 컨설팅 등 비재정적 지원도 병행하였다.

〈예술가소통공간지원〉은 예술가와 예술인단체, 예술후원 기업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소통공간인 '예술가의집'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예술가의집'은 예술위원회가 2010년 5월 구로구 새말로(구로동)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대학로 구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개방 당시 1층에 창작지원실, A & B(Art & Business)센터, 예술인 카페, 전시공간인 열린공간 통(通), 쉼터 겸 야외공연장인 맞이공원(뒤뜰, 478m²), 2층에 국립예술자료원 분관인 영상감상실·예술자료실, 명예의 전당, 3층에 다목적홀(110석, 189m², 통역실 구비), 20석·16석·8석 규모의 세미나실 1·2·3으로 구성돼 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인 간접 지원 차원에서 예술가의집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하는 한편, 활발히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우리시대 예술가의 명강의'(10회), '융복합예술창작지원 강좌 예술+예술, 예술+기술'(20여 회), '철학 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8회) 등 매우 다양하다.

이후로도 예술위원회는 예술가의집을 통해 예술가들이 실험적 예술활동을 수행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창작매개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술과 사회인문 융합 등 8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가의집을 운영했다. 2016년에는 예술가의집 운영 사업을 〈인문문예소통 공간〉으로 개편하여 문학창작육성 하위 사업으로 편제하여 다양한 소통기획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2017년부터는 〈예술가의집 운영〉으로 사업명을 개편하여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고 예술가들이 창작 및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문화예술교류 지원

예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2010년대에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우리 예술가, 예술단체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의 경우, 자율형 레지던스 24개소에 28명, 기획형 레지던스 29개소에 83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문화예술교류활동을 지원하여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20건, 국제예술확산지원 38건 등 총 158건(24.5억 원)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장기적 차원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인적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예술가와 기획자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9년 추진된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15건, 청년예술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9건 등 총 45건(9억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남북 간 신뢰구축과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민족문화예술 교류활동 10건(3억 원)을 지원하여 작지만, 향후 활발한 교류를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9] ARKO국제교류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 2019. 12. 31. 기준)

업무 또는 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술창작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 (공모_비지정) 국내외 초청·협력·리서치 사업 - (공모_지정) 프랑스 상상축제, EBU	2,110	2,083	99
(예술창작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 지원	1,000	969	97
(예술창작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	643	643	100
(예술창작지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관리	1,000	982	98
(예술창작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 지원	900	857	95
(예술창작지원) 해외문화기관 협력사업 추진 - 기관교류(IFACCA,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몽골예술위원회) - 해외 예술인 초청 - 국내외 유관기관 파트너십 관리	300	255	85
(예술창작지원) 국제문학포럼	200	200	100
(예술창작지원) 남북문화예술교류 지원	300	265	88
(예술의관광자원화)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457	457	100
(예술의관광자원화) 예경,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교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 전통공연예술 해외 프로모션·유통 지원,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공연예술해외진출 기반 마련, 서울 아트마켓 지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전통공연 계기성 행사지원	2,892	2,892	100
계	9,802	9,603	98

두 번째는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18.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우선 〈국제예술공동기금〉은 국가 간 양방향 협업(MOU 체결 및 예산매칭)을 통해 양국 간의 예술가(단체)의 협업작품 창작 및 발표 등을 지원하며, 추진방식은 2년간 연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1년차 사전 리서치 등 준비작업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해당 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국(2016~2017)과의 한-영 컨퍼런스 개최를 시작으로, 독일(2018~2019), 덴마크(2020~2021) 등 주로 유럽의 문화선진국과 협력을 추진하였다. 교류협력 대상국은 매 2년마다 조정함으로써 폭넓은 교류협력의 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외 아시아권에서의 문화기관과 협력은 중국문화예술계연합회(문련), 몽골예술위원회 등 해외 주요기관과 협력사업을 개발 추진중에 있다.

세 번째는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가장 역사가 깊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과 국제 미술전 및 건축전 참가 지원에 관한 것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의 의미

2010년대 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서 오랜 숙원사업이던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관 전시가 건축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1995년 한국관을 설치하고 매년 작가를 선발, 국가관 전시에 참여해왔던 우리나라로서는 한국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케이팝(K-pop)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고, 한국의 드라마, 영화가 큰 인기를 누리며 아카데미상 등 세계적인 상을 연거푸 받는 상황에서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기초예술 역시 개별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거나 페스티벌 무대에서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미술전시장인 베니스



2014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작업



2014 베니스 비엔날레 안내 포스터

비엔날레를 비롯한 휘트니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등 세계 3대 비엔날레에서 특별상 외에는 이렇다 할 상을 받지 못했는데 2014년 드디어 건축전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고 연이어 2015년에는 미술전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국제미술전 행사 중 세계 미술계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국제 비엔날레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남동쪽 카스텔로 공원 내 10만 평 부지 위에서 펼쳐지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국가관별로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홀수년에는 미술전을, 짝수년에는 건축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첫 참가를 하였으며, 전시관이 없어 이탈리아관의 작은 공간을 배정받아 참가하던 중, 우리 정부는 1995년 26번째로 독립된 국가관인 한국관을 건립하여[17] 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매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전시를 총괄하는 커미셔너와 참여작가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관은 우리 미술의 해외 소개를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관이 개관하기 전, 우리나라 예술가지만 독일 국적으로 1993년 독일관 전시 작가로 참가했던 백남준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고, 1995년 한국관 개관 첫 해에 전수천 작가가 특별상을, 1997년 강익중 작가, 1999년에 이불 작가가 연속 3회 특별상을 받았다. 2014년 6월 7일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설치된 이후, 드디어 국제건축전에서 남북의 건축물을 다룬 《한반도 오감도》전으로 조민석 건축가가 국가관 전시 중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된다. 이어서 이듬해인 2015년 국제미술전에서는 아시아 여성의 노동 문제를 다룬 영화 《위로공단》으로 임흥순 작가가 은사자상을 연이어 수상하게 된다. 이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관에 전시된 작품들이 현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베니스시가 주관하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뿐 아니라 영화, 건축, 음악, 연극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시각에 독립된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17.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국가관인 한국관은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베네치아 카스텔로 공원 내에 26번째로 건립하여 매년 작가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관과 함께 공원내 자신의 국가관을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나라로 그 이후 더이상 국가관 자리가 없어 다른 나라는 비엔날레에 참가하기 위해서 공원 밖의 마을 공간을 임대하여 전시를 하기도 한다.

3. 2010년대 예술지원제도의 개선 노력과 성과

책임심의제 도입

2010년대는 예술위원회의 지원심의제도에 수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특히 영국예술위원회(ACE)의 심의제도를 모델로 한 책임심의제도 도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전형적인 심의제도로 간주되어 온 일회적 심의방식에서 탈피,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 심의와 지속적인 평가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다. 책임심의위원 제도는 2010년부터 2015년 정기공모까지 진행되었고 2015년 수시공모에서 2016년까지는 책임심의와 일회적 심의방식이 공존하다가 2017년부터는 책임심의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일회적 심의방식으로 회귀하였다. 이전과 다른 것은 심의위원 풀제를 중심으로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 선정에서 소위 무작위 추첨의 랜덤(Random) 방식이 채택되면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제비뽑기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적합성, 합리성보다는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최우선시하는 심의제도가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책임심의제 도입의 계기도 일회적 심의방식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원인이었다.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에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0년부터 책임심의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책임심의위원은 2010년 당시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중견직원 1명 등 총 5인으로 구성했으며, 외부인사 중에서 서울 이외 지역의 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자문위원 또는 평가단을 두어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부 직원의 책임심의위원 참여는 도입 3년차인 2013년부터 당시 위원장의 지시로 폐지하게 된다. 이유는 직원이 해당 분야 심의를 주도함으로써 심의 권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표 9-10] 책임심의위원 구성 분야 및 인원(2010년)

구분	구성 분야									계
	문학	시각 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다원 예술	문화나눔		
								순회사업	장애인 창작향유	
외부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36명
직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8명

시각이 있었고, 한편으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권력화의 시각은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묻게 되고 모든 비난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심의제는 2013년 이후에는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1년간 이루어지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막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심의위원의 선임절차는 외부인사는 위원장이 3배수의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하며, 직원은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술위원회는 기금사업 계획 및 지원 방향을 결정하지만, 사업별 지원심의의 세부방침과 세부심의기준의 설정, 심의 진행과 평가 등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고유의 권한으로 존중된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심의제도로 존재했던 책임심의제는 당시 불만과 민원 폭주를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직원들은 오히려 민원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심의의 적격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제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책임심의제는 당초 우려했던 심의위원의 권력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원사업들을 소수의 개인이 모두 평가해야 하는 데 따른 전문성 문제 등이 당시 '블랙리스트 파동'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겹치면서 기존에 도입된 책임심의제가 전격 폐지되고 일회적 심의방식에 심의위원 풀제(Pool制)가 가미된 심의제도로 돌아가게 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도입

이 시기에는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 85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하여 주관처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예술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소액 대출 등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장기 창작지원

창작지원 분야에서 현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다년간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되는데 2019년 총 55억 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술단체를 다년간 집중 지원·육성하여 우수하고 다양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작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예술단체의 신규 프로젝트 및 작품 유통, 인력운영 지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열악한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며 더불어 예술단체의 경영능력 제고와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위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8]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35위로 3번째로 높고, 대졸자는 연평균 3% 증가하는데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에 그치고 있어 매년 취업률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고용 지표는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예술가에게도 현실로 다가와 2010년대 말인 2019년에는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창업지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2019년 신규 편성된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은 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청년예술가의 예술현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춰 안정적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소외계층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지역 순회사업을 지원해온 〈신나는 예술여행〉에 청년예술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30억 원)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기반 청년예술가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셋째로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청년기본법 [1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18. 한국경제연구원, 2021. 11. 18.

19. 「청년기본법」(2020. 8.)에 규정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청년의 나이에 대한 규정은 15세 이상 29세를 원칙으로 하고 특칙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지칭한다.

지원 사업〉을 9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 추진하여 청년예술가·기획자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활동 및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확대 지원하였다.

문화예술 온라인 시장 개척

2010년 이후,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스마트폰이 일상화 되면서, '복제가 불가능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오직 하나뿐인 예술'이라는 기초예술 현장의 모습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관객이 극장·미술관 등 문화공간을 찾아가 예술가의 창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에서 무대 공연을 녹화 혹은 실황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소비자(관객)의 즉각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작품에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의 예술이 각광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 작품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콘텐츠로 제작, 공연예술의 한계인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온라인 공간에 유통함으로써 재래적인 공연시장의 개념을 확장하여 온라인을 통해 연극, 무용, 음악 등 무대에서 실연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2.7억 원이었던 〈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 사업〉은 2019년 25억 원으로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약 9배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는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이나 직장, 카페 등 어디에서건 넷플릭스(글로벌 OTT 플랫폼), 네이버TV(IPTV), TVING(CJ E & M 종합 콘텐츠) 등 OTT 서비스[20]를 통해 원하는 예술작품을 집, 직장, 카페와 같이 어느 장소에서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TV로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다준 변화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문화향유 방식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그 외에도 예술가의 창작 영역과 관객들의 문화 향유방식이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더 많은 변화를 겪는 '뉴노멀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사업〉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 및 향유 활성화를 위해 기초예술 분야 고유의 예술-기술융합 창작지원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공연예술

20. OTT란 'Over The Top'의 준말이다. Top은 셋탑박스(set-top box)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OTT는 인터넷이 연결된 셋탑박스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현재는 셋탑박스의 유무를 떠나 인터넷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칭한다. 가장 대중적인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다. 공연예술 창작산실의 경우 네이버TV와 제휴를 통해 무대에서 이루어진 창작산실 작품들을 실시간 OTT 서비스를 통해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를 위한 〈융복합무대기술 매칭지원〉과 〈기초공연예술 사이버공간 개척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에는 공연예술의 새로운 창작모델 제시와 온라인 향유방식 다각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관 고유의 예술-기술 융합지원 사업 방향성 모색하는 시기였다. 2021년부터 2023년에는 예술 주도적 기술융합으로 사업 방향성을 정립하고 예술 영역·가치확장 및 예술적 창의성·표현 확대를 목표로, 기획-창·제작-확산의 단계별 창작지원체계 마련 및 진입단계 예술인을 위한 〈기술 바우처 제공 사업〉 신설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융복합 무대기술 매칭지원〉과 가상공간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모형 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총 84건 신청에 9건이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경쟁률이 매우 높아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무대 제작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메르스 확산과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추진

2015년 5월부터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은 공연시장 매출액에 큰 타격을 주었다. 메르스의 영향이 가장 컸던 6월 한 달간 공연시장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36.1%가 감소했고 예매취소율은 평균 예매취소율의 두 배가 넘는 42%에 달하는 등 공연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메르스의 확산으로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을 통해 총 156만 매의 티켓이 판매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공연시장 판매량은 약 6.2% 증가(본인부담 및 무료지원 포함) 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관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장기 침체의 우려에서 벗어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사업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단기간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업내용은 공연 티켓 1장 구입시 플러스 티켓 1장을 추가 발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연극, 무용, 음악 등 기초 공연예술 위주로 하였고 영화, 스포츠 분야는 제외하였다. 지원금액은 5만 원 이하의 공연티켓으로 한정하였으나, 2015년 10월 이후에는 7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지원 한도는 공연별 개인당 2매(2+2=4매)까지 구입 가능하며 공연 회당 100석(5회 이하 공연은 200석)까지 적용 가능하고 티켓 1장당 가격은 할인 적용 5만 원 이하로 공연당 지원액은 1.5억 원을 한도로 하였고 동일 공연단체에서 최대 3개 공연(2016년 1월 이후 5개)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은 다섯 차례의 공모를 통해 총 1,548건의 공연을 선정했는데, 그중 연극이 8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 278건, 뮤지컬이 25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소극장 공연인 연극 장르의 경우, 2015년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 중 5.9%에 그친 데 비해 1+1의 매출 중에는 32.4%를 차지하여 1+1 사업의 수혜 비중이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2010년대 문화향유 지원사업의 추진과 성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의 문화향유'라는 가치 아래 지역의 문화예술 성장이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향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신나는 예술여행〉, 〈사랑티켓〉 사업 등이 있고 그 외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등이 있다. 예술위원회의 사업을 구분하면, 크게 예술인의 창작역량 제고를 위한 창작 진흥사업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향유 또는 문화복지 관점의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창작과 향유의 관점이 혼합된 매개공간 지원, 국제교류 및 지역문화 지원 등도 있다. 그러나 통상 공공 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창작 및 표현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 지원'과 국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향유 지원'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산항목에서 문화예술 향유지원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표 9-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비롯하여 〈신나는예술여행〉(2017년부터 〈소외계층문화순회〉에서 사업명 변경)과 〈방방곡곡문화공감〉(한국문예회관연합회 주관)과 2017년부터 폐지된 공연·전시 관객 개발을 위한 할인티켓 지원사업인 〈사랑티켓〉, 그리고 복권기금에서 오랫동안 지원해 왔으나 2018년부터 사업 중복성을 고려, 폐지된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예술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화향유 유형 사업은 문화향유의

[표 9-11] 문예진흥기금 내 문화향유 지원사업 변동내역(2010~2019)

(단위 : 억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부사업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문화예술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5,000	24,500	34,300	34,946	40,866	42,643	42,643	69,875	82,103	91,501
신나는예술여행	-	-	-	-	-	-	-	-	-	25,289
방방곡곡문화공감	-	-	-	-	-	-	-	-	-	15,750
공연나눔	13,000	15,200	16,100	16,190	19,234	19,278	36,119	36,119	36,016	-
- 소외계층문화순회	5,800	8,000	9,300	9,530	10,000	10,000	20,000	21,119	21,016	-
- 방방곡곡문화공감	4,800	4,800	4,800	4,704	7,983	8,000	15,000	15,000	15,000	-
- 사랑티켓	2,400	2,400	2,000	1,956	1,251	1,278	1,119	-	-	-
창작나눔	1,600	2,200	2,200	2,268	1,200	1,200	1,080	1,080	-	-
문학나눔	2,000	4,000	4,000	3,930	-	-	-	-	-	-
전시나눔	600	800	800	787	-	-	-	-	-	-
전통나눔	1,500	1,300	-	-	-	-	-	-	-	-
계	23,700	48,000	57,400	58,121	61,300	63,121	92,469	107,074	118,119	132,540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및 내부자료 활용하여 재구성

지역적·사회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신나는 예술여행〉, 저소득층을 비롯한 문화소외계층이 스스로 문화향유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액이 적립된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 미래 문화예술 잠재 관객인 아동·청소년(만 24세 이하)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랑티켓〉 등 세 가지이다.

1.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 통합문화이용권

'향유'라는 분류보다 구체적인 문화정책의 분야로서 「문화기본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예진흥법)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복지'(「문예진흥법」) 혹은 '문화복지'(「문화기본법」)이다. 2006년 '문화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수요자 선택형 문화복지사업으로 그 시작과 성장은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사업은 주로 경제적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 여행,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동안 언급조차 뜸했던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규정(「문화기본법」)되고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문예진흥법」)가 마련되는 등 문화 부문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향유 지원사업이자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간주해온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진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문화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담기관 및 가맹점 등 전국적인 추진 체계를 갖춘 사업으로 특히 1980년대부터 언급돼 온 문화복지를 실현한 사업이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사업은 2006년 등장해서 17년의 짧은 기간 동안 획기적인 발전을 거쳐 현재는 법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다수에게 개인 1인당 11만 원의 지원금을 문화누리카드에 자동 충전하여 자신이 원하는 문화·관광·스포츠 관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기별 주요 정책의 변화 내용은 [표 9-12]와 같다.

[표 9-12] 통합문화이용권 정책의 변화 추이(2006~2023)[21]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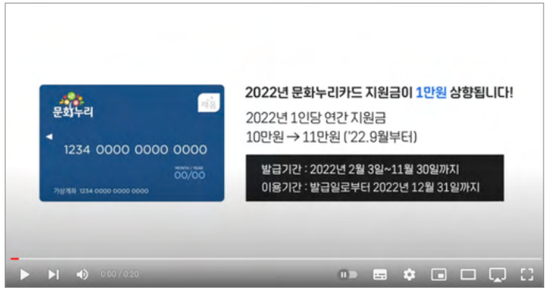
구분	형성기	정착기	통합 조정기	확장기	성숙기
연도	2006~2010	2011~2013	2014~2016	2017~2022	2023~현재
사업명	문화바우처	문화이용권(2013)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국고+지방비)	26~68억 원	347~493억 원	732~785억 원	992~2,936억 원	2,983억 원
정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카드 발급매수	카드제 미도입(포인트제)	66만 매(2013)	145만 매(2016)	159만 매(2018)	267만 매(진행중)
지원금액	3~5만 원	가구당 5만 원 ※ 청소년1인 5만 원	가구당 10만 원 → 개인당 5만 원	매년 1만 원씩 증액 ※ 2022년 : 11만 원	개인당 11만 원
제도변화	- 인터넷 포인트제 - 일부 지방비 매칭	- 카드사업 시행 - 시도 지방비 매칭 - 「문예진흥법」 근거 마련(2012. 8.)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 법시행규칙 보완 - 기획사업 폐지	- 지원금액 상향 ※ 매년 1만 원씩 증액 - 자동재충전제 도입 (2021)	향후 개인당 15만 원까지 증액 (예정)

초기 〈문화바우처〉 사업은 2006년 26억 원의 예산으로 인터넷상에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으로 출발했다. 예술위에서 추천하는 공연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입된 회원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을 희망하면 3~5만 원 한도에서 공연을 연결해 주는 형태로 운영됐다. 비록 인터넷이 일반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역할이었지만, 좋은 공연을 추천해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어 본 사업이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대표 사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착기(2011~2013)로 이 사업은 변화의 분기점을 맞게 되는데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제46차 라디오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빠르게 늘려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면서다.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이후, 2011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 비약적인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회원가입한 소외계층에게 인터넷 포인트제로 문화예술 접근 기회 제공하며 소박하게 운영하던 사업이 돌연 전 국민 대상의 카드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됐다.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였음.

2011년 7월부터는 민간단체가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던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이 전년도 5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예술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예상대로 〈문화바우처〉 사업은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 분야 최대의 이슈로 등장했고 한 해의 두 달만을 남긴 시점에 사업 집행률이 배정된 예산의 19%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연일 지면을 장식했다. 다행히 〈문화바우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역으로 〈문화바우처〉 인지도가 높아지는 홍보 효과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예술위원회의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족 단위 카드 발급 외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개인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비록 그해 사업 기간은 이듬해 4월까지 연장됐지만, 사업 집행률을 다른 분야의 바우처 사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적으로 바우처 사업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 8월, 「문예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1항에 예술위원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정규 TO 증원,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도 마련되는 등 법정사업으로서 〈문화이용권〉 사업의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

통합조정기(2014~2016)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문화이용권이 문화·관광·스포츠 이용권으로 통합됐고, 숙원 사항이었던 지원금액이 가족 단위(10만 원)에서 개인당 5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명칭은 〈통합문화이용권〉(카드명은 '문화누리카드')으로, 수혜 대상은 66만 명에서 14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초기 지역단위 문화기획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획사업이 예산 문제로 폐지됐다는 점이다. 이어 확장기(2017~2022)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개인당 5만 원을 지급하던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매년 1만 원씩 6년간 증액돼 2022년부터는 개인당 11만 원씩 총 159만 매가 기초생활



2022년 문화누리카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youtube.com/watch?v=1db-P61YV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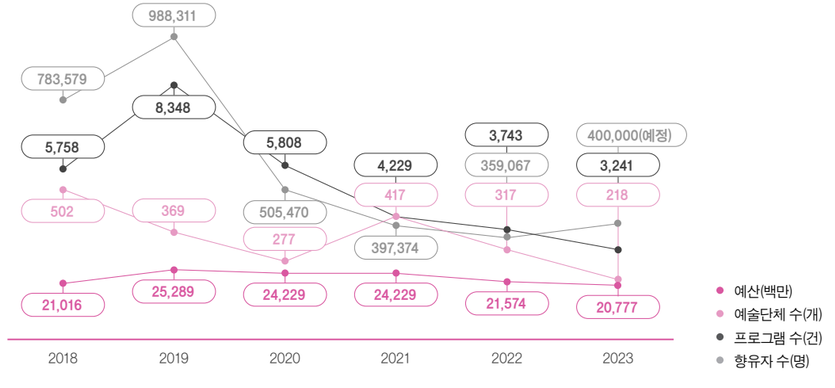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카드 충전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간을 성숙기(2023~향후)로 정의하고, 사업의 내실화·고도화에 힘써야 할 시기로 보았다. 본 카드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적 수용 욕구가 큰 차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기획사업 활성화, 카드 사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앞으로 검토될 과제로 판단된다.

2. 찾아가는 문화향유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향유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예술위의 사업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신나는 예술여행〉이다. 이 사업은 공급자(예술가)의 시각에서 〈소외계층 문화순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 수용자(향유자) 시각인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명칭이 일원화되면서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상징적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됐다. 이 사업은 문화향유의 균점화라는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1990년 독립된 문화부 이어령 초대 장관에 의해 추진된 〈찾아가는 미술관〉, 〈찾아가는 도서관〉 등 '찾아가는' 시리즈의 사업과도 연결된다. 순회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일찍이 공공영역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추진했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영국은 2000년대 이후 지역예술위원회가 영국예술위원회(ACE)와 통합되면서 정책 결정은 중앙 본부가, 개별 사업 시행은 지역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역을 찾아가는 순회 프로그램은 영국예술위원회(ACE) 중앙 본부가 직접 추진했다.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정부에서 10년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주창했던 고급문화의 확산 정책을 시행했다. 수도 파리에 집중된 우수한

[그림 9-3] 신나는 예술여행 연도별 예산 및 추진현황[22]



문화예술을 문화향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프랑스 전역의 사회적·지역적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문화를 누릴 기회를 준다는 취지의 '문화의 민주화' 이념에 바탕을 둔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역시 서울에서나 볼 수 있던 문화예술 작품을 문화시설이 부재한 도서·산간, 농어촌, 읍면 등 지역 문화예술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곳이나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요양시설 등 사회적·지리적·문화적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전시 및 시 낭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한다. 이는 예술위원회가 질적으로 우수한 예술단체를 선정해 평소에 관람하기 어려운 예술단체의 공연, 예술적 수월성이나 대중성 등이 인정된 작품을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문화향유 정책의 하나로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진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때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폐지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이유는 '찾아가는' 류의 향유권 확대 사업은 2000년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이미 예술단체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순회형 사업을 제한적이나마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중앙과 지역의 사업 중복성이 인정된다며 심의 결과 관련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결정을 내린

22. 예술위원회 내부자료를 기초로 도표화 하였음.

[표 9-13] 신나는 예술여행 I 매칭형 프로그램

구분	사업유형	순회처 및 사업내용
매칭형 프로그램	아동시설순회	•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학교 등 아동교육 관련 시설 •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 아동복지 관련 시설
	청소년시설순회	•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교육 관련 시설 • 청소년쉼터, 방과후아카데미, 수련원 등 청소년복지 관련 시설
	장애인시설순회	• 장애인(지적·발달·지체·시각·청각장애) 교육·복지·주거 관련 시설
	노인시설순회	•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 관련 시설 • 복지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 복지·의료 관련 시설
	일반시설순회	• 복지·의료·주거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 하나원 등 탈북민 관련 시설
	특수계층시설순회	• 교정시설, 군부대

[표 9-14] 신나는 예술여행 II 발굴형·청년예술형 프로그램

구분	사업유형		순회처 및 사업내용
발굴형 프로그램	지역협력 특화사업	민간 주도형	•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원(역사적·문화적 자원, 예술인력, 문화공간,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문화향유 콘텐츠가 결합된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역 자생적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발굴·기획·확산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증진
		사회적 네트워크형	
		공공 주도형	
	지리적 문화 소외지역 순회사업	농산어촌 마을순회	• 광역단위 지역별 농산어촌 중심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문화예술 체험, 전시 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 찾아가는 서비스와 모셔오는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주민 참여 유도 프로그램
		도서지역 순회	• 연륙교로 이어지지 않은 도서지역의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신나는 예술여행 확산사업		•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연계하여 문화향유 프로그램 쇼케이스,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축제형 행사 기획·운영
	문학순회사업		• 지역 문화공간 등을 활용하여 문학 소외지역 및 소외지역 대상으로 문학 향수 프로그램 운영
청년 예술형 프로그램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 강원권, 영남권		• 청년예술가(만 19~39세)의 참여로 청년예술 활동 지원 및 일거리 창출 기반 마련 • 청년예술가만의 창의적 공연, 문화예술 체험, 전시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

것이었다. 기재부의 결정은 우수한 예술단체의 검증된 프로그램이 지역을 넘나들며 추진되던 형태에서 지역 내 단체만이 해당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문화의 균점화' 혹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고급문화의 확산이라는 〈신나는 예술여행〉의 본래 사업 취지를 간과한 결정이었다.

기재부의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이 알려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안숙선 명창, 유안진 시인, 박정자 연극배우, 이성림 예총 회장(전통무용) 등 당대의 예술인들이 주말 휴일이었음에도 기재부를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https://www.youtube.com/watch?v=Cmmp8JnxA7k

방문했다. 마침 사무실에 나와 있던 기재부 예산실장과 긴급 면담 요청이 성사돼, 삭감하려던 지원예산을 다시 검토해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함께한 예술인 중 유안진 시인(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은 "〈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 지역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시인, 소설가, 예술인이 전국을 누비며 시낭송회, 공연, 전시 등을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는가?"라며, 〈신나는 예술여행〉이 예술가와 향유자 모두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예산실장의 마음이 움직였고 〈신나는 예술여행〉의 예산을 극적으로 살릴 수 있었다. 이후 〈신나는 예술여행〉은 더욱 발전해 복권기금으로 재원이 옮겨진 후에도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고, 수백 개의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향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상징적 지원사업으로 성장했다. 어쩌면 오래전 사라졌을지도 모를 이 지원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3. 공연 현장을 풍미했던 〈사랑티켓〉

〈사랑티켓〉 사업은 현재 중단됐지만, 한때 대학로를 중심으로 관객몰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원사업이다. 〈사랑티켓〉의 기원은 1991년 〈연극영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5월 '가정의 달'과 10월 '문화의 달'에 한국연극협회의 주관하에 공연·전시장 입장료를 1인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관객 개발사업이었다. 이 사업이 상당한 호응을 얻자 이듬해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편성돼 예술위원회의 전신인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연중 추진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사랑티켓〉 사업 활성화 연구를 통해 공연 관객 확대를 위한 〈사랑티켓〉 확산 방안이 마련되었고 그 결과, 〈사랑티켓〉은 연간 예산이 80억 원까지 증액되면서 아동극을 중심으로 대학로의 공연 관객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초에 50개 내외였던 대학로의

소극장 수는 2010년대에는 150개로 늘었고 대학로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연극의 메카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예술단체가 할인해준 〈사랑티켓〉 금액을 문예진흥기금에서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원사업을 이끌어간 〈사랑티켓〉의 인기는 높아져 갔다. 그러나 〈사랑티켓〉이 예술 현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지원예산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사랑티켓〉 운영협의회에서는 한 달에 1인당 8장까지 살 수 있던 것을 4장으로 줄이고 하루 발권량도 500장으로 제한하는 극단적인 쿼터제를 실시했다. 이후 매일 오전 10시 〈사랑티켓〉 예매가 시작되면 10분도 되지 않아 매진되고, 이에 따라 〈사랑티켓〉의 유통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랑티켓〉에 의존해 온 대학로 극장의 매출이 80%까지 떨어지는 등 운영에 직격탄을 맞는다. 〈사랑티켓〉은 시장의 티켓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끼쳐 〈사랑티켓〉 할인가격에 시장의 소비자 눈높이가 맞춰져 오히려 〈사랑티켓〉의 존재가 공연현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신용카드의 공연 할인 혜택이 늘고 할인율 또한 〈사랑티켓〉 지원액보다 훨씬 늘어나는 경우도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랑티켓〉의 인기는 시들었다. 대학로에서 〈사랑티켓〉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결국은 관객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수명을 다했다는 진단 하에 공연정책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운명을 겪어야 했다. 〈사랑티켓〉은 서울 대학로 무대에서 사라진 정책이 됐지만, 부산을 비롯한 지역 단위 공연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에 도움을 주는 공연 관객 개발사업으로 한동안 추진됐다. 예술위원회 50년 지원 역사에서 〈사랑티켓〉은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애용된 사업 중 하나였고, 대학로가 연극의 거리로 발전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연 현장의 대표적인 문화향유 지원 프로그램이었던 〈사랑티켓〉은 한동안 공연관객 증가에 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관객개발 프로그램으로 공연 티켓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사서 원하는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공연단체에게는 할인 차액을 예술위원회가 보상(지원)해줌으로써 향유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관객개발과 창작 측면에서 공연단체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평가된다.

6. 2010년대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성과

2010년대 예술위원회가 추진한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은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방향과 지역재단의 설립 급증 등으로 크게 변화를 겪게 되며 사업 추진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새정부 주요예술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중에 지역협력형 사업의 도입도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 진흥 핵심사업이었던 '지역배분형' 사업인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은 새 정부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확대정책에 따라 2010년부터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새로이 편제된다.

둘째,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다. 제17대, 제18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2013년 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2014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추진,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 및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셋째,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지역협력형 사업의 대폭 확대'가 포함돼 있어 2014년부터 지역협력형 사업의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63% 급증하여 편성된다.

넷째, 199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재단이 2010년대에 급증하게 된다. 지역문화재단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기점으로 1996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별 문화 격차의 축소 및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일반적인 행정조직과 구별되는 문화와 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설립이 시작된다. 1997년 광역문화재단으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을 시발점으로 하여 1998년 기초문화재단으로 강릉문화재단이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제주문화재단, 2004년에는 서울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 등 2000년 이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가 들어서며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2019년까지 지역문화재단은 총 101개가 설립되는데 1990년대에 3개, 2000년대에 32개가 설립된 반면 2010년대에 66개로 급증하게 된다. 결국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지역의 문화행정 역량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일정 부분 이관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2017년 지역배분형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으로 이관되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다섯째, 2017년도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특 이관 확정과 2016년 새로이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이관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201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중앙에서 추진하던 전국적 규모 사업들을 대폭 지역으로 이관하는 방침이 정해짐에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던 지역협력형사업 중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을 제외한 사업들을 2017년 지역으로 이관하였다.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급격한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던 차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하던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사업〉이 기존 지역협력형 사업의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이관된 것이다. 이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은 2017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사업〉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된다.

[표 9-15] 2010~2019년도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역문화예술지원	22,650	20,250	20,250	20,560	24,820	24,820	24,820	7,389	7,389	6,739
지역문예활동지원	22,650	20,050	19,950	20,260	24,590	24,590	24,590	7,119	7,119	6,469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1,000	13,922	9,890	9,890	16,190	16,190	16,190	지특이관	-	-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3,150	2,350	2,000	2,300	-	-	-	-	-	-
-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8,500	3,778	8,060	8,070	8,400	8,400	8,400	7,119	7,119	6,469
지역문화협의체운영	-	200	300	300	230	230	230	270	270	270
- 지역문화협의체 및 협력관운영	-	200	200	200	170	170	170	170	170	170
- 지역문화예술지원평가	-	-	100	100	60	60	60	100	100	100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	-	-	-	-	-	25,653	24,557	24,707	21,233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	-	-	-	-	11,943	11,543	11,543	9,395
- 전통예술해외 아트마켓	-	-	-	-	-	-	1,500	1,500	1,450	1,322
-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회	-	-	-	-	-	-	1,628	1,628	1,628	1,099
-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 사업	-	-	-	-	-	-	1,400	1,400	1,400	1,400
-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	-	-	-	-	-	3,800	3,300	2,700	2,594
- 전통공연예술활동 지원	-	-	-	-	-	-	3,382	2,986	2,986	2,686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지원	-	-	-	-	-	-	2,000	2,200	2,200	2,007
-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	-	-	-	-	-	-	-	800	730
합계	22,450	20,250	20,250	20,560	24,820	24,820	50,473	31,946	32,096	27,972

1.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지역협력형 사업의 문예진흥기금 시·도별 배분액은 시·도별 인구수와 예술인 수, 문예활동 건수와 비율, 재정의존도(재정자립도 역산)와 매칭률,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 매우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에 대한 배분율을 계속 낮춰 그 잉여분을 서울시 이외의 시·도에 배분함으로써, 시·도 간 균형 성장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시·도별 매칭비율에 있어서도 단위사업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재정자립도 70% 이상인 경우 1:2(미만인 경우 1:1),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경우 50:50(비수도권 70:30)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의 부담률을 낮게 책정했다. 지역협력형 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자율적인 사업 및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된다.

[표 9-16] 2010~2016년도 시·도별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내역

(단위 : 백만 원)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4,749	2,589	2,928	2,769	3,301	3,345	2,905
부산	1,068	1,036	1,000	1,116	1,426	1,758	1,697
대구	996	944	1,071	1,051	1,302	1,428	1,365
인천	781	754	823	977	1,219	1,345	1,356
광주	801	829	865	1,000	1,092	1,292	1,258
대전	708	698	783	811	1,003	1,202	1,179
울산	581	583	594	608	871	1,025	991
세종	-	-	-	-	100	150	500
경기	2,135	1,979	1,950	1,934	2,228	2,316	2,378
강원	917	892	1,049	1,104	1,431	1,368	1,561
충북	858	800	855	822	1,040	1,196	1,310
충남	897	844	909	914	1,112	1,260	1,248
전북	1,051	1,017	1,058	1,067	1,407	1,559	1,539
전남	985	916	1,004	923	1,247	1,480	1,511
경북	973	878	986	934	1,169	1,329	1,338
경남	1,094	1,027	1,040	1,065	1,373	1,501	1,392
제주	706	705	886	805	909	976	1,002
계	19,300	16,491	17,801	17,900	22,230	24,530	24,530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은 2012년도의 경우 총 228억 630만 3천 원(예술위원회 65억 4,350만 원, 시·도 매칭 162억 6,280만 3천 원)으로 전국에 걸쳐 4,909건을 지원했다. 2012년도 지원에서 건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1,110만 8천 원)과 경기(1,017만 5천 원), 가장 낮은 곳은 전남(166만 4천 원)과 경북(170만 6천 원)이었다. 소액다건주의가 나쁘다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은 아니다. 지역 예술단체의 관내 순회공연 등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 풀뿌리 예술행사 역시 전국규모의 예술행사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술의 수월성 추구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고양 등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면 효과적인 지원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은 국악대중화·생활공감형·시민참여형을 지향하는 전통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의 예술창작 활성화와 함께 지역 간 예술교류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였다.

[표 9-17]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관련 수상 및 해외초청실적(2016)

시·도	단체명	주요 성과 사례
대구	EK뮤직	〈LG 드림페스티벌〉 대상 수상
	장유경무용단	〈2016 대한민국무용대상〉 베스트 7 선정(작품명 〈시인의 강〉)
대전	메타댄스프로젝트	크리틱스 초이스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전 선정, 〈융복합 아트페스티벌〉 선정, 〈제16회 덤보댄스페스티벌〉 초청(미국 뉴욕), 〈2016 마라카이보〉 초청(베네수엘라), 〈2016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선정(서울)
충북	극단 해보마	〈차세대예술인력 육성지원사업〉 차세대 연출가 선정(상임연출 황준형)
전남	1839 사진창작 레지던스 - 순천	2016 중국 〈사진세계〉 표지작 선정, 중국 출판 사진집 참여, 〈대구사진비엔날레〉 초대작가 선정(이규철 작가) / 〈서울 스페이스11〉 공모전 당선(조현택 작가)
경남	사단법인 극단현장	창작극 《강목발이》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금상, 희곡상, 최우수연기상 수상,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고려극장 초청공연, 〈대한민국연극제 서울 페스티〉 초청공연, 〈경남연극제〉 대상, 연출상, 희곡상, 연기대상 수상, 〈2016 대한민국연극대상〉 베스트작품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연출가 고능석)
	수로요 도예레지던스	입주작가 중 〈성산미술대전〉 특상 수상, 〈경남미술대전〉 특상, 〈대한민국미술대상전〉 대상, 우수상, 특선,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특별상, 장려상
제주	극단 가람	창작극 《꿈이 로다》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예선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여자 연기상, 2016년 〈제55회 탐라문화제〉 거리퍼레이드 대상 수상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추진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은 '포괄적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정된 중앙 문예진흥기금(예술위원회)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발전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최소 50:50 이상을 매칭하도록 하여 중앙과 지역 상호간 재원 부담을 통해 부족한 공급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예술위원회와 지역간 협력적인 사업 운영으로 2016년도 지역협력형 사업을 통해 해외초청 및 수상 등 주요한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예술위원회가 시행한 대표적인 '선택과 집중' 프로그램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원금을 현장 평가를 거쳐 2년간 연속 지원하며 비상주단체·문화시설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추진 대상자 변경 및 예산 배분 기준에 매칭 실적이 추가됨으로써 사업추진 방식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9-4]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지원시스템



사업추진 대상자 변경

2015년	2016년
• 지원대상을 공연단체 중심으로 지원 • 다년도 지원(2년간 지원)(※1년 후 평가를 평해 지원)	• 지원대상을 단체 중심에서 공공 공연장 중심으로 지원대상 변경 • 단년도 사업(1년)

[표 9-18]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내역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2,058	550	1,362	1,532	1,634	1,483	1,444	1,071	1,198	1,003	1,007
부산	280	280	424	464	483	520	527	682	403	415	386
대구	250	250	476	419	439	441	458	330	356	341	346
인천	250	250	351	446	473	476	458	385	382	317	275
광주	250	250	387	522	483	437	471	300	336	344	322
대전	150	150	359	331	344	383	348	247	323	330	290
울산	100	100	264	250	303	332	290	220	321	253	262
세종	-	-	-		-	50	200	200	200	200	100
경기	770	700	808	858	900	832	911	638	690	543	556
강원	320	250	495	474	490	471	504	462	501	370	322
충북	180	180	389	356	366	368	376	293	308	312	271
충남	180	178	427	376	383	393	377	298	336	315	341
전북	100	100	482	415	453	460	422	526	351	326	303
전남	200	200	464	383	416	474	461	504	416	383	394
경북	150	140	454	402	419	420	402	304	319	315	301
경남	100	100	456	451	474	508	408	362	392	380	401
제주	100	100	412	331	280	292	283	237	227	262	250
계	5,438	3,778	8,010	8,010	8,340	8,340	8,340	7,059	7,059	6,409	6,127

3.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지역문화협의체 운영〉은 중앙과 지역, 지역 상호 간 문화지원 기구 네트워크로서 지역문화협의체(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지역문화 정책을 구현하고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문화재단 간 지역문화예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에 근거하여 광역시·도 및 문화재단 간 지역문화예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의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2007년 10월 24일 발족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당연직 의장을 맡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회원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정책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의 주요활동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와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라운드테이블 또는 콜로키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업 운영 현안 및 개선안을 논의하였고,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정책 현황 및 운영체계를 연구하고 지역문화예술 연구동향 조사와 회원 기관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교육 및 국내 문화체험 연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매년 1회 실시했다.

[표 9-19] 2018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활동 내용

행사명(일정 / 장소)	주요 추진내용	참석자
정책협력위원회 1차 (2018. 8. 31. / 대학로 예술가의집)	• 정책협력위원 신임 위원장 선출 • 17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정책협력위원회 • 2018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운영현황 및 개선안	17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정책협력위원
정책협력위원회 2차 (2018. 8. 31. / 대학로 예술가의집)	• 2019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배분(안) 검토 • 2019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세부지침 논의 • 2018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지표 의견수렴 등	
정책협력위원회 3차 (2018. 11. 1. / 예술위원회 대회의실)	• 2019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세부지침 검토 • 2019년 지역문화지원사업 운영 현안사항	
정책협력위원회 4차 (2018. 12. 13. / 서울 동대문 라마다호텔)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의견수렴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현안사항 논의 •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역관련 신규사업 논의	
라운드테이블 1차 (2018. 11. 1. / 나주·광주)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관련 의견수렴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세부지침 관련 논의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논의	17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라운드테이블 2차 (2018. 12. 14. / 서울 동대문 라마다호텔)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평가지표 개선 논의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실무자 의견수렴 등	

4.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는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육성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외 전략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앞서 언급했던 지역협력형 사업의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 이관을 앞두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2016년도에 이관받은 사업이다. 지역협력형사업의 지특 이관으로 인해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급격한 약화가 예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이관됨으로써 그 우려를 불식시켜 주었다.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6년 이관 이후 연도별로 예산규모의 변동은 있으나 200억 원 이상의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매년 지역대표 공연예술활동 및 전통공연 국내외 예술활동 80~200건 내외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17개 광역시·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극장,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국악방송, (재)전북문화관광재단,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 등이며, 지원형태는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된다.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의 주요 사업내역 및 사업별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특성화된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여 추천하고 최근 3년간 연례적 개최 실적이 있는 지역 거점 행사를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15개 광역자치단체 70개 행사를 지원하여 예술인 81,042명, 관람객 6,906,349명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14개 광역자치단체 71개 행사를 지원하여 예술인 48,093명, 관람객 5,735,877명이 참여하였다.

지역명소 활용공연 지원

전국의 역사·문화적 명소를 활용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해 예술가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서울 윤극영 가옥, 강원 강릉 대도호부관아,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경남 밀양 영남루,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총 5곳의 지역명소 특화공연을 지원하여 총 58회 공연에 40,121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강원 원주 섬강 아트브릿지, 경기 포천 아트밸리, 경북 칠곡 대원마을, 서울 경의선숲길, 서울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전남 화순 농주

역사관 총 6곳의 지역명소 특화공연을 지원, 3,047명의 예술인과 36,143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민과 방문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공연예술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전통공연 계기성 행사 지원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통공연 계기성 행사를 지원하여 전통공연 민간단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공연 89회, 워크숍 및 행사 48회, 참여예술인 425명을, 2019년에는 공연 79회, 참여예술인 298명을 지원하였다.

전통예술 복원 재현

일제강점기와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를 거치며 변질, 훼손되고 계승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전통예술의 복원과 재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전통문화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복원·재현 과제를 목록화, 자료화하고 이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2018년에는 8건, 2019년에는 10건의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을 추진하였다.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경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경주 지역의 브랜드 공연《SILLA: 에밀레》를 개발하여 지역 대표 브랜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동극장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라의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국가브랜드 창작공연을 제작,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2018년 총 150회의 공연을 추진, 8,702명이 관람하였고, 2019년에는 총 168회의 공연을 추진하여 9,995명이 관람하였다.

전주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여 전주 지역의 브랜드 공연인 뮤지컬《홍도》를 제작하여 한옥마을과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특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함께 젊은 예술인의 지역 유입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에는 총 154회의 공연을 지원하여 13,003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총 161회의 공연을 지원하여 12,302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전라북도 지역 소재 전통 자원인 한옥을 활용하여 체류형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주, 정읍, 남원, 임실, 고창 등 전라북도 관내 5개 시군의 한옥자원에서 상설공연을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총 128회의 공연을 지원하여 27,868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총 109회의 공연을 지원하여 22,912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신규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발굴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를 공모하여 지원하였다. 신규 지역브랜드는 상설공연으로 시범 운영하여, 향후 지역브랜드화를 모색하였다. 2018년에는 총 204회의 공연을 지원하여 62,277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총 70회의 공연을 지원하여 13,885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한국민속예술축제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매년 평균 전국 17개 시·도, 이북5도의 대표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민속예술인 집결과 교류의 장이다. 1958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봉산탈춤(1961), 강강술래(1961), 남사당놀이(1976), 풍물놀이(1989) 등의 민속예술 신규 종목을 매년 평균 8개, 총 693개를 발굴하였으며 그중 151개 종목이 국가와 지방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고 12개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8년에는 60개 단체, 2,297명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9개 시도대표팀 502명이 참여하고 21,298명이 관람하였다.

전국 풍물 상설공연 지원

풍물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하여 주요 도심 또는 관광지에서 야외 상설공연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풍물단체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풍물합동공연을 개최하였으며 풍물공연 시 비전문가의 참여형 공연으로 확대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8개 단체, 64회의 공연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8개 단체 93명의 예술가를 지원하여 24,373명이 관람하였다.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공연사업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종목을 활용한 우수 공연 콘텐츠의 상설공연을 개최, 인류무형유산의 고유 의미를 되새기고 대중친화적으로 다가갈 계기를 마련하였다. 등재종목을 활용해 제작이 완료된 공연을 공모, 상설공연으로 초청해 민간단체의 자생력과 역량을 강화하였다.

- **2018년 주요 추진성과**
- 우수콘텐츠 5건 선정 및 공연 5회, 상설공연 14회, 계기성행사 1회 및 다큐제작(사물 40주년)
- 참여예술인 680명, 관람객 수 25,209명

- **2019년 주요 추진성과**
- 유무형유산 활용 전시연계공연 2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 상설공연 19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우수 공연 콘텐츠 발굴 6건
- 참여예술인 88명, 관람객수 28,701명

문화공간 활용 전통공연사업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전통공연예술의 관람수요를 확대하였다. 민간단체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선도적인 공연 콘텐츠와 플랫폼을 구축해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관객 수요를 개발하였다. 2018년에는 87명의 예술가가 참여, 10개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23,163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101명의 예술가가 참여, 10개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20,707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전통연희 활성화

전통연희 활성화를 위해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하였다. 단순 관람형 축제에서 벗어나 관객 참여형 공연인 전통연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또한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창작을 통해 대중성을 갖춘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창작연희 작품공모를 추진하였다.

- **2018년 주요 추진성과**
- (전통연희 페스티벌) 축제참여 52개 팀
- (창작연희 작품공모) 4개 작품

- **2019년 주요 추진성과**
- (전통연희 페스티벌) 축제참여 52개 팀(561명), 관람객 수 25,035명
- (창작연희 작품공모) 3개 작품, 관람객 수 1,509명
- (창작연희 선정작 재공연) 관람객 수 729명

신진국악 실험무대

전통공연예술 관련 신진단체 또는 예술인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하였다. 만 40세 이하 총 15개 내외 팀을 선정, 분야별 예술감독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멘토링을 강화하였다. 기획공연 워크숍 및 멘토링, 사후지원을 제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신진단체 및 신진예술가의 활동기반을 조성·확대하였다.

- **2018년 주요 추진성과**
- 신진국악실험무대 3건(15개 단체)

- **2019년 주요 추진성과**
- 신진국악실험무대 지원단체 3개 (재)정효국악문화재단, 공감M아트센터, 두리춤터)
- 기획공연 52회(청춘가락마당, 청춘오감+, 청춘대로 덩더쿵)

국악창작곡 개발

우수한 국악창작곡을 발굴하고, 신진 국악팀과 작곡가를 양성하는 〈제12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국악방송에서 주관하였다. 경연대회를 추진하여 우수한 국악창작곡을 공모하고 공연, 방송, 음반·영상제작 등의 연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56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였고 관람객 수는 600여 명에 달했다.

전통예술 산업콘텐츠 개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전통예술 산업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재)국악방송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전문성 있는 전통예술 교육용 콘텐츠인 스마트 국악기 실용사전(App-Book)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였다.

- **2014년 주요 추진성과**
- 가야금, 피리, 북(국문, 영문)

- **2015년 주요 추진성과**
- 해금(국문, 영문, 중문), 가야금(중문), 피리(중문), 북(중문)

- **2016년 주요 추진성과**
- 가야금, 피리, 북(국문, 영문)

- **2017년 주요 추진성과**
- 소금(국문, 영문)

- **2018년 주요 추진성과**
- 거문고(국문, 영문)

7. 2010년대 예술가치 확산사업의 추진과 성과

개인과 공동체, 국가와 사회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것에 적응하거나 현실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은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예술은 예로부터 상상력과 창의성이 샘솟는 주요한 발원지이자 이를 길러 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작품 창작에 전념하는 전업예술인들은 무형의 국가자산을 창출하는 선도자(pioneer)이자 역군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자신이 느끼는 사회적 위상은 오히려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23] 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마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대우는 새로운 인력의 예술계 진입과 기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의욕을 꺾는 크나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큰 힘을 쏟고 있다.

23.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문화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에서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34.1%(2000년 조사)→43.4%(2003년 조사)→38.7%(2006년 조사)→37.7%(2009년 조사)→46.6%(2012년 조사)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9-20] 2010~2019년도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7,734	8,257	10,402	10,802	18,975	17,790	30,865	31,593	29,851	22,950
예술정책 실행력 제고	1,575	1,253	1,287	1,709	1,700	1,250	1,200	1,316	1,438	1,445
-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874	702	674	789	700	600	500	500	500	630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사업	701	551	461	520	500	250	200	400	400	815
- 예술가종합지원실 운영	-	-	-	-	100	100	100	100	100	-
-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	-	-	400	400	300	100	100	100	-
- 공연예술실태조사	-	-	-	-	-	-	300	216	203	-
- 정책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	-	-	-	-	-	-	-	135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6,159	7,004	8,115	8,093	15,533	12,683	25,410	25,403	23,813	19,413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	-	-			2,057	4,255	4,874	4,600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	-	252	238	188	180	173	130	116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	-	-	-	1,742	2,057	4,255	4,874	4,600	-
예술위원회 이전지원	-	-	-	-	-	1,800	-	-	-	-
공공미술기반사업	-	-	1,000	1,000	-	-	-	-	-	-

1. 예술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예술나무운동

크라우드 펀딩과 〈예술나무 운동〉의 출범

2010년대 접어들어 순수 기부금이나 개인의 소액기부, 그리고 전문 예술단체·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3기 예술위원회는 2011년 3월 전담부서(예술나눔부)를 설치하고 4월 14일에는 〈문화예술 나눔의 밤〉을 통해 〈예술기부 활성화 비전〉을 선포한 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출범식을 거행했다. 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한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 2011년 11월 한 달 동안 《아리랑》 홍보영상을 상영한 〈아리랑 프로젝트〉(2011년 10월 한 달간 모금), 노숙인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들레 예술문학상〉(2012. 12. 26. 제1회 시상), 소록도병원 옹벽에 높이 3m, 길이 110m 규모의 대형벽화를 설치한 《아름다운 동행-소록도 사람들》(2013. 4. 30. 준공) 등이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기부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은 특히 권영빈 제4대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여





예술나무운동
2012년 10월 19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개최된 예술나무운동 발족식

2012년 10월 이후에는 〈예술나무 운동〉이라는 기부 확산 종합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술나무 운동〉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부 캠페인으로 예술위원회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 운동이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는 타 분야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24] 〈예술나무 운동〉은 예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소액후원 캠페인을 통해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운동이다.

2012년 10월 19일 시작된 〈예술나무 운동〉은 사업 시작 4~5개월 전부터 재능기부를 통한 CI 개발, 홍보대사단 섭외, 선언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 운영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2012년에는 또한 〈2012 예술나무포럼〉 개최(2012. 11. 27.), 천안개방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재능기부자의 음악회 개최 등 〈재능나눔 버스〉(10회) 운영, 〈중소기업-예술이 함께하는 기부여행〉(15회), 〈크라우드 펀딩〉(총 11개 프로젝트, 1,097명 70,270,106원), 문화나눔포털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4. 2010년도 기업 기부 총 1조 2,500억 원 중 문화예술 분야는 체육 분야와 합쳐도 10.9%(1,363억 원)에 불과하고(「2010 사회공헌백서」, 전경련), 2009년도 개인 기부 총 1조 4,000억 원 중 문화예술분야는 0.2%(28억 원)에 불과하다(「2009 기빙코리아 자료집」, 아름다운재단).

2013년도에는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예술나무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먼저 범국민 온·오프라인 모금캠페인인 〈예술로 한걸음〉에 예술위원회 전 직원이 참여한 결과, 실질 후원 98,560그루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외부기관 21곳과의 MOU 체결, 저명인사들로 구성한 홍보대사단 운영, SNS를 통한 홍보 등이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예술체험, 전시, 공연 등 총 28개 프로그램 운영에 3,500여 명이 참여한 〈문화예술 후원주간〉(2013. 10. 15.~10. 19.)을 처음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도에 추진한 사업과 행사들도 더욱 확대하여 추진했으며, 2012년에 사회 각계 리더급 인사 및 예술애호가를 주축으로 구성한 〈예술나무 포럼〉 운영도 활성화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나무 포럼〉을 통해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로 예술의 가치와 예술후원의 필요성을 전파함으로써 이 운동의 사회적 파급력을 확산시켜 나갔다.

[표 9-21] 2013년도 '예술나무' 홍보대사 릴레이토크 개최(총 4회)

회차	날짜	홍보대사	장소	참석자수
1차	8. 8.	김영하(소설가)	예술가의집	80여 명
2차	9. 3.	송경아(모델, 화가)	아르코미술관	30여 명
3차	10. 15.	윤태호(웹툰작가)	예술가의집	80여 명
4차	11. 27.	신창환(애니메이션 뽀로로 사업자)	예술가의집	30여 명

2014년에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통과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전국 단위 문화예술후원 행사, 하반기 집중 캠페인 전략 등을 수립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예술나무" 브랜드 구축을 위한 전국단위 캠페인 추진하였다, 주요 5개 광역시도와 문화기반시설을 연계한 〈예술나무 Day 캠페인〉을 추진하여 잠재기부자 1,003명 개발, 75,000여 명 대상 예술나무 홍보를 전개하였다.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후원 행사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예술나무 운동〉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송출하였고, 문화예술 후원을 독려하는 공익광고 등을 제작하여

[그림 9-5] 〈예술나무 운동〉 브랜드 이미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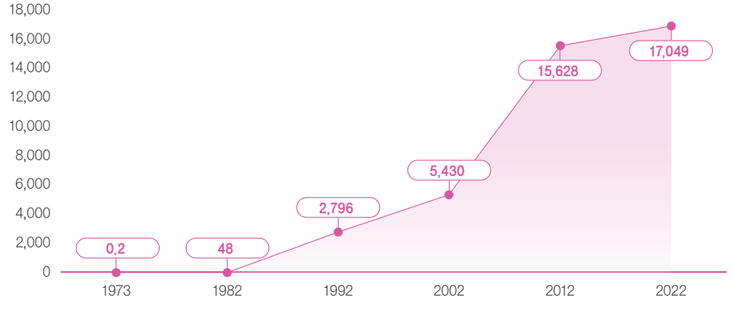
2012~2018년 2019년

국민들의 후원인식 개선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예술나무 캠페인 추진에 따른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증가 및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2012년에 제정되어 사용돼 오던 〈예술나무 운동〉 메인 BI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였고, BI 개선 후 디자인 모티브를 활용한 36개 굿즈 디자인 개발과 8개 상품을 제작하여 후원자에 발송하였다.

기부금 사업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예술후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예술가치 제고 노력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모금된 기부금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지원되어 문화예술진흥과 지역문화예술행사,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었다.

[그림 9-6] 연도별 문화예술 후원 기부금 모금 현황



[표 9-22] 예술위원회 기부금 지원사업 내역

구분	사업 소개
조건부기부금사업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하여 세제 혜택 및 수수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예술단체 정기후원(CMS) 지원사업	모금페이지 개설 및 수수료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예술단체가 모금을 통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사업	기초예술 분야 예술가(단체)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술영재 육성 및 지원사업

〈예술영재 육성 및 지원사업〉은 〈예술나무 운동〉 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술영재 육성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예술계의 새싹을 틔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SBS 영재발굴단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예술영재들을 발굴하여 돕고 있으며, 예술영재들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는 '마술피리 후원회'를 통해 재능 있는 예술영재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였다.

[표 9-23] 2019년도 예술영재 육성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	분야	학교
김두민	2003	피아노	E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
김민지	2005	현대무용	신월중학교
남여울	2007	피아노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프리스쿨
이승민	2004	발레	선화예술중학교
전이수	2008	동화작가-일러스트	-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 사업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개인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술나무 운동 기부금을 재원으로 국내 대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주)텀블벅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자체 재원조성 역량을 높여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8년도에는 지원 35건(72,000천 원), 총 모금액 336,547천 원이다. 2019년에는 기획전으로 텀블벅에서 목표액 백만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39세 미만의 예술인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하는 청춘시대〉를 추진하였다.

[표 9-24] 2019년도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 실적

구분	모금성공	총후원인원(명)	예술위 지원액(원)	총모금액(원)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	50	6,101	72,140,000	429,052,595
기획전 〈예술하는 청춘시대〉	37	2,063	18,500,000	82,213,455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2014년도에 제정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예술 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문화예술후원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후원 성과를 일구어 낸 단체 및 기업 등을 심사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표 9-25] 2018~2019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연도	인증기관	
2018	5개	럭스나인(주), (주)세아홀딩스, (주)파라다이스, (주)하나투어, 한국마사회
2019	12개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철도공사, 롯데쇼핑(주), 현대오일뱅크(주), (주)아모레퍼시픽, (주)크라운해태홀딩스, SK하이닉스(주), 한미약품(주), (주)오성정보통신, 하지공업(주)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 & Business)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표 9-26] 2018~2019 기업과 예술의 만남 매칭펀드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내용	2018				2019			
		지원 건수(건)	기업 지원금	매칭펀드 교부금	계	지원 건수(건)	기업 지원금	매칭펀드 교부금	계
예술지원 매칭펀드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 기부금과 문예진흥기금 간 매칭(결연) 지원	126	2,233	1,200	3,433	126	462	400	862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지역의 문화예술 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공기업, 광역문화재단 연계한 기업기부금과 문예진흥기금 간 매칭(결연) 지원	27	610	400	1,010	25	2,271	1,200	3,471
기업결연	대기업과 예술단체 간 기업 기부금 매칭(결연)지원	38	3,479	-	3,479	44	3,446	-	3,446
합계		191	6,322	1,600	7,922	195	6,179	1,600	7,779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예술 프로젝트에 민간 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1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저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예산이나 공공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과 민간 영역에서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살리기, 신진예술가 육성, 순수예술 창작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 사례 발굴을 통해 민간 후원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11개 신청사업에 예술위원회, 민간, 공공재단이 총 643,000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10개 사업에 595,000천 원을 지원하였다.

문화로 인사합시다

문화접대비 제도의 활용 확대를 통해 기업의 문화소비를 확산하고 문화경영 인식을 제고하여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거래처에 공연, 전시, 스포츠 티켓, 음반, 도서를 증정하는 등 문화비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 리서치(1,000개)와 언론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접대비 세무회계교육을 실시하였고, 문화기업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2.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아르코 웹진》 발간

2006년 1월부터 격주로 인터넷 DB형식으로 발간을 시작한 《아르코 웹진》은 위원회 사업, 예술정책 현안, 국내외 문화예술계 소식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구술사 채록이나 국제교류와 같은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함께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계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예술과 대중, 현장과 행정이 소통하는 창구로써 편안한 발언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술행정가들이 전하는 예술현장 소식, 독자들의 기사 댓글달기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예술인 인터뷰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대와 독자층 확대에도 더욱 힘썼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기구독자수가 2010년 19,500명에 머물던 것이 2015년 65,077명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아르코 웹진》은 온라인 채널로 급격히 정보 전달 수단이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2017년 발간을 중단하고 그 기능을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레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홍보 채널로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5년여 발간이 중단되었던 《아르코 웹진》은 2022년 11월 《A SQUAR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간을 재개하여 격월간(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주기로 발간되고 있다. 새로운 아르코 웹진 《A SQUARE》는 예술계 현안과 정책을 중심으로 대내외 새로운 담론과 비평을 이끌어내는 온라인 공론장 형성, 예술현장 이슈를 세밀하고 세심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시민, 예술가, 예술행정가들이 소통하는 공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현대예술 해외소개 시리즈 발간

〈한국현대예술 해외소개 시리즈(Contemporary Korean Arts)〉 발간사업은 한국현대예술의 해외소개 및 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계획으로 시각예술, 연극, 음악, 무용 분야에 걸쳐 총 15권의 영문판 한국현대예술 소개자료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다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인사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두어 시리즈의 추진방향, 소개대상 주제 설정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설계하였고 출판사 선정, 세부 추진계획 심의, 발간성과 평가 등 사업 전반을 종합 관리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한국현대예술 해외소개 시리즈(Contemporary Korean Arts)〉 세부내역은 [표 9-27]과 같다.

[표 9-27] 2010~2015 〈한국현대예술 해외소개 시리즈〉 세부내역

연번	분야	책자명	내용
1	연극	Daehangno : Theatre District in Seoul	대학로
2	마술	Diaspora : Korean Nomadism	디아스포라
3	음악	Harmonia Koreana : A Short History of 20th-century Korean Music	20세기 한국음악
4	건축	City as Art : 100 Notable Works of Architecture in Seoul	예술의도시
5	무용	Dancing Korea : New Waves of Choreographers and Dance Companies	현대무용
6	음악	K-Pop : Roots and Blossoming of Korean Popular Music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7	미술	Coexisting Differences : Women Artists in Contemporary Korean Art	한국 현대 여성작가
8	연극	Acts and Scenes : Western Drama in Korean Theater	한국의 번역극
9	무용	Choreographers in Motion : Retrospective and Perspectives	한국의 안무가
10	미술	Korean Abstract Painting : A Formation of Korean Avant-Garde	한국의 현대 추상미술
11	국악	Traditional Korean Music Today	오늘날의 국악
12	연극	Contemporary Korean Theater : Beyond Tradition and Modernization	한국 현대 창작극
13	무용	Contemporary Korean Ballet : Scenes and Stars	한국 현대발레
14	미술	Korean Painting : From Modern to Contemporary, 1945-1980s	한국 현대회화의 흐름
15	미술	Postmodern Art in Korea : From 1985 on	한국의 포스트모던

문예연감 발간

문예연감은 1976년 발간을 시작한 이래 국가승인통계로 활용되지 못했는데 2016년 예술위원회의 노력으로 문예연감 수록 통계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통계청 공고 제2016-65호)에 따라 예술위원회 통계의 품질 제고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신규 통계 개발기관으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통계개발지원사업 지정을 계기로 향후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 정교화 및 생산통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현황 집계를 통해 당해 연도의 문화예술계 전체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파악, 분야별·시기별·공간별 예술 활동건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연도 예술활동의 시사점 도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활동 추세의 총괄적 진단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9-28] 문예연감 발간 주요 개선사항(2010~2019)

연도	주요 개선 사항
2014	• 기존 오프라인 형태 발간의 문예연감을 인터넷 기반자료 제공을 위한 온라인 형태 발간으로 자료 활용도 제고 • 연도별 문예연감을 한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이미 발행(1976~2013년)된 오프라인 형태 파일을 PDF파일 형태로 온라인에 게시하여 기존의 연구자 및 독자들의 편의 도모 • 통계에 대한 내비게이션 및 최근 5년간 주요지표통계 제공으로 증감 등의 비교 분석 가능토록 개선
2015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살펴보고, 연도별 변화추이를 쉽게 도출하기 위해 예술활동지수(Arts Index)를 처음 도입
2016	• 2016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통계청 공고 제2016-65호) 선정됨으로써 문예연감 수록 통계의 품질 제고
2018	• 지역별 현황분석 편에서, 지역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하여 인구 10만 명당 예술활동 현황을 분석해 수록하였으며, 도시 규모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크기의 지역별 활동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2019	• 장르별 현황분석이 수록된 보고서와 북한 문화예술계 현황 보고서를 분리 발간함으로써 내용의 충실성 제고

3.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사업은 자체연구 또는 민간연구기관·단체에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하여 예술지원정책의 수립 및 사업 개선·발굴에 필요한 예술현장의 기초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토론회·심포지엄 등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확산하고 있다. 예술위원회의 정책 연구조사업무는 시대별로 다양한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에 예술위원회는 조직개편에 의해 정책연구실 폐지하였고, 두 부서에서 수행하던 기능은 기획기능 일부로 축소되었다가 2014년에 정책평가부를 신설하며 정책기능과 평가기능이 통합되었다. 2015년에 정책평가부가 성과평가부로 변경되고, 정책기능과 조사연구기능을 기획조정부로 이관, 2019년 3월 성과평가부를 정책혁신부로 전환하고 다시 정책기능과 평가기능을 통합하게 되었다.

기관 운영에 있어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기능은 기관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기능과 역할을 개척하며, 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기관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구나 2005년 예술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히 독임제 기구에서 합의제 기구로 조직의 운영시스템만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집행기능 위주의 조직에서 문체부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함께 정부 정책의 건설적인 비판 및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하는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0년대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진흥원, 장애인문화예술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이 신설되고 지역문화재단의 등장과 함께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예술위원회와 달리 역할 체계의 급속한 축소와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05년 위원회 전환 이후 예술계가 예술위원회에 기대하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2020년대에는 집행기구이자 정책개발기구로서의 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석·박사급 전담 연구원을 배치하여 예술위원회 경영활동 및 예술현장에 관한 정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2010년대 문화시설 운영사업의 추진과 성과

4관(館)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정보관(현 아르코예술기록원),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등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설들에 있어 2010년대는 엄청난 변화와 진통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술극장과 예술정보관 등 2개 시설은 1994년 7월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문화발전연구소가 별도 분리되었듯이 2010년에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와 재단법인 국립예술자료원으로 예술위원회로부터 각각 분리돼 별도 법인이 되었다. 이러한 운영조직의 분리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하기관인 예술위원회가 단독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정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용어에서도 기관의 지위와 위상이 드러나듯이 산하기관의 설립과 폐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예술위원회 운영시설들에 대해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예술위원회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한 변혁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12월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2월 IMF 관리체계로 시작한 김대중 '국민의정부'는 사회전반에 구조개혁의 광풍을 일으켰다. 국가적 위기상황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벌 개혁'과 같이 이전 정권에서는 건드리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경제와 산업면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지식기반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정책의 구현에서 민간자율성의 확대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고, 문예진흥원이나 영화진흥공사를 민·관 합동의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데 대한 논의가 생겨났다. 문화산업 분야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바로 실현되었으나 문예진흥원은 '공공기금 통합'이라는 당시 또 다른 위기에 부딪혀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IMF관리체제 하에서 '정부기관의 효율성 강화'라는 방침에 따라 문화관광부 산하기관들도 구조조정(정원 강제 감축)과 민영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문예진흥원 구조조정안에는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 문예진흥기금의 공공기금화, 문예회관과 미술관의 민간위탁, 조직 및 인력감축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 문화예술계 전반에 위기의식이 드리워졌다. 이러한 구조조정안 중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2004. 1. 1.), 문예진흥기금의 공공기금화, 조직 및 인력감축(정원 35% 감원) 등은 실제 시행이 되었고 '문예회관과 미술관의 민간위탁' 의제만 시행이 유보되었다.

김대중 정부 때 문예진흥원 논의 중 유보되었던 문화예술시설 구조조정안이 다시 등장한 때가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기초예술분야에서는 국립 및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예술정보관과 아르코예술극장이 2010년 (재)국립예술자료원과 (재)한국공연예술센터로 각각 분리되었다. 이후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국립예술자료원은 4년만인 2014년에 다시 예술위원회에 재통합되었다. 2014년 두 기관의 재통합이 진행되면서 밝힌 분리 독립 후 문제점으로는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경우 "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예술단체 등에 대한 체계적 육성이 곤란하다는 점", 국립예술자료원은 "예술위원회가 보유한 예술자료와 네트워크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자료수집 기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두 시설의 분리 독립과 재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통합 문제, 기획·인사·총무 등 중복인력의 처리 문제, 재산의 귀속과 예산의 통합, 조직개편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했다.

한편 예술극장과 예술정보관 이외에도 2010년 5월에 예술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새말로)

[표 9-29] 2010~2019년도 〈문화예술 공간 운영〉 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예술공간운영	22,301	-	-	-	-	-	-	-	-	-
예술극장 운영	-	-	-	-	893	1,393	1,629	1,576	일반회계	3,060
- 관객참여형프로그램	-	-	-	-	-	-	500	-	-	-
- 대학로붐업프로젝트	-	-	-	-	-	-	400	-	-	-
- 공연장서비스지원	-	-	-	-	-	-	360	-	-	-
- 고객커뮤니케이션	-	-	-	-	-	-	340	-	-	-
- 사업제경비	-	-	-	-	-	-	29	-	-	-
미술관 운영	1,049	1,284	849	764	900	900	1,000	1,000	940	945
- 아르코미술관운영	361	-	-	-	-	-	-	-	-	-
- 미술관기획프로그램	688	-	-	-	-	-	-	-	-	-
예술자료원 운영	-	-	-	-	756	745	1,577	-	일반회계	1,976
- 예술자료수집 및 보존	-	-	-	-	-	-	-	-	-	-
- 예술기록디지털 서비스	-	-	-	-	-	-	-	-	-	-
- 이용자 서비스	-	-	-	-	-	-	-	-	-	-
- 예술기록관리전문가 교육 및 시스템 구축	-	-	-	-	-	-	-	-	-	-
- 창작음악아카이브 활성화	-	-	-	-	-	-	-	-	-	-
- 문화다양성아카이브운영	-	-	-	-	-	-	-	-	-	-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1,201	1,081	973	-	-	-	-	-	-	-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502	-	-	766	1,000	1,000	496	496	460	500
- 예술인력개발원기획프로그램(무대예전문교육)	699	-	-	1,078	-	-	600	600	470	588
- 차세대예술인력육성(공연예술)	-	-	-	-	950	950	-	-	-	-
- 전문무용수센터지원	-	-	-	-	1,000	1,000	1,300	1,300	1,300	1,300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	-	-	4,568	4,568	4,568	4,016	4,169	4,702
-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	-	-	-	50	50	50	100	90	90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운영지원	-	-	-	-	-	-	1,412	1,412	1,200	1,200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	-	-	-	-	4,217	2,680	3,217	3,107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	-	-	-	-	2,000	2,300	1,600	1,572
(문학)	-	-	-	-	-	-	300	-	-	-
(시각예술)	-	-	-	-	-	-	200	-	-	-
(공연예술)	-	-	-	-	-	-	1,500	-	-	-
- 창작뮤지컬 아카데미	-	-	-	-	-	-	-	1,000	781	742
예술가의집 운영(인문문예소통공간운영)	-	-	-	-	-	-	306	330	300	281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조성	20,051	-	-	-	-	-	-	-	-	-

임시청사로 이전했으며, 동숭동(대학로) 구 청사는 예술가와 예술인단체, 예술후원 기업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예술가의집'으로 개방했다. 또한 2014년에는 참여정부 때 시작되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예술위원회 본부가 41년간의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전남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반면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은 2014년부터 국고 및 타기금 등 외부 재원 적극 유치, 온라인교육·예술인력지원사업의 신규 개발 등으로 조직규모와 예산의 확대는 사업의 다양성에 있어 발전을 거듭하면서 1992년 개관 이래 상당한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1.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1981년 개관)과 대학로예술극장(2009년 개관)은 총 4개의 공연장(아르코예술극장 대·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소극장)과 2개의 스튜디오(스튜디오 다락, 스튜디오 하늘), 3개의 창작공간(연습실), 4개의 리딩룸 등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연중 100여 편 이상의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며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 소통하는 공간으로 공연예술진흥 사업과 공연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17일 〈예술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을 민간 재단법인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공연장 특성화 정책 맥락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분리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통합운영 필요성**
  - 대학로 주요 극장의 통합운영으로 극장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 총 4개 극장 통합운영으로 상호 연계성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 **통합운영 방안**
  -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4개 극장을 통합운영하고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
  - 2개 극장 및 신규 임차하는 소극장에 대한 통합브랜드 구축 및 역할 분담을 통한 특성화 추진
  - 통합재단에서 대학로복합문화공간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연예술공간으로서의 특성화 시도

2009년 6월 정부 발표에 따라 2009년 10월 설립추진 TF가 구성 운영되기 시작하여 10월 네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09년 12월 설립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다음 해 1월 임원진 및 이사를 임명한 후 1월 19일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15일부터 16일 연극, 무용, 다원예술 분야에 걸쳐 주요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인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림 9-7] 한국공연예술센터 브랜드 이미지



2010년 4월 새로 출범한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공연예술센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연예술센터'를 새로운 기관의 비전으로 정하고, 중점추진과제로 2011~2012 프로그래밍, 공연예술센터 브랜드 홍보, 회원제·후원회 및 축제 활성화,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2011 SPAF(서울국제공연예술제) 프로그래밍 등 5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다. 운영조직으로는 상임으로 이사장과 사무처장, 비상임으로 연극 및 무용분야 예술감독(2명), 실무조직으로 4개 부서(기획총괄부, 공연기획부, 공연지원부, 전략사업부)를 편제하였다.

공연예술센터의 가장 핵심사업은 공연프로그램 실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 특성화를 꾀하고자 했다. 우선 공연장별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무용 중심,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연극 중심,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은 시즌별로 특성화된 연극, 무용, 다원예술 작품으로 공연장별 장르 특성화를 시도했다. 아울러 시즌별 특성화된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획형 대관 시스템 정립, 일회성 공연이 아닌 지속가능한 레퍼토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연예술 선도, 공연사업 '5대 특성화 프로그램의 발굴 및 육성'으로 시즌별로 특성화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공연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특성화된 공연프로그램 실시 이외에도 최상의 공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연예술단체의 공연 발표 여건 개선 등의 변화를 꾀했다.

[표 9-30] 공연사업 '5대 특성화 프로그램의 발굴 및 육성' 내용

5대 특성화 프로그램	세부 내용
1. 차세대 공연예술가의 체계적 발굴	차세대 연출가, 극작가, 안무가 육성 공연
2. 새 개념 공연예술 작품 육성	실험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연예술 시리즈
3. 주제별 공연작품 육성	공연예술계의 이슈와 요구를 반영한 주제별(작가별, 주제별 등) 공연 기획 시리즈
4. 지속 가능한 공연 활성화	우수공연예술단체의 대표작 레퍼토리 공연
5. 국내·외 공공기관과의 교류 및 파트너십 구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지원 수혜 작품 시리즈(창작초연, 국제교류 등)

2010년부터 2014년 예술위원회로 재통합되기까지 4년간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여러 성과를 창출했다. 그중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공연예술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행사를 브랜드화했다는 점이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는 평균 객석점유율이 매년 매진에 가까웠고, 〈마로니에 여름축제〉와 〈코미디 페스티벌〉 역시 단순히 관람하고 소비하는 축제가 아닌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진화할 수 있도록 행했다. 특히 재통합 이후로도 예술극장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로 지속 개최되고 있는 〈봄 작가, 겨울 무대〉는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자를 대상으로 신작을 의뢰하고 그중 4편을 선정, 연출가 매칭을 통해 공연하는 사업이다. 그해 공연된 작품들 중 최우수작을 선발하거나, '작품개발의 의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레퍼토리화 작업을 진행했다. 〈봄 작가, 겨울 무대〉는 아르코를 대표하는 신진예술가 발굴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공연예술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예술의 소비자로서의 관객이 아닌 '생산자로서의 관객'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연과 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2013까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한국공연예술센터 핵심역량 사업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예술위원회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던 공연예술센터는 2014년 다시 예술위원회에 재통합된다. 2010년 분리 이후 현장 순발력이 상승하고, SPAF의 성공적인 안착, PD와 스태프들의 현장 전문성은 우수하였으나 결정적으로 대학로 소극장들과 협력이 미흡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센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 구조(관객개발, SPAF 등)의 한계성, 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예술단체 등에 대한 체계적 육성이 곤란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예술위원회와의 재통합을 결정하게 된다.

예술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된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은 새로이 사업을 전면개편하여 차별화된 관객개발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연의 중심 대학로의 이미지 제고 및 콘텐츠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관객개발형 공연, 공연 및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신규 관객개발 및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대학로붐업 프로젝트〉, 체계적인 공연운영과 간접지원을 통해 공연단체에 대한 최적의 공연발표 여건을 제공하기 의한 공연장 서비스 지원, 온·오프라인 상 각종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극장 인지도 제고 및 이를 통한 공연단체 홍보, 간접지원 강화를 위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수공연 대관 및 지원으로 공연장 방문 관객 수가

2014년 176,380명에서 2015년 257,885명으로 46.2%로 급증하고 공연장 운영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한 관객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업개편의 틀은 2017년까지 유지되었다가 2018년 사업추진에 변화를 주게 된다.

2018년 신설된 〈올해의 아르코 파트너 'Best & First'〉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와 안무가를 선정하여 예술성 및 완성도 높은 차별화된 공연을 선보이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기획공연이다. 안정된 공연제작 여건을 지원하여 예술성 높은 순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하고 공연예술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제작공연 최초로 〈돼지우리〉가 제55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에도 〈아르코 파트너〉는 관객점유율 79.9%를 기록했으며, 안무가 권령은 2019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체부장관상, 안무가 허성임은 2019 〈춤평론가상〉 춤연기상, 연출가 이기쁨은 〈젊은 연출가상〉과 제12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젊은 연극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2.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미술관은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방향과 수요를 미술관 비전에 반영하여 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사업 확산의 플랫폼이자 동시대 시각예술 창작의 생산거점이며, 실험성과 국제성을 지닌 시각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한다. 미술관의 대표적인 전시프로그램인 〈중진작가전〉, 〈주제기획전〉, 〈국제교류전〉, 〈창작산실 선정작〉 등과, 교육프로그램으로 〈건축학교〉, 〈꿈잼학교〉 등을 개최하며 미술관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한편 미술관은 신진작가의 창작 발표공간인 인사미술공간과 시각예술 중심의 아르코아카이브를 운영하여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담론 생산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2016년부터 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 분야에 선정된 작가를 대상으로 기획, 공간, 예산을 비롯한 총체적 지원방식의 체계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신진 큐레이터 지원을 통한 물리적·개념적 실현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예술가를 위한 창작 플랫폼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인사미술공간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유일한 대안공간으로서, 상업 갤러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실험적 성격의 전시를 지원해 왔다.

3. 아르코예술자료원

아르코예술자료원(현 아르코예술기록원)은 1979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예술자료 전문 아카이브이다. 한국 근현대 예술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예술기록물을 수집·보존하며,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공연 영상화 사업〉 등 기초연구자료를 직접 생산한다. 또한 소장자료를 활용한 장르별 특화 열람실, 디지털 아카이브, 기획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3월 예술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 출범한 국립예술기록원(이후 예술기록원)은 '예술자료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가 허브 센터'를 새로운 기관의 비전으로 정하고, 중점추진업무로 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예술정보 서비스, 인력양성 및 조사연구, 기획프로그램 운영과 대외협력 등 4가지 사업을 설정한다. 운영조직으로는 비상임 원장과 상임 사무국장, 실무조직으로 3개 팀(기획사업팀, 정보서비스팀, 운영지원팀)을 편제한다.

2010년부터 2014년 예술위원회로 재통합되기까지 4년간 국립예술자료원은 여러 성과를 창출했다. 그 중 주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구축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기록 관리를 위하여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이행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식별체계를 도입하였다. 예술정보 전문가의 자문과 유관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자료 정보화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관별·장르별 데이터 연계 전략과 단계별 추진 방안, 저작권 처리 방안, 디바이스 다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디지털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국가표준식별체계인 UCI(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예술 분야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술작품 이미지 56,000건과 희곡 작품 800건에 대한 UCI코드 발급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시스템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졌다. 2012년에는 시각예술 표현을 위한 디지털 저장소 모듈을 구축하고 통합 검색을 위한 시스템 통합 및 연계 구축(미술작가 500, 희곡, 구술채록)을 실시하였으며, 예술자료 디지털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7개 단체의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는 예술정보서비스 공간으로 예술의전당 내 디자인미술관 3~4층만을 활용해왔는데,

대학로 분원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 허브공간인 대학로까지 서비스공간이 확장된 것이다. 2010년 12월 9일에 공연예술 현장인 대학로 '예술가의집'(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에 국립예술자료원 대학로 분원을 조성하였다. 공연예술 현장과 밀착된 공간에 공연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분원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인과 예술 향유자의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연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로 분원은 예술가의집 2층에 연극과 무용 분야의 문헌 및 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열람·감상할 수 있는 '예술자료실'과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영상감상실', 그리고 1층에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공간 통(通)'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예술위원회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던 국립예술자료원은 2014년 다시 예술위원회에 재통합된다. 시설명칭도 국립예술자료원에서 아르코예술자료원으로 변경된다. 2010년 분리 이후 예술위원회가 보유한 예술자료와 네트워크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자료수집 기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예술위원회와의 재통합을 결정하게 된다. 예술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된 아르코예술자료원은 새로이 사업을 재정비하여 예술자료 수집,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공연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 열람실 운영, 디지털아카이빙 등을 추진한다.

예술자료 수집

예술자료원 공연·시각예술 분야의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예술단체의 자료 기증, 공연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다양한 예술자료를 수집하고 그 활용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증된 연극평론가 故 한상철 선생 자료 1만 3천여 건이 3년여에 걸쳐 분류와 등록이 완료되어 완결된 컬렉션으로 서비스되었다.

[표 9-31] 소장자료 현황(2019. 12. 31. 현재)

구분	수장량(점)	비중(%)
도서자료(단행본, 연속간행물)	104,372	25.2
비도서자료(프로그램, 대본, 포스터 등)	231,977	56.0
영상자료(촬영 MASTER 및 DVD 등)	36,310	8.8
음악자료(SP, LP, CD 등	41,686	10.0
계	414,345	100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은 2003년부터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로 인한 예술사 연구의 단절과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되었다. 문학 박완서, 연극 차범석, 시각예술 박서보 등 원로예술인들의 유년시절부터 최근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과 예술관을 담아낸 생생한 구술기록은 당대의 예술풍경, 예술사조, 인적교류, 작품 세계를 탐구하는 데 귀한 근거이자 자료이다.

[표 9-32] 분야별 역대 채록현황(2003~2019) (단위: 건)

구분	공연예술			시각예술				대중	영화	문학	문화제도	계
	연극	무용	음악	조형	건축	사진	기타					
생애	38	23	33	51	5	2	5	15	4	34	1	211
주제	17	52	2	32	-	-	4	2	1	2	-	112
소계	55	75	35	83	5	2	9	17	5	36	1	323
합계	165			99				17	5	36	1	323

공연영상화 사업

〈공연영상화 사업〉은 순간의 예술, 사라지는 무대의 생생한 감동을 기록하고자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까지 2,30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연구·교육 자료로 서비스하였다. 또한 네이버 TV와 협력하여 공연실황 생중계 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잠재적 관객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빙

예술자료원은 수집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과 고도화된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에 최적화된 양식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함으로써 국내 예술자료 디지털 아카이빙을 선도하였다.

- **전자도서관(archive.arko.or.kr)**
예술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와 비도서(악보, 사진, 도면, 대본 등)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의 소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으로, 2019년 기준 도서 10만여 건, 비도서 20만여 건, 영상 3만여 건, 음악 4만여 건 약 37만 건의 목록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 **한국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DA-Arts(daarts.or.kr)**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저장,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약 13만여 건의 디지털 예술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소장자료를 좀 더 깊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컬렉션 체계의 열람서비스를 지원한다. 〈무대미술 컬렉션〉, 〈구술채록 컬렉션〉, 〈한국현대음악 컬렉션〉, 〈근대희곡 컬렉션〉 등이 구축되어 있다.

- **한국 현대음악 아카이브**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수집 및 보존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음악전문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연구가치가 높은 작곡가와 단체의 작품을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있으며, 악보, 음원, 영상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약 7,000건의 자료를 서비스한다.

열람실 운영

예술자료원은 본원(서초동)과 분원(대학로)에 열람실을 운영하였다. 본원은 음악·미술 분야의 자료 서비스 및 소장자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헌정보실, 영상음악실, 공동감상실(심포니, 챔버)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미술과 관련 다매체의 예술 콘텐츠를 예술인을 포함한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예술기록과 자료의 중심으로 그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 개관한 대학로 분원은 연극·무용 분야 자료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극·무용 분야 전문서적, 간행물, 공연대본, 영상자료 감상이 가능한 예술자료실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으로 역할을 다하였다.

4.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이하 예술인력개발원)은 1992년 5월에 창의적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설립 당시의 시설 명칭은 무대예술연수회관이었다. 명칭에 부합하게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관련 연수프로그램과 함께 무대제작·디자인·조명·음향 등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행정동이자 교육장·숙소인 창조관 이외에 무대미술스튜디오, 블랙박스형 교육용 공연장인 실험무대를 갖춤으로써 무대예술 전문교육을 위해서는 최적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예술인력개발원은 2010년대에 몇 차례 기능 및 사업방향에서 큰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선 2011년 예술인력개발원의 기능이 공연예술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기초교육 중심이었다면 현장 인력들의 재교육 중심, 국제적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전문 무대기술 교육으로 일부 변화하였다. 기존의 무대예술전문교육 이외에 무대기술 분야의 중급 이상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AIPAPS)〉가 신설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무대예술연수 장기프로그램인 2년 과정의 〈무대예술아카데미〉가 폐지되면서 새로이 기획된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5회 무대예술 분야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급 이상의 실무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세계적 최신 트렌드, 현장에서의 협업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실무 워크숍을 통해 해당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제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2010년에 개관한 예술가의집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AIPAPS에 초청된 해외 무대 예술가들은 무대예술 분야의 아카데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토니상 수상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내한하였고, 1주간 오전·오후 진행되는 워크숍 프로그램과 초청강연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무대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네트워킹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예술인력개발원의 사업방향 전환은 2014년부터 국고 및 타기금 등 외부 재원 적극 유치, 온라인교육·예술인력지원사업의 신규 개발 등으로 조직규모와 예산의 확대는 물론 사업의 다양성에 있어 엄청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1992년 개관 이래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총량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사업 기반 구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 창조인력 육성을 위한 6개 사업을 제시한다. ① 차세대예술인력, ② 무대예술전문인력, ③ 글로벌 인재양성, ④ 문화예술 창조경제 실현 인력, ⑤ 문화예술 사이버아카데미, ⑥ 문화예술 전문인력 거점공간 조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창조인력 육성을 위한 6개 사업을 제시(2014년 총 사업비 100억 원)하였다.

[표 9-33] 2013~2014년 예술인력개발원 예산 변동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분	분야	사업명	2013년	2014년	증감
지속	시설	예술인력개발원 시설운영	421	500	79
	무대예술	무대예술 전문교육	181	280	99
	무대예술	국제공연예술 전문가 시리즈	173	252	79
	문화예술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공연예술)	708	726	18
신규	무대예술	ARKO 사이버아카데미	-	547	547
	무대예술	무대예술 전문인 파견지원	-	2,000	2,000
	무대예술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4,568	4,568
	무대예술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	-	1,000	1,000
	무대예술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	50	50
	무대예술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지원	-	480	480
	무대예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	1,200	1,200
	무대예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574	574
계			1,483	11,603	10,120

[표 9-34] 2015년 예술인력개발원 사업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	공연 기획경영 전문인력 지원	전국 100여 개 공연창작단체에 대한 총 340여 명의 공연예술 분야 기획·경영 전문인력 고용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공연예술의 창작여건을 개선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전국 국·공립 및 민간 33개 예술단체에 350여 명의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들의 인턴 연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실무능력 배양 및 사회진출 기회 제공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지원	한국 전통예술 분야 발전을 이끌 연 30명의 신진 기획자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복지 분야 민간 80여 개 기관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100여 명 선발 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예술대학 재학생, 졸업자, 예술 강사 등에 대한 교육 활용모델 발굴 사업 지원
	예술계 학교 졸업자 창업 지원	청년예술가 예술창업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활동지원과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콘텐츠 및 아이디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국 50여 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50여 명의 문화예술 분야의 실무경력 2년 이내의 기획경영 전문인력 고용 지원과 1,000여 명의 재직자에 대한 20여 개의 기획경영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 지원
문화예술 창작인력 양성	공연예술분야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의 미래를 이끌 만 35세 이하 총 20명의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5개 분야의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 해외연수 및 공연발표 등 1인당 3천만 원의 창작활동을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지원	전문무용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무용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해 재활 및 예방, 직업개발 및 전환 등의 지원
	창의예술아카데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술인 활동증명 보유자 대상 및 예술가를 위한 연간 76회 900여 명의 전문역량 강화, 직업역량 개발 및 권익보호와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무대예술 전문교육	무대예술 전문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국내 유일의 무대예술 전문인 재 교육사업으로 연 13회 직무별 교육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335명 교육 추진
	무대예술 전문인 파견 지원	전국 500석 미만의 80여 개 소공연장에 제작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무대예술 전문인력 100명 파견 지원
	국제 공연예술 전문가 시리즈	세계 무대기술의 새로운 트렌드 확산과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 및 초청강연 연 8회 개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대한민국 무대예술 분야 인력양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공연예술 11개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온라인 교육	ARKO 사이버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재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6개 과정을 실시함으로서 연간 1,320명에 대해 무료교육 추진

〈문화예술 창조인력 육성사업〉 유치를 위한 문체부와의 워크숍 등 지속 노력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고용보험기금 5억 7,400만 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고용보험기금 5억 7,900만 원의 재원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인력개발원은 무대예술전문인력 양성 중심에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2014년 예산도 2013년 대비 무려 8.2배 증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을 새로이 기획하고 추진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의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무료 교육(〈ARKO 사이버아카데미〉)을 2015년 4월 1일부터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작했다.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부족했던 기초예술 분야에서 인터넷 무료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문화예술 현장종사자의 학습

욕구 충족은 물론 직무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ARKO 사이버아카데미〉는 '공연예술의 이해' 등 4개 교육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11개 과정이 개발되었다. 교육인원은 매월 과정 당 20명씩이며,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1개월간 진행되었다. 2014년 이전의 예술인력개발원과는 확연히 다른 다양한 사업과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5년 이후부터는 양적 성장보다는 사업의 심화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이다. 39세 미만의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자들과 기획자, 무대예술 디자이너 등 차세대 예술가를 선발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작 및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5. 예술가의집

2010년 1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 청사가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예술가의집'으로 바뀌었다. 예술가의집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에 있으며,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시민 간 소통을 지원하는 매개형 열린공간이다. 특히 예술가의집 3층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회의실과 다목적실이 있다. 이동형 스크린과 빔프로젝터가 구비되어 있어 세미나 혹은 회의, 낭독연습 등의 행사에 대관을 하는 공간이다.

6.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189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으로 시작했던 〈베니스 비엔날레〉는 홀수 년도는 미술, 짝수 년도에는 건축전으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미술 축제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후 독립된 전시관이 없이 이탈리아관의 공간을 배정받아 참가하였으며, 1995년에 26번째로 독립된 국가관인 한국관을 건립하였으며 아시아에선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 이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한국의 미술과 건축을 해외에 소개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9. 2010년대 국고 · 타 기금 수탁사업 추진과 성과

'수탁사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수탁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공공사업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의 수탁사업자가 된다. 또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수탁사업에 해당한다. 수탁사업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예술위원회가 2010년대에 들어와 수행한 수탁사업들은 문체부 또는 다른 공공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수탁사업이 2010년대 들어와 대폭 확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문예진흥기금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세입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굳이 타 기관의 사업에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은 2003년말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는 사업비 부족분을 적립금에서 충당해야 할 정도로 급속히 재정사정이 악화되었다.

수탁사업 확대의 두 번째 이유는 상대기관의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단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무런 문제나 잡음

없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당한 업무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거액의 국고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의 공신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예술지원업무를 수십 년간 수행해온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런 면에서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정부의 예술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수탁사업들이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술위원회의 자체 필요성 때문이다. 즉 신규사업 추진은 필요하지만 자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타기금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체육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예술기록물 DB 구축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예술인력개발원이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아 수행한 사업인데,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의 고용보험기금에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에 선정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무료교육(〈ARKO 사이버아카데미〉)을 시작할 수 있었다.

[표 9-35] 2014~2019 국고·타기금 수탁사업 총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고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	2,890	2,850	2,669	2,804	2,442
	공연연습공간조성 및 운영	-	5,936	5,916	5,600	6,186	5,497
	공공미술포털 운영	-	-	-	-	-	56
	인생나눔교실 운영	-	3,058	3,300	3,300	3,300	3,300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	-	680	973	973	960	96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1주년 기념행사	-	-	-	-	-	1,081
	문학나눔도서 보급사업	-	-	-	-	5,500	5,111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	-	60	90	90	108	-
	공공미술 프로젝트	-	1,600	1,800	1,440	1,354	-
	미술주간 행사 개최	-	370	370	370	-	-
	평창문화올림픽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	-	5,000	9,400	4,115	-
	평창 대표공연 시리즈	-	-	-	-	946	-
	문화가 있는 날	-	2,400	7,230	9,447	-	-
	공립미술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운영	-	-	30	-	-	-
	문화동반자 사업	-	-	895	1,145	-	-

구분	사업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	2,750	2,430	-	-	-
	문화예술인패스	-	180	-	-	-	-
	장애인문화센터 운영	-	747	-	-	-	-
	아르코 창의예술아카데미	-	300	-	-	-	-
	한불상호교류의해 전통예술사업	-	58	-	-	-	-
	한불상호교류의해 서울공연예술제 솔로이스트	-	14	-	-	-	-
	광복70주년 기념 전야행사	-	2,487	-	-	-	-
	나주시 협력 도시인문학콘서트	-	150	-	-	-	-
	공연티켓 1+1	-	30,000	-	-	-	-
	예술극장 사업비 및 경상비	-	5,284	5,520	4,493	2,159	-
	예술자료원 사업비 및 경상비	-	2,476	2,643	2,793	2,863	-
관광진흥개발기금	통합문화이용권(여행)	10,225	10,627	-	-	-	-
	공연예술행사 지원	-	4,640	-	-	-	-
	2015 밀라노 엑스포 계기 전시사업	-	180	-	-	-	-
체육진흥기금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	800	700	630	700	630
	예술기록물 DB 구축	400	400	470	470	470	423
	도서관상주작가 지원	-	-	-	1,000	1,000	900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	-	-	-	1,300	1,150
	통합문화이용권(체육)	700	4,230	-	-	-	-
	예술분야지원사업 총괄운영	150	150	-	-	-	-
	특성화극장 육성	-	-	-	1,000	-	-
	창작활성화 지원	-	-	-	1,500	-	-
	공연예술장르별 유통활성화 지원	-	-	-	1,000	-	-
	문화가있는날 홍보마케팅 지원	-	-	500	400	-	-
	창의예술아카데미	-	-	550	-	-	-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1,200	1,000	600	-	-	-
	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	650	800	-	-	-	-
	K-sound 아티스트 발굴 프로그램	-	-	1,500	-	-	-
	창작음악아카이브 활성화 사업	-	100	-	-	-	-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	-	-	500	-	-
	작가비 지원제도	-	-	-	400	-	-
	공연장 운영 활성화	1,100	1,100	-	-	-	-
	문화자원봉사자 활성화	300	296	-	-	-	-
고용보험기금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579	422	593	462	348	290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	574	-	-	-	-	-

수탁사업은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 위탁자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고)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높이고 소수문화의 표현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2015년에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주간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전문인력 연수를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과 사업 운영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과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 구축을 위한 〈문화다양성 아카이브〉(www.cda.or.kr)를 운영하였고 전국 26개 문화다양성 주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무지개다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27건의 사업을 지원하여 248개 프로그램에 250,013명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26건의 사업을 지원하여 228개 프로그램에 297,724명이 참여하였다.

(국고)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사회 전반의 '일과 여가의 균형' 인식과 여가활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였다. 여가친화기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는데, 2018년에는 39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받았다.

(국고)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인문360°)

국민 누구나 인문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인문 사이트(inmun360.culture.go.kr)를 운영하며 인문콘텐츠를 제작, 공유하는 사업이다. 인문360° 내외부에 축적된 인문 콘텐츠와 정보들을 테마별로 아카이빙하여 사용자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 웹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인문예술콘서트 오늘〉을 통해 인문·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문적 성과와 성찰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였다. 2018년도에는 일상적 공간을 활용한 인문·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골목콘서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웹사이트의 메뉴 구조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편하였다. 매월 선정된 다양한 주제(디아스포라, 레트로, 주거, 우주, 민화 등)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문 360 오늘인물 콘텐츠' 등의 인문콘텐츠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오디오클립 SNS를 추가 개설하여 2018년

에는 201,415명, 2019년 2016,055명이 방문하였다. 그리고 〈인문예술콘서트 오늘〉을 통해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문적인 성과와 성찰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였다.

(국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공공미술 작품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화적 재생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역주민과 공감의 기회를 확장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며, 작품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해 지속가능한 공공미술 환경을 조성하였다. 지난 2017년 대단위 미술마을 3개년 집중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선정 첫해, 대전역 구도심을 대상으로 지역 조사, 지역 단체 및 작가 참여 활성화 등 사전작업을 하였다. 2018년도에는 지역 예술가-주민 소통 프로그램 통해 주민 작가단을 양성하여 주민·작가 공동 미술작품을 설치하였다. 낙후되었던 환경을 개선한 결과, 대전역 구도심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47년만에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고) 공연 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공연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창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습공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공익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3개소, 46억 1,300만 원을 2019년도에는 2개소, 30억 3,992만 원을 지원하였다.

(국고) 인생나눔교실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인 멘토봉사단의 오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나눔, 배려, 공감 등 인문적 가치의 중요성을 나누고 새내기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공유하는 세대 간 소통 사업이다. 세대, 계층, 개인 간의 다름을 이해하여 멘토봉사단과 멘티가 상호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주관처와 함께 멘토를 선발하고 멘토 교육, 권역별 워크숍 개최, 연구 소모임 지원 등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멘토봉사단은 군부대,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등에 파견되어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멘토봉사단 254명이 멘티 4,196명과 3,917회의 만남을 가졌고, 2019년에는 멘토봉사단 195명이 멘티 3,343명과 2,953회의 만남을 가졌다.

(국고) 공공미술포털 운영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미술포털은 이 제도를 통해 설치된 작품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기금의 출연절차를 관리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미술포털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작품의 정보(작품명, 작가, 위치, 이미지 등)를 등록하고, 방문자에게 작품의 정보와 더불어 미술작품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금출연을 원하는 건축주에게는 포털을 통해 출연신청을 하고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국고)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학도서 중 우수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함으로써 문학 출판시장과 창작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문학도서 보급과 함께 다양한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민의 문학 향유와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시작했던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되었다. 2018년에 문학 진흥 특화를 위해 세종도서에서 문학 부분을 분리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주관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500종을 선정하여 1,504개소에 배포하였고, 2019년에는 500종의 도서를 선정하여 2,603개소에 배포하였다.

(체육)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생활권 내 등록미술관이 없거나 미술문화 확산이 절실한 지역 내 공공의 유휴공간과 기존 전시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미술 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성 1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조성 지원〉, 2~3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운영 지원〉과 4년차 이상의 작은미술관과 기존 전시시설을 위한 〈전시활성화 지원〉으로 공모를 다원화하여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체육기금으로 추진하여 2018년과 2019년도에 9개 지역의 '작은미술관'을 지원하였다.

(체육)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지역 문학 작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문학 향유와 창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관 상주작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서관 상주작가는 공공도서관에서 '문학 큐레이터'로 상주하며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체육기금으로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 35개소에 35명, 2019년에는 31개소 31명의 상주작가를 지원함으로써 작가들에게는 작업 공간과 안정적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는 도서관에서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체육)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원로예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 창작활동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원로공연단체 창작지원을 각각 27건씩 지원하였다. 지역별로 특화된 원로예술인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적 특색과 이슈를 담아낸 공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취약계층,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체육) 예술기록물 DB구축

예술자료를 수집·등록·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장소적 한계를 넘어서는 예술기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축된 예술지식 DB는 예술창작·기획, 교육·연구, 정책개발,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예술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예술자료 정리 30,431건, 소장 등록 8,595건, 소장자료 디지털화 1,467건을, 2019년에는 분류·해제 25,847건, 소장 등록 6,745건, 메타데이터 10,210건, 소장자료 디지털화 2,945건, 디지털 아카이빙 1,467편을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5명을 선발하여 교육함으로써 전문화된 자료의 수집·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썼다.

(고용)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아르코 챔프아카데미〉

문화예술 현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해 문화예술 분야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 행정, 기획, 경영 분야와 무대예술 분야 등 23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2,439명이, 2019년에는 1,917명이 교육을 받았다.

PART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史

2020~2022년 코로나19 시대,

10. 위기극복을 위한 예술지원

1.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과 대응
2. 위원회 활동과 기관운영의 성과
3.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 총괄

1.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과 대응

2020년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코로나19'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 국민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었으며 아무도 예측 못 했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이후에도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2019년 말에 시작된 COVID-19(이하 코로나19)은 급속한 감염 속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전염 억제 차원에서 많은 국가가 여행 제한과 봉쇄 조처를 하였고, 국제무역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시장에 공포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게 되었다.[1]

1. WHO에서 발령하는 전염병의 경보는 총 6단계가 있는데, 이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1단계)', '동물 간 감염을 넘어 소수 사람에 대한 감염(2단계)',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된 상태(3단계)', '사람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며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상태(4단계)', '감염이 널리 확산되어 최소 2개의 국가에서 유행하는 상태(5단계)', '타 대륙으로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6단계)'로 구분된다. 팬데믹은 최고 위험등급인 6단계이며,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이에 해당된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우리나라는 2월 이후 지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공간적으로 각종 종교시설과 의료 및 요양 시설, 공연장과 극장, 미술관 등 다중문화시설,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 등이 주목을 요하는 위험 장소로 관리되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며 각종 방역수칙이 등장했다. 2020년 4월 '생활방역 수칙' 40여 종이 발표되며 격리, 마스크 쓰기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 시행되기도 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1~2m 간격으로 줄을 서야 했고, 운영시간 제한이 생기기도 했다. 음식점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되었다. 특히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공연장 등 다중이용문화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대상시설로 분류되면서 장기간 휴관 및 운영 중단 등이 거듭되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민간단체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한때는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정부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폈다.

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예술계 피해 확산

문화예술계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공연장 포함해 문화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공연과 전시, 축제 등이 중단·취소·연기되었다. 장기간 지속되는 방역 조치로 인해 문화시설이 장기간 휴관 및 운영을 중단하면서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기업의 운영난을 초래하였고, 문화예술인의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약 80%에

[표 10-1] 예술인 생활실태 비교표(2018, 2021)

주요지표	2018(A)	2021(B)	차이(B-A)
1. 전업 예술인 비율	57.4%	55.1%	△ 2.3%
2. 예술활동 경력단절 경험률	23.9%	36.3%	12.4%
3. 전업예술인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	76.0%	78.2%	2.3%
4.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률	42.7%	54.3%	11.6%
5. 예술작품 발표 횟수	7.3회	3.8회	△ 3.5회
6. 예술인 연간 예술 활동 개인 수입	1,281만 원	755만 원	△ 526만 원
7. 예술인 가구 총수입	4,683만 원	4,127만 원	△ 556만 원
8. 개인창작공간 보유 현황	44.5%	56.3%	11.8%

자료 : 〈2019 예술인 실태조사〉, 〈2021 예술인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피해가 켰다. 당시 문화예술계가 처한 극심한 상황은 여러 통계를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한 해,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로 3년 전(7.3회)보다 3.5회(48%) 감소했고,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 원으로 3년 전(1,281만 원)보다 526만 원(41%) 대폭 감소했다. 월 1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86.6%(2018년 72.7%)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127만 원을 기록해 3년 전보다 556만 원이 감소한 것은 물론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 원(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약 2,000만 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예술활동 경력단절 경험도 급격히 증가(2018년 23.9%→2021년 36.3%)했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피해로 예술활동 경력단절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고, 예술인의 개인 소득과 가구 총수입도 크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술작품 발표 횟수가 3년 전에 비해 약 50% 감소한 사실은 첫 확진자 발생 후 문화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공연과 전시, 축제 등이 중단·취소·연기 등이 예술인들의 생활 및 복지 환경은 물론 창작환경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예술작품 발표 횟수'의 급격한 감소 결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76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의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수집, 정리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현재 지형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 발표하는 〈문예연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0-2]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건수 및 비율(2018~2020)

구분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합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2020	예술활동 건수	14,267	6,379	645	4,629	2,424	517	874	9,089	29,735
	비율(%)	48.0	21.5	2.2	15.6	8.2	1.7	2.9	30.6	100
2019	예술활동 건수	13,724	15,256	1,929	12,219	9,693	1,540	3,546	28,927	57,907
	비율(%)	23.7	26.3	3.3	21.1	16.7	2.7	6.1	50	100
2018	예술활동 건수	13,151	15,192	1,735	11,333	7,608	1,270	2,773	24,719	53,062
	비율(%)	24.8	28.6	3.3	21.4	14.3	2.4	5.2	46.6	100

자료 : 『문예연감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통계를 비교해 보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 건수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문화예술 건수 및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문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동작업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작품발표를 하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활동 건수가 급격히 감속한 것이 눈에 띈다. 문학의 경우,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는데, 그 이유는 공동작업이나 대면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분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예술인 개인 수입이나 가구별 수입이 줄어든 주요인은 결국 활동 건수 격감에 따른 것이다. 즉 예술활동을 통해 출연료 또는 각종 사례비 등 수입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우니 수입도 이와 연동하여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의 피해는 2022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9월 28일 국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분야의 피해 규모가 115.7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분야는 스포츠 분야로 피해 규모가 총 57조 원이며, 영화 및 대중음악 공연 등의 콘텐츠 분야 3.8조 원, 예술 분야 역시 1.6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취소된 공연·전시는 40,822건에 달한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 피해는 0.5조 원에 이르고, 예술 분야 사업체 종사자 고용 피해는 0.2조 원 규모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은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이 다양하게 제안되기도 했다. 실제로 재난 수준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면서 다양한 대응 정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3. 예술계 피해 최소화 및 회복을 위한 예술위의 분투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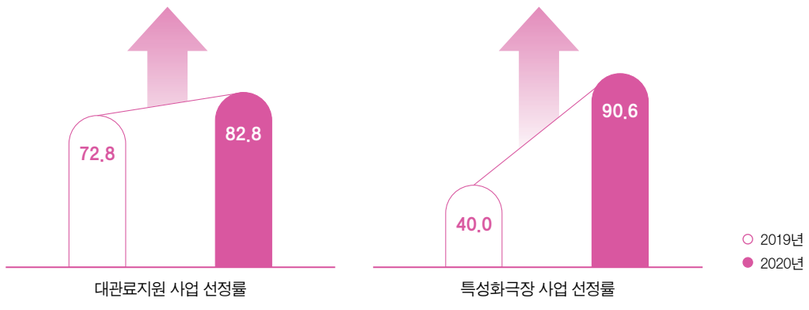
이 시기 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술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팬데믹 시대의 일상을 예술로 기록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예술로 치유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아르코형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을 추진해나갔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2020년에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계가 재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대관료·인건비 등 예술 활동 축소에도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비용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 발굴과 공연 분야 폐업 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우선 1차 103억 원, 2차 249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친 문예진흥기금 예산 변경은 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국고 투입 이전의 방어선 역할을 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51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 사업을 통해 총 862억 원의 긴급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대응했다.

특히 문화시설이 위험 장소로 관리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금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운영지침을 완화한 안내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예기금 보조사업 FAQs'

[그림 10-1]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선정률

(단위 : %)



*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ings) : 사전 공지된 행정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

(2020. 3.)를 선제적으로 배포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에 한해 네거티브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예술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 40억 원,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41억 원,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56억 원, 〈전시공간 긴급지원〉 9억 원,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10억 원, 〈공연예술 온라인 확산 지원〉 3억 원 등 6개 사업에 총 159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의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창작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 1,539개 단체에 긴급 일자리 약 3,000개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예술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의 중단·취소 시 유연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참여 자격요건 완화·지원범위 확대·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통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특히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 환자들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힘나는 예술여행〉, 예술계 긴급 기부 활성화 프로젝트 〈예술나무로 다시, 봄〉 운영으로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예술위원회 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선제적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은 방역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급에 따른 개·폐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체계적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거리두기 객석제·출입구 일원화·전시 사전예약제 운영·온라인 전시·공연 추진·특별 방역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공연장 안전매뉴얼_감염병 부분'을 신설하였다. 예술기록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언택트 방식의 문화향유 기반 마련 등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모든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공연영상 제작사업의 온라인 생중계 또한 확대 시행하였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사회·문화·경제 등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단(TF)을 구성·운영하였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편, 예술의 미래 대응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과 기술융합을 지원하는 〈아트앤테크 활성화 창작지원〉(13건 7.9억 원), 온라인 환경

에서의 새로운 창작과 향유를 지원하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1,141건 149억 원), 비대면 영상 서비스 및 관람을 지원하는 〈공연예술 영상화〉(25편 실황 생중계 54만여 명 감상) 등 창작과 향유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전국 문화예술기관의 긴급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통합 안내 플랫폼 '아트누리(ARTNURI)'를 구축하였다. 현재 이 플랫폼에는 공공기관 9개, 광역문화재단 17개, 기초문화재단 79개 등 총 10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려 정부의 방역정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계속 시행되었다. 2020년 초부터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공연과 전시, 축제 등이 중단·취소·연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라는 재난 환경 속에서 예술위는 예술 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였다.

먼저 기초예술 분야의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며 예술 현장의 버팀목이 되고자 문화예술계 피해 극복과 문화 수요 견인을 위한 특별재원 897억 원을 확보하여 창작활동 80억 원, 일자리 451억 원, 생활 안정 155억 원, 소비 촉진 211억 원 등 분야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예술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긴급 일자리 약 5,500개를 마련하고 생활안정자금 2,418명 지원, 민간소극장 224개소 지원, 민간공연단체 대관료 1,753건 지원, 공연예술제 53개 지원 등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 및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팬데믹 시대의 일상을 예술로 기록하고 온라인으로 향유하는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을 기획하였는데, 이 사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를 재난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오히려 창작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사업이었다. 그 중 〈예술로 치유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예술로 위로하고 치유하며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은 코로나19로 진통을 겪는 공동체를 위해 연도 중반에 45억 원 규모의 긴급 재원을 마련하여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록물 전수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한 사업이다. 그 성과물이 공개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총리실 주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총 197만 명 대상 1,993억 원 규모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했다. 매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의 80% 이상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집에서도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과 행정비용의 절감을 실현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정보와 시간이 부족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아가는 권리구제 서비스도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에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있었으나, 3월을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정부는 4월 18일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모든 조치를 해제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4월 25일 1급에서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약 2년 1개월 만에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문화시설들이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고, 중단·취소·연기를 거듭하던 각종 공연과 전시, 축제 행사 등도 다시 개최됨에 따라 예술계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게 되며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위원회도 2년여 동안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응체제에서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기반 구축, 예술의 미래 동력 확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모두를 위한 문화향유 여건 개선 등과 관련된 각종 정책 마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2. 위원회 활동과 기관운영의 성과

1. 제7기 예술위원회의 운영성과(2020. 5.~202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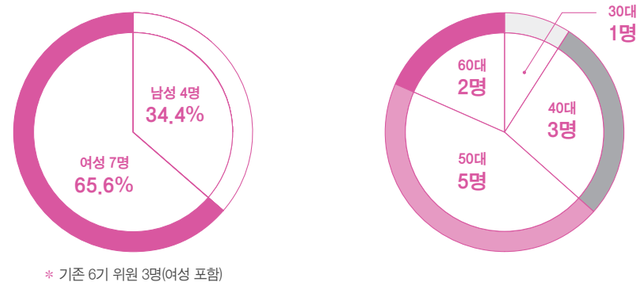
2020년 5월 6일, 제7기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제7기 위원은 문학·연극·전통예술·미술·문화 일반(다원예술, 장애인예술, 지역문화 등) 등의 전문성과 경험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남녀 각 4명(50%), 30·40대와 50·60대 각 4명(50%)으로 성·연령별 균형을 적극 고려하여 위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7기 위원 위촉과 관련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야별 전문성과 더불어 최근 융·복합, 다원예술 활동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을 고려하고, 차별 없는 문화예술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예술·복지 관련 전문성도 고루 살폈다. 또한 지역화와 문화분권 관점에서 지역예술 활동가를 위촉해 지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청년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들에게 실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최초로 30대 청년예술가를 위촉했다"라고 밝혔다.

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는 2020년 2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문체부 장관은 추천된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했다. 특히 그에 앞선 1월에 세 차례 열린 현장공론회 의견을 위촉 과정에 반영해 실제 운영 절차를 개선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위원 위촉 절차 개선 사항

- **추천위원 추천 주체 확대**
  (기존) 문화예술단체→(변경) 문화예술단체, 개별 예술인, 예술위원회
  *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도 추천 가능
- **추천위원 명단을 추천위 활동 종료 후 공개**
  * 추천위는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활동 종료
- **최종후보자 추천 및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령별 균형적 구성으로 문예위의 문화예술 현장 대표성 강화**
- **현장 중심으로 구성된 추천위 주관 면접으로 후보자 비전·역량 확인 강화**

[그림 10-2] 7기 위원 성별 및 연령별 구성 현황



* 기존 6기 위원 3명(여성 포함)

위원회-소위원회-사무처의 운영 혁신과 연계 강화

제7기 위원회는 출범 초기에 〈제7기 위원회 워크샵 TF〉를 구성하여 '능동적 위원회', '일하는 소위원회'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무처와 함께 예술위원회 현황과 이를 둘러싼 환경분석을 진행하고,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제7기 위원회에 바란다')를 추진하여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목표를 '새로운 예술지원체계 조성을 위한 위원회 역할 재정립'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7기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위원회 체제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현장, 위원회, 사무처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현장과 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젠다와 정책을 제언하고 예술 가치 옹호와 대사회적 대응, 문예진흥법 상의 심의·의결 역할을, 소위원회는 현장과 결합한 의견수렴, 정책제언,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역할을, 사무처는 예술현장, 소위원회,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비전의 실행과제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그림 10-3] 7기 소위원회 현황



담당한다. 이러한 관계 설정 아래, 7기 위원회와 사무처는 역대 소위원회의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여 기존 소위원회 체계를 소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상설소위원회와 예술현장의 변화와 이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미션 중심의 비상설 TF형 소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따라 위원 구성의 방법, 위원 수, 임기 등을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소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소위원회 활동의 공유·확산을 위해 소위원회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예술현장과의 접점과 정책기능 강화

제7기 위원회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지원체계 조성을 위해 예술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대응 TF와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정책 대안 마련과 지원사업 개선을 진행하였고, 블랙리스트 TF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예술위 관련 블랙리스트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공공예술 지원정책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변동과 예술위 정책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예술지원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추진하여 3개 주제(예술의 현재성, 기후위기와 예술, 기술과 예술)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및 보고서 작성, 현장 협력과 공론화, 정책 대안 공론화 등 새로운 예술지원정책의 담론과 정책과제를 사회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후위기와 예술, 기술과 예술 등의 경우 예술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지원사업 및 기존 지원사업 개선을 추진하였고, 새로운 예술지원정책 관련 현장 주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였다.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문화시설 운영 중단 및 각종 공연과 전시, 축제 등이 중단·취소·연기되는 등 문화예술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자, 코로나19의 피해양상과 특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및 대안 마련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과 사무처가 결합한 워킹그룹형 '코로나19 대응 TF'(2020. 8.~12.)를 구성해 2021년 12월까지 운영하였다.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제7기 위원회는 예술위원회가 2005년 문예진흥원에서 합의제 기구로 전환한 취지를 재성찰하고 예술의 가치에 기반한 예술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 사이의 정책 소통과 협력 체계 회복을 추진하였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및 정관 정비를 통해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련 법 적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위원장 호선제'를 복원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회 속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후 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자율운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예술현장과 정책수립의 주체인 문체부를 잇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문화예술지원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추진하였다.

한계 및 향후 과제

제7기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향후 과제도 남겼다.

첫째, 제7기 위원회 활동 기간의 거의 전체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책혁신소위원회가 초기에 의도했던 적극적인 현장 참여형 오프라인 활동이 진행되기가 어려웠다.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장 참여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킹과 커뮤니티 활동, 적극적인 공론장 활동 등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혁신소위원회와 정책혁신부 등 정책 단위의 협력 체계는 강화되었지만, 정책 결과물에 기초한 실질적인 예술위 지원사업 제도화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사업혁신 TF의 단기적 운영의 한계, 정책혁신소위원회와 정책혁신부의 정책 체계가 사무처의 여러 지원업무 주관 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화 부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협력 체계가 부족했다. 새로운 예술지원정책 관련 3개 주제(예술의 현재성, 기후위기와 예술, 기술과 예술)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프로세스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2. 기관 경영개선 추진 활동과 성과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정책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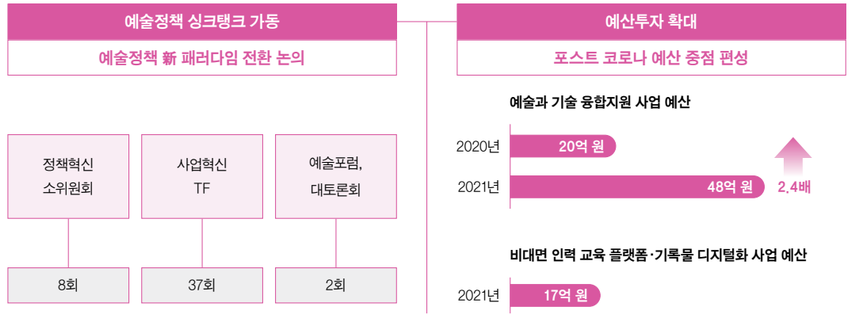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타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창작과 향유 방식의 등장, 문화예술 유관기관 증가 등 예술창작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술위원회는 예술 현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원사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새롭게 고민했다. 분야별 비상임위원과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혁신 TF를 구성하고 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2년도 창작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사업혁신 TF는 단년도 내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운영 사항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방법을 현장과 함께 찾아 실제 사업의 예산 구조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아르코 비전 2030의

[표 10-3] 사업혁신 TF 구성

사무처	위원회	예술 현장
분야별·기능별 담당 직원	분야별 비상임위원	예술 현장 전문가 53명

[그림 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방향



전략체계 재설정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혁신소위원회, 대토론회, 사무처 내부의 사업혁신 TF 등 위원회 내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예술정책 패러다임의 방향과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르코 비전 2030〉 전략체계 재설정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환경 변화와 정부 중점 정책에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에 새롭게 수립한 기관의 신규 중장기 전략체계인 〈아르코 비전 2030〉을 점검해 보고, 일부를 보완하여 재설정했다.

[표 10-4] 〈아르코 비전 2030〉 전략체계 재설정

구분	기존	재설정
전략목표 명확화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세부과제 층위 조정	-	'문화예술 인력육성체계 혁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 중점 정책 및 과제의 우선순위(시급성과 중요성)를 고려하여 실행과제에서 상위로 층위 조정
세부과제명 변경	아르코 창작 공간의 특성화	아르코 창작 공간 플랫폼 역할 정립

미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비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전략목표	Ⅰ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Ⅱ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Ⅲ 자율과 협력기반의 위원회 운영
전략과제 세부과제	**예술의 지평 확대** 1.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2.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3. 아르코 창작 공간 플랫폼 역할 정립 4. 문화예술 인력 육성 체계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1.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 3.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가치 보존	**기관 운영체계 혁신** 1.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2.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 3. 혁신경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1. 현장 친화적 정책 지원 강화 2.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1. 문화예술 향유 격차와 불균형 해소 2.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 1. 협치형 위원회 운영 활성화 2. 현장예술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 형성
핵심가치	도전과 변화	공감과 협력	공공 책무성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심의제도 개편

예술위는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대대적인 지원심의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지원신청자 입장에서 신청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의 기준을 정비했으며, 심의 전 과정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 '열린 심의'를 지향했다. 창작과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더 실험적인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운영을 확대해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심의과정을 투명화하고 심의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화,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예술가 인권 보호에도 힘썼다.

심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매해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심의 절차와 심의위원 태도 등에 대한 공정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사 결과, 2020년 67.0점 대비 70.5점으로 3.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심의 제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치로부터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심의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운영하였다. 옴브즈맨은 '대표자', '대리인'이란 뜻으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국민권익 보호제도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이 제도가 시작되어 현재는 많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예술위가 도입한 지원심의 옴부즈맨 제도는 예술위가 직접 수행하는 공모사업의 지원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지원신청 예술인(단체 포함)이 이의신청한 사안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지원심의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조, 행정, 경영, 언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이다.

문체부·예술위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는 과거 정치적 견해의 차이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이유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며 예술 현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에 본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예술정책의 실체이자 기본 원칙이며, 독임제 진흥원을 합의제 위원회로 전환한 기본 정신임을 되새기





정책 수립 주체와 예술계를 잇는
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예술 현장·정책 거버넌스 확립



고자 하였다. 문화예술지원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선언했다.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문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예술의 가치가 특정한 이해관계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현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언제든 문화예술 정책제안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정책제안을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제안 및 검토 결과는 필요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심의 결정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 과정에 특정한 이해관계의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접촉과 시도를 차단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외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립·집행하는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은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예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간의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2021. 3.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안전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경비의 보조금 편성 허용

안전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자체 워크숍 운영비용과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 작품의 접근성 향상 및 이동 슬로프 설치 등 시설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배리어프리' 비용 등에 대해 보조금 편성을 허용하였으며 보조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였다.

기관 운영 및 사업 전반의 ESG 실천 토대 마련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ESG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로 정의할 수 있다. ESG의 숨은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업가치,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지표이다.

예술위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ESG 경영 관점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경영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내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사회적가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가치경영 모니터링 및 추진전략을 자문하였고, 기관의 내재화를 위한 인식 제고 활동 〈사회적 가치 주간〉을 개최하였다.

2022년에는 기관 운영 및 사업 전반의 ESG 실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ESG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천기구로 총 16인으로 구성된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 운영을 통해 ESG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관련 예술위가 당면한 11개 ESG 핵심이슈를 파악하였고, 〈문화예술기관 ESG 경영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5개 광역지역문화재단, 11개 기초지역문화재단과 함께 ESG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예술 현장의 참여를 통해 ESG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화예술지원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2020년 5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지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였고, 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그해 12월 문화예술콘텐츠 정보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아트누리 플랫폼'을 정식 오픈하였다. 아트누리 플랫폼(www.artnuri.or.kr)은 전국 문화예술기관의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통합 안내 플랫폼으로서 2023년 12월 현재 공공기관 9개, 광역문화재단 17개, 기초문화재단 79개 등 총 10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작지원, 공간운영, 대관·레지던시, 예술교육, 국제행사·체험, 예술인복지 등에 관한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합의제 기구로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열린 공론장' 조성

2006년 1월부터 격주로 위원회 사업, 예술정책 현안, 국내외 문화예술계 소식 등을 인터넷 DB 형식으로 전하던 『아르코 웹진』은 온라인 채널로 급격히 정보 전달 수단이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2017년 발간을 중단하였으나, 2022년 11월 『A SQUAR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격월간(1월,

[그림 10-5] 아르코 웹진『A SQUARE』



출처 : https://www.arko.or.kr/asquare/vol1/index.cs

3월, 5월, 7월, 9월, 11월) 주기 발간을 다시 시작하였다. 새 아르코 웹진 『A SQUARE』는 예술계 현안과 정책을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온라인 공론장 형성, 예술 현장 이슈를 세밀하고 세심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시민, 예술가, 예술행정가들이 소통하는 공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한 문화예술 분야 정보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 〈대한민국 SNS 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한국소셜콘텐츠협회 주최)을 수상하였고, 2022년에서 〈2022 디지털 고객 만족도 조사〉 문화예술 부문 1위(한국마케팅협회 주최)를 달성하였다.

3.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 총괄

1. 2020~2022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총괄

2004년 5,272억 원에 달하던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은 모금 폐지에 따른 급격한 수입 감소와 지속적인 기금 인출로 인해 매년 300여억 원씩 감소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2016년 체육기금과 관광기금을 문예진흥기금에 전입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도 직접 출연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적립금 규모는 2017년 545억 원에서 2020년 기준 1,67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기부금의 감소와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2022년 현재 적립금은 753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

예술위원회는 시기별로 비전 및 예산체계에 따라 세부사업의 편재가 변화되어 왔으며 2019년부터는 [표 10-6]과 같이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향유기회확대의 3대 단위사업 아래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문예진흥기금 사업 예산은 [표 10-7]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예술창작역량강화는 예술의 시작을 지원하고 그 과정을 함께하며 예술 본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부문의 사업이 있다. 2020년 790억 원 규모에서

[표 10-5] 2020~2022년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및 운용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수입(A)	366,965	348,070	322,010	379,937
모금수입	-	-	-	-
이자수입	3,438	4,088	4,319	2,345
기부금	30,663	18,258	18,214	17,049
전입금	305,561	293,324	281,524	300,868
- 일반회계	50,000	21,000	20,370	30,000
- 복권기금	105,561	122,324	164,154	173,868
- 체육기금	100,000	100,000	97,000	97,000
- 관광기금	50,000	50,000	-	-
경륜경정전입	10,693	8,670	-	-
토지매각대	-	-	-	750
융자원금회수	-	-	1,405	13,917
기타	16,610	23,730	16,548	45,008
지출(B)	274,095	332,164	352,357	410,605
사업비	248,042	301,014	323,187	386,070
- 문예기금사업	148,042	178,690	159,039	155,408
- 복권기금사업	100,000	122,324	164,148	230,662
기금운영비	20,493	21,145	21,437	21,697
정부내부지출	5,560	10,005	7,733	2,838
평가손익(C)	-24,512	-9,057	-21,567	-9,339
수지차(D=A-B+C)	68,358	6,849	-51,914	-40,007
적립금 잔액	160,404	167,253	115,339	75,332

[표 10-6]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체계 변화 추이

<table>
<tr><th colspan="2">2007</th><th>2008</th><th>2009</th><th>2010-2012</th><th>2013</th><th colspan="2">2014-2017</th><th>2018</th><th>2019-2022</th></tr>
<tr><td colspan="3">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td><td rowspan="3">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td><td rowspan="2">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td><td colspan="3" rowspan="3">예술 창작역량 강화</td></tr>
<tr><td colspan="3">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td></tr>
<tr><td colspan="3">예술의 국제협력 증진</td></tr>
<tr><td colspan="3">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td><td>문화예술 공간운영</td><td colspan="4">지역문화예술진흥</td></tr>
<tr><td colspan="3">지역문화예술진흥</td><td>지역문화예술진흥</td><td colspan="5">지역문화예술진흥</td></tr>
<tr><td colspan="2">예술의 생활화</td><td colspan="2" rowspan="2">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td><td colspan="3" rowspan="2">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td><td rowspan="2">예술향유기회확대</td><td rowspan="2">예술향유기회확대</td></tr>
<tr><td colspan="2">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td></tr>
<tr><td colspan="3">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존</td><td colspan="3">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td><td colspan="3">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td></tr>
</table>

[표 10-7]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예산변화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	2021	2022
예술 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45,548	48,186	53,414
	예술인력육성	14,540	21,672	29,388
	예술인생활안정자금	19,000	24,000	23,900
소계		79,088 (29.5)	93,858 (31.1)	106,702 (29.2)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10,457	9,957	3,470
	예술의관광자원화	11,070	8,862	7,477
소계		21,527 (8.0)	18,819 (6.2)	10,947 (3.0)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143,303	167,123	226,274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3,877	21,694	21,671
소계		167,180 (62.4)	188,817 (62.6)	247,945 (67.8)
합계		267,795	301,494	365,594

2022년 현재 약 1,067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특성이 담긴 예술이 지역 곳곳에서 균형 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로 지역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와 한국 전통예술의 고유가치 계승과 재해석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부문의 사업은 중앙 정부 사업의 지방이양 기조 지속에 따라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향유기회확대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량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핵심 인권이라는 믿음으로 예술의 가치 확산과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향유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분야 예산은 문화예술향유지원 분야의 대표 사업인 〈문화누리카드〉의 지급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단위사업별 예산뿐 아니라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비중도 2020년 약 62.4%에서 2022년 현재 약 67.8%로 증가하였다.

2. 주요사업의 성과

2019년 말 발표된 〈아르코 비전 2030(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의 추진을 위해 예술 현장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체계를 혁신하여, 현장과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10-8]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0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육성	2,988	2,988	4,527
	시각예술창작육성	2,672	3,182	4,777
	공연예술창작육성	32,145	29,036	31,280
	예술과기술융합지원	-	4,750	5,750
	국제예술교류지원	6,443	6,230	5,080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300	-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1,000	1,000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1,000	2,000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3,000	3,000	10,673
	현장예술인력지원	11,540	18,672	18,715
예술인생활안정자금		19,000	24,000	23,900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위원회는 〈아르코 비전 2030〉의 3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은 크게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다. 〈예술창작지원〉은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예술창작 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적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술인력육성〉 부문에서는 '한국형 뉴딜 2.0' 등 정부 정책의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주택 전·월세 대출 등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술의 지평 확대

창작지원사업은 예술위가 추진하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핵심사업으로서 그동안 예술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금 재원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기반 구축을 위해 2022년 과거 10년간 지원 규모가 동일했던 창작지원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사업별 지원 규모 및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인원을 80명에서 28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세분화하였으며, 시각예술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및 평균 지원 단가도 39.3%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적·사회적 상황을 예술가의 창의적 시선으로 포착하여 다양한 예술적 표현양식을 기록하며, 그 기록의 결과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치유와 시대적 연대감 회복에 기여하고자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특별 기획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에는 총 3,228건의 신청자가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최종 975건을 선정 후 아카이빙 및 공개를 통해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기초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원예술활동지원〉은 예술의 다양성 시도에 대한 존중과 지원으로 문예진흥기금 〈창작지원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예술과 창작 경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에는 23건, 4억 8천만 원이 지원되어 다양한 창작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창작준비, 창작활동, 창작발표 활동을 펼쳤다. 또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예술을 견인하고 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미래세대인 어린이·청소년들의 사회적 감수성과 창의성, 공동체 다양성을 함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에 42건 9억 2,8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연합(IFACCA,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및 '국제 예술공동기금' 사업 파트너 국가들과의 비대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위기의 시대에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IFACCA 회원국의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위기대응력을 높였고, 특히 2020년에는 IFACCA 이사기관으로 선출됨에 따라 10개국 이사기관과의 정기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당면 과제들을 공유하고, 범국가적 지원정책을 고안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 분야의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연대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의장기관으로도 활동하며, 아시아 권역 간 공동협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코로나19가 완화된 2022년은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었는데, '꿈의 우유(The Milk of Dreams)'라는 주제로 마련한 2022년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가 외신으로부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놓칠 수 없는 전시, 꼭 봐야 할 전시', 'TOP10' 등 호평 속에 1995년 한국관 개관 이후 역대 최다 관람객인 566,013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르코미술관은 공공미술관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예술창작과의 가교로서 동시대의 시각예술 담론 생성 및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이동성과 지역성, 포용성·다양성, 예술과 기술 등을 주제로 5건의 전시에서 관람객 약 3만 명에 이르는 등 성황을 이루었고 미술관, 창작자, 고객 및 향유자의 접근성·연결성·다양성 논의를 위한 워크숍 등 공공 프로그램에도 56,201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은 공공극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지구적 현안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대관공연 생분해성 홍보물 제작지원(PET 소재 홍보물 유입 전년 대비 80% 감소), 에코 폰트 문서 적용(2022년 약 70건), 매표소 '티켓 봉투 다시 쓰기' 캠페인 시행, 대학로예술극장 객석등을 LED로 100% 교체하였다. 또한 작품별 특성에 맞는 배리어프리 이용법 제공 및 장애인 대상 이용 안내문(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하였고, 상해보험 의무화로 인식개선 및 작업자 권익 보호를 실천하였다.

예술의 미래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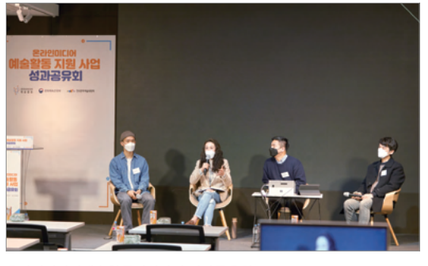
〈아트앤테크 활성화 창작지원 사업〉은 우리 생활 속에 급속히 스며드는 과학기술을 예술에 접목해 예술 표현과 창작이 더 확장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예술 성장을 위해 기초예술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기술융합 예술창작 및 창작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기존 공연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다원예술까지 장르가 확대되었고,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창작지원금이 대폭 증액되었다.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작품별 심화 워크숍 및 자문·기술 컨설팅 과정을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 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현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지원 체계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9년에 비해 지원 건수(227건)와 지원 금액(19억 6,000만 원) 모두 2배 이상 확대되었다.

또한 지원 영역 확장과 다각화로 예술계 변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 융합 사업 확대하기 위해 창작 교류 촉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예술과기술융합주간 학계토론회(2021. 2.)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지원사업 성과공유회(2021. 3.)

위한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57억 원), 메타버스의 속성 및 기술을 활용하여 〈확장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예술 표현방식 실험 및 발표 지원〉(15억 원), 순수예술 분야 기반으로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원〉(47억 원)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기반 조성을 위해 예술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플랫폼 구축하여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artson.arko.or.kr) 콘텐츠 공유 누적 2,900여 건 등을 달성하였고, 아르코데이터랩(lab.arko.or.kr)을 개설하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활용사례 정보 등을 제공하여 2022년 융복합데이터 10종(누적 68종) 생산·개방, 데이터 활용 766건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술인력 육성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예술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2021년 대비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예산을 3배 증액한 30억 원을 책정하고 네트워킹 및 교육 등도 병행 추진하였고, 청년예술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3억 원을 지원하였다.

공연예술 발전 및 무대기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41개의 무대기술 교육과정에 700명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지역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에는 7개 권역 970명이 참여하여 역량 개발에 힘썼다. 문화예술인력·교육 통합 플랫폼 〈문화예술, 내 일(hrd.arko.or.kr)〉은 관계기관 교육 콘텐츠 제휴·협력 확대, 맞춤형 교육 추천 기능을 신설하였고, 각종 신규 교육 콘텐츠를 추가하여 개인, 기관, 기업, 지역문화재단 등 10,4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하였는데, 예술인력 취업박람회 온라인 잡마켓을 확대하여 개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연수단원(2022년 54명)의 고용전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상생 일자리 구현을 위해 장애 예술인력 채용단체를 우선 지원하여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진흥 부문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지원〉과 〈예술의 관광자원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이었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은 2020년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2022년에 지방이양되면서 관련 사업예산이 크게 축소되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예술단체가 공연장과 협력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하고 우수한 레퍼토리 프로그램을 상시 수행하도록 하여 전문공연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의 운영활성화와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시·도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시기, 예술위원회는 안전한 극장운영방안 제공으로 상주단체 공연장의 셧다운 상황에서도 전체 142개 사업을 모두 진행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문화재단이 주관, 운영하며, 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하였던 본 사업은 2022년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었다.

[표 10-9]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지역문화 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6,187	6,187	-	22년 지방이양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270	270	220	21년 내역사업 통합
	아르코공공예술사업	4,000	3,500	3,250	
	소계	10,457	9,957	3,470	
예술의 관광자원화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참가 및 해외진출지원	1,210	-	-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	1,099	-	-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	1,200	-	-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2,145	1,973	1,677	
	전통공연예술활성화	-	4,806	4,050	21년 내역사업 통합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2,585	-	-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	2,083	1,750	
	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원	2,150	-	-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681	-	-	21년 폐지
	소계	11,070	8,862	7,477	

〈아르코공공예술사업〉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0년 예술위원회의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아르코공공예술사업은 '공공장소 속의 미술작품'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한 예술활동으로 사업의 외연을 보다 넓게 설정해, 공공성과 예술성을 갖춘 아이디어가 창의적 접근 과정을 통해 우수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업 특성에 따라 관리활용형, 자율실행형, 주제발전형, 연구지원형 등 총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2020년에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예술 캠페인 '기후시민 3.5'를 진행하였다. 이는 인구의 3.5%가 행동하면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연구에서 착안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응 의지를 촉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시각, 건축, 디자인 등 예술인, 연구자, 국내외 시민단체,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120여 개의 예술활동, 캠페인, 연구, 출판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대규모 프로젝트 내에서 추진했던 '어린이 바다 그리기 대회' 등은 2022년에도 지속 추진되고 있다. 2021년에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한 공공예술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예술을 통해 동시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담론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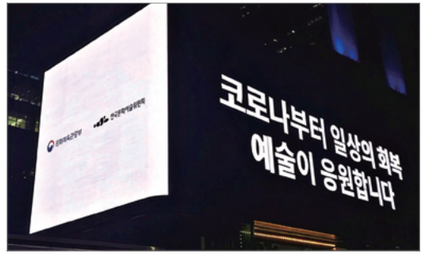
예술향유기회 확대

예술향유기회 확대 부분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사업들로, 주요 사업으로는 다양한 장벽으로 문화예술향유기회가 제약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10] 예술향유기회 확대 사업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0	2021	2022
문화예술 향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103,324	126,094	188,068
	신나는예술여행	24,229	24,229	21,574
	방방곡곡문화공감	15,750	16,800	16,632
	소계	143,303	167,123	226,274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579	1,578	2,208
	문화예술기부활성화	19,980	17,805	15,372
	원로문예인복지지원	108	101	87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자료원운영)	2,210	2,210	4,004
	소계	23,877	21,694	21,671



2021 예술로치유프로젝트 _ 강이연 작가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2021 예술로치유프로젝트 _ 인천국제공항 신년음악회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중밀집시설이 폐쇄되고 예술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 심리적 상흔이 큰 해로, 복지부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의한 정서 약화 경험률이 85%, 우울감 경험률은 40.7%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를 겪는 국민을 위한 사회적 치유와 응원이 시급했다. 이에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술을 통한 국민의 정서 치유와 응원을 목적으로 〈예술로치유프로젝트〉를 기획했다. 2020년 코로나19 전담병원 12곳을 방문한 〈힘나는 예술여행〉에 이어, 2021년은 예술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시, 공연과 방송 프로그램 등 국민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일반에게는 '문화누리카드'로 알려진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1인당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혜대상 인원 100%를 지원하여 232만 명이 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만 14세 미만 대리 신청의 범위를 기존 친권자에서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고령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전화 결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런 결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공익사업 부문 성과평가에서 9연 연속 '우수'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방문처(수요처) 맞춤형 프로그램 매칭 및 신규 수요처 발굴(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병원 등)을 통해 기존 13개 유형에서 18개 유형으로 더 세분화함으로써 수혜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지원 확대를 통한 수도권 지역과의 문화예술 격차 해소 및 완화에도 노력하였다. 심의 및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단체 별도 공모 및 지역문화재단과 협력하여 홍보·행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비수도권 예술단체 지원 건수가 2021년 4건에서 2022년 16건으로 4배 증가하였고, 〈대관료 지원사업〉에서도 지역 소재 예술단체에 대관료 260건(4억 원)이 지원되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은 지역 간 문화향유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문예회관의 자생적 공연 기획·제작·유통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비수도권 문예회관 지원 비율이 2021년 대비 1.3%p 상승하였고 수혜인원도 54%가 증가하였다.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후원 매개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2012년부터 예술위가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예술나무 캠페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캠페인을 2022년부터 재개하여 일반 시민·예술가 및 기부 관심고객·내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예술기부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가치를 공유하였다.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부 의지를 확산 확산하기 위해 기부 예우 등급 재정비 및 정보관리 등 기부자 관리체계를 개선하였고, 접점 강화 방식의 예우프로그램(2022년 예술나무 기부자 354명)을 운영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의 재원 조성 다각화 및 충성 기부자 그룹 조성을 지원하여 2022년 크라우드 펀딩 126건 성공, 기부자 67,168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적 자산으로서 문화예술 가치 보존에도 힘썼다. 예술기록원은 예술기록물 수집·생산 체계 고도화와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위해 사전 연구 강화·제작 과정 개선 등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구술 채록 15인 등 높은 품질의 예술기록물을 확보(공연영상 32편)하였고, 원본성 유지 관점을 최우선으로 고품질 디지털 기록을 생성하였다. 수장고, 열람실, 사무실 등 공간 리노베이션을 통해 신규 수장공간을 확보하고 방문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소장 기록물 정보 검색 안내 도구(Finding Aid) 개발 및 열람 예약 기능 제공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PART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史

11.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한 새로운 시작

1. 제8기 예술위원회 출범(2023. 1.)

2023년 1월 10일 제8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제8기 위원회 출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2022년 10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예술현장으로부터 추천), 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후보자 137명에 대한 심사 진행, 분야별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제8기 위원회는 연극·전통예술·미술·문화일반 분야에서의 현장 경험, 전문성,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소통 능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지원 정책과 사업을 통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의 힘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장애인예술, 지역문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와 문예기금 확충, 정책기능 강화 등 예술위원회 운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 예술경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제8기 위원회는 남녀 각 5명(42%), 7명(58%)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적극 고려해 위촉했다.

[표 11-1] 제8기 위원회 구성

성명	임기	주요 경력
 정병국(1958)	2023. 1. 10.~ 2026. 1. 9.	• 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원(제16대~제20대)
 장인주(1967)	2021. 2. 21.~ 2024. 2. 20.	• 現 무용평론가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초빙부연구위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 • 서울문화재단 이사 • 국립현대무용단 이사
 정정숙(1958)	2021. 2. 21.~ 2024. 2. 20.	• 現 한국문화기획평가 연구소 소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종열(1967)	2021. 2. 21.~ 2024. 2. 20.	• 現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학과장 • 한국작곡가협회 사무총장, 부이사장 • 21세기악회 회장
 김미라(1968)	2023. 1. 10.~ 2026. 1. 9.	• 現 아이안피앤케이대표 • 現 아이안 뉴미디어연구소 소장 • 現 문화재청 미디어아트 전문위원 • 現 석남이경성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도시빛정책자문단 위원 • 가나아트센터 수석큐레이터
 김진각(1966)	2023. 1. 10.~ 2026. 1. 9.	• 現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재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평가위원 • 한국관광공사 미래전략자문위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시청자 위원 • 한국일보사 편집국 부국장
 배은주(1967)	2023. 1. 10.~ 2026. 1. 9.	• 現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 現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 • 現 서울시 강서구청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現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 現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센터 센터장
 서승미(1970)	2023. 1. 10.~ 2026. 1. 9.	• 現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경인교육대학교 부총장 • 한국음악교육학회 상임이사 • 서울문화재단, 국가유산청 심의위원 •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국악콘텐츠 개발 및 기획 총괄 • 국립국악원 정단원 역임
 이훈경(1973)	2023. 1. 10.~ 2026. 1. 9.	• 現 극단 제자백가 대표 • 現 한국연극협회 이사 • 現 서울시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부위원 • 제18회 창작공간연극축제 위원장 • 제6대 서울연극협회 이사 • 서울문화재단 심의위원
 장미진(1964)	2023. 1. 10.~ 2026. 1. 9.	• 現 작가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융성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강사, 겸임·초빙교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 책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책보좌관 • 국립예술자료원 사무국장
 정갑영(1954)	2023. 1. 10.~ 2026. 1. 9.	• 現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 • 現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 한국방문의 해 위원 • 청운대학교 공연기획 경영학과 초빙교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홍성태(1955)	2023. 1. 10.~ 2026. 1. 9.	• 現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現 모비브 아카데미 대표교수 •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 엘지생활건강, 현대카드 외 다수 사외이사

제8기 위원회의 임기는 3년(2023. 1. 10.~2026. 1. 9.)이며, 2021년 2월 임명된 3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이 8기 위원회를 시작했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2020년 6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정병국 위원이 선출됐다.

2. 제8기 예술위원회 활동

기관경영

제7기·제8기 위원회 간담회 추진

2023년 2월 23일에는 8기 위원회와 전임 제7기 위원회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5년 위원회 전환 이후 최초의 일로, 문화예술계와의 정책적 소통을 강조하는 신임 정병국 위원장이 전·후임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문화예술계 활성화 방안과 기관·사업 운영의 현안을 논의했으며, 제7기 위원들은 제8기 위원회 출범 이후 공적인 역할과 예술인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병국 위원장은 예술위원회가 한국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모인 협치형 위원회라는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전·현직 위원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인이 바라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상설 소위원회 및 비상설 TF 구성

제8기 위원회는 예술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션 중심 소위원회 및 TF로의 개편을 추진했다. 상설 소위원회는 경영개선소위원회, 예술후원활성화소위원회, 윤리·인권소위원회를 두었으며, 2023년 당면한 예술위원회 현안을 다루기 위해 심의제도운영개선 TF, 뉴서울CC운영개선 TF,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등 3개 비상설 TF를 신설하여 예술현장과의 소통 확대, 예술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표 11-2] 상설 소위원회 및 비상설 TF 구성 현황

구분	소위원회명	운영기간	참여위원	
상설	경영개선소위원회	2023. 4.~ 2024. 3.	내부(3)	정갑영(위원장), 김진각, 서승미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2023. 4.~2024. 3	내부(3)	김진각(위원장), 홍성태, 서승미
			외부(2)	최재호, 김민지
	윤리·인권소위원회	2023. 4.~2024. 3.	내부(3)	장미진(위원장), 배은주, 이훈경
			외부(2)	공재민, 백경태
비상설 TF	심의제도운영개선 TF	2023. 3.~2023. 6.	내부(3)	장인주, 이훈경, 정종열
	뉴서울CC운영개선 대응 TF	2023. 3.~2023. 12.	내부(2)	홍성태, 김진각
			외부(2)	나운동, 한상린
	예술과기술융합 기반구축 TF	2023. 3.~2023. 12.	내부(2)	김미라, 정종열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사업 및 운영시설별 〈대국민 현장업무보고〉 실시

제8기 위원회 출범 한 달 후 〈대국민 현장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현장업무보고는 정책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예술위원회는 2023년도 사업 및 운영시설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나온 주요 질문·의견을 정리하여 문서화하고 답변 내용을 누리집에 게시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정책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장업무보고는 2023년 2월 22일(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시작으로 3월 23일(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까지 사업 및 운영시설별로 14회에 걸쳐 추진됐다. 진흥원에서 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이후, 업무계획을 수립 과정부터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예술현장, 전문가와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표 11-3] 대국민 현장업무보고 일정

구분	일정 및 장소	현장 전문가(가나다순)
신나는 예술여행	2월 22일(수) 14: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김동하((주)토크앤플레이 대표이사) 김영주(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교수) 노복순(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유나영(극단 토끼가사는달 대표) 유영이(서울대학교 건축도시이론연구소 연구원) 최원선(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전문연구원)
예술인력	2월 24일(금) 15: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고민선(서울국제음악제 사무국장) 손상원(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윤현정(독립 큐레이터) 이미경(한국파룻하우스 대표) 이해준(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시각예술·미술관 운영	2월 28일(화) 14: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강승원(부산현대미술관 관장) 김아영(작가) 박남희(제3회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이명옥(사비나미술관 관장) 이윤숙(조각가, 예술공간 봄 대표) 현시원(공간 시청각 대표)
연극·무용	3월 2일(목) 14: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김수정(연출가, 극단 신세계 대표) 방지영(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손정우(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신은주(부산국제춤마켓 대표) 신진호(연출가, 극단 비밀기지 대표) 임정하(댑댄스프로젝트 대표) 장광열(무용평론가) 조남규(대한무용협회 이사장)
청년 예술가	3월 3일(금) 15:00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 카페	김제민(서울예술대학 연극전공 교수) 박진경(시인) 신효진(독립기획자) 이선철(감자꽃스튜디오 대표) 허솔(프로젝트 SOL 대표)
예술극장 운영	3월 6일(월) 14:00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 카페	김풍년(연출가, 극단 작당모의) 이재영(예술감독, 시나브로 가슴에) 박다솔(비평가, 드라마터그) 박해성(극작·연출가, 극단 상상만발극장) 이지현(무용평론가)
문학	3월 7일(화) 14: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고봉준(평론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서령(소설가, 출판인) 김호운(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송지현(한국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 위원장) 유희경(시인, 시집서점 〈위트앤시니컬〉 대표) 장정희((사)방정환연구소 소장)
다원·융합예술	3월 8일(수) 14: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권병준(미디어아티스트) 김인현(퓨처데이즈 예술감독) 성연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신제현(작가/시각예술) 이원곤(단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명예교수) 한수민(드라마터그)
국제교류	3월 9일(목) 10:3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김새미(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고강민(극단 마방진 대표) 권혁규(뮤지엄헤드 책임큐레이터) 윤소진(아트인큐베이터 대표) 이현진(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표)
문화예술후원	3월 9일(목) 15: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강선애(더하우스콘서트 매니저) 강주연(사일런트메가폰 기획자) 문강민(KT & G복지재단 사무처 사업팀장) 유동찬((재)세계청소년문화재단 과장) 이경수(인터파크씨어터 문화사업팀 팀장) 최정숙((주)블루버드씨 이사)
음악·전통예술	3월 10일(금) 14: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김재훈(작곡가) 박선희(前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 박인혜(소리꾼,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대표) 윤중강(평론가) 이용민((재)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정송희(앙상블시나위 대표)
뮤지컬	3월 13일(월) 14:00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 카페	김민정(연출가) 김용제((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오준석(엠제이플래닛 대표) 이종규(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정인석(아이엠컬쳐 대표)
아르코예술기록원 운영	3월 15일(수) 15:00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 카페	김은하(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장) 백두산(연극평론가,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선영(국립극장 학예연구사, 기록학 박사) 이지희(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통합문화이용권	3월 23일(목) 14:00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 카페	김슬기(서울시청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주무관) 도재형(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실 팀장) 연수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윤성민(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주무관) 이윤주(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 정보람(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최진호(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센터장)





〈예술가의집〉, 다시 예술가의 품으로

대학로에 위치한 〈예술가의집(구 서울대 대학본부)〉은 1976년부터 진흥원 본관 건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0년 11월 예술가들의 창작과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인 〈예술가의집〉으로 조성됐다.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며 기존 시설이 노후하고,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공간 활용도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예술위원회는 기존 노후시설 정비와 더불어 공간 접근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공간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23년 5월 26일 〈예술가의집〉은 '집'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1층에는 청년예술가의 작업실이, 2층에는 예술가를 위한 응접실을 마련하며 재개관했다.

[표 11-4] 〈예술가의집〉 공간 이용 계획

구분	공간명	운영계획
1층	〈아르코영아티스트랩〉	• 청년예술가의 작업공간으로 구성 • 예술위원회 대표적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인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에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 개인 창작작업 및 영상장비가 구비된 공동작업 공간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청년예술가의 창작과정을 위해 필요한 소모임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중 운영
2층	〈예술가의집 라운지〉	• 예술가와 일반인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공간 • 청년예술가가 제작한 굿즈, 콘텐츠를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 수시 개최 • 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후원 브랜드인 〈예술나무〉를 통해 청년예술가들이 추진하는 전방위 실험활동 후원 • 핸드드립 커피 추출 과정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운영



"커피 한 잔 할까요?" 위원장과의 대화 〈ARKO EX-PRESSO〉



〈예술가의집〉 공간 재단장 이후, 2023년 6월 5일부터 제8대 정병국 위원장이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위원장과의 대화 프로그램 〈ARKO EX-PRESSO〉를 운영했다. 제7기 위원회에서는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담당했던 현장 접점 기능을, 8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예술가들과 접점을 형성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기탄없이 소통하고 신속하게(Express)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누리집을 통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0분 단위로 사전 신청을 받아 다양한 예술가들과 위원장의 대화가 진행됐다.

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예술현장과 함께

2023년 2~3월에 진행된 사업 및 운영시설별 현장업무보고에서 나온 예술위원회 지원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어렵고, 소액다건·단년도 프로젝트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공모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다. 현장업무 보고가 종료된 이후 사업별 개편 방향을 수립(3~5월)하고,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개편의 틀을 정비했다. 5~8월 기간 사업별 공고문 초안을 작성했으며, 작성된 공고문 초안은 8월 한 달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관련 의견과 질문을 수집하도록 했다. 이후 9월 초 온오프라인으로 분야별 공청회를 거쳐 2024년 공모사업 공고문을 확정하여, 10월 공모사업을 개시했다.





사업운영

창작지원 영역

제8기 위원회 출범 이후 창작지원 영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위원회 출범 직후 현장업무보고 등 사업구조 진단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 44개에 달하는 복잡다단한 공모사업 구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17개로 최대한 단순화했다. 기존 백화점식 나열

[그림 11-1] 2023년도 공모사업 대비 2024년도 공모사업 비교표

창작영역

2023년도 공모사업		2024년도 공모사업
분야	사업(총 44개)	사업(총 17개)
문학	창작의과정#문학	[준비] 창작의 과정 — 모든장르
시각예술	창작의과정#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의과정#공연예술_사전제작	
	창작의과정#공연예술_사전연구	
공공예술	창작의과정#공공예술	
다원예술	창작의과정#다원예술	
어린이	창작의과정#어린이청소년	
예술기술	창작의과정#예술과기술	
문학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발표] 창작산실 — 문학 | 시각예술 공연예술 | 다원예술
	(문학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시각예술	(시각예술창작산실)우수전시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비평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지원	
공연예술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	
예술기술	예술과기술유형①아이디어 기획구현 지원	
	예술과기술유형②기술융합 창제작 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문학	(문학창작산실)문예지발간지원	[핵심 플레이어] 창작주체 — 문학 | 시각예술 공연예술 | 다원예술
	(문학창작산실)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시각예술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시각예술창작산실)공간지원(사립미술관)	
공연예술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공연창작산실)지속연주지원_음악, 전통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_민간소공연장지원	
예술기술	예술과기술유형③우수작품 후속지원	
다원예술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정책영역

2023년도 공모사업		2024년도 공모사업
분야	사업(총 44개)	사업(총 17개)
국제교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 국제예술공동기금 국제교류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	
일자리	문학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현장예술인력지원 일자리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청년예술가	예비예술인지원 1)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청년예술가
	예비예술인지원 2)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육성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향유	신나는예술여행	• 신나는예술여행 •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향유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_창작의발표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_창작협력단	
공연예술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지속활용형)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자율실행형)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주제심화형)	






서울예술대, 현장워크숍 및 네트워킹(좌)
동서대, 창단공연 멘토링(우)

한양대, 공연장 현장실습(좌)
극단각인각색, 공연창작과정 멘토링(우)

구조의 사업을 창작 영역과 정책 영역으로 크게 분류했고,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했다. 창작 영역은 장르 공통으로 단계별 지원 구조를 적용했으며, 정책 영역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존 사업들을 통합 및 재배치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관점을 기존 프로젝트 중심에서 핵심 플레이어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기존 세세한 사업 목적과 틀에 갇혀 관행적인 지원사업이 운영되던 것을 개선하고, 현장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확대하는 것에 지원사업 개편 목적을 두었다.

한편, 제8기 위원회 출범 이후 구성된 '심의제도운영개선 TF'를 통해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공정성, 현장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재구성했다. 청년예술가 지원 신규사업으로 예술대학(원) 재학생의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비 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전국의 20개 대학, 19개 단체(컨소시엄 포함 158개 단체), 총 4,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예비 예술인 지원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다수 확보했다.

향유 사업 영역

예술위원회의 대표적 문화향유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대상자의 문화향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발급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명 확대(263만 명→267만 명)됐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발급방식을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권리구제

[표 11-5]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성과

발급자 수 증가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발급자 지원금 이용률 향상	
2022	2023(11. 16. 기준)	2022	2023	2022	2023(11. 21. 기준)
2,319,973	2,512,046	87.4	87.6	88.97	73.84

서비스(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 선제 발굴 서비스)를 확대하여 정책대상자 신규 가입을 촉진했으며, 연도 중반 혜택 자격을 얻은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맞춤 안내가 가능하도록 민간 플랫폼(카카오, 네이버)과 연계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외에도 네이버, 토스, KB Pay 등 민간 앱과 연계하여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낙인효과를 완화했다.

예술위원회의 또 다른 문화향유 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 공모형 사업〉은 고객맞춤형 공모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콘텐츠를 확보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술위원회의 창·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 등 우수콘텐츠를 발굴하고, 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수행 회차, 방문처 배정 등의 선택권을 강화했으며, 선정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했다. 〈신나는 예술여행 기획형 사업〉은 공모사업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추진됐다. 나주 지역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4회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문화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보급했다(6개 지역, 6회). 대국민 접점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 거점 철도역 등 국민 이용 다중밀집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했다(4개 지역, 6회 등).

또한, 사무처 내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예술로 소풍〉, 〈아트트럭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문화향유 영역을 넓혔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 영역

예술위원회는 2023년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인 및 기업의 예술후원 인식 확산을 위해 9월 말 88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의 성격으로 개최된 〈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은 8,831명이 방문했으며, 소위 '놀면서 기부'하는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의 티켓 판매를 통해 예술나무 기부금 136,070,379원이





모였고, 신규 후원자는 290명 증가했다. 또한 〈아트포레스트 페스티벌〉에 기업 참여를 확대해 민간 차원의 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유도했다. 국민은행, 세아제강, 한미약품, 호반문화재단, 케이옥션 등 6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1억 7,000만 원의 후원금이 유치됐다.

행사 이후에는 월간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고객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술의 가치 확산 활동을 통해 잠재 후원자가 중요한 기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교류 영역

국제교류 영역에서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대표 기관으로서 2023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IFACCA(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 국제총회에서 〈제10차 문화예술 세계총회(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 개최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23년 10월 IFACCA 이사회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사진 만장일치로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본 행사 유치를 통해 국제 문화예술교류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국가 간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30주년을 맞이한다. 2023년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관 특별전시 개최를 준비하는 한 해를 보냈다. 이 행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술위원회는 한국관 운영과 특별전시 및 주요 부대행사 기획·운영을 담당할 전담부서(전시운영 TF)를 신설했다. 역대 미술전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 39인의 한국작가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이는 하이라이트 전시, 아카이브 전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3. 문화예술 생태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예술이 세상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채워준다는 진실을 믿는다. 그 진실이 바로 우리 삶의 끈이고, 그 믿음이 우리 세계의 힘이다. 예술위원회는 새로운 50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50년 고도의 성장시대를 지나오며 우리는 인류의 모든 문명이 자본과 기술을 가진 소수의 강대국에 집중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그러나 '하드파워'로 대변되는 국력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문화예술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생명의 원천과 동력을 찾고 있다.

오늘날 정치, 지역, 진영, 계층, 세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의 모든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되며 그 비용 규모도 매우 크다. 문화예술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 다름의 공감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높아진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술의 힘이다.

예술위원회는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예술창작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을 창작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예술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힘쓰며, 창작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와 예술 창조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게 예술과 국민이 다양한 접점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이 어떤 경계도 없이 예술로 발길을 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예술이 주는 창조의 기쁨을 공유했을 때 예술의 가치는 사회로 더 뻗어나갈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고 싶었던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은 백여 년이 지나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K-컬처로 대표되는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문화예술의 힘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해외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거나 그 트렌드에 맞춰 한국문화가 변화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우수한 예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등

한국예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5년 문화예술 세계 총회의 한국 유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예술지원기구 대표자, 연구자,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 문화의 글로벌 리더십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문화강국은 지난 50년간 묵묵히 지탱해 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없었다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금 고갈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랫동안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 예술계의 응원과 지지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모두는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고 느껴왔다. 새로운 50년을 맞이하여 문화예술 생태계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공공의 역할을 좀 더 세밀하게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것이다.